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음악학박사 학위논문

남창 우조 가곡의 연음표에 따른 선율 분석 연구

2021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음악학과 음악전공

허 윤 재

남창 우조 가곡의 연음표에 따른 선율 분석 연구

지도교수 김 우 진

이 논문을 음악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음악학과 음악전공
허 윤 재

허윤재의 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0년 12월

위 원 장 김 승 근 (인)
부위원장 이 지 영 (인)
위 원 변 미 혜 (인)
위 원 김 민 정 (인)
위 원 김 우 진 (인)

국 문 초 록

본고는 남창 우조 가곡 중 이수대엽 계열, 초수대엽·삼수대엽, 소용이, 우락·언락의 사설에 따라 변하는 노래선율을 『가곡원류』에 기보된 <연음표>와 『하규일보』를 바탕으로 선율형과 곡들의 상관관계에 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각 곡에 기보된 <연음표>의 특징을 음높이를 나타내는 <연음표>와 연결형 <연음표>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음높이와 관련된 <연음표>의 경우 '드는표'는 높은음, '막내는표'는 중간음, '누르는표'는 낮은음에 주로 기보되었다. '드는표'와 '막내는표'는 우조 이수대엽 계열보다 초수대엽의 시작음이 높았고, 소용이에서 가장 높은음이 나타났다. 또한, 소용이는 이수대엽 계열과 초수대엽·삼수대엽에 기보되지 않았던 박에 <연음표>가 기보되는 특수한 양상을 보였다. 이는 시조의 형식이 평시조에서 사설시조로 변화하며 <연음표>의 활용 역시 변화한 것으로 추측되었다. 우락의 '드는표'는 초수대엽과 이수대엽 계열의 시작음이 모두 나타났고, '막내는표'는 오히려 시작음이 낮아진 것을 볼 수 있었다. 두 <연음표>는 초수대엽보다 삼수대엽, 우락보다 언락에서 시작음과 선율형이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초두 또는 일각보다 이두에서 다양한 특징이 나타났다. 사설이 확대되는 우락·언락의 제3·5장 일각은 '드는표'가 가장 많이 기보되어 그에 따른 선율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누르는표'도 '드는표', '막내는표'와 같은 양상을 보이나 삼수대엽 이후의 곡부터는 소용이 초장 초두와 언락 제4장 외에 '누르는표'가 기보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율형을 파악할 수 없었다.

연결형 <연음표>의 경우 '든흘림표'는 대부분 '드는표'로 연결하여 상행 음형이 주로 나타났고, '연음표'는 '드는표'보다 낮은 시작음, 또는 '막내는표'에 준하는 음으로 연결하여 상행·하행 음형을 모두 볼 수 있었다. 또한, 곡이 빨라질수록 음형이 단순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시작음은 이수대엽 계열보다 초수대엽·삼수대엽이 높았고, 소용이에서 가장 높은 음이 나타나 음높이를 나타내는 <연음표>와 같은 특징을 보였다. 소용이

를 제외한 이수대엽 계열과 초수대엽·삼수대엽에서 연결형 <연음표>는 요성하는 음형이 나타났다. 우락은 이수대엽 계열보다 높고 초수대엽·삼수대엽보다 낮은음으로 시작해 요성하는 음형이 나타나고, 언락은 앞의 곡에서 나왔던 <연음표> 음형이 모두 있으므로 가장 다양한 형태의 음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연음표>에 따라 동일·유사하게 나타나는 선율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각 곡의 초장 초두는 <연음표>에 따라 곡의 특징이 뚜렷하게 드러나 같은 계열 안에서 곡들을 구분하는 역할을 하였다. 다만, 삼수대엽과 언락의 '드는표'와 이수대엽과 중거의 '누르는표'의 선율형이 유사하였다. 초장 이두는 삼수대엽·소용이·언락에서 '드는표'의 선율형이 유사해 연관성을 찾을 수 있었다.

제2장 초두는 '드는표'가 초수대엽·우락·언락의 선율형과 이수대엽·평거의 선율형으로 나뉘고, '막내는표'는 이수대엽·중거의 선율형과 삼수대엽·언락의 선율형으로 나뉘었다. 제2장 이두는 각 곡의 <연음표>에 따른 선율형이 모두 다르게 나타났다. 그러나 두거의 '드는표'와 삼수대엽의 '누르는표' 선율형이 동일하여 두 곡의 연관성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중거의 '드는표'는 두거를 제외한 이수대엽 계열에서 동일하게 나타났으나 <연음표>는 생략되어 있으므로 오기 및 생략에 대한 판단은 어렵다.

제3장 일각 첫 박은 초수대엽과 삼수대엽의 '막내는표'가 동일한 선율형으로 나타났다. 일각 제6박은 '드는표'가 이수대엽·평거·두거 세 곡의 선율형과 초수대엽·삼수대엽 두 곡의 선율형으로 뚜렷하게 나뉘었고, '막내는표'는 초수대엽·삼수대엽에서 동일한 선율형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준으로 확대된 제3장 일각의 선율형을 살펴보면, 우락의 확대된 제3장 일각 제6박의 '드는표'는 초수대엽·삼수대엽의 제3장 일각 제6박의 '드는표' 선율형과 유사하였다. 확대된 제3장 일각 제9박의 '드는표'는 南으로 시작하는 선율형일 경우 우락·언락 두 곡이 동일하였고, 太로 시작하는 선율형은 삼수대엽 제3장 일각 제9박의 '드는표'와 선율형이 유사하였다. 우락의 반각에 기보된 '드는표'도 삼수대엽과 유사한 선율형으로 유기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제3장 이두의 '드는표'는 중거와 언락, '막내는표'는

평거·두거·삼수대엽·소용이의 골격음이 각각 동일하였다.

제4장은 ‘드는표’와 ‘누르는표’가 기보되며, ‘드는표’는 이수대엽·중거·평거·두거·삼수대엽의 선율형과 초수대엽·우락·언락의 두 가지 선율형으로 나뉘었고 소용이는 다른 곡과 구분되었다. ‘누르는표’는 이수대엽·중거·평거에 나타나는 선율형, 삼수대엽에서 나타나는 선율형, 언락에서 나타나는 선율형으로 구분되었으며, 두거, 초수대엽, 소용이와 우락은 제4장에 ‘누르는표’가 기보된 사설이 없어 선율형을 파악할 수 없었다.

제5장 일각의 첫 박에서 ‘드는표’는 이수대엽·중거·평거·초수대엽·삼수대엽·언락에서 동일·유사한 선율 형태를 보이며, ‘막내는표’가 기보된 언락과도 동일하였다. ‘누르는표’는 초수대엽과 삼수대엽의 제3·5장 일각 첫 박에 기보되어 있으며, 상호적인 선율형으로 연관성을 알 수 있었다. 제5장 일각의 제6박은 ‘드는표’가 기보된 곡 중 초수대엽과 두거의 선율형이 동일하였고, 언락은 삼수대엽 제3장 일각 제6박의 ‘드는표’와 같았다. ‘막내는표’는 평거와 삼수대엽에서 유사한 선율형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준으로 제5장에 확대된 일각의 선율형을 살펴보면, 언락 제5장 일각의 첫 박은 ‘드는표’가 기보되어 있으며, 확대되지 않은 제5장 일각 첫 박에 ‘드는표’와 골격음이 동일하였다. 확대된 제5장 일각의 제6박은 언락의 ‘드는표’가 초수대엽·삼수대엽 제3장 일각 제6박의 ‘드는표’와 선율형이 유사하였다. 확대된 제5장 일각의 제9박은 우락의 ‘드는표’가 삼수대엽 제3장 일각 제9박의 ‘드는표’와 골격음이 같았다. 제5장 이두는 ‘드는표’가 기보된 우락·언락과 ‘막내는표’가 기보된 언락을 제외한 중거·평거·삼수대엽 세 곡의 선율형이 각각 동일하였다.

종합하면『가곡원류』에 기보된 음높이를 나타내는 <연음표>는 단순한 한 음이 아닌 선율형을 의미하는 것으로 각 <연음표>가 의미하는 선율형을 곡에 따라 유추할 수 있다. 같은 <연음표>에서 나타나는 선율형이 한 곡에서 다양하게 드러날수록 <연음표>는 절대적인 의미보다 상대적인 의미로 기보되며, 시작음은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사설이 많고 곡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졌다.

연결형의 <연음표>는 느린 곡에서 빠른 곡으로 진행할수록 음형이 단순해졌다. 이는 소용이를 기점으로 사설이 늘어나고 곡의 속도는 빨라지

면서 선율형이 단순화되어 두 <연음표>의 역할은 점점 축소된 것으로 보였다. 또한 음높이를 나타내는 <연음표>의 시작음이 높아지는 경향이 보일 때 연결형 <연음표>도 같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상대적인 의미로 기보되더라도 음높이를 나타내는 세 <연음표>의 골격음이 동일·유사하게 나타나 곡들의 유기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유기성은 각 장의 초두 또는 일각의 경우 계열별로 나타나는 반면, 이두는 다른 계열의 곡에서도 <연음표>에 따라 동일한 골격음이 나타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두에 기보된 서로 다른 <연음표>가 동일한 선율형을 가지는 경우도 드러나 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가곡원류』에 실린 사설 중 『하규일보』에 실린 남창 우조 가곡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종합적인 연구가 진행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추후 이 연구를 바탕으로 남·여창 가곡 전반에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기를 희망한다.

주요어 : 남창가곡, 우조, 가곡원류, 하규일보, 연음표
학 번 : 2013-30529

목 차

I. 서론 ····· 1

1. 문제 제기 및 연구목적 ····· 1

2. 선행연구 검토 ····· 3

3. 연구범위 및 방법 ····· 8

II. <연음표>에 따른 선율 유형 연구 ····· 11

1. 『가곡원류』의 <연음표> ····· 11

2. 남창 우조 가곡의 <연음표>와 선율형 연구 ····· 12

1) 우조 이수대엽 계열 ····· 12

2) 초수대엽과 삼수대엽 ····· 53

3) 소용이 ····· 96

4) 우락과 언락 ····· 125

5) 소결 ····· 191

3. <연음표>에 따른 선율의 상관관계 분석 ····· 195

1) 드는표 ····· 195

2) 막내는표 ····· 244

3) 누르는표 ····· 268

4) 소결 ····· 279

III. 결론 ····· 287
참고문헌 ····· 293
부록악보 ····· 296
ABSTRACT ····· 359

표 목 차

<표 1> 연구범위 및 분석 순서 ····· 10
<표 2> 우조 이수대엽 계열 초장의 <연음표> 유형 ····· 14
<표 3> 우조 이수대엽 계열 제2장의 <연음표> 유형 ····· 22
<표 4> 우조 이수대엽 계열 제3장의 <연음표> 유형 ····· 29
<표 5> 남창 우조 이수대엽 계열 제4장의 <연음표> 유형 ····· 37
<표 6> 남창 우조 이수대엽 계열 제5장의 <연음표> 유형 ····· 41
<표 7> 남창 우조 이수대엽 계열 위치별 <연음표> 선율형 정리 ····· 51
<표 8> 우조 이수대엽 계열 '든흘림표'의 음형과 사설 ····· 53
<표 9> 우조 이수대엽 계열 '연음표'의 음형과 사설 구절 ····· 54
<표 10> 우조 초수대엽 제2장의 <연음표> 유형 ····· 56
<표 11> 우조 초수대엽 제3장의 <연음표> 유형 ····· 58
<표 12> 우조 초수대엽 장별 <연음표> 선율형 정리 ····· 71
<표 13> 우조 초수대엽 '든흘림표'의 음형과 해당 사설 ····· 72
<표 14> 우조 초수대엽 '연음표'의 음형과 해당 사설 ····· 72
<표 15> 우조 삼수대엽 초장의 <연음표> 유형 ····· 74
<표 16> 우조 삼수대엽 제2장의 <연음표> 유형 ····· 78
<표 17> 우조 삼수대엽 제5장의 <연음표> 유형 ····· 88
<표 18> 우조 삼수대엽 위치별 <연음표> 선율형 정리 ····· 95
<표 19> 우조 삼수대엽 '든흘림표'의 음형과 사설 ····· 96
<표 20> 우조 삼수대엽 '연음표'의 음형과 사설 ····· 97
<표 21> 남창 우조 소용이 위치별 <연음표> 선율형 정리 ····· 124
<표 22> 우조 소용이 '든흘림표'의 음형과 사설 구절 ····· 125

<표 23> 우조 소용이 ‘연음표’의 음형과 사설 구절 ····· 126
<표 24> 남창 우조 우락 위치별 <연음표> 선율형 정리 ····· 147
<표 25> 우락 ‘든흘림표’의 음형과 사설 ····· 148
<표 26> 우락 ‘연음표’의 음형과 사설 ····· 149
<표 27> 언락 초장의 <연음표> 유형 ····· 150
<표 28> 언락 제2장의 <연음표> 유형 ····· 155
<표 29> 남창 우조 언락 위치별 <연음표> 선율형 정리 ····· 189
<표 30> 언락 ‘든흘림표’의 음형과 사설 구절 ····· 191
<표 31> 언락 ‘연음표’의 음형과 사설 구절 ····· 192
<표 32> ‘드는표’의 선율형 ····· 242
<표 33> ‘막내는표’의 선율형 ····· 268
<표 34> ‘누르는표’의 선율형 ····· 280

예 보 목 차

<예보 1> 우조 이수대엽 제5번(주공도) 초장 <연음표>와 선율 유형 ····· 14

<예보 2> 남창 우조 이수대엽 제3번(강호의) 초장 <연음표>와 선율 유형 ····· 15

<예보 3> 우조 중거 제1(인심은)·4번(창랑에) 초장 <연음표>와 선율 유형 ····· 16

<예보 4> 우조 평거 제3(경성출)·10번(샛별지자) 초장 <연음표>와 선율 유형 ····· 18

<예보 5> 우조 두거 제1(구름이)·14번(녹수청산) 초장 <연음표>와 선율 유형 ····· 19

<예보 6> 우조 평거(3.경성출) 제2장 [일월이] <연음표>와 선율 유형 ····· 21

<예보 7> 우조 이수대엽(3.강호에) 제2장 <십년을> <연음표>와 선율 유형 ····· 22

<예보 8> 우조 이수대엽(5.주공도) [세상사람], 중거(4.창랑에) [조대에] 제2장
<연음표>와 선율 유형 ····· 22

<예보 9> 우조 중거(1.인심은) 제2장 [효제충신] <연음표>와 선율 유형 ····· 23

<예보 10> 우조 평거(10.샛별지자) [호미메고] 두거(1.구름이) [아마도] 제2장
<연음표>와 선율 유형 ····· 24

<예보 11> 우조 두거(14.녹수청산) 제2장 [청려완보] <연음표>와 선율 유형 ····· 25

<예보 12> 우조 평거(3.경성출) 제3장 [삼황] <연음표>와 선율 유형 ····· 28

<예보 13> 우조 두거(14.녹수청산) [천봉에] 제3장 <연음표>와 선율 유형 ····· 30

<예보 14> 우조 이수대엽(3.강호에) [그모든], 평거(10.샛별지자) [긴수풀],
두거(1.구름이) [중천에] 제3장 <연음표>와 선율 유형 ····· 31

<예보 15> 우조 중거(1.인심은·4.창랑에) 제3장 [예의]·[낙조] <연음표>와 선율 유형 ····· 33

<예보 16> 우조 이수대엽 계열 제4장의 '누르는표' 선율 유형 ····· 37

<예보 17> 우조 이수대엽 계열 제4장의 '드는표' 선율 유형 ····· 38

<예보 18> 우조 두거(1.구름이) 제5장 [광명헌] <연음표>와 선율 유형 ····· 40

<예보 19> 우조 평거(10.샛별지자) 제5장 [시절이] <연음표>와 선율 유형 ····· 41

<예보 20> 우조 두거(14.녹수청산) [경개] 제5장 <연음표>와 선율 유형 ····· 42

<예보 21> 우조 중거(4.창랑에) [옥린을], 평거(3.경성출) [태평주] 제5장 <연음표>와 선율 유형 ····· 44

<예보 22> 우조 이수대엽(5.주공도) 제5장 [일호] <연음표>와 선율 유형 ····· 45

<예보 23> 우조 이수대엽(3.강호에) [지중], 중거(1.인심은) [풍우를] 제5장 <연음표>와 선율 유형 ····· 46

<예보 24> 우조 초수대엽 제1번(천황씨) 초장 ····· 54

<예보 25> 우조 초수대엽(1.천황씨) 제2장 [요순에] <연음표>와 선율 유형 ····· 55

<예보 26> 우조 초수대엽(2.남훈전)[팔원팔개]·(3.남팔아)[불가이]·(4.동창이)[노고지리]·(7.동짓달)[한허리를] 제2장의 <연음표>와 선율 유형 ····· 56

<예보 27> 우조 초수대엽(4.동창이)[소치는] 제3장의 <연음표>와 선율 유형 ····· 58

<예보 28> 우조 초수대엽(2.남훈전)[오현금]·(7.동짓달)[춘풍] 제3장의 <연음표>와 선율 유형 ····· 59

<예보 29> 우조 초수대엽(1.천황씨) 제3장 [한당송]의 <연음표>와 선율 유형 ····· 60

<예보 30> 우조 초수대엽(3.남팔아) [웃고] 제3장의 <연음표>와 선율 유형 ····· 61

<예보 31> 우조 초수대엽(1.천황씨)[우리도]·(2.남훈전)[우리도]·(3.남팔아)[천고에]·(4.동창이)[재넘어]·(7.동짓달)[어룬님] 제4장 <연음표>와 선율 유형 ····· 62

<예보 32> 우조 초수대엽(2.남훈전) [성주2] 제5장의 <연음표>와 선율 유형 ····· 63

<예보 33> 우조 초수대엽(1.천황씨) [성주1] 제5장의 <연음표>와 선율 유형 ····· 64

<예보 34> 우조 초수대엽(4.동창이) [사래긴] 제5장의 선율 유형 ····· 65

<예보 35> 우조 초수대엽(3.남팔아) [눈물둔] 제5장의 <연음표>와 선율 유형 ····· 66

<예보 36> 우조 초수대엽(7.동짓달) [오신날] 제5장의 <연음표>와 선율 유형 ····· 66

<예보 37> 우조 삼수대엽 제1번(추강에) 초장 <연음표>와 선율 유형 ····· 73

<예보 38> 우조 삼수대엽 제7번(굴원충혼) 초장 <연음표>와 선율 유형 ····· 74

<예보 39> 우조 삼수대엽 제4번(가마귀), 제19번(적토마) 초장 <연음표>와 선율 유형 75

<예보 40> 우조 삼수대엽 제6번(도화이화) 초장 <연음표>와 선율 유형 ····· 76

<예보 41> 우조 삼수대엽(7.굴원충혼) [채석강의] 제2장의 <연음표>와 선율 유형 ··· 77

<예보 42> 우조 삼수대엽(1.추강에) [일엽주를] 제2장의 <연음표>와 선율 유형 ····· 78

<예보 43> 우조 삼수대엽(4.가마귀)·(6.도화이화) 제2장 [희는듯]·[일년춘광]의 <연음표>와 선율 유형 ····· 79

<예보 44> 우조 삼수대엽(1.추강에) [낚대를] 제3장의 <연음표>와 선율 유형 ····· 80

<예보 45> 우조 삼수대엽(4.가마귀) <야광> 제3장의 <연음표>와 선율 유형 ····· 81

<예보 46> 우조 삼수대엽(6.도화이화) [너희는] 제3장의 <연음표>와 선율 유형 ····· 82

<예보 47> 우조 삼수대엽(7.굴원충혼) [이적선] 제3장의 <연음표>와 선율 유형 ····· 83

<예보 48> 우조 삼수대엽(19.적토마) [용천검] 제3장의 <연음표>와 선율 유형 ····· 84

<예보 49> 우조 삼수대엽(1.추강에)[저희도]·(6.도화이화)[우리는]·(7.굴원충혼)[이제는] 제4장 '드는표'의 선율 유형 ····· 85

<예보 50> 우조 삼수대엽(4.가마귀)·(19.적토마) [님향한]·[장부의] 제4장 '누르는표'의 선율 유형 ····· 86

<예보 51> 우조 삼수대엽(1.추강에) [사람의] 제5장의 <연음표>와 선율 유형 ····· 87

<예보 52> 우조 삼수대엽(4.가마귀) [일편] 제5장의 <연음표>와 선율 유형 ····· 88

<예보 53> 우조 삼수대엽(6.도화이화)·(7.굴원충혼)·(19.적토마) 제5장 [백세]·[새로난]·[입신] 사설 <연음표>와 선율 유형 ····· 90

<예보 54> 우조 소용이 제1(어젯밤도)·5번(불아니) 초장 <연음표>와 선율 유형 ····· 97

<예보 55> 우조 소용이 제3번(아마도) 초장 <연음표>와 선율 유형 ····· 99

<예보 56> 우조 소용이 제7번(저건너) 초장 <연음표>와 선율 유형 ····· 100

<예보 57> 우조 소용이(1.어젯밤도) 제2장 [지난밤도] <연음표>와 선율 유형 ····· 102

<예보 58> 우조 소용이(3.아마도) 제2장 [우리군친] <연음표>와 선율 유형 ····· 103

<예보 59> 우조 소용이(5.불아니) 제2장 [여무죽] <연음표>와 선율 유형 ····· 104

<예보 60> 우조 소용이(1.어젯밤도) 제3장 [어인놈의] 연음기보법과 선율 유형 ····· 106

<예보 61> 우조 소용이(3.아마도) 제3장 [성주유덕] <연음표>와 선율 유형 ····· 107

<예보 62> 우조 소용이(5.불아니) 제3장 [길삼] <연음표>와 선율 유형 ····· 108

<예보 63> 우조 소용이(7.저건너) 제3장 [털돋치고] <연음표>와 선율 유형 ····· 109

<예보 64> 우조 소용이 네 곡의 중여음 선율 ····· 112

<예보 65> 우조 소용이 (1.어젯밤도)[오늘은]·(3.아마도)[억조창생들이]·(5.불아니)[평생에]·(7.저건너)[두었다가] 제4장 <연음표>와 선율 유형 ····· 113

<예보 66> 우조 소용이(1.어젯밤도) 제5장 [그리든] <연음표>와 선율 유형 ····· 114

<예보 67> 우조 소용이(3.아마도) 제5장 [연풍의] <연음표>와 선율 유형 ····· 115

<예보 68> 우조 소용이(5.불아니) 제5장 [이다섯가지] <연음표>와 선율 유형 ····· 116

<예보 69> 우조 소용이(7.저건너) 제5장 [임이별] <연음표>와 선율 유형 ····· 117

<예보 70> 우락 제13번(이선이) 초장 <연음표>와 선율 유형 ····· 126

<예보 71> 우락 제9번(임으란) 초장 <연음표>와 선율 유형 ····· 127

<예보 72> 우락 (9.임으란)[나는 삼사월]·(13.이선이)[나귀목에] 제2장의 <연음표>와 선율 유형 ····· 128

<예보 73> 우락(9.임으란) 제3장 [그남게 감기되] 선율 ····· 130

<예보 74> 우락(9.임으란) 제3장 일각② 선율형 ····· 131

<예보 75> 우락(9.임으란) 제3장 일각③ 선율형 ····· 131

<예보 76> 우락(9.임으란) 제3장 일각④ 선율형 ····· 132

<예보 77> 우락(9.임으란) 제3장 일각⑤-⑥ 선율형 ····· 133

<예보 78> 우락(13.이선이) 제3장 [천태산] 선율 ····· 135

<예보 79> 우락(13.이선이) 제3장 일각① 선율형 ····· 135

<예보 80> 우락(13.이선이) 제3장 일각④ 선율형 ····· 136

<예보 81> 우락(9.임으란)[동섣달]·(13.이선이)[저건너] 제4장 <연음표>와 선율 유형138

<예보 82> 우락(9.임으란) 제5장 [바람비] 선율 ····· 139

<예보 83> 우락(9.임으란) 제5장 일각① 선율형 ····· 140

<예보 84> 우락(9.임으란) 제5장 이두 선율형 ····· 141

<예보 85> 우락(13.이선이) 제5장 [채운 어린곳에] 선율 ····· 142

<예보 86> 우락(13.이선이) 제5장 일각① 선율형 ····· 142

<예보 87> 우락(13.이선이) 제5장 일각② 선율형 ····· 143

<예보 88> 언락 제3번(백구는) 초장의 <연음표>와 선율 유형 ····· 150

<예보 89> 언락 제6(벽사창이)·25번(일월성신) 초장의 <연음표>와 선율 유형 ····· 151

<예보 90> 언락 제8(푸른산중)·20번(아흔아홉) 초장의 <연음표>와 선율 유형 ····· 152

<예보 91> 언락(25.일월성신) 제2장 [산하토지] <연음표>와 선율 유형 ····· 155

<예보 92> 언락(3.백구는) 제2장 [장송은] <연음표>와 선율 유형 ····· 156

<예보 93> 언락(6.벽사창이) 제2장 [임만여겨] <연음표>와 선율 유형 ····· 157

<예보 94> 언락 (8.푸른산중)[고요독좌]·(20.아흔아홉)[탁주를] 제2장의 <연음표>와 선율 유형 ····· 158

<예보 95> 언락(3.백구는) 제3장 [대야동두] 선율 ····· 160

<예보 96> 언락(3.백구는) 제3장 일각① 선율형 ····· 160

<예보 97> 언락(3.백구는) 제3장 일각③ 선율형 ····· 161

<예보 98> 언락(6.벽사창이) 제3장 [임은 아니오고] 선율 ····· 162

<예보 99> 언락(6.벽사창이) 제3장 일각① 선율 ····· 163

<예보 100> 언락(6.벽사창이) 제3장 일각③ 선율 ····· 163

<예보 101> 언락(6.벽사창이) 제3장 일각④ 선율 ····· 164

<예보 102> 언락(8.푸른산중) 제3장 [바람불어] 선율 ····· 165

<예보 103> 언락(8.푸른산중) 제3장 일각① 선율형 ····· 166

<예보 104> 언락(8.푸른산중) 제3장 일각② 선율 ····· 166

<예보 105> 언락(8.푸른산중) 제3장 일각③ 선율 ····· 167

<예보 106> 언락(8.푸른산중) 제3장 이두 선율 ····· 167

<예보 107> 언락(20.아흔아홉) 제3장 [납쪽] 선율 ····· 168

<예보 108> 언락(20.아흔아홉) 제3장 일각①－② 선율형 ····· 169

<예보 109> 언락(20.아흔아홉) 제3장 일각④와 이두 선율형 ····· 170

<예보 110> 언락(25.일월성신) 제3장 [일월성신] 선율 ····· 171

<예보 111> 언락(25.일월성신) 제3장 일각① 선율형 ····· 172

<예보 112> 언락(25.일월성신) 제3장 일각② 선율형 ····· 172

<예보 113> 언락(6.벽사창이)[마초아]·(20.아흔아홉)[우리도]·(8.푸른산중)[누구서] 제4장 '드는표'의 선율 유형 ····· 175

<예보 114> 언락(3.백구는)[대취코]·(25.일월성신)[사람은] 제4장 '누르는표'의 선율 유형 ····· 176

<예보 115> 언락(8.푸른산중) 제5장 [산을] 선율형 ····· 177

<예보 116> 언락 제20번(아흔아홉) 제5장 <소년적> 기본형 선율 유형 ····· 178

<예보 117> 언락(25.일월성신) 제5장 [어인연고로] 기본형 선율 유형 ····· 179

<예보 118> 언락(3.백구는) 제5장 [재기수파하여] 선율 ····· 180

<예보 119> 언락(3.백구는) 제5장 일각② 선율형 ····· 181

<예보 120> 언락(6.벽사창이) 제5장 [밤일세만정] 선율 ····· 182

<예보 121> 언락(6.벽사창이) 제5장 일각① 선율형 ····· 182

<예보 122> 언락(6.벽사창이) 제5장 일각② 및 이두 선율형 ····· 183

<예보 123> 남창 우조 가곡의 초장 초두에서 나타난 '드는표' 선율형 (1) ····· 196

<예보 124> 남창 우조 가곡의 초장 초두에서 나타난 '드는표' 선율형 (2) ····· 197

<예보 125> 남창 우조 가곡의 초장 초두에서 나타난 '드는표' 선율형 (3) ····· 198

<예보 126> 남창 우조 가곡의 초장 초두에서 나타난 '드는표' 선율형 (4) ····· 198

<예보 127> 남창 우조 가곡의 초장 이두에서 나타난 '드는표' 선율형 (1) ····· 199

<예보 128> 남창 우조 가곡의 초장 이두에서 나타난 '드는표' 선율형 (1) ····· 200

<예보 129> 남창 우조 가곡의 초장 이두에서 나타난 '드는표' 선율형 (3) ····· 201

<예보 130> 남창 우조 가곡의 제2장 초두에서 나타난 '드는표' 선율형 (1) ····· 201

<예보 131> 남창 우조 가곡의 제2장 초두에서 나타난 '드는표' 선율형 (2) ····· 203

<예보 132> 남창 우조 가곡의 제2장 초두에서 나타난 ‘드는표’ 선율형 (3) ····· 204
<예보 133> 남창 우조 가곡의 제2장 초두에서 나타난 ‘드는표’ 선율형 (4) ····· 204
<예보 134> 남창 우조 가곡의 제2장 초두에서 나타난 ‘드는표’ 선율형 (5) ····· 205
<예보 135> 남창 우조 가곡의 제2장 이두에서 나타난 ‘드는표’ 선율형 (1) ····· 206
<예보 136> 남창 우조 가곡의 제2장 이두에서 나타난 ‘드는표’ 선율형 (2) ····· 206
<예보 137> 남창 우조 가곡의 제2장 이두에서 나타난 ‘드는표’ 선율형 (3) ····· 207
<예보 138> 남창 우조 가곡의 제2장 이두 제4박에서 나타난 ‘드는표’ 선율형 ····· 207
<예보 139> 남창 우조 가곡의 제3장 일각 첫 박에서 나타난 ‘드는표’ 선율형 ····· 208
<예보 140> 남창 우조 가곡의 제3장 일각 제6박에서 나타난 ‘드는표’ 선율형 (1) ··· 210
<예보 141> 남창 우조 가곡의 제3장 일각 제6박에서 나타난 ‘드는표’ 선율형 (2) ··· 211
<예보 142> 남창 우조 가곡의 제3장 일각 제6박에서 나타난 ‘드는표’ 선율형 (3) ··· 212
<예보 143> 남창 우조 가곡의 제3장 일각 제9박에서 나타난 ‘드는표’ 선율형 (1) ··· 213
<예보 144> 남창 우조 가곡의 제3장 일각 제9박에서 나타난 ‘드는표’ 선율형 (2) ··· 214
<예보 145> 남창 우조 가곡의 제3장 확대된 일각 첫 박에서 나타난 ‘드는표’ 선율형 215
<예보 146> 남창 우조 가곡의 제3장 확대된 일각 제6박에서 나타난 ‘드는표’ 선율형 216
<예보 147> 남창 우조 가곡의 제3장 확대된 일각 제9박에서 나타난 ‘드는표’ 선율형 217
<예보 148> 남창 우조 가곡의 락 계열 제3장 일각 중 반각에서 나타난 ‘드는표’ 선율형 ····· 218
<예보 149> 남창 우조 가곡의 제3장 이두 첫 박에서 나타난 ‘드는표’ 선율형 (1) ··· 219
<예보 150> 남창 우조 가곡의 제3장 이두 첫 박에서 나타난 ‘드는표’ 선율형 (2) ··· 220
<예보 151> 남창 우조 가곡의 제3장 이두 첫 박에서 나타난 ‘드는표’ 선율형 (3) ··· 220
<예보 152> 남창 우조 가곡의 제3장 이두 첫 박에서 나타난 ‘드는표’ 선율형 (4) ··· 221
<예보 153> 남창 우조 가곡의 제3장 이두 첫 박에서 나타난 ‘드는표’ 선율형 (5) ··· 221
<예보 154> 남창 우조 가곡의 제3장 이두 제11박에서 나타난 ‘드는표’ 선율형 ····· 222
<예보 155> 남창 우조 가곡의 제4장에서 나타난 ‘드는표’ 선율형 (1) ····· 223

<예보 156> 남창 우조 가곡의 제4장에서 나타난 ‘드는표’ 선율형 (2) ····· 225

<예보 157> 남창 우조 가곡의 제4장 초두에서 나타난 ‘드는표’ 선율형 (3) ····· 226

<예보 158> 남창 우조 가곡의 제5장 일각 첫 박에서 나타난 ‘드는표’ 선율형 (1) ··· 227

<예보 159> 남창 우조 가곡의 제5장 일각 첫 박에서 나타난 ‘드는표’ 선율형 (2) ··· 228

<예보 160> 남창 우조 가곡의 제5장 일각 제4박에서 나타난 ‘드는표’ 선율형 ····· 229

<예보 161> 남창 우조 가곡의 제5장 일각 제6박에서 나타난 ‘드는표’ 선율형 (1) ··· 230

<예보 162> 남창 우조 가곡의 제5장 일각 제6박에서 나타난 ‘드는표’ 선율형 (2) ··· 231

<예보 163> 남창 우조 가곡의 제5장 일각 제9박에서 나타난 ‘드는표’ 선율형 (1) ··· 232

<예보 164> 남창 우조 가곡의 제5장 일각 제9박에서 나타난 ‘드는표’ 선율형 (2) ··· 233

<예보 165> 남창 우조 가곡의 락 계열 제5장 일각① 첫 박에서 나타난 ‘드는표’ 선율형 ····· 234

<예보 166> 남창 우조 가곡의 락 계열 제5장 일각② 제6박에서 나타난 ‘드는표’ 선율형 ····· 234

<예보 167> 남창 우조 가곡의 락 계열 제5장 일각② 제9박에서 나타난 ‘드는표’ 선율형 ····· 235

<예보 168> 남창 우조 가곡의 제5장 이두 첫 박에서 나타난 ‘드는표’ 선율형 ····· 236

<예보 169> 남창 우조 가곡의 제5장 이두 제4박에서 나타난 ‘드는표’ 선율형 ····· 236

<예보 170> 남창 우조 가곡의 초장 초두에서 나타난 ‘막내는표’ 선율형 (1) ····· 244

<예보 171> 남창 우조 가곡의 초장 초두에서 나타난 ‘막내는표’ 선율형 (2) ····· 245

<예보 172> 남창 우조 가곡의 초장 이두에서 나타난 ‘막내는표’ 선율형 (1) ····· 246

<예보 173> 남창 우조 가곡의 초장 이두에서 나타난 ‘막내는표’ 선율형 (2) ····· 246

<예보 174> 남창 우조 가곡의 제2장 초두에서 나타난 ‘막내는표’ 선율형 (1) ····· 247

<예보 175> 남창 우조 가곡의 제2장 초두에서 나타난 ‘막내는표’ 선율형 (2) ····· 248

<예보 176> 남창 우조 가곡의 제2장 초두에서 나타난 ‘막내는표’ 선율형 (3) ····· 249

<예보 177> 남창 우조 가곡의 제2장 이두에서 나타난 ‘막내는표’ 선율형 (1) ····· 250

<예보 178> 남창 우조 가곡의 제2장 이두에서 나타난 ‘막내는표’ 선율형 (2) ····· 250

<예보 179> 남창 우조 가곡의 제3장 일각 첫 박에서 나타난 '막내는표' 선율형 (1) 252
<예보 180> 남창 우조 가곡의 제3장 일각 첫 박에서 나타난 '막내는표' 선율형 (2) 252
<예보 181> 남창 우조 가곡의 제3장 일각 제6박에서 나타난 '막내는표' 선율형 ····· 253
<예보 182> 남창 우조 가곡의 제3장 확대된 일각 첫 박에서 나타난 '막내는표' 선율형 254
<예보 183> 남창 우조 가곡의 제3장 이두 첫 박에서 나타난 '막내는표' 선율형 (1) 255
<예보 184> 남창 우조 가곡의 제3장 이두 첫 박에서 나타난 '막내는표' 선율형 (2) 255
<예보 185> 남창 우조 가곡의 제3장 이두 제4박에서 나타난 '막내는표' 선율형 ····· 256
<예보 186> 남창 우조 가곡의 제5장 일각 첫 박에서 나타난 '막내는표' 선율형 (1) 257
<예보 187> 남창 우조 가곡의 제5장 일각 첫 박에서 나타난 '막내는표' 선율형 (2) 258
<예보 188> 남창 우조 가곡의 제5장 일각 제6박에서 나타난 '막내는표' 선율형 ····· 259
<예보 189> 남창 우조 가곡의 제5장 확대된 일각 제6박에서 나타난 '막내는표' 선율형 260
<예보 190> 남창 우조 가곡의 제5장 이두에서 나타난 '막내는표' 선율형 (1) ····· 260
<예보 191> 남창 우조 가곡의 제5장 이두에서 나타난 '막내는표' 선율형 (2) ····· 261
<예보 192> 남창 우조 가곡의 초장 초두에서 나타난 '누르는표' 선율형 (1) ····· 268
<예보 193> 남창 우조 가곡의 초장 초두에서 나타난 '누르는표' 선율형 (2) ····· 269
<예보 194> 남창 우조 가곡의 초장 초두에서 나타난 '누르는표' 선율형 (3) ····· 269
<예보 195> 남창 우조 가곡의 제2장 초두 제4박에서 나타난 '누르는표' 선율형 ····· 270
<예보 196> 남창 우조 가곡의 제2장 이두에서 나타난 '누르는표' 선율형 ····· 271
<예보 197> 남창 우조 가곡의 제3장 일각 첫 박에서 나타난 '누르는표' 선율형 (1) 272
<예보 198> 남창 우조 가곡의 제3장 일각 첫 박에서 나타난 '누르는표' 선율형 (2) 272
<예보 199> 남창 우조 가곡의 제4장에서 나타난 '누르는표' 선율형 (1) ····· 273
<예보 200> 남창 우조 가곡의 제4장에서 나타난 '누르는표' 선율형 (2) ····· 274
<예보 201> 남창 우조 가곡의 제5장 일각 첫 박에서 나타난 '누르는표' 선율형 (1) 275
<예보 202> 남창 우조 가곡의 제5장 일각 첫 박에서 나타난 '누르는표' 선율형 (2) 276

I. 서론

1. 문제 제기 및 연구목적

가곡은 5장 형식의 시조시를 관현 편성의 반주에 얹어 남·여창으로 노래하는 한국의 전통 성악 중 하나이다.[1] 각 곡은 고정된 한 편의 사설만 노래하지만,[2] 조선말의 여러 가집에 의하면 당시에는 많은 사설을 한 곡체에 얹어 노래하였음을 알 수 있다.[3] 또한, 노랫말이 달라짐에 따라 악곡에도 부분적인 변화가 생기므로, 크게 보았을 때 이들은 서로 다른 노랫말을 사용하는 곡을 개별 악곡으로 볼 수 있다.[4] 따라서 이병성이 정리하고 박영복이 필사한 『선가 하규일 선생 약전』[5]에 남창 84곡과 여창 71곡, 김기수가 편찬한 악보에 남창 100곡[6]과 여창 88곡[7]이 수록되어 있으므로 최대 188곡이 전해진다.

노랫말이 달라짐에 따라 악곡에 생기는 부분적인 변화는 비교적 일정한 부분에서 일정한 형식으로 나타나지만,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우므로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다. 이는 현 가곡보와 사설들이 실려있는 가집들 중 연음표[8]가 기보된 가집과의 비교를 통해 유형을 파악하는 과정을 필수로 한다.

---

1) 장사훈, 한만영 공저 『국악개론』 (서울: 한국 국악 협회, 1975), 118쪽.
2) 장사훈, 『최신국악총론』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85), 429-431쪽, 하나의 가곡선율에 다른 시조시를 얹어 노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노래종류는 얼마든지 더 늘어날 수 있다.
3) 변미혜, “사설에 따른 가곡선율의 변형(Ⅰ)” 『교수논총 제4집 제2호』 (한국교원대학교, 1988), 275쪽.
4) 위의 책, 12쪽.
5) 김진향, 『선가하규일선생약전』, (서울: 도서출판 예음, 1993), 204쪽.
6) 김기수, 『남창가곡백선』, (서울: 은하출판사, 1992).
7) 김기수, 『여창가곡여든여덟닢』, (서울: 은하출판사, 1980).
8) 연음표: 가곡의 사설에 음높이, 길이 및 기타 음악적 표현 등을 표시하는 기호를 덧붙이는 기보법.

따라서 사설에 기보된 연음표에 따라 선율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의문점을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첫 번째는 연음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연음표의 문제점에 관해 다루며 연음표의 기능과 음높이 비교 등을 연구한 송방송[9]은 남창가곡 일부의 대표적인 노랫말로 된 한 곡씩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각 연음표의 가장 특징적인 음고를 정하였는데 예를 들어 '드는표'의 경우 우조는 仲, 계면조는 林이며, '누르는표'는 우조 㑹-太, 계면조는 㑹-仲이라 하였다. 그런데 이렇게 각 연음표를 특정한 음으로 생각할 경우, 연음표가 없는 다른 사설과 선율은 설명이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연음표는 특정한 음정 자체보다 선율형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두 번째는 연음표가 의미하는 것이 한 음이 아닌 하나의 선율형이라면, 각 연음표가 나타내는 것이 절대적인 선율형인지, 또는 상대적인 음의 높낮이인지에 관한 점이다. 이에 관해 사설에 따른 선율의 변형을 남창 가곡 전반에 걸쳐 연구한 변미혜는 연음표에 따라 나타나는 선율형을 바탕으로 사설을 복원하고, 각 곡의 특징을 몇 가지 기준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10]

이에 따른 결론을 위 연구 중 마지막 권을 참고하면, 각 장의 초두는 각 곡의 특징을 보여주지만, 이두 후반부 선율은 다른 곡들 일부와 동일한 선율로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초장 초두가 곡의 특징을 결정짓는 한편, 종지음도 곡의 계열에 따라 나뉘는 것으로 보았다.[11]

위의 연구는 연음표가 초장 초두에선 곡의 특징을 드러내는 뚜렷한 선율을 의미하지만, 이두 후반부는 한 연음표가 의미하는 선율형이 두 가지 이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을 보인다. 즉, 절대적인 음이 아닌 상대적인

---

9) 송방송, "연음표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 (서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67.)

10) 변미혜, "사설에 따른 가곡 선율의 변형(Ⅰ)·(Ⅱ)·(Ⅲ)·(Ⅳ)", 『교수논총』, 한국교원대학교, 1988~1996.

_____, "사설에 따른 가곡선율의 변형(V)", 『한국음악연구』 제36집, 2004.

11) 위의 책 중 (V)권, 194-195쪽.

선율형을 나타내기 위한 기보법이며, 다른 곡과 일부의 선율 및 종지음이 동일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특징은 각 곡의 유기성과 그에 따른 상관관계를 유추함으로써 연음표가 의미하는 선율형을 좀 더 명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고는 가곡 전 바탕 중 남창 우조 가곡의 곡별로 나타나는 연음표의 선율형을 알아보고, 도출된 선율형의 유기성을 파악하여 곡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연음표를 분석하기 위해 연구 대상인 가집『가곡원류』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면『가곡원류』및 이본에 관한 연구,『가곡원류』에 실린 시의 형식에 관한 연구와 연음표에 관한 연구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로『가곡원류』및 이본에 관한 연구에 대해 살펴보면, 강경호[12]와 황인완[13]은 각각 가곡원류계 이본에 관하여 각 기준에 따라 가집의 계열을 나누고 편찬 특성과 전개 양상, 그에 따른 특징들을 연구하였다. 권순회[14]는 가곡원류계 이본들의 특성과 계보, 가치들에 대해 살펴

12) 강경호. "가곡원류계 가집의 편찬 특성과 전개 양상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11. 서울
_____. "일반논문 : 20세기 초 재편된 『가곡원류』 (가람본)의 성격과 시가사적 의미." 韓民族語文學 0.68 (2014): 451-478.
_____. "가집 『협률대성』의 편찬 특성과 전승・ 향유의 문화적 의미." 時調學論叢 40.- (2014): 31-57.
_____. "歌集 『海東樂章』의 作品 收錄 양상과 編纂 특성." 어문연구(語文硏究) 35.4 (2007): 213-240.

13) 황인완. "『歌曲源流』의 異本 系列 硏究." 국내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8. 서울

14) 권순회. "박효관이 하순일에게 준 생애 마지막 가집, 한창기본 『가곡원류』." 열상고전연구 41.- (2014): 161-190.
_____. "일본 동양문고 소장 국문시가 자료의 가치." 民族文化硏究 65.- (2014): 561-586.

보고, 김선기[15]는 국악원본과 김옥총부를 비교 연구하였다.

신경숙[16]은 총17종의 이본 중, 박효관의 원고본과 편찬연대를 밝히는 한편, 박효관의 원고본이 편찬되기 이전에도 여러 초기의 이본들이 존재하고 유통되고 있었음을 밝혀냈다. 또한, 다른 연구자료에서 '19세기 서울 우대[17]지역'에서 만들어진 『가곡원류』의 형성 과정과 이후 영향력을 다루며 20세기 초에 국민문학이 된 '시조'의 실체를 파악하였다. 오종각[18]은 『가곡원류』의 이본 중 『지음』에 관해 연구하며 가곡원류계 가집의 분포 현황을 알아보고, 『지음』의 시조사적 의의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렇듯 『가곡원류』계의 이본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각 이본들의 편찬연대, 특성들을 비교 연구하며 시조사적 의의를 찾는데 집중하였다.

두 번째로 시의 형식에 관한 연구에 대해 살펴보면, 정일영[19]은 증보가곡원류 농과 낙 중 사랑에 관한 사설을 여덟 가지의 어조로 분류하여 심층적 분석 후 음악적인 차이가 사설의 결합양상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밝혔다. 그 결과, 가곡의 사설은 악곡의 선율과 악조 및 곡태와 어울리게 결합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으며, 형식이 완성되어 더 이상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는 음악적 특성과 사설의 성격이 강한 연관성을 가지

_____. "국립한글박물관 소장 『歌曲源流』(고태진 필사본)의 특성과 계보." 古典文學硏究 50.- (2016): 73-97.

_____. "미국 클레어몬트대학도서관 맥코믹 컬렉션 소장 『靑邱樂章』의 특성." 韓國 詩歌硏究 44.- (2018): 4-28.

15) 김선기. "안민영 시조를 둘러싼 국악원본 가곡원류와 김옥총부의 비교 고찰." 한국언어문학 48 (2002): 17-41.

16) 신경숙. "『가곡원류』 편찬 연대 재고." 韓民族語文學 0.54 (2009): 71-100.

_____. "19세기 서울 우대의 가곡집, 『가곡원류』." 古典文學硏究 35.- (2009): 1-32.

17) 조선시대 행정구역으로 북부에 속하였고 백악산과 인왕산을 배경으로 하면서 경복궁과 사직단 사이로 경계지어진 경복궁 서쪽 지역을 말한다. 조선후기에 안민영의 시조집 『금옥총부』 서문에 인왕산 밑 필운대를 중심으로 가곡 예술을 펼친 박효관과 운애산방(雲崖山房)의 모임을 설명하면서 '우대소리'의 현장을 지칭하여 우대(友臺)라고도 불렀다. 박희용, 이익주. "조선 초기 경복궁 서쪽 지역의 장소성과 세종 탄생지", 『서울학연구』, (서울: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2012, 156-157쪽.

18) 오종각. "歌曲源流의 새로운 異本인 『知音』硏究 ." 國文學論集 15.- (1997): 303-325.

19) 정일영(Jeong Il-Young). "『증보가곡원류(增補歌曲源流)』 농(弄)·낙(樂) 사설과 악곡(樂曲)의 연관성 고찰." 時調學論叢 46.- (2017): 121-177.

고 결합함이 드러났다.

신경숙[20]은 가곡원류에서 나타나는 관습구에 대한 접근 시각과 태도에 대해 가곡원류에는 동일한 이미지와 관습적 어법의 관습구가 쉽게 발견되며, 이를 통해 편집방식에서 일정한 질서가 보이고 관습구를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체제를 취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가곡원류에서 사용되는 '공통어구'는 가곡의 연행성에서 발생되어 창자와 청자가 소통할 수 있는 전달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가곡원류에서 공통어구를 사용한 배치구도는 자신의 예술세계를 편집방식을 통해 드러니려 한 것이라 밝혔다.

강경호[21]는 가곡원류 가람본의 독자적 특징과 시가사적 의미를 밝히는 연구에서 가곡원류 가람본은 대표 사설화, 우·계면 평준화, 가곡한바탕의 양식화 등 변모된 20세기 초 가곡문화가 집약되어 편찬된 가집이며, 외적으로 가곡원류계 가집의 틀이 반영되어 있지만 내적으로는 '가곡원류 문화권'에서 어느정도 벗어나 당대의 특징적인 가곡 전변상을 담고 있는 '재편된 가곡원류'라고 밝혔다.

문주석[22]은 국립국악원본 가곡원류에 수용된 중국 문헌과의 비교를 통하여 가곡원류와 논곡지음의 수용양상에 관한 연구에서 가곡원류와 논곡지음이 수록되어 있는 각각의 문헌을 확인 후 원문의 내용들을 비교분석하여 연구하였다. 그 결과 가곡원류에 수록된 가곡원류와 논곡지음은 책의 서문격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가곡원류에 대한 객관적이고 검증가능한 문헌자료는 확인할 수 없었으나, 논곡지음은 심괄의 몽계필담에 최초 기록이 있었으며, 가곡원류를 편찬한 박효관과 안민영은 사문유취의 내용을 통하여 가곡원류와 논곡지금의 내용을 인용하였다고 밝혔다.

이찬욱[23]은 가곡원류에 나타난 풍도형용의 의미와 특징을 문학과 음

---

20) 신경숙. "<<가곡원류>>의 소위 '관습구'들, 어떻게 볼 것인가? - 평시조를 중심으로 -." 韓民族語文學 41.- (2002): 101-126.

21) 강경호. "20세기 초 재편된『가곡원류』(가람본)의 성격과 시가사적 의미." 韓民族語文學 0.68 (2014): 451-478.

22) 문주석. "'歌曲源流' 硏究." 경상북도: 영남대학교 국내박사학위논문, 2005.
_____. "가곡원류와 논곡지음의 수용양상에 관한 연구." 한국음악사학보 37 (2006): 113-138.

악으로 분류하여 연구한 결과 문학적으로는 예악위정 사상과 여민동락 사상의 영향을 받았으며, 음악적으로는 음역대가 가장 넓은 편수대엽과 가장 좁은 이수대엽은 각각의 풍도와 일치하였고, 빠르기는 특징적 선율을 형용과 결부시켜 곡의 분위기를 형용과 일치시켰음을 밝혔다.

연음표에 관한 첫 연구자료는 1967년 송방송의 석사학위논문[24]으로 남창 초수대엽, 이수대엽, 중거, 평거, 두거, 삼수대엽 각각의 대표적인 노랫말에 한하여, 음의 높낮이와 연결[25]에 관계있는 연음표의 문제점에 관해 다루었다. 변미혜[26]는 사설에 따른 가곡 선율의 변형을 곡별로 나누어 분석하고, 가곡의 제4장의 <연음표> 유형이 두 가지로 나뉘며 첫 음보의 사설이 중복되어 쓰임을 파악하고 시조시와의 관련성을 밝히고자 하였다[27].

송권준은 여창[28]과 남창[29]가곡의 음높이에 대한 기본틀을 이해하기 위해 노랫말의 사성, 고저, 청탁을 국어학 관점에서 알아본 후, 그것에 따른 노랫말, 연음표와 음높이를 살펴보았다. 이는 모두 송방송의 연음표 연구자료를 토대로 각자의 관점에서 사설과 관련하여 분석한 것이 특징이다.

문주석[30]은 가곡의 표기 형태 중 하나인 '연음표'가 대표성을 가질 수

---

23) 이찬욱. "『歌曲源流』의 〈歌之風度形容〉에 관한 硏究." 우리文學硏究 0.37 (2012): 311-356.
24) 송방송, "연음표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 서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67.
25) 음의 높낮이를 나타내는 연음표: 드는표, 누르는표, 막드는표
음의 연결을 나타내는 연음표: 든흘림표, 눌러떼는표, 접어드는표.
26) 변미혜, "사설에 따른 가곡선율의 변형(Ⅰ)", 『교수논총』 제4집 제2호, 한국교원대학교, 1988.
_____, "사설에 따른 가곡선율의 변형(Ⅱ)", 『교수논총』 제7집 제2호, 한국교원대학교, 1991.
_____, "사설에 따른 가곡선율의 변형(Ⅲ)", 『교수논총』 제8집 제2호, 한국교원대학교, 1992.
_____, "사설에 따른 가곡선율의 변형(Ⅳ)", 『교수논총』 제12집 제2호, 한국교원대학교, 1996.
_____, "사설에 따른 가곡선율의 변형(Ⅴ)", 『한국음악연구』 제36집, 2004.
27) _____, "가곡 4장과 시조시와의 관계", 『한국음악사학보』 제20집 제1호, 1998.
28) 송권준, "여창가곡 노랫말의 四聲·連音標·음높이", 『예술논문집』 제14집, 1999.
29) _____, "남창가곡 노랫말의 四聲·連音標·음높이", 『예술논문집』 제15집, 2001.

있는가에 대한 명칭 문제를 다루며, 『가곡원류』 편찬 시기에 나온 연음표와 하규일의 발음표, 현행가곡 악보 등에 나타나는 연음표를 비교 대조하여 연음표의 기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송권준[31] 역시 『가곡원류』의 연음표의 기능에 관해 연구하며 제4장을 제외한 각 장의 노랫말 구절과 구절의 연결을 같은 음으로 노래해야 할 때 글자 옆에 연음표를 표시한 것으로 보았다. 이명옥[32]은 연음표 중 '반각'에 대해 고악보와 고가사집을 중심으로 반각의 의미, 종류, 출전유형을 분석하여 변형유형 등에 대한 개념 전체를 통틀어 통시적 관점으로 정리하였다.

하경미[33]는 연음표의 역사적 맥락을 고찰하고, 현행 고등학교 가곡 교육에 적용하여 교육적 활용 방안에 관해 연구하였다. 따라서 가곡 전승의 역사적 배경과 가곡 교육의 역사에 관해 고찰하고 『가곡원류』 소재 연음표와 현행 가곡보의 연음표를 비교하여 음악적 특징을 분석한 후, 연음표를 활용한 효과적인 고등학교 가곡 교육을 위한 '4단계 지도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가곡 교육의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가곡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으로 보았다.

마지막으로 스기야마 유타카[34]는 연음표가 중세 한국어가 가졌던 성조 사이에 긴밀한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밝혀, 현재 사설과의 연관성에만 한정되지 않고 새로운 관점으로 해석할 가능성을 보였다.

이렇듯 다양한 시각으로 『가곡원류』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

---

30) 문주석, "'연음표' 고", 『한국전통음악학』 제6호, 2005.
31) 송권준, "『가곡원류』 연음표의 기능", 『한국민족문화』 제39집, 부산: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1.
32) 이명옥, "「반각」에 관한 연구: 고악보와 고가사집을 중심으로", 경북: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33) 하경미. "가곡 연음표의 전승 현황과 음악 교육적 활용 방안 연구.", 경기도: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34) 스기야마 유타카, "가곡창 선율에 반영된 사설의 성조(聲調)(Ⅰ)", 『국어국문학』 제171호, 2015.

3.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첫 번째로 연음표에 따른 선율 유형을 연구하고, 두 번째로 도출된 선율형의 유기성을 파악하여 곡들의 상관관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연음표가 기보된 가집과 이를 통해 선율형을 유추할 수 있는 가곡보를 필요로 한다. 첫 번째로 사설에 연음표가 기보된 가집 중엔 『가곡원류』를 살펴보려 한다. 박효관과 안민영이 1876년에 편찬한 『가곡원류』는 이후 수많은 이본 계열의 가집이 나타났다.[35] 본 연구에서는 그 중 가장 원본으로 인정받는 『국악원본 가곡원류』[36]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음표의 선율형을 알아보기 위한 가곡보는 하규일이 이왕직아악부에서 가곡 교습할 당시 악보에 기록했던 최초의 가곡 악보인 『하규일보』[37]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본고는 『가곡원류』에 실린 남창 우조 가곡의 사설 중 『하규일보』[38]에 실린 우조 이수대엽, 중거, 평거, 두거, 초수대엽, 삼수대엽, 소용이, 우락과 언락으로 총 아홉 곡을 대상으로 하였다. 우롱과 우편은 『가곡원류』에 사설이 없으므로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본고의 연구범위 및 분석의 순서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

35) 변미혜, “사설에 따른 가곡선율의 변형(Ⅰ)”, 『교수논총』 제4집 제2호, 한국교원대학교, 1988, 276-277쪽.
36) 이하, 『가곡원류』로 표기한다.
37) 「가곡원류」, 『한국음악학자료총서5』 (서울: 국립국악원, 1989), 9쪽.
38) 김진향, 『선가하규일선생약전』, (서울: 도서출판 예음, 1993).

<표 1> 연구범위 및 분석 순서

구분	곡목	사설
이수대엽 계열	이수대엽	3. 강호에 (강호에 기약을 두고)
		5. 주공도 (주공도 성인이셨다)
	중거	1. 인심은 (인심은 터이되고)
		4. 창랑에 (창랑에 낚시넣고)
	평거	3.경성출 (경성출 경운흥하니)
		10.샛별지자 (샛별지자 종달이 떴다)
	두거	1.구름이 (구름이 무심탄 말이)
		14.녹수청산 (녹수청산 깊은 골에)
초수대엽 · 삼수대엽	초수대엽	1.천황씨 (천황씨 지으신 집을)
		2.남훈전 (남훈전 달밝은 밤을)
		3.남팔아 (남팔아 남아사이언정)
		4.동창이 (동창이 밝았느냐)
		7.동짓달 (동짓달 기나긴 밤을)
	삼수대엽	1.추강에 (추강에 월백커늘)
		4.가마귀 (가마귀 눈비마자)
		6.도화이화 (도화이화 행화방초들아)
		7.굴원충혼 (굴원충혼 배에 넣은 고기)
		19. 적토마 (적토마 살지게 먹여)
소용이	소용이	1.어젯밤도 (어젯밤도 혼자 곱송그려 새우잠 자고)
		3.아마도 (아마도 태평헐손)
		5.불아니 (불아니 땔지라도 절로익는 솟과)
		7.저건너 (저건너 검어무투름한 바위)
락 계열	우락	9.임으란 (임으란 회양금성 오리남기 되고)
		13.이선이 (이선이 집을 반하여)
	언락	3.백구는 (백구는 편편 대동강상비허고)
		6.벽사창이 (벽사창이 어룬어룬커늘)
		8.푸른산중 (푸른산중 백발옹이)
		20.아흔아홉 (아흔아홉 곱먹은 노장이)
		25.일월성신 (일월성신도 천황씻적 일월성신)

위의 <표 > 순서대로 연음표와 그에 따른 선율형을 분석할 때 기준이 되는『하규일보』는 한 각이 32정간으로 기보되어 10점 16박 형태의 현행 악보와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나 악보에 기보된 장단이 한 점당 두 정간에 걸쳐 기보되어 2정 1박의 형태로 기보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오선보로 역보할 시 두 정간을 이분음표(𝅗𝅥)로 지정하여 한 각의 박을 16/𝅗𝅥를 기준으로 하였다.

또한『하규일보』의 율명은 실음을 기준으로 한 옥타브 높게 기보되어

있으나 이는『하규일보』가 기보되었을 당시에 배성으로 기보하는 개념이 없었던 것으로,[39] 실제 연주 시에는 기보된 악보에서 한 옥타브 낮추어 실음으로 부른다. 따라서 본고에서 율명은 실음을 기준으로 표기하였다.

선율의 분석은 사설의 구두점과 부합하여 초두와 이두, 또는 일각과 이두로 나누었다.[40] 다만, 각 장의 마지막 각 및 제4장의 제4박 이후는 곡마다 고정된 종지 선율이 나오며 그에 해당하는 사설도 <연음표>가 기보되어 있지 않다.[41] 이는 <연음표>가 각 곡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고정형 선율보다 유동성이 있는 선율을 나타내기 위해 표기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각 곡의 이두 및 제4장에 기보된 <연음표>가 나타내는 선율은 곡별로 고정성의 종지 선율이 나오기 전까지로 보았다.[42]

『가곡원류』에 기보된 연음표는 기보법 중의 하나를 말하지만, 기보되는 부호의 이름 중 '연음표'가 중복되어 혼동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부호인 '연음표'는 그대로 '연음표'로 표기하고, 기보법을 나타내는 연음표는 편의상 <연음표>로 표기하였다.

---

39) '1939년 아악부 악보를 통해 배성과 배탁성이 처음 쓰이기 시작하였다.', 김우진, "율명 기보법의 변천에 관한 연구",『사슴은 노래한다』, (서울: 이성천회갑기념발간위원회, 1997), 270쪽.

40) 이혜구, "한금신보의 우조삭대엽",『장사훈박사회갑기념 동양음악논총』, (한국국악학회, 1997): 137쪽.

41) 남창 우조 가곡 중 소용이만 예외적으로 제3장 마지막 각에도 <연음표>가 기보되어 있는데 이는 중여음에서도 노래를 이어 부르는 소용이의 특성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42) 김우진, "가곡의 고정성과 유동성",『한국음악의 지평』, (서울: 민속원, 2014), '유동성이 가장 적은 곳은 사장이다.(중략) 초두와 일각의 유동성이 후반부인 이두의 유동성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유동성이 각 장의 전반부에 많이 나타나고, 고정성이 각 장의 후반부에 나타나는 현상은 뒷부분으로 갈수록 악곡의 종지로 연결되며 종지 선율(형)은 고정되는 일반적인 현상 때문이라 해석된다.', 79쪽.

Ⅱ. <연음표>에 따른 선율 유형 연구

1. 『가곡원류』의 <연음표>

본래 『가곡원류』에 기보된 <연음표>는 따로 설명이 없으나, 하규일의 발음표에[43] 관해 구술한 내용을 토대로 『가곡원류』의 <연음표>를 유추해볼 수 있다. 이 중 본고에서 연구할 <연음표>는 다음의 <보기>[44]와 같다.

<보기> 『가곡원류』의 <연음표>

누르는표
막내는표
드는표
든흘림표
연음표

『가곡원류』의 <연음표> 중 음높이를 나타내는 부호는 '누르는표', '막내는표', '드는표' 세 가지이다. '누르는표'는 소리를 눌러서 내라는 부호로 낮은음을 나타낸다. '막내는표'는 모든 소리를 중간 음역으로 막내라는 부호이다. 마지막으로'드는표'는 '들어내는표'라고도 하며, 소리를 들어서 높은음을 질러내는 부호이다.

'든흘림표'와 '연음표'는 음의 연결에 관련된 <연음표>로 '든흘림표'는 어느 음을 흔들고 난 후 다음으로 들어낸다는 데서 생긴 우리말이다. 즉, 농현하듯 음을 흔들어 소리를 낸 후 상행의 음 ㄱ진행을 한다는 의미의 부호이다. '연음표'는 노래 부를 때 연주자가 쉬지 않고 계속 노래를 부

43) 장사훈, "가곡원류 해제", 『가곡원류-한국음악학자료총서5』, (서울: 국립국악원. 1989), 8-9쪽.
44) 위의 책 9쪽 참고.

르라는 부호이다.[45]

본 연구에서 분석할 <연음표>는 위의 다섯 가지로 각 <연음표>의 따른 선율형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가곡원류』 <연음표> 중 '막내는표'는 위의 ◻부호 외에 ❙모양으로 두 가지 종류의 부호로 사설에 기보된 것을 볼 수 있다. ◻부호를 '막내는표'로서의 판단을 유보하는 견해도 있으나,[46] 두 <연음표>의 부호에서 기능적인 차이를 찾기 어려우므로, 모두 '막내는표'로 통칭하여 언급하도록 하겠다.

2. 남창 우조 가곡의 <연음표>와 선율형 연구

『가곡원류』에 실린 사설 중 남창 우조 가곡에 속하는 노래는 초수대엽, 이수대엽, 중거, 평거, 두거, 삼수대엽, 소용이, 우락과 언락이다. 우롱과 우편은 가곡원류에 사설이 실려있지 않으므로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수대엽·중거·평거·두거 네 곡을 이수대엽 계열, 초수대엽·삼수대엽·소용이를 초수대엽과 삼수대엽 계열, 그리고 우락과 언락을 락 계열로 각각 나눠서 보도록 하겠다.

1) 우조 이수대엽 계열

『가곡원류』에 실린 우조 이수대엽 계열의 사설을 살펴보면, 이수대엽은 총 서른세 가지, 중거는 총 열아홉 가지, 평거는 총 스물세 가지, 두거는 총 스물한 가지이다. 이중 『하규일보』에 실린 사설은 가곡원류에 있는 순으로 이수대엽 세 번째(강호에 기약을 두고), 다섯 번째(주공도

45) 송방송, 『한겨레음악대사전(상·하)』, (서울: 보고사, 2001).
46) 송권준, "남창가곡 노랫말의 四聖·連音標·음높이", 『예술논문집』 제15집, (2001), 427쪽.

성인이셨다) 두 곡, 중거 첫 번째(인심은 터이 되고), 네 번째(창랑에 낚시 넣고) 두 곡, 평거 세 번째(경성출 경운흥하니), 열 번째(샛별 지자 종달이 떴다) 두 곡, 두거 첫 번째(구름이 무심탄 말이), 열네 번째(녹수청산 깊은 골에) 두 곡으로 총 여덟 곡이 실려있다. 『하규일보』에 실린 우조 이수대엽 계열 열두 사설의 <연음표>를 장별로 살펴보겠다.

ㄱ) 초장

『가곡원류』의 우조 이수대엽 계열에서 초장의 <연음표> 유형은 총 다섯 가지로 나타난다.

첫 번째 유형은 이수대엽 제5번(주공도) 사설이며 첫 각에 ‘누르는표’와 ‘막내는표’가 기보되어 있다. 두 번째 유형은 이수대엽 제3번(강호에) 사설이며 첫 각에 ‘누르는표’가 기보되어 있다. 세 번째 유형은 중거 제1(인심은)·4번(창랑에) 사설로 첫 각에 ‘누르는표’, ‘든흘림표’, ‘드는표’가 기보되어 있다. 네 번째 유형은 평거 제3(경성출)·10번(샛별지자) 사설이며 첫 각에 ‘막내는표’가 기보되어 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유형은 두거 제1(구름이)·14번(녹수청산) 사설이며 첫 각에 ‘드는표’가 기보되어 있다. 각 <연음표>의 유형과 사설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우조 이수대엽 계열 초장의 <연음표>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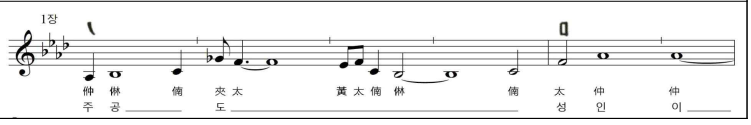
분류	<연음표>	사설
1	ㅇㅇㅇ ㅇㅇㅇㅇ	이수대엽 제5번(주공도)
2	ㅇㅇㅇ ㅇㅇㅇㅇ	이수대엽 제3번(강호에)
3	ㅇㅇㅇ ㅇㅇㅇㅇ	중거 제1(인심은)·4번(창랑에)
4	ㅇㅇㅇ ㅇㅇㅇㅇ	평거 제3(경성출)·10번(샛별지자)
5	ㅇㅇㅇ ㅇㅇㅇㅇ	두거 제1(구름이)·14번(녹수청산)

초장에 나오는 <연음표>의 유형은 비교적 곡별로 뚜렷하게 나누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위의 <표 2>를 기준으로 하여 각 곡의 <연음표>와 선율의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① 이수대엽

이수대엽 초장의 <연음표>는 위의 <표 2>에서 제1·2번 유형에 해당한다. 첫 번째는 이수대엽 제5번(주공도) 사설로 초두에 '누르는표', 이두에 '막내는표'가 기보되어 있다. <연음표> 유형에 따른 선율형은 다음의 <예보 1>과 같다.

<예보 1> 우조 이수대엽 제5번(주공도) 초장 <연음표>와 선율 유형

<연음표> 유형	선율 유형
주공도 성인이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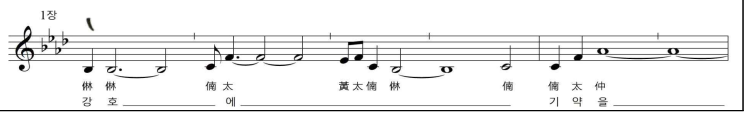
<예보 1>에서 우조 이수대엽 제5번(주공도)의 초두에 기보된 '누르는표'는 仲林의 낮은음으로 시작하여 倭을 거쳐 네 번째 박에 黃太로 상행한 후, 다시 黃, 太와 倭을 거쳐 林으로 내려오는 仲林-(倭)-(黃)太-黃(太倭)-林 선율형이다. '누르는표' 선율의 골격음은 仲林에서 太까지 상행하다 다시 黃을 거쳐 林으로 내려오는 仲林-太-黃-林이다. 따라서 첫 번째 <연음표> 유형에서 초두의 '누르는표'는 林을 기준으로 상행한 후 다시 하행하여 시작음으로 돌아오는 선율형이다.

이두에 기보된 '막내는표'는 둘째 각의 종지 선율이 여덟 곡 모두 같으므로 첫 각의 제16박까지의 선율이 해당된다. 따라서 '막내는표'는 太로 시작해 仲으로 지속하는 太-仲 선율형이다. 즉, 이두의 '막내는표'는 太를

기준으로 仲으로 상행하는 선율형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이수대엽 제3번(강호의) 사설로 초두에 ‘누르는표’가 기보되어 있다. 각 <연음표> 유형에 따른 선율형은 다음의 <예보 3>과 같다.

<예보 2> 남창 우조 이수대엽 제3번(강호의) 초장 <연음표>와 선율 유형

<연음표> 유형	선율 유형
강호에 기약을 두고	

<예보 2>에서 초두의 ‘누르는표’는 林林-의 낮은음으로 시작하여 네 번째 박에 倭太로 상행한 후, 다시 黃太倭을 거쳐 林으로 내려오는 林林-(倭)太-黃(太倭)-林 선율형이다. ‘누르는표’ 선율의 골격음은 林에서 太까지 상행하다 다시 黃을 거쳐 林으로 내려오는 林-太-黃-林 선율형이다. 따라서 두 번째 <연음표> 유형에서 초두의 ‘누르는표’는 林을 기준으로, 상행한 후 다시 하행하여 돌아오는 선율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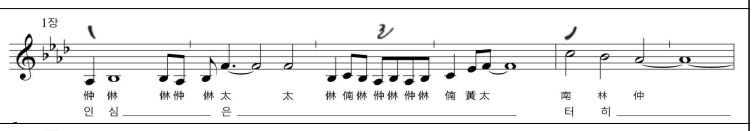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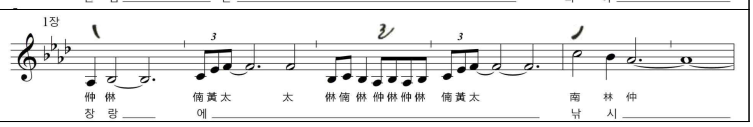
이수대엽 제3번(강호에) 초장의 이두는 <연음표>의 부호가 생략되어 있다. 이두의 선율형은 倭에서 太로 상행하여 仲으로 끌어주는 선율이다. 초장 이두 선율의 골격음을 살펴보면 倭太로 시작해 仲으로 진행한다. 이는 ‘막내는표’가 기보되어 있는 제5번(주공도) 초장 이두 사설의 선율이 太로 시작한 것과 다르다. 이를 보아 이수대엽 초장의 이두에 ‘막내는표’가 기보된 경우 太로 시작하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② 중거

중거 제1(인심은)·4번(창랑에) 사설 초장의 <연음표>는 위의 <표 2>에서 제3번 유형에 해당하며, 초두에 ‘누르는표’, 제8박에 ‘든흘림표’, 이

두에 ‘드는표’가 기보되어 있다. <연음표> 유형과 선율형은 다음의 <예보 3>과 같다.

<예보 3> 우조 중거 제1(인심은)·4번(창랑에) 초장 <연음표>와 선율 유형

<연음표> 유형	선율 유형
인심은 터이되고	
창랑에 낚시넣고	

<예보 3>에서 우조 중거 제1번(인심은) 초장의 초두에 기보된 ‘누르는표’는 仲林으로 시작해 제3박에서 林仲으로 내려온 후 제4박에서 林太로 상행한다. 그 후 제7박에서 林으로 내려가 짧은 박으로 倭林을 내주며 마무리하는 仲林-(林仲)-(林)太-林(倭林) 선율형이다. ‘누르는표’ 선율의 골격음은 仲林에서 太로 상행한 후 다시 林으로 내려오는 仲林-太-林이다.

중거 제4번(창랑에) 초장 초두에 기보된 ‘누르는표’는 仲林으로 시작해 제4박에서 倭黃을 거쳐 太까지 상행한 후, 제7박에서 林倭을 내준 후 林으로 하행하는 仲林-(倭黃)太-(林倭)林 선율형이다. 선율의 골격음은 仲林에서 太로 상행한 후 다시 林으로 내려오는 仲林-太-林이다. 따라서 두 사설을 미루어보아 중거 초두의 ‘누르는표’는 林을 기준으로 상행한 후 다시 林으로 돌아오는 선율형이다.

초장의 ‘든흘림표’는 각 사설의 ‘인심은’과 ‘터이되고’ 사이와 ‘창랑에’와 ‘낚시넣고’ 사이에 기보되어 두 구절을 연결한다. 초장 첫 각 이수대엽과 중거의 ‘누르는표’ 선율이 林으로 하행하며 비슷하게 진행한 후, 林이 끝난 후부터 달라지므로 우조 중거의 ‘든흘림표’는 제8박부터 선율이 시작된다. ‘든흘림표’의 선율은 제8박 仲林仲林, 제9박에 倭黃을 거쳐 太로 올

라와 제11박까지 끌어주는 仲㐀仲㐀-倘黃太로 두 사설에 기보된 '든흘림표'의 유형이 동일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중거 초장 초두와 이두를 연결하는 '든흘림표'의 음형은 仲에서 요성한 후, 太로 상행하는 형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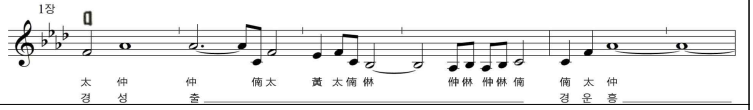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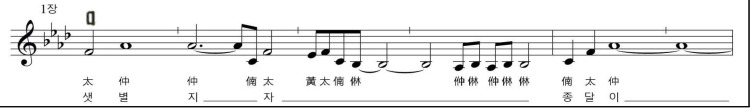
중거 두 사설 초장 이두의 '드는표'는 둘째 각의 선율이 여덟 곡 모두 같으므로 첫째 각 마지막 박까지를 말한다. 따라서 이두의 '드는표'는 南으로 시작해 林과 仲으로 하행하는 南-林-仲 선율형이다. 즉, 南에서 仲까지 순차적으로 하행하는 형태이다.

우조 중거 초장 초두의 '누르는표'는 㐀에서 시작해 太로 상행한 후 다시 㐀으로 하행하는 형태로 우조 이수대엽 초장 초두의 선율과 유사하다. 그러나 우조 이수대엽 제7박에 나오는 黃太倘 선율형이 우조 중거에서는 드러나지 않는다. 또한, 제8박에 '든흘림표'와 이두에 '드는표'가 기보되어 '든흘림표'의 음형이 仲㐀仲㐀-倘黃太로 나타나 '드는표'의 첫 시작음 南으로 연결하며 우조 이수대엽과의 차이를 보인다. 그러므로 초장의 이두부터는 우조 중거의 특성이 드러나며 이수대엽과 구분됨을 알 수 있으며, '든흘림표'는 중거의 이러한 특징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③ 평거

평거 초장의 <연음표>는 위의 <표 2>에서 제4번 유형에 해당한다. 평거 제3(경성출)·10번(샛별지자) 사설로 초두에 '막내는표'가 기보되어 있다. 각 <연음표> 유형에 따른 선율형은 다음의 <예보 4>와 같다.

<예보 4> 우조 평거 제3(경성출)·10번(샛별지자) 초장 <연음표>와 선율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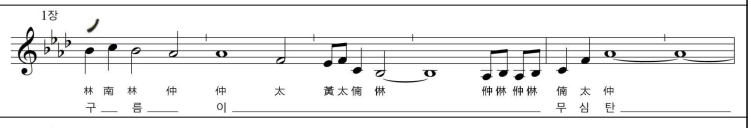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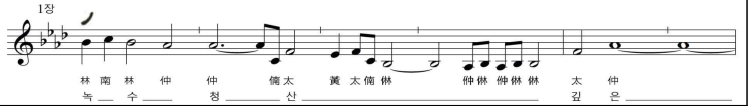
<연음표> 유형	선율 유형
경성출 경운흥하니	
샛별지자 종달이 떴다	

<예보 4>에서 평거 제3번(경성출)·10번(샛별지자) 초장 초두에 기보된 ‘막내는표’는 太로 시작해 仲으로 상행하고 제5박에 倘을 거쳐 太로 돌아온 후, 黃太倘을 거쳐 倧으로 하행하는 太-仲-(倘)-太-黃(太倘)-倧 선율형이다. 사설을 기준으로 ‘막내는표’ 선율의 골격음은 太-仲-太-黃-倧 형태로 太로 시작해 仲으로 상행 후, 다시 太로 내려와 倧까지 하행한다. 두 사설의 선율 진행이 같으므로 이는 초장 초두에 ‘막내는표’가 기보될 경우 선율형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초두에 ‘누르는표’가 기보되어 있는 이수대엽과 중거와 시작음에서 차이를 보이며 곡의 성격을 드러낸다.

④ 두거

두거 초장의 <연음표>는 위의 <표 2>에서 제5번 유형에 해당한다. 즉, 두거 제1(구름이)·14번(녹수청산) 두 사설의 <연음표>가 모두 같은 유형으로 초두에 ‘드는표’가 기보되어 있다. 이에 따른 각 사설의 선율형은 다음의 <예보 5>와 같다.

<예보 5> 우조 두거 제1(구름이)·14번(녹수청산) 초장 <연음표>와 선율 유형

<연음표> 유형	선율 유형
구름이 무심탄 말이	
녹수청산 깊은 골에	

<예보 5>에서 초두에 기보된 ‘드는표’는 林南으로 시작해 林, 仲, 太로 진행하고 黃太倞 음형을 거쳐 㑹 까지 하행하는 (林)南-林-仲-太-黃(太倞)-㑹 선율형이다. ‘드는표’ 선율의 골격음은 南-林-仲-太-黃-㑹으로 南에서 㑹까지 하행하는 형태이다. 두 사설 선율의 골격음 형태가 같으므로 이는 초장 초두에 ‘드는표’가 기보될 경우의 선율형이다. 또한, 첫 시작음이 (林)南으로 이수대엽과 중거 초장 초두에 기보된 ‘누르는표’의 시작음인 㑹, 평거 초장 초두 ‘막내는표’의 시작음 太와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드는표’는 두거의 특징을 나타내는 <연음표>로 볼 수 있다.

이상 초장의 내용을 정리하면, 우조 이수대엽 계열의 초장은 곡마다의 특징이 <연음표> 유형을 통해 뚜렷하게 드러나는 편이다. 이수대엽과 중거의 차이는 초장의 이두부터, 평거와 두거는 각각 첫 박의 ‘막내는표’와 ‘드는표’를 통해 시작음부터 특징을 드러낸다. 따라서 이수대엽 계열에서 초장은 곡 성격을 명확히 보여주는 부분임을 알 수 있다.

<연음표>에 따른 선율형을 각각 살펴보면 이수대엽 계열 초장 초두는 기보된 부호에 따라 ‘누르는표’는 仲㑹, ‘막내는표’는 太, ‘드는표’는 (林)南으로 각각 선율의 시작음이 달라진다. 세 <연음표>는 ‘든흘림표’가 기보되어 있지 않을 때, 제7박에서 黃太倞의 음형을 보이며 㑹까지 하행하는 공통적인 선율형을 보인다. 그러나 ‘든흘림표’가 기보된 중거 초장 초두의 ‘누르는표’ 선율은 제7박에서 黃太倞 음형을 보이지 않고 㑹으로 바로 하행한다. 따라서 초장에 초두와 이두를 연결하는 ‘든흘림표’가 제8박

에 기보될 경우 제7박에 영향을 미치며 黃太倕 음형이 생략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거에 기보된 '든흘림표'의 음형은 仲㑹仲㑹-倕黃太이다.

초장 이두에 <연음표>가 표기되어있는 노래는 중거로 '드는표'가 기보되어 있으며, 선율의 골격음은 南-林-仲이다. 따라서 초장 초두와 이두에 기보된 '드는표' 선율의 골격음은 南으로 시작하는 점이 같다. 그러나 이두에 기보된 '드는표'는 첫 각 마지막 박까지 선율을 의미하므로 仲으로 선율이 마무리되는 점이 초두에 기보된 '드는표'와 다르다.

ㄴ) 제2장

제2장에 기보된 <연음표>는 총 여섯 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47] 초장은 곡별로 <연음표> 유형이 뚜렷하게 나뉘었던 반면, 제2장부터는 특정 유형이 특정 곡을 나타내지 않고 같은 <연음표>가 다른 곡에서도 나타난다.

첫 번째 유형은 평거(3.경성출) [일월이] 사설로 '드는표'와 '연음표'가 기보되어 있다. 두 번째 유형은 이수대엽(3.강호에) [십년을] 사설로 '드는표'가 기보되어 있다. 세 번째 유형은 이수대엽(5.주공도) [세상사람]과 중거(4.창랑에) [조대에] 사설로 '막내는표'와 '연음표'가 기보되어 있다. 네 번째 유형은 중거(1.인심은) [효제충신] 사설로 '막내는표'와 '드는표'가 기보되어 있다. 다섯 번째 유형은 평거(10.샛별지자) [호미메고]와 두거(1.구름이) [아마도] 사설로 '연음표'가 기보되어 있다. 여섯 번째 유형은 두거(14.녹수청산) [청려완보] 사설로 '누르는표', '든흘림표'와 '드는표'가 기보되어 있다.

각 <연음표>의 유형과 해당하는 사설은 다음의 <표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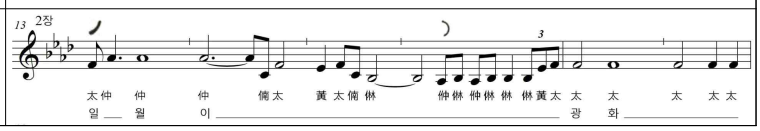
47) <연음표>는 사설에 가장 많이 표기된 유형을 첫 번째로 하고, 첫 번째와 비슷한 유형이지만 사설에 <연음표>를 표기한 수가 적은 것을 그 다음 순서로 정하였다. 그 후에 앞의 <연음표>와 다르게 기보된 유형을 마지막으로 정하였다.

<표 3> 우조 이수대엽 계열 제2장의 <연음표> 유형

분류	<연음표>	이수대엽	중거	평거	두거
1	○ ○ ○ ○ ○ ○ ○			3.경성출 [일월이]	
2	○ ○ ○ ○ ○ ○ ○	3.강호에 [십년을]			
3	○ ○ ○ ○ ○ ○ ○	5.주공도 [세상사람]	4.창랑에 [조대에]		
4	○ ○ ○ ○ ○ ○ ○		1.인심은 [효제충신]		
5	○ ○ ○ ○ ○ ○ ○			10.샛별지자 [호미메고]	1.구름이 [아마도]
6	○ ○ ○ ○ ○ ○ ○ ○				14.녹수청산 [청려완보]

첫 번째 유형은 평거(3.경성출) [일월이] 사설로 초두에 ‘드는표’, 제10박에 ‘연음표’가 기보되어 있다. <연음표> 유형에 따른 선율형은 다음의 <예보 6>과 같다.

<예보 6> 우조 평거(3.경성출) 제2장 [일월이] <연음표>와 선율 유형

<연음표> 유형	선율 유형
일월이 광화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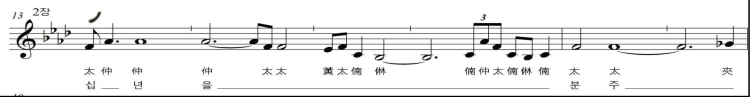
<예보 6>에서 초두의 ‘드는표’는 太仲으로 시작해 제5박에서 짧은 박의 倘을 내고 제6박에 太로 진행한 후, 黃太倘을 거쳐 倧까지 하행하는 (太)仲-太-黃(太倘)-倧 선율형이다. 사설을 기준으로 ‘드는표’ 선율의 골격음은 仲-太-黃-倧으로 仲에서 倧까지 하행하는 형태이다.

초두와 이두 사이에 기보된 ‘연음표’는 ‘드는표’의 선율이 현행 악보로 제9박에서 마무리된 후 제10박에 기보된다. 따라서 ‘연음표’의 음형은 제10박 仲倧仲倧으로 시작해 제11박에서 倧黃太로 연결하는 仲倧仲倧-倧黃太 형태이다. 초두와 이두 사설의 종지음과 시작음이 倧에서 太로 상행하는 형태로, ‘연음표’도 仲에서 요성한 후, 太로 상행하는 음형으로 사

설 구절을 연결한다.

두 번째 유형은 이수대엽(3.강호에) [십년을] 사설로 초두에 ‘드는표’가 기보되어 있다. <연음표>에 따른 선율형은 다음의 <예보 7>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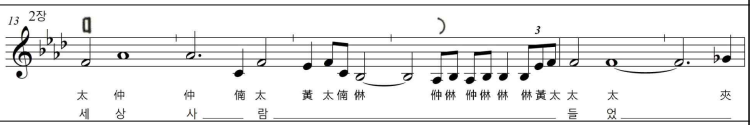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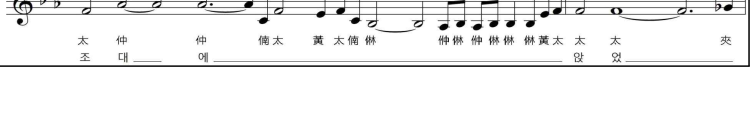
<예보 7> 우조 이수대엽(3.강호에) 제2장 <십년을> <연음표>와 선율 유형

<연음표> 유형	선율 유형
십년을 분주허니	

<예보 7>에서 초두의 ‘드는표’는 太仲으로 시작해 제5박에서 짧은 박의 倘을 내고 제6박에 太로 진행한 후, 黃太倘을 거쳐 倘까지 하행하는 (太)仲-太-黃(太倘)-倘 선율형이다. 사설을 기준으로 ‘드는표’ 선율의 골격음은 仲-太-黃-倘으로 仲에서 倘까지 하행하는 형태이다.

세 번째 유형은 이수대엽(5.주공도) [세상사람]과 중거(4.창랑에) [조대에] 사설로, 초두에 ‘막내는표’, 제10박에 ‘연음표’가 기보되어 있다. 각 <연음표> 유형에 따른 선율형은 다음의 <예보 8>과 같다.

<예보 8> 우조 이수대엽(5.주공도) [세상사람], 중거(4.창랑에) [조대에] 제2장 <연음표>와 선율 유형

<연음표> 유형	선율 유형
세상사람 들었으라	
조대에 앉었으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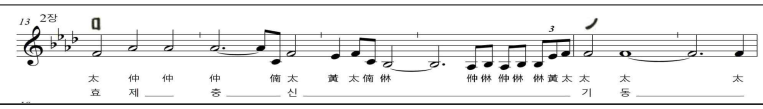
<예보 8>에서 초두에 기보된 ‘막내는표’는 太로 시작해 仲으로 상행한 후, 제5박에 짧은 박의 倘을 내고 제6박에 다시 太로 내려와 黃太倘을

거쳐 林까지 하행하는 太-仲-(倞)-太-黃(太倞)-林 선율형이다. 사설을 기준으로 '막내는표' 선율의 골격음은 太-仲-太-黃-林으로 太로 시작해 仲으로 상행한 후 다시 하행해 林까지 내려오는 형태이다.

초두와 이두 사이에 기보된 '연음표'는 '막내는표'의 선율이 현행 악보로 제9박에서 마무리된 후 제10박에 기보된다. 따라서 '연음표'의 음형은 제10박 仲林仲林으로 시작해 제11박에서 林黃太로 연결하는 仲林仲林-林黃太 형태이다. 초두와 이두 사설의 종지음과 시작음이 林에서 太로 상행하는 형태로, '연음표'도 仲에서 요성한 후, 太로 상행하는 음형으로 사설 구절을 연결한다.

네 번째 유형은 우조 중거(1.인심은) [효제충신] 사설로 초두에 '막내는표', 이두에 '드는표'가 기보되어 있다. <연음표>에 따른 선율형은 다음의 <예보 9>와 같다.

<예보 9> 우조 중거(1.인심은) 제2장 [효제충신] <연음표>와 선율 유형

<연음표> 유형	선율 유형
효제충신 기동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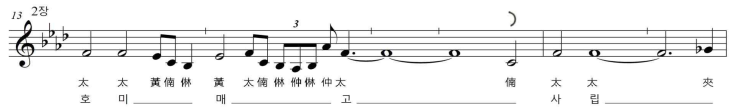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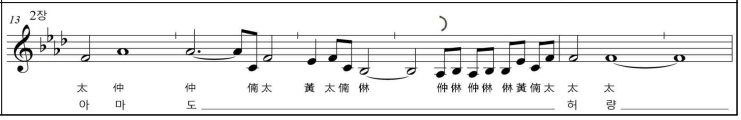
<예보 9>에서 초두에 기보된 '막내는표'는 太로 시작해 仲으로 상행한 후, 제5박에 짧은 박의 倞을 내고 제6박에 다시 太로 내려와 黃太倞을 거쳐 林까지 하행하는 太-仲-(倞)-太-黃(太倞)-林 선율형이다. 사설을 기준으로 '막내는표' 선율의 골격음은 太-仲-太-黃-林으로 太로 시작해 仲으로 상행한 후 다시 하행해 林까지 내려오는 형태이다.

이두에 기보된 '드는표'는 둘째 각의 선율이 여덟 곡 모두 같으므로 첫째 각 마지막 박까지를 말한다. 따라서 '드는표'는 太로 시작해 첫 각의

제16박까지 지속하는 선율형이다. 이는 <예보 6>의 평거(3.경성출) [일월이], <예보 7>의 이수대엽(3.강호에) [십년을] 제2장 초두에 기보되어 있는 '드는표'의 시작음 仲과 다르며, 같은 <연음표>지만 기보된 위치에 따라 시작음이 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

다섯 번째 유형은 우조 평거(10.샛별지자) [호미메고]와 두거(1.구름이) [아마도] 사설로 각각 제11박과 제10박에 '연음표'가 기보되어 있다. 각 <연음표> 유형에 따른 선율형은 다음의 <예보 10>과 같다.

<예보 10> 우조 평거(10.샛별지자) [호미메고] 두거(1.구름이) [아마도] 제2장 <연음표>와 선율 유형

<연음표> 유형	선율 유형
호미메고 사립나니	
아마도 허랑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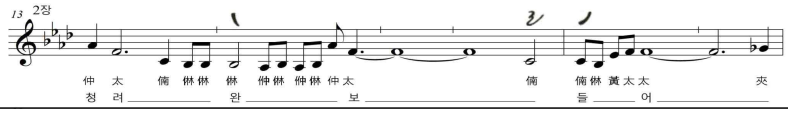
<예보 10>에서 '연음표'는 각각 초두와 이두 사이에 기보되어 두 사설 구절을 연결한다. 두 곡의 <연음표> 유형은 같지만 각 '연음표'가 연결하는 선율형은 다르게 나타난다. 평거(10.샛별지자) 제2장 [호미메고] 사설은 '연음표'가 기보되기 전 선율의 사설이 太를 지속하여 끌어주며 제10박에 마무리된다. 따라서 '연음표'는 제11박에 기보되며, '연음표'에 해당하는 음은 倘이다.

이와 달리 두거(1.구름이) 제2장 [아마도] 사설은 '연음표'가 기보되기 전 선율의 사설이 㑹으로 하행하여 제9박에 마무리된다. 따라서 '연음표'는 제10박에 기보되어 仲㑹仲㑹으로 시작해 제11박에서 㑹黃倘太로 연결하는 仲㑹仲㑹-㑹黃倘太 음형이다. 초두와 이두 사설의 종지음과 시작음이 㑹에서 太로 상행하는 형태로, '연음표'도 仲에서 요성한 후, 太로 상행하는 음형으로 사설 구절을 연결한다.

두 사설의 ‘연음표’는 이두의 시작음인 太로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초두의 사설 종지음에 따라 음형이 달라진다. 이를 보아 이수대엽 계열 제2장에서 초두와 이두 사이에 기보된 ‘연음표’의 역할은 이두의 첫 시작음인 太로 연결하는 데에 있으나, 초두의 종지음에 따라 음형은 달라질 수 있음을 나타낸다.

여섯 번째 유형은 두거(14.녹수청산) [청려완보] 사설로 초두 제4박에 ‘누르는표’, 제11박에 ‘든흘림표’, 이두에 ‘드는표’가 기보되어 있다. <연음표> 유형에 따른 선율형은 다음의 <예보 11>과 같다.

<예보 11> 우조 두거(14.녹수청산) 제2장 [청려완보] <연음표>와 선율 유형

<연음표>유형	선율 유형
청려완보 들어가니	

<예보 11>에서 초두 제4박의 ‘누르는표’는 林으로 시작해 제5박 仲林仲林으로 仲에서 요성한 후, 제6박에서 仲太로 올라오는 林-仲(林仲林)-(仲)太 선율형이다. 사설을 기준으로 ‘누르는표’ 선율의 골격음은 林에서 仲으로 하행했다 太로 상행하는 林-仲-太 형태이다.

초두와 이두 사이에 기보된 ‘든흘림표’는 ‘누르는표’가 기보된 사설의 선율이 太를 지속하며 제10박에서 마무리되므로 제11박에 기보된다. 따라서 ‘든흘림표’에 해당하는 음은 倘이다.

‘든흘림표’는 평거(10.샛별지자) 제2장 [호미메고] 사설에 기보된 ‘연음표’와 음형이 같다. 다만 제2장의 ‘연음표’ 뒤에는 어떠한 <연음표>도 기보되어있지 않았던 반면, ‘든흘림표’는 ‘드는표’가 기보된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제2장 둘째 각의 선율이 여덟 곡 모두 동일하므로 이두에 기보된 ‘드는표’는 첫 각의 제12-16박까지의 선율을 의미한다. 따라서 ‘드는표’는 倕 倧黃太로 시작해 제13박에서 太를 끌어준 후 제16박의 夾을 짧은 박으로 마무리되는 倕(倧黃太)-太-(夾) 선율형이다. 사설을 기준으로 ‘드는표’ 선율의 골격음은 倕-太로 倕에서 太로 상행하는 형태이다.

제2장 초두에 기보된 ‘드는표’ 선율의 시작음은 仲으로 비교적 일정하게 보인 반면, 이두에 기보된 ‘드는표’는 시작음이 太 또는 倕으로 변화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두 가지 가능성을 추측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같은 <연음표>라도 초두보다 이두에서 선율형이 다양할 가능성이 큰 경우이다. 즉 초두의 선율이 특정 <연음표>에서 일정한 선율형을 보여 이수대엽 계열의 곡임을 나타내야만 하므로 이두에서는 초두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른 한 가지는 초두에 기보된 <연음표>의 영향을 받아 이두도 변화했을 가능성이다. 즉, 초두에 ‘막내는표’, 또는 ‘누르는표’가 기보되었을 때 이두의 ‘드는표’도 초두에 기보된 <연음표>의 선율 중 시작음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은 <예보 9>의 중거(1.인심은) [효제충신]과 <예보 11>의 두거(14.녹수청산) [청려완보] 제2장 사설로 추측할 수 있다. 중거(1.인심은) [효제충신]의 제2장 초두에는 ‘막내는표’, 두거(14.녹수청산) [청려완보]의 제2장 초두는 ‘누르는표’가 기보되어 있다. 두 <연음표>의 시작음은 각각 太와 倧이며, 이에 따라 이두의 ‘드는표’도 시작음이 太와 倕으로 초두와 같거나 비슷함을 알 수 있다.

제2장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조 이수대엽 계열의 제2장부터는 <연음표>의 유형에서 곡의 특징을 찾아보기 어렵고 같은 유형이 다른 곡에서 나타나기도 한다.

‘드는표’는 초두에 기보된 경우, 仲에서 시작하여 제7박에서 黃太倕 음형을 거쳐 倧까지 하행하는 선율형이 일정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이두에 기보되었을 때는 太 또는 倕으로 시작하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이는 초두보다 이두에서 같은 <연음표>라도 변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또는 초두의 <연음표>의 영향을 받았을 두 가지 가능성으로 보인다.

제2장의 '막내는표'와 '누르는표'는 초두에만 기보되어 있다. '막내는표'는 太로 시작해 仲으로 상행한 후, 제7박에서 黃太倘 음형을 거쳐 琳까지 진행하며, 초두의 '드는표'와 시작음을 제외하고 동일한 하행선율형이 나타난다. '누르는표'는 초두의 제4박에 기보되어 선율의 골격음이 琳에서 仲으로 하행한 후, 太로 상행하는 형태이다.

제2장의 '연음표'와 '든흘림표'는 초두와 이두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연음표'는 두 가지 음형으로 나타나는데, 한 가지는 仲에서 요성한 후 太로 상행하여 마무리되는 형태이고, 다른 한 가지는 倘을 내주는 형태이다. 이러한 차이는 초두의 종지 선율에 의한 것으로 초두 선율이 琳으로 마무리될 때는 전자의 음형이, 太로 끝날 때는 후자의 음형으로 진행한다. '연음표'의 음형이 다르더라도 연결하는 이두의 시작음은 太로 동일하게 나타난다.

'든흘림표'의 음형은 倘으로 '연음표'와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이 역시 초두의 종지 선율이 太로 마무리됨에 의한 것이다. 다만, '든흘림표'가 기보된 경우 이두의 사설에는 '드는표'가 기보되는 차이를 보인다.

ㄷ) 제3장

우조 이수대엽 계열 제3장은 <연음표>가 기보되어 있지 않은 이수대엽(5.주공도) [문왕의 아들이요] 사설을 제외하면 총 네 가지의 유형으로 나타난다. 첫 번째 유형은 평거(3.경성출) [삼황 예악이요] 사설로 '든흘림표', '드는표', '연음표'와 '막내는표'가 기보되어 있다. 두 번째 유형은 두거(14.녹수청산) [천봉에 백운이요] 사설로 '든흘림표', '드는표'와 '막내는표'가 기보되어 있다. 세 번째 유형은 이수대엽(3.강호에) [그모든 백구는], 평거(10.샛별지자) [긴수풀 찬이슬에]와 두거(1.구름이) [중천에 떠있어] 사설로 '든흘림표'와 '드는표'가 기보되어 있다. 네 번째 유형은 중거(1.인심은·4.창랑에) [예의 염치로]·[낙조 청강에] 사설로 '드는표', '든흘

림표’와 ‘드는표’가 기보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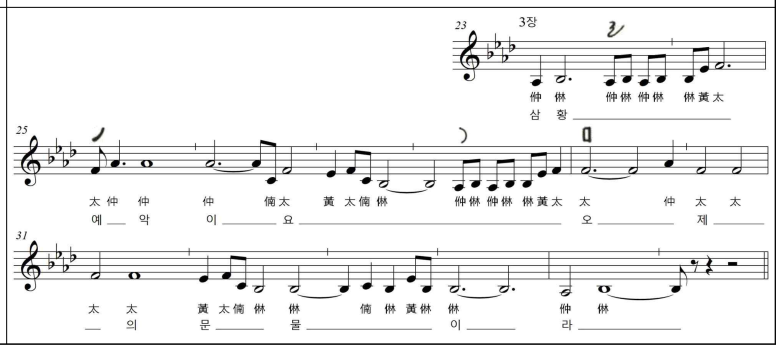
각 <연음표>의 유형과 해당하는 사설은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 우조 이수대엽 계열 제3장의 <연음표> 유형

분류	<연음표>	이수대엽	중거	평거	두거
1	○ ○ ○ ○ ○ ○ ○ ○ ○ ○ ○ ○ ○ ○			3.경성출 [삼황 예악이요]	
2	○ ○ ○ ○ ○ ○ ○ ○ ○ ○ ○ ○ ○ ○				14.녹수청산 [천봉에 백운이요]
3	○ ○ ○ ○ ○ ○ ○ ○ ○ ○ ○ ○ ○ ○	3.강호에 [그모든 백구는]		10.샛별지자 [긴수풀 찬이슬에]	1.구름이 [중천에 떠있어]
4	○ ○ ○ ○ ○ ○ ○ ○ ○ ○ ○ ○ ○ ○		1.인심은 [예의 염치로] 4.창랑에 [낙조 청강에]		

첫 번째 유형은 우조 평거(3.경성출) [삼황 예악이요][48] 사설로 일각 제3박 ‘든흘림표’, 제6박 ‘드는표’, 제15박 ‘연음표’, 이두에 ‘막내는표’가 기보되어 있다. 각 <연음표>의 유형과 그에 따른 선율형은 다음의 <예보 12>와 같다.

<예보 12> 우조 평거(3.경성출) 제3장 [삼황] <연음표>와 선율 유형

<연음표> 유형	선율 유형
삼황 예악이요 오제의 문물이라	

48) 이하 [삼황]으로 표기한다.

<예보 12>에서 제3장 일각에 기보된 '든흘림표'는 일각의 사설 '삼황'과 '예악이요' 사이에 기보되어 두 구절을 연결한다. 제3장 일각 첫 사설의 선율이 倧으로 제2박에서 마무리되므로 '든흘림표'는 제3박에 기보된다. 따라서 '든흘림표'의 음형은 仲倧仲倧-倧黃太로 仲에서 요성한 후 太로 상행하는 형태로 나타나며, 제6박에 '드는표'가 기보된 사설 '예악이요'로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제3장의 일각 제6박에 기보된 '드는표'는 太仲으로 시작해 제10박에서 짧은 박의 倘을 내고 제11박에 太로 진행한 후, 黃太倘을 거쳐 倧까지 하행하는 (太)仲-太-黃(太倘)-倧 선율형이다. 사설을 기준으로 '드는표' 선율의 골격음은 仲-太-黃-倧으로 仲에서 倧까지 하행하는 형태이다.

제3장의 일각과 이두 사이에 기보된 '연음표'는 '드는표'의 선율이 현행 악보로 일각의 제14박에서 마무리된 후 제15박에 기보된다. 따라서 '연음표'의 음형은 제15박 仲倧仲倧, 제16박 倧黃太로 仲倧仲倧-倧黃太 음형이다. 즉, 仲에서 요성한 후 太로 상행하는 형태의 음형으로 이두에 '막내는표'가 기보된 사설로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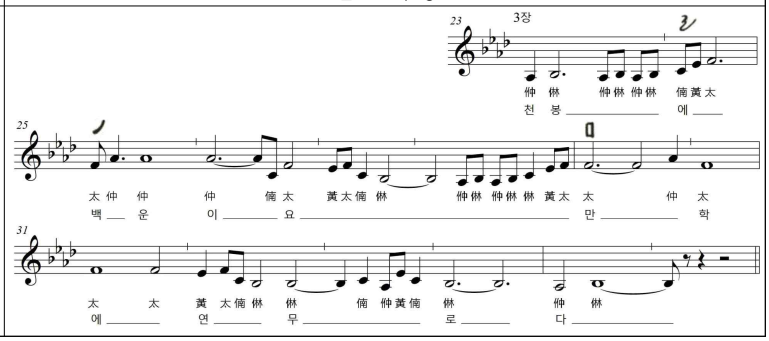
이두에 기보된 '막내는표'는 제3장 셋째 각의 선율이 여덟 곡 모두 동일하므로 제3장 둘째 각의 제12-16박까지의 선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두의 '막내는표'는 太로 시작해 짧은 박의 仲을 내준 후 다시 太로 하행하여 마무리하는 太-(仲)-太 선율형이다. 사설을 기준으로 '막내는표' 선율의 골격음은 太로 볼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은 두거(14.녹수청산) [천봉에 백운이요][49] 사설로 일각의 제4박 '든흘림표', 제6박 '드는표', 이두에 '막내는표'가 기보되어 있다.

49) 이하 [천봉에]로 표기한다.

<연음표> 유형에 따른 선율형은 다음의 <예보 13>과 같다.

<예보 13> 우조 두거(14.녹수청산) [천봉에] 제3장 <연음표>와 선율 유형

<연음표> 유형	선율 유형
천봉에 백운이요 만학에 연무이로다	

<예보 13>에서 제3장 일각에 기보된 '든흘림표'는 일각의 사설 '천봉에'와 '백운이요' 사이에 기보되어 두 구절을 연결한다. 제3장 일각 첫 사설의 선율이 제3박에서 마무리되므로 '든흘림표'는 제4박에 기보된다. '든흘림표'의 음형은 倘黃太로 나타나며, 제6박에 '드는표'가 기보된 사설 '백운이요'로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천봉에]에 기보된 '든흘림표'는 낮은 음에서 요성하는 음형이 포함되지 않는데, 이는 사설 자수의 차이에 의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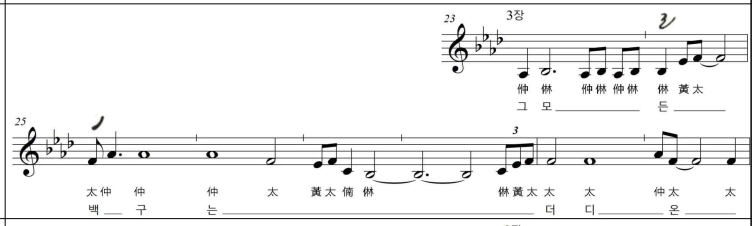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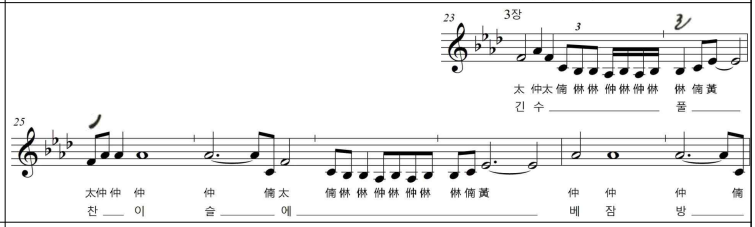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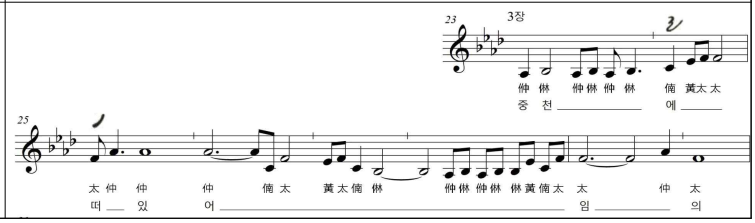
제3장의 일각 제6박에 기보된 '드는표'는 太仲으로 시작해 제10박에서 짧은 박의 倘을 내고 제11박에 太로 진행한 후, 黃太倘을 거쳐 㑹까지 하행하는 (太)仲-太-黃(太倘)-㑹 선율형이다. 사설을 기준으로 '드는표' 선율의 골격음은 仲-太-黃-㑹으로 仲에서 㑹까지 하행하는 형태이다.

이두에 기보된 '막내는표'는 제3장 셋째 각의 선율이 여덟 곡 모두 동일하므로 제3장 둘째 각의 제12-16박까지의 선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두의 '막내는표'는 太로 시작해 짧은 박의 仲을 내준 후 다시 太로 하행하여 마무리하는 太-(仲)-太 선율형이다. 사설을 기준으로 '막내는표' 선

율의 골격음은 太로 볼 수 있다.

세 번째 유형은 이수대엽(3.강호에) [그모든 백구는], 평거(10.샛별지자) [긴수풀 찬이슬에]와 두거(1.구름이) [중천에 떠있어][50] 사설로 일각의 제4박에 '든흘림표', 제6박에 '드는표'가 기보되어 있다. 각 사설의 <연음표> 유형에 따른 선율형은 다음의 <예보 14>와 같다.

<예보 14> 우조 이수대엽(3.강호에) [그모든], 평거(10.샛별지자) [긴수풀], 두거(1.구름이) [중천에] 제3장 <연음표>와 선율 유형

<연음표> 유형	선율 유형
그모든 백구는 더디온다 허려니와	
긴수풀 찬이슬에 베잠방이 다젖는다	
중천에 떠있어 임의로 다니면서	

<예보 14>에서 제3장 일각에 기보된 '든흘림표'는 각각 일각의 사설 '그모든'과 '백구는' 사이, '긴수풀'과 '찬이슬에' 사이와 '중천에'와 '떠있어' 사이에 기보되어 두 구절을 연결한다. '천봉에'와 '백운이요' 사이에 기보되어 두 구절을 연결한다. [그모든]과 [중천에] 사설은 각 사설의 마지막

50) 이하 각각 [그모든], [긴수풀], [중천에]로 표기한다.

자수 ‘든’과 ‘에’에 해당하는 제4박에 ‘든흘림표’가 기보된다. 두 곡의 ‘든흘림표’의 음형은 [그모든]의 경우 倧黃太이고 [중천에]는 倘黃太로 倧또는 倘으로 시작해 太로 상행하는 형태로 각각 ‘백구는’과 ‘떠있어’ 구절로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긴수풀] 사설은 마지막 자수 ‘풀’에 해당하는 제4박에 ‘든흘림표’가 기보된다. ‘든흘림표’의 음형은 倧倘黃으로 倧에서 시작해 黃으로 상행하는 형태로 ‘찬이슬에’ 구절로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세 사설 모두 ‘든흘림표’는 倧 또는 倘에서 상행하는 유형이지만 이수대엽(3.강호에) [그모든], 두거(1.구름이) [중천에] 사설에 기보된 ‘든흘림표’는 太로, 평거(10.샛별지자) [긴수풀]의 ‘든흘림표’는 黃으로 상행해 다른 음형을 보인다. 또한, 사설의 자수로 인해 낮은음에서 요성하는 음형이 포함되지 않는다.

제3장 일각의 제6박에 기보된 ‘드는표’는 [그모든]의 경우, 太仲으로 시작해 제11박에 太로 진행한 후, 黃太倘을 거쳐 倧까지 하행하는 (太)仲-太-黃(太倘)-倧 선율형이다. 사설을 기준으로 ‘드는표’ 선율의 골격음은 仲-太-黃-倧으로 仲에서 倧까지 하행하는 형태이다.

[중천에] 사설의 ‘드는표’는 太仲으로 시작해 제10박에서 짧은 박의 倘을 내고 제11박에 太로 진행한 후, 黃太倘을 거쳐 倧까지 하행하는 (太)仲-仲(倘)-太-黃(太倘)-倧 선율형이다. 사설을 기준으로 ‘드는표’ 선율의 골격음은 仲-太-黃-倧으로 仲에서 倧까지 하행하는 형태이다.

[긴수풀]의 ‘드는표’는 太仲으로 시작해 제10박에서 짧은 박의 倘을 내고 제11박에 太, 제7박에 倘倧으로 마무리되는 (太)仲-仲(倘)-太-(倘)倧 선율형이다. 사설을 기준으로 ‘드는표’ 선율의 골격음은 仲-太-倧으로 仲에서 太, 倧으로 하행하는 형태로 [그모든], [중천에] 두 사설에 기보된 ‘드는표’가 黃을 거쳐 하행한 것과 다른 선율형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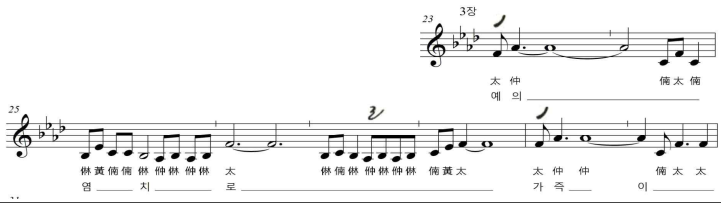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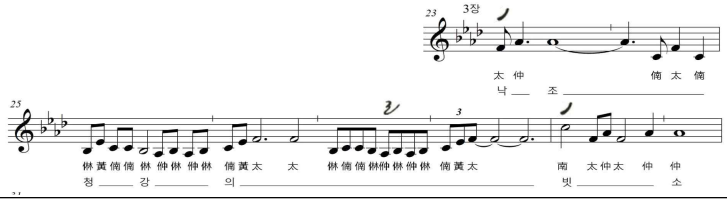
이렇듯 <예보 14>의 세 사설은 같은 박에 기보된 부호여도 음형 또는 선율형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에 대해 몇 가지 원인을 추측할 수 있는데, 먼저 ‘든흘림표’의 경우, [그모든]과 [중천에] 사설은 倧으로 시작한 반면,

[긴수풀]은 太로 시작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차이는 제3박 종지 선율에도 영향을 미쳐 골격음은 林으로 같지만, 음형에서 다른 형태를 보이며 '든흘림표'의 음형까지 변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드는표'의 경우, 시작음은 세 사설이 太仲으로 같지만, [그모든]과 [중천에] 선율은 일각의 제12박에서 黃太倘 음형을 내준 후 林까지 하행하는 형태이다. 반면 [긴수풀]은 같은 박에서 倘林으로 바로 진행하는 점이 다르다. 이는 일각의 두 번째 사설이 [그모든]과 [중천에]는 각각 '백구는'과 '떠있어'로 세 자이고, [긴수풀]은 '찬이슬에'로 네 자로 자수의 차이에 의해 선율형이 다르게 진행한 것으로 추측된다.

네 번째 유형은 중거(1.인심은·4.창랑에) [예의 염치로]·[낙조 청강에][51] 사설이며, 일각 첫 박에 '드는표', 제13박에 '든흘림표', 이두에 '드는표'가 기보되어 있다. <연음표> 유형에 따른 선율형은 다음의 <예보 15>와 같다.

<예보 15> 우조 중거(1.인심은·4.창랑에) 제3장 [예의]·[낙조] <연음표>와 선율 유형

<연음표> 유형	선율 유형
예의 염치로 가즉이 예였으니	
낙조 청강에 빗소래 더욱 좋다	

<예보 15>에서 일각의 첫 박에 기보된 '드는표'는 두 사설 모두 太仲으로 시작해 짧은 박의 倘을 거쳐 제5박에 太倘으로 마무리되는 선율형

51) 이하 [예의], [낙조]로 표기한다.

이지만 사설과 박에 따라 골격음이 달라진다. [예의]의 경우 첫 박에 '예의' 사설이 모두 붙은 太仲-(倘太)倘으로 사설을 기준으로 선율의 골격음은 太仲-倘 형태이다. 즉, 太에서 仲으로 상행해 倘으로 하행하는 선율형이다. 반면 [낙조]는 첫 박에 '낙', 제2박에 '조'가 붙는 (太)仲-(倘)-太(倘)으로 사설을 기준으로 선율의 골격음은 仲-太이다. 두 사설은 일각의 제6박이 모두 林으로 시작하는 낮은음이므로 하행하는 선율형을 보이나 사설의 말붙임에 따라 골격음에서 차이를 보인다.

일각에 기보된 '든흘림표'는 일각과 이두의 사설 구절을 연결한다. 두 곡의 일각에 해당하는 두 번째 사설 구절 '염치로'와 '청강에'는 林으로 제12박에서 마무리되므로 '든흘림표'는 제13박에 기보되며, 이에 따른 '든흘림표'의 음형은 두 곡 모두 仲林仲林-倘黃太이다. 즉, 仲에서 요성한 후, 太로 상행하는 음형으로 이두의 사설로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이두에 기보된 '드는표'는 두 사설의 선율형이 다르게 나타난다. 중거(1.인심은) 제3장 [예의] 사설의 이두는 太仲으로 시작해 倘太로 내려와 지속하는 太仲-(倘)-太 선율형이다. 사설을 기준으로 '드는표' 선율의 골격음은 太仲-太로 太로 시작해 仲으로 상행한 후, 다시 太로 하행하는 형태이다.

중거(4.창랑은) 사설의 제3장 [낙조] 사설 이두의 '드는표'는 南으로 시작해 太仲太로 내려왔다 仲으로 다시 상행하는 南-(太仲)太-仲 선율형이다. '드는표' 선율의 골격음은 南-太-仲으로 시작 부분에 南과 太를 내준 후, 仲으로 상행하는 형태이다.

제3장 이두의 '드는표'도 제2장 이두의 '드는표'처럼 선율의 시작음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를 보아 이두의 <연음표>는 초두보다 변화의 가능성이 높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상 제3장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3장의 '드는표'는 일각의 첫 박에 기보된 것과 제6박에 기보된 두 가

지 경우로 나뉜다. 첫 박에 기보된 ‘드는표’는 하행 선율형이지만 사설의 말붙임에 따라 仲-太와 太仲-倘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제6박은 仲으로 시작해 林까지 하행하는 형태이다. ‘드는표’의 선율이 林까지 하행할 경우 대체로 黃太倘의 음형을 거쳐가는 특징을 보인다. 그러나 평거(10.샛별지자) [긴수풀]에서 ‘드는표’가 기보된 사설은 仲-太-林으로 黃太倘 음형을 거치지 않고 太에서 바로 林으로 하행하는 유형을 보인다. 따라서 일각에 기보된 ‘드는표’는 비교적 일정하지만 사설의 자수에 따라 골격음 진행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드는표’가 이두에 기보되었을 경우, 골격음은 太仲에서 太까지 하행하는 유형과 南과 太로 시작해 仲으로 진행하는 두 가지 유형을 볼 수 있다. 이는 제2장에 기보된 ‘드는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두에 기보된 ‘드는표’가 초두 또는 일각에 기보된 <연음표>에 비해 변화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제3장의 ‘막내는표’는 이두에만 기보되어 있으며 선율의 골격음은 太로 일정하게 나타난다. ‘누르는표’는 제3장에 기보되어 있지 않아 선율형을 알 수 없다.

제3장의 ‘든흘림표’는 모두 ‘드는표’ 앞에 기보되어, 있으며 일각의 두 사설 구절을 연결하는 경우와 일각과 이두의 사설을 연결하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로 일각의 사설을 연결하는 ‘든흘림표’의 음형은 仲林仲林으로 仲을 요성한 후 상행하는 유형과, 요성없이 바로 林黃太 또는 倘黃太로 상행하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이는 사설 자수에 따라 ‘든흘림표’가 의미하는 음형이 다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평거(10.샛별지자) 제3장 [긴수풀] 사설은 林倘黃으로 음형은 상행하지만 黃에서 마무리된다. 이는 ‘든흘림표’가 기보되기 전 사설의 선율 골격음이 太로 시작해 林으로 하행하는 형태로 앞의 유형과 다르므로 마무리되는 음도 달라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로 일각에서 이두로 연결하는 ‘든흘림표’의 음형은 仲林仲林-倘黃太이며, ‘든흘림표’가 기보되기 전 사설의 선율이 林으로 종지하는 일정한 형태를 보인다. 따라서 ‘든흘림표’는 ‘드는표’가 기보된 이두의 사설로

연결하기 위해 太로 상행하는 음형을 보인 것으로 추측된다.

제3장의 일각과 이두 사이에 기보된 ‘연음표’의 음형은 仲林仲林-林黃太이며 ‘연음표’가 기보되기 전 사설의 선율은 林으로 하행하며 종지하는 형태이다. ‘연음표’는 林에서 太로 상행하며 이두의 사설 첫 시작음 太로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연음표’와 ‘든흘림표’는 같은 음형을 보이지만, ‘든흘림표’는 ‘드는표’가 기보된 사설로, ‘연음표’는 <연음표>가 생략되어 있지만 ‘드는표’보다 낮은음에 해당하는 사설로 연결하는 차이를 보인다. ‘누르는표’는 제3장에 기보되어 있지 않아 선율형을 알 수 없다.

ㄹ) 제4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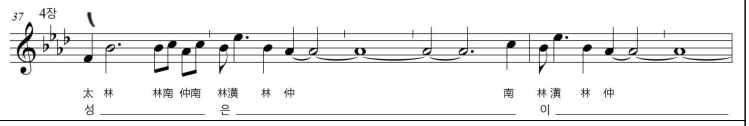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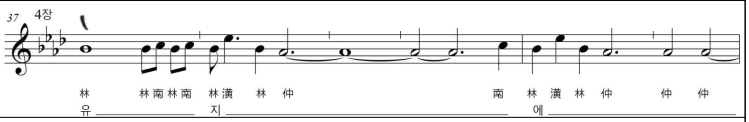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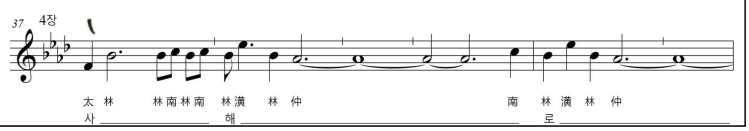
가곡에서 제4장의 사설은 시조의 종장에서 첫 구절만 노래하며 사설의 자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연음표>도 단순하게 표시된다. 따라서 우조 이수대엽 계열 제4장은 ‘누르는표’와 ‘드는표’ 두 가지 <연음표> 유형으로 나뉜다. 각각의 <연음표>가 표기된 사설은 다음의 <표 5>와 같다.

<표 5> 남창 우조 이수대엽 계열 제4장의 <연음표> 유형

분류	<연음표>	이수대엽	중거	평거	두거
1	ㅣ ㅇㅇㅇ	3.강호에 [성은이]	4.창랑에 [유지에]	3.경성출 [사해로]	x
2	ㅣ ㅇㅇㅇ	5.주공도 [평생에]	1.인심은 [천만년]	10.샛별지자 [아희야]	1.구름이 [구태여] 14.녹수청산 [이곳에]

‘누르는표’가 기보된 곡은 이수대엽(3.강호에) [성은이], 중거(4.창랑에) [유지에], 평거(3.경성출) [사해로] 세 사설로 이에 따른 선율형은 다음의 <예보 1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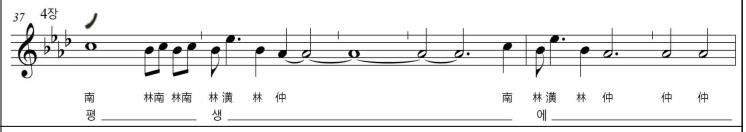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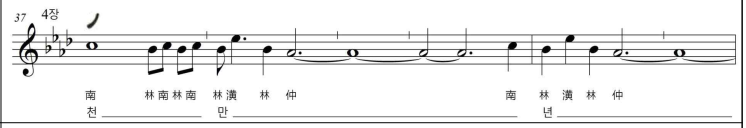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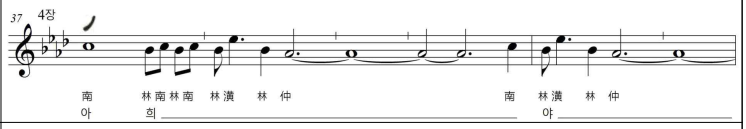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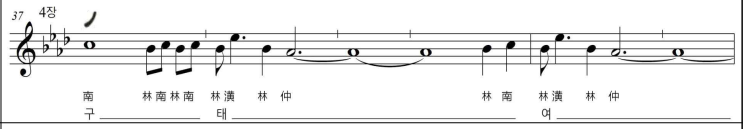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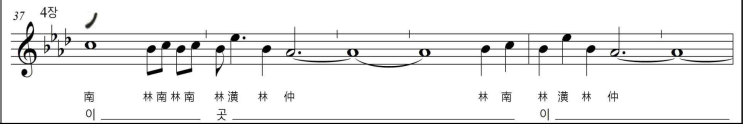
<예보 16> 우조 이수대엽 계열 제4장의 ‘누르는표’ 선율 유형

<연음표>	사설	선율 유형
성은이	이수대엽3 (강호에)	
유지에	중거4 (창랑에)	
사해로	평거3 (경성출)	

<예보 16>에서 제4장의 ‘누르는표’는 첫 박에 太林 또는 林으로 시작해 제2박에서 林으로 진행한 후, 제3박의 林南林南으로 林에서 요성하는 (太)林-林-林南林南 선율형이다. 사설을 기준으로 ‘누르는표’의 선율 골격음은 林이다.

‘드는표’가 기보된 곡은 이수대엽(5.주공도) [평생에], 중거(1.인심은) [천만년], 평거(10.샛별지자) [아희야], 두거(1.구름이) [구태여]·(14.녹수청산) [이곳에] 다섯 사설에 기보되어 있다. 이에 따른 선율형은 다음의 <예보 17>과 같다.

<예보 17> 우조 이수대엽 계열 제4장의 ‘드는표’ 선율 유형

<연음표>	사설	선율 유형
평생에	이수대엽5 (주공도)	
천만년	중거1 (인심은)	
아희야	평거10 (샛별지자)	
구태여	두거1 (구름이)	
이곳에	두거14 (녹수청산)	

<예보 17>에서 제4장의 ‘드는표’는 南으로 시작해 林으로 요성하는 南-林 선율형이다. 즉, 南으로 시작해 林으로 하행하는 형태이다. 제4박부터의 선율 진행은 ‘누르는표’가 기보된 선율과 동일하므로, ‘드는표’의 선율형도 제3박까지로 볼 수 있다.

우조 이수대엽 계열 제4장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4장에 기보된 ‘누르는표’의 골격음은 林으로 시작해 제3박까지 지속하는 선율형이고, ‘드는표’는 南으로 시작해 林으로 하행하는 선율형이다. 제4장에 기보된 두 <연음표>의 역할은 예외의 경우 없이 명확하고 일정하게 구분된다. 이는 제4장이 가진 특수성으로, 시조 문학에서 평면적 흐름을 차단하고 서정적 전환이 가능한 구조적 장치이자 정형성의 의미가 있는 종장의 첫 구절이 가곡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52]

ㅁ) 제5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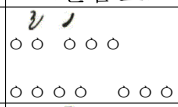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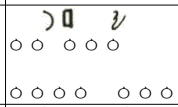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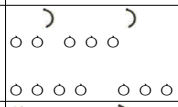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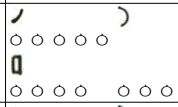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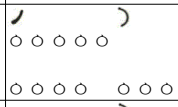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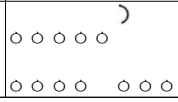
남창 우조 이수대엽 계열 제5장의 <연음표> 유형은 총 여섯 가지로 나타난다.

첫 번째 유형은 두거(1.구름이) [광명헌 날빛을] 사설로 '든흘림표'와 '드는표'가 기보되어 있다. 두 번째 유형은 평거(10.샛별지자) [시절이 좋을손] 사설로 '연음표', '막내는표', '든흘림표'가 기보되어 있다. 세 번째 유형은 두거(14.녹수청산) [경개 좋으니] 사설로 '연음표'가 두 개 기보되어 있다. 네 번째 유형은 중거(4.창랑에) [옥린을 꿰어들고]와 평거(3.경성출) [태평주 비져내어] 사설로 '드는표', '연음표', '막내는표'가 기보되어 있다. 다섯 번째 유형은 이수대엽(5.주공도) [일호교기를] 사설로 '드는표'와 '연음표'가 기보되어 있다. 여섯 번째 유형은 이수대엽(3.강호에) [지중허시니], 중거(1.인심은) [풍우를 만난들] 사설로 '연음표'가 기보되어 있다.

각 유형별 <연음표>와 사설은 다음의 <표 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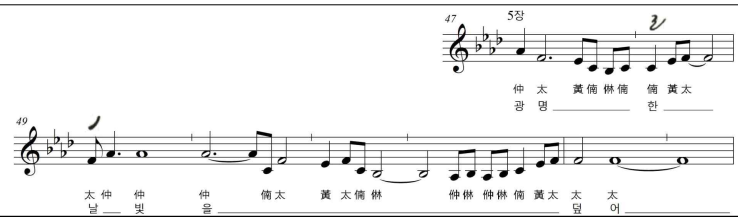
52) 변미혜, "가곡 4장과 시조시와의 관계", 『한국음악사학회 제20집』, (1998), 159-178쪽.

<표 6> 남창 우조 이수대엽 계열 제5장의 <연음표> 유형

분류	<연음표>	이수대엽	중거	평거	두거
1					1.구름이 [광명헌 날빛을]
2				10.샛별지자 [시절이 좋을손]	
3					14.녹수청산 [경개 좋으니]
4			4.창랑에 [옥린을 꿰어들고]	3.경성출 [태평주 비져내어]	
5		5.주공도 [일호교기를]			
6		3.강호에 [지중허시니]	1.인심은 [풍우를 만난들]		

첫 번째 유형은 두거(1.구름이) [광명헌 날빛을][53] 사설로 일각 제4박에 '든흘림표', 제6박에 '드는표'가 기보되어 있다. <연음표>에 따른 선율형은 다음의 <예보 18>과 같다.

<예보 18> 우조 두거(1.구름이) 제5장 [광명헌] <연음표>와 선율 유형

<연음표> 유형	선율 유형
광명헌 날빛을 덮어무삼 허리요	

<예보 18>에서 첫 각에 기보된 '든흘림표'는 전 사설의 선율이 林倘으로 마무리되며 제4박에 기보된다. '든흘림표'에 해당하는 음형은 倘黃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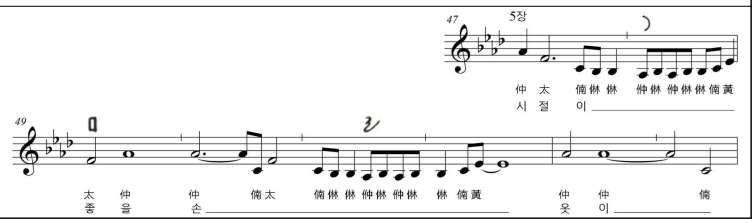
53) 이하 [광명헌]으로 표기한다.

로 倘에서 太로 상행하는 형태이며, ‘드는표’가 기보된 다음 사설 ‘날빛을’에 해당하는 시작음 太仲으로 두 구절을 연결한다.

일각의 제6박에 기보된 ‘드는표’는 太仲으로 시작해 제10박의 짧은 박 倘을 거쳐 제11박의 太로 진행한 후, 제12박에서 黃太倘을 거쳐 林으로 마무리되는 (太)仲-(倘)-太-黃(太倘)-林 선율형이다. 사설을 기준으로 했을 때 ‘드는표’의 선율의 골격음은 仲-太-黃-林으로 仲에서 林으로 하행하는 형태이다.

두 번째 유형은 평거(10.샛별지자) [시절이 좋을손][54] 사설로, 일각의 제4박에 ‘연음표’, 제6박에 ‘막내는표’, 제14박에 ‘든흘림표’가 기보되어 있다. <연음표>에 따른 선율형은 다음의 <예보 19>와 같다.

<예보 19> 우조 평거(10.샛별지자) 제5장 [시절이] <연음표>와 선율 유형

<연음표> 유형	선율 유형
시절이 좋을손 웃이젖다 관계하랴	

<예보 19>에서 첫 각에 기보된 ‘연음표’는 전 사설의 선율이 仲에서 시작해 林으로 하행하며 마무리되므로 제4박에 기보된다. ‘연음표’의 음형은 제4박에서 仲林仲林을 내준 후 제5박에서 林倘黃으로 진행하는 형태이다. 仲과 林을 제4박에서 반복한 후 제5박에서 林에서 黃까지 상행하는 음형으로, 이는 다음 구절 ‘좋을손’에 기보된 ‘막내는표’의 시작음 太로 연결하기 위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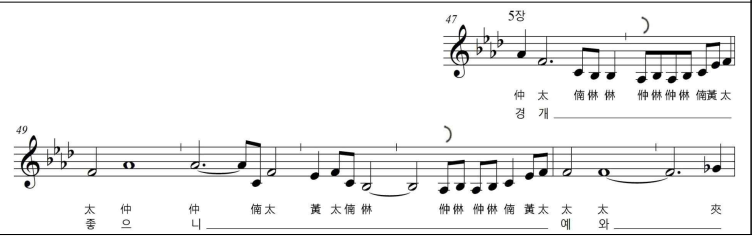
54) 이하 [시절이]로 표기한다.

일각의 제6박에 기보된 ‘막내는표’는 太로 시작해 仲으로 상행한 후, 제10박의 짧은 박인 倘을 거쳐 제11박의 太로 돌아오고 제12박에서 倘林으로 하행하는 太-仲-(倘)-太-(倘)林 선율형이다. 사설을 기준으로 선율의 골격음은 太-仲-太-林으로 太로 시작해 仲으로 상행한 후 林까지 하행하는 형태이다.

둘째 각의 ‘든흘림표’는 일각과 이두 사이에 기보되어 사설을 연결한다. ‘좋을손’에 해당하는 선율이 제12박에서 마무리되므로 ‘든흘림표’는 일각의 제13박에 기보된다. ‘든흘림표’의 음형은 제13박에서 仲林仲林을 일정하게 내준 후 제14박에서 林倘黃으로 상행해 제16박까지 뻗어준다. 따라서 ‘든흘림표’의 음형은 仲에서 요성한 후 林에서 黃까지 상행하며, 첫 박에 기보된 ‘막내는표’보다 높은 시작음인 仲으로 이두의 사설을 연결한다. 따라서 이두에 해당하는 사설의 <연음표>는 생략되어 있지만, ‘든흘림표’가 ‘드는표’에 해당하는 시작음으로 연결함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유형은 두거(14.녹수청산) [경개 좋으니][55] 사설로, 일각의 제4박과 제15박에 각각 ‘연음표’가 기보되어 있다. <연음표>에 따른 선율형은 다음의 <예보 20>과 같다.

<예보 20> 우조 두거(14.녹수청산) [경개] 제5장 <연음표>와 선율 유형

<연음표> 유형	선율 유형
경개 좋으니 예와놀려 허노라	

<예보 20>에서 첫 각의 ‘연음표’는 전 사설의 선율이 제3박에서 林으

55) 이하 [경개]로 표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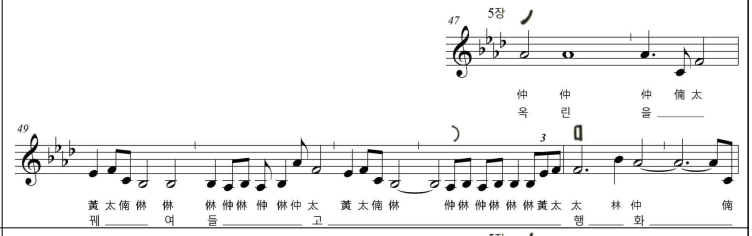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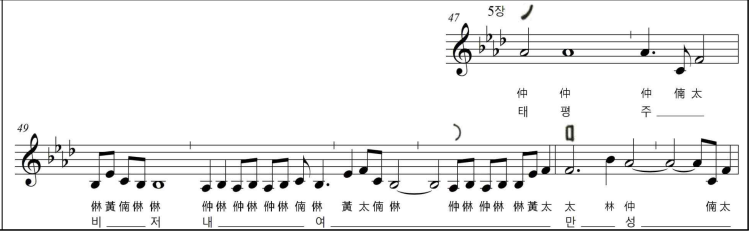
로 마무리되므로 제4박에 기보된다. ‘연음표’의 음형은 제4박에서 仲㑹仲㑹을 내준 후 제5박에서 倘黃太로 진행하는 형태이다. 仲과 㑹을 제4박에서 반복한 후 제5박에서 倘에서 太까지 상행하는 음형으로, 이는 다음 구절 ‘좋으니’의 시작음 太로 연결하기 위함이다. ‘좋으니’의 <연음표>는 생략되어 있지만 ‘연음표’가 기보되어 있고 다음 구절의 시작음이 太이므로 ‘연음표’는 ‘드는표’보다 낮은음으로 연결할 경우 기보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둘째 각의 ‘연음표’는 일각과 이두 사이에 기보되어 두 사설 구절을 연결한다. ‘좋으니’에 해당하는 선율이 일각의 제14박에서 㑹으로 마무리되므로 ‘연음표’는 제15박에 기보된다. ‘연음표’의 음형은 제15박에서 仲㑹仲㑹을 내준 후 제16박에서 倘黃太로 진행하는 형태이다. 仲과 㑹을 제15박에서 반복한 후 제16박에서 倘에서 太까지 상행하는 음형으로, 이는 다음 구절 ‘예와 놀려’의 시작음 太로 연결하기 위함이다. 이두에 해당하는 사설의 <연음표>는 생략되었으나 시작음이 太인 것을 보아 ‘연음표’는 ‘드는표’보다 낮은음으로 연결할 경우 기보되는 것으로 보인다.

네 번째 유형은 중거(4.창랑에) [옥린을 꿰어들고]와 평거(3.경성출) [태평주 비져내어][56] 사설로, 첫 각에 ‘드는표’, 둘째 각 제10박에 ‘연음표’, 제12박에 ‘막내는표’가 기보되어 있다. <연음표>에 따른 선율형은 다음의 <예보 21>과 같다.

56) 이하 중거(4.창랑에) 사설은 [옥린을], 평거(3.경성출) 사설은 [태평주]로 표기한다.

<예보 21> 우조 중거(4.창랑에) [옥린을], 평거(3.경성출) [태평주] 제5장 <연음표>와 선율 유형

<연음표> 유형	선율 유형
옥린을 꿰어들고 행화촌에 가리라	
태평주 비져내여 만성동취 허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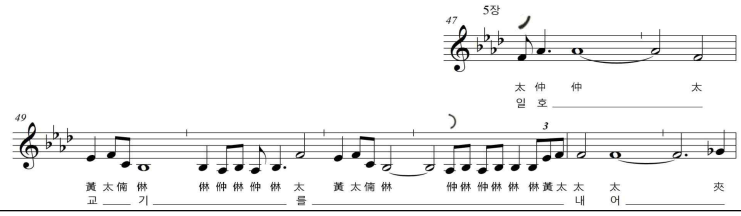
<예보 21>에서 첫 각에 기보된 ‘드는표’는 仲으로 시작해 제4박의 짧은 박 倘을 거쳐 제5박에서 太로 마무리되는 仲-仲(倘)-太 선율형이다. 사설을 기준으로 선율의 골격음은 仲-太로 仲으로 시작해 太로 하행하는 유형이다.

둘째 각에 기보된 ‘연음표’는 일각과 이두의 사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연음표’가 기보되기 전 사설 ‘꿰어들고’와 ‘빚어내여’가 일각의 제14박에서 倞으로 선율이 마무리되므로 ‘연음표’는 제15박에 기보된다. ‘연음표’의 음형은 제15박에서 仲倞仲倞을 내준 후 제16박에서 倞黃太로 진행하는 형태이다. 仲과 倞을 제15박에서 반복한 후 제16박에서 倞에서 太까지 상행하는 음형으로, 이는 ‘막내는표’가 기보된 이두 사설의 시작음 太로 연결하기 위함이다.

이두에 기보된 ‘막내는표’는 太로 시작해 짧은 박의 林을 거쳐 仲으로 진행한 후 다시 짧은 박의 倘 또는 倘太로 마무리되는 太-(林)仲-(倘太) 선율형이다. 사설을 기준으로 선율의 골격음은 太-仲이므로 이두의 ‘막내는표’는 太로 시작해 仲으로 상행하는 선율형이다.

다섯 번째 유형은 이수대엽(5.주공도) [일호교기를][57] 사설로 일각 첫 박에 ‘드는표’, 제15박에 ‘연음표’가 기보되어 있다. <연음표>에 따른 선율형은 다음의 <예보 22>와 같다.

<예보 22> 우조 이수대엽(5.주공도) 제5장 [일호] <연음표>와 선율 유형

<연음표> 유형	선율 유형
일호교기를 내어본 일 없세라	

<예보 22>에서 일각 첫 박에 기보된 ‘드는표’는 太仲으로 시작해 太로 하행하는 太仲-太 선율형이다. 사설을 기준으로 ‘드는표’ 선율의 골격음은 太仲-太로 太仲에서 太로 하행하는 형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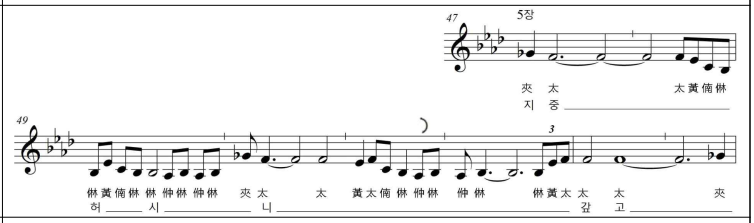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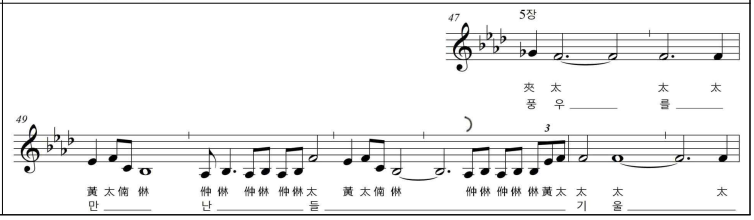
둘째 각의 ‘연음표’는 일각과 이두 사이에 기보되어 사설의 구절을 연결한다. ‘연음표’가 기보되기 전 사설인 ‘교기를’의 선율이 倧으로 일각의 제14박에서 마무리되므로 ‘연음표’는 제15박에 기보된다. ‘연음표’의 음형은 제15박에서 仲倧仲倧을 내준 후 제16박에서 倧黃太로 진행하는 형태이다. 仲과 倧을 제15박에서 반복한 후 제16박에서 倧에서 太까지 상행하는 음형으로, 이는 이두 사설의 시작음 太로 연결하기 위함이다. 이두의 <연음표>는 생략되었으나 시작음이 太이므로 ‘연음표’는 ‘드는표’보다 낮은음에 해당하는 음으로 연결할 때 기보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마지막 여섯 번째 유형은 이수대엽(3.강호에) [지중허시니]와 중거(1.인심은) [풍우를 만난들][58] 사설로 일각과 이두 사이에 ‘연음표’가 기보되

57) 이하 [일호]로 표기한다.
58) 이하 이수대엽(3.강호에) 사설은 [지중], 중거(1.인심은) 사설은 [풍우를]로 표기한다.

어 있다. <연음표>에 따른 선율형은 다음의 <예보 23>과 같다.

<예보 23> 우조 이수대엽(3.강호에) [지중], 중거(1.인심은) [풍우를] 제5장 <연음표>와 선율 유형

<연음표> 유형	선율 유형
지중허시니 갚고갈려 하노라	
풍우를 만난들 기울줄이 있으랴	

<예보 23>에서 '연음표'는 일각과 이두 사이에 기보되어 사설을 연결한다. '연음표'가 기보되기 전 사설 '허시니'와 '만난들'의 선율은 林으로 마무리되지만 마무리되는 박의 위치가 다르다. [지중]의 경우, '허시니'의 선율은 일각의제12박에서 마무리된 후 곧이어 仲林仲林 음형이 나오므로 '연음표'는 제12박에 기보된다. 이와 달리 [풍우를]의 사설 '만난들'은 일각의 제13박에서 林으로 내려와 두 박 반을 지속하므로 '연음표'는 제15박 반에 기보된다. 두 곡의 '연음표'의 음형은 仲林仲林으로 시작해 林黃太로 진행하는 형태이다. '연음표'가 기보되는 위치는 두 곡이 다르지만 음형은 仲과 林을 반복한 후 林에서 太까지 상행하는 형태로, 이는 두 곡 모두 이두 사설의 시작음 太로 연결하기 위함이다. 이두의 <연음표>는 생략되었으나 시작음이 太이므로 '연음표'는 '드는표'보다 낮은음에 해당하는 음으로 연결할 때 기보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제5장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드는표’는 일각의 첫 박에 기보되는 경우와 제6박에 기보되는 두 가지 경우로 나뉜다. 첫 박에 기보될 경우 ‘드는표’의 선율의 골격음은 仲-太, 또는 太仲-太로 仲 또는 太仲에서 太로 하행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제6박에 기보되는 ‘드는표’ 선율의 골격음은 仲-太-黃-㑹으로 仲에서 㑹까지 하행하는 형태이다.

‘막내는표’는 일각의 제6박에 기보되는 경우와 이두에 기보되는 두 가지 경우로 나뉜다. 일각의 제6박에 기보된 ‘막내는표’ 선율의 골격음은 太-仲-太-㑹으로 太로 시작해 仲으로 상행한 후 㑹으로 하행하는 유형이다. 이두에 기보된 ‘막내는표’ 선율의 골격음은 太-仲으로 太로 시작해 仲으로 상행하는 유형이다.

‘누르는표’는 제5장에서 기보된 사설이 없어 선율형을 볼 수 없었다.

‘든흘림표’는 일각의 두 사설 구절 사이에 기보된 경우 倘黃太 음형으로, 일각과 이두 사이에 기보될 때는 仲㑹仲㑹-㑹倘黃 음형을 보였다. 仲에서 요성하는 음형이 보이지 않는 경우는 사설의 자수에 의한 것이며, 太로 상행해 ‘드는표’가 기보된 사설로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연음표’는 仲㑹仲㑹으로 仲에서 요성하여 㑹黃太 또는 㑹倘黃으로 두 가지 음형이 나타났다. 㑹倘黃으로 이어진 경우는 일각의 두 사설 구절 사이에 기보된 ‘든흘림표’, 또는 ‘연음표’의 음형도 㑹倘黃으로 진행한 특징을 보인다. 이에 따라 이두로 연결하는 ‘연음표’의 음형도 같은 음형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ㅂ) 소결

『가곡원류』 우조 이수대엽 계열의 선율형을 음높이를 나타내는 것과 연결형 <연음표>로 각각 나누어 장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조 이수대엽 계열의 초장은 곡마다의 특징이 <연음표> 유형을 통해 뚜렷하게 드러나는 편이다. 이수대엽과 중거의 차이는 초장의 이두부터, 평거와 두거는 각각 첫 박의 ‘막내는표’와 ‘드는표’를 통해 시작음부터 특

징을 드러낸다. 따라서 이수대엽 계열에서 초장은 곡 성격을 명확히 보여주는 부분임을 알 수 있다.

<연음표>에 따른 선율형을 각각 살펴보면 이수대엽 계열 초장 초두는 기보된 부호에 따라 '누르는표'는 仲㐗, '막내는표'는 太, '드는표'는 (林)南으로 각각 선율의 시작음이 달라진다. 세 <연음표>는 '든흘림표'가 기보되어 있지 않을 때, 제7박에서 黃太倘의 음형을 보이며 㐗까지 하행하는 공통적인 선율형을 보인다. 그러나 '든흘림표'가 기보된 중거 초장 초두의 '누르는표' 선율은 제7박에서 黃太倘 음형을 보이지 않고 㐗으로 바로 하행한다. 따라서 초장에 초두와 이두를 연결하는 '든흘림표'가 제8박에 기보될 경우 제7박에 영향을 미치며 黃太倘 음형이 생략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거에 기보된 '든흘림표'의 음형은 仲㐗仲㐗-倘黃太이다.

초장 이두에 <연음표>가 표기되어있는 노래는 중거로 '드는표'가 기보되어 있으며, 선율의 골격음은 南-林-仲이다. 따라서 초장 초두와 이두에 기보된 '드는표' 선율의 골격음은 南으로 시작하는 점이 같다. 그러나 이두에 기보된 '드는표'는 첫 각 마지막 박까지 선율을 의미하므로 仲으로 선율이 마무리되는 점이 초두에 기보된 '드는표'와 다르다.

우조 이수대엽 계열의 제2장부터는 <연음표>의 유형에서 곡의 특징을 찾아보기 어렵고 같은 유형이 다른 곡에서 나타나기도 한다.

제2장 초두에 기보된 <연음표>는 첫 박에 '드는표', 또는 '막내는표'가 기보된 경우와 제4박에 '누르는표'가 기보된 세 가지 경우로 나타난다. 초두 첫 박에 '드는표'가 기보된 경우 선율의 골격음은 仲에서 시작하여 제7박에서 黃太倘 음형을 거쳐 㐗까지 하행하는 선율형이 일정하게 나타난다. '막내는표'의 선율 골격음은 太로 시작해 仲으로 상행한 후, 제7박에서 黃太倘 음형을 거쳐 㐗까지 진행하며, 초두의 '드는표'와 시작음을 제외하고 동일한 하행선율형이 나타난다. 초두 제4박에 기보된 '누르는표'의 선율 골격음은 㐗에서 仲으로 하행한 후, 太로 상행하는 형태이다.

제2장 이두에 기보된 <연음표>는 '드는표' 한 가지 경우만 나타나며, 선율의 골격음은 太 또는 倘으로 시작하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이는 초두보다 이두에서 같은 <연음표>가어도 변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또는 초두의 <연음표>의 영향을 받았을 두 가지 가능성으로 보인다.

제3장의 <연음표>는 일각의 첫 박 및 제6박, 그리고 이두에 기보된 세 가지 경우로 나뉜다.

제3장 일각 첫 박에 기보된 <연음표>는 '드는표' 한 가지이며, 선율 골격음은 仲-太와 太仲-倞의 두 가지 하행선율 유형으로 나타난다. 일각 제6박에 기보된 <연음표>는 '드는표' 한 가지이며, 선율의 골격음은 仲으로 시작해 倧까지 하행하는 형태이다. '드는표'의 선율이 倧까지 하행할 경우 대체로 黃太倞의 음형을 거쳐가는 특징을 보인다. 그러나 평거(10.샛별지자) [긴수풀]에서 '드는표'가 기보된 사설은 仲-太-倧으로 黃太倞 음형을 거치지 않고 太에서 바로 倧으로 하행하는 유형을 보인다. 따라서 일각에 기보된 '드는표'는 비교적 일정하지만 사설의 자수에 따라 골격음 진행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제3장 이두에 기보된 <연음표>는 '드는표' 또는 '막내는표' 두 가지 경우로 나뉜다. '드는표'의 선율 골격음은 太仲에서 太까지 하행하는 유형과 南과 太로 시작해 仲으로 진행하는 두 가지 유형을 볼 수 있다. 이는 제2장에 기보된 '드는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두에 기보된 '드는표'가 초두 또는 일각에 기보된 <연음표>에 비해 변화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막내는표'의 선율 골격음은 太로 일정하게 나타난다. '누르는표'는 제3장에 기보되어 있지 않아 선율형을 알 수 없다.

제4장은 '누르는표' 또는 '드는표'가 기보된 두 가지 경우로 나뉜다. '누르는표'의 골격음은 林으로 시작해 제3박까지 지속하는 선율형이고, '드는표'는 南으로 시작해 林으로 하행하는 선율형이다. 제4장에 기보된 두 <연음표>의 역할은 예외의 경우 없이 명확하고 일정하게 구분된다. 이는 제4장이 가진 특수성으로, 시조 문학에서 평면적 흐름을 차단하고 서정적 전환이 가능한 구조적 장치이자 정형성의 의미가 있는 종장의 첫 구절이 가곡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제5장의 <연음표>는 일각의 첫 박 및 제6박, 그리고 이두에 기보된 세 가지 경우로 나뉜다.

일각 첫 박에 기보된 <연음표>는 '드는표' 한 가지이며, 선율의 골격음은 仲-太, 또는 太仲-太로 仲 또는 太仲에서 太로 하행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일각 제6박에 기보된 <연음표>는 '드는표' 또는 '막내는표' 두 가지로 나뉜다. '드는표'의 선율의 골격음은 仲-太-黃-㑹으로 仲에서 㑹까지 하행하는 형태이다. '막내는표'의 선율의 골격음은 太-仲-太-㑹으로 太로 시작해 仲으로 상행한 후 㑹으로 하행하는 유형이다.

이두에 기보된 <연음표>는 '막내는표' 한 가지이며, 선율의 골격음은 太-仲으로 太로 시작해 仲으로 상행하는 유형이다.

'누르는표'는 제5장에서 기보된 사설이 없어 선율형을 볼 수 없었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우조 이수대엽 계열에 나온 음높이와 관련된 <연음표>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7>과 같다.

<표 7> 남창 우조 이수대엽 계열 위치별 <연음표> 선율형 정리

장별		<연음표>	선율의 골격음	해당 사설	곡목
초장	초두	드는표	【南】-林-仲-太	구름이	두거1.구름이
				녹수청산	두거14.녹수청산
		막내는표	【太】-仲-太-黃-㑹	경성출	평거3.경성출
				샛별지자	평거10.샛별지자
		누르는표	【㑹】-太-黃-㑹	주공도	이수대엽5.주공도
			【仲】㑹-太-黃-㑹	강호에	이수대엽3.강호에
			【仲】㑹-太-㑹	인심은	중거1.인심은
				창랑에	중거4.창랑에
	이두	드는표	【南】-林-仲	터이되고	중거1.인심은
				낚시넣고	중거4.창랑에
		막내는표	【太】-仲	성인	이수대엽5.주공도
이장	초두	드는표	【仲】-太-黃-㑹	일월이	평거3.경성출
				십년을	이수대엽3.강호에
		막내는표	【太】-仲-太-黃-㑹	세상사람	이수대엽5.주공도
				효제충신	중거1.인심은
				조대에	중거4.창랑에
	초두 제4박	누르는표	【㑹】-仲-太	완보	두거14.녹수청산
	이두	드는표	【太】	기동되어	중거1.인심은

			【倘】-太	들어가니	두거14.녹수청산
삼장	일각 첫 박	드는표	【太】仲-倘	예의	중거1.인심은
			【仲】-太	낙조	중거4.창랑에
	일각 제6박	드는표	【仲】-太-黃-倧	백구는	이수대엽3.강호에
				예악이요	평거3.경성출
				떠있어	두거1.구름이
				백운이요	두거14.녹수청산
			【仲】-倘-太-倧	찬이슬에	평거10.샛별지자
	이두	드는표	【太】仲-太	가즉이	중거1.인심은
			【南】-太-仲	빗소래	중거4.창랑에
		막내는표	【太】	오제	평거3.경성출
				만학	두거14.녹수청산
사장		드는표	【南】-林	평생에	이수대엽5.주공도
				천만년	중거1.인심은
				아희야	평거10.샛별지자
				구태여	두거1.구름이
				이곳에	두거14.녹수청산
		누르는표	【太】林	성은이	이수대엽3.강호에
				유지에	중거4.창랑에
				사해로	평거3.경성출
오장	일각 첫 박	드는표	【太】仲-太	일호	이수대엽5.주공도
			【仲】-太	옥린을	중거4.창랑에
				태평주	평거3.경성출
	일각 제6박	드는표	【仲】-太-黃-倧	날빛을	두거1.구름이
		막내는표	【太】-仲-太-倧	좋을손	평거10.샛별지자
	이두	막내는표	【太】-仲	행화촌	중거4.창랑에
				만성동취	평거3.경성출

<범례> 【】:선율의 시작음 -:박의 구분

다음 연결 역할의 <연음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든흘림표'의 음형은 仲에서 요성한 후 黃 또는 太로 상행하는 유형과 요성 없이 太로 상행하는 유형, 그리고 倘을 내주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상행하는 유형에서 '든흘림표'에 해당하는 요성의 유무의 차이는 사설 자수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사설의 자수가 많아지면 요성인 음형은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倘으로 한 음만을 내주는 유형은 앞 사설의 종지음이 연결하는 사설의 시작음보다 높을 경우에 나타났다. 또한, '든흘림표'는 '드는표' 앞에 기보되어 대부분 상행선율을 연결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수대엽 계열에 나타나는 '든흘림표'의 음형은 다음의 <표 8>과 같다.

<표 8> 우조 이수대엽 계열 ‘든흘림표’의 음형과 사설

음형	사설	구분	곡목
仲㑹仲㑹-倘黃太	인심은ᄅᆞ 터이되고	초장	중거1.인심은
	창랑에ᄅᆞ낚시넣고	초장	중거4.창랑에
	염치로ᄅᆞ 가즉이	제3장	중거1.인심은
	청강에ᄅᆞ 빗소래	제3장	중거4.창랑에
倘黃太	중천에ᄅᆞ 떠있어	제3장	두거1.구름이
	광명헌ᄅᆞ 날빛이	제5장	두거1.구름이
	천봉에ᄅᆞ 백운이요	제3장	두거14.녹수청산
仲㑹仲㑹-㑹倘黃	좋을손ᄅᆞ 옷이젖다	제5장	평거10.샛별지자
㑹倘黃	긴수풀ᄅᆞ 찬이슬에	제3장	평거10.샛별지자
仲㑹仲㑹-㑹黃太	삼황ᄅᆞ 예악이요	제3장	평거3.경성출
㑹黃太	그모든ᄅᆞ 백구는	제3장	이수대엽3.강호에
倘	청려완보ᄅᆞ 들어가니	제2장	두거14.녹수청산

두 번째로 ‘연음표’는 ‘든흘림표’와 마찬가지로 仲에서 요성한 후 黃 또는 太로 상행하는 유형과 倘을 내주는 두 가지 유형이 나타났다. 다만, ‘연음표’는 ‘든흘림표’가 연결하는 ‘드는표’가 기보된 뒷 사설의 시작음보다 낮은음으로 연결할 경우, 기보되는 특징을 보였다. 또한, 연음표의 음형이 倘으로 나타날 경우, 앞뒤 사설의 종지음과 시작음은 같은 특징을 보였다. 우조 이수대엽 계열에 나타나는 ‘연음표’의 음형은 다음의 <표 9>와 같다.

<표 9> 우조 이수대엽 계열 '연음표'의 음형과 사설 구절

'연음표'의 음형	사설	장	곡명
仲㑹仲㑹-倘黃太	경개ㄱ 좋으니	제5장	두거14.녹수청산
	좋으니ㄱ 예와놀려		
仲㑹仲㑹-㑹倘黃	시절이ㄱ 좋을손	제5장	평거10.샛별지자
仲㑹仲㑹-㑹黃倘太	아마도ㄱ 허랑하다	제2장	두거1.구름이
仲㑹仲㑹-㑹黃太	세상사람ㄱ 들었으라	제2장	이수대엽5.주공도
	조대에ㄱ 앉었으니		중거4.창랑에
	일월이ㄱ 광화로다		평거3.경성출
	예악이요ㄱ 오제의	제3장	평거3.경성출
	허시니ㄱ 갚고갈려	제5장	이수대엽3.강호에
	교기를ㄱ 내어본일		이수대엽5.주공도
	만난들ㄱ 기울줄이		중거1.인심은
	꿰어들고ㄱ 행화촌에		중거4.창랑에
	비져내어ㄱ 만성동취		평거3.경성출
倘	호미메고ㄱ 사립나니	제2장	평거10.샛별지자

우조 이수대엽 계열에 기보된 <연음표>의 유형을 정리하면, 음높이와 관련된 <연음표>의 경우 '드는표'는 높은음, '막내는표'는 중간음, '누르는표'는 낮은음에 주로 기보되었다. 그러나 제2장 이두에서 '드는표'는 중간음 또는 낮은음에 기보되기도 하며 초두보다 다양한 특징이 나타났다.

'든흘림표'와 '연음표'는 낮은음 仲에서 요성한 후 黃 또는 太로 상행하는 경우, 요성 없이 상행 음형만 나오는 경우, 한 가지 음만 내주는 음형으로 세 가지 경우가 나왔는데 이는 앞뒤 사설의 종지음과 시작음에 따라 달라졌다. 또한, '드는표'가 기보된 사설로 일정하게 연결하는 '든흘림표'에 비해 '연음표'는 '막내는표'가 기보된 사설, 또는 <연음표>가 생략되어 있어도 '드는표'가 기보된 사설보다 낮은음으로 연결하며 '든흘림표'보다 다양한 음형이 나타났다.

2) 초수대엽과 삼수대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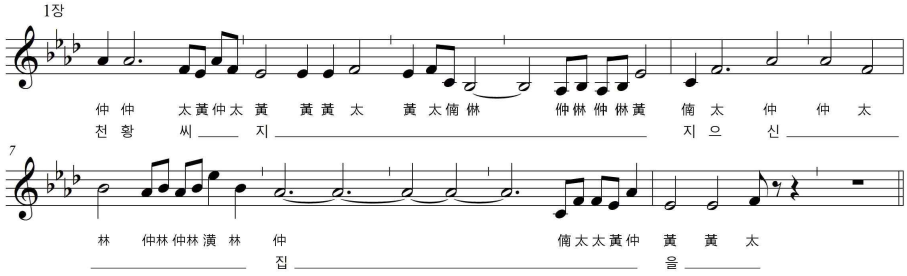
ㄱ) 초수대엽

『가곡원류』에 실린 우조 초수대엽의 사설은 총 열세 가지이다. 이중 『하규일보』에 실린 노래는 『가곡원류』에 있는 순으로 첫 번째(천황씨 지으신 집을), 두 번째(남훈전 달 밝은 밤에), 세 번째(남팔아 남아사이언정), 네 번째(동창이 밝았느냐), 일곱 번째(동짓달 기나긴 밤을) 사설이며, 총 다섯 곡이 전해진다. 『하규일보』에 실린 초수대엽 다섯 사설의 <연음표>를 장별로 살펴보겠다.

① 초장

우조 초수대엽 초장은 <연음표>가 표기된 것을 찾을 수 없으며, 선율형은 동일하게 나타난다. 다음의 <예보 24> 우조 초수대엽 제1번 사설(천황씨 지으신 집을)에서 초장의 선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제2번(남훈전),3번(남팔아),4번(동창이),7번(동짓달) 사설의 선율 또한 같다.

<예보 24> 우조 초수대엽 제1번(천황씨) 초장



<예보 24>에서 초수대엽의 초장은 <연음표> 표기가 되어있지 않아 선율의 특징을 파악하기가 어려우나 다섯 사설의 선율이 위의 악보와 동일하여 초수대엽의 고유한 선율임을 추측해볼 수 있다.

② 제2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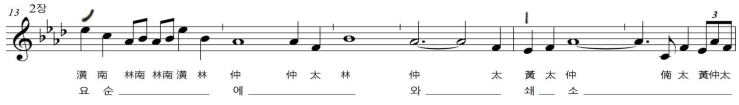
제2장은 초두와 이두에 ‘드는표’와 ‘막내는표’가 기보된 초수대엽(1.천황씨) [요순에 와 쇄소이러니] 사설과, 초두에 ‘드는표’만 기보된 초수대엽(2.남훈전) [팔원팔개 다리시고]·(3.남팔아) [불가이 불의굴의]·(4.동창이) [노고지리 우지진다]·(7.동짓달) [한허리를 둘에내어][59] 사설로 두 가지의 <연음표> 유형이 나타난다. 이는 다음의 <표 10>과 같다.

<표 10> 우조 초수대엽 제2장의 <연음표> 유형

분류	<연음표>	사설
1	ノ ㅣ ㅇㅇㅇ ㅇㅇㅇㅇ	초수대엽(1.천황씨)[요순에]
2	ノ ㅇㅇㅇ ㅇㅇㅇㅇ	초수대엽(2.남훈전)[팔원팔개]·(3.남팔아)[불가이]·(4.동창이)[노고지리]·(7.동짓달)[한허리를]

첫 번째 초수대엽(1.천황씨) [요순에]의 제2장은 초두와 이두에 각각 ‘드는표’와 ‘막내는표’가 기보되어 있으며, <연음표>에 따른 선율형은 다음의 <예보 25>와 같다.

<예보 25> 우조 초수대엽(1.천황씨) 제2장 [요순에] <연음표>와 선율 유형

<연음표> 유형	선율 유형
ノ 요순에 와 ㅣ 쇄소이러니	

<예보 25>에서 초두에 기보된 ‘드는표’는 첫 박에 潢南으로 시작해 제2박에 仲林仲林을 반복한 후, 제3박에 潢林, 제4박에 仲으로 내려온다. 그후 제6박에 仲太를 거쳐 제7박에 林으로 올라간 후 제9박에서 仲으로 돌아와 제11박에서 太로 하행하며 마무리된다. 그러므로 선율형은 潢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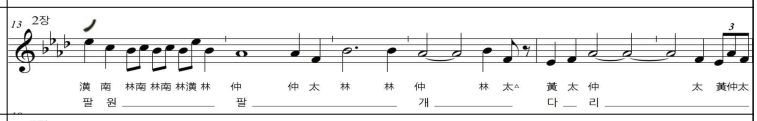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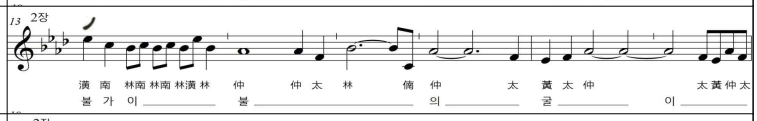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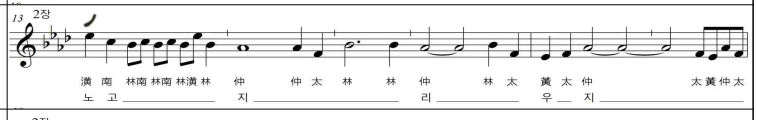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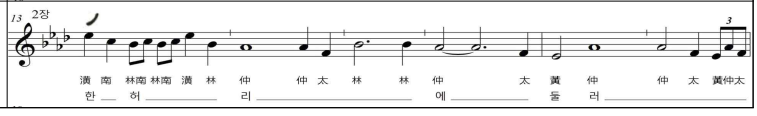
59) 이하 각각 [요순에], [팔원팔개], [불가이], [노고지리], [한허리를]로 표기한다.

仲林仲林-潢(林)-仲-仲(太)-林-仲(太)이다. 사설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드는표' 선율의 골격음은 潢南-仲-潢-仲-林-仲이다. 따라서 제2장에 기보된 '드는표'의 선율형은 潢으로 시작해 仲으로 하행과 상행을 반복하다 하행하며 마무리된다.

이두에 기보된 '막내는표'는 黃太에서 仲으로 올라간 후 짧은 박의 倘을 거쳐 太黃仲太로 마무리되는 黃(太)-仲(倘)-太(黃仲太) 선율형이다. 사설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막내는표' 선율의 골격음은 黃-仲-太로 黃으로 시작해 仲으로 상행한 후 太로 마무리되는 형태이다.

두 번째로 초수대엽(2.남훈전) [팔원팔개] · (3.남팔아) [불가이] · (4.동창이) [노고지리] ·(7.동짓달) [한허리를] 사설은 초두에 '드는표'만 기보되어 있다. 이에 따른 선율형은 다음의 <예보 26>과 같다.

<예보 26> 우조 초수대엽(2.남훈전)[팔원팔개]·(3.남팔아)[불가이]·(4.동창이)[노고지리]·(7.동짓달)[한허리를] 제2장의 <연음표>와 선율 유형

<연음표> 유형	선율 유형
팔원팔개 다리시고	
불가이 불의굴의	
노고지리 우지진다	
한허리를 돌에내어	

<예보 26>에서 네 사설의 제2장 초두의 '드는표'는 潢南으로 시작해 제2박에 林, 제3박에 林潢林, 제4박에 仲으로 내려온다. 그후 제6박에 仲太를 거쳐 제7박에 林으로 올라간 후 제9박에서 仲으로 돌아와 제11박에

서 太로 하행하며 마무리된다. 그러므로 선율형은 潢南-林南林南-(林)潢(林)-仲-仲(太)-林-仲(太)이다. 사설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드는표’ 선율의 골격음은 潢南-林-潢-仲-林-仲이다. 이는 앞서 <예보 25>에서 본 초수대엽(1.천황씨) <요순에>에 기보된 ‘드는표’ 선율의 골격음이 潢南-仲-潢-仲-林-仲으로 제2박의 음이 仲과 林인 것 외에 동일하다. 따라서 초수대엽 제2장 초두에 ‘드는표’가 기보될 경우 제2박의 음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潢으로 시작해 仲으로 하행하는 골격음의 선율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③ 제3장

제3장은 네 가지의 <연음표> 유형이 나타난다.

첫 번째 유형은 일각의 첫 박에 ‘막내는표’와 ′든흘림표′, 제6박에 ‘드는표’가 기보된 우조 초수대엽(4.동창이) [소치는 아해놈은] 사설이다. 두 번째 유형은 일각의 첫 박에 ′든흘림표′, 제6박에 ‘드는표’가 기보된 우조 초수대엽(2.남훈전) [오현금 일성에] · (7.동짓달) [춘풍 이불아래] 사설이다. 세 번째 유형은 일각 제6박에 ‘드는표’가 기보된 우조 초수대엽(1.천황씨) [한당송 풍우에] 사설이다. 마지막 유형은 일각의 첫 박에 ‘누르는표’와 제6박에 ‘막내는표’가 기보된 우조 초수대엽(3.남팔아) [웃고 대답허되] 사설이다.[60] 이는 다음의 <표 1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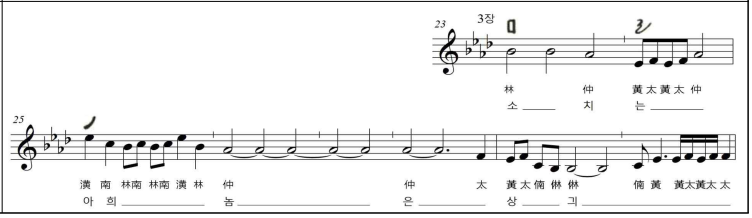
<표 11> 우조 초수대엽 제3장의 <연음표> 유형

분류	<연음표>	사설
1	ㅇㅇㅇ ㅇㅇㅇㅇ ㅇㅇㅇ ㅇㅇㅇㅇ	초수대엽(4.동창이)[소치는]
2	ㅇㅇㅇ ㅇㅇㅇㅇ ㅇㅇㅇ ㅇㅇㅇㅇ	초수대엽(2.남훈전)[오현금]·(7.동짓달)[춘풍]
3	ㅇㅇㅇ ㅇㅇㅇㅇ ㅇㅇㅇ ㅇㅇㅇㅇ	초수대엽(1.천황씨)[한당송]
4	ㅇㅇㅇ ㅇㅇㅇㅇ ㅇㅇㅇ ㅇㅇㅇㅇ	초수대엽 제3번(남팔아)[웃고]

60) 이하 각각 [소치는], [오현금], [춘풍], [한당송], [웃고]로 표기한다.

첫 번째 유형인 우조 초수대엽(4.동창이)[소치는] 사설의 <연음표>는 일각의 첫 박에 ‘막내는표’, 제4박 ′든흘림표′, 제6박에 ‘드는표’가 기보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선율형은 다음의 <예보 27>과 같다.

<예보 27> 우조 초수대엽(4.동창이)[소치는] 제3장의 <연음표>와 선율 유형

<연음표> 유형	선율 유형
소치는 아해놈은 상긔아니일었느냐	

<예보 27>에서 일각 첫 박의 ‘막내는표’는 林으로 시작해 仲으로 하행하는 林-仲 선율형이다. ‘든흘림표’가 음을 흔들어낸 후 그 다음으로 들어내는 것을 뜻하는 우리말임으로 사설은 제4박까지 있지만, ‘막내는표’의 선율은 제3박까지를 의미하고 ‘든흘림표’는 요성이 있는 제4박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제3장 일각 첫 박에 ‘막내는표’가 기보되는 경우 선율형은 林으로 시작해 仲으로 하행하는 형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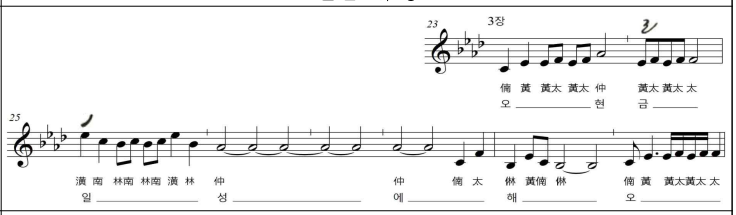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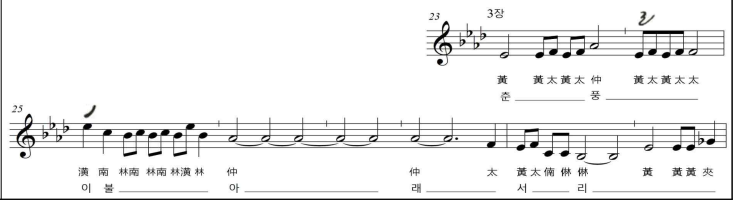
제3장 첫 각의 ‘든흘림표’는 일각의 두 사설 구절을 연결한다. ‘든흘림표’의 선율은 제4박부터 시작되며, 黃太黃太의 음형으로 시작해 仲으로 올려주는 黃太黃太-仲 선율형이다. 즉, 黃에서 요성을 해주며 仲으로 상행하는 선율형으로, 이는 ‘드는표’가 기보된 다음 사설로 연결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일각의 제6박에 기보된 ‘드는표’는 潢南으로 시작해 林南林南으로 내려온 후, 潢林으로 진행하여 仲을 지속하여 뻗어주다 제16박 끝에서 太로 내려오는 潢南-林(南林南)-潢(林)-仲-(太) 선율형이다. 즉, 潢으로 시작해 南을 거쳐 林으로 내려와 요성한 후, 다시 潢으로 올라가 仲으로 하행해 뻗어준 후 太로 마무리되는 선율로 골격음은 사설을 기준으로 潢南

-林-潢-仲이다.

두 번째 유형은 우조 초수대엽(2.남훈전)·(7.동짓달)의 [오현금]·[춘풍] 두 사설로, 일각의 제4박에 '듣흘림표', 제6박에 '드는표'가 기보되어 있으며, <연음표>와 그에 따른 선율형은 다음의 <예보 28>과 같다.

<예보 28> 우조 초수대엽(2.남훈전)[오현금]·(7.동짓달)[춘풍] 제3장의 <연음표>와 선율 유형

<연음표> 유형	선율 유형
오현금 일성에 해오민지 은혜로다	
춘풍 이불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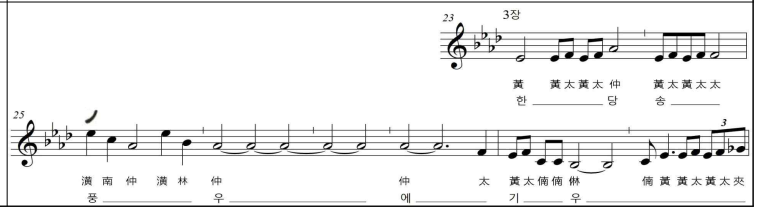
<예보 28>에서 첫 각에 기보된 '듣흘림표'는 <예보 27>의 [소치는] 사설과 마찬가지로 요성이 있는 제4박에 기보되어 일각의 두 사설을 연결한다. '듣흘림표'는 黃太黃太 음형으로 黃에서 요성한 후, 太로 마무리되는 黃太黃太-太 선율형이다. 즉, 黃에서 太로 상행하는 선율형으로 이는 일각의 제6박에 기보되는 '드는표'로 연결하기 위함이다.

일각의 제6박에 기보된 '드는표'는 潢南으로 시작해 林南林南으로 내려온 후, 潢林으로 진행하여 仲을 지속하여 뻗어주다 제16박 끝에서 太로 내려오는 潢南-林(南林南)-潢(林)-仲-(太) 선율형이다. 즉, 潢으로 시작해 南을 거쳐 林으로 내려와 요성한 후, 다시 潢으로 올라가 仲으로 하행해 뻗어준 후 太로 마무리되는 선율로 골격음은 사설을 기준으로 潢南-林-潢-仲이다. 다만 [오현금] 사설은 제16박에 짧은 박의 倘을 거쳐 太로 진행하고, [춘풍] 사설은 제8박에서 林潢林으로 林을 거쳐 潢으로 올

라가는 차이를 보인다.

세 번째 유형은 우조 초수대엽(1.천황씨) [한당송] 사설로 일각의 제6박에 ‘드는표’가 기보되어 있으며, <연음표>와 그에 따른 선율형은 다음의 <예보 29>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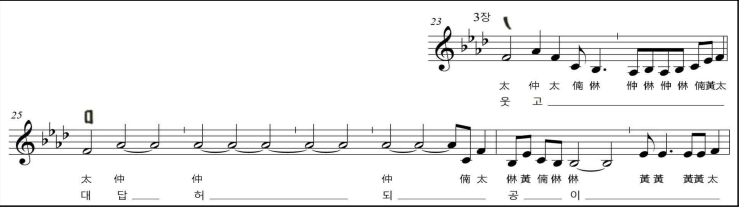
<예보 29> 우조 초수대엽(1.천황씨) 제3장 [한당송]의 <연음표>와 선율 유형

<연음표> 유형	선율 유형
한당송 풍우에 기우런지 오래거다	

<예보 29>에서 일각 제6박에 기보된 ‘드는표’는 潢南으로 시작해 仲으로 내려온 후, 潢林으로 진행하여 仲을 지속하여 뻗어주다 제16박 끝에서 太로 내려오는 潢南-仲-潢(林)-仲-(太) 선율형이다. 즉, 潢으로 시작해 南을 거쳐 仲으로 하행한 후, 다시 潢으로 올라가 仲으로 하행해 뻗어준 후 太로 마무리되는 선율로 골격음은 사설을 기준으로 潢南-仲-潢-仲이다.

마지막 유형은 우조 초수대엽(3.남팔아) [웃고] 사설로 일각의 첫 박에 ‘누르는표’와 제6박에 ‘막내는표’가 기보되어 있으며, <연음표>와 그에 따른 선율형은 다음의 <예보 30>과 같다.

<예보 30> 우조 초수대엽(3.남팔아) [웃고] 제3장의 <연음표>와 선율 유형

<연음표> 유형	선율 유형
웃고 대답허되 공이유언가불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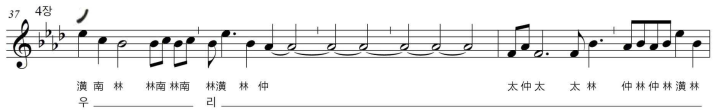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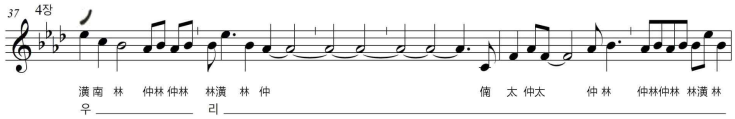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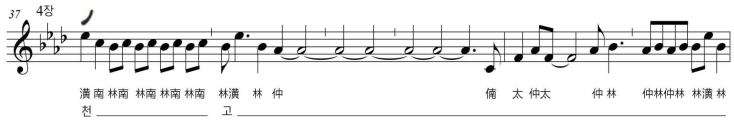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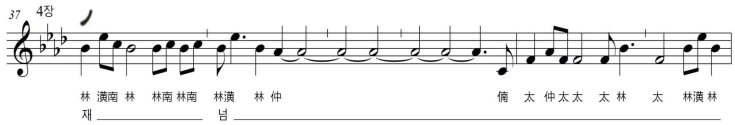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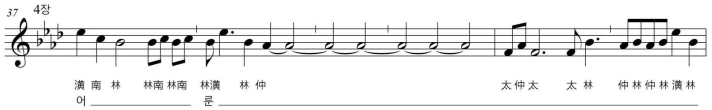
<예보 30>에서 일각 첫 박의 ‘누르는표’는 太로 시작해 仲太를 거쳐 倘林으로 하행하는 太-仲(太)-(倘)林 선율형이다. 사설을 기준으로 ‘누르는표’의 골격음은 太-仲-林으로, 太로 시작해 仲으로 상행하여 林으로 급격히 떨어지는 형태이다. 제4박에 음형이 仲林仲林으로 요성이 나오고, 제2각 첫 박에 ‘막내는표’가 기보되어 있으므로 본래 ‘연음표’가 기보되어야 하나 생략된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누르는표’의 선율형은 제1각의 제3박까지로 볼 수 있다.

일각 제6박의 ‘막내는표’는 太로 시작하여 仲으로 올라간 후 제15박까지 지속하다 제16박에서 짧은 박의 倘을 거쳐 太로 내려오는 太-仲-(倘太) 선율형이다. 사설을 기준으로 선율의 골격음은 太-仲이며, 첫 박의 ‘누르는표’와 비교하였을 때 ‘막내는표’와 선율의 시작음이 같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같은 <연음표>가 기보되는 위치에 따라 나타내는 음이 달라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④ 제4장

우조 초수대엽 제4장의 <연음표>는 다섯 곡 모두 ‘드는표’가 기보되어 있다. 제4장의 <연음표>와 선율은 다음의 <예보 31>과 같다.

<예보 31> 우조 초수대엽(1.천황씨)[우리도]·(2.남훈전)[우리도]·(3.남팔아)[천고에]·(4.동창이)[재넘어]·(7.동짓달)[어룬님] 제4장 <연음표>와 선율 유형

<연음표> 유형	선율 유형
우리도	
	
천고에	
재넘어	
어룬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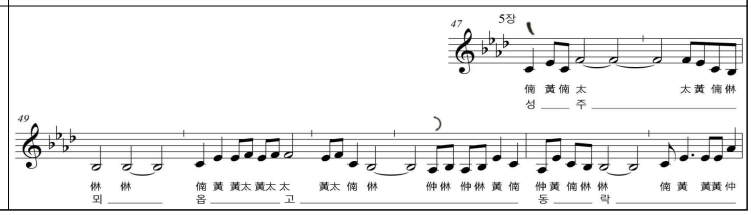
<예보 31>에서 초수대엽 제4장의 '드는표'는 제1-3박까지의 선율을 말한다. 각 사설에 따라 선율형은 조금씩 다르게 나오는데, (1.천황씨)[우리도]·(3.남팔아)[천고에]·(7.동짓달)[어룬님] 세 사설의 선율형은 潢으로 시작해 南을 거쳐 林으로 하행해 林을 요성하는 潢南-林 유형으로 나타난다. (2.남훈전)<우리도> 사설은 潢南-林으로 진행하는 것은 앞의 세 사설과 같지만 제3박에 仲까지 내려와 仲에서 요성하는 潢南-林-仲 선율형이다. (4.동창이)[재넘어] 사설은 제1박 林潢南, 제2박 林, 제3박 林南林南으로 마무리되는 林潢南-林-林南林南 선율형이다. 사설을 기준으로 선율의 골격음은 林이지만 첫 박에 潢에서 南으로 하행하는 음형과 제3박에 林에서 요성하는 음형이 나타나는 점이 앞의 사설들과 유사하다. 즉, 제4장의 '드는표'는 음형이 다르지만 林 또는 潢으로 시작해 南을 거쳐 林 또는 仲으로 하행하는 선율형으로 볼 수 있다.

⑤ 제5장

우조 초수대엽 제5장은 <연음표>가 생략된 (4.동창이) [사래긴 발을] 사설을 제외하면, 네 곡이 각자 다른 네 가지 <연음표> 유형으로 나타난다.[61] 첫 번째 유형은 첫 각에 '누르는표', 둘째 각에 '연음표'가 기보된 우조 초수대엽(2.남훈전) [성주 뫼옵고] 사설이다. 두 번째 유형은 첫 각에 '누르는표'가 기보된 우조 초수대엽(1.천황씨) [성주 뫼옵고] 사설이다. 세 번째 유형은 첫 각에 '드는표'가 기보된 우조 초수대엽(3.남팔아) [눈물둔 영웅이] 사설이다. 마지막 유형은 첫 각에 '든흘림표', 둘째 각에 '드는표'가 기보된 우조 초수대엽(7.동짓달) [오신날 밤이여든] 사설이다.[62]

첫 번째 유형인 우조 초수대엽(2.남훈전) [성주2] 사설은 일각의 첫 박에 '누르는표', 제15박에 '연음표'가 기보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선율형은 다음의 <예보 32>와 같다.

<예보 32> 우조 초수대엽(2.남훈전) [성주2] 제5장의 <연음표>와 선율 유형

<연음표> 유형	선율 유형
성주 뫼옵고 동락태평 허리라	

61) <연음표> 유형은 일각 첫 박에 '누르는표'가 기보된 사설 중 <연음표>가 더 많이 기보된 사설을 첫 번째, '누르는표'만 기보된 사설을 두 번째, '드는표'가 기보된 것을 세 번째, 첫 박 <연음표>가 생략된 사설을 네 번째로 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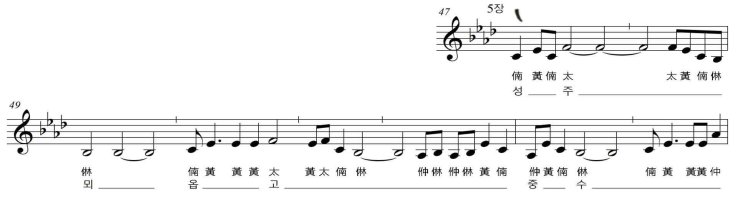
62) 이하 각각 [사래긴], [성주2], [성주1], [눈물둔], [오신날]로 표기한다. 초수대엽(1.천황씨)·(2.남훈전)의 제5장 일각의 사설이 같으므로 (1.천황씨)에 나오는 [성주]는 [성주1]로, (2.남훈전)에 나오는 [성주]는 [성주2]로 표기하겠다.

<예보 32>에서 일각 첫 박의 ‘누르는표’는 첫 박에 倹黃倹으로 시작해 제2박에 太로 올라간 후, 제5박에서 太黃倹侏으로 마무리되는 倹(黃倹)-太-(太黃倹)侏 선율형이다. 사설을 기준으로 선율의 골격음은 倹-太-侏으로 倹으로 시작해 太로 상행하다 侏으로 하행하는 형태이다. 이는 제2각의 첫 박 시작음이 侏이므로 제5박에서 하행 음형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일각과 이두 사이에 기보된 ‘연음표’는 ‘연음표’가 기보되기 전의 사설 ‘뫼옵고’의 선율이 일각의 제14박에서 侏으로 마무리되므로 제15박에 기보된다. 제15박의 음형은 仲侏仲侏으로 仲에서 요성한 후, 제16박에 黃倹으로 黃으로 상행해 倹으로 다시 내려오는 선율형이다. 이는 이두의 첫 시작음이 仲黃으로 낮게 시작하기 때문에, 제16박 끝 음도 하행하며 마무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두 번째 <연음표> 유형인 우조 초수대엽(1.천황씨) [성주1] 사설은 일각의 첫 박에 ‘누르는표’가 기보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선율형은 다음의 <예보 33>과 같다.

<예보 33> 우조 초수대엽(1.천황씨) [성주1] 제5장의 <연음표>와 선율 유형

<연음표> 유형	선율 유형
성주 뫼옵고 중수하려 하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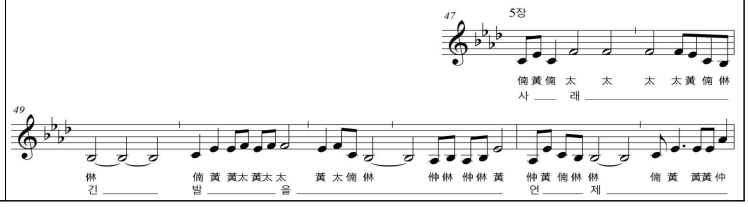
일각 첫 박에 기보된 ‘누르는표’는 첫 박에 倹黃倹으로 시작해 제2박에 太로 올라간 후, 제5박에서 太黃倹侏으로 마무리되는 倹(黃倹)-太-(太黃倹)侏 선율형이다. 사설을 기준으로 선율의 골격음은 倹-太-侏으로 倹으로 시작해 太로 상행하다 侏으로 하행하는 형태이다. 이는 일각의 제6박

시작음이 倧이므로 제5박에서 하행 음형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첫 박에 ‘누르는표’가 기보된 <성주2>와 <성주1> 두 사설의 선율형은 모두 같다. 따라서 제5장 일각 첫 박에 ‘누르는표’가 기보될 경우 선율의 골격음은 倘-太-倧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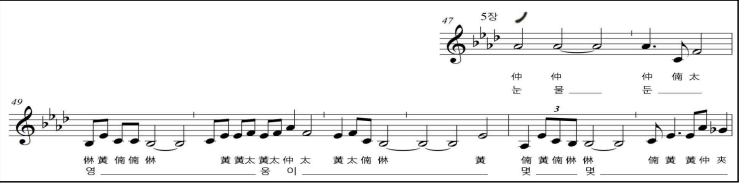
우조 초수대엽(4.동창이)의 제5장 <사래긴> 일각의 첫 박은 <연음표>의 기보가 생략되어 있으나 倘(黃倘)-太-(太黃倘)倧 선율형이다. 따라서 선율의 골격음은 倘-太-倧이며, 이는 앞의 두 <연음표> 유형에서 보인 (2.남훈전)·(1.천황씨)의 제5장 사설 [성주2]·[성주1]의 ‘누르는표’ 선율형과 같다. 따라서 우조 초수대엽(4.동창이) 제5장 [사래긴]의 일 각 첫 박은 ‘누르는표’가 생략된 것으로 봐도 무방하며, 이에 따른 선율 유형은 다음의 <예보 34>와 같다.

<예보 34> 우조 초수대엽(4.동창이) [사래긴] 제5장의 선율 유형

<연음표> 유형	선율 유형
사래 긴 발을 언제갈려 허느니	

세 번째 유형은 우조 초수대엽(3.남팔아) [눈물둔] 사설로 일각의 첫 박에 ‘드는표’가 기보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선율형은 다음의 <예보 3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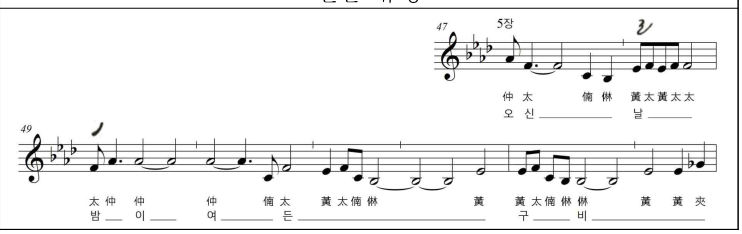
<예보 35> 우조 초수대엽(3.남팔아) [눈물둔] 제5장의 <연음표>와 선율 유형

<연음표> 유형	선율 유형
눈물둔 영웅이 몇몇줄을 지은고	

<예보 35>에서 일각 첫 박에 기보된 ‘드는표’는 仲으로 시작해 제4박에서 짧은 박의 倘을 거쳐 제5박에 太로 하행하는 仲-(倘)-太 선율형이다. 사설을 기준으로 선율의 골격음은 仲-太로 仲으로 시작해 太로 하행하는 형태이다.

마지막 유형은 우조 초수대엽(7.동짓달) [오신날] 사설로 일각의 제4박 '든흘림표'와 제6박에 ‘드는표’가 기보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선율형은 다음의 <예보 36>과 같다.

<예보 36> 우조 초수대엽(7.동짓달) [오신날] 제5장의 <연음표>와 선율 유형

<연음표> 유형	선율 유형
오신날 밤이여든 구비구비 펴리라	

<예보 36>에서 첫 각에 기보된 ‘든흘림표’는 일각의 사설 사이에서 두 구절을 연결한다. ‘오신날’의 선율이 제3박에서 倘倘으로 마무리되고 제4박에 黃太黃太로 黃에서 요성하는 음형이 나타난다. 따라서 ‘든흘림표’는 요성이 있는 제4박에 기보된다. ‘든흘림표’는 黃太黃太 음형으로 시작해 太로 마무리되는 선율형으로 黃에서 요성한 후 太로 상행하는 선율이다. 이는 일각의 제6박에 ‘드는표’가 기보되어 太仲으로 시작하므로 ‘든흘림

표'도 상행하는 선율로 진행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 제6박의 '드는표'는 太仲으로 시작해 제10박에 짧은 박의 倘을 내준 후 제11박에 太로 내려와 제12박에 黃太倘 음형을 거쳐 제13박에서 倧까지 하행하는 (太)仲-(倘)-太-黃(太倘)-倧 선율형이다. 사설을 기준으로 선율의 골격음은 仲-太-黃-倧으로 仲으로 시작해 倧까지 하행하는 형태이며, 倧으로 진행할 때 黃太倘 음형을 거쳐가는 특징을 보인다.

⑥ 초수대엽 소결

『가곡원류』 우조 초수대엽에 기보된 <연음표>를 음높이를 나타내는 것과 연결형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그에 따른 선율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하규일보』에 실린 우조 초수대엽 다섯 곡의 초장은 『가곡원류』의 <연음표>가 기보된 사설을 볼 수 없다. 그러나 다섯 사설 초장의 선율형이 모두 같고, 초두의 시작음이 仲으로 남창 우조 가곡의 초장 초두에서 '드는표'가 기보되었을 때 선율의 시작음보다 높지 않다. 따라서 우조 초수대엽의 초장 초두는 '막내는표'가 생략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제2장 초두는 '드는표'가 기보된 한 가지 유형이 나타난다. 제2장 초두에 기보된 '드는표'의 선율을 사설이 마무리되는 제11박까지로 보았을 때 골격음은 潢南-仲-潢-仲-林-仲, 또는 潢南-林-潢-仲-林-仲 첫 박에 潢南으로 시작되어 仲으로 종지하는 선율형을 보였다. 이는 음이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으나 우조 초수대엽에서 '드는표'가 기보될 경우 선율형이 일정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각 장의 마지막 각은 종지형 선율로 다섯 곡의 골격음이 모두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는 <연음표>의 영향을 받지 않는 가곡이 가진 고유의 형식으로 보인다. 따라서 <연음표>가 기보된 사설의 선율을 초두 사설의 마지막 자를 기준으로 두었던 초두와 달리 이두는 이두의 제1-5박까

지를 <연음표>가 나타내는 선율로 보았다.

제2장 이두는 '막내는표'가 기보된 한 가지 유형이 나타난다. 선율 골격음을 파악하면 黃-仲-太로 黃으로 시작해 仲으로 상행한 후 太로 하행하는 형태이다. 제2장 이두에 '막내는표'가 기보되지 않은 곡들도 선율의 골격음은 동일하게 나타나므로 <연음표>가 생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3장의 음높이를 나타내는 <연음표>는 일각의 첫 박에 기보된 경우와 제6박에 기보된 두 가지 경우로 나뉜다. 이두에는 <연음표>가 기보된 것을 볼 수 없다.

제3장 일각 첫 박은 '막내는표' 또는 '누르는표'가 기보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일각의 첫 박에 기보된 '막내는표'의 골격음은 林으로 시작해 仲으로 하행하는 林-仲 선율형이고, '누르는표'는 太-仲-倧으로, 太로 시작해 仲으로 상행하여 倧으로 급격히 떨어지는 형태이다.

제3장 일각 제6박은 '드는표', 또는 '막내는표'가 기보된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드는표'의 선율 골격음은 潢南으로 시작되어 仲으로 종지하는 선율형을 보였다. 다만 선율의 진행이 潢南-仲-潢-仲-林-仲, 또는 潢南-仲-潢-仲으로 仲으로 하행했다 潢으로 다시 상행한 후 仲으로 하행하여 마무리하는 유형과 潢南-林-潢-仲-林-仲, 또는 潢南-林-潢-仲으로 앞선율과 비슷하지만 林으로 하행했다가 潢으로 다시 상행한 후 仲으로 하행하여 마무리하는 유형으로 나뉘었다. 이는 사설의 자수와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았다. '막내는표'의 선율 골격음은 太-仲 선율형으로 太로 시작해 仲으로 상행한 후 지속하는 선율형이다.

제4장은 우조 초수대엽 다섯 곡 모두 '드는표'가 기보되어 있으며, '드는표'가 의미하는 선율은 제1-3박까지로 사설의 첫음절에 해당한다. 제4장의 '드는표'는 다섯 곡의 음형이 다르지만, 林 또는 潢으로 시작해 南을 거쳐 林 또는 仲으로 하행하는 선율형이다.

제5장의 음높이를 나타내는 <연음표>는 일각의 첫 박에 기보된 경우와 제6박에 기보된 두 가지 경우로 나뉘고, 이두에는 <연음표>가 기보된 것을 볼 수 없었다.

제5장 일각 첫 박에 기보된 <연음표>는 '드는표', 또는 '누르는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드는표'의 선율 골격음은 仲-太로 仲에서 太로 하행하는 유형이었으며, '누르는표'는 倘-太-㑹으로 倘으로 시작해 太로 상행하다 㑹으로 하행하는 형태이다.

제5장 일각 제6박에 기보된 <연음표>는 '드는표' 한 가지 경우로, 선율 골격음은 仲-太-黃-㑹으로 仲으로 시작해 㑹까지 하행하는 유형으로 나타났다. 위의 내용에 따라 선율형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12>와 같다.

<표 12> 우조 초수대엽 장별 <연음표> 선율형 정리

장별		<연음표>	선율의 골격음	해당 사설	곡목
초장	초두	x			
	이두				
이장	초두	드는표	【潢】南-仲-潢-仲-林-仲	요순에 와	1.천황씨
			【潢】南-林-潢-仲-林-仲	팔원팔개	2.남훈전
				불가이	3.남팔아
				노고지리	4.동창이
				한허리를	7.동짓달
	이두	막내는표	【黃】-仲-太	쇄소이러니	1.천황씨
삼장	일각 첫 박	막내는표	【林】-仲	소치는	4.동창이
		누르는표	【太】-仲-倜	웃고	3.남팔아
	일각 제6박	드는표	【潢】南-林-潢-仲	아해놈은	4.동창이
				일성에	2.남훈전
				이불아래	7.동짓달
			【潢】南-仲-潢-仲	풍우에	1.천황씨
		막내는표	【太】-仲	대답허되	3.남팔아
	이두	x			
사장		드는표	【潢】南-林	우리도	1.천황씨
				천고에	3.남팔아
				어룬님	7.동짓달
			【潢】南-林-仲	우리도	2.남훈전
			【林】潢南-林	재넘어	4.동창이
오장	일각 첫 박	드는표	【仲】-太	눈물둔	3.남팔아
		누르는표	【倜】-太-倜	성주	1.천황씨
				성주	2.남훈전
	일각 제6박	드는표	【仲】-太-黃-倜	밤이여든	7.동짓달
	이두	x			

<범례> 【】:선율의 시작음, -: 박의 구분

연결형 <연음표> 중 '든흘림표'는 제3장과 제5장에서 나타난다.

제3장의 '든흘림표'는 일각 제4박에 기보되어 있으며, '든흘림표'의 음형은 黃太黃太로 黃에서 요성한 후, 太 또는 仲으로 상행하는 형태이다. 이는 모두 다음 사설에 기보된 '드는표'의 시작음 潢으로 연결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든흘림표'가 없는 사설의 일각 제4박도 黃에서 요성한

후 太로 진행하는 음형이 나타나므로, 이는 <연음표>가 생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조 초수대엽(3.남팔아) 제3장 [웃고] 사설의 일각 제4박의 음형은 仲林仲林-倘黃太로 '든흘림표'는 생략되어 있지만, 이수대엽 계열의 '든흘림표'와 동일한 음형임을 알 수 있다.

제5장의 '든흘림표'는 일각 제4박에 기보되어 있으며, '든흘림표'의 음형은 黃太黃太로 黃에서 요성한 후 太로 상행하는 형태이다. 이는 다음의 <표 13>과 같다.

<표 13> 우조 초수대엽 '든흘림표'의 음형과 해당 사설

음형	해당 사설	장별	곡명
黃太黃太-仲	소치는ᄅᆞ 아해놈은	제3장	4.동창이
黃太黃太-太	오현금ᄅᆞ 일성에	제3장	2.남훈전
	춘풍ᄅᆞ 이불아래		7.동짓달
	오신날ᄅᆞ 밤이어든	제5장	

'연음표'는 제5장 일각에서 이두로 넘어가는 사이에 기보되어 있다. '연음표'의 음형은 仲林仲林으로 仲에서 요성한 후, 일각의 제16박에 黃倘으로 黃으로 상행해 倘으로 다시 내려오는 선율형이다. 이는 이두의 첫 시작음이 仲黃으로 낮게 시작하기 때문에, 제16박 끝 음도 하행하며 마무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다음의 <표 14>와 같다.

<표 14> 우조 초수대엽 '연음표'의 음형과 해당 사설

음형	해당 사설	장별	곡명
仲林仲林-黃倘	뫼옵고ᄀᆞ 동락	제5장	2.남훈전

정리하면, 우조 초수대엽의 '드는표'는 시작음이 潢, 또는 仲 두 가지로 나타나고 종지음은 仲으로 비교적 일정하게 나타나지만, 선율형은 사설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 '막내는표'는 기보된 위치에 따라 시작음이 黃, 太, 또는 林으로 모두 다르게 나타나고 이에 따라 선율형도 다르게 나타난다. '누르는표'는 제3장 첫 각에 기보되어 太로 시작하는 경

우와 제5장 첫 각에 기보되어 倘으로 시작하는 두 가지 선율형을 볼 수 있으며, 두 선율형 모두 侏으로 마무리되는 특징을 보인다.

사설을 연결하는 '든흘림표'와 '연음표'는 제3장 또는 제5장에서 볼 수 있다. '든흘림표'는 黃에서 요성한 후 太또는 仲으로 상행하는 음형으로 다음 사설에 기보된 '드는표'로 연결한다. 반면, '연음표'는 仲에서 요성한 후 黃倘으로 상행하다 다시 내려오는 음형의 차이를 보인다. 이는 '든흘림표'가 연결하는 선율은 상행선율이고, '연음표'는 '연음표'가 기보된 다음 사설의 시작음이 仲으로 오히려 낮아지므로 이를 연결하기 위해 음형이 달라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ㄴ) 삼수대엽

『가곡원류』에 실린 우조 삼수대엽의 사설은 총 스물두 가지이다. 이중 『하규일보』에 실린 사설은 『가곡원류』에 있는 순으로 첫 번째(추강에 월백커늘), 네 번째(가마귀 눈비마자), 여섯 번째(도화이화 행화방초들아), 일곱 번째(굴원충혼 배에 넣은 고기), 열아홉 번째(적토마 살지게 먹여) 사설이며, 총 다섯 곡이 전해진다. 『하규일보』에 실린 우조 삼수대엽 다섯 사설의 <연음표>를 장별로 살펴보겠다.

① 초장

우조 삼수대엽 초장은 네 가지 <연음표> 유형이 나타난다. <연음표>가 많이 기보된 사설 순으로 유형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 유형은 제1번(추강에) 사설로 첫 각에 '막내는표', '든흘림표', '드는표'가 기보되어 있다. 두 번째 유형은 제7번(굴원충혼) 사설로 첫 박에 '드는표', 제7박에 '연음표'가 기보되어 있다. 세 번째 유형은 제4번(가마귀)와 제19번(적토마) 사설로 첫 박에 '드는표'가 기보되어 있다. 네 번째 유형은 제6번(도화이화) 사설로 제7박에 '연음표'가 기보되어 있다. 이는 다음의 <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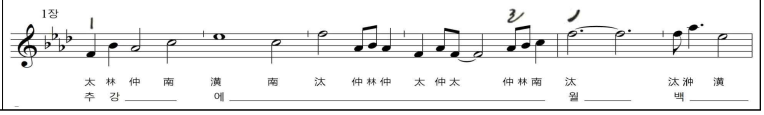
15>와 같다.

<표 15> 우조 삼수대엽 초장의 <연음표> 유형

분류	<연음표>	사설
1	ㅣ ㄴ ㅅ ㅇㅇㅇ ㅇㅇㅇㅇ	삼수대엽 제1번(추강에)
2	ㅅ ㄱ ㅇㅇㅇ ㅇㅇㅇㅇ	삼수대엽 제7번(굴원충혼)
3	ㅅ ㅇㅇㅇ ㅇㅇㅇㅇ	삼수대엽 제4번(가마귀), 제19번(적토마)
4	ㄱ ㅇㅇㅇ ㅇㅇㅇㅇ	삼수대엽 제6번(도화이화)

첫 번째 유형인 우조 삼수대엽 제1번(추강에) 사설의 초장은 초두에 '막내는표', 제11박 '든흘림표', 이두에 '드는표'가 기보되어 있다. <연음표>에 따른 선율형은 다음의 <예보 37>과 같다.

<예보 37> 우조 삼수대엽 제1번(추강에) 초장 <연음표>와 선율 유형

<연음표> 유형	선율 유형
ㅣ ㄴ 추강에 ㅅ 월백커늘	

<예보 37>에서 초두의 '막내는표'는 첫박에 太林으로 진행해 제2박에 仲, 제3박에 南, 제4박에 潢까지 상행하다 제6박에 南으로 내려온 후 제7박에 다시 汰로 올라가 제8박 仲林仲 제9박 太仲太로 하행하는 太林-仲-南-潢-南-汰-(仲林)仲-(太仲)太 선율형이다. 사설을 기준으로 선율의 골격음은 太林-仲-南-潢-南-汰-仲-太 형태로 太로 시작해 汰까지 상행한 후, 太로 다시 하행하는 형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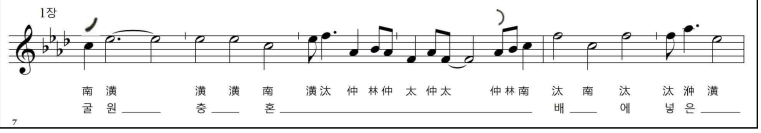
초두에 기보된 '막내는표'의 선율이 汰까지 상행한 후 다시 太로 하행하며 제10박에서 마무리되므로 '든흘림표'는 제11박에 기보된다. '든흘림표'의 음형은 仲林南으로 仲으로 시작해 南까지 상행하는 형태이다. 이는

이두에 기보된 ‘드는표’의 시작음이 汰로 높은음이므로 이를 연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두에 기보된 ‘드는표’는 汰로 시작해 汰沖으로 올라간 후 潢으로 내려오는 汰-(汰)沖-潢 선율형이다. 사설을 기준으로 선율의 골격음은 汰-沖-潢으로 汰로 시작해 沖까지 상행한 후 潢으로 마무리되는 형태이다.

두 번째 유형인 우조 삼수대엽 제7번(굴원충혼) 사설의 초장은 초두에 ‘드는표’, 제11박에 ‘연음표’가 기보되어 있다. <연음표>에 따른 선율형은 다음의 <예보 38>과 같다.

<예보 38> 우조 삼수대엽 제7번(굴원충혼) 초장 <연음표>와 선율 유형

<연음표> 유형	선율 유형
굴원충혼 배애넣은고기	

<예보 38>에서 초두의 ‘드는표’는 南潢으로 시작해 제6박에 南, 제7박 潢汰로 상행한 후, 제8박 仲林仲, 제9박 太仲太로 마무리되는 南潢-南-(潢)汰-仲(林仲)-太(仲太) 선율형이다. 사설을 기준으로 선율의 골격음은 南潢-南-汰-仲-太로 南潢으로 시작해 南을 거쳐 汰까지 상행 후, 다시 太로 하행하는 형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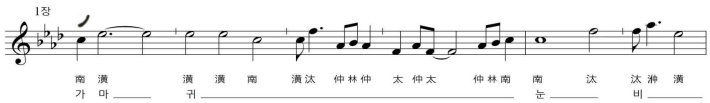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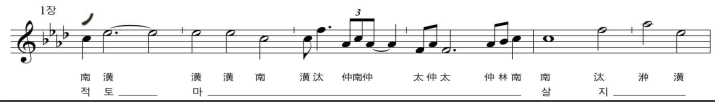
초두의 ‘드는표’가 太로 하행하며 제10박에 마무리되므로 ‘연음표’는 제11박에 기보된다. ‘연음표’의 음형은 仲林南으로 仲으로 시작해 南까지 상행하는 형태이다. 이는 이두 사설의 시작음이 汰로 높은음이므로 이를 연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음표’의 음형은 <예보 37> (추강에) 사설에 나온 ‘든흘림표’와 같으며 이두로 연결하는 음도 汰로 같다. 그러나 ‘든흘림표’는 ‘드는표’가 기보된 사설로 연결한다. 또한, 이두의 선율형도 汰로 시작해 세 박을 쭉 지속하는 반면, ‘연음표’가 연결하는 이두의 선율은 汰로 시작해 南으로

하행하다 다시 汰로 상행하는 선율형으로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추강에)와 (굴원충혼) 초장에서 ‘든흘림표’와 ‘연음표’가 기보된 차이는 이두의 둘째 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세 번째 유형인 우조 삼수대엽 제4번(가마귀)와 제19번(적토마) 사설의 초장은 초두에 ‘드는표’가 기보되어 있다. <연음표>에 따른 선율형은 다음의 <예보 39>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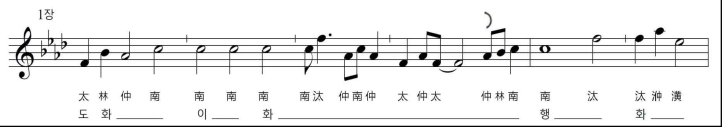
<예보 39> 우조 삼수대엽 제4번(가마귀), 제19번(적토마) 초장 <연음표>와 선율 유형

<연음표> 유형	선율 유형
가마귀 눈비마자	
적토마 살지게 먹여	

<예보 39>에서 초두의 ‘드는표’는 南潢으로 시작해 제6박에 南, 제7박 潢汰로 상행한다. 제8박의 음형은 두 노래가 다르게 나오는데 (가마귀)는 仲林仲으로, (적토마)는 沖南仲의 음형으로 나타난다. 그 후 제9박에서 太仲太로 마무리되므로 南潢-南-(潢)汰-仲(林仲)-太(仲太), 또는 南潢-南-(潢)汰-(沖南)仲-太(仲太) 선율형이다. 사설을 기준으로 선율의 골격음은 두 곡 모두 南潢-南-汰-仲-太로 南潢으로 시작해 南을 거쳐 汰까지 상행 후, 다시 太로 하행하는 형태이다. 따라서 제8박에서 음형이 다르게 나타나지만 ‘드는표’의 골격음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네 번째 유형인 우조 삼수대엽 제6번(도화이화) 사설의 초장은 제11박에 ‘연음표’가 기보되어 있다. <연음표>에 따른 선율형은 다음의 <예보 40>과 같다.

<예보 40> 우조 삼수대엽 제6번(도화이화) 초장 <연음표>와 선율 유형

<연음표> 유형	선율 유형
도화이화 행화방초들아	

<예보 40>에서 초장의 '연음표'는 앞서 '도화이화' 사설의 선율이 太로 하행해 제10박에서 마무리되므로 제11박에 기보된다. '연음표'의 음형은 仲林南으로 仲으로 시작해 南까지 상행하는 형태이다. 이는 이두 사설의 시작음이 南으로 이를 연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예보 38> (굴원충혼) 사설의 '연음표'가 이두의 시작음인 汰로 연결하였지만, 실제로 이두의 둘째 박인 南이 영향을 미쳐 '든흘림표'가 아닌 '연음표'가 기보되었을 것으로 보았다. (도화이화) 초장 '연음표' 다음 이두의 시작음이 南이므로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다.

② 제2장

우조 삼수대엽 제2장은 세 가지의 <연음표> 유형이 나타난다. 첫 번째 유형은 (7.굴원충혼) [채석강의 긴고래되여] 사설로 첫 각에 '막내는표', '연음표'와 '막내는표'가 기보되어 있다. 두 번째 유형은 (1.추강에) [일엽주를 흘리져어] 사설로 첫 각에 '드는표'와 '연음표'가 기보되어 있다. 세 번째 유형은 (4.가마귀)·(6.도화이화)의 [희는 듯 검노메라]·[일연춘광을 한치마라] 사설로 첫 각에 '드는표'와 '누르는표'가 기보되어 있다. (19.적토마) [두만강에 싯겨라고] 사설은 <연음표>가 생략되어 있다.[63]

제19번(적토마) 사설을 제외한 우조 삼수대엽 제2장의 <연음표> 유형은 다음의 <표 1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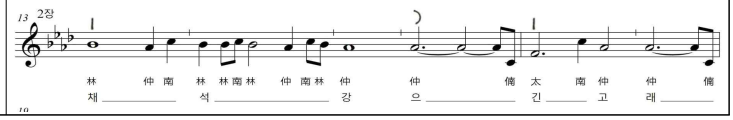
63) 이하 각각 [채석강의], [일엽주를], [희는듯], [일연춘광], [두만강에]로 표기한다.

<표 16> 우조 삼수대엽 제2장의 <연음표> 유형

분류	<연음표>	사설
1	ㅣ) ㅣ ㅇㅇㅇ ㅇㅇㅇㅇ	삼수대엽 (7.굴원충혼) [채석강의]
2	ノ) ㅇㅇㅇ ㅇㅇㅇㅇ	삼수대엽 (1.추강에) [일엽주를]
3	ノ ＼ ㅇㅇㅇ ㅇㅇㅇㅇ	삼수대엽 (4.가마귀)[희는듯], (6.도화이화)[일연춘광]

첫 번째 유형인 우조 삼수대엽 (7.굴원충혼) [채석강의] 사설은 초두 첫 박에 '막내는표', 제11박 '연음표', 이두에 '막내는표'가 기보되어 있다. <연음표>에 따른 선율형은 다음의 <예보 41>과 같다.

<예보 41> 우조 삼수대엽(7.굴원충혼) [채석강의] 제2장의 <연음표>와 선율 유형

<연음표> 유형	선율 유형
ㅣ) 채석강의 ㅣ 긴고래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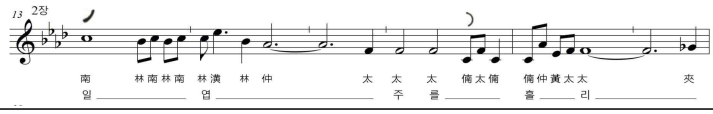
<예보 41>에서 초두에 기보된 '막내는표'는 林으로 시작해 제3박에 仲南을 거쳐 제4박에 林林南, 제5박 林, 제6박에 仲南林, 제7박에 仲으로 제10박까지 지속하며 마무리되는 林-仲(南)-林(林南)-林-仲(南林)-仲 선율형이다. 사설을 기준으로 선율의 골격음은 林-仲-林-仲으로 林과 仲을 반복하여 仲으로 마무리하는 형태이다.

'연음표'는 '채석강의' 사설이 仲으로 마무리되므로 제9박에 기보된다. '연음표'의 음형은 仲에서 짧은 박의 倘으로 내려가는 仲(倘)으로 하행하는 형태이다. 이는 이두에 기보된 '막내는표'의 시작음 太로 연결하기 위해 짧은 박의 倘으로 하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두의 '막내는표'는 太로 시작해 南을 거쳐 仲으로 상행한 후, 짧은 박의 倘을 내며 마무리되는 太(南)-仲(倘) 선율형이다. 사설을 기준으로 선율의 골격음은 太-仲으로 太로 시작해 仲으로 상행하는 형태이다.

두 번째 유형인 우조 삼수대엽(1.추강에) [일엽주를] 사설은 초두에 ‘드는표’, 제11박 ‘연음표’가 기보되어 있다. <연음표>에 따른 선율형은 다음의 <예보 42>와 같다.

<예보 42> 우조 삼수대엽(1.추강에) [일엽주를] 제2장의 <연음표>와 선율 유형

<연음표> 유형	선율 유형
일엽주를 흘리져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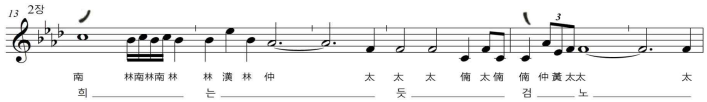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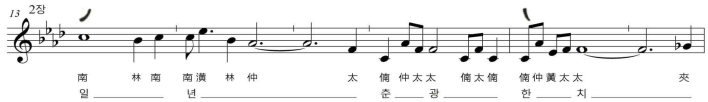
<예보 42>에서 초두의 ‘드는표’는 南으로 시작해 제3박에서 林南林南 음형으로 요성한 후, 제4박에서 林潢으로 상행한다. 이후 제5박에서 林仲으로 하행해 제8박에서 太로 내려오며 마무리되는 南-林(南林南)-(林)潢-(林)仲-太 선율형이다. 사설을 기준으로 선율의 골격음은 南-林-潢-仲-太로, 南으로 시작해 林을 요성한 후 潢으로 상행하고 仲을 거쳐 太까지 하행하는 형태이다.

'연음표'는 사설이 太로 제10박에 마무리되므로 제11박에 기보된다. ‘연음표’의 음형은 倘太倘으로 倘에서 太로 올라갔다 다시 倘으로 내려오는 형태이다. 이는 이두 첫 박의 음형이 倘林黃太로 倘으로 시작하므로 이를 연결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예보 41> [채석강의]에 기보된 ‘연음표’가 仲倘 음형으로 倘으로 마무리되는 것은 같으나 음형의 시작음이 仲으로 [일엽주를] ‘연음표’의 시작음 倘과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의 사설의 종지음이 각각 仲과 太로 다르므로 이에 영향을 받아 음형도 달라진 것으로 추측된다.

세 번째 유형인 우조 삼수대엽(4.가마귀)·(6.도화이화)의 [희는듯]과 [일년춘광] 사설은 초두에 ‘드는표’, 이두에 ‘누르는표’가 기보되어 있다. <연음표>에 따른 선율형은 다음의 <예보 43>과 같다.

<예보 43> 우조 삼수대엽(4.가마귀)·(6.도화이화) 제2장 [희는듯]·[일년춘광]의 <연음표>와 선율 유형

<연음표> 유형	선율 유형
희는듯 검노매라	
일년춘광을 한치마라	

<예보 43>에서 [희는듯] 사설 초두의 '드는표'는 南으로 시작해 제3박에 林南林南林, 제4박에 林潢, 제5박에 林仲으로 진행한 후, 제8박에서 太로 내려와 마무리되는 南-林(南林南)林-(林)潢-(林)仲-太 선율형이다. 사설을 기준으로 선율의 골격음은 南-林-潢-仲-太로 南으로 시작해 林을 거쳐 潢으로 상행한 후, 다시 仲과 太로 하행하는 형태이다.

[일년춘광] 사설 초두의 '드는표'는 南으로 시작해 제3박에 林南, 제4박에 南潢, 제5박에 林仲으로 진행한 후, 제8박에 太로 내려와 제9박 倘仲太, 제10박에 太로 마무리되는 南-林(南)-(南)潢-(林)仲-太-倘(仲太)-太 선율형이다. 사설을 기준으로 선율의 골격음은 南-林-潢-仲-太-倘-太로 南으로 시작해 林을 거쳐 潢으로 상행한 후 仲과 太를 거쳐 倘까지 하행한 후 다시 太로 돌아와 마무리되는 형태이다.

두 곡의 '드는표' 선율의 골격음은 거의 같지만 제9박에서 [일년춘광] 사설이 倘 으로 한 번 더 하행하는 선율형을 보인다. 이는 사설의 자수가 각각 세 자와 네 자로 차이가 나는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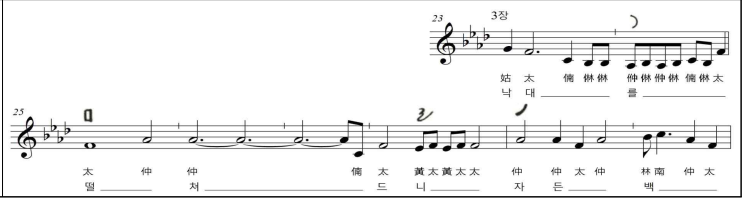
이두의 '누르는표'는 倘仲黃太로 시작해 太를 지속하여 끌어주는 倘(仲黃太)-太 선율형이다. 사설을 기준으로 선율의 골격음은 倘太로 倘으로 시작해 太로 상행하는 형태이다.

③ 제3장

우조 삼수대엽의 제3장은 다섯 사설의 <연음표>가 모두 다르게 나타나므로『가곡원류』에 실린 순서대로 하나씩 살펴보겠다.

첫 번째로 우조 삼수대엽(1.추강에) [낚대를 떨쳐드니][64] 사설은 일각의 제4박에 '연음표', 제6박에 '막내는표', 제15박에 '든흘림표', 이두에 '드는표'가 기보되어 있다. 이에 따른 선율형은 다음의 <예보 44>와 같다.

<예보 44> 우조 삼수대엽(1.추강에) [낚대를] 제3장의 <연음표>와 선율 유형

<연음표> 유형	선율 유형
낚대를 떨쳐드니 자든 백귀 다 놀란다	

<예보 44>에서 일각의 '연음표'는 '낚대를' 사설이 林으로 제3박에서 마무리되고 제4박에서 仲林仲林 음형으로 요성이 시작되므로 제4박에 기보된다. '연음표'의 음형은 仲林仲林으로 요성한 후, 제5박에서 倘林太로 太로 상행하는 유형이다. 이는 '막내는표'가 기보된 제6박의 시작음이 太로 이를 연결해주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일각 제6박의 '막내는표'는 太로 시작해 제8박에서 仲으로 올라가 제12박까지 지속하고 제13박에서 짧은 박의 倘을 내준 후 太로 마무리되는 太-仲-(倘)-太 선율형이다. 사설을 기준으로 선율의 골격음은 太-仲-太로 太로 시작해 仲으로 상행한 후 다시 太로 하행하는 형태이다.

일각과 이두 사이의 '든흘림표'는 '막내는표'가 기보된 사설 '떨쳐드니'가 제14박에서 마무리된 후 제15박에서 黃太黃太 음형으로 黃에서 요성하므로 제15박에 기보된다. '든흘림표'의 선율형은 제15박에 黃太黃太,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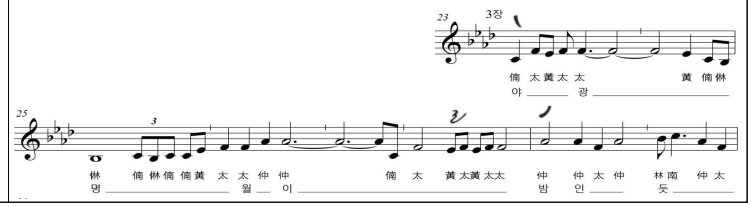
64) 이하 [낚대를]로 표기한다.

16박에 太로 黃에서 요성한 후 太로 상행하는 형태이다. 이는 이두에 기보된 ‘드는표’의 시작음 仲으로 연결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이두의 ‘드는표’는 이두 첫 박에 仲으로 시작해 제2박에 仲太, 제3박 仲, 제4박 林南, 제5박 仲太로 진행하는 仲-仲(太)-仲-(林)南-仲(太) 선율형이다. 사설을 기준으로 선율의 골격음은 仲-南-仲으로 仲으로 시작해 南으로 상행하다 다시 仲으로 하행하는 형태이다.

두 번째로 우조 삼수대엽(4.가마귀 [야광 명월이]65) 사설은 일각의 첫 박 ‘누르는표’, 제15박에 ′든흘림표′, 이두에 ‘드는표’가 기보되어 있다. <연음표>에 따른 선율형은 다음의 <예보 45>와 같다.

<예보 45> 우조 삼수대엽(4.가마귀) <야광> 제3장의 <연음표>와 선율 유형

<연음표> 유형	선율 유형
야광 명월이 밤인 듯 어두워라	

<예보 45>에서 일각 첫 박의 ‘누르는표’는 倩太黃으로 시작해 제2박에 太로 상행해 마무리되는 倩(太黃)-太 선율형이다. 제5박의 黃倩林 선율은 제6박으로 연결하기 위한 선율로 ‘누르는표’의 선율형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사설을 기준으로 선율의 골격음은 倩-太로 倩으로 시작해 太로 상행하는 형태이다.

일각과 이두 사이의 ‘든흘림표’는 앞의 사설 ‘명월이’의 선율이 제14박에서 太로 마무리되므로 제15박에 기보된다. ‘든흘림표’의 선율형은 제15박에 黃太黃太, 제16박에 太로 黃에서 요성한 후 太로 상행하는 형태이다. 이는 이두에 기보된 ‘드는표’의 시작음 仲으로 연결하기 위함으로 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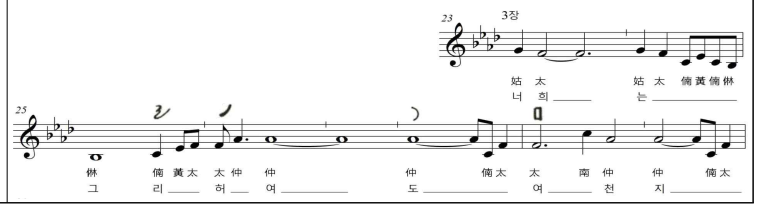
65) 이하 [야광]으로 표기한다.

이된다.

이두에 기보된 ‘드는표’는 첫 박 仲으로 시작해 제2박에 仲太, 제3박 仲, 제4박 林南, 제5박 仲太로 마무리되는 仲-仲(太)-仲-(林)南-仲(太) 선율형이다. 사설을 기준으로 선율의 골격음은 仲-南-仲으로 仲으로 시작해 南으로 상행하다 다시 仲으로 하행하는 형태이다.

세 번째로 우조 삼수대엽(6.도화이화) [너희는 그리허여도][66] 사설은 일각의 제8박에 ′든흘림표′, 제9박 ‘드는표’, 제16박 ′연음표′, 이두에 ‘막내는표’가 기보되어 있다. <연음표>에 따른 선율형은 다음의 <예보 46>과 같다.

<예보 46> 우조 삼수대엽(6.도화이화) [너희는] 제3장의 <연음표>와 선율 유형

<연음표> 유형	선율 유형
너희는 그리허여도 여천지 무궁이라	

<예보 46>에서 일각의 ‘든흘림표’는 ‘그리’와 ‘허여도’ 사이에 기보되어 두 구절을 연결하므로 제8박에 기보된다. ‘든흘림표’의 음형은 倩黃太로 倩에서 太까지 상행하는 형태이다. 이는 제9박에 기보된 ‘드는표’의 시작음이 仲이므로 이를 연결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일각 제9박의 ‘드는표’는 太仲으로 시작해 제15박까지 仲으로 지속하는 선율형이다. 따라서 ‘드는표’의 선율형은 (太)仲이며, 선율의 골격음은 仲으로 한 음을 지속하는 형태이다.

일각과 이두 사이의 ‘연음표’는 전 사설인 ‘허여도’의 선율이 제15박에서 仲으로 마무리되므로 제16박에 기보된다. ‘연음표’의 음형은 仲倩太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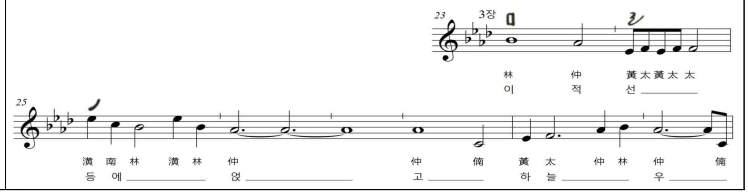
66) 이하 [너희는]으로 표기한다.

倞으로 하행하고 太로 올라오는 형태이다. 이는 이두에 기보된 ‘막내는표’의 시작음 太로 연결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이두의 ‘막내는표’는 太로 시작해 제13박의 짧은 南을 거쳐 제14박에 仲으로 올라온 후 제16박에 倞太로 마무리되는 太-(南)-仲-(倞)太 선율형이다. 사설을 기준으로 선율의 골격음은 太-仲-太로 太로 시작해 仲으로 상행한 후 다시 太로 하행하는 형태이다.

네 번째로 우조 삼수대엽(7.굴원충혼) [이적선 등에얹고][67] 사설은 일각의 첫 박에 ‘막내는표’, 제4박에 ′든흘림표′, 제6박에 ‘드는표’가 기보되어 있다. <연음표>에 따른 선율형은 다음의 <예보 47>과 같다.

<예보 47> 우조 삼수대엽(7.굴원충혼) [이적선] 제3장의 <연음표>와 선율 유형

<연음표> 유형	선율 유형
이적선 등에얹고 하늘우에 올랐으니	

<예보 47>에서 일각 첫 박에 기보된 ‘막내는표’는 林으로 시작해 仲으로 마무리되는 林-仲 선율형이다. 제4박에서 黃太黃太로 黃에서 요성하는 음형이 나타나므로 ‘막내는표’의 선율형과 골격음은 모두 林-仲이다.

‘든흘림표’는 앞의 ‘막내는표’의 선율형이 仲으로 제3박에서 마무리되므로 제4박에 기보된다. ‘든흘림표’의 선율형은 黃太黃太로 黃에서 요성한 후, 제5박에 太로 상행하며 마무리되는 형태이다. 이는 제6박에 기보된 ‘드는표’의 시작음이 潢으로 높은음이므로 이를 연결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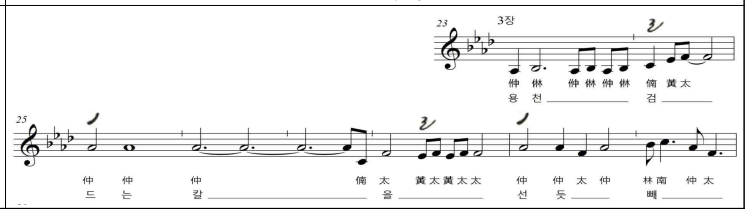
일각 제6박의 ‘드는표’는 潢南으로 시작해 제7박에 林, 제8박 潢林, 제9

67) 이하 [이적선]으로 표기한다.

박 仲을 내주며 제15박까지 지속하는 潢南-林-潢(林)-仲 선율형이다. 사설을 기준으로 선율의 골격음은 潢南-林-潢-仲으로 潢으로 시작해 林까지 하행한 후 다시 潢으로 상행해 仲으로 내려오며 마무리되는 형태이다.

다섯 번째로 우조 삼수대엽(19.적토마) [용천검 드는칼을][68] 사설은 일각의 제4박에 '든흘림표', 제6박에 '드는표', 제15박에 '든흘림표', 이두에 '드는표'가 기보되어 있다. <연음표>에 따른 선율형은 다음의 <예보 48>과 같다.

<예보 48> 우조 삼수대엽(19.적토마) [용천검] 제3장의 <연음표>와 선율 유형

<연음표> 유형	선율 유형
용천검 드는칼을 선듯빼쳐 들러메고	

<예보 48>에서 일각의 두 사설 사이의 '든흘림표'는 '용천검'의 선율이 제3박에서 林으로 마무리되므로 제4박에 기보된다. '든흘림표'의 음형은 倘黃太로 倘에서 太로 상행하는 형태이다. 이는 일각의 제6박에 기보된 '드는표'의 시작음 仲으로 연결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일각 제6박에 기보된 '드는표'는 仲으로 시작해 제13박에 짧은 박의 倘을 내준 후 제14박에서 太로 마무리되는 仲-(倘)-太 선율형이다. 사설을 기준으로 선율의 골격음은 仲-太로 仲으로 시작해 太로 하행하며 마무리하는 형태이다.

'든흘림표'는 '드는칼을'과 '선듯빼쳐' 사설 사이에 기보되어 두 구절을 연결한다. '드는칼을'의 선율이 제14박에서 太로 마무리되므로 '든흘림표'

68) 이하 [용천검]으로 표기한다.

는 제15박에 기보된다. 제15박의 음형은 黃太黃太이고 제16박은 太로 '든흘림표'는 黃에서 요성한 후 太로 상행하는 선율형이다. 이는 이두에 기보된 '드는표'의 시작음 仲으로 연결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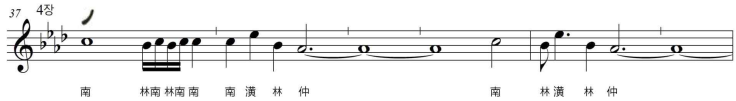
이두의 '드는표'는 첫 박에 仲으로 시작해 제2박에 仲太, 제3박 仲, 제4박 林南, 제5박 仲太로 마무리되는 仲-仲(太)-仲-(林)南-(仲)太 선율형이다. 사설을 기준으로 선율의 골격음은 仲-南-太로 仲으로 시작해 南으로 상행한 후 太로 하행하며 마무리되는 형태이다.

④ 제4장

제4장의 <연음표>는 '드는표'와 '누르는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먼저 '드는표'가 기보된 사설은 우조 삼수대엽 제1번(추강에), 제6번(도화이화), 제7번(굴원충혼)으로 세 가지이다. <연음표>에 따른 선율형은 다음의 <예보 49>와 같다.

<예보 49> 우조 삼수대엽(1.추강에)[저희도]·(6.도화이화)[우리는]·(7.굴원충혼)[이제는] 제4장 '드는표'의 선율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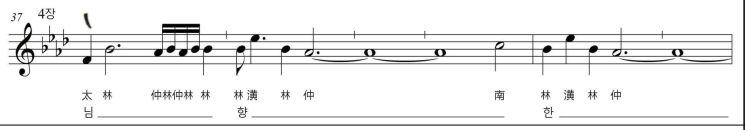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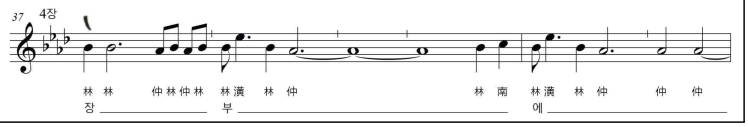
<연음표> 유형	선율 유형
저희도	
우리는	
이제는	

<예보 49>에서 제4박부터의 선율은 '누르는표'가 기보된 사설과 동일하므로 '드는표'에 해당하는 선율은 제1박부터 제3박까지이다. '드는표'는

南으로 시작해 林으로 진행하여 요성한 후 南으로 마무리되는 南-林(南) 선율형이다. 선율의 골격음은 南-林으로 林의 음형은 사설마다 다르지만 세 사설 모두 南으로 진행되며 끝나는 형태를 보인다.

‘누르는표’가 기보된 사설은 제4번(가마귀)와 제19번(적토마)으로 두 가지이다. <연음표>에 따른 선율형은 다음의 <예보 50>과 같다.

<예보 50> 우조 삼수대엽(4.가마귀)·(19.적토마) [님향한]·[장부의] 제4장 ‘누르는표’의 선율 유형

<연음표> 유형	선율 유형
님향한	
장부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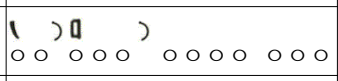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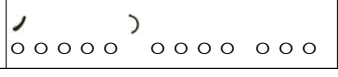
<예보 50>에서 제4장 제4박부터의 선율은 ‘드는표’가 기보된 사설과 동일하므로 ‘누르는표’에 해당하는 선율은 제1박부터 제3박까지이다. ‘누르는표’는 짧은 박의 太로 시작해 林으로 올라가 仲林仲林으로 仲에서 요성하여 진행하는 [님향한] 사설과, 林으로 시작해 仲林仲林으로 仲에서 요성하는 [장부의] 사설로 나뉜다. 따라서 제4장 ‘누르는표’의 선율은 太 또는 林으로 시작해 仲으로 진행하는 선율형태이다.

⑤ 제5장

우조 삼수대엽 제5장의 <연음표> 유형은 세 가지로 나타난다. 첫 번째 유형은 우조 삼수대엽(1.추강에) [사람의 흥을 알아] 사설로 첫 각에 ‘누르는표’와 ′연음표′, 둘째 각에 ‘막내는표’와 ′연음표′가 기보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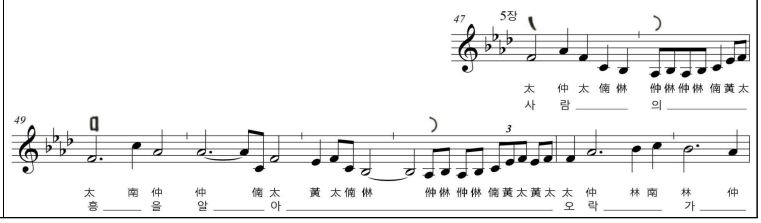
두 번째 유형은 우조 삼수대엽(4.가마귀) [일편단심이야] 사설로 첫 각에 ‘드는표’, 둘째 각에 ′연음표′와 ‘막내는표’가 기보되어 있다. 세 번째 유형은 우조 삼수대엽(6.도화이화)·(7.굴원충혼)·(19.적토마)의 [백세뿐이니]·[새로난 고기니]·[입신양명을] 사설로 첫 각에 ‘드는표’, 둘째 각에 ′연음표′가 기보되어 있다.[69] 이는 다음의 <표 17>과 같다.

<표 17> 우조 삼수대엽 제5장의 <연음표> 유형

분류	<연음표>	삼수대엽 사설
1		1.추강에[사람의]
2		4.가마귀[일편단심]
3		6.도화이화[백세], 7.굴원충혼[새로난], 19.적토마[입신]

첫 번째 유형인 우조 삼수대엽(1.추강에) 제5장 일각의 사설 [사람의]는 제1박에 ‘누르는표’, 제4박에 ′연음표′, 제6박에 ‘막내는표’, 제15박에 ′연음표′가 기보되어 있다. <연음표>에 따른 선율형은 다음의 <예보 51>과 같다.

<예보 51> 우조 삼수대엽(1.추강에) [사람의] 제5장의 <연음표>와 선율 유형

<연음표> 유형	선율 유형
 사람의 흥을알아 오락가락 허노라	

<예보 51>에서 일각 첫 박의 ‘누르는표’는 太로 시작해서 제2박의 仲太를 내준 후, 제3박에서 倘林으로 마무리되는 太-仲(太)-(倘)林 선율형

69) 이하 각각 [사람의], [일편단심], [백세], [새로난], [입신]으로 표기한다.

이다. 제4박은 仲㑹仲㑹으로 요성하는 연결형 <연음표>에서 나타나는 음형이므로 '누르는표'의 선율은 제3박까지로 볼 수 있다. 사설을 기준으로 선율의 골격음은 太-仲-㑹으로, 太로 시작해 仲으로 상행한 후, 㑹으로 하행해 마무리되는 형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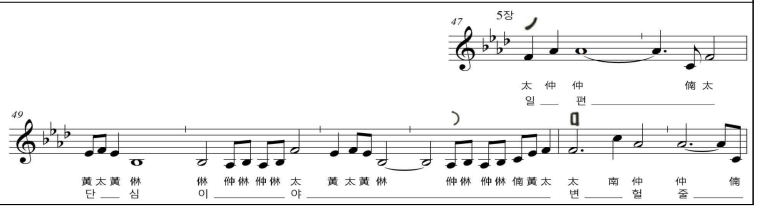
첫 각의 '연음표'는 전 사설의 선율이 제3박의 倘㑹으로 마무리되므로 제4박에 기보된다. '연음표'의 선율은 제4박에 仲㑹仲㑹으로 仲에서 요성한 후, 제5박에 倘黃太로 상행하는 유형이다. 이는 제6박에 기보된 '막내는표'의 시작음 太로 연결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일각 제6박의 '막내는표'는 太로 시작해 제7박에 南을 거쳐 제8박에 仲, 제10박에 짧은 박의 倘을 내준 후 제11박 太, 제12박 黃太倘, 제13박에 㑹으로 마무리되는 太-(南)-仲-(倘)-太-黃(太倘)-㑹 선율형이다. 사설을 기준으로 선율의 골격음은 太-仲-太-黃-㑹으로 太로 시작해 仲으로 상행한 후 다시 太로 내려와 㑹까지 하행하는 형태이다.

일각과 이두 사이의 '연음표'는 앞의 선율이 㑹으로 제14박에 마무리되므로 제15박에 기보된다. '연음표'의 선율은 제15박에 仲㑹仲㑹으로 仲에서 요성한 후, 제16박에 倘黃太黃太로 상행하는 유형이다. 이는 <연음표>는 생략되었지만, 이두의 시작음인 太로 연결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두 번째 유형인 우조 삼수대엽(4.가마귀) [일편]의 사설은 일각 첫 박에 '드는표', 제15박에 '연음표', 이두에 '막내는표'가 기보되어 있다. <연음표>에 따른 선율형은 다음의 <예보 52>와 같다.

<예보 52> 우조 삼수대엽(4.가마귀) [일편] 제5장의 <연음표>와 선율 유형

<연음표> 유형	선율 유형
일편 단심이야 변헐줄이 있으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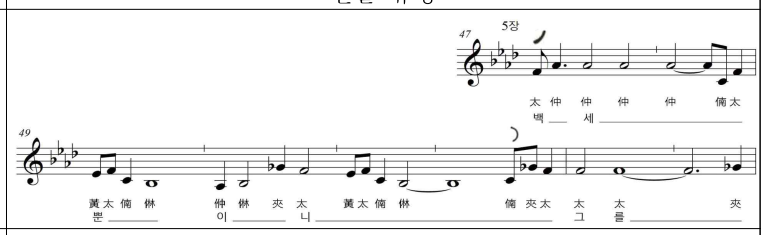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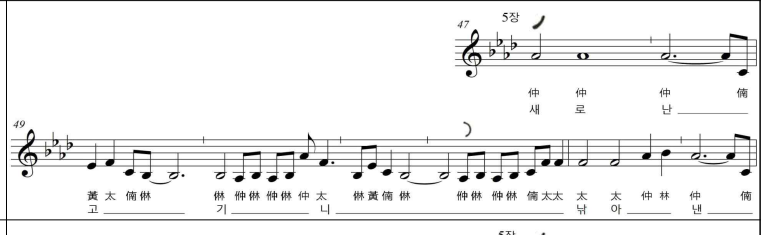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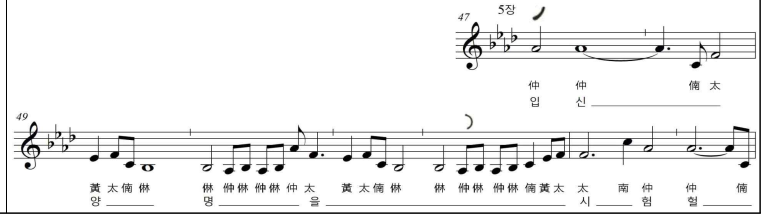
<예보 52>에서 일각 첫 박에 기보된 ‘드는표’는 太仲으로 시작해 仲을 지속하여 끌어준 후 제4박에서 짧은 박의 倘을 거쳐 제5박에 太로 마무리되는 太仲-仲(倘)-太 선율형이다. 사설을 기준으로 선율의 골격음은 太仲-太로 太仲으로 시작해 太로 내려오는 형태이다.

‘연음표’는 전 사설 ‘단심이야’의 선율이 林으로 제14박에서 마무리되므로 제15박에 기보된다. ‘연음표’의 선율은 제15박에 仲林仲林으로 仲에서 요성한 후, 제16박에 倘黃太로 상행하는 유형이다. 이는 이두에 기보된 ‘막내는표’의 시작음인 太로 연결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이두에 기보된 ‘막내는표’는 太로 시작해 南을 거쳐 仲으로 진행한 후, 제16박에 짧은 박의 倘으로 마무리되는 太-(南)-仲-(倘) 선율형이다. 사설을 기준으로 선율의 골격음은 太-仲으로 太로 시작해 仲으로 상행하는 형태이다.

세 번째 유형인 우조 삼수대엽(6.도화이화)·(7.굴원충혼)·(19.적토마)의 [백세]·[새로난]·[입신] 세 사설은 일각의 첫 박 ‘드는표’, 제15박에 ‘연음표’가 기보되어 있다. <연음표>에 따른 선율형은 다음의 <예보 53>과 같다.

<예보 53> 우조 삼수대엽(6.도화이화)·(7.굴원충혼)·(19.적토마) 제5장 [백세]·[새로난]·[입신] 사설 <연음표>와 선율 유형

<연음표> 유형	선율 유형
백세뿐이니 그를설워 허노라	
새로난 고기니 낚아낸들 관계허랴	
입신양명을 시험헐까 허노라	

<예보 53>에서 일각 첫 박의 '드는표'를 사설별로 살펴보면 [백세]의 경우, 太仲으로 시작해 仲을 지속한 후, 제5박에서 짧은 박의 倘을 거쳐 太로 마무리되는 (太)仲-(倘)太 선율형이다. 사설을 기준으로 선율의 골격음은 仲-太로 仲으로 시작해 太로 마무리된다.

[새로난]의 '드는표'는 仲으로 시작해 지속한 후 제5박 끝에서 짧은 박의 倘으로 진행하는 仲-(倘) 선율형이다. 사설을 기준으로 선율의 골격음은 仲으로 제1각의 마지막 박까지 끌어주는 형태이다.

[입신]의 '드는표'는 仲으로 시작해 제4박에 짧은 박의 倘을 내준 후 제5박에서 太로 마무리되는 仲-(倘)-太 선율형이다. 사설을 기준으로 선율의 골격음은 仲-太로 仲으로 시작해 太로 마무리된다.

세 사설에 기보된 제5장 일각 '드는표'의 골격음은 시작음이 仲으로 같으나 [백세]와 [입신]은 太로 하행하고 [새로난]은 仲으로 끝까지 뻗는

점이 다르다. 이는 [입신]과 [백세]는 사설의 자수가 두 자이고 [새로난]은 세 자로 차이가 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연음표’는 전 사설의 선율이 세 곡 모두 林으로 일각의 제14박에서 마무리되므로 제15박에 기보된다. ‘연음표’의 선율형은 세 곡이 조금씩 다르게 나오는데 [백세]는 제15박에 林에서 농현한 후 제16박에 倘黃太로 진행한다. [새로난]은 제15박에 仲林仲林으로 요성한 후, 제16박에 倘太太로 진행한다. [입신]은 제15박에 仲林仲林으로 요성한 후, 제16박에 倘黃太로 진행한다.

제5장 일각과 이두 사이에 기보된 ‘연음표’의 음형은 세 곡이 모두 조금씩 다르지만 仲 또는 林의 낮은음에서 太로 상행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는 이두의 시작음이 세 곡 모두 太이므로 이를 연결하기 위함으로 볼 수 있다.

⑥ 삼수대엽 소결

『가곡원류』 우조 삼수대엽에 기보된 <연음표>와 그에 따른 선율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초장 초두의 <연음표>는 ‘막내는표’가 기보된 경우와 ‘드는표’가 기보된 경우로 나뉜다. 초장 초두에 기보된 ‘막내는표’는 제1번(추강에) 사설에서 보이며, 太로 시작해 林으로 상행한 후 仲으로 마무리하는 선율형이다. 초장 초두에 기보된 ‘드는표’의 선율 골격음은 南潢-南-汰-仲-太로 南潢으로 시작해 南을 거쳐 汰까지 상행 후, 다시 太로 하행하는 형태로 <연음표>에 따라 선율형이 달라진다.

초장 이두는 ‘드는표’가 기보된 경우만 볼 수 있으며, 골격음은 汰-沖-潢으로 汰로 시작해 沖까지 상행한 후 潢으로 하행하여 마무리되는 형태이다. 따라서 같은 <연음표>이 기보되어도 초두와 이두의 선율이 다르며, <연음표>가 표기되지 않은 다른 곡의 초장 이두 선율과도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제2장 초두는 ‘막내는표’가 기보된 경우와 ‘드는표’가 기보된 두 가지 경우로 나타난다. 제2장 초두 ‘막내는표’의 선율 골격음은 林-仲-林-仲으로 林으로 시작해 仲으로 마무리되는 선율형이다. ‘드는표’ 선율의 골격음은 南-林-潢-仲-太로, 南으로 시작해 林을 요성한 후 潢으로 상행하고 仲을 거쳐 太까지 하행하는 형태, 또는 南-林-潢-仲-太-倘-太 로 南으로 시작해 林을 거쳐 潢으로 상행한 후 仲과 太를 거쳐 倘까지 하행한 후 다시 太로 돌아와 마무리되는 형태이다. 따라서 제2장 초두의 ‘드는표’는 ‘막내는표’보다 한 음 높게 시작해 潢까지 상행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제2장 이두는 ‘막내는표’가 기보된 경우와 ‘누르는표’가 기보된 두 가지 경우로 나타난다. 제2장 이두 ‘막내는표’의 선율 골격음은 太-仲으로 太로 시작해 仲으로 마무리되는 형태이다. 이는 초두에 기보된 ‘막내는표’의 골격음과 다르게 나타난다. ‘누르는표’의 선율 골격음은 倘-太로 倘으로 시작해 太로 마무리되는 형태이다. 우조 삼수대엽(1.추강에) 제2장 [일엽주를] 사설의 이두는 <연음표>가 생략되어 있지만 ‘누르는표’가 기보된 사설과 같은 선율 골격음을 갖고 있다. 따라서 제2장 [일엽주를] 사설의 이두는 ‘누르는표’가 생략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제3장의 음높이를 나타내는 <연음표>는 첫 박에 기보된 경우와 제6박에 기보된 경우, 제9박에 기보된 경우와 이두에 기보된 네 가지 경우로 나뉜다.

첫 박에 기보된 <연음표>는 ‘막내는표’와 ‘누르는표’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막내는표’의 선율 골격음은 林으로 시작해 仲으로 마무리되는 林-仲 선율형이다. ‘누르는표’는 倘-太로 倘으로 시작해 太로 상행하는 형태이다. 제6박에 기보된 <연음표>는 ‘드는표’와 ‘막내는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드는표’의 선율 골격음은 仲-太로 仲에서 太로 하행하는 형태와 潢南-林-潢-仲으로 潢으로 시작해 林까지 하행한 후 다시 潢으로 상행해 仲으로 내려오며 마무리되는 두 가지 선율형이 나타난다. ‘막

내는표'는 太-仲-太 선율형으로 太로 시작해 仲으로 상행한 후 다시 太로 하행하는 형태이다. 제9박에 기보된 <연음표>는 '드는표' 한 가지로 나타나며, 선율 골격음은 仲으로 한 음을 지속하는 형태이다.

제3장 이두에 기보된 <연음표>는 '드는표'와 '막내는표'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드는표'의 선율 골격음은 仲-南-仲 또는 仲-南-太로 진행하는 두 가지 형태로 仲으로 시작해 南으로 상행한 후 仲 또는 太로 하행해 종지음이 다르다. '막내는표'의 선율 골격음은 太-仲-太로 太로 시작해 仲으로 상행한 후 다시 太로 하행하는 형태이다.

제4장은 '드는표' 또는 '누르는표'가 기보된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드는표'가 기보된 선율의 골격음은 南-林으로, '누르는표'는 太 또는 林으로 시작해 仲으로 진행하는 선율 형태이다.

제5장의 음높이를 나타내는 <연음표>는 일각의 첫 박에 기보된 경우와 제6박에 기보된 경우, 이두에 기보된 세 가지 경우로 나뉘고, 일각의 두 사설 구절 사이와 일각과 이두 사이에 '연음표'가 기보되어 해당 <연음표>의 음형을 확인할 수 있다.

일각 첫 박에 기보된 <연음표>는 '드는표'와 '누르는표'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드는표' 선율의 골격음은 仲-太로 仲으로 시작해 太로 내려오는 형태이다. '누르는표' 선율의 골격음은 太-仲-㐗으로, 太로 시작해 仲으로 상행한 후, 㐗으로 하행해 마무리되는 형태이다. 일각 제6박에 기보된 <연음표>는 '막내는표' 한 가지이며, 선율의 골격음은 太-仲-太-黃-㐗으로 太로 시작해 仲으로 상행한 후 다시 太로 내려와 㐗까지 하행하는 형태이다.

이두에 기보된 <연음표>는 '막내는표' 한 가지이며, 선율의 골격음은 太-仲으로 太로 시작해 仲으로 상행하는 형태이다.

위의 내용에 따라 선율형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18>과 같다.

<표 18> 우조 삼수대엽 위치별 <연음표> 선율형 정리

장		<연음표>	선율의 골격음	해당 사설	곡
초장	초두	드는표	【南】潢-南-汰-仲-太	가마귀	4.가마귀
				굴원충혼	7.굴원충혼
				적토마	19.적토마
		막내는표	【太】林-仲	추강에	1.추강에
	이두	드는표	【汰】-沖-潢	월백커늘	1.추강에
이장	초두	드는표	【南】-林-潢-仲-太	일엽주를	1.추강에
				희는듯	4.가마귀
			【南】-林-潢-仲-太-倆-	일년춘광을	6.도화이화
		막내는표	【林】-仲-林-仲	채석강의	7.굴원충혼
	이두	막내는표	【太】-仲-太-黃-淋	긴고래되여	7.굴원충혼
		누르는표	【倆】-太	검노메라	4.가마귀
				한치마라	6.도화이화
삼장	일각 첫 박	막내는표	【林】-仲	이적선	7.굴원충혼
		누르는표	【倆】-太	야광	4.가마귀
	일각 제6박	드는표	【潢】南-林-潢-仲	등에얹고	7.굴원충혼
			【仲】-太	드는칼을	19.적토마
		막내는표	【太】-仲-太	떨쳐드니	1.추강에
	일각 제9박	드는표	【仲】	허여도	6.도화이화
	이두	드는표	【仲】-南-仲-太-淋	자든 백구	1.추강에
			【仲】-南-仲-太	밤인듯	4.가마귀
			【仲】-南-太	선듯빼서	19.적토마
		막내는표	【太】-仲-太	여천지	6.도화이화
사장		드는표	【南】-林	저희도	1.추강에
				우리는	6.도화이화
				이제는	7.굴원충혼
		누르는표	【太】林-仲	님향한	4.가마귀
			【林】-仲	장부의	19.적토마
오장	일각 첫 박	드는표	【仲】-太	일편	4.가마귀
				백세	6.도화이화
				입신	19.적토마
			【仲】	새로난	7.굴원충혼
		누르는표	【太】-仲-淋	사람의	1.추강에
	일각 제6박	막내는표	【太】-仲-太-黃-淋	흥을 알아	1.추강에
	이두	막내는표	【太】-仲	변할줄이	4.가마귀

<범례> 【】:선율의 시작음 -:박의 구분

연결형 <연음표> 중 '든흘림표'는 초장 및 제3장에 기보되어 있다. 초장의 음형은 仲林南으로 종지음 太에서 상행선율로 연결하는 음형이다. 제3장은 倘黃太로 요성 없이 상행하는 음형과 黃太黃太-太로 黃에서 요성한 후 太로 상행하는 두 가지 음형으로 나타났다. 제3장에서 일각과 이두의 사설을 연결할 경우, 黃에서 요성한 후 太로 상행하는 음형을 보이고, 일각 안에 기보될 때는 요성 없이 상행 음형으로 두 사설 구절을 연결하였다. 다만, 제7번(굴원충혼) 제3장 [이적선] 사설과 같이 黃에서 요성한 후 太로 상행하는 음형도 나타난다. 이는 다음의 <표 19>와 같다.

<표 19> 우조 삼수대엽 '든흘림표'의 음형과 사설

'든흘림표'의 음형	사설 구절	장	곡명
仲林南	추강에ᄅᆞ 월백커늘	초장	1.추강에
黃太黃太-太	떨쳐드니ᄅᆞ 자든	제3장	1.추강에
	명월이ᄅᆞ 밤인 듯		4.가마귀
	이적선ᄅᆞ 등에얹고		7.굴원충혼
	드는칼을ᄅᆞ 선듯빼		19.적토마
倘黃太	그리ᄅᆞ 허여도	제3장	6.도화이화
	용천검ᄅᆞ 드는칼을		19.적토마

'연음표'는 초장과 제2·3·5장에 기보되어 있다. 초장 '연음표'의 음형은 '든흘림표'와 같은 仲林南으로 종지음 太에서 상행선율로 연결하는 음형이다. 제2장은 사설 자수에 따라 '연음표'가 기보되는 박이 달라지며, 음형도 상행·하행 유형이 모두 나타난다. 제3장의 '연음표'는 일각 안에 기보될 경우 仲에서 요성한 후 太로 상행하는 음형이고, 일각과 이두 사이는 仲倘太로 倘으로 하행하고 太로 올라오는 음형이다. 제5장 '연음표'의 음형은 공통적으로 仲에서 요성한 후 太로 상행하는 음형으로 이수대엽 계열에서 나타났던 '든흘림표' 및 '연음표'의 음형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다음의 <표 20>과 같다.

<표 20> 우조 삼수대엽 '연음표'의 음형과 사설

음형	사설	구분	곡명
仲林南	도화이화ㄱ 행화	초장	6.도화이화
	굴원충혼ㄱ 배에		7.굴원충혼
倘林黃太	일엽주를ㄱ 흘리	제2장	1.추강에
仲倘	채석강의ㄱ 긴고래	제2장	7.굴원충혼
仲倘太	허여도ㄱ 여천지	제3장	6.도화이화
仲林仲林-倘林太	낚대를ㄱ 떨쳐드니	제3장	1.추강에
仲林仲林-倘黃太黃太	흥을알아ㄱ 오락가	제5장	1.추강에
仲林仲林-倘黃太	사람의ㄱ 흥을알아		1.추강에
	단심이야ㄱ 변할줄		4.가마귀
	고기니ㄱ 낚아낸		7.굴원충혼
	양명을ㄱ 시험할		19.적토마
仲林仲林-倘夾太	뿐이니ㄱ 그를		6.도화이화

우조 삼수대엽은 같은 <연음표>라도 기보된 위치에 따라 선율형과 시작음이 이수대엽 계열이나 초수대엽보다 훨씬 다양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특히 삼수대엽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드는표'의 시작음은 크게 네 가지로 이는 초수대엽이 두 가지로 나왔던 것에 비해 다양해진 것이다. 이는 곡이 파생되면서 속도는 빨라지고 자수는 많아짐으로 인해 <연음표>가 위치별로 나타내야 하는 선율도 점점 세분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연결 역할을 하는 <연음표> 중 '든흘림표'는 대부분 '드는표'앞에 기보되어 상행선율을 연결하므로 그에 따른 음형도 비교적 일정하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반면에 '연음표'는 '드는표'가 기보된 사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설의 앞부분에 기보되어 상행·하행선율을 연결하면서 다양한 음형이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다.

3) 소용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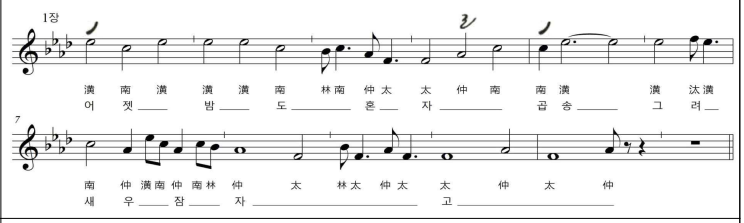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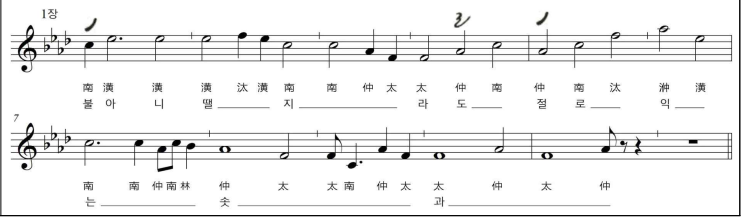
『가곡원류』에 실린 우조 소용이의 사설은 총 열네 가지이다. 이중 『하규일보』에 실린 노래는 『가곡원류』에 있는 순으로 첫 번째(어젯밤도 혼자 곱송그려 새우잠 자고), 세 번째(아마도 태평할손), 다섯 번째(불아니 땔지라도 절로 익는 솟과), 일곱 번째(저건너 거머무투룸헌 바위) 사설로 네 가지가 전해진다. 『하규일보』에 실린 소용이 네 사설의 <연음표>를 장별로 살펴보겠다.

ㄱ) 초장

우조 소용이 초장의 <연음표>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첫 번째 유형은 우조 소용이 제1(어젯밤도)·5번(불아니) 사설로 초두에 '드는표', 제10박에 '든흘림표', 이두에 '드는표'가 기보되어 있다. <연음표>에 따른 선율형은 다음의 <예보 54>와 같다.

<예보 54> 우조 소용이 제1(어젯밤도)·5번(불아니) 초장 <연음표>와 선율 유형

<연음표> 유형	선율 유형
어젯밤도 혼자 곱송그려 새우잠 자고	
불아니 땔지라도 절로익는 솟과	

<예보 54>에서 초두에 기보된 '드는표'는 제1번(어젯밤도)의 경우 첫 박 潢, 제2박 南, 제3-5박 潢, 제6박 南, 제7박 林南, 제8박 仲太, 제9박 太로 마무리되는 潢-南-潢-南-(林)南-(仲)太-太 선율형이다. 사설을 기

준으로 선율의 골격음은 潢-南-潢-南-太로 潢으로 시작해 南으로 하행하고 潢으로 상행했다 南으로 하행을 반복한 후 太로 마무리하는 형태이다.

제5번(불아니) 사설 초두에 기보된 '드는표'는 첫 박 南潢, 제2-4박 潢, 제5박 汰潢, 제6-7박 南, 제8박 仲太, 제9박 太로 마무리되는 南潢-潢-(汰)潢-南-仲(太)-太 선율형이다. 사설을 기준으로 선율의 골격음은 南潢-南-仲-太로 南으로 시작해 潢으로 상행한 후 다시 南으로 내려와 仲과 太로 하행하며 마무리되는 형태이다.

두 사설의 초두의 '드는표'는 潢또는 南潢으로 시작하여 太로 하행하는 선율의 특징을 보인다. 선율의 진행에 있어 제1번(어젯밤도) 사설은 潢과 南의 상행과 하행을 반복하고, 제5번(불아니) 사설은 南潢으로 상행한 후 南으로 하행해 상대적으로 적은 움직임을 보인다. 이는 초두의 사설이 제1번(어젯밤도)의 경우 '어젯밤도 혼자'로 여섯 자이고, 제5번(불아니) 사설은 '불아니 뗄지라도'로 일곱 자이므로 자수의 차이로 인해 선율의 움직임이 달라진 것으로 풀이된다.

'든흘림표'는 두 사설 모두 앞 사설이 제9박에서 마무리되므로 제10박에 기보된다. '든흘림표'의 음형은 제10박 仲, 제11박 南으로 仲에서 南으로 상행하는 형태이다. 이는 이두에 기보된 '드는표'의 첫 시작음 南으로 상행선율을 연결하기 위함이다.

이두에 기보된 '드는표'의 경우, 이두 제9박부터 소용이 네 곡의 선율이 동일하므로 '드는표'가 나타내는 선율은 이두 제8박까지이다. 따라서 이두의 '드는표'는 제1번(어젯밤도)의 경우 첫 박 南潢, 제2-4박 潢, 제5박 汰潢, 제6박 南, 제7박 仲潢南, 제8박 仲南林으로 마무리되는 南潢-潢-(汰)潢-南-仲(潢南)-仲(南林) 선율형이다. 사설을 기준으로 선율의 골격음은 南潢-南-仲으로 南으로 시작해 潢으로 상행한 후 다시 南에서 仲까지 하행하는 형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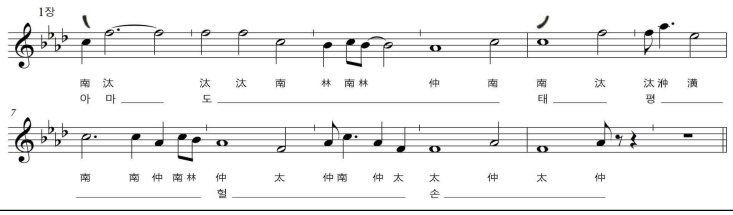
제5번(불아니) 이두의 '드는표'는 첫 박 仲, 제2박 南, 제3박 汰, 제4박 沖, 제5박 潢, 제6-7박 南, 제8박 仲南林으로 마무리되는 仲-南-汰-沖-

潢-南-(仲南)林 선율형이다. 사설을 기준으로 선율의 골격음은 仲-南-汰-泮-潢-南-林으로 仲으로 시작해 南, 汰를 거쳐 泮까지 상행한 후, 潢, 南, 林까지 순차적으로 하행하는 형태이다.

이두의 '드는표'에 해당하는 사설은 제1번(어젯밤도)의 경우 '곱송그려 새우잠'으로 일곱 자이고, 제5번(불아니)는 '절로익는'으로 네 자이다. 따라서 이두의 '드는표'도 사설의 자수에 따라 선율의 골격음이 달라지는 특징을 보인다.

두 번째 유형은 우조 소용이 제3번(아마도) 사설로 초두에 '누르는표', 이두에 '드는표'가 기보되어 있다. <연음표>에 따른 선율형은 다음의 <예보 55>와 같다.

<예보 55> 우조 소용이 제3번(아마도) 초장 <연음표>와 선율 유형

<연음표> 유형	선율 유형
아마도 태평할손	

<예보 55>에서 제3번(아마도) 사설의 초장은 '든흘림표'가 생략되어 있으나, <예보 54>의 제1번(어젯밤도)과 제5번(불아니) 사설의 제10박에 '든흘림표'가 기보되어 상행선율을 연결하였으므로 초두의 <연음표>에 해당하는 선율은 제9박까지이다. 따라서 초두의 '누르는표'는 첫 박 南汰, 제2-5박 汰, 제6박 南, 제7박 林南林, 제8박 林, 제9박 仲으로 마무리되는 南汰-汰-南-林(南林)-林-仲 선율형이다. 사설을 기준으로 선율의 골격음은 南汰-南-林-仲으로 南에서 시작해 汰로 상행한 후 다시 南, 林, 仲으로 순차적으로 하행하는 형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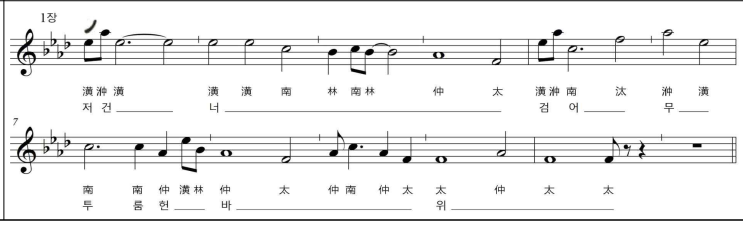
초두의 사설 '아마도'의 첫음절은 '누르는표'가 기보되어 있으나, 첫 박

은 南汰로 오히려 ‘드는표’가 기보된 <예보 54>의 두 곡보다 높은음으로 시작된다. 따라서 ‘드는표’가 기보된 사설보다 높은음으로 시작하는 것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 이는 앞으로 살펴볼 제7번(저건너) 선율을 분석하며 종합적으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두에 기보된 ‘드는표’는 이두 제9박부터 소용이 네 곡의 선율이 동일하므로 ‘드는표’가 나타내는 선율은 제8박까지이다. 따라서 이두의 ‘드는표’는 제1-2박 南, 제3박 汰, 제4박 汰沖, 제5박 潢, 제6-7박 南, 제8박 仲南林으로 마무리되는 南-汰-(汰)沖-潢-南-仲(南林) 선율형이다. 사설을 기준으로 선율의 골격음은 南-汰-沖-潢-南-仲으로 南으로 시작해 汰와 沖까지 상행한 후, 潢, 南, 仲까지 하행하는 형태이다.

세 번째 유형은 우조 소용이 제7번(저건너) 사설로 초두에 ‘드는표’가 기보되어 있다. <연음표>에 따른 선율형은 다음의 <예보 56>과 같다.

<예보 56> 우조 소용이 제7번(저건너) 초장 <연음표>와 선율 유형

<연음표> 유형	선율 유형
저건너 거머무투룸헌 바위	

<예보 56>에서 제7번(저건너)의 선율도 ‘든흘림표’ 또는 ‘연음표’가 생략되어 있으나 <예보 54>의 두 사설로 미루어보아 초두의 ‘드는표’의 선율형은 제9박까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초두의 ‘드는표’는 첫 박 潢沖潢, 제2-5박 潢, 제6박 南, 제7박 林南林, 제8박 林, 제9박 仲으로 마무리되는 潢沖潢-潢-南-林(南林)-林-仲 선율형이다. 사설을 기준으로 선율의 골격음은 潢沖潢-南-林-仲으로 첫음절 ‘저’에서 潢沖을 내준 후 두 번째 음절 ‘건’에서 潢으로 다시 내려오고, 그 후에 南, 林, 仲으로 순차적으로

하행하는 형태이다.

초두의 기본 사설 자수가 세 자이므로 초두에 기보되는 <연음표> 선율의 원형은 제7번(저건너)과 제3번(아마도)의 '드는표'와 '누르는표'의 선율일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제7번(저건너) 초두에 기보된 '드는표'의 선율 골격음은 潢沖으로 시작한 후 潢으로 선율이 이어지고, 제3번(아마도) 초두에 기보된 '누르는표'는 南汰로 시작하여 汰로 이어지는 차이를 보인다. 제1번(어젯밤도)와 제5번(불아니) 사설의 초장 초두는 자수가 달라짐으로 선율형도 달라진 것으로 풀이된다.

우조 소용이 초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초장 초두는 '드는표'가 기보된 유형과 '누르는표'가 기보된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초두의 '드는표'는 세 사설 모두 선율의 골격음이 다르게 나타났다. 제1번(어젯밤도) 사설은 潢-南-潢-南-太, 제5번(불아니) 사설은 南潢-南-仲-太, 제7번(저건너) 사설은 潢沖潢-南-林-仲으로 南또는 潢으로 시작해 潢까지 상행한 후 太로 하행하는 유형과 潢으로 시작해 沖으로 상행하여 仲으로 하행하는 두 가지 유형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선율 진행은 세 곡 모두 다르게 나타났다.

'누르는표'는 제3번(아마도) 사설의 초두에 기보되어 있으며, 선율의 골격음은 南汰-南-林-仲으로 南에서 시작해 汰로 상행한 후 다시 南, 林, 仲으로 순차적으로 하행하는 형태이다. '누르는표'의 음높이는 '드는표'보다 오히려 높게 나타난다.

초장 이두에 기보된 <연음표>는 '드는표' 한 가지이며, 선율 골격음은 제1번(어젯밤도) 사설 南潢-南-仲, 제3번(아마도) 사설 南-汰-沖-潢-南-仲, 제5번(불아니) 사설 仲-南-汰-沖-潢-南-林으로 세 곡 모두 다르게 나타났다. 이렇듯 초두와 이두에 기보된 '드는표'의 선율이 곡마다 다른 것은 사설의 자수가 모두 다르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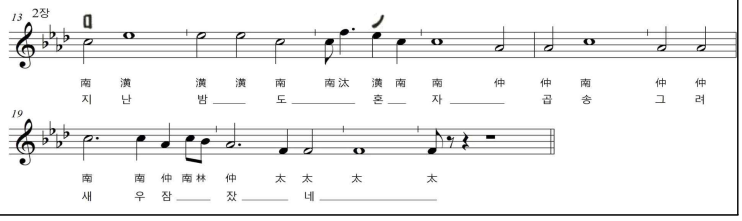
연결형의 <연음표>는 소용이 초장에서 '든흘림표'만 나타난다. '든흘림표'의 음형은 요성 없이 仲을 내준 후 南으로 상행하는 형태이다. 이는 이두에 기보된 '드는표'로 상행선율을 연결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ㄴ) 제2장

우조 소용이 제2장은 <연음표>가 생략된 (7.저건너)의 [정대여 깨 두드려내여] 사설을 제외한 세 곡의 <연음표> 유형이 모두 다르게 나타나므로, 개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소용이(1.어젯밤도) 제2장 [지난밤도 혼자 곱송그려][70] 사설은 초두 첫 박에 '막내는표', 제8박에 '드는표'가 기보되어 있다. <연음표>에 따른 선율형은 다음의 <예보 57>과 같다.

<예보 57> 우조 소용이(1.어젯밤도) 제2장 [지난밤도] <연음표>와 선율 유형

<연음표> 유형	선율 유형
지난밤도 혼자 곱송그려 새우잠 잤네	

<예보 57>에서 초두 첫 박에 기보된 '막내는표'는 제8박에 해당하는 사설 '혼자'에 '드는표'가 기보되므로 제7박까지의 선율을 의미한다. 따라서 '막내는표'는 첫 박 南, 제2-5박 潢, 제6박 南, 제7박 南汰로 마무리되는 南-潢-南-(南)汰 선율형이다. 사설을 기준으로 선율의 골격음은 南-潢-南-汰로 南으로 시작해 潢으로 상행한 후 다시 南으로 하행하다 汰로 올라가 마무리되는 형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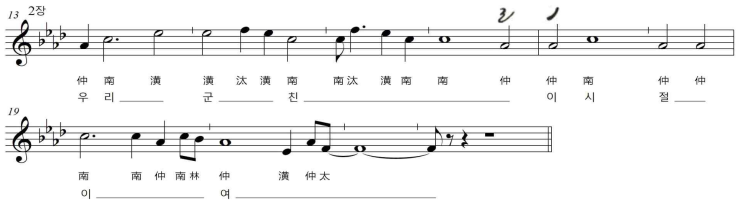
초두 제8박에 기보된 '드는표'는 이두 사설이 시작되기 전인 제11박까지의 선율을 의미한다. 따라서 '드는표'는 제8박 潢南, 제9-10박 南, 제11박 仲으로 마무리되는 潢南-南-仲 선율형이다. 사설을 기준으로 선율의

70) 이하 [지난밤도]로 표기한다.

골격음은 潢南-仲으로 潢으로 시작해 南과 仲으로 하행하는 형태이다.

소용이(3.아마도) 제2장 [우리군친 이시절이여][71] 사설은 초두의 제11박에 '든흘림표', 이두에 '드는표'가 기보되어 있다. <연음표>에 따른 선율형은 다음의 <예보 58>과 같다.

<예보 58> 우조 소용이(3.아마도) 제2장 [우리군친] <연음표>와 선율 유형

<연음표> 유형	선율 유형
우리군친 이시절이여	

<예보 58>에서 초두에 기보된 '든흘림표'는 앞 사설의 선율이 마무리된 후 제11박에 기보된다. '든흘림표'의 음형은 仲으로 나타난다. 앞 사설의 종지음이 南이고 이두의 사설에 기보된 '드는표'의 시작음이 仲으로 오히려 하행하는 선율형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든흘림표'는 이를 연결하기 위해 仲을 내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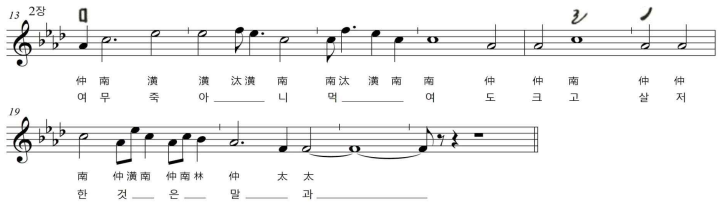
이두에 기보된 '드는표'는 네 곡의 선율이 이두 제9박부터 모두 동일하므로 제8박까지의 선율을 의미한다. 따라서 '드는표'는 제1박 仲, 제2-3박 南, 제4-5박 仲, 제6-7박 南, 제8박 仲南林으로 마무리되는 仲-南-仲-南-仲(南林) 선율형이다. 사설을 기준으로 선율의 골격음은 仲-南-仲-南-仲으로, 仲으로 시작해 南으로 상행했다 仲으로 하행을 반복한 후 仲으로 마무리되는 형태이다.

소용이(5.불아니) 제2장의 [여무죽 아니먹여도][72] 사설은 초두에 '막내

71) 이하 [우리군친]으로 표기한다.
72) 이하 [여무죽]으로 표기한다.

는표', 이두 제2박에 '든흘림표', 제4박에 '드는표'가 기보되어 있다. <연음표>에 따른 선율형은 다음의 <예보 59>와 같다.

<예보 59> 우조 소용이(5.불아니) 제2장 [여무죽] <연음표>와 선율 유형

<연음표> 유형	선율 유형
여무죽 아니먹여도 크고 살져 한것는 말과	

<예보 59>에서 초두의 '막내는표'는 <예보 57>의 [지난밤도] 사설 초두에 기보된 '막내는표'의 선율형이 제7박까지이므로, [여무죽] 사설 초두의 '막내는표'도 동일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여무죽] 사설의 경우 제7박부터 사설이 시작되므로 '막내는표'에 해당하는 선율은 제6박까지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막내는표'는 첫 박 仲南, 제2박 南, 제3-4박 潢, 제5박 汰潢, 제6박 南으로 마무리되는 仲南-南-潢-(汰)潢-南 선율형이다. 사설을 기준으로 선율의 골격음은 仲南-潢-南으로 仲으로 시작해 南과 潢까지 상행한 후 다시 南으로 마무리되는 형태이다.

이두의 사설 '크고'와 '살져' 사이에 기보된 '든흘림표'는 앞 사설이 마무리되는 이두 제2박에 기보된다. '든흘림표'의 음형은 南이며, '드는표'가 기보된 다음 사설의 시작음 仲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드는표'가 기보되어 있지만 오히려 하행선율로 연결함을 알 수 있다.

이두의 제4박에 기보된 '드는표'는 네 곡의 선율이 제9박부터 모두 동일하므로 제8박까지의 선율을 의미한다. 따라서 '드는표'는 제4-5박 仲, 제6박 南, 제7박 仲潢南, 제8박 仲南林으로 마무리되는 仲-南-(仲潢)南-(仲南)林 선율형이다. 사설을 기준으로 선율의 골격음은 仲-南-林으로, 仲으로 시작해 南으로 상행한 후 林으로 하행하며 마무리되는 형태이다.

우조 소용이 제2장에 기보된 <연음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의 초두는 첫 박에 '막내는표', 제8박에 '드는표'가 기보된 두 가지 경우로 나뉜다. 초두 첫 박 '막내는표'의 골격음은 仲 또는 南으로 시작해 潢까지 상행한 후 다시 南으로 하행하는 형태이다. 소용이(1.어젯밤도) 제2장 [지난밤도] 사설의 '막내는표'는 南-潢-南-汰로, 소용이(5.불아니) 제2장 [여무죽] 사설의 '막내는표'는 仲南-潢-南으로 각각 마무리된다.

초두 제8박에 기보된 '드는표' 선율의 골격음은 潢南-仲으로 潢으로 시작해 南과 仲으로 하행하는 형태이다.

제2장의 이두는 첫 박과 이두 제4박에 각각 '드는표'가 기보된 형태로 나뉜다. 이두 첫 박에 기보된 '드는표'는 仲-南-仲-南-仲으로, 仲으로 시작해 南으로 상행했다 仲으로 하행을 반복한 후 仲으로 마무리되는 형태이다. 이두 제4박에 기보된 '드는표'는 仲-南-林으로, 仲으로 시작해 南으로 상행한 후 林으로 하행하며 마무리되는 형태이다.

제2장의 '든흘림표'는 仲 또는 南으로 두 가지 음형으로 나뉘며, '드는표'가 기보된 사설의 선율로 연결해준다. 제2장의 '든흘림표'는 '드는표'가 기보된 사설로 선율이 연결되지만, '드는표'의 시작음이 仲으로 높지 않으므로, 오히려 하행선율로 연결하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하행선율로 연결할 경우 '든흘림표'의 음형은 한 가지 음으로 단순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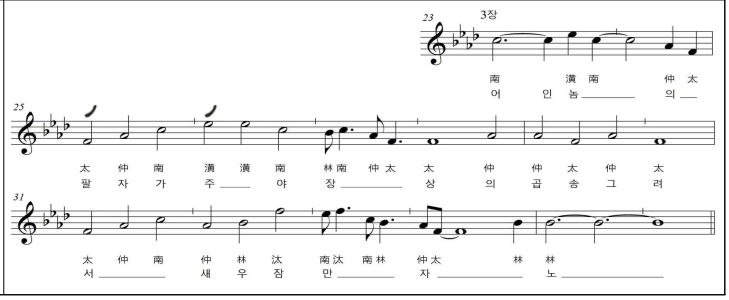
ㄷ) 제3장

제3장도 제2장과 마찬가지로 네 사설의 <연음표> 유형이 모두 다르게 나오므로 개별적으로 살펴보겠다.

소용이(1.어젯밤도) 제3장 [어인놈의 팔자가][73] 사설은 일각의 제6박과 제9박에 '드는표'가 각각 기보되어 있다. <연음표>에 따른 선율형은 다

음의 <예보 60>과 같다.

<예보 60> 우조 소용이(1.어젯밤도) 제3장 [어인놈의] 연음기보법과 선율 유형

<연음표> 유형	선율 유형
어인놈의 팔자가 주야장상에 곱송그려서 새우잠만 자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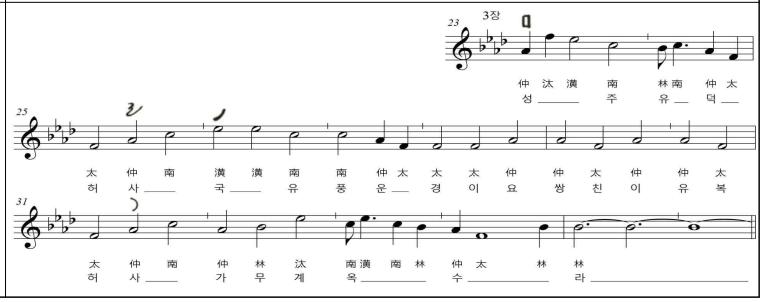
<예보 60>에서 일각 제6박에 기보된 ‘드는표’는 제6박 太, 제7박 仲, 제8박 南으로 마무리되는 太-仲-南 선율형이다. 즉, 太로 시작해 仲을 거쳐 南까지 상행하는 형태이다.

일각 제9박의 ‘드는표’는 제9-10박 潢, 제11박 南, 제12박 林南, 제13박 仲太, 제14-15박 太, 제16박 仲으로 마무리되는 潢-南-(林)南-(仲)太-太-仲 선율형이다. 사설을 기준으로 선율의 골격음은 潢-南-太-仲으로, 潢으로 시작해 南과 太로 하행한 후 仲으로 마무리되는 형태이다.

소용이(3.아마도) 제3장 [성주유덕하사][74] 사설은 일각 첫 박에 ‘막내는표’, 제7박에 ‘든흘림표’, 제9박 ‘드는표’, 제3각 제2박에 ‘연음표’가 기보되어 있다. <연음표>에 따른 선율형은 다음의 <예보 61>과 같다.

73) 이하 [어인놈의]로 표기한다.
74) 이하 [성주유덕]으로 표기한다.

<예보 61> 우조 소용이(3.아마도) 제3장 [성주유덕] <연음표>와 선율 유형

<연음표> 유형	선율 유형
성주유덕하사 국유풍운경이요 쌍친이 유복허사 가무계옥수라	

<예보 61>에서 일각 첫 박에 기보된 '막내는표'는 '든흘림표'가 기보되기 전인 제6박까지의 선율을 의미한다. 따라서 '막내는표'는 첫 박 仲汰, 제2박 潢, 제3박 南, 제4박 林南, 제5박 仲太, 제6박 太로 마무리되는 仲(汰)-潢-南-(林)南-仲(太)-太 선율형이다. 사설을 기준으로 선율의 골격음은 仲-潢-南-仲-太로 仲으로 시작한 후 潢으로 상행하고 南, 仲, 太까지 하행하는 형태이다.

사설 '성주유덕하사'와 '국유풍운경이요' 사이에 기보된 '든흘림표'는 '막내는표'의 선율형이 마무리된 후 일각의 제7박에 기보된다. '든흘림표'의 음형은 요성 없이 仲을 낸 후 南으로 상행하는 유형이다. 이는 제9박에 기보된 '드는표'의 시작음이 潢으로 상행선율형이므로 이를 연결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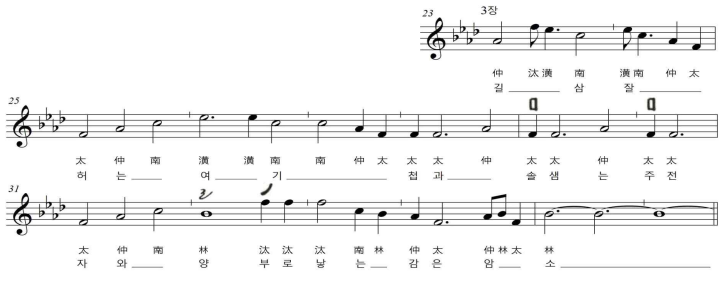
일각 제9박에 기보된 '드는표'는 이두의 사설이 시작되기 전인 제16박까지의 선율을 의미한다. 따라서 '드는표'는 제9-10박 潢, 제11-12박 南, 제13박 仲太, 제14-15박 太, 제16박 仲으로 마무리되는 潢-南-仲(太)-太-仲 선율형이다. 사설을 기준으로 선율의 골격음은 潢-南-仲-太-仲으로, 潢으로 시작해 南, 仲, 太까지 하행한 후 仲으로 마무리되는 형태이다.

셋째 각에 기보된 '연음표'는 이두의 제7박에 기보된다. '연음표'의 음형은 仲을 낸 후 南으로 상행하는 유형이다. 다음 사설의 시작음은 仲으로 '연음표'보다 낮은음으로 시작된다. 그러나 '연음표' 전 사설의 선율이

太이고, 다음 사설의 시작음은 仲으로 상행선율이므로 ‘연음표’는 이를 연결하기 위해 상행 음형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상행선율이지만 ‘드는표’가 기보되지 않은 음으로 진행될 경우, ‘연음표’가 기보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소용이(5.불아니) 제3장 [길삼 잘허는 여기첩과][75] 사설은 이두 첫 박과 제4박에 각각 ‘막내는표’, 제10박 ‘든흘림표’, 제11박 ‘드는표’가 기보되어 있다. 이는 다음의 <예보 62>와 같다.

<예보 62> 우조 소용이(5.불아니) 제3장 [길삼] <연음표>와 선율 유형

<연음표> 유형	선율 유형
길삼 잘허는 여기첩과 솔샘는 주전자와 양부로 낳는 감은 암소	

<예보 62>에서 이두 첫 박에 기보된 ‘막내는표’는 다음 ‘막내는표’가 기보되기 전인 제3박까지의 선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두 첫 박의 ‘막내는표’는 제1-2박 太, 제3박 仲으로 마무리되는 太-仲 선율형이다. 즉, 太로 시작해 仲으로 상행하여 마무리되는 형태이다.

제4박에 기보된 ‘막내는표’는 <예보 61>의 [성주유덕] 사설의 제7박에 ‘연음표’가 기보되었던 것을 미루어보아 제6박까지의 선율을 의미한다. 따라서 제4박의 ‘막내는표’는 제4박부터 제6박까지 太로 진행하는 선율형이다. 즉 太로 시작해 太로 종지하는 형태이다.

제3장 마지막 각에 기보된 ‘든흘림표’는 ‘양’과 ‘부로’ 사이에 기보되어 두 음절을 연결한다. 따라서 ‘든흘림표’는 ‘양’이 이두 제9박에서 마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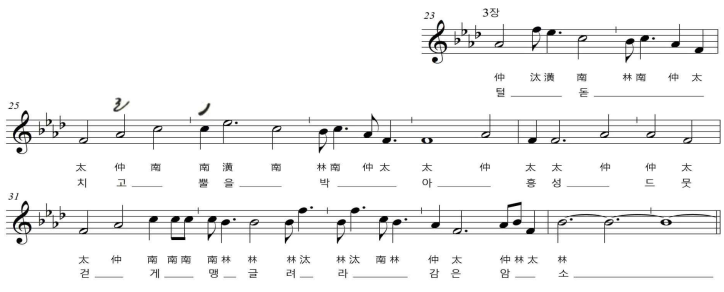
75) 이하 [길삼]으로 표기한다.

된 후 제10박에 기보된다. ‘든흘림표’의 음형은 林으로 나타나며, 이는 ‘양’의 종지음이 林이고 다음 사설에 기보된 ‘드는표’의 시작음이 汰이므로 이를 연결하기 위해 林을 유지해 내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3각은 제3장의 종지선율이므로 ‘든흘림표’의 음형도 단순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두 제11박에 기보된 ‘드는표’는 제3장의 마지막 각이 종지형으로 제12박 이후의 선율이 네 곡 모두 같다. 따라서 ‘드는표’는 제11박의 선율만을 의미하며, 해당하는 선율은 汰로 높게 들어주는 음형이다.

소용이(7.저건너) 제3장 [털 돋치고 뿔을 박아서][76] 사설은 일각 제7박에 ‘든흘림표’, 제9박에 ‘드는표’가 기보되어 있다. <연음표>에 따른 선율형은 다음의 <예보 63>과 같다.

<예보 63> 우조 소용이(7.저건너) 제3장 [털돋치고] <연음표>와 선율 유형

<연음표> 유형	선율 유형
털 돋치고 뿔을 박아서 홍성 드뭇 걷게 맹글려라 감은 암소	

<예보 63>에서 일각의 ‘든흘림표’는 앞 사설 ‘털 돋치고’가 마무리되고 제7박에 기보된다. ‘든흘림표’의 음형은 요성 없이 仲을 내준 후 南으로 상행하는 유형이다. 이는 다음 사설에 기보된 ‘드는표’의 시작음 南으로 상행선율을 연결하기 위함이다.

일각 제9박에 기보된 ‘드는표’는 이두 사설이 시작되기 전인 제16박까지의 선율을 의미한다. 따라서 ‘드는표’는 제9박 南潢, 제10박 潢, 제11박 南, 제12박 林南, 제13박 仲太, 제14-15박 太, 제16박 仲으로 마무리되는

76) 이하 [털돋치고]로 표기한다.

南潢-潢-南-(林)南-(仲)太-太-仲 선율형이다. 사설을 기준으로 선율의 골격음은 南潢-南-太-仲으로, 南으로 시작해 潢으로 상행한 후, 南과 太로 하행하고 仲으로 마무리되는 형태이다.

이상 우조 소용이 제3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3장 일각은 첫 박에 '막내는표', 제6박 및 제9박에 '드는표'가 기보된 세 가지 경우로 나뉜다. 일각 첫 박에 기보된 '막내는표'는 소용이(3.아마도) [성주유덕] 사설에 나타났으며 仲-潢-南-仲-太로 仲으로 시작한 후 潢으로 상행하고 南, 仲, 太까지 하행하는 형태이다.

일각 제6박에 기보된 '드는표'는 소용이(1.어젯밤도) [팔자가] 사설에 나타났으며 太로 시작해 仲을 거쳐 南까지 상행하는 太-仲-南 선율형이었다.

일각 제9박에 기보된 '드는표'는 총 세 가지 선율형으로 나타났는데 첫 번째는 潢-南-太-仲으로, 潢으로 시작해 南과 太로 하행한 후 仲으로 마무리되는 형태이다. 두 번째는 潢-南-仲-太-仲으로, 潢으로 시작해 南, 仲, 太까지 하행한 후 仲으로 마무리되는 형태이다. 마지막은 南潢-南-太-仲으로, 南으로 시작해 潢으로 상행한 후, 南과 太로 하행하고 仲으로 마무리되는 형태이다. 세 선율은 흐름이 조금씩 다르지만, 潢으로 시작하거나 南으로 시작해 潢으로 상행한 후, 太까지 하행하고 仲으로 마무리되는 형태임을 알 수 있다.

제3장 이두는 첫 박 및 제4박에 '막내는표', 제11박에 '드는표'가 기보된 경우로 나뉜다. 이두 첫 박에 기보된 '막내는표'는 太로 시작해 仲으로 상행하여 마무리되는 太-仲 선율형이고, 제4박에 기보된 '막내는표'는 太로 시작해 太로 마무리되는 형태이다.

이두 제11박에 기보된 '드는표'의 선율 골격음은 汰이다.

'든흘림표'는 모두 '드는표' 앞에 기보되어 있으며, 상행선율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일각에 기보될 경우 仲에서 南으로 상행 음형으로 나타나고, 이두에 기보될 경우 林으로 나타나는 점이 다르다. 이는 이두에 기보된 '든흘림표'의 앞 사설의 종지음 영향을 받는 한편, 제3장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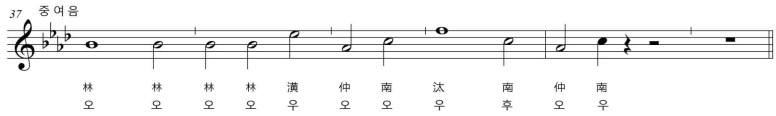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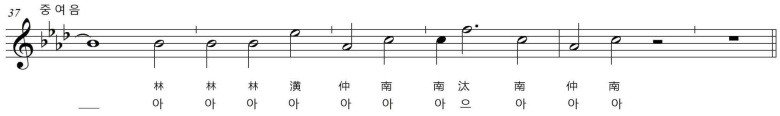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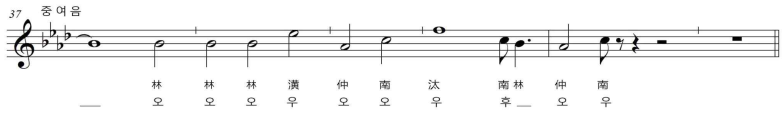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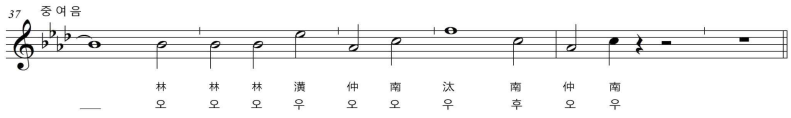
종지 선율로 가기 때문에, 음형이 단순해진 것으로 추측된다.

‘연음표’는 仲에서 南으로 상행하는 음형으로 ‘든흘림표’와 동일하게 나타나지만 연결하는 다음 사설에 ‘드는표’가 기보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드는표’가 기보되어 있지 않은 낮은음으로 연결하는 경우 ‘연음표’를 기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조 소용이의 제3장은 이수대엽 계열, 초수대엽과 삼수대엽, 우락, 언락과 다르게 제3장의 셋째 각, 즉 마지막 각에도 <연음표>가 표기되어 있다. <예보 61>, <예보 62>에 있는 (3.아마도) [성주유덕]과 (5.불아니) [길삼] 사설에서 이러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우조 소용이 제3장의 <연음표>가 다른 곡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중여음에서도 노래를 부르기 때문이다.

중여음은 제3장 사설의 끝음절에 따라 ‘아’ 또는 ‘오’로 노래를 하며, <연음표>는 생략되어 있고 네 곡의 선율이 모두 같다. 이렇듯 사설은 없지만 중여음에서도 노래를 쉬지 않는 우조 소용이의 특성상, 제3장은 다른 계열의 곡들과 다른 <연음표> 유형으로 기보되었음을 알 수 있다. 네 곡의 중여음 선율은 다음의 <예보 6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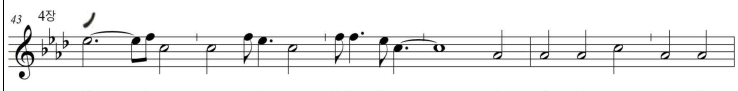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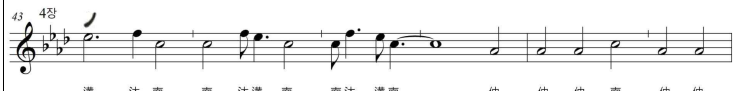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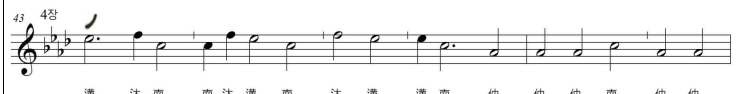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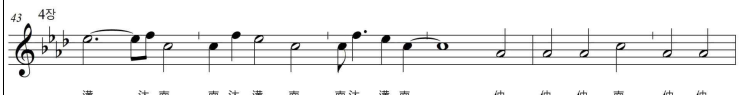
<예보 64> 우조 소용이 네 곡의 중여음 선율

사설	선율
1.어젯밤도	
3.아마도	
5.불아니	
7.저건너	

ㄹ) 제4장

현행 악보에 실린 우조 소용이 제4장은 ‘드는표’의 선율 유형만 볼 수 있다. (1.어젯밤도)[오늘은]·(3.아마도)[억조창생들이]·(5.불아니)[평생에]의 사설에는 첫 각의 첫 박에 ‘드는표’가 기보되어 있고, (7.저건너)[두었다가] 사설은 <연음표>가 생략되어 있으나, ‘드는표’와 같은 선율 유형을 보인다. 이에 따른 선율형은 다음의 <예보 65>와 같다.

<예보 65> 우조 소용이 (1.어젯밤도)[오늘은]·(3.아마도)[억조창생들이]·(5.불아니)[평생에]·(7.저건너)[두었다가] 제4장 <연음표>와 선율 유형

<연음표> 유형	선율 유형
오늘은	
억조창생들이	
평생에	
두었다가	

<예보 65>에서 제4장 첫 각에 기보된 <연음표>는 앞서 분석한 이수대엽 계열과 초수대엽·삼수대엽 계열에 따르면 제1박에서 제3박까지의 선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우조 소용이 제4장에 기보된 '드는표'도 제1박에서 제3박까지의 선율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제4장의 첫 각 첫 박의 '드는표'는 제1박 潢, 제2박 汰, 제3박 南으로 마무리하는 潢-(汰)-南 선율형이다. 즉, 潢으로 시작해 汰를 거쳐 南으로 하행하는 형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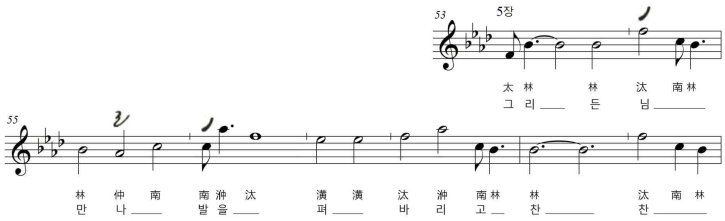
ㅁ) 제5장

우조 소용이 제5장도 앞서 제2·3장과 마찬가지로 네 사설의 <연음표> 유형이 모두 다르게 나타나므로 개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조 소용이(1.어젯밤도)의 제5장 [그리든 님만나][77] 사설은 일각 제4

박에 ‘드는표’, 제7박에 ‘든흘림표’, 제9박에 ‘드는표’가 기보되어 있다. <연음표>에 따른 선율형은 다음의 <예보 66>과 같다.

<예보 66> 우조 소용이(1.어젯밤도) 제5장 [그리든] <연음표>와 선율 유형

<연음표> 유형	선율 유형
그리든 님만나 발을 펴바리고 찬찬 휘감아 잘까 허노라	

<예보 66>에서 일각 제4박에 기보된 ‘드는표’는 ‘든흘림표’가 기보되기 전인 제6박까지의 선율을 의미한다. 따라서 ‘드는표’는 제4박 汰, 제5박 南林, 제6박 林으로 마무리되는 汰-(南)林-林 선율형이다. 사설을 기준으로 선율의 골격음은 汰-林으로, 汰로 시작해 林으로 하행하는 형태이다.

‘든흘림표’는 앞의 사설 ‘그리든 님만나’가 마무리되는 제7박에 기보된다. ‘든흘림표’의 음형은 요성 없이 仲을 내준 후 南으로 상행하는 음형이다. 이는 다음 사설에 기보된 ‘드는표’의 시작음이 (南)沖으로 상행선율이므로 이를 연결하기 위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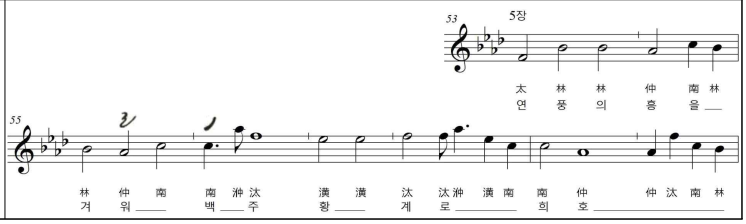
일각 제9박에 기보된 ‘드는표’는 이두의 사설이 시작되기 전인 제16박까지의 선율을 의미한다. 따라서 ‘드는표’는 제9박 南沖, 제10-11박 汰, 제12-13박 潢, 제14박 汰, 제15박 沖, 제16박 南林으로 마무리되는 南沖-汰-潢-汰-沖-(南)林 선율형이다. 사설을 기준으로 선율의 골격음은 南沖-汰-潢-汰-沖-林으로, 南沖으로 시작해 汰, 潢까지 하행한 후, 다시 汰와 沖으로 상행하고 林으로 마무리되는 형태이다.

다음 우조 소용이(3.아마도) 제5장 [연풍의 흥을겨워][78] 사설은 일각

77) 이하 [그리든]으로 표기한다.
78) 이하 [연풍의]로 표기한다.

제7박에 ‘든흘림표’, 제9박에 ‘드는표’가 기보되어 있다. <연음표>에 따른 선율형은 다음의 <예보 67>과 같다.

<예보 67> 우조 소용이(3.아마도) 제5장 [연풍의] <연음표>와 선율 유형

<연음표> 유형	선율 유형
연풍의 흥을겨워 백주황계로 희호동락 허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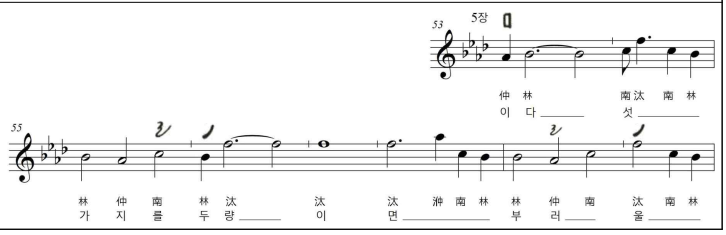
<예보 67>에서 일각의 ‘든흘림표’는 앞의 사설 ‘연풍의 흥을 겨워’의 선율이 마무리되는 제7박에 기보된다. ‘든흘림표’의 음형은 요성 없이 仲을 내준 후 南으로 상행하는 음형이다. 이는 다음 사설에 기보된 ‘드는표’의 시작음이 南으로 상행선율이므로 이를 연결하기 위함이다.

일각 제9박에 기보된 ‘드는표’는 이두의 사설이 시작되기 전인 제16박까지의 선율을 의미한다. 따라서 ‘드는표’는 제9박 南沖, 제10-11박 汰, 제12-13박 潢, 제14박 汰, 제15박 汰沖, 제16박 潢南으로 마무리되는 南(沖)-汰-潢-汰-(汰)沖-潢(南) 선율형이다. 사설을 기준으로 선율의 골격음은 南-汰-潢-汰-沖-潢으로, 南으로 시작해 汰로 상행한 후, 潢으로 갔다 汰, 沖으로 상행하고 다시 潢으로 마무리되는 형태이다.

우조 소용이(5.불아니) 제5장 [이 다섯가지를 두량이면][79] 사설은 일각 첫 박에 ‘막내는표’, 제8박에 ‘든흘림표’, 제9박에 ‘드는표’, 이두의 제2박에 ‘든흘림표’, 제4박에 ‘드는표’가 기보되어 있다. 각 <연음표>에 따른 선율형은 다음의 <예보 68>과 같다.

79) 이하 [이다섯가지]로 표기한다.

<예보 68> 우조 소용이(5.불아니) 제5장 [이다섯가지] <연음표>와 선율 유형

<연음표> 유형	선율 유형
이 다섯가지를 두량이면 부러울 것이 없어라	

<예보 68>에서 일각 첫 박에 기보된 ‘막내는표’는 ‘든흘림표’가 기보되기 전인 제7박까지의 선율을 의미한다. 따라서 ‘막내는표’는 첫 박 仲林, 제2-3박 林, 제4박 南汰, 제5박 南林, 제6박 林, 제7박 仲으로 마무리되는 仲林-林-(南)汰-南(林)-林-仲 선율형이다. 사설을 기준으로 선율의 골격음은 仲林-汰-南-林-仲으로, 仲으로 시작해 林으로 진행하여 汰까지 상행한 후, 南, 林, 仲으로 순차적으로 하행하는 형태이다.

일각의 ‘든흘림표’는 ‘이 다섯가지를’ 사설이 마무리되는 제8박에 기보된다. ‘든흘림표’의 음형은 南으로 전 사설의 종지음인 仲과 ‘드는표’가 기보된 다음 사설의 시작음 林汰로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사설의 자수가 많아지면서 제8박에 기보된 ‘든흘림표’의 역할은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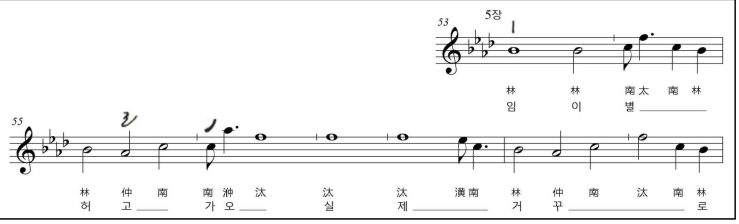
일각 제9박에 기보된 ‘드는표’는 이두 사설이 시작되기 전인 제16박까지의 선율을 의미한다. 따라서 ‘드는표’는 제9박 林汰, 제10-14박 汰, 제15박 汰泄, 제16박 南林으로 마무리되는 林汰-汰-汰(泄)-南(林) 선율형이다. 사설을 기준으로 선율의 골격음은 林汰-南으로 林으로 시작해 汰로 상행하여 지속한 후 南으로 하행하며 마무리되는 형태이다.

이두의 ‘든흘림표’는 ‘부러’와 ‘울’ 사이에 기보되어 있으며, 이를 『하규일보』에 대입할 경우 이두의 제2박에 기보된다. ‘든흘림표’의 음형은 요성 없이 仲을 내준 후 南으로 상행하는 음형이다. 이는 다음 사설에 기보된 ‘드는표’의 시작음이 汰로 상행선율이므로 이를 연결하기 위함이다.

이두의 제4박에 기보된 ‘드는표’는 제5장 마지막 각의 선율의 골격음이 네 곡 모두 동일하게 나오므로 이두의 제4-5박까지의 선율을 의미한다. 따라서 ‘드는표’는 이두 제4박 汰, 제5박 南林으로 마무리되는 汰-南林 선율형이다. 즉, 汰로 시작해 南과 林으로 하행하는 형태이다.

우조 소용이(7.저건너) 제5장 [임이별허고][80] 사설은 일각 첫 박에 ‘막내는표’, 제7박에 ‘든흘림표’, 제9박에 ‘드는표’가 기보되어 있다. <연음표>에 따른 선율형은 다음의 <예보 69>와 같다.

<예보 69> 우조 소용이(7.저건너) 제5장 [임이별] <연음표>와 선율 유형

<연음표> 유형	선율 유형
임이별허고 가오실제 거꾸로태여 보내리라	

<예보 69>에서 첫 각에 기보된 ‘막내는표’는 ‘든흘림표’가 기보되기 전까지인 제6박까지의 선율을 의미한다. 따라서 ‘막내는표’는 제1-3박 林, 제4박 南汰, 제5박 南林, 제6박 林으로 마무리되는 林-(南)汰-南(林)-林 선율형이다. 사설을 기준으로 선율의 골격음은 林-汰-南-林으로, 林으로 시작해 汰로 상행한 후, 다시 南을 거쳐 林으로 하행하는 형태이다.

일각에 기보된 ‘든흘림표’는 앞 사설 ‘임이별허고’의 선율이 끝나는 제7박에 기보된다. ‘든흘림표’의 음형은 요성 없이 仲을 내준 후 南으로 상행하는 음형이다. 이는 다음 사설에 기보된 ‘드는표’의 시작음이 (南)沖으로 상행선율이므로 이를 연결하기 위함이다.

일각 제9박에 기보된 ‘드는표’는 이두 사설이 시작되기 전인 제16박까지의 선율을 의미한다. 따라서 ‘드는표’는 제9박 南沖, 제10-15박 汰, 제

80) 이하 [임이별]로 표기한다.

16박 潢南으로 마무리되는 南沖-汰-(潢)南 선율형이다. 사설을 기준으로 선율의 골격음은 南沖-汰-南으로, 南沖으로 시작해 汰와 南으로 하행하는 형태이다.

이상 우조 소용이 제5장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5장은 일각의 첫 박, 제4박 및 제9박, 이두 제4박에 기보된 네 가지 경우로 나뉜다.

제5장 일각 첫 박은 '막내는표'가 기보된 경우만 보이며 선율의 골격음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 첫 번째는 仲林-汰-南-林-仲으로, 仲으로 시작해 林으로 진행하여 汰까지 상행한 후, 南, 林, 仲으로 순차적으로 하행하는 형태이고, 두 번째는 林-汰-南-林으로, 林으로 시작해 汰로 상행한 후, 다시 南을 거쳐 林으로 하행하는 형태이다. 제5장 일각 첫 박에 기보된 '막내는표' 선율의 골격음은 仲또는 林으로 시작해 汰로 상행한 후 南, 林으로 하행하는 점이 동일하지만 종지음이 仲 또는 林으로 달라지는 특징을 보인다.

제5장 일각 제4박은 '드는표'가 기보된 경우만 보이며 선율의 골격음은 汰-林으로 汰로 시작해 林으로 하행하는 형태이다.

제5장 일각 제9박은 '드는표'가 기보된 경우만 보이며 선율의 골격음은 네 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첫 번째는 南沖-汰-潢-汰-沖-林으로, 南沖으로 시작해 汰, 潢까지 하행한 후, 다시 汰와 沖으로 상행하고 林으로 마무리되는 형태이다. 두 번째는 南-汰-潢-汰-沖-潢으로, 南으로 시작해 汰로 상행한 후, 潢으로 갔다 汰, 沖으로 상행하고 다시 潢으로 마무리되는 형태이다. 세 번째는 林汰-南으로 林으로 시작해 汰로 상행하여 지속한 후 南으로 하행하며 마무리되는 형태이다. 네 번째는 南沖-汰-南으로, 沖으로 시작해 汰와 南으로 하행하는 형태이다. 네 가지 유형의 일각 제9박에 기보된 '드는표'는 선율의 가장 높은음이 汰또는 沖이고 이보다 낮은음으로 종지한다는 점 외에 모두 다른 선율형을 보인다.

제5장의 이두는 제4박에 '드는표'가 기보된 한 가지 경우만 보이며, 선율의 골격음은 汰-南林으로 汰로 시작해 南과 林으로 하행하는 형태이

다.

제5장의 '든흘림표'는 仲에서 南으로 상행하는 음형, 또는 南을 내주는 음형 두 가지로 나뉜다. 두 음형 모두 상행선율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지만 후자의 경우 사설의 자수가 많아져 '든흘림표'의 역할이 축소된 것으로 풀이된다.

ㅂ) 소결

『가곡원류』 우조 소용이에 기보된 <연음표>와 그에 따른 선율형을 음높이를 나타내는 것과 연결형 <연음표>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조 소용이 초장의 초두는 '드는표'가 기보된 유형과 '누르는표'가 기보된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초두의 '드는표'는 세 사설 모두 선율의 골격음이 다르게 나타났다. 제1번(어젯밤도) 사설은 潢-南-潢-南-太, 제5번(불아니) 사설은 南潢-南-仲-太, 제7번(저건너) 사설은 潢沖潢-南-林-仲으로 南또는 潢으로 시작해 潢까지 상행한 후 太로 하행하는 유형과 潢으로 시작해 沖으로 상행하여 仲으로 하행하는 두 가지 유형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선율 진행은 세 곡 모두 다르게 나타났다.

'누르는표'는 제3번(아마도) 사설의 초두에 기보되어 있으며, 선율의 골격음은 南汰-南-林-仲으로 南에서 시작해 汰로 상행한 후 다시 南, 林, 仲으로 순차적으로 하행하는 형태이다. '누르는표'의 음높이는 '드는표'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초장 이두에 기보된 <연음표>는 '드는표' 한 가지이며, 선율 골격음은 제1번(어젯밤도) 사설 南潢-南-仲, 제3번(아마도) 사설 南-汰-沖-潢-南-仲, 제5번(불아니) 사설 仲-南-汰-沖-潢-南-林으로 세 곡 모두 다르게 나타났다. 이렇듯 초두와 이두에 기보된 '드는표'의 선율이 곡마다 다른 것은 사설의 자수가 모두 다르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제2장의 초두는 첫 박에 ‘막내는표’, 제8박에 ‘드는표’가 기보된 두 가지 경우로 나뉜다. 초두 첫 박 ‘막내는표’의 골격음은 仲 또는 南으로 시작해 潢까지 상행한 후 다시 南으로 하행하는 형태이다. 소용이(1.어젯밤도) 제2장 [지난밤도] 사설의 ‘막내는표’는 南-潢-南-汰로, 소용이(5.불아니) 제2장 [여무죽] 사설의 ‘막내는표’는 仲南-潢-南으로 각각 마무리된다.

초두 제8박에 기보된 ‘드는표’ 선율의 골격음은 潢南-仲으로 潢으로 시작해 南과 仲으로 하행하는 형태이다.

제2장의 이두는 첫 박과 이두 제4박에 각각 ‘드는표’가 기보된 형태로 나뉜다. 이두 첫 박에 기보된 ‘드는표’는 仲-南-仲-南-仲으로, 仲으로 시작해 南으로 상행했다 仲으로 하행을 반복한 후 仲으로 마무리되는 형태이다. 이두 제4박에 기보된 ‘드는표’는 仲-南-林으로, 仲으로 시작해 南으로 상행한 후 林으로 하행하며 마무리되는 형태이다.

제3장 일각은 첫 박에 ‘막내는표’, 제6박 및 제9박에 ‘드는표’가 기보된 세 가지 경우로 나뉜다. 일각 첫 박에 기보된 ‘막내는표’는 소용이(3.아마도) [성주유덕] 사설에 나타났으며 仲-潢-南-仲-太로 仲으로 시작한 후 潢으로 상행하고 南, 仲, 太까지 하행하는 형태이다.

일각 제6박에 기보된 ‘드는표’는 소용이(1.어젯밤도) [팔자가] 사설에 나타났으며 太로 시작해 仲을 거쳐 南까지 상행하는 太-仲-南 선율형이었다.

일각 제9박에 기보된 ‘드는표’는 총 세 가지 선율형으로 나타났는데 첫 번째는 潢-南-太-仲으로, 潢으로 시작해 南과 太로 하행한 후 仲으로 마무리되는 형태이다. 두 번째는 潢-南-仲-太-仲으로, 潢으로 시작해 南, 仲, 太까지 하행한 후 仲으로 마무리되는 형태이다. 마지막은 南潢-南-太-仲으로, 南으로 시작해 潢으로 상행한 후, 南과 太로 하행하고 仲으로 마무리되는 형태이다. 세 선율은 흐름이 조금씩 다르지만, 潢으로 시작하거나 南으로 시작해 潢으로 상행한 후, 太까지 하행하고 仲으로 마

무리되는 형태임을 알 수 있다.

제3장 이두는 첫 박 및 제4박에 ‘막내는표’, 제11박에 ‘드는표’가 기보된 경우로 나뉜다. 이두 첫 박에 기보된 ‘막내는표’는 太로 시작해 仲으로 상행하여 마무리되는 太-仲 선율형이고, 제4박에 기보된 ‘막내는표’는 太로 시작해 太로 마무리되는 형태이다.

이두 제11박에 기보된 ‘드는표’의 선율 골격음은 汰이다.

우조 소용이에서 드러나는 가장 큰 특징은 제3장은 마지막 각에도 <연음표>가 표기된 점이다. 가곡에서 각 장의 마지막 각은 종지 선율로 선율형이 같고 <연음표>가 생략되므로 분석도 대부분 제외하였다. 그러나 우조 소용이는 중여음에서도 노래를 쉬지 않고 이어 부르는 고유의 특성에 의해 마지막 각도 <연음표>가 기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우조 소용이의 제3장은 이수대엽 계열, 초수대엽과 삼수대엽, 우락, 언락과 다르게 제3장의 셋째 각, 즉 마지막 각에도 <연음표>가 표기되어 있다. <예보 61>, <예보 62>에 있는 (3.아마도) [성주유덕]과 (5.불아니) [길삼] 사설에서 이러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우조 소용이 제3장의 <연음표>가 다른 곡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중여음에서도 노래를 부르기 때문이다.

중여음은 제3장 사설의 끝음절에 따라 ‘아’ 또는 ‘오’로 노래를 하며, <연음표>는 생략되어 있고 네 곡의 선율이 모두 같다. 이렇듯 사설은 없지만 중여음에서도 노래를 쉬지 않는 우조 소용이의 특성상, 제3장은 다른 계열의 곡들과 다른 <연음표> 유형으로 기보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제4장 첫 각에 기보된 <연음표>는 앞서 분석한 이수대엽 계열과 초수대엽·삼수대엽 계열에 따르면 제1박에서 제3박까지의 선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우조 소용이 제4장에 기보된 ‘드는표’도 제1박에서 제3박까지의 선율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제4장의 첫 각 첫 박의 ‘드는표’는 제1박 潢, 제2박 汰, 제3박 南으로 마무리하는 潢-(汰)-南 선율형이다. 즉, 潢으로 시작해 汰를 거쳐 南으로 하행하는 형태이다.

제5장은 일각의 첫 박, 제4박 및 제9박, 이두 제4박에 기보된 네 가지 경우로 나뉜다.

제5장 일각 첫 박은 '막내는표'가 기보된 경우만 보이며 선율의 골격음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 첫 번째는 仲林-汰-南-林-仲으로, 仲으로 시작해 林으로 진행하여 汰까지 상행한 후, 南, 林, 仲으로 순차적으로 하행하는 형태이고, 두 번째는 林-汰-南-林으로, 林으로 시작해 汰로 상행한 후, 다시 南을 거쳐 林으로 하행하는 형태이다. 제5장 일각 첫 박에 기보된 '막내는표' 선율의 골격음은 仲또는 林으로 시작해 汰로 상행한 후 南, 林으로 하행하는 점이 동일하지만 종지음이 仲 또는 林으로 달라지는 특징을 보인다.

제5장 일각 제4박은 '드는표'가 기보된 경우만 보이며 선율의 골격음은 汰-林으로 汰로 시작해 林으로 하행하는 형태이다.

제5장 일각 제9박은 '드는표'가 기보된 경우만 보이며 선율의 골격음은 네 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첫 번째는 南沖-汰-潢-汰-沖-林으로, 南沖으로 시작해 汰, 潢까지 하행한 후, 다시 汰와 沖으로 상행하고 林으로 마무리되는 형태이다. 두 번째는 南-汰-潢-汰-沖-潢으로, 南으로 시작해 汰로 상행한 후, 潢으로 갔다 汰, 沖으로 상행하고 다시 潢으로 마무리되는 형태이다. 세 번째는 林汰-南으로 林으로 시작해 汰로 상행하여 지속한 후 南으로 하행하며 마무리되는 형태이다. 네 번째는 南沖-汰-南으로, 沖으로 시작해 汰와 南으로 하행하는 형태이다. 네 가지 유형의 일각 제9박에 기보된 '드는표'는 선율의 가장 높은음이 汰또는 沖이고 이보다 낮은음으로 종지한다는 점 외에 모두 다른 선율형을 보인다.

제5장의 이두는 제4박에 '드는표'가 기보된 한 가지 경우만 보이며, 선율의 골격음은 汰-南林으로 汰로 시작해 南과 林으로 하행하는 형태이다. 위의 내용은 다음의 <표 21>과 같다.

<표 21> 남창 우조 소용이 위치별 <연음표> 선율형 정리

장		<연음표>	선율의 골격음	해당 사설	곡
초장	초두	드는표	【潢】-南-潢-南-太	어젯밤도	1.어젯밤도
			【潢】沖潢-南-林-仲	저건너	7.저건너
			【南】-潢-南-仲-太	불아니	5.불아니
		누르는표	【南】汰-南-林-仲	아마도	3.아마도
	이두	드는표	【南】-潢-南-仲	곱송그려	1.어젯밤도
			【南】-汰-沖-潢-南-仲	태평할손	3.아마도
			【仲】-南-汰-沖-潢-南-林	절로익는	5.불아니
이장	초두	막내는표	【南】-潢-南-汰	지난밤도	1.어젯밤도
			【仲】南-潢-南	여무죽	5.불아니
	초두 제8박	드는표	【潢】南-南-仲	혼자	1.어젯밤도
	이두	드는표	【仲】-南-仲-南-仲	이시절	3.아마도
	이두 제4박	드는표	【仲】-南-林	살져	5.불아니
삼장	일각 첫 박	막내는표	【仲】-潢-南-仲-太	성주유덕	3.아마도
	일각 제6박	드는표	【太】-仲-南	팔자가	1.어젯밤도
	일각 제9박	드는표	【潢】-南-太-仲	주야장상에	1.어젯밤도
			【潢】-南-仲-太-仲	국유풍운경	3.아마도
			【南】潢-南-太-仲	뿔을박아서	7.저건너
	이두	막내는표	【太】-仲	술샘는	5.불아니
	이두 제4박	막내는표	【太】	주전자	5.불아니
	이두 제11박	드는표	【汰】	부로	5.불아니
사장		드는표	【潢】-南	오늘은	1.어젯밤도
				억조창생들이	3.아마도
				평생에	5.불아니
				두었다가	7.저건너
오장	일각 첫 박	막내는표	【仲】林-汰-南-林-仲	이다섯	5.불아니
			【林】-汰-南-林	임이별	7.저건너
	일각 제4박	드는표	【汰】-林	님만나	1.어젯밤도
	일각 제9박	드는표	【南】沖-汰-潢-汰-沖-林	발을 펴바리고	1.어젯밤도
			【南】-汰-潢-汰-沖-潢	백주황계로	3.아마도
			【南】沖-汰-南	가오실제	7.저건너
			【林】-汰-南	두량이면	5.불아니
	이두 제4박	드는표	【汰】-南林	울	5.불아니

<범례>【】:선율의 시작음, -: 박의 구분

연결형 <연음표>를 '든흘림표'부터 살펴보면, 초장 '든흘림표'의 음형

은 요성 없이 仲을 내준 후 南으로 상행하는 형태이다. 제2장 '든흘림표'의 음형은 仲 또는 南으로 두 가지 단순한 음형으로 나타난다. 이는 '드는표'의 시작음이 仲으로 전 사설의 종지음보다 오히려 낮아지면서 '든흘림표'의 음형이 단순해진 것으로 보인다. 제3장은 일각에 기보될 경우 仲에서 南으로 상행 음형으로 나타나고, 이두에 기보될 경우 林으로 나타나는 점이 다르다. 제5장은 仲에서 南으로 상행하는 음형, 또는 南을 내주는 음형 두 가지로 나뉜다. 두 음형 모두 상행선율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지만 후자의 경우 사설의 자수가 많아져 '든흘림표'의 역할이 축소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22>와 같다.

<표 22> 우조 소용이 '든흘림표'의 음형과 사설 구절

음형	사설	구분	곡명
仲-南	어젯밤도 혼자ᄅᆞ 곱송그려	초장	1.어젯밤도
	허사ᄅᆞ 국유풍운경이요	제3장	3.아마도
	치고ᄅᆞ 뿔을 박아서		7.저건너
	만나ᄅᆞ 발을 펴바리고	제5장	1.어젯밤도
	겨워ᄅᆞ 백주황계로		3.아마도
	허고ᄅᆞ 가오실제		7.저건너
	부러ᄅᆞ 울		5.불아니
仲	우리군친ᄅᆞ 이시절	제2장	3.아마도
林	양ᄅᆞ 부로	제3장	5.불아니
南	크고ᄅᆞ 살져	제2장	5.불아니
	가지를ᄅᆞ 두량이면	제5장	5.불아니

'연음표'는 제3장에서 나타나며 仲에서 南으로 상행하는 음형으로 '든흘림표'와 동일하게 나타나지만 연결하는 다음 사설에 '드는표'가 기보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드는표'가 기보되어 있지 않은 낮은음으로 연결하는 경우 '연음표'를 기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연음표'의 음형은 다음의 <표 23>과 같다.

<표 23> 우조 소용이 '연음표'의 음형과 사설 구절

음형	사설	구분	곡명
仲南	유복허사ᄀᆞ 가무계	제3장	3.아마도

우조 소용이의 '드는표'는 각 장의 초두 또는 일각과 이두에 고루 기보되어 다양한 유형을 볼 수 있지만, '누르는표'는 초장 이두 외에 기보된 사설이 없어 한 가지 선율형만 보이며, 다른 계열의 곡에 비해 시작음이 높게 나타났다. '드는표'의 경우 삼수대엽보다 높은 시작음이 제5장 일각에서 드러나고 이에 따른 '막내는표'의 시작음도 높아지면서 우조 소용이가 높은 악곡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수대엽 계열과 초수·삼수대엽에 기보되지 않았던 박에 연음기보법이 기보되어 특수한 양상을 보였다. 이는 소용이 이후 가곡에 나타나는 시조의 형식이 평시조에서 사설시조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선율 및 연음기보법의 활용 역시 변화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든흘림표'의 경우 제4장을 제외하고 모두 기보되어 있어 음형을 파악할 수 있는 반면, '연음표'는 제3장에만 나타나 한 가지 음형만 확인할 수 있었다. 두 연음기보법은 仲에서 상행하는 음형, 또는 仲보다 높은음으로 연결하는 음형으로 초수·삼수대엽의 음형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특징은 우조 소용이가 높은 악곡이란 점을 뒷받침해주었다. 또한 이수대엽 계열과 초수·삼수대엽의 연결형 연음기보법은 요성하는 음형이 나타난 반면에 소용이는 이러한 음형이 드러나지 않았다.

4) 우락과 언락

우조의 락 계열에는 우락과 언락이 있으며, 제3장과 제5장의 사설이 길어짐에 따라 일각의 선율이 반복 확대되는 특징을 보인다. 각 장의 기보된 <연음표>의 선율형을 곡별로 파악한 후, 각 부호가 지닌 특성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ㄱ) 우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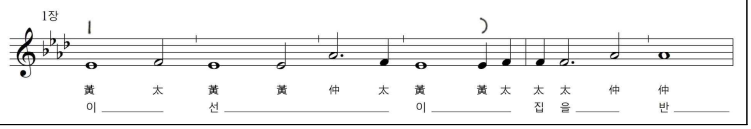
『가곡원류』에 실린 우락의 사설은 총 열아홉 가지이다. 이 중 『하규일보』에 실린 노래는 『가곡원류』에 있는 순으로 아홉 번째(임으란 회양금성), 열세 번째(이선이 집을 반하여), 그리고 열일곱 번째(조다가 낚시대를 잃고) 사설로 세 곡이 전해진다. 그러나 『하규일보』에 실려있는 (조다가) 사설은 율명이 지워져 있어 선율을 파악하기 불가능하므로 (임으란)과 (이선이) 두 곡만을 대상으로 하겠다.

① 초장

초장의 <연음표>는 두 사설이 각각 다른 유형으로 나타난다. 우락 제9번(임으란)은 '연음표' 한 개, 우락 제13번(이선이)는 '막내는표'와 '연음표' 두 개가 기보되어 있다.

이중 <연음표>의 개수가 많은 사설은 우락 제13번(이선이)로 초두첫박에 '막내는표', 제11박에 '연음표'가 기보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선율형은 다음의 <예보 70>과 같다.

<예보 70> 우락 제13번(이선이) 초장 <연음표>와 선율 유형

<연음표> 유형	선율 유형
이선이 집을 반허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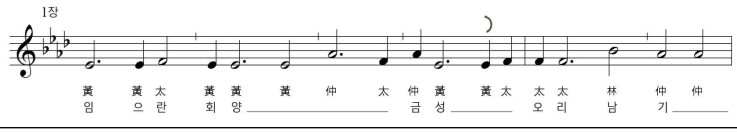
<예보 70>에서 초두에 기보된 '막내는표'는 黃으로 시작해 제3박에 太로 진행 후 제4박에서 黃으로 내려오고, 제7박에 仲으로 상행한 후 제8박에 太를 거쳐 제9박에 黃으로 하행하며 마무리되는 黃-太-黃-仲-(太)-黃 선율형이다. 사설을 기준으로 선율의 골격음은 黃-太-黃-仲-黃으로 黃으로 시작해 太와 黃으로 진행 후 仲으로 상행하다 黃으로 하행

해 마무리되는 형태이다.

초장의 ‘연음표’는 앞서 ‘이선이’의 선율이 제10박에서 마무리되므로 제11박에 기보된다. ‘연음표’의 음형은 黃太로 요성 없이 黃에서 太로 상행하는 형태이다. 이는 이두의 첫 시작음 太로 연결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우락 제9번(임으란)의 초장은 제11박에 ‘연음표’가 기보되어 있다. 연음표에 따른 선율형은 다음의 <예보 71>과 같다.

<예보 71> 우락 제9번(임으란) 초장 <연음표>와 선율 유형

<연음표> 유형	선율 유형
임으란회양금성 오리남기되고	

<예보 71>에서 초장의 ‘연음표’는 앞서 ‘임으란회양금성’ 사설의 선율이 제10박에서 마무리되므로 제11박에 기보된다. ‘연음표’의 음형은 黃太로 요성 없이 黃에서 太로 상행하는 형태이다. 이는 이두의 첫 시작음 太로 연결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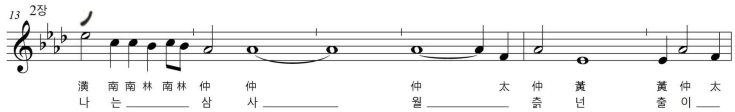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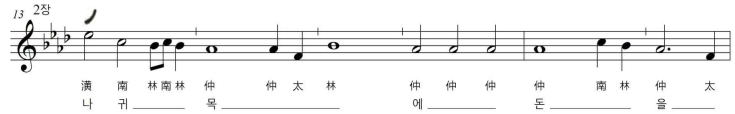
우락의 초장을 정리하면, 초장 초두에 기보된 ‘막내는표’는 黃으로 시작해 太와 黃으로 진행해 仲으로 상행 후 다시 太를 거쳐 黃으로 내려오는 선율형이다. 제9번(임으란)의 초장 초두는 <연음표>가 생략되어 있으나, 선율의 골격음이 제13번(이선이) 초장 초두와 같으므로 ‘막내는표’에 해당하는 선율형이다. 다만 제9박에서 仲黃으로 다른 음형을 보이는데 이는 자수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연음표’는 두 사설 모두 제11박에 나타나며, 黃太의 음형으로 요성 없이 黃에서 太로 상행하는 형태이다. 이는 두 곡 모두 이두의 첫 시작음 太로 연결하기 위함이다.

② 제2장

우락 제2장은 우락(9.임으란) [나는 삼사월 츩넌출이 되어], (13.이선이) [나귀목에 돈을 걸고][81] 두 사설 모두 초두 첫 박에 ‘드는표’가 기보된 한 가지의 <연음표> 유형이다. 이 유형의 선율형을 정리하면 다음의 <예보 72>와 같다.

<예보 72> 우락 (9.임으란)[나는 삼사월]·(13.이선이)[나귀목에] 제2장의 <연음표>와 선율 유형

<연음표> 유형	선율 유형
나는삼사월 츩넌출이되어	
나귀목에 돈을걸고	

<예보 72>에서 [나는 삼사월] 사설 초두에 기보 된 ‘드는표’는 첫 박 潢으로 시작해 제2박 南, 제3박 林南林, 제4박 仲을 제10박까지 지속한 후 제11박에서 太로 하행하며 마무리되는 潢-南-林(南林)-仲-(太) 선율형이다. 사설을 기준으로 선율의 골격음은 潢-南-林-仲으로 潢으로 시작해 仲까지 순차적으로 하행하는 형태이다.

[나귀목에] 사설 초두에 기보된 ‘드는표’는 첫 박 潢으로 시작해 제2박 南, 제3박 林南林, 제4박 仲을 두 박 지속한 후 제6박 仲太, 제7박 林, 제9박 仲으로 마무리되는 潢-南-(林南)林-仲-仲(太)-林-仲 선율형이다. 사설을 기준으로 선율의 골격음은 潢-南-林-仲-林-仲으로 潢에서 仲까지 순차적으로 하행한 후, 다시 林과 仲으로 종지하는 형태이다.

81) 이하 각각 [나는 삼사월]과 [나귀목에]로 표기한다.

두 곡의 ‘드는표’ 선율의 골격음은 潢으로 시작해 仲으로 하행하는 형태이지만 [나귀목에] 사설의 경우 제7박에서 한 번 더 林으로 진행한 후 仲으로 마무리되는 특징을 보인다. 이는 [나는 삼사월]과 [나귀목에] 사설의 자수가 각각 다섯 자와 네 자로 자수의 다름으로 인한 선율 진행의 차이로 해석된다.

③ 제3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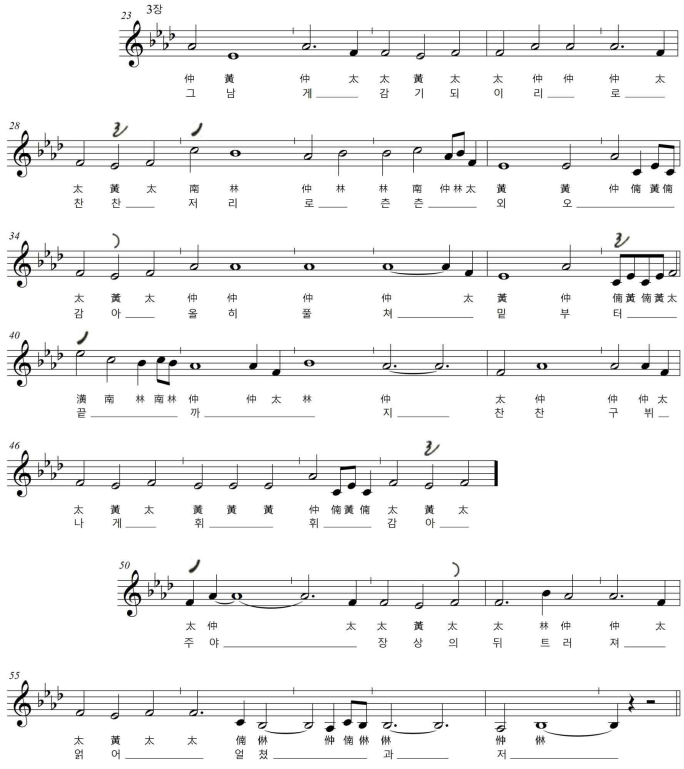
우락의 제3장은 길어진 사설에 따라 일각의 선율이 확대된다. 사설이 확대된 경우, 노래마다 사설의 자수가 달라짐에 따라 일각의 확대 형태도 달라져 전체적인 유형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곡별로 전체 사설의 선율을 확인한 후, 확대 선율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우락(9.임으란) 제3장 [그남게 감기되 이리로 찬찬][82]

『하규일보』에 실린 우락(9.임으란) 제3장 [그남게 감기되] 사설은 일각이 총 여섯 각으로 확대[83]되었으며, 이는 다음의 <예보 73>과 같다.

82) 이하 [그남게 감기되]로 표기한다.
83) 확대된 일각의 사설을 번호를 매겨 각각 표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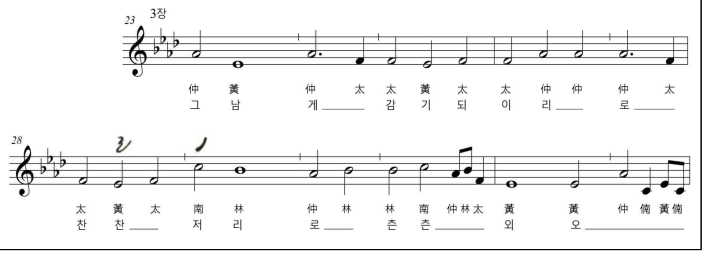
<예보 73> 우락(9.임으란) 제3장 [그남게 감기되] 선율

<연음표> 유형	선율 유형
①그남게감기되 ②이리로찬찬 저리로츤츤 ③외오감아 올히풀쳐 ④밑부터 끝까지 ⑤찬찬구뷔나게 휘휘감아 ⑥주야장상에 이두: 뒤트러져 얽어 얼쳤과져	

위의 <예보 73>에 따르면 <연음표>는 일각②－⑥까지 기보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각 번호에 따라 기보된 <연음표>의 선율형을 살펴보겠다.

첫 번째는 일각②의 <연음표>로 제7박에 ‘든흘림표’, 제9박에 ‘드는표’가 기보되어 있다. 이는 다음의 <예보 74>와 같다.

<예보 74> 우락(9.임으란) 제3장 일각② 선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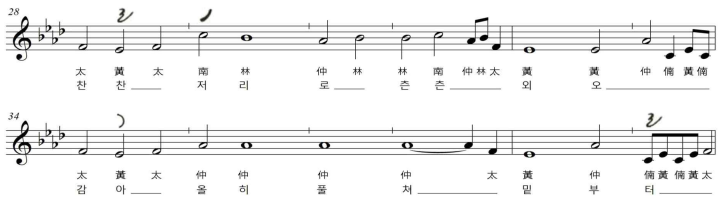
<연음표> 유형	선율 유형
①그남게감기되 **②이리로찬찬** **저리로츤츤** ③외오	

<예보 74>에서 '이리로 찬찬'과 '저리로 츤츤' 사이에 기보된 '든흘림표'는 본래 앞의 음을 요성한 후 뒤의 음을 들어준다는 뜻을 가진 특성상 앞의 사설이 마무리되는 제7박에 기보된다. '든흘림표'의 음형은 黃-太로 黃에서 太로 상행하는 형태이다. 이는 '드는표'가 기보된 사설의 시작음 南으로 연결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저리로 찬찬' 사설에 기보된 '드는표'는 일각②의 제9박에서 南으로 시작해 제10-11박 林, 제12박 仲, 제13-14박 林, 제15박 南, 제16박 仲林太로 마무리되는 南-林-仲-林-南-仲(林太) 선율형이다. 따라서 南으로 시작해 仲으로 순차적으로 하행하다 다시 南까지 상행한 후 仲으로 내려와 太로 마무리되는 형태이다.

두 번째는 일각③의 <연음표>로 제7박에 '연음표'가 기보되어 있으며, 이는 다음의 <예보 75>와 같다.

<예보 75> 우락(9.임으란) 제3장 일각③ 선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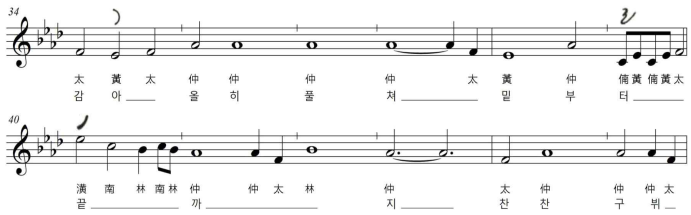
<연음표> 유형	선율 유형
③외오감아 **올히풀쳐** ④밑부터	

<예보 75>에서 ‘외오감아’와 ‘올히풀쳐’ 사이에 기보된 ‘연음표’는 앞 사설 ‘감아의 선율이 마무리되는 제7박에 기보된다. ‘연음표’의 음형은 黃에서 太로 상행하는 黃-太 형태이다. 이는 제9박의 시작음이 仲이므로 상행선율로 연결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연음표’의 음형은 ‘든흘림표’의 음형과 같다.

‘연음표’ 뒤의 제9박은 <연음표>가 생략되어 있으나, 앞서 제9박에 ‘드는표’가 기보된 경우 太 또는 南으로 선율형이 시작했던 것을 보아 ‘드는표’에 해당하지 않는 음으로 연결하면 ‘연음표’를 기보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 번째는 일각④의 <연음표>로 제4박에 ‘든흘림표’, 제6박에 ‘드는표’가 기보되어 있다. 이는 다음의 <예보 76>과 같다.

<예보 76> 우락(9.임으란) 제3장 일각④ 선율형

<연음표> 유형	선율 유형
④밑부터 끝까지 ⑤찬찬구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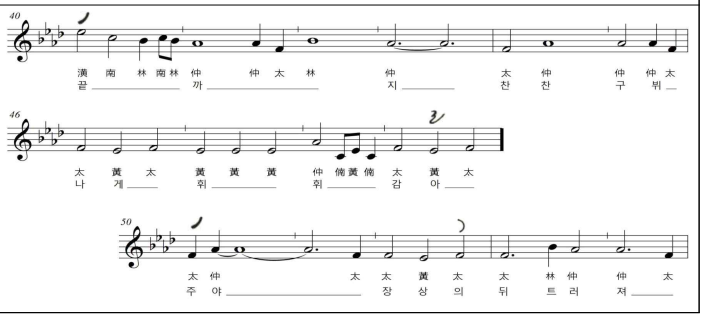
<예보 76>에서 ‘밑부터’와 ‘끝까지’ 사이에 기보된 ‘든흘림표’는 앞의 사설이 마무리되는 제4박에 기보된다. ‘든흘림표’의 음형은 倩黃倩黃으로 倩에서 요성한 후 太로 상행하는 倩黃倩黃-太 형태이다. 이는 ‘끝까지’에 기보된 ‘드는표’의 시작음 潢으로 연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④의 제6박에 기보된 ‘드는표’는 潢으로 시작해 제7박 南, 제8박 林南林, 제9-10박 仲, 제11박 仲太, 제12-13박 林, 제14-16박 仲으로 마무리되는 潢-南-林(南林)-仲-仲(太)-林-仲 선율형이다. 사설을 기준으로

선율의 골격음은 潢-南-林-仲-林-仲으로 潢으로 시작해 南과 林을 거쳐 仲까지 하행한 후, 林으로 올라왔다 仲으로 마무리되는 형태이다.

네 번째는 일각⑤-⑥의 <연음표>로 일각⑤의 제15박에 '든흘림표', 일각⑥ 첫 박에 '드는표', 제9박에 '연음표'가 기보되어 있다. 이는 다음의 <예보 77>과 같다.

<예보 77> 우락(9.임으란) 제3장 일각⑤－⑥ 선율형

<연음표> 유형	선율 유형
⑤찬찬구뷔나게 휘휘감아 ⑥주야장상에 이두: 뒤트러져	

<예보 77>에서 <휘휘감아> 사설에 기보된 '든흘림표'는 앞의 사설이 마무리되는 제15박에 기보된다. '든흘림표'의 음형은 黃-太로 요성 없이 黃을 내준 후 太로 상행하는 형태이다. 이는 다음 사설에 기보된 '드는표'의 시작음 太仲으로 연결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주야장상에' 사설은 반각(半刻)[84]으로 일각⑥의 제9박에 해당하는 장단부터 첫 박이 시작된다. 따라서 '드는표'는 첫 박에서 太仲으로 시작해 제4박까지 지속한 후 제5박에서 太로 하행하여 제6박 太, 제7박 黃, 제8박 太로 마무리되는 太仲-(太)-太-黃-太 선율형이다. 사설을 기준으로 선율의 골격음은 太仲-太-黃-太로 太로 시작해 仲으로 상행한 후 다시 太와 黃으로 하행하여 太로 마무리되는 형태이다.

84) 반각(半刻): 국악에서, 일정한 박자 수로 되풀이되는 온 장단에 상대하여 그 절반의 장단을 이르는 말. 예를 들면, 가곡에서 한 장단 16박자에 대하여 8박자를 이른다.

‘주야장상에’와 ‘뒤트러져’ 사이에 기보된 ‘연음표’는 앞 사설의 선율이 마무리되는 제8박에 기보된다. ‘연음표’의 음형은 太로 나타나며, 이두의 시작음 太로 연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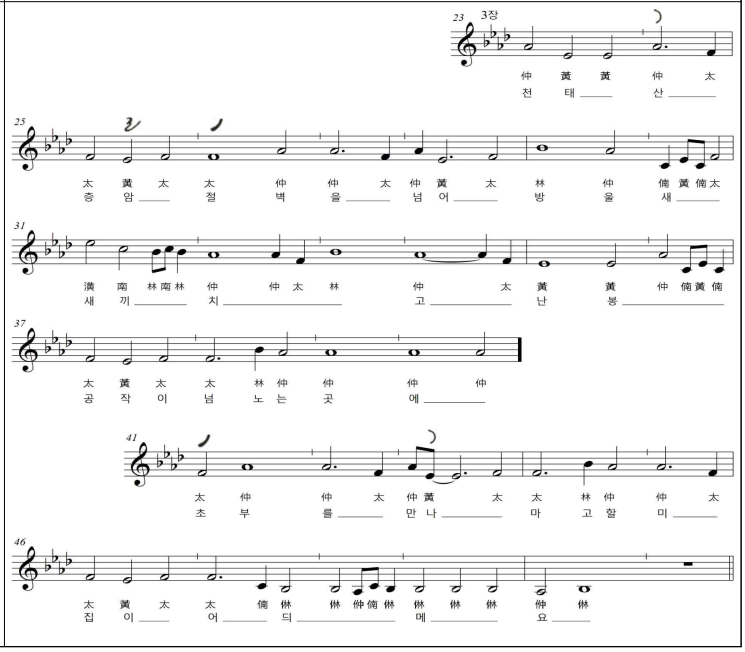
사설 중 ‘장상에’부터 ‘뒤트러져’의 첫음절 ‘뒤’까지는 글자가 한 박씩 촘촘하게 배열되어 있다. 이러한 연유로 일각과 이두 사이에 기보된 ‘연음표’의 역할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는 락 계열로 오면서 사설 자수의 영향으로 일각이 확대되거나 반각이 나타나고 장단의 속도도 빨라지면서 ‘연음표’의 역할도 축소된 것으로 추측된다.

(2) 우락(13.이선이) 제3장 [천태산 층암 절벽을 넘어][85]

『하규일보』에 실린 우락(13.이선이) 제3장 [천태산] 사설은 일각이 총 네 각으로 확대되었으며, 이는 다음의 <예보 78>과 같다.

85) 이하 [천태산]으로 표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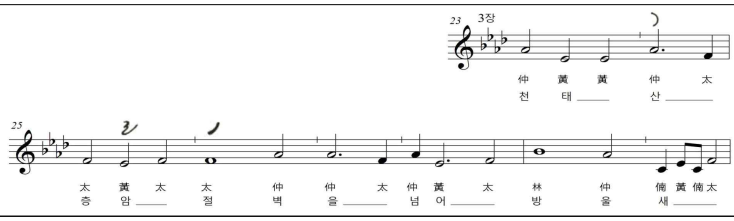
<예보 78> 우락(13.이선이) 제3장 [천태산] 선율

<연음표> 유형	선율 유형
①천태산 층암절벽을 넘어 ②방울새 새끼 치고 ③난봉공작이 넘노는 곳에 ④초부를만나 이두: 마고할미 집이 어듸메뇨	

위의 <예보 78>에 따르면 우락(13.이선이) 제3장 [천태산] 사설은 일각①과 일각④에 각각 <연음표>가 기보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각 번호에 따라 기보된 <연음표>의 선율형을 살펴보겠다.

첫 번째로 일각①의 <연음표>는 제4박 '연음표', 제7박 '든흘림표', 제9박에 '드는표'가 기보 되어있다. 이는 다음의 <예보 79>와 같다.

<예보 79> 우락(13.이선이) 제3장 일각① 선율형

<연음표> 유형	선율 유형
①천태산 층암절벽을 넘어 ②방울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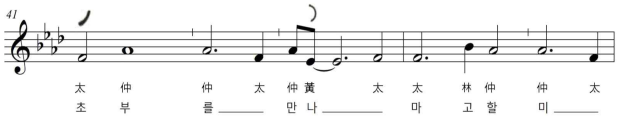
<예보 79>에서 ‘천태산’과 ‘층암’ 사이의 ‘연음표’는 앞 사설의 선율이 마무리되는 일각①의 제4박에 기보된다. ‘연음표’의 음형은 仲으로 시작해 太로 하행하는 형태이다. 이는 제6박의 시작음 太로 연결하기 위함이며, ‘천태산’의 선율이 仲으로 마무리되므로 하행선율로 연결하는 것으로 보인다.

‘층암’과 ‘절벽을 넘어’ 사이의 ‘든흘림표’는 ‘층암’이 마무리되는 일각①의 제7박에 기보된다. ‘든흘림표’의 음형은 요성 없이 黃을 내준 후 太로 상행하는 형태이다. 이는 다음 사설 ‘절벽을’에 기보된 ‘드는표’의 시작음 太로 연결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절벽을’에 기보된 ‘드는표’는 일각①의 제9-10박에 太로 시작해 제11-12박 仲을 내준 후 제13박에서 太로 하행해 제14-15박 仲黃, 제16박 太로 마무리되는 太-仲-(太)-仲黃-太 선율형이다. 사설을 기준으로 선율의 골격음은 太-仲-仲黃-太로 太로 시작해 仲으로 상행한 후 黃으로 하행하여 太로 종지하는 형태이다.

두 번째로 일각④의 <연음표>는 첫 박에 ‘드는표’, 제7박에 ‘연음표’가 기보 되어 있다. 이는 다음의 <예보 80>과 같다.

<예보 80> 우락(13.이선이) 제3장 일각④ 선율형

<연음표> 유형	선율 유형
④초부를만나 이두: 마고할미	

<예보 80>에서 일각④는 제9박에 해당하는 장단부터 첫 박이 시작되는 반각이다. ‘드는표’는 첫 박에 太로 시작해 제2-4박 仲, 제5박에서 짧은 박의 太로 하행한 후 제6박 仲黃으로 마무리되는 太-仲-(太)-仲黃 선율형이다. 사설을 기준으로 선율의 골격음은 太-仲-仲-黃으로 太로 시작해 仲으로 상행한 후 黃으로 마무리되는 형태이다.

‘초부를 만나’와 ‘마고할미’ 사이의 ‘연음표’는 앞 사설 ‘초부를 만나’가 마무리되는 제6박 사설 ‘나’ 위에 기보된다. ‘연음표’의 음형은 黃에서 太로 상행하는 黃-太 형태이다. 이는 이두의 사설 ‘마고할미’의 시작음 太로 연결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이상 우락 제3장의 <연음표>를 음높이를 나타내는 것과 연결 역할의 <연음표>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3장은 『하규일보』에 실린 우락 두 곡 모두 일각이 확대되어 <연음표>가 기보된 위치 또한 다양하게 나타난다. 두 곡의 제3장에서 선율형을 파악할 수 있는 <연음표>는 ‘드는표’이다. 첫 번째로 우락(9.임으란) 제3장은 일각이 여섯 각으로 확대되었으며, ‘드는표’는 일각②의 제9박, 일각④의 제6박과 반각인 일각⑥의 첫 박에 각각 기보되어 있다. ‘드는표’의 선율형을 살펴보면 일각②의 시작음은 南, 종지음은 仲, 일각④의 시작음은 潢, 종지음은 仲, 반각인 일각⑥은 시작음과 종지음이 모두 太로 세 곳이 모두 다른 골격음이다.

두 번째로 우락(13.이선이) 제3장은 일각이 총 네 각으로 확대되었으며, ‘드는표’는 일각①의 제9박과 반각인 일각④의 첫 박에 각각 기보되어 있다. ‘드는표’의 선율형을 살펴보면 일각①의 시작음과 종지음은 太, 반각인 일각④의 시작음은 太, 종지음은 黃으로 종지음을 제외한 두 곳의 선율 골격음이 유사하다. 우락(9.임으란)·(13.이선이) 제3장 일각 중 반각에 기보된 ‘드는표’는 두 곡의 선율형이 유사하므로 우락의 반각에 해당 <연음표>가 기보될 경우 이러한 선율형이 나옴을 유추할 수 있다.

우락 제3장의 연결형 <연음표> 중 ‘든흘림표’의 음형은 요성 없이 黃을 내준 후 太로 상행하는 黃-太와 倩黃倩黃으로 倩에서 요성한 후 太로 상행하는 倩黃倩黃-太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두 가지 유형 모두 太로 상행하는 공통점을 보이지만, 기보된 박에 따라 요성의 유무 차이를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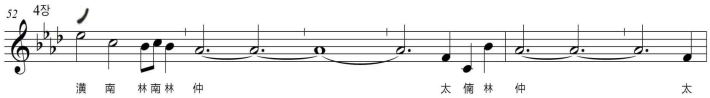
‘연음표’는 黃-太로 상행하는 유형, 太를 내주는 유형과 仲-太로 하

행하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세 음형의 ‘연음표’ 모두 ‘드는표’에 해당하지 않는 음으로 연결할 때 기보되어 나타난다. 또한, ‘드는표’로 연결하여 비교적 일정한 음형이 나타나는 ‘든흘림표’와 달리 앞 사설의 종지음과 사설의 말붙임에 따라 여러 유형의 음형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보아 ‘든흘림표’와 ‘연음표’는 사설을 연결하는 역할은 같으나, ‘연음표’는 좀 더 가변성이 있는 상황에 기보되는 것으로 추측된다.

④ 제4장

남창 우락 제4장의 <연음표>는 두 곡 모두 ‘드는표’ 한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며, 이에 따른 선율형은 다음의 <예보 81>과 같다.

<예보 81> 우락(9.임으란)[동선달]·(13.이선이)[저건너] 제4장 <연음표>와 선율 유형

<연음표> 유형	선율 유형
동선달	
저건너	

<예보 81>에서 제4장의 <연음표>는 ‘드는표’로 두 노래가 동일하며, 그에 따른 선율형도 모두 같다. 앞서 다른 계열의 곡에서 제4장의 <연음표>가 ‘드는표’와 ‘누르는표’ 두 가지 경우로 나타나면 선율은 첫 박부터 셋째 박까지 다르게 나타났다. 따라서 ‘드는표’가 나타내는 선율은 첫 박부터 제3박까지이다. 즉, 제4장에 표기된 <연음표>가 나타내는 선율은 사설의 첫 글자이며, 넷째 박부터는 고정된 형태로 진행된다. 그러므로 제4장에 기보된 ‘드는표’의 첫 시작음은 潢이며 南에서 林까지 내려오는

潢-南-林 하행선율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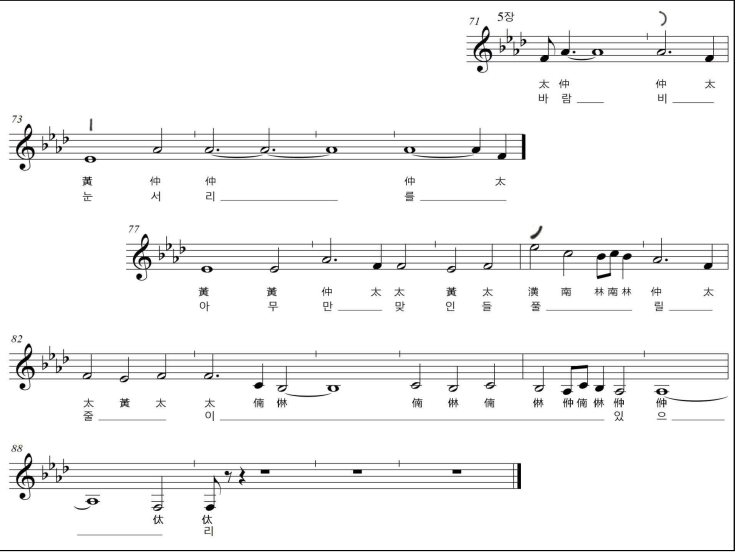
⑤ 제5장

우락의 제5장은 길어진 사설에 따라 일각의 선율이 확대된다. 사설이 확대된 경우, 노래마다 사설의 자수가 달라짐에 따라 일각의 확대 형태도 달라져 전체적인 유형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곡별로 전체 사설의 선율을 확인한 후, 확대 선율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우락(9.임으란) 제5장 [바람비 눈서리를][86]

『하규일보』에 실린 우락(9.임으란) 제5장 [바람비] 사설은 일각이 총 두 각으로 확대되었으며, 이는 다음의 <예보 82>와 같다.

<예보 82> 우락(9.임으란) 제5장 [바람비] 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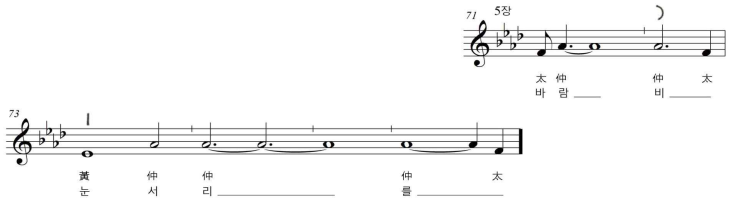
<연음표> 유형	선율 유형
①바람비 눈서리를 ②아무만 맞인들 이두: 풀릴줄이 있으리	

86) 이하 [바람비]로 표기한다.

위의 <예보 82>에 따르면 <연음표>는 일각①과 이두에 기보 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각 번호에 따라 기보된 <연음표>의 선율형을 살펴보겠다.

첫 번째로 일각①의 <연음표>는 일각① 제4박에 '연음표', 제6박에 '막내는표'가 기보되어 있다. 이는 다음의 <예보 83>과 같다.

<예보 83> 우락(9.임으란) 제5장 일각① 선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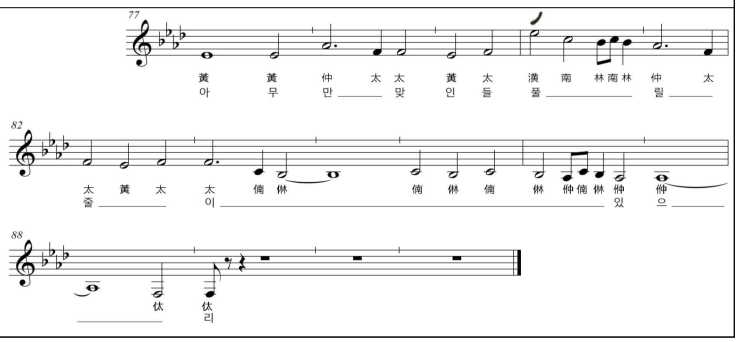
<연음표> 유형	선율 유형
①바람비 눈서리를	

<예보 83>에서 일각①의 '연음표'는 '바람비'와 '눈서리를' 사이에 기보되어 있으며, 앞 사설의 선율이 마무리되는 일각의 제4박에 기보된다. '연음표'의 음형은 仲에서 太로 진행하는 형태로, 이는 '바람비' 사설의 선율 종지음이 仲이고, '막내는표'가 기보된 '눈서리를'의 첫 시작음이 黃으로 하행선율을 연결하기 위함이다. 즉, 앞 사설의 종지음과 뒷 사설의 시작음의 영향으로 하행하는 음형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① 제6박에 기보된 '막내는표'는 제1-2박 黃으로 시작해 제3-10박까지 仲을 지속한 후, 제11박에 太로 내려오며 마무리되는 黃-仲-(太) 선율형이다. 즉, 黃으로 시작해 仲으로 상행한 후 太로 내려오며 마무리되는 형태이다.

두 번째로 이두의 <연음표>는 이두 첫 박에 '드는표'가 기보되어 있다. 이는 다음의 <예보 84>와 같다.

<예보 84> 우락(9.임으란) 제5장 이두 선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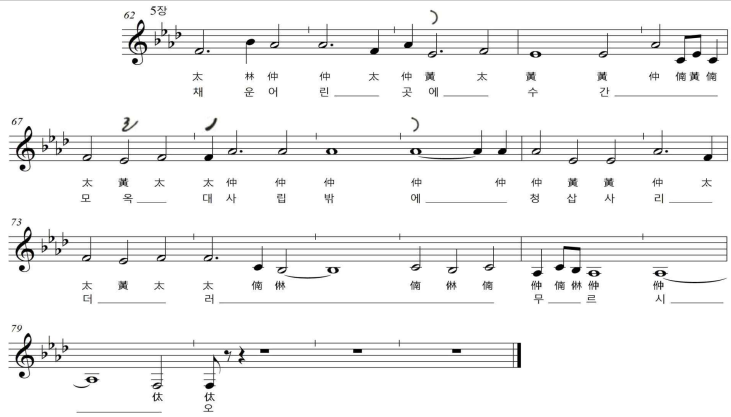
<연음표> 유형	선율 유형
②아무만 맞인들 **이두:** **풀릴줄이 있으리**	

<예보 84>에서 제5장 이두에 기보된 ‘드는표’는 潢으로 시작해 제2박 南, 제3박 林南林으로 하행하는 潢-南-林(南林) 선율형이다. 이두의 첫 각 제4박부터 우락(9.임으란)과 (13.이선이) 두 곡의 선율 진행이 동일하게 나타나므로 ‘드는표’가 나타내는 선율은 [풀릴줄이] 사설의 첫음절로 볼 수 있다. 선율의 골격음은 潢-南-林으로 潢으로 시작해 林까지 순차적으로 하행하는 형태이다.

(2) 우락(13.이선이) 제5장 [채운 어린곳에]

『하규일보』에 실린 우락(13.이선이) 제5장 [채운 어린곳에] 사설은 일각이 총 두 각으로 확대되었으며, 이는 다음의 <예보 8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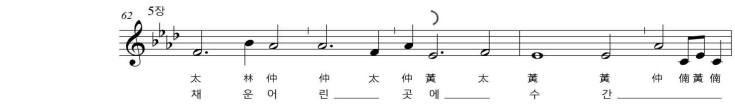
<예보 85> 우락(13.이선이) 제5장 [채운 어린곳에] 선율

<연음표> 유형	선율 유형
①채운어린곳에 ②수간모옥 대사립밖에 이두: 청삽사리더러 무르시오	

위의 <예보 85>에 따르면 <연음표>는 일각①-②에 기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각 번호에 따라 기보된 <연음표>의 선율형을 살펴보겠다.

첫 번째로 일각①은 일각의 제9박에 해당하는 장단부터 첫 박이 시작되는 반각이다. 일각①의 <연음표>는 '연음표' 제6박에서 사설이 끝나는 음 위에 기보되어 있다. 이는 다음의 <예보 86>과 같다.

<예보 86> 우락(13.이선이) 제5장 일각① 선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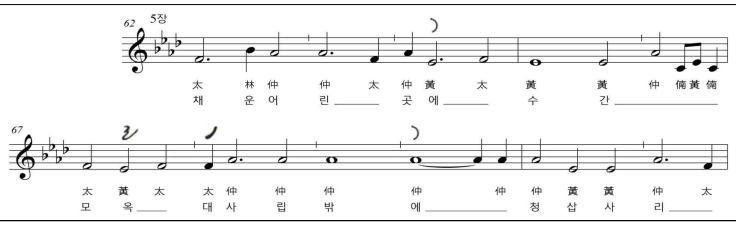
<연음표> 유형	선율 유형
①채운어린곳에 ②수간	

<예보 86>에서 일각①의 '연음표'는 제5장 첫 각에 위치하며, 앞 사설이 마무리되는 제6박에 기보된다. '연음표'의 음형은 黃에서 太로 상행하는 음형이다. '연음표'가 연결하는 사설 '수간모옥'의 시작음은 黃으로 '채

운어린곳에'의 종지음과 같다. 그러나 '연음표'는 상행진행하는 음형을 보인 후 다시 제8박의 시작음 黃으로 연결하는 특징을 보인다.

두 번째로 일각②의 <연음표>는 제7박에 '든흘림표', 제9박 '드는표', 제14박에 '연음표'가 기보되어 있다. 이는 다음의 <예보 87>과 같다.

<예보 87> 우락(13.이선이) 제5장 일각② 선율형

<연음표> 유형	선율 유형
①채운어린곳에 **②수간모옥** **대사립밖에** 이두: 청삽사리	

<예보 87>에서 일각②의 '든흘림표'는 앞 사설 '수간모옥'이 마무리되는 제7박에 기보된다. '든흘림표'의 음형은 요성 없이 黃에서 太로 상행하는 유형이다. 이는 제4박의 사설 '대사립밖에' 첫음절에 기보된 '드는표'의 시작음 太로 연결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일각②의 '드는표'는 제9박에 기보되어 있다. 선율은 太仲으로 시작해 제10-13박까지 仲으로 진행하며 마무리되는 太仲 선율형이다. 따라서 선율의 골격음은 太로 시작해 仲으로 상행하는 형태이다.

일각②의 '연음표'는 이두 사설로 넘어가기 전에 기보되어 앞 사설의 선율이 마무리되는 제14박에 보인다. '연음표'의 음형은 仲을 지속하여 내준 후 제16박에서 짧은 박의 仲을 한 번 더 내어주는 형태로 같은 음으로 진행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는 앞 사설 '대사립밖에' 선율의 종지음과 뒷 사설 '청삽사리' 선율의 시작음이 모두 仲으로 같으므로 이를 연결하기 위해 '연음표'도 같은 음으로 진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상 우락 제5장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5장은 제3장과 마찬가지로『하규일보』에 실린 우락 두 곡 모두 일각이 확대되어 <연음표>가 기보된 위치 또한 다양하게 나타난다. 첫 번째로 우락(9.임으란)은 일각이 두 각으로 확대되었으며, <연음표>는 일각① 제6박에 '막내는표'와 이두에 '드는표'가 기보되어 있다. 일각①의 '막내는표'는 黃으로 시작해 仲으로 상행한 후, 太로 내려오며 마무리되고, 이두의 '드는표'는 潢으로 시작해 林까지 하행하여 내려오는 선율형이다. 두 번째로 우락(13.이선이)는 일각이 두 각으로 확대되었으며, <연음표>는 일각②에 '드는표'가 기보되어 太仲으로 시작해 仲을 지속하는 선율형이다.

제5장에 기보된 연결형의 <연음표> 중 '든흘림표'는 우락(9.임으란) 곡에서 黃-太로 상행하는 음형이 나타난다. '연음표'는 '든흘림표'보다 다양한 형태의 음형을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는 黃-太로 상행하는 유형, 두 번째는 太를 내주는 유형, 세 번째는 仲-太로 하행하는 유형이다. 이는 '연음표'와 '든흘림표'의 역할은 같으나 '연음표'가 훨씬 다양한 선율형으로 연결됨을 의미한다.

⑥ 우락 소결

『가곡원류』 남창 우락에 기보된 <연음표>와 그에 따른 선율형을 음높이를 나타내는 <연음표>와 연결을 나타내는 <연음표>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초장은 초두에 기보된 <연음표>의 유형만 확인할 수 있다. 초장 초두는 '막내는표'가 기보되어 있으며, 선율의 골격음은 黃으로 시작해 太와 黃으로 진행해 仲으로 상행 후 다시 太를 거쳐 黃으로 내려오는 선율형이다. 제9번(임으란)의 초장 초두는 <연음표>가 생략되어 있으나, 선율의 골격음이 제13번(이선이) 초장 초두와 같으므로 '막내는표'에 해당하는 선율형이다. 다만 제9박에서 仲黃으로 다른 음형을 보이는데 이는 자수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2장은 초두에 기보된 <연음표>의 유형만 확인할 수 있다. 제2장 초두는 '드는표'가 기보되어 있으며, 선율의 골격음은 潢으로 시작해 仲으로 하행하는 형태이지만 우락(13.이선이) [나귀목에] 사설의 경우 제7박에서 한 번 더 林으로 진행한 후 仲으로 마무리되는 특징을 보인다. 이는 [나는 삼사월]과 [나귀목에] 사설의 자수가 각각 다섯 자와 네 자로 자수의 다름으로 인한 선율 진행의 차이로 해석된다.

제3장은 『하규일보』에 실린 우락 두 곡 모두 일각이 확대되어 <연음표>가 기보된 위치 또한 다양하게 나타난다. 두 곡의 제3장에서 선율형을 파악할 수 있는 <연음표>는 '드는표'이다. 첫 번째로 우락(9.임으란) 제3장은 일각이 여섯 각으로 확대되었으며, '드는표'는 일각②의 제9박, 일각④의 제6박과 반각인 일각⑥의 첫 박에 각각 기보되어 있다. '드는표'의 선율형을 살펴보면 일각②의 시작음은 南, 종지음은 仲, 일각④의 시작음은 潢, 종지음은 仲, 반각인 일각⑥은 시작음과 종지음이 모두 太로 세 곳이 모두 다른 골격음이다.

두 번째로 우락(13.이선이) 제3장은 일각이 총 네 각으로 확대되었으며, '드는표'는 일각①의 제9박과 반각인 일각④의 첫 박에 각각 기보되어 있다. '드는표'의 선율형을 살펴보면 일각①의 시작음과 종지음은 太, 반각인 일각④의 시작음은 太, 종지음은 黃으로 종지음을 제외한 두 곳의 선율 골격음이 유사하다. 우락(9.임으란)·(13.이선이) 제3장 일각 중 반각에 기보된 '드는표'는 두 곡의 선율형이 유사하므로 우락의 반각에 해당 <연음표>가 기보될 경우 이러한 선율형이 나옴을 유추할 수 있다.

제4장의 <연음표>는 '드는표'로 두 노래가 동일하며, 그에 따른 선율형도 모두 같다. 앞서 다른 계열의 곡에서 제4장의 <연음표>가 '드는표'와 '누르는표' 두 가지 경우로 나타나면 선율은 첫 박부터 셋째 박까지 다르게 나타났다. 따라서 '드는표'가 나타내는 선율은 첫 박부터 제3박까지이다. 즉, 제4장에 표기된 <연음표>가 나타내는 선율은 사설의 첫 글자이며, 넷째 박부터는 고정된 형태로 진행된다. 그러므로 제4장에 기보된 '드는표'의 첫 시작음은 潢이며 南에서 林까지 내려오는 潢-南-林 하행선율형이다.

제5장도 제3장과 마찬가지로 『하규일보』에 실린 우락 두 곡 모두 일각이 확대되어 <연음표>가 기보된 위치 또한 다양하게 나타난다. 첫 번째로 우락(9.임으란)은 일각이 두 각으로 확대되었으며, <연음표>는 일각① 제6박에 '막내는표'와 이두에 '드는표'가 기보되어 있다. 일각①의 '막내는표'는 黃으로 시작해 仲으로 상행한 후, 太로 내려오며 마무리되고, 이두의 '드는표'는 潢으로 시작해 林까지 하행하여 내려오는 선율형이다. 두 번째로 우락(13.이선이)는 일각이 두 각으로 확대되었으며, <연음표>는 일각②에 '드는표'가 기보되어 太仲으로 시작해 仲을 지속하는 선율형이다.

위의 내용에 따라 우락에 기보된 음높이를 나타내는 <연음표>의 선율형은 다음의 <표 24>와 같다.

<표 24> 남창 우조 우락 위치별 <연음표> 선율형 정리

구분		<연음표>	선율의 골격음	사설	곡목
초장	초두	막내는표	【黃】-太-黃-仲-黃	이선이	13.이선이
이장	초두	드는표	【潢】-南-林-仲-林-仲	나귀목에	13.이선이
			【潢】-南-林-仲	나는삼사월	9.임으란
삼장	일각② 제9박	드는표	【南】-林-仲-林-南-仲	저리로 츤츤	9.임으란
	일각④ 제6박		**【潢】**-南-林-仲-林-仲	끝까지	9.임으란
	일각⑥(반각) 첫 박		【太】仲-太-黃-太	주야 장상에	9.임으란
	일각① 제9박		**【太】**-仲-仲黃-太	절벽을 넘어	13.이선이
	일각④(반각) 첫 박		【太】-仲-仲-黃	초부를 만나	13.이선이
사장		드는표	**【潢】**-南-林	동섣달	9.임으란
				저건너	13.이선이
오장	일각① 제6박	막내는표	【黃】-仲-(太)	눈서리를	9.임으란
	일각② 제9박	드는표	【太】仲	대사립 밖에	13이선이
	이두	드는표	【潢】-南-林	풀릴줄이	9.임으란

<범례> **【】**:선율의 시작음, -:박의 구분

연결형의 <연음표> 중 '든흘림표'는 우락(9.임으란)의 제3·5장과 우락(13.이선이)의 제3장에 기보되어 음형을 확인할 수 있다. 두 곡에 기보된 '든흘림표'는 모두 '드는표'와 함께 기보되어 상행 선율을 연결하는 역할

을 한다. 우락(9.임으란)의 '든흘림표'는 제3장의 경우 倘黃倘黃으로 倘에서 요성한 후 太로 상행하거나, 黃에서 太로 상행하는 두 가지 음형이 나타나고, 제5장은 黃에서 太로 상행하는 한 가지 음형을 확인할 수 있다. 우락(13.이선이)는 제3장에서 黃에서 太로 상행하는 한 가지 음형을 확인할 수 있다.

두 곡의 '든흘림표'는 모두 太로 상행하는 음형이 공통적으로 나타나지만, 시작하는 음형이 다르다. 倘에서 요성한 후 太로 상행하는 음형은 확대된 일각의 제6박에 기보된 '드는표'로 넘어갈 때 나오고, 黃에서 太로 상행하는 유형은 일각의 제9박, 또는 반각의 첫 박에 기보된 '드는표'로 넘어갈 때 나타난다. 따라서 '든흘림표'는 기보된 박에 따라 두 가지 음형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우락에 기보된 '든흘림표'의 음형과 사설은 다음의 <표 25>와 같다.

<표 25> 우락 '든흘림표'의 음형과 사설

음형	사설	구분	곡명
倘黃倘黃-太	밑부터ᄅᆞ 끝까지	제3장	9.임으란
黃-太	이리로 찬찬ᄅᆞ 저리로 츤츤	제3장	9.임으란
	휘휘감아ᄅᆞ 주야장상에		
	수간모옥ᄅᆞ 대사립밖에	제5장	
	층암ᄅᆞ 절벽을 넘어	제3장	13.이선이

<범례> -:박의 구분

연결형의 <연음표> 중 '연음표'는 '든흘림표'보다 다양한 음형으로 나타나며, 우락(9.임으란)·(13.이선이) 두 곡의 초장 및 제3·5장에서 음형을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는 黃-太로 상행하는 유형, 두 번째는 太를 내주는 유형, 세 번째는 仲-太로 하행하는 유형이다. 첫 번째 음형은 '든흘림표'와 같은 유형이지만 '드는표'에 해당하지 않는 음으로 연결할 때 보인다. 두 번째 음형은 사설의 음절이 한 박씩 촘촘히 배열되어 '연음표'의 역할이 축소된 경우이다. 세 번째는 '연음표'가 기보된 앞의 사설의 종지음이 仲이고 뒤의 사설은 太로 시작해 오히려 하행선율로 연결해야

하는 경우이다.

세 음형의 ‘연음표’ 모두 ‘드는표’에 해당하지 않는 음으로 연결할 때 기보되었다. 또한, ‘드는표’로 연결하여 비교적 일정한 음형이 나타나는 ‘든흘림표’와 달리 앞 사설의 종지음과 사설의 말붙임에 따라 여러 유형의 음형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보아 ‘든흘림표’와 ‘연음표’는 사설을 연결하는 역할은 같으나, ‘연음표’는 좀 더 가변성이 있는 상황에 기보되는 것으로 추측된다. 우락에 기보된 ‘연음표’의 음형과 사설은 다음의 <표 26>과 같다.

<표 26> 우락 ‘연음표’의 음형과 사설

음형	사설	구분	곡명
黃太 또는 黃-太	회양금성❯오리남기	초장	9.임으란
	외오감아❯올히풀쳐	제3장	
	이선이❯집을 반하여	초장	13.이선이
	초부를만나❯마고할미	제3장	
	채운어린곳에❯수간모옥	제5장	
太	주야장상에❯뒤트러져	제3장	9.임으란
仲	대사립밖에❯ 청삽사리	제5장	13.임으란
仲-太	바람비❯눈서리를	제5장	9.임으란
	천태산❯층암절벽을	제3장	13.이선이

<범례> -:박의 구분

우락의 <연음표>는 사설이 확대되었음에도 기보되는 위치에 따라 비교적 일정하게 나옴을 알 수 있다. 또한, 연결하는 두 <연음표>는 ‘연음표’가 더 다양한 음형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든흘림표’의 특성상‘드는표’가 기보된 사설로 연결하며 상행선율형에 나타나는 것과 달리 ‘연음표’는 상행과 하행 선율 모두를 연결하며 다양한 음형이 나오는 것으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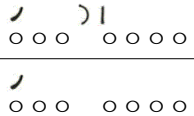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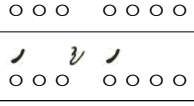
ㄴ) 언락

『가곡원류』에 실린 언락의 사설은 총 스물아홉 가지이다. 이 중 『하규일보』에 실린 사설을 『가곡원류』에 실린 순서대로 정리하면 세 번째(백구는 편편 대동강상비허고), 여섯 번째(벽사창이 어룬어룬커늘), 여덟 번째(푸른산중 백발옹이), 스무 번째(아흔아홉 곱먹은 노장이), 스물다섯 번째(일월성신도 천황씻적)으로 모두 다섯 가지이다. 『하규일보』에 실린 언락 다섯 사설의 <연음표>를 장별로 살펴보겠다.

① 초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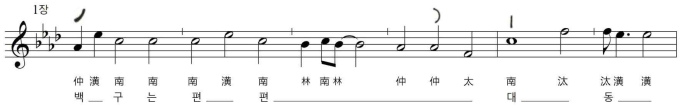
언락 초장의 <연음표>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첫 번째 유형은 언락 제3번(백구는) 사설로 ‘드는표’, ‘연음표’와 ‘막내는표’가 기보되어 있다. 두 번째 유형은 언락 제6번(벽사창이)과 제25번(일월성신) 사설로 ‘드는표’가 기보되어 있다. 세 번째 유형은 언락 제8번(푸른산중)과 제20번(아흔아홉) 사설로 ‘드는표’, ‘든흘림표’와 ‘드는표’가 기보되어 있다. 이는 다음의 <표 27>과 같다.

<표 27> 언락 초장의 <연음표> 유형

분류	<연음표>	사설
1		언락 제3번(백구는)
2		언락 제6번(벽사창이), 제25번(일월성신)
3		언락 제8번(푸른산중), 제20번(아흔아홉)

언락 초장의 <연음표> 유형을 순서대로 살펴보겠다. 첫 번째 유형은 언락 제3번(백구는) 사설로 초두에 ‘드는표’, 제10박 ‘연음표’, 이두에 ‘막내는표’가 기보되어 있다. <연음표> 유형에 따른 선율형은 다음의 <예보 88>과 같다.

<예보 88> 언락 제3번(백구는) 초장의 <연음표>와 선율 유형

<연음표> 유형	선율 유형
백구는편편 대동강 상비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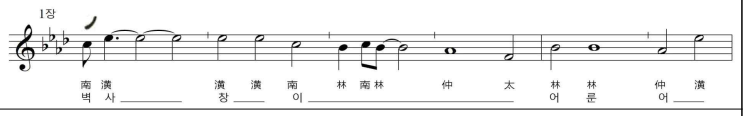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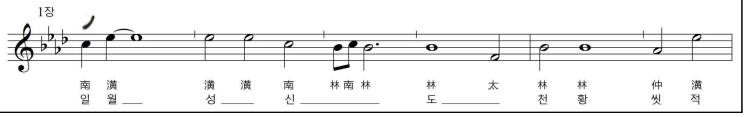
<예보 88>에서 초두에 기보된 ‘드는표’는 첫 박 仲潢, 제2-4박 南, 제5박 潢, 제6박 南, 제7박 林南林을 내준 후 제8박까지 지속한 후, 제9박에 仲으로 마무리되는 仲潢-南-潢-南-林(南林)-仲 선율형이다. 사설을 기준으로 선율의 골격음은 仲潢-南-潢-南-林-仲으로 仲에서 潢으로 급격히 상행한 후, 南과 潢을 내주고 다시 南, 林, 仲으로 순차적으로 하행해 마무리하는 형태이다.

‘연음표’는 앞의 사설 ‘백구는 편편’의 사설이 제9박에 마무리되므로 제10박에 기보된다. ‘연음표’의 음형은 仲-太로 앞 사설의 종지음 仲에서 仲을 이어내 太로 하행한 후, 이두 첫 시작음인 南으로 연결한다. 이두 사설의 첫음절에는 ‘막내는표’가 기보되어 있으므로 ‘연음표’가 초두의 끝에 기보되어 이두로 연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초두의 사설의 종지음은 仲, 이두의 시작음은 南으로 선율은 상행하나 ‘연음표’는 오히려 太로 내려가는 특징을 보인다.

이두의 ‘막내는표’는 이두 제1-2박 南, 제3박 汰, 제4박 汰潢을 내고 제5박까지 유지하는 南-汰-(汰)潢 선율형이다. 사설을 기준으로 선율의 골격음은 南-汰-潢으로 南으로 시작해 汰로 상행한 후, 潢으로 마무리되는 형태이다.

두 번째 유형은 언락 제6번(벽사창이)과 제25번(일월성신) 사설로 초두 첫 박에 ‘드는표’가 기보되어 있다. <연음표> 유형에 따른 선율형은 다음의 <예보 89>와 같다.

<예보 89> 언락 제6(벽사창이)·25번(일월성신) 초장의 <연음표>와 선율 유형

<연음표> 유형	선율 유형
벽사창이 어룬어룬커늘	
일월성신도 천황씻적일월성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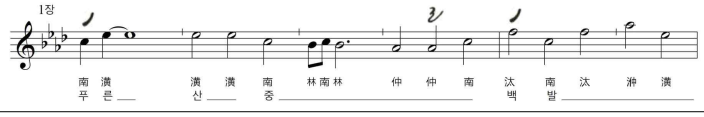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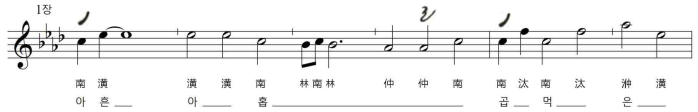
<예보 89>에서 언락 제6번(벽사창이) 사설 초두의 ‘드는표’는 첫 박 南潢으로 시작해 제5박까지 潢을 내준 후, 제6박 南, 제7박 林南林 후에 제8박까지 林으로 지속하고 제9-10박에서 仲으로 마무리되는 南潢-潢-南-林(南林)-仲 선율형이다. 사설을 기준으로 선율의 골격음은 南潢-南-林-仲으로 첫 박에 南潢을 내준 후 潢을 지속하다 南, 林, 仲으로 순차적으로 하행하는 형태이다.

언락 제25번(일월성신) 사설 초두의 ‘드는표’는 첫 박 南潢으로 시작해 제5박까지 潢을 내준 후, 제6박 南, 제7박 林南林 후에 제10박까지 林으로 지속하여 마무리되는 南潢-潢-南-(林南)林 선율형이다. 사설을 기준으로 선율의 골격음은 南潢-南-林으로 첫 박에 南潢을 내준 후 潢을 지속하다 南, 林까지 순차적으로 하행하는 형태이다.

두 사설의 ‘드는표’의 골격음은 첫 박의 시작 음형이 南潢이고 제8박의 林까지 순차적으로 하행하는 선율형이 같다. 그러나 제9-10박에서 (6.벽사창이) 사설은 仲, (25.일월성신)은 林으로 각각 달라진다. 이는 초두의 사설이 (6.벽사창이)는 ‘벽사창이’로 네 자, (25.일월성신)은 ‘일월성신도’로 다섯 자로 자수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세 번째 유형은 언락 제8번(푸른산중)과 제20번(아흔아홉) 사설로 초두에 ‘드는표’, 제10박에 ‘든흘림표’, 이두에 ‘드는표’가 기보되어 있다. <연음표> 유형과 그에 따른 선율형은 다음의 <예보 90>과 같다.

<예보 90> 언락 제8(푸른산중)·20번(아흔아홉) 초장의 <연음표>와 선율 유형

<연음표> 유형	선율 유형
푸른산중 백발옹이	
아흔아홉 곱먹은노장이	

<예보 90>에서 언락 제8번(푸른산중)과 제20번(아흔아홉) 사설 초장 초두의 '드는표'는 첫 박 南潢으로 시작해 제5박까지 潢을 내준 후, 제6박 南, 제7박 林南林 후에 제8박까지 林으로 지속하고 제9박에서 仲으로 마무리되는 南潢-潢-南-林(南林)-仲 선율형이다. 사설을 기준으로 선율의 골격음은 南潢-南-林-仲으로 첫 박에 南潢을 내준 후 潢을 지속하다 南, 林, 仲으로 순차적으로 하행하는 형태이다.

두 곡의 '든흘림표'는 초두의 사설이 제9박에서 마무리되므로 제10박에 기보된다. '든흘림표'의 음형은 南으로 '드는표'가 기보된 이두의 사설로 연결한다. 초두 사설의 종지음은 仲이고, 이두 사설의 시작음은 제8번(푸른산중)은 汰, 제20번(아흔아홉)은 南汰로 각각 상행하는 선율형이다. 따라서 '든흘림표'는 상행선율로 진행하는 초두와 이두의 사설을 연결하기 위해 南을 내준 것으로 보인다.

제8번(푸른산중) 초장 이두의 '드는표'는 汰로 시작해 제2박 南, 제3박 汰, 제4박 沛, 제5박 潢으로 마무리되는 汰-南-汰-沛-潢 선율형이다. 사설을 기준으로 선율의 골격음은 汰-南-汰-沛-潢으로, 汰로 시작해 南과 汰를 거쳐 沛까지 상행한 후, 潢으로 하행하는 형태이다.

제20번(아흔아홉) 초장 이두의 '드는표'는 南汰로 시작해 제3박 汰, 제4박 沛, 제5박 潢으로 마무리되는 南汰-南-汰-沛-潢 선율형이다. 사설을 기준으로 선율의 골격음은 南汰-南-汰-沛-潢-南-仲으로, 南汰로 시작해 南과 汰를 거쳐 沛까지 상행한 후, 潢으로 내려오는 형태이다.

두 곡의 초장 이두의 '드는표'는 첫 시작음과 둘째 각 제3박의 음형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는 초장 이두의 사설이 '백발옹이'와 '곱먹은 노장이'로 자수가 각각 네 자와 여섯 자로 다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언락 초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언락 초장 초두는 '드는표'의 선율형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곡에 따라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뉘었다. 첫 번째는 仲潢으로 시작해 南과 潢을 거쳐 다시 南, 林, 仲으로 순차적으로 하행하는 유형으로 언락(3.백구는)에서 나타났다. 두 번째는 南潢으로 시작해 南, 林으로 순차적으로 하행하는 형태로 언락(25.일월성신)에서 볼 수 있다. 세 번째는 南潢으로 시작해 南, 林, 仲으로 순차적으로 하행하는 형태로 위의 두 곡을 제외한 언락 초장 초두의 '드는표' 선율형으로 나타난다. 다섯 곡에 기보된 '드는표'는 선율이 유사하지만, 골격음의 차이를 조금씩 보였는데 이는 자수와 사설을 부를 때 박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추측하였다.

언락 초장 이두는 '드는표'와 '막내는표' 두 <연음표>의 선율형을 확인할 수 있다. '드는표'는 南汰 또는 汰로 시작해 南으로 하행했다 다시 汰, 泄으로 올라와 潢으로 마무리되고, '막내는표'는 南으로 시작해 汰로 상행한 후 潢으로 마무리되는 선율형으로 나타났다. 이두에 기보된 '막내는표'의 시작음은 南으로 높은 편이지만, 같은 박에 '드는표'가 기보될 경우 시작음이 汰, 또는 南汰 음형으로 더 높아지므로, 상대적으로 낮은음인 南은 '막내는표'로 기보한 것으로 추측된다.

초장의 '연음표'와 '든흘림표'는 각각 '막내는표'와 '드는표' 앞에 기보되어 있다. '연음표'의 음형은 太이고 '든흘림표'의 음형은 南으로 다르게 나타난다. '연음표'가 기보된 사설의 초두의 종지음은 仲, 이두의 시작음은 南으로 상행선율형이지만, '연음표'는 오히려 太로 낮은음으로 진행한 후 이두로 넘어가는 음형을 보인다. 이는 '드는표'로 연결하는 '든흘림표'와 '막내는표'로 연결하는 '연음표'의 차이를 음높이로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② 제2장

언락 제2장의 <연음표>는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연음표가 가장 많이 표기된 사설 순으로 정리하면, 첫 번째 유형은 언락(25.일월성신) [산하토지도 지황씻적 산하토지] 사설로 ‘든흘림표’와 ‘드는표’ 두 개가 기보되어 있다. 두 번째 유형은 언락(3.백구는) [장송은 낙낙 청류벽상추이라] 사설로 ‘든흘림표’와 ‘드는표’가 기보되어 있다. 세 번째 유형은 언락(6.벽사창이) [임만여겨 펄떡뛰어 나가보니] 사설로 ‘막내는표’와 ‘드는표’가 기보되어 있다. 네 번째 유형은 언락(8.푸른산중) [고요독좌 향남봉이로다]와 (20.아흔아홉) [탁주를 가득담뿍 취케먹고] 사설로 ‘드는표’가 기보되어 있다.[87] 이는 다음의 <표 28>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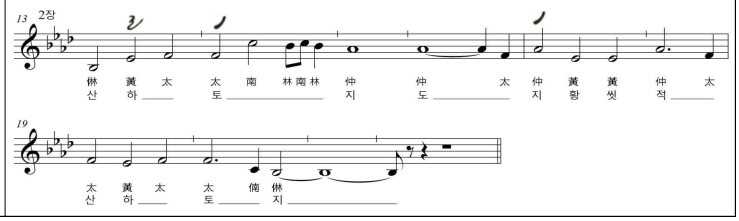
<표 28> 언락 제2장의 <연음표> 유형

분류	<연음표>	사설
1	ㅇㅇㅇ ㅇㅇㅇㅇ	25.일월성신 [산하토지]
2	ㅇㅇㅇ ㅇㅇㅇㅇ	3.백구는 [장송은]
3	ㅇㅇㅇ ㅇㅇㅇㅇ	6.벽사창이 [임만여겨]
4	ㅇㅇㅇ ㅇㅇㅇㅇ	8.푸른산중 [고요독좌], 20.아흔아홉 [탁주를]

위의 <표 33>에 따라 언락 제2장의 <연음표> 유형을 순서대로 살펴보겠다. 첫 번째 유형은 언락(25.일월성신) [산하토지] 사설로 초두의 제2박에 ‘든흘림표’, 제4박에 ‘드는표’, 이두에 ‘드는표’가 기보되어 있다. <연음표>와 그에 따른 선율형은 다음의 <예보 91>과 같다.

87) 이하 각각 [산하토지], [장송은], [임만여겨], [고요독좌], [탁주를]로 표기한다.

<예보 91> 언락(25.일월성신) 제2장 [산하토지] <연음표>와 선율 유형

<연음표> 유형	선율 유형
산하토지도 지황씻적 산하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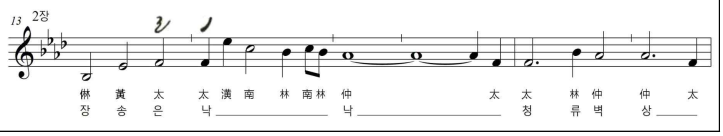
<예보 91>에서 초두의 ‘든흘림표’는 ‘산하’의 선율이 마무리되는 제2박에 기보된다. ‘든흘림표’의 음형은 黃에서 太로 상행하는 형태이다. 이는 ‘산하’의 종지음이 黃, ‘토지도’의 시작음이 太로 상행선율이므로 이를 연결하기 위함이다.

초두 제4박에 기보된 ‘드는표’는 太로 시작하여 제5박 南, 제6박 林南林, 제7-10박까지 仲을 지속하여 끌어준 후, 제11박에 太로 하행하며 마무리되는 太-南-(林南)林-仲-(太) 선율형이다. 사설을 기준으로 선율의 골격음은 太-南-林-仲으로 太로 시작해 南으로 상행한 후, 林, 仲으로 순차적으로 하행한다.

이두에 기보된 ‘드는표’는 다섯 곡의 선율이 제4박부터 동일하게 진행하므로 제1-3박까지의 선율을 의미하며, 仲으로 시작해 제2-3박에 黃을 내주는 仲-黃 선율형이다. 즉, 仲으로 시작해 黃으로 하행하며 마무리하는 형태이다.

두 번째 유형은 언락(3.백구는) [장송은] 사설로 초두의 제3박에 ‘든흘림표’, 제4박에 ‘드는표’가 기보되어 있다. <연음표>와 이에 따른 선율형은 다음의 <예보 92>와 같다.

<예보 92> 언락(3.백구는) 제2장 [장송은] <연음표>와 선율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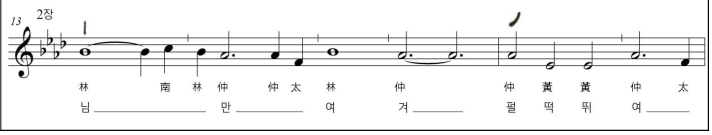
<연음표> 유형	선율 유형
장송은낙낙 청류벽상추이라	

<예보 92>에서 초두에 기보된 ‘든흘림표’는 사설이 마무리되는 제3박에 기보된다. ‘든흘림표’의 음형은 太로 요성 없이 ‘장송은’과 ‘낙낙’을 이어준다. 제2박의 음은 黃이고, 제4박은 太潢으로 진행하는 선율로 ‘든흘림표’는 상행하는 두 사설의 선율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다만, ‘든흘림표’가 낮은음에서 요성한 후 들어주는 음을 의미하는 말이지만 [장송은] 사설 초두에 기보된 ‘든흘림표’의 음형은 太 한 가지를 낸다. 연결 음형이 생략된 것은 락 계열로 오면서 사설 자수의 영향으로 한 각의 장단수가 바뀌고, 장단이 빨라지면서 ‘든흘림표’의 역할도 축소되었다 할 수 있다.

초두에 기보된 ‘드는표’는 첫 시작인 제4박에 太潢으로 시작해 상행한 후, 제5박 南, 제6박 林南林, 제7-10박 仲으로 지속한 후 제11박에 太로 하행하며 마무리하는 太潢-南-林(南林)-仲-(太) 선율형이다. 사설을 기준으로 선율의 골격음은 太潢-南-林-仲으로 太로 시작해 潢으로 도약한 후 南, 林, 仲을 순차적으로 하행하는 형태이다.

세 번째 유형은 언락(6.벽사창이) [임만여겨] 사설로 초두에 ‘막내는표’, 이두에 ‘드는표’가 기보되어 있다. <연음표>와 그에 따른 선율 유형은 다음의 <예보 93>과 같다.

<예보 93> 언락(6.벽사창이) 제2장 [임만여겨] <연음표>와 선율 유형

<연음표> 유형	선율 유형
님만여겨 펄떡뛰어나가보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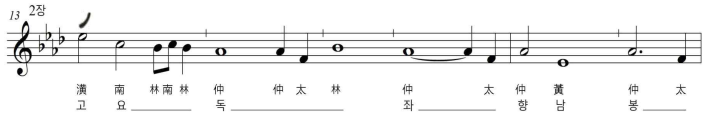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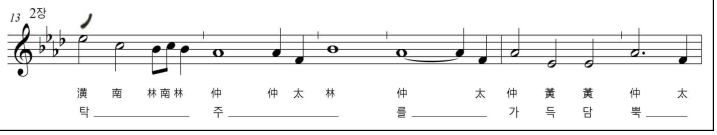
<예보 93>에서 초두에 기보된 ‘막내는표’는 제1-2박 林, 제3박 南, 제4박 林仲을 내주고 제5박까지 지속된 후 제6박 仲太, 제7-8박 林, 제9-11박 仲으로 마무리되는 林-南-(林)仲-仲太-林-仲 선율형이다. 사설을 기준으로 선율의 골격음은 林-南-仲-太-林-仲으로, 林으로 시작해 南으로 상행한 후 仲, 太로 하행하고 다시 林으로 상행하여 仲으로 마무리되는 형태이다.

이두에 기보된 ‘드는표’는 다섯 곡의 선율이 제4박부터 동일하게 진행하므로 제1-3박까지의 선율을 의미하며, 仲으로 시작해 제2-3박 黃으로 진행하는 仲-黃 선율형이다. 즉, 仲으로 시작해 黃으로 하행하며 마무리하는 형태이다.

이두 첫 박 ‘드는표’의 시작 음은 仲이고 초두 첫 박 ‘막내는표’는 林으로 ‘드는표’가 오히려 ‘막내는표’보다 낮은음을 내주는 특징이 있다. 이는 같은 연음표여도 기보되는 사설의 위치, 즉, 초두 및 일각이나 이두, 또는 어느 장에 표기되는가에 따라 나타내는 음이 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음에 나오는 네 번째 유형까지 분석 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

네 번째 유형은 언락 제8번(푸른산중)과 제20번(아흔아홉) 사설로 초두 첫 박에 ‘드는표’가 기보되어 있다. <연음표>에 따른 선율형은 다음의 <예보 94>와 같다.

<예보 94> 언락 (8.푸른산중)[고요독좌]·(20.아흔아홉)[탁주를] 제2장의 <연음표>와 선율 유형

<연음표> 유형	선율 유형
고요독좌 향남봉이로다	
탁주를 가득담뿍 취케먹고	

<예보 94>에서 초두에 기보된 ‘드는표’는 첫 박 潢, 제2박 南, 제3박 林南林, 제4-5박 仲, 제6박 仲太, 제7-8박 林, 제9-10박 仲, 제11박 太로 마무리되는 潢-南-(林南)林-仲-仲(太)-林-仲-(太) 선율형이다. 사설을 기준으로 선율의 골격음은 潢-南-林-仲-林-仲으로 潢으로 시작해 南, 林, 仲으로 순차적으로 하행한 후 다시 林과 仲을 거쳐 마무리되는 형태이다.

이상 언락 제2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의 초두는 첫 박과 제4박에 <연음표>가 기보된 두 가지 경우로 나뉜다. 초두 첫 박은 ‘드는표’와 ‘막내는표’ 두 <연음표>의 선율형을 확인할 수 있다. ‘드는표’는 潢으로 시작해 南, 林, 仲으로 순차적으로 하행한 후 다시 林과 仲을 거쳐 마무리되고, ‘막내는표’는 林으로 시작해 南으로 상행한 후 仲, 太로 하행하고 다시 林으로 상행하여 仲으로 마무리되는 선율형이며, 시작음이 ‘드는표’보다 낮음을 알 수 있다. 초두 제4박은 ‘드는표’가 기보되어 있으며, 太로 시작해 南, 林, 仲으로 하행하는 유형과 太潢으로 높이 들어주며 시작해 마찬가지로 南, 林, 仲으로 하행하는 두 선율형으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제2장의 이두는 ‘드는표’가 기보되어 있으며, 仲에서 黃으로 하행하는 형태로 선율형이 동일하였다.

‘든흘림표’는 초두 제2박에 기보되어 요성 없이 黃에서 太로 상행하는

음형과 초두 제3박에 기보되어 요성과 낮은음에서 상행선율 없이 太를 내주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이는 락 계열로 오면서 사설 자수의 영향으로 한 각의 장단 수가 바뀌고, 장단이 빨라지면서 '든흘림표'의 역할도 축소된 것으로 풀이된다. '연음표'는 제2장에 기보된 것이 없어 음형을 확인할 수 없다.

③ 제3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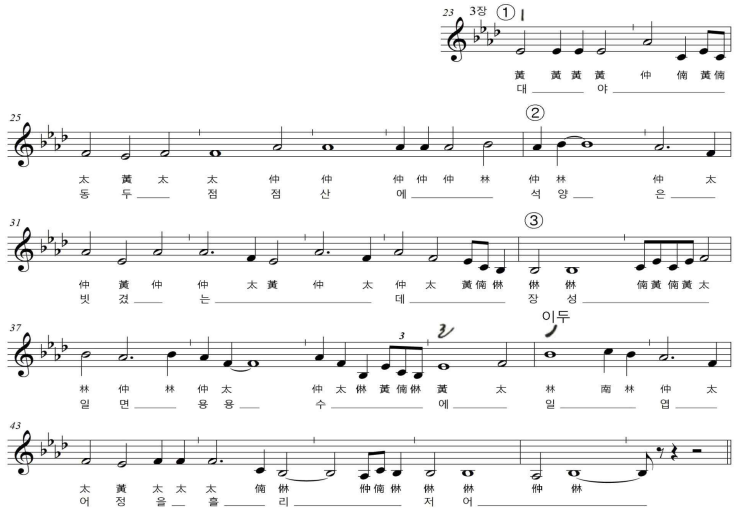
언락의 제3장은 길어진 사설에 따라 일각의 선율이 확대된다. 사설이 확대된 경우, 노래마다 사설의 자수가 달라짐에 따라 일각의 확대 형태도 달라져 전체적인 유형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곡별로 전체 사설의 선율을 확인한 후, 확대 선율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언락(3.백구는) 제3장 [대야동두 점점산에][88]

언락(3.백구는) 제3장 [대야동두] 사설은 일각이 총 세 각으로 확대된 곡이며 이는 다음의 <예보 95>와 같다.

88) 이하 [대야동두]로 표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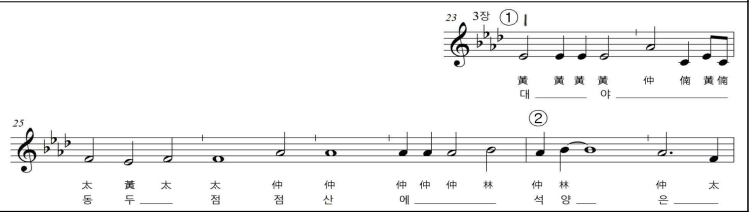
<예보 95> 언락(3.백구는) 제3장 [대야동두] 선율

<연음표> 유형	선율 유형
①대야동두점점산에 ②석양은 빗겼는데 ③장성일면용용수에 이두: 일엽어정을 흘리져어	

위의 <예보 95>에 따르면, [대야동두] 사설은 일각①번과 ③번, 그리고 이두에 <연음표>가 표기된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각 번호에 따라 기보된 <연음표>의 선율형을 살펴보겠다.

첫 번째로 일각①의 <연음표>는 첫 박에 '막내는표'가 기보되어 있다. 이는 다음의 <예보 96>과 같다.

<예보 96> 언락(3.백구는) 제3장 일각① 선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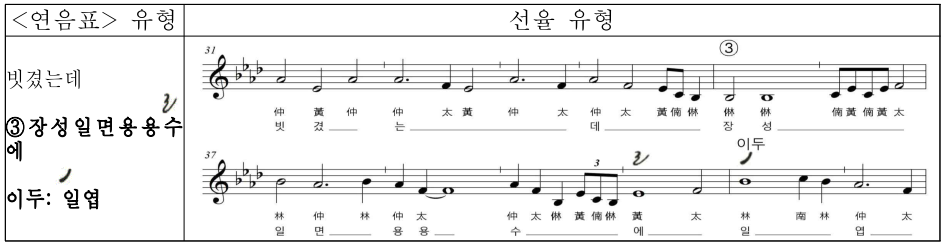
<연음표> 유형	선율 유형
①대야동두점점산에 ②석양은	

<예보 96>에서 '막내는표'에 해당하는 선율은 <대야동두> 사설이 있는 일각①의 제8박까지이다. '막내는표'는 첫 박에 黃으로 시작해 제3박

까지 이어준 후, 제4박 仲, 제5박 倘黃倘, 제6박 太, 제7박 黃, 제8박 太로 黃-仲-倘(黃倘)-太-黃-太 선율형이다. 사설을 기준으로 선율의 골격음은 黃-仲-倘-太-黃으로 黃에서 시작해 仲으로 올라간 후 倘으로 하행하고 다시 太로 올라와 黃, 太를 내주며 마무리하는 형태이다.

두 번째로 일각③의 <연음표>는 제14박에 '든흘림표'가 기보되어 있으며, 이두 첫 박에 기보된 '드는표'의 선율로 연결된다. 이는 다음의 <예보 97>과 같다.

<예보 97> 언락(3.백구는) 제3장 일각③ 선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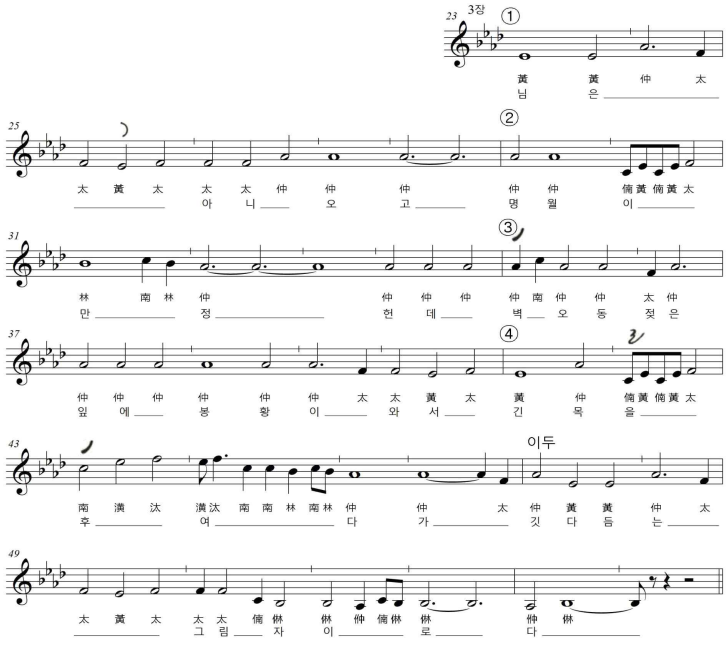
<예보 97>에서 일각③의 '든흘림표'는 사설이 마무리된 후 제14박에 기보된다. '든흘림표'의 음형은 黃에서 太로 상행하는 음형이다. 이는 앞의 사설이 제14박에 黃으로 마무리되고 '드는표'가 기보된 이두 첫 시작음이 林으로 상행선율로 진행되므로 이를 연결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이두에 기보된 '드는표'는 제4박부터 다섯 사설의 선율 진행이 같으므로 제1-3박의 선율을 의미한다. 따라서 '드는표'는 제1-2박에 林을 내준 후, 제3박에 南林 음형으로 마무리되는 林-南林 선율형이다. 즉, 林으로 시작해 南으로 올라갔다 다시 林으로 하행하는 형태이다.

(2) 언락(6.벽사창이) 제3장 [임은 아니오고]

언락(6.벽사창이) 제3장 [임은 아니오고] 사설은 일각이 네 각으로 확대된 곡이다. 이는 다음의 <예보 98>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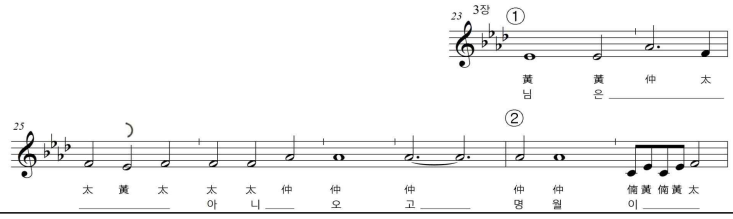
<예보 98> 언락(6.벽사창이) 제3장 [임은 아니오고] 선율

<연음표> 유형	선율 유형
①임은 아니오고 ②명월이 만정헌데 ③벽오동 젖은잎에 봉황이 와서 ④긴목을후여다가 이두: 깃다듬는 그림자이로다	

위의 <예보 98>에 따르면 <연음표>는 일각①·③·④에 기보된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각 번호에 따라 기보된 <연음표>의 선율형을 살펴보겠다.

첫 번째로 일각①의 <연음표>는 제7박에 ‘연음표’가 기보되어 있다. 이는 다음의 <예보 99>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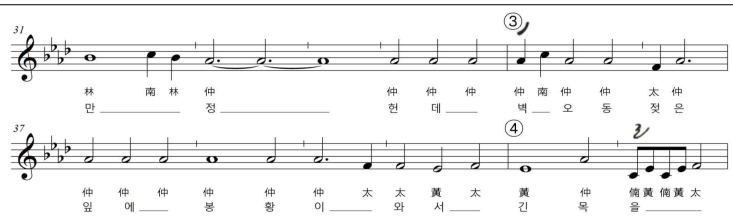
<예보 99> 언락(6.벽사창이) 제3장 일각① 선율

<연음표> 유형	선율 유형
①임은 아니오고 ②명월이	

<예보 99>의 제3장 일각①의 사설에서 ‘임은’은 제3박에서 사설이 끝나지만, 다른 곡과 비교했을 때 ‘임은’의 사설은 제9박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락 계열 음악에서 제3장의 사설이 확대된 후 ‘든흘림표’, 또는 ‘연음표’처럼 연결하는 <연음표>는 제7박 또는 제8박에 기보되는 경우도 있으며, 음형도 黃에서 太로 일정하게 진행하는 모습을 보인다.[89] ‘연음표’는 제2각의 제2박에 기보된다. ‘연음표’의 음형은 黃에서 太로 상행하는 유형이다. 이는 다음사설 ‘아니오고’의 시작음 太로 연결하기 위함이다.

두 번째로 일각③의 <연음표>는 첫 박에 ‘드는표’가 기보되어 있다. 이는 다음의 <예보 98>와 같다.

<예보 100> 언락(6.벽사창이) 제3장 일각③ 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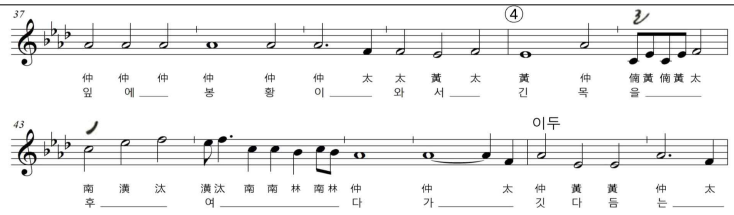
<연음표> 유형	선율 유형
만정헌데 **③벽오동 젖은잎에** 봉황이 와서 ④긴목을	

89) 상행하는 음형은 ‘든흘림표’에서 더 일정하게 나타난다. 본고의 우락 제3·5장 및 언락 제 3·5장의 ‘든흘림표’ 또는 ‘연음표’ 음형 참고.

<예보 100>에서 일각③의 ‘드는표’는 사설이 마무리되는 ‘벽오동 젖은 잎에’까지로 다음 각의 제8박까지의 선율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드는표’는 첫 박 仲南, 제2-3박 仲, 제4박 太仲으로 내준 후 제5-8박까지 仲으로 내주는 仲(南)-仲-太仲 선율형이다. 사설을 기준으로 선율의 골격음은 仲-太仲으로 仲으로 시작해 太로 하행했다 다시 仲으로 올라와 지속해주는 형태이다.

세 번째로 일각④의 <연음표>는 제4박에 ‘든흘림표’, 제6박에 ‘드는표’가 기보되어 있다. 이는 다음의 <예보 101>와 같다.

<예보 101> 언락(6.벽사창이) 제3장 일각④ 선율

<연음표> 유형	선율 유형
잎에 봉황이 와서 **④긴목을후여다가** 이두: 깃다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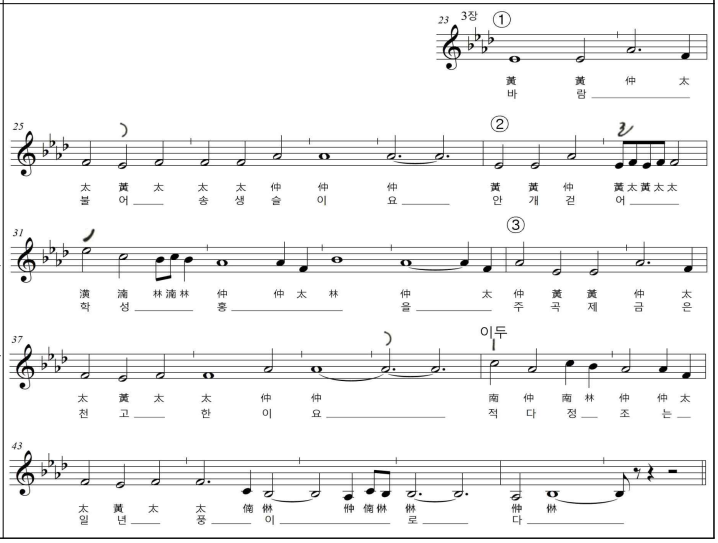
<예보 101>에서 일각④의 ‘든흘림표’는 가사가 마무리되는 제4박에 기보된다. ‘든흘림표’의 음형은 제4박 倘黃倘黃으로 倘에서 요성한 후 제5박에 太로 진행하는 倘黃倘黃-太 형태이다. 이는 제3박이 仲으로 마무리되고, 다섯째 각 첫 박 시작음이 南으로 상행하는 형태이므로 ‘든흘림표’도 이를 연결하기 위해 상행선율로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후여다가’에 기보된 ‘드는표’는 제6박 南, 제7박 潢, 제8박 汰, 제9박 潢汰, 제10박 南 제11박 林南林, 제12-15박 仲, 제16박 太로 내려오며 마무리되는 南-潢-汰-(潢)汰-南-林(南林)-仲-(太) 선율형이다. 사설을 기준으로 선율의 골격음은 南-潢-汰-南-林-仲으로 南으로 시작해 潢, 汰로 순차적으로 상행 후, 다시 南으로 내려와 林, 仲까지 차례로 하행하여 마무리되는 형태이다.

(3) 언락(8.푸른산중) 제3장 [바람불어 송생슬이요][90]

언락(8.푸른산중) 제3장 [바람불어] 사설은 일각이 세 각으로 확대된 곡이다. 이는 다음의 <예보 102>와 같다.

<예보 102> 언락(8.푸른산중) 제3장 [바람불어] 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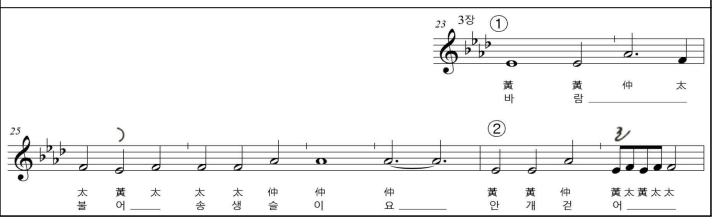
<연음표> 유형	선율 유형
①바람불어 송생슬이요 ②안개걷어 학성홍을 ③주곡제금은 천고한이요 이두: 적다정조는 일년풍이로다	

위의 <예보 102>에 따르면 <연음표>는 일각①－③과 이두에 기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각 번호에 따라 기보된 <연음표>의 선율형을 살펴보겠다.

첫 번째로 일각①의 <연음표>는 제7박에 ‘연음표’가 기보 되어 있다. 이는 다음의 <예보 103>과 같다.

90) 이하 [바람불어]로 표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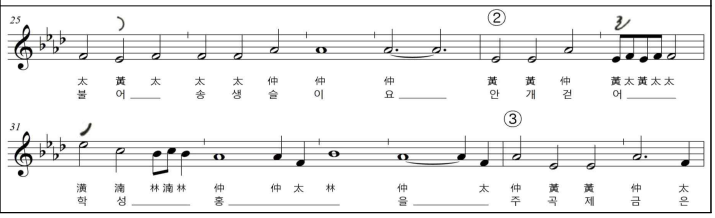
<예보 103> 언락(8.푸른산중) 제3장 일각① 선율형

<연음표> 유형	선율 유형
①바람불어 송생슬이요 ②안개걷어	

<예보 103>에서 일각①의 '연음표'는 사설이 끝나는 제7박에 기보된다. '연음표'의 음형은 黃에서 太로 상행하는 형태이다. 이는 다음 사설 '송생술이요'의 첫 시작음 太로 연결하기 위함이다.

두 번째로 일각②의 <연음표>는 제4박에 '든흘림표', 제6박에 '드는표'가 기보 되어 있다. 이는 다음의 <예보 104>와 같다.

<예보 104> 언락(8.푸른산중) 제3장 일각② 선율

<연음표> 유형	선율 유형
불어 송생슬이요 **②안개걷어 학성홍을** ③주곡제금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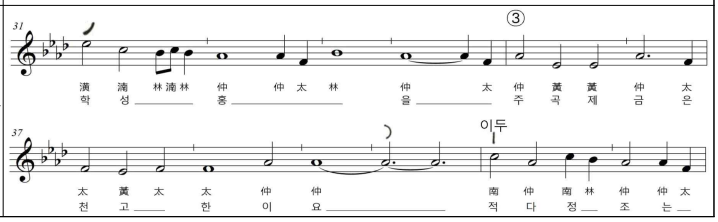
<예보 104>에서 일각②의 '든흘림표'는 사설이 마무리되는 제4박에 기보되어 있다. '든흘림표'의 음형은 요성 없는 黃에서 太로 상행하는 형태이다. 이는 제3박이 仲이고 '드는표'가 기보된 사설의 시작음이 潢으로 상행하는 선율형이므로, '든흘림표'는 이를 연결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학성홍을' 사설에 기보된 '드는표'는 제6박 潢으로 시작해 제7박 南, 제8박 林南林, 제9-10박 仲, 제11박 仲太, 제12-13박 林, 제14-15박 仲, 제16박 太로 하행하며 마무리되는 潢-南-(林南)林-仲-仲(太)-林-仲-(太)

선율형이다. 사설을 기준으로 선율의 골격음은 潢-南-林-仲-林-仲으로 潢으로 시작해 南과 林을 거쳐 仲까지 하행한 후, 林으로 올라왔다 仲으로 마무리되는 형태이다.

세 번째로 일각③의 <연음표>는 이두로 넘어가기 전 제14박에 '연음표'가 기보 되어 있다. 이는 다음의 <예보 10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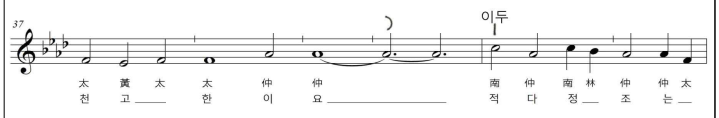
<예보 105> 언락(8.푸른산중) 제3장 일각③ 선율

<연음표> 유형	선율 유형
학성홍을 ③주곡제금은 천고한이요 이두: 적다정조는	

<예보 105>에서 일각③의 '연음표'는 사설이 끝나는 제14박에 기보된다. '연음표'의 음형은 仲을 지속하여 끌어주는 형태이다. 이는 '천고한이요'의 종지음이 仲이고, 이두의 사설 '적다정조는'의 첫 시작음이 '막내는표'가 기보된 南이므로 이를 연결하기 위함이다.

네 번째로 이두의 <연음표>는 이두 첫 박에 '막내는표'가 기보되어 있다. 이는 다음의 <예보 106>과 같다.

<예보 106> 언락(8.푸른산중) 제3장 이두 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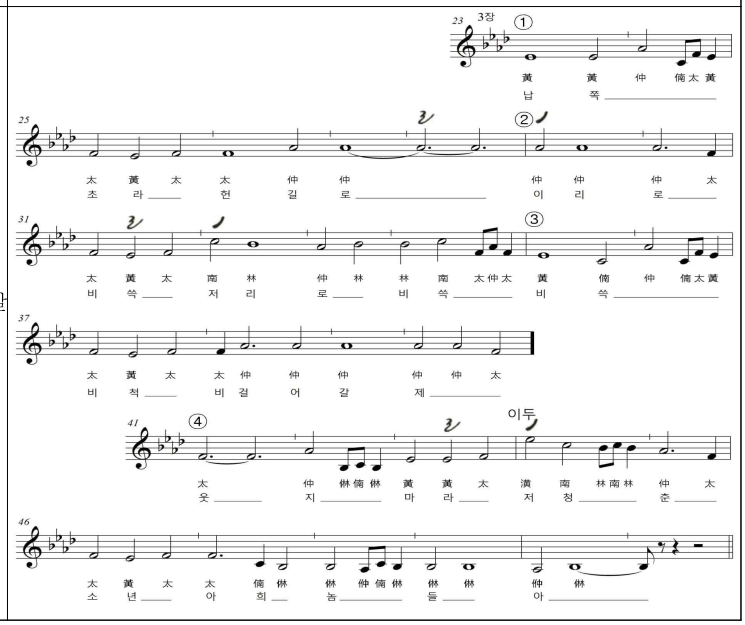
<연음표> 유형	선율 유형
천고한이요 이두: 적다정조는	

<예보 106>에서 이두의 ‘막내는표’는 제4박부터 언락 다섯 사설의 선율이 동일하므로 제1-3박까지의 선율을 나타낸다. ‘막내는표’는 南으로 시작해 제2박 仲, 제3박 南林으로 마무리되는 南-仲-南林 선율형이다. 따라서 이두에 기보된 ‘막내는표’는 南으로 시작해 仲으로 하행한 후 다시 南으로 올라와 林으로 하행하는 형태이다.

(4) 언락(20.아흔아홉) 제3장 [납쪽 초라한 길로][91]

언락(20.아흔아홉) 제3장 [납쪽] 사설은 일각이 총 네 각으로 확대된 곡이다. 이는 다음의 <예보 107>과 같다.

<예보 107> 언락(20.아흔아홉) 제3장 [납쪽] 선율

<연음표> 유형	선율 유형
①납쪽 초라헌길로 ②이리로 비쓱 저리로 비쓱 ③비쓱비척 비걸어갈제 ④웃지마라 이두: 저청춘 소년 아희놈들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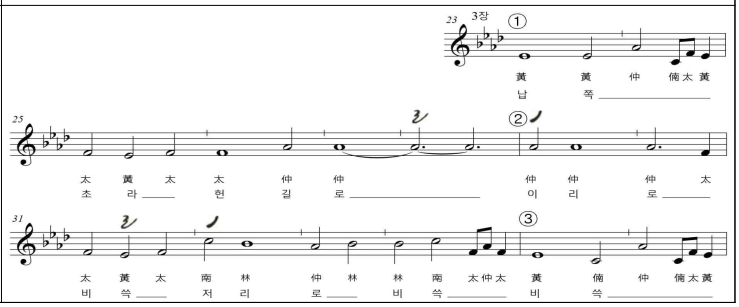
위의 <예보 107>에 따르면 <연음표>는 일각①, ②, ④와 이두에 기

91) 이하 [납쪽]으로 표기한다.

보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각 번호에 따라 기보된 <연음표>의 선율형을 살펴보겠다.

첫 번째로 일각①-②의 <연음표>는 제14박에 ‘든흘림표’, 일각② 첫 박에 ‘드는표’, 제7박 ‘든흘림표’, 제9박 ‘드는표’가 기보되어 있다. 이는 다음의 <예보 108>과 같다.

<예보 108> 언락(20.아흔아홉) 제3장 일각①－② 선율형

<연음표> 유형	선율 유형
①납쪽 초라헌길로 ②이리로 비쓱 저리로 비쓱 ③비쓱	

<예보 108>에서 일각①의 선율은 제12박부터 仲으로 제16박까지 지속하여 내준다. 따라서 ‘초라한 길로’와 ‘이리로’ 두 사설을 연결하는 ‘든흘림표’의 음형도 仲으로 볼 수 있다. ‘드는표’가 기보된 사설의 시작음도 仲으로 시작하므로 두 사설의 종지음과 시작음은 같은음으로 진행하게 되며, 이에 따라 ‘든흘림표’의 음형도 같은음 仲으로 연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②의 ‘드는표’는 제1-4박까지 仲을 내준 후, 제5박에서 太로 하행해 다음 사설 ‘비쓱’에서 太와 黃으로 마무리되는 仲-太-黃 선율형이다. 즉, 仲으로 시작해 太, 黃으로 순차적으로 하행하는 형태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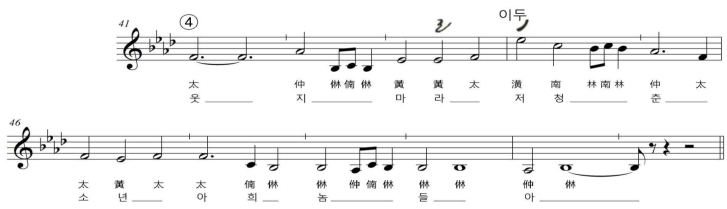
일각②의 ‘든흘림표’는 사설의 선율이 마무리되는 제7박에 기보되며, 음형은 요성 없이 黃에서 太로 상행하는 형태이다. 이는 ‘든흘림표’앞의 사설이 太이고, ‘드는표’가 기보된 제9박의 시작음이 南으로 상행하는 형

태로 이를 연결하기 위함이다.

제9박의 사설 ‘저리로’에 기보된 ‘드는표’는 南으로 시작해 제10-11박 林, 제12박 仲, 제13-14박 林, 제15박 南, 제16박 太仲太로 마무리되는 南-林-仲-林-南-(太仲)太 선율형이다. 사설을 기준으로 선율의 골격음은 南-林-仲-林-南-太로, 南으로 시작해 林, 仲으로 하행한 후 다시 林, 南으로 하행했다 太로 내려오며 마무리되는 형태이다.

두 번째로 일각④와 이두의 <연음표>는 일각④의 제8박에 ‘든흘림표’, 이두 첫 박에 ‘드는표’가 기보 되어 있다. 이는 다음의 <예보 109>와 같다.

<예보 109> 언락(20.아흔아홉) 제3장 일각④와 이두 선율형

<연음표> 유형	선율 유형
④옷지마라 이두: **저청**춘 소년 아희놈들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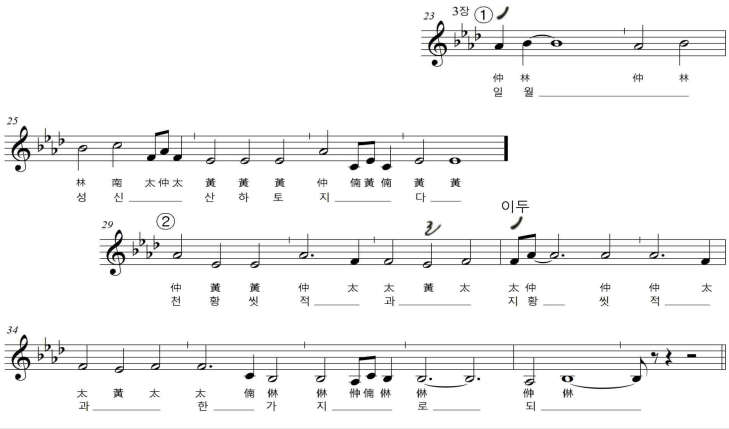
<예보 109>에서 일각④는 제9박에 해당하는 장단에서 첫 박이 시작되는 반각이며, ‘든흘림표’는 앞의 사설이 마무리되는 제8박에 기보된다. ‘든흘림표’의 음형은 요성 없이 黃에서 太로 상행하는 유형이다. 이는 ‘든흘림표’ 앞 사설의 음이 太, ‘드는표’가 기보된 이두의 시작음이 潢으로 진행하므로 ‘든흘림표’도 상행 음형의 형태가 나타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두에 기보된 ‘드는표’는 제4박부터 다섯 사설의 선율이 동일하게 진행하므로 제1-3박까지의 선율을 뜻한다. 따라서 이두의 ‘드는표’는 제1박 潢, 제2박 南, 제3박 林南林으로 마무리되는 潢-南-(林南)林 선율형이다. 사설을 기준으로 선율의 골격음은 潢-南-林으로 潢에서 시작하여 南, 林으로 순차적으로 하행하는 선율형이다.

(5) 언락(25.일월성신) 제3장 [일월성신 산하토지다][92]

언락(25.일월성신) 제3장 [일월성신] 사설은 일각이 두 각으로 확대된 곡이다. 이는 다음의 <예보 110>과 같다.

<예보 110> 언락(25.일월성신) 제3장 [일월성신] 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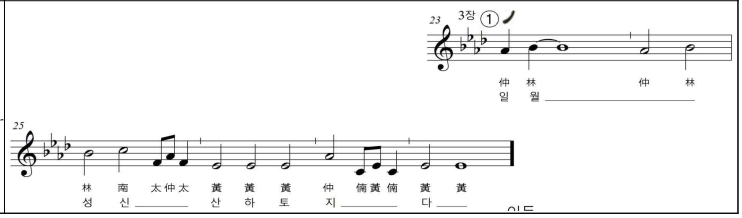
<연음표> 유형	선율 유형
①일월성신 산하토지다 ②천황씻적과 이두: 지황씻적과 한가지로되	

위의 <예보 110>에 따르면 <연음표>는 일각①－②와 이두에 기보되어 있다. 따라서 각 번호에 따라 기보된 <연음표>의 선율형을 살펴보겠다.

첫 번째로 일각①의 <연음표>는 첫 박에 ‘드는표’가 기보되어 있다. 이는 다음의 <예보 111>과 같다.

92) 이하 [일월성신]으로 표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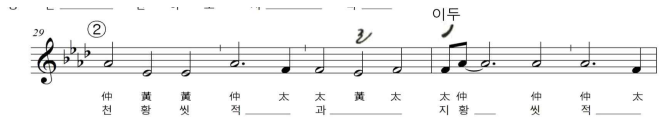
<예보 111> 언락(25.일월성신) 제3장 일각① 선율형

<연음표> 유형	선율 유형
①일월성신 산하토지다	

<예보 111>에서 일각①의 '드는표'는 사설이 마무리되는 '일월성신'까지로 제8박까지의 선율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드는표'는 첫 박 仲林으로 시작해 제2-3박 林, 제4박 仲, 제5박 林을 내준 후 제6 林, 제7박 南, 제8박 太仲太로 仲林-林-仲-林-林-南-(太仲)太 선율형이다. 사설을 기준으로 '드는표' 선율의 골격음은 仲林-仲-林-南-太로 仲林으로 시작해 仲으로 내려와 林 南으로 상행한 후 太로 하행하여 마무리되는 형태이다.

두 번째로 일각②와 이두에 기보된 <연음표>는 제7박에 '든흘림표', 이두 첫 박에 '드는표'가 기보되어 있다. 이는 다음의 <예보 112>와 같다.

<예보 112> 언락(25.일월성신) 제3장 일각② 선율형

<연음표> 유형	선율 유형
②천황씻적과 이두: 지황씻적과 한가지로되	

<예보 112>에서 일각②의 사설은 제9박에 해당하는 장단부터 첫 박이 시작되는 반각이며, '든흘림표'는 앞의 사설이 마무리되는 제7박에 기보된다. '든흘림표'의 음형은 요성 없이 黃에서 太로 상행하는 유형이다. 이는 '든흘림표' 앞 사설의 음이 太, '드는표'가 기보된 이두의 시작음이 潢

으로 진행하므로 ‘든흘림표’도 상행 음형의 형태가 나타나는 것으로 풀이 된다.

이두에 기보된 ‘드는표’는 제4박부터 다섯 사설의 선율이 동일하게 진행하므로 제1-3박까지의 선율을 뜻한다. 따라서 이두의 ‘드는표’는 제1박에 太仲으로 올려준 후 제3박까지 仲을 지속하여 내주는 太仲 선율형이다. 즉, 짧은 박의 太로 시작해 仲으로 올라가 지속하는 형태이다.

이상 언락 제3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3장은 『하규일보』에 실린 언락 다섯 곡 모두 일각이 확대되어 <연음표>가 기보된 위치 또한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를 곡별로 살펴보면 언락(3.백구는) 제3장은 일각이 총 세 각으로 확대되었으며, 일각① 첫 박에 ‘막내는표’가 기보되어 있다. ‘막내는표’는 시작음이 黃, 종지음이 太인 선율형이다. 언락(6.벽사창이) 제3장은 일각이 네 각으로 확대되었으며, 일각③의 첫 박과 일각④의 제6박에 각각 ‘드는표’가 기보되어 있다. 일각③ 첫 박은 시작음과 종지음이 모두 仲이고, 일각④ 제6박은 시작음 南, 종지음 仲으로 두 가지 선율형이 나타났다. 언락(8.푸른산중) 제3장은 일각이 세 각으로 확대되었으며, 일각② 제6박에 ‘드는표’가 기보되어 있다. ‘드는표’의 선율형은 潢으로 시작해 仲으로 마무리되는 유형이다. 언락(20.아흔아홉) 제3장은 일각이 총 네 각으로 확대되었으며, 일각②의 첫 박과 제9박에 각각 ‘드는표’가 기보되어 있다. 첫 박의 ‘드는표’는 시작음 南, 종지음 太인 선율형이고, 제9박은 시작음 仲, 종지음 黃인 선율형이다. 마지막으로 언락(25.일월성신) 제3장 [일월성신] 사설은 일각이 두 각으로 확대되었으며, 일각①의 첫 박에 ‘드는표’가 기보되어 있다. ‘드는표’의 선율형은 仲林으로 시작해 太로 마무리되는 유형이다.

제3장 이두는 ‘드는표’와 ‘막내는표’의 선율형을 확인할 수 있다. ‘드는표’는 시작음 潢, 종지음이 林인 선율형, 林으로 시작해 南林으로 마무리되는 선율형, 太仲으로 바로 들어준 후 仲으로 지속되는 세 가지 선율형으로 모두 다르게 나타났다. ‘막내는표’는 南으로 시작해 南林으로 마무리되는 선율로 ‘드는표’가 기보된 사설 중 林 또는 太仲으로 시작하는 선

율형보다 오히려 시작음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든흘림표’의 음형은 倘黃倘黃-太로 倘을 요성한 후 太로 상행하는 유형, 요성 없이 黃에서 太로 상행하는 유형, 仲을 뻗어주는 유형 세 가지로 나타났다. ‘든흘림표’가 倘에서 太, 또는 黃에서 太로 진행하는 음형일 경우, 앞 사설의 종지음과 ‘드는표’가 기보된 뒷 사설의 시작음은 상행선율로 진행하므로 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였다. 仲을 뻗어주는 유형은 앞 사설의 종지음과 뒷 사설의 시작음이 모두 仲으로 동일하게 선율 진행을 했으므로, ‘든흘림표’도 같은음으로 연결하였다. 언락 제3장에서도 우락과 마찬가지로 ‘든흘림표’의 요성이 생략되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이는 자수가 많아지고 장단은 빨라지면서 ‘든흘림표’의 역할이 축소된 것으로 풀이된다.

‘연음표’의 음형은 黃에서 太로 상행하는 유형과 仲 한음으로 지속하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黃에서 太로 상행하는 음형인 경우, ‘연음표’ 다음 사설의 시작음은 太로 연결하기 위함이다. 仲으로 지속하는 음형인 경우, ‘연음표’의 앞 사설의 종지음이 仲, 다음 사설의 시작음이 ‘막내는표’가 기보된 南으로 상행선율형이므로 이를 연결하기 위함이다.

④ 제4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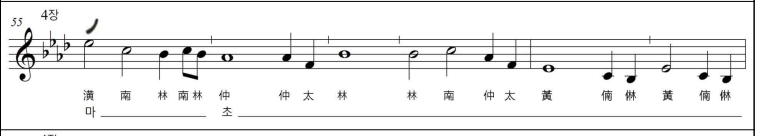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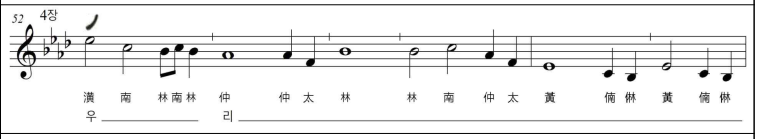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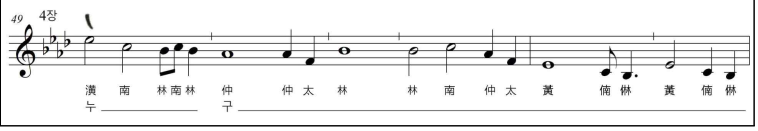
언락 제4장의 <연음표>는 ‘드는표’가 기보된 유형과 ‘누르는표’가 기보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드는표’가 기보된 사설은 언락(6.벽사창이) [마초아]와 (20.아흔아홉) [우리도]이고, 언락(8.푸른산중) [누구서] 사설은 ‘누르는표’가 기보되어 있지만 선율은 ‘드는표’가 기보된 노래와 같다.

‘누르는표’가 기보된 사설은 언락(3.백구는) [대취코]와 (25.일월성신) [사람은] 사설로 세 가지이다.

따라서 ‘드는표’와 ‘누르는표’가 기보된 사설을 나눠서 보되, 언락(8.푸른산중) [누구서] 사설은 ‘드는표’가 기보된 사설과 선율이 같으므로 ‘드는표’가 기보된 사설과 같이 보도록 하겠다.

제4장에서 ‘드는표’가 기보된 사설은 언락(6.벽사창이) [마초아]·(20.아흔아홉) [우리도]이며, 언락(8.푸른산중) [누구서] 사설은 ‘누르는표’가 있으나 ‘드는표’의 선율과 같다. 세 사설의 <연음표>에 따른 선율형은 다음의 <예보 113>과 같다.

<예보 113> 언락(6.벽사창이)[마초아]·(20.아흔아홉)[우리도]·(8.푸른산중)[누구서] 제4장 ‘드는표’의 선율 유형

<연음표> 유형	선율 유형
마초아	
우리도	
누구서	

<예보 113>에서 제4장에 기보된 ‘드는표’는 潢에서 시작해 南을 거쳐 林南林으로 내려오는 潢-南-林南林 선율형이다. 사설을 기준으로 선율의 골격음은 潢-南-林으로 潢으로 시작해 南을 거쳐 林까지 순차적으로 하행하는 형태이다. 제4박부터 ‘누르는표’가 기보된 노래와 동일선율로 진행하므로 ‘드는표’는 제3박까지의 선율을 가리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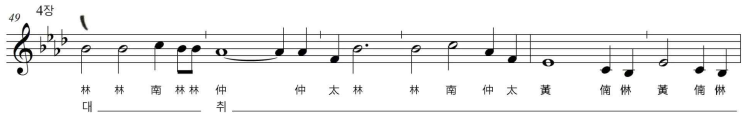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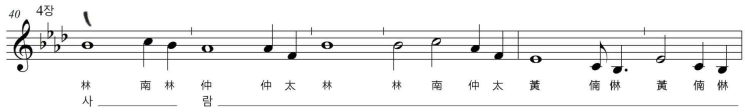
언락(8.푸른산중) [누구서]의 경우, ‘누르는표’가 기보되어 있지만, 선율은 ‘드는표’와 같다. 이는 가곡원류의 사설에 <연음표>를 오기하였을 가능성이 있다.[93]

제4장에서 ‘누르는표’가 기보된 사설은 언락(3.백구는) [대취코], 언락

93) ‘언락(8.푸른산중) [누구서]의 경우 『가곡원류』와 『협률대성』의 <연음표> 표기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 있으나, 현행 악곡과 비교하면 ’드는표‘로 분류되었다.’, 변미혜, 『사설에 따른 가곡 선율의 변형(Ⅴ), 『한국음악연구』 제36집, 2004, 164쪽.

(25.일월성신) [사람은]으로 두 가지이다. 두 사설의 <연음표>와 그에 따른 선율형은 다음의 <예보 114>와 같다.

<예보 114> 언락(3.백구는)[대취코]·(25.일월성신)[사람은] 제4장 '누르는표'의 선율 유형

<연음표>유형	선율 유형
대취코	
사람은	

제4장에서 '누르는표'는 林으로 시작하여 南林으로 진행하는 林-南林 선율형이다. 즉, 林으로 시작해 南으로 상행하여 林으로 마무리되는 선율형으로, '드는표'가 기보된 제4장의 선율보다 낮게 시작함을 알 수 있다.

⑤ 제5장

언락(3.백구는)·(6.벽사창이)의 제5장은 길어진 사설에 따라 일각의 선율이 확대된다. 사설이 확대된 경우, 노래마다 사설의 자수가 달라짐에 따라 일각의 확대 형태도 달라져 전체적인 유형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제5장 사설이 확대되지 않은 기본선율형의 곡들을 먼저 분석한 후, 확대된 사설의 선율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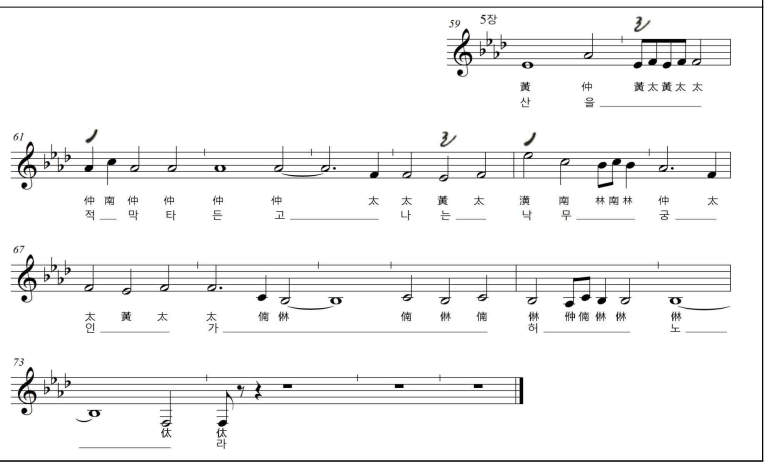
(1) 제5장 기본 선율형 사설

제5장 일각이 확대되지 않은 곡은 언락(8.푸른산중)·(20.아흔아홉)·(25.일월성신)으로 총 세 곡이다. 따라서 세 곡의 선율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 번째로 언락(8.푸른산중) 제5장 [산을 적막타든고][94] 사설은 일각

제4박에 ‘든흘림표’, 제6박 ‘드는표’, 제15박 ‘든흘림표’, 이두 첫 박에 ‘드는표’가 기보되어 있다. 이는 다음의 <예보 115>와 같다.

<예보 115> 언락(8.푸른산중) 제5장 [산을] 선율형

<연음표> 유형	선율 유형
산을 적막타든고 나는 이두: 낙무궁인가 허노라	

<예보 115>에서 ‘산을’과 ‘적막타든고’ 사이의 ‘든흘림표’는 첫 각의 요성이 시작되는 제4박에 기보된다. ‘든흘림표’의 음형은 제4박 黃太黃太로 黃에서 요성을 한 후, 제5박에서 太로 마무리하므로, 黃에서 요성한 후 太로 상행하는 음형이다. 이는 둘째 각에 ‘드는표’가 기보된 사설 ‘적막타든고’의 시작음이 仲南으로 상행선율형이므로 ‘든흘림표’의 음형은 이를 연결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일각 제6박에‘드는표’는 제6박 仲南, 제7-12박 仲, 제13박 仲太로 마무리되는 仲南-仲-仲(太) 선율형이다. 사설을 기준으로 선율의 골격음은 仲南-仲으로 仲으로 시작해 南으로 상행한 후, 다시 仲으로 내려와 지속하며 마무리하는 선율형이다.

‘나는’과 ‘낙무궁’ 사이의 ‘든흘림표’는 ‘나는’ 사설의 끝음절 ‘는’에 해당하는 일각 제15박에 기보된다. ‘든흘림표’의 음형은 요성 없이 黃으로 시작하며, 太로 상행하여 마무리되는 형태이다. 이는 ‘드는표’가 기보된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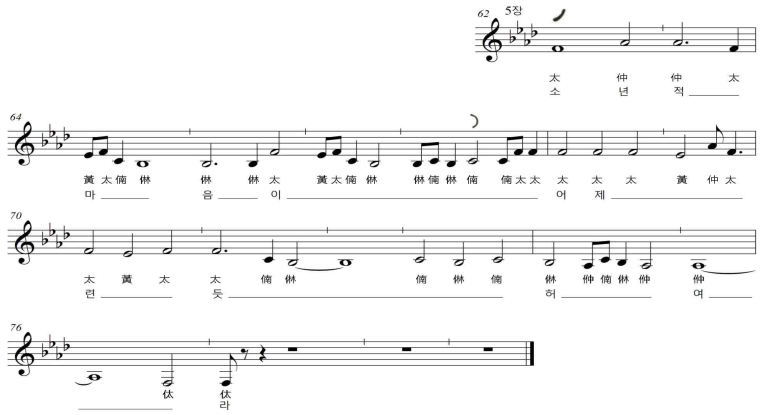
94) 이하 [산을]로 표기한다.

두의 사설 ‘낙무궁’의 첫 시작음이 潢으로 상행선율형으로 ‘든흘림표’가 이를 연결하기 위함이다.

이두에 기보된 ‘드는표’는 이두의 제4박부터 다섯 곡의 선율이 모두 동일하므로 제1-3박까지의 선율을 의미한다. ‘드는표’는 潢으로 시작해 제2박 南, 제3박 林南林으로 마무리되는 潢-南-(林南)林 선율형이다. 선율의 골격음은 潢-南-林으로 潢으로 시작해 南을 거쳐 林까지 순차적으로 하행하는 형태이다.

두 번째로 언락(20.아흔아홉) 제5장 [소년적 마음이][95] 사설은 일각 첫 박에 ‘드는표’, 제15박에 ‘연음표’가 기보되어 있다. 이는 다음의 <예보 116>과 같다.

<예보 116> 언락 제20번(아흔아홉) 제5장 <소년적> 기본형 선율 유형

<연음표> 유형	선율 유형
소년적 마음이 어제런 듯 허여라	

<예보 116>에서 일각 첫 박의 ‘드는표’는 제1-2박 太로 시작해 제3-4박 仲, 제5박 太로 하행하며 마무리되는 太-仲-太 선율형이다. 즉, 太로 시작해 仲으로 상행한 후 다시 太로 하행하며 마무리하는 형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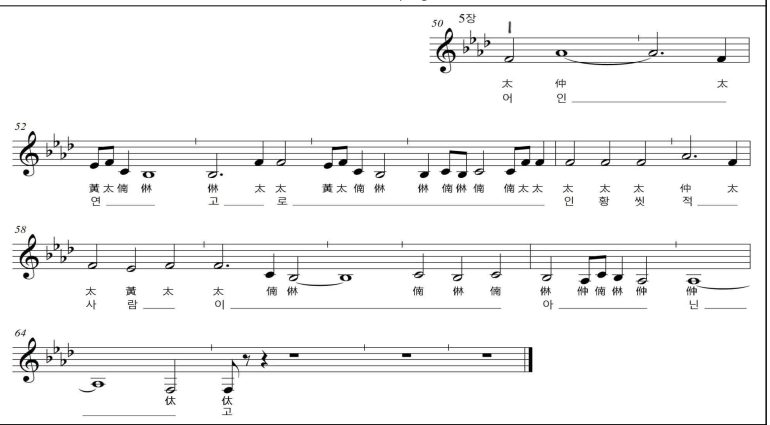
‘마음이’와 ‘어제’ 사이의 ‘연음표’는 앞의 사설 ‘마음이’ 선율이 마무리

95) 이하 [소년적]으로 표기한다.

되는 제15박에 기보된다. ‘연음표’의 음형은 제15박 倘, 제16박 倘太太로 낮은음인 倘에서 太로 상행하는 유형이다. 앞 사설 ‘마음이’의 종지음이 倧이고, 이두의 사설 ‘어제런 듯’의 시작음이 太이므로 ‘연음표’는 이를 연결하기 위해 상행하는 음형으로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세 번째로 언락(25.일월성신) 제5장 [어인연고로] 사설은 일각 첫 박에 ‘막내는표’가 기보되어 있다. 이는 다음의 <예보 117>과 같다.

<예보 117> 언락(25.일월성신) 제5장 [어인연고로] 기본형 선율 유형

<연음표> 유형	선율 유형
어인연고로 인황씻적 사람이 아닌고	

<예보 117>에서 첫 각의 ‘막내는표’는 사설을 기준으로 ‘어인’까지의 선율을 의미한다. 따라서 ‘막내는표’는 太로 시작해 제2-4박 仲, 제5박 太로 하행하며 마무리하는 太-仲-太 선율형이다. 즉, 太로 시작해 仲으로 상행한 후 다시 太로 하행하며 마무리하는 선율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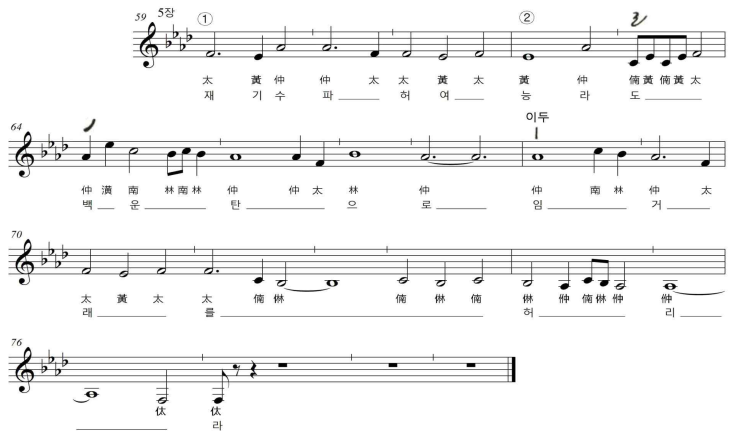
언락(25.일월성신) 제5장 [어인] 사설과 (20.아흔아홉)의 제5장 [소년적] 사설의 첫 각은 선율의 골격음과 음형의 유형이 모두 같다. 그러나 두 노래의 <연음표>는 각각 ‘막내는표’와 ‘드는표’로 다르게 기보되어있다. 이는 <연음표>가 오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명확한 사실을 알

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분석은 우선 보류해둔다.

(2) 제5장 확대 선율형 사설

제5장의 사설이 확대된 곡은 언락(3.백구는)의 [재기수파하여]와 언락(6.벽사창이)의 [밤일세만정]으로 두 곡이다. 첫 번째로 언락(3.백구는)의 제5장 [재기수파하여] 사설은 일각이 두 각으로 확대된 곡으로 이는 다음의 <예보 118>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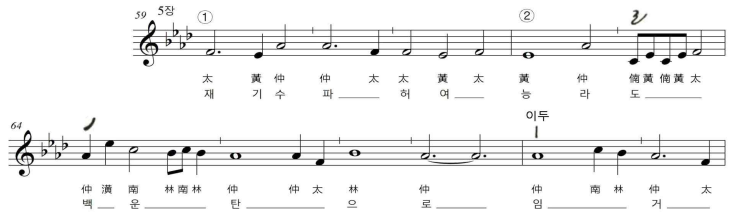
<예보 118> 언락(3.백구는) 제5장 [재기수파하여] 선율

<연음표> 유형	선율 유형
①재기수파허여 ②능라도백운탄으로 이두: 임거래를 허리라	

위의 <예보 118>에 따르면, <연음표>는 일각②와 이두에 기보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각 번호에 따라 기보된 <연음표>의 선율형을 살펴보겠다.

첫 번째로 일각②의 <연음표>는 제4박에 '든흘림표', 제6박에 '드는표'가 기보되어 있다. 이는 다음의 <예보 119>와 같다.

<예보 119> 언락(3.백구는) 제5장 일각② 선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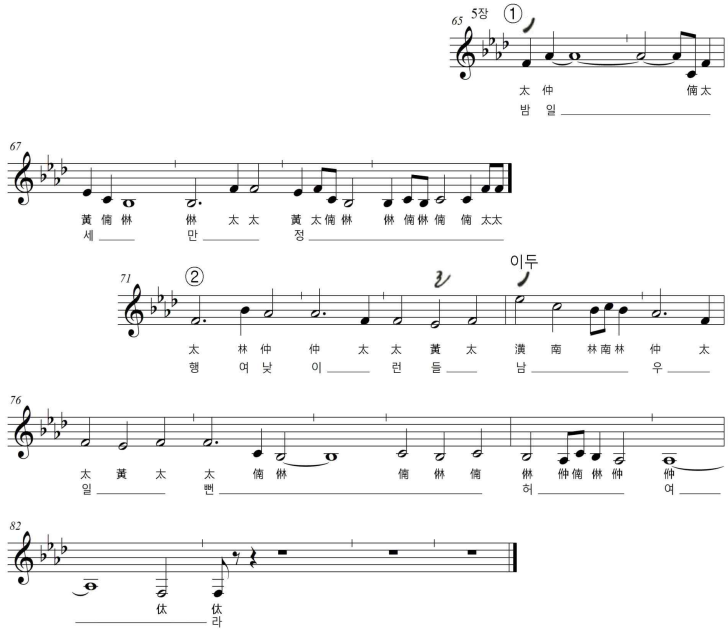
<연음표> 유형	선율 유형
①재기수파허여 **②능라도백운탄으로** 이두: 임거	

<예보 119>에서 일각②의 '든흘림표'는 '능라도' 사설이 마무리되는 제4박에 기보된다. '든흘림표'의 음형은 제4박 倘黃倘黃으로 倘에서 요성한 후 제5박에 太로 상행하는 음형이다. 이는 다음 사설 '백운탄으로'에 기보된 '드는표'의 시작음이 仲潢으로 상행하는 선율형으로 이를 연결하기 위함이다.

일각②의 사설 '백운탄으로'에 기보된 '드는표'는 제6박 仲潢, 제7박 南, 제8박 林南林, 제9-10박 仲, 제11박 仲太, 제12-13박 林, 제14-16박 仲으로 마무리되는 仲潢-南-(林南)林-仲-仲(太)-林-仲 선율형이다. 사설을 기준으로 선율의 골격음은 仲潢-南-林-仲-林-仲으로 仲으로 시작해 潢으로 상행한 후, 南, 林, 仲으로 순차적으로 하행하고 다시 林과 仲을 내주며 마무리하는 형태이다.

두 번째로 언락(6.벽사창이)의 제5장 [밤일세만정] 사설은 일각이 두 각으로 확대된 곡으로 이는 다음의 <예보 120>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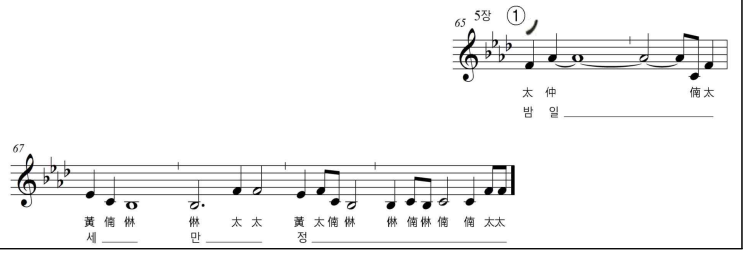
<예보 120> 언락(6.벽사창이) 제5장 [밤일세만정] 선율

<연음표> 유형	선율 유형
①밤일세만정 ②행여 낮이런들 이두: 남우일번 허여라	

위의 <예보 120>에 따르면 <연음표>는 일각①－②와 이두에 기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각 번호에 따라 기보된 <연음표>의 선율형을 살펴보겠다.

첫 번째로 일각①의 <연음표>는 첫 박에 ‘드는표’가 기보 되어있다. 이는 다음의 <예보 12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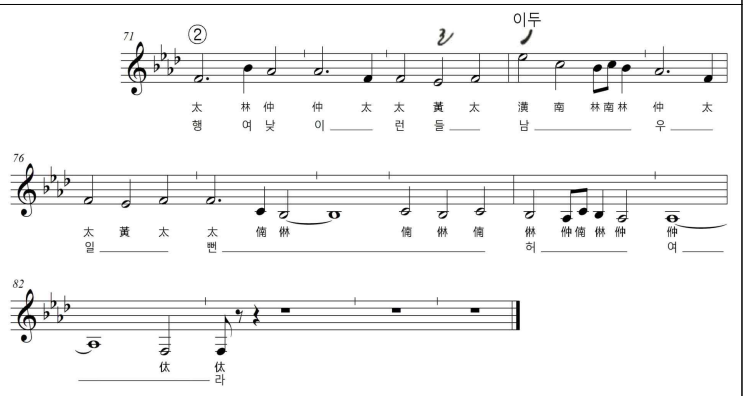
<예보 121> 언락(6.벽사창이) 제5장 일각① 선율형

<연음표> 유형	선율 유형
①밤일세만정	

<예보 121>에서 일각① 첫 박의 ‘드는표’는 사설을 기준으로 제8박까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드는표’의 선율형은 첫 각 太仲으로 시작해 제2-4박까지 仲으로 지속한 후, 제5박 倘太, 제6박 黃倘, 제7-8박 林,으로 마무리되는 太仲-(倘)太-黃倘-林 선율형이다. 사설을 기준으로 선율의 골격음은 太仲-太-黃倘-林으로 太에서 仲으로 올라간 후, 다시 太, 黃, 倘, 林까지 순차적으로 하행하는 형태이다.

두 번째로 일각②와 이두의 <연음표>는 일각②의 제7박에 ‘든흘림표’, 이두 첫 박에 ‘드는표’가 기보되어 있다. 이는 다음의 <예보 122>와 같다.

<예보 122> 언락(6.벽사창이) 제5장 일각② 및 이두 선율형

<연음표> 유형	선율 유형
②행여 낮이런들 이두: 남우일번 허여라	

<예보 122>에서 일각②는 첫 박이 제9박에 해당하는 장단부터 시작되는 반각이며, ‘든흘림표’는 ‘행여 낮이런들’ 사설의 마지막 음절이 끝나는 제7박에 기보된다. ‘든흘림표’의 음형은 요성 없이 黃으로 시작한 후, 太로 상행하는 선율형이다. 이는 ‘드는표’가 기보된 이두의 사설 ‘남우일번’의 시작음이 潢으로 상행하므로 이를 연결하기 위함이다.

이두에 기보된 ‘드는표’는 제5장 이두 제4박부터의 선율이 다섯 곡 모

두 동일하므로 제1-3박까지의 선율을 의미한다. 따라서 '드는표'는 潢으로 시작해 제2박 南, 제3박 林南林으로 마무리되는 潢-南-(林南)林 선율형이다. 선율의 골격음은 潢-南-林으로 潢으로 시작해 南을 거쳐 林까지 순차적으로 하행하는 형태이다.

지금까지 언락 5장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5장은 일각이 확대된 언락(3.백구는)·(6.벽사창이) 두 곡과 확대되지 않은 언락(8.푸른산중)·(20.아흔아홉)·(25.일월성신) 세 곡으로 나뉘었다. 제5장의 일각이 확대되지 않은 세 곡의 <연음표>는 일각의 첫 박과 제6박에 기보된 두 가지 경우로 나뉘었다. 일각 첫 박은 '드는표'와 '막내는표'의 선율형을 확인할 수 있다. 두 <연음표>의 선율형은 太-仲-太로 동일하게 나타나 위의 선율 골격음이 제5장 일각 첫 박에 나타날 경우 두 <연음표>의 선율형일 가능성을 보였다. 다만 『가곡원류』에 기보된 <연음표>와 『하규일보』의 선율만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의 <연음표>에 따른 명확한 선율형은 보류하였다. 일각 제6박은 '드는표'가 기보되어 있으며, 仲南-仲으로 仲에서 南으로 들어준 후 仲으로 마무리되는 선율형 한 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기본형에서 드러난 <연음표>의 선율형을 바탕으로 확대된 제5장 일각의 선율을 곡별로 살펴보면, 언락(3.백구는)의 제5장은 일각이 두 각으로 확대되었으며 일각②의 제6박에 '드는표'가 기보되어 있다. 선율 골격음은 시작음 仲潢으로 仲에서 潢으로 들어 올린 후 仲으로 하행해 마무리되는 유형이며, 기본형의 제5장 일각에서는 이러한 선율형이 나타나지 않았다. 언락(6.벽사창이)의 제5장은 일각이 두 각으로 확대되었으며, 일각①의 첫 박에 '드는표'가 기보되어 있다. 선율 골격음은 太仲-太로 太에서 仲으로 들어올린 후, 太로 하행해 마무리되는 유형이며, 기본형의 제5장 일각 첫 박 '드는표'와 박자는 다르지만 같은 형태임을 알 수 있다.

제5장 이두는 '드는표'와 '막내는표' 두 가지 선율형을 확인할 수 있다. '드는표'는 潢-南-林으로 潢으로 시작해 南을 거쳐 林까지 순차적으로

하행하고, ‘막내는표’는 仲-南林으로 仲으로 시작해 南으로 상행하여 林으로 마무리되되는 선율형이다.

제5장의 ‘든흘림표’와 ‘연음표’는 모두 연결유형의 <연음표>가지만 ‘든흘림표’는 ‘드는표’ 앞에 기보되었고, ‘연음표’는 ‘막내는표’ 앞에 기보되어 있거나 다음 사설의 <연음표>가 생략되어있기도 하였다. ‘든흘림표’의 음형은 倘또는 黃에서 요성한 후 太로 상행하는 경우와, 요성 없이 黃에서 太로 상행하는 두 가지 경우로 나타났다. 저음에서 요성한 후 太로 상행하는 경우는 뒤의 사설의 ‘드는표’가 다음 각의 첫 박에 위치하였을 때 나타났으며, ‘드는표’가 ‘든흘림표’와 같은 각에 기보되었을 경우 요성이 생략되어 나타났다.

‘연음표’는 倘에서 太로 상행하는 음형이였는데, 이는 앞 사설의 종지음이 林이고 뒤의 사설의 시작음이 太였으므로, 이를 연결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⑥ 언락 소결

『가곡원류』 남창 언락에 기보된 <연음표>와 그에 따른 선율형을 음높이를 나타내는 <연음표>와 연결을 나타내는 <연음표>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언락 초장 초두는 ‘드는표’의 선율형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곡에 따라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뉘었다. 첫 번째는 仲潢으로 시작해 南과 潢을 거쳐 다시 南, 林, 仲으로 순차적으로 하행하는 유형으로 언락(3.백구는)에서 나타났다. 두 번째는 南潢으로 시작해 南, 林으로 순차적으로 하행하는 형태로 언락(25.일월성신)에서 볼 수 있다. 세 번째는 南潢으로 시작해 南, 林, 仲으로 순차적으로 하행하는 형태로 위의 두 곡을 제외한 언락 초장 초두의 ‘드는표’ 선율형으로 나타난다. 다섯 곡에 기보된 ‘드는표’는 선율이 유사하지만, 골격음의 차이를 조금씩 보였는데 이는 자수와 사설을 부를 때 박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추측하였다.

언락 초장 이두는 ‘드는표’와 ‘막내는표’ 두 <연음표>의 선율형을 확인할 수 있다. ‘드는표’는 南汰 또는 汰로 시작해 南으로 하행했다 다시 汰로 마무리되고, ‘막내는표’는 南으로 시작해 汰로 상행한 후 潢으로 마무리되는 선율형으로 나타났다. 이두에 기보된 ‘막내는표’의 시작음은 南으로 높은 편이지만, 같은 박에 ‘드는표’가 기보될 경우 시작음이 汰, 또는 南汰 음형으로 더 높아지므로, 상대적으로 낮은음인 南은 ‘막내는표’로 기보한 것으로 추측된다.

제2장의 초두는 첫 박과 제4박에 <연음표>가 기보된 두 가지 경우로 나뉜다. 초두 첫 박은 ‘드는표’와 ‘막내는표’ 두 <연음표>의 선율형을 확인할 수 있다. ‘드는표’는 潢으로 시작해 南, 林, 仲으로 순차적으로 하행한 후 다시 林과 仲을 거쳐 마무리되고, ‘막내는표’는 林으로 시작해 南으로 상행한 후 仲, 太로 하행하고 다시 林으로 상행하여 仲으로 마무리되는 선율형이며, 시작음이 ‘드는표’보다 낮음을 알 수 있다. 초두 제4박은 ‘드는표’가 기보되어 있으며, 太로 시작해 南, 林, 仲으로 하행하는 유형과 太潢으로 높이 들어주며 시작해 마찬가지로 南, 林, 仲으로 하행하는 두 선율형으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제2장의 이두는 ‘드는표’가 기보되어 있으며, 仲에서 黃으로 하행하는 형태로 선율형이 동일하였다.

제3장은 『하규일보』에 실린 언락 다섯 곡 모두 일각이 확대되어 <연음표>가 기보된 위치 또한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를 곡별로 살펴보면 언락(3.백구는) 제3장은 일각이 총 세 각으로 확대되었으며, 일각① 첫 박에 ‘막내는표’가 기보되어 있다. ‘막내는표’는 시작음이 黃, 종지음이 太인 선율형이다. 언락(6.벽사창이) 제3장은 일각이 네 각으로 확대되었으며, 일각③의 첫 박과 일각④의 제6박에 각각 ‘드는표’가 기보되어 있다. 일각③ 첫 박은 시작음과 종지음이 모두 仲이고, 일각④ 제6박은 시작음 南, 종지음 仲으로 두 가지 선율형이 나타났다. 언락(8.푸른산중) 제3장은 일각이 세 각으로 확대되었으며, 일각② 제6박에 ‘드는표’가 기보되어 있

다. ‘드는표’의 선율형은 潢으로 시작해 仲으로 마무리되는 유형이다. 언락(20.아흔아홉) 제3장은 일각이 총 네 각으로 확대되었으며, 일각②의 첫 박과 제9박에 각각 ‘드는표’가 기보되어 있다. 첫 박의 ‘드는표’는 시작음 南, 종지음 太인 선율형이고, 제9박은 시작음 仲, 종지음 黃인 선율형이다. 마지막으로 언락(25.일월성신) 제3장 [일월성신] 사설은 일각이 두 각으로 확대되었으며, 일각①의 첫 박에 ‘드는표’가 기보되어 있다. ‘드는표’의 선율형은 仲林으로 시작해 太로 마무리되는 유형이다.

제3장 이두는 ‘드는표’와 ‘막내는표’의 선율형을 확인할 수 있다. ‘드는표’는 시작음 潢, 종지음이 林인 선율형, 林으로 시작해 南林으로 마무리되는 선율형, 太仲으로 바로 들어준 후 仲으로 지속되는 세 가지 선율형으로 모두 다르게 나타났다. ‘막내는표’는 南으로 시작해 南林으로 마무리되는 선율로 ‘드는표’가 기보된 사설 중 林 또는 太仲으로 시작하는 선율형보다 오히려 시작음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제4장은 ‘드는표’가 기보된 언락(6.벽사창이)·(20.아흔아홉)과, ‘누르는표’가 기보된 언락(3.백구는)·(25.일월성신)으로 나뉘었다. 언락(8.푸른산중)은 제4장에 ‘누르는표’가 기보되어 있으나, 선율은 ‘드는표’와 같으므로 <연음표>가 오기되었을 가능성을 두고 ‘드는표’ 선율형으로 보았다. ‘드는표’의 선율 골격음은 潢-南-林으로 潢으로 시작해 南을 거쳐 林까지 순차적으로 하행하고, ‘누르는표’는 林-南林으로 林으로 시작해 南으로 상행하여 林으로 마무리되어 ‘드는표’가 기보된 제4장의 선율보다 낮게 시작함을 알 수 있다.

제5장은 일각이 확대된 언락(3.백구는)·(6.벽사창이) 두 곡과 확대되지 않은 언락(8.푸른산중)·(20.아흔아홉)·(25.일월성신) 세 곡으로 나뉘었다. 제5장의 일각이 확대되지 않은 세 곡의 <연음표>는 일각의 첫 박과 제6박에 기보된 두 가지 경우로 나뉘었다. 일각 첫 박은 ‘드는표’와 ‘막내는표’의 선율형을 확인할 수 있다. 두 <연음표>의 선율형은 太-仲-太로 동일하게 나타나 위의 선율 골격음이 제5장 일각 첫 박에 나타날 경우

두 <연음표>의 선율형일 가능성을 보였다. 다만 『가곡원류』에 기보된 <연음표>와 『하규일보』의 선율만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의 <연음표>에 따른 명확한 선율형은 보류하였다. 일각 제6박은 '드는표'가 기보되어 있으며, 仲南-仲으로 仲에서 南으로 들어준 후 仲으로 마무리되는 선율형 한 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기본형에서 드러난 <연음표>의 선율형을 바탕으로 확대된 제5장 일각의 선율을 곡별로 살펴보면, 언락(3.백구는)의 제5장은 일각이 두 각으로 확대되었으며 일각②의 제6박에 '드는표'가 기보되어 있다. 선율 골격음은 시작음 仲潢으로 仲에서 潢으로 들어 올린 후 仲으로 하행해 마무리되는 유형이며, 기본형의 제5장 일각에서는 이러한 선율형이 나타나지 않았다. 언락(6.벽사창이)의 제5장은 일각이 두 각으로 확대되었으며, 일각①의 첫 박에 '드는표'가 기보되어 있다. 선율 골격음은 太仲-太로 太에서 仲으로 들어올린 후, 太로 하행해 마무리되는 유형이며, 기본형의 제5장 일각 첫 박 '드는표'와 박자는 다르지만 같은 형태임을 알 수 있다.

제5장 이두는 '드는표'와 '막내는표' 두 가지 선율형을 확인할 수 있다. '드는표'는 潢-南-林으로 潢으로 시작해 南을 거쳐 林까지 순차적으로 하행하고, '막내는표'는 仲-南林으로 仲으로 시작해 南으로 상행하여 林으로 마무리되되는 선율형이다. 위의 내용에 따라 언락에 기보된 음높이를 나타내는 <연음표>의 선율형은 다음의 <표 29>와 같다.

<표 29> 남창 우조 언락 위치별 <연음표> 선율형 정리

구분		<연음표>	선율의 골격음	사설	곡목
초장	초두	드는표	【仲】潢-南-潢-南-林	백구는	3.백구는
			【南】潢-南-林-仲	벽사창이	6.벽사창이
				푸른산중	8.푸른산중
				아흔아홉	20.아흔아홉
			【南】潢-南-林	일월성신	25.일월성신
	이두	드는표	【南】汰-南-汰	곱먹은	20.아흔아홉
			【汰】-南-汰	백발옹이	8.푸른산중
		막내는표	【南】-汰-潢	대동	3.백구는

이장	초두	드는표	【潢】-南-林-仲-林-仲	고요독좌	8.푸른산중
				탁주를	20.아흔아홉
		막내는표	【林】-南-仲-太-林-仲	임만 여겨	6.벽사창이
	초두 제4박	드는표	【太】潢-南-林-仲	낙낙	3.백구는
			【太】-南-林-仲	토지도	25.일월성신
	이두	드는표	【仲】-黃	펄떡뛰여	6.벽사창이
				지황씻적	25.일월성신
삼장	일각-① 첫 박	드는표	**【仲】** 林-仲-林-南-太	일월성신	25.일월성신
		막내는표	【黃】-仲-倘-太-黃	대야동두	3.백구는
	일각-② 제6박	드는표	**【潢】**-南-林-仲-林-仲	학성홍을	8.푸른산중
	일각③ 첫 박	드는표	**【仲】**-太仲	벽오동 젖은 잎에	6.벽사창이
	일각④ 제6박	드는표	【南】-潢-汰-南-林-仲	후여다가	6.벽사창이
	일각②첫 박	드는표	【仲】-太-黃	이리로 비쓱	20.아흔아홉
	일각② 제9박	드는표	【南】-林-仲-林-南-太	저리로 비쓱	20.아흔아홉
	이두	드는표	**【潢】**-南-林	저 청춘	20. 아흔아홉
			【林】-南林	일엽어정을	3.백구는
			【太】仲	지황씻적	25.일월성신
		막내는표	【南】-仲-南林	적다정조	8.푸른산중
사장		드는표	**【潢】**-南-林	마초아	6.벽사창이
				누구서	8.푸른산중
				우리도	20.아흔아홉
		누르는표	【林】-南林	대취코	3.백구는
				사람은	25.일월성신
오장	일각①첫 박	드는표	**【太】** 仲-太	밤일세만정	6.벽사창이
			【太】-仲-太	소년적	20.아흔아홉
		막내는표	【太】-仲-太	어인 연고로	25.일월성신
	일각①제6박	드는표	【仲】南-仲	적막타든고	8.푸른산중
	일각②제6박	드는표	【仲】潢-南-林-仲-林-仲	백운탄으로	3.백구는
	이두	드는표	**【潢】**-南-林	남우일번	6.벽사창이
				낙무궁인가	8.푸른산중
		막내는표	【仲】-南林	임거래를	3.백구는

<범례> **【】**:선율의 시작음, -:박의 구분

연결형 <연음표> 중 '든흘림표'는 제4장을 제외하고 모두 기보되어 있어 장별로 음형을 살펴볼 수 있다. 초장의 '든흘림표'는 南 음형으로 상행선율을 연결한다. 제2장은 초두 제2박에 기보되어 요성 없이 黃에서

太로 상행하는 음형과 초두 제3박에 기보되어 요성과 낮은음에서 상행선율 없이 太를 내주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이는 락 계열로 오면서 사설 자수의 영향으로 한 각의 장단 수가 바뀌고, 장단이 빨라지면서 '든흘림표'의 역할도 축소된 것으로 풀이된다. 제3장은 倘黃倘黃-太로 倘을 요성한 후 太로 상행하는 유형, 요성 없이 黃에서 太로 상행하는 유형, 仲을 뻗어주는 유형 세 가지로 나타났다. 제5장은 倘또는 黃에서 요성한 후 太로 상행하는 경우와 요성 없이 黃에서 太로 상행하는 두 가지 경우로 나타났다. 언락도 우락과 마찬가지로 '든흘림표'의 요성이 생략되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이는 자수가 많아지고 장단은 빨라지면서 '든흘림표'의 역할이 축소된 것으로 풀이된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30>과 같다.

<표 30> 언락 '든흘림표'의 음형과 사설 구절

음형	사설	구분	곡명
倘黃倘黃-太	긴목을ᄅᆞ 후여다가	제3장	6.벽사창이
	능라도ᄅᆞ 백운탄으로	제5장	3.백구는
黃太黃太-太	산을ᄅᆞ 적막타든고	제5장	8.푸른산중
黃太 또는 黃-太	산하ᄅᆞ 토지도	제2장	25.일월성신
	일면용용수에ᄅᆞ 일엽어정을	제3장	3.백구는
	안개걷어ᄅᆞ 학성홍을		8.푸른산중
	비쓱ᄅᆞ 저리로 비쓱		20.아흔아홉
	웃지마라ᄅᆞ 저청춘		
	천황씻적과ᄅᆞ 지황씻적		25.일월성신
	행여낮이런들ᄅᆞ 남우일번	제5장	6.벽사창이
	나는ᄅᆞ 낙무궁인가		8.푸른산중
太	장송은ᄅᆞ 낙낙	제2장	3.백구는
仲	초라한 길로ᄅᆞ 이리로	제3장	20.아흔아홉
仲-南	푸른산중ᄅᆞ 백발옹이	초장	8.푸른산중
	아흔아홉ᄅᆞ 곱먹은		20.아흔아홉

'연음표'는 초장과 제3·5장에 기보된 것을 볼 수 있다. 초장의 '연음표' 음형은 太이고 하행선율로 연결한다. 제3장은 黃에서 太로 상행하는 음형과 仲 한음으로 지속하는 두 가지 음형으로 나타났다. 제5장은 倘에서

太로 상행하는 음형이며, ‘든흘림표’와 마찬가지로 음형에서 요성이 생략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곡이 빨라질수록 연결형 <연음표>는 역할이 축소되는 것으로 보인다. 위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31>과 같다.

<표 31> 언락 ‘연음표’의 음형과 사설 구절

‘연음표’의 음형	사설 구절	장	곡명
倘-太	마음이) 어제런듯	제5장	20.아흔아홉
黃-太	임은) 아니오고	제3장	6.벽사창이
	바람불어) 송생술이요		8.푸른산중
仲	천고한이요) 적다정조는	제3장	8.푸른산중
仲-太	백구는 편편) 대동강상비	초장	3.백구는

언락은 우락에 비해 같은 위치에 기보된 같은 <연음표>라도 시작음과 그에 따른 선율형이 다양하게 나옴을 알 수 있다. ‘누르는표’는 락 계열에서 언락 제4장 외에는 기보되지 않은 것을 보아 곡이 빨라지고 자수가 많아질수록 낮은음은 잘 쓰이지 않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연결하는 역할의 <연음표>는 다음 각으로 넘어가는 사설을 연결할 때는 요성을 한 후 상행하는 선율로 가지만, 같은 각 안에서 기보될 때는 요성이 생략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사설 자수가 많아짐에 따라 상행선율 자체가 생략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든흘림표’는 대부분 상행선율과 드물게 같은음으로 진행하는 선율을 연결하고, ‘연음표’는 ‘드는표’가 기보되지 않은 상행선율, 같은음 진행 선율, 하행선율을 연결할 때 기보되어 ‘든흘림표’보다 다양한 음형이 나타난다.

5) 소결

『가곡원류』에 기보된 연음기보법의 특징을 음높이에 관련된 연음기보법과 연결형 연음기보법으로 나누어 곡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조 이수대엽 계열에 기보된 음높이와 관련된 연음기보법의 경우 ‘드는표’는 높은음, ‘막내는표’는 중간음, ‘누르는표’는 낮은음에 주로 기보되었다. 그러나 제2장 이두에서 ‘드는표’는 중간음 또는 낮은음에 기보되기도 하며 초두보다 다양한 특징이 나타났다.

‘든흘림표’와 ‘연음표’는 낮은음 仲에서 요성한 후 黃 또는 太로 상행하는 경우, 요성 없이 상행 음형만 나오는 경우, 한 가지 음만 내주는 음형으로 세 가지 경우가 나왔는데 이는 앞뒤 사설의 종지음과 시작음에 따라 달라졌다. 또한, ‘드는표’가 기보된 사설로 일정하게 연결하는 ‘든흘림표’에 비해 ‘연음표’는 ‘막내는표’가 기보된 사설, 또는 연음기보법이 생략되어 있어도 ‘드는표’가 기보된 사설보다 낮은음으로 연결하며 ‘든흘림표’보다 다양한 음형이 나타났다.

우조 초수대엽의 ‘드는표’는 각 장의 초두 또는 일각에 기보된 유형만 보이며, 제5장 일각의 선율을 제외한 시작음 및 종지음이 이수대엽 계열보다 보다 높고 일정하게 나타났다. ‘막내는표’는 초두나 일각 또는 이두에 따라 시작음이 모두 다르고 이에 따른 선율형도 차이를 보였다. ‘누르는표’는 제3·5장 일각 첫 박에 각각 기보되어 있으며, 시작음은 다르나 종지음은 같은 음으로 마무리되는 특징을 보였다.

사설을 연결하는 ‘든흘림표’와 ‘연음표’는 제3장 또는 제5장에서 볼 수 있다. ‘든흘림표’는 黃에서 요성한 후 太또는 仲으로 상행하는 음형으로 다음 사설에 기보된 ‘드는표’로 연결되었다. 반면, ‘연음표’는 仲에서 요성한 후 黃倘으로 상행하다 다시 내려와 음형의 차이를 보인다. 이는 ‘든흘림표’가 연결하는 선율은 상행 선율이고, ‘연음표’는 ‘연음표’가 기보된 다음 사설의 시작음이 仲으로 오히려 낮아지므로 이를 연결하기 위해 음형이 달라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우조 삼수대엽은 음높이와 관련된 세 연음기보법의 시작음이 초수대엽과 대체로 동일하였다. 그러나 각 연음기보법에 해당하는 선율형은 초수

대엽에 비해 다양하게 드러났다. 또한 초장 이두에 기보된 ‘드는표’는 초수대엽의 ‘드는표’보다 높은 시작음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든흘림표’는 대부분 ‘드는표’ 앞에 기보되어 상행선율을 연결하므로 그에 따른 음형도 상행 음형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연음표’는 ‘드는표’가 기보된 사설을 제외한 대부분이 사설의 앞부분에 기보되어 상행·하행 선율을 연결하며 다양한 음형이 드러났다. 또한, 두 연음기보법은 이수대엽 계열에서 나타났던 仲에서 요성한 후 다음 음으로 진행한 유형과 초수대엽에서 黃에서 요성한 후 다음 음으로 진행한 두 가지 유형이 모두 출현하였다.

우조 소용이의 ‘드는표’는 각 장의 초두 또는 일각과 이두에 고루 기보되어 다양한 유형을 볼 수 있지만, ‘누르는표’는 초장 이두 외에 기보된 사설이 없어 한 가지 선율형만 보이며, 다른 계열의 곡에 비해 시작음이 높게 나타났다. ‘드는표’의 경우 삼수대엽보다 높은 시작음이 제5장 일각에서 드러나고 이에 따른 ‘막내는표’의 시작음도 높아지면서 우조 소용이가 높은 악곡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수대엽 계열과 초수·삼수대엽에 기보되지 않았던 박에 연음기보법이 기보되어 특수한 양상을 보였다. 이는 소용이 이후 가곡에 나타나는 시조의 형식이 평시조에서 사설시조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선율 및 연음기보법의 활용 역시 변화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든흘림표’의 경우 제4장을 제외하고 모두 기보되어 있어 음형을 파악할 수 있는 반면, ‘연음표’는 제3장에만 나타나 한 가지 음형만 확인할 수 있었다. 두 연음기보법은 仲에서 상행하는 음형, 또는 仲보다 높은음으로 연결하는 음형으로 초수·삼수대엽의 음형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특징은 우조 소용이가 높은 악곡이란 점을 뒷받침해주었다. 또한 이수대엽 계열과 초수·삼수대엽의 연결형 연음기보법은 요성하는 음형이 나타난 반면에 소용이는 이러한 음형이 드러나지 않았다.

우락은 제5장을 제외하고 이두의 연음기보법이 생략된 관계로 초두 또

는 일각의 선율형 위주로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사설이 늘어나면서 제3·5장의 일각이 확대되고 자수에 따라 반각이 나타나기도 하며 그에 따른 각 연음기보법 중 '드는표'의 선율형이 가장 다양하게 나타났다. '막내는표'는 초장 초두와 오장 일각에만 기보되어 시작음은 같지만 선율형은 달랐고, '누르는표'는 기보된 사설이 없어 선율형을 파악할 수 없었다.

'든흘림표'는 요성 없이 黃에서 太로 진행하는 음형이 제3·5장에서 주로 나타났다. 또한, 倘에서 요성하여 太로 상행하는 음형이 보였는데 이는 이수대엽 계열 및 초수·삼수대엽에 기보된 '든흘림표'의 음형과 다른 시작음으로 차이를 보였다. '연음표'는 요성 없이 黃에서 太로 상행하는 음형 외에 太 또는 仲 한 가지 음으로 진행되는 음형, 仲에서 太로 하행하는 음형이 나타나 '든흘림표'보다 다양한 음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언락은 우락과 마찬가지로 '누르는표'가 기보된 사설이 없어 선율형을 파악할 수 없었다. 또한 제3장은 언락 다섯 곡 모두 일각이 확대되었고, 제5장은 세 곡의 기본형 선율과 두 곡의 일각이 확대된 선율이 나타나 그에 따른 연음기보법의 유형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장의 초두 또는 일각에 기보된 '드는표'와 '막내는표'는 선율의 시작 부분에서 비교적 두 연음기보법의 특징을 구분할 수 있는 반면에 이두는 '막내는표'의 시작음이 초두에 비해 높게 나타나며 구분이 모호한 경향을 보였다. 또한 제5장 일각에서 언락(20.아흔아홉)·(25.일월성신)에 각각 기보된 '드는표'와 '막내는표'의 선율이 동일하여 두 연음기보법이 모두 기보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든흘림표'는 우락에서 나타났던 倘에서 요성한 후 太로 진행하는 음형, 요성없이 黃에서 太로 진행하는 음형 외에 초수·삼수대엽의 黃에서 요성 후 太로 상행하는 음형, 소용이의 仲에서 南으로 상행하는 음형 등이 모두 나타났다. 또한 상행선율 자체가 생략되고 太 또는 仲 한 가지 음으로 내주는 음형도 드러나 남창 우조 가곡에 기보된 '든흘림표' 중 가장 많은 음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음표'는 요성 없이 倘 또는 黃에서 太로 상행하는 음형, 仲 한 가지 음을 내주는 음형 외에 仲에서 太로 하

행하는 음형도 나타났다.

종합하면『가곡원류』에 기보된 음높이를 나타내는 연음기보법은 단순한 한 음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 선율형을 의미하는 것으로 각 연음기보법이 의미하는 선율형을 곡에 따라 유추해볼 수 있다. 같은 연음기보법에서 나타나는 선율형이 한 곡에서 다양하게 드러날수록 연음기보법은 절대적인 의미보다 상대적인 의미로 기보되며, 시작음은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사설이 많고 곡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이러한 현상이 더 두드러졌다.

연결형의 연음기보법은 느린 곡에서 빠른 곡으로 진행할수록 음형은 단순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소용이를 기점으로 사설이 늘어나고 곡의 속도는 빨라지면서 선율형은 오히려 단순화됨으로 인해 두 연음기보법의 역할이 점점 축소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었다. 또한 음높이를 나타내는 연음기보법의 시작음이 높아지는 경향이 보일 때 연결형 연음기보법도 같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연음표>에 따른 선율의 상관관계 분석

각 곡의 <연음표>를 각 장의 초두, 일각, 또는 이두의 위치에 따라 기보되는 <연음표>의 상관관계에 대해 살펴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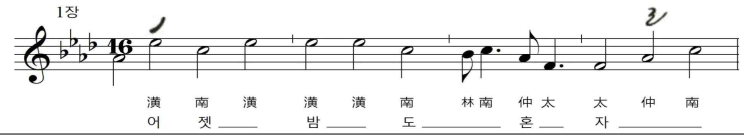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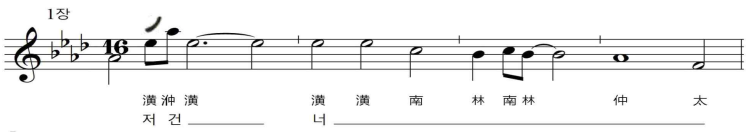
1) 드는표

ㄱ) 초장

① 초두

『가곡원류』에 실린 남창 우조 가곡의 사설 중 초장 초두에 ‘드는표’가 기보된 곡은 두거, 삼수대엽, 소용이, 언락으로 네 곡이다. 각 곡 초장 초두에 기보된 ‘드는표’의 시작음은 潢, 南, 林, 仲의 총 네 가지로 나타난다. 첫 번째는 潢으로 시작하는 ‘드는표’의 선율형으로 소용이(1.어젯밤도)·(7.저건너) 두 곡에서 나타나며 이는 다음 <예보 12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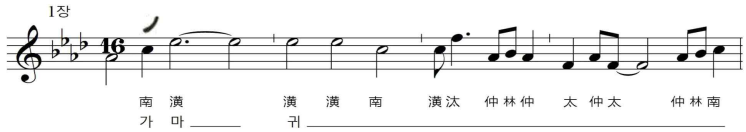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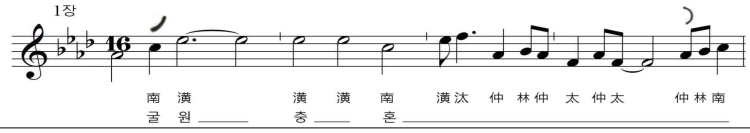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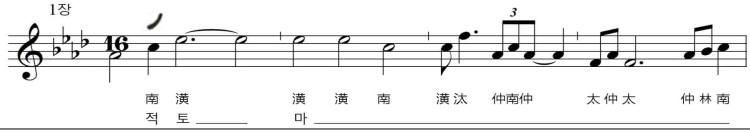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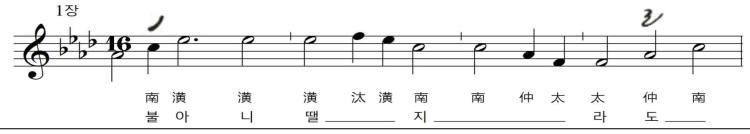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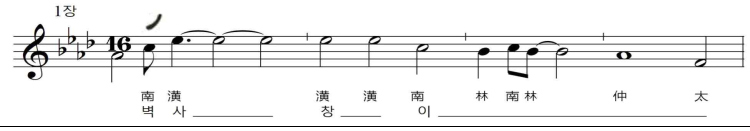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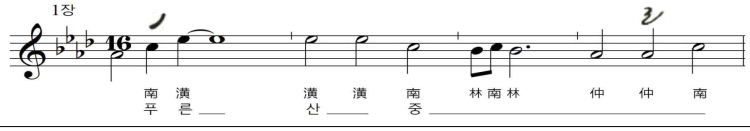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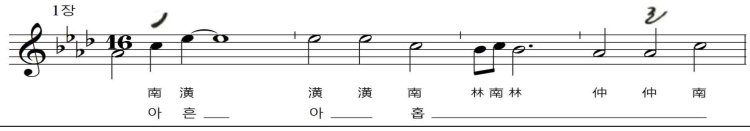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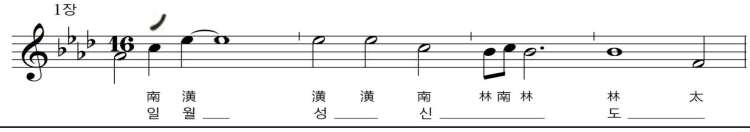
<예보 123> 남창 우조 가곡의 초장 초두에서 나타난 ‘드는표’ 선율형 (1)

곡목	사설	예보
소용이	1. 어젯밤도	
	7. 저건너	

<예보 123>은 潢으로 시작하는 ‘드는표’의 선율형으로 소용이(1.어젯밤도)·(7.저건너)의 초장 초두이다. 소용이(1.어젯밤도) 초장 초두의 선율 골격음은 潢-南-潢-南-仲-太로 潢으로 시작해 南으로 하행하고 潢으로 상행했다 南으로 하행을 반복한 후 仲, 太로 마무리하는 형태이다. 소용이(7.저건너) 초장 초두의 선율 골격음은 潢沖潢-南-林-仲으로 첫음절 ‘저’에서 潢沖을 내준 후 두 번째 음절 ‘건’에서 潢으로 다시 내려오고, 그 후에 南, 林, 仲으로 순차적으로 하행하는 형태이다. 두 사설은 潢에서 시작하여 太 또는 仲으로 하행하는 선율형을 보인다.

두 번째는 南으로 시작하는 ‘드는표’의 선율형으로 삼수대엽(4.가마귀)·(7.굴원충혼)·(19.적토마) 세 곡, 소용이(5.불아니) 한 곡, 언락(6.벽사창이)·(8.푸른산중)·(20.아흔아홉)·(25.일월성신) 네 곡에서 나타난다. 이는 다음 <예보 124>와 같다.

<예보 124> 남창 우조 가곡의 초장 초두에서 나타난 ‘드는표’ 선율형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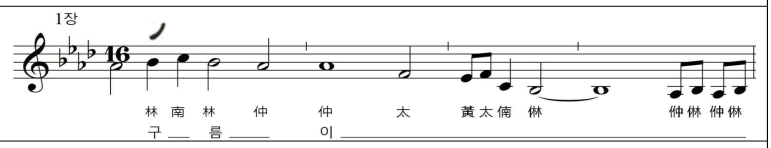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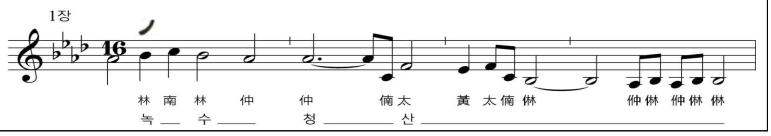
곡목	사설	예보
삼수대엽	4. 가마귀	
	7. 굴원충혼	
	19. 적토마	
소용이	5. 불아니	
언락	6. 벽사창이	
	8. 푸른산중	
	20. 아흔아홉	
	25. 일월성신	

<예보 124>에서 삼수대엽 세 곡, 소용이 한 곡, 언락 네 곡은 ‘드는표’가 기보된 초장 초두에서 南으로 시작하는 선율형이다. 삼수대엽에 기보된 ‘드는표’의 골격음은 南潢-南-汰-仲-太, 소용이는 南潢-南-仲-太, 언락(25.일월성신)을 제외한 세 곡은 南潢-南-林-仲으로, 언락(25.일월성신)

은 南潢-南-林으로 각각 선율형이 나타났다. 위의 여덟 곡은 종지음의 차이는 있지만, 南潢으로 시작해 林, 仲 또는 太로 하행하여 유사한 선율 형태를 보인다.

세 번째는 林으로 시작하는 '드는표'의 선율형으로 두거(1.구름이)·(14.녹수청산) 두 곡에서 나타나며, 이는 다음 <예보 12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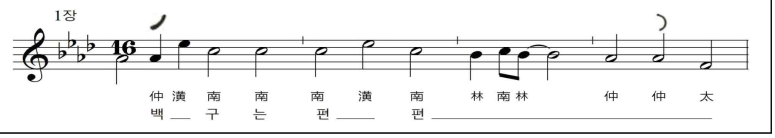
<예보 125> 남창 우조 가곡의 초장 초두에서 나타난 '드는표' 선율형 (3)

곡목	사설	예보
두거	1. 구름이	
	14. 녹수청산	

<예보 125>에서 두거(1.구름이)·(14.녹수청산) 두 곡은 '드는표'가 기보된 초장 초두에서 林으로 시작하는 유형이다. 두 곡 모두 林으로 시작하여 南으로 상행한 후, 林-仲-太로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黃太倚 음형을 거쳐 㑹까지 하행하는 동일한 유형이다.

네 번째는 仲으로 시작하는 '드는표'의 선율형으로 언락(3.백구는)에서 나타난다. 이는 다음의 <예보 126>와 같다.

<예보 126> 남창 우조 가곡의 초장 초두에서 나타난 '드는표' 선율형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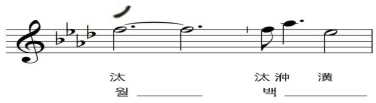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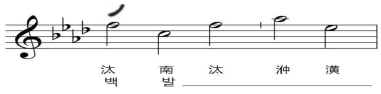
곡목	사설	예보
언락	3. 백구는	

<예보 125>에서 언락(3.백구는)은 ‘드는표’가 기보된 초장 초두에서 仲으로 시작하는 유형이다. 선율형은 仲으로 시작해 潢으로 상행한 후, 南, 林을 거쳐 仲까지 순차적으로 하행하는 형태이다. 이는 시작음의 차이는 있으나 <예보 124>의 南으로 시작하는 선율형과 같은 형태이므로 동일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② 이두

초장 이두에 ‘드는표’가 기보된 곡은 중거, 삼수대엽, 소용이, 언락으로 네 곡이다. 각 곡 초장 이두에 기보된 ‘드는표’의 시작음은 汰, 南, 仲의 총 세 가지로 나타난다. 첫 번째는 汰로 시작하는 ‘드는표’의 선율형으로 삼수대엽(1.추강에), 언락(8.푸른산중) 두 곡에서 나타나며 이는 다음 <예보 127>과 같다.

<예보 127> 남창 우조 가곡의 초장 이두에서 나타난 ‘드는표’ 선율형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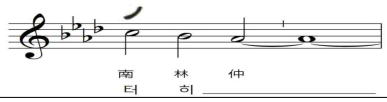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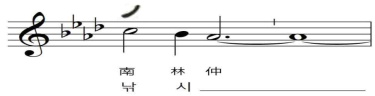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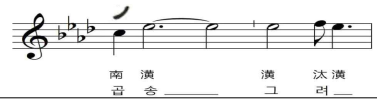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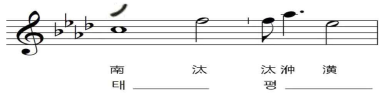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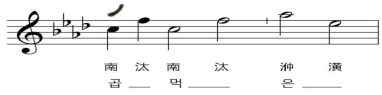
곡목	사설	예보
삼수대엽	1.추강에 [월백]	
언락	8.푸른산중 [백발]	

<예보 127>에서 삼수대엽은 汰로 시작해 沖으로 상행한 후 潢으로, 언락은 汰에서 南으로 하행한 후 다시 汰로 진행해 沖으로 상행한 후 潢으로 마무리된다. 두 곡은 언락의 이두 제2박에서 南으로 하행하는 차이가 있을 뿐 동일한 유형으로 진행한다.

두 번째는 南으로 시작하는 ‘드는표’의 선율형으로 중거(1.인심은)·(4.

창랑에) 두 곡, 소용이(1.어젯밤도)·(3.아마도) 두 곡과 언락(20.아흔아홉) 한 곡으로 총 다섯 곡에서 나타난다. 이는 다음의 <예보 128>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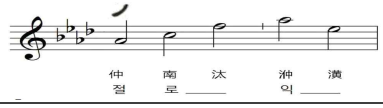
<예보 128> 남창 우조 가곡의 초장 이두에서 나타난 ‘드는표’ 선율형 (1)

곡목	사설	예보
중거	1.인심은 [터히]	
	4.창랑에 [낚시]	
소용이	1.어젯밤도 [곱송그려]	
	3.아마도 [태평]	
언락	20.아흔아홉 [곱먹은]	

<예보 128>에서 南으로 시작하는 초장 이두 ‘드는표’의 선율형은 세 가지로 나뉨을 알 수 있다. 첫 번째는 중거(1.인심은)·(4.창랑에)의 선율형으로 南으로 시작해 林과 仲까지 하행하는 형태이다. 두 번째는 소용이(3.아마도)와 언락(20.아흔아홉)의 선율형으로 南에서 汰와 沖까지 상행한 후 潢으로 하행하는 형태이다. 세 번째는 소용이(1.어젯밤도)의 선율형으로 南으로 시작해 潢으로 지속하는 형태이다.

세 번째는 仲으로 시작하는 ‘드는표’의 선율형으로 소용이(5.불아니)에서 나타난다. 이는 다음의 <예보 129>와 같다.

<예보 129> 남창 우조 가곡의 초장 이두에서 나타난 ‘드는표’ 선율형 (3)

곡목	사설	예보
소용이	5.불아니 [절로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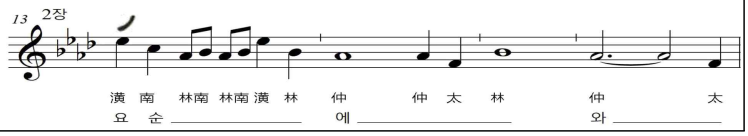
<예보 >에서 仲으로 시작하는 초장 이두 ‘드는표’의 선율형은 仲으로 시작해 南-汰-沖까지 상행한 후 潢으로 하행하며 마무리되는 형태이다. 이는 시작음은 다르지만 <예보 128>의 소용이(3.아마도), 언락(20.아흔아홉)과 같은 형태의 선율형으로 동일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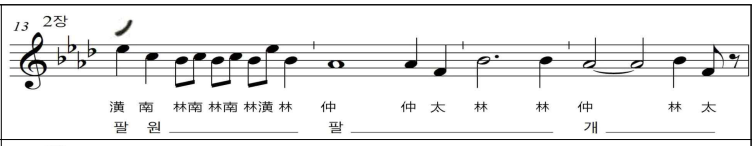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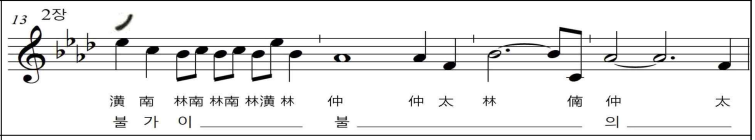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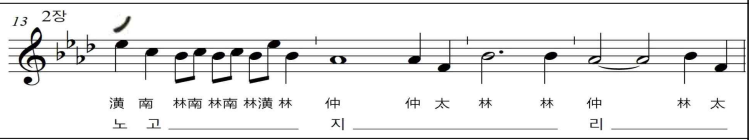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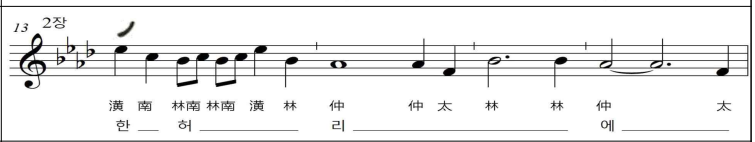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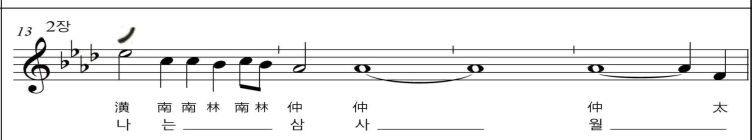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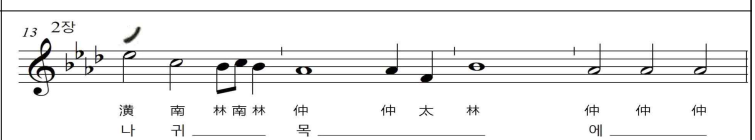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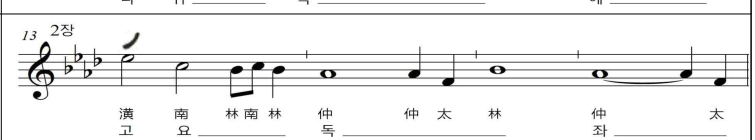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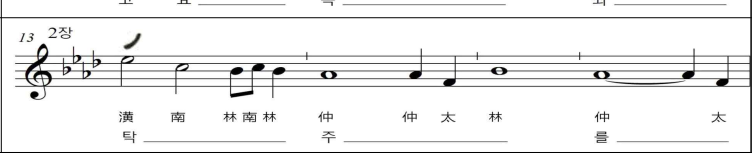
ㄴ) 제2장

① 초두

제2장 초두에 ‘드는표’가 기보된 곡은 이수대엽, 평거, 초수대엽, 삼수대엽, 소용이, 우락, 언락으로 일곱 곡이다. 각 곡 제2장 초두에 기보된 ‘드는표’의 시작음은 潢, 南, 太의 총 세 가지로 나타난다. 또한 초두 첫 박에 기보된 경우, 제4박에 기보된 경우와 제8박에 기보된 세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초두 첫 박에 기보된 ‘드는표’의 선율형부터 살펴보면, 첫 번째는 潢으로 시작하는 ‘드는표’의 선율형으로 초수대엽 다섯 곡, 우락 두 곡, 언락 두 곡으로 총 아홉 곡에서 나타난다. 이는 다음의 <예보 130>과 같다.

<예보 130> 남창 우조 가곡의 제2장 초두에서 나타난 ‘드는표’ 선율형 (1)

곡목	사설	예보
초수대엽	1.천황씨 [요순에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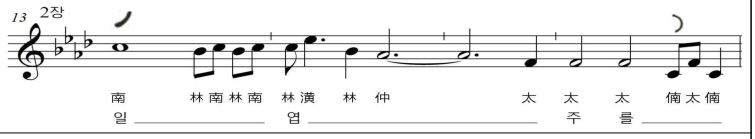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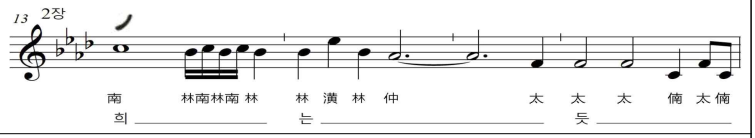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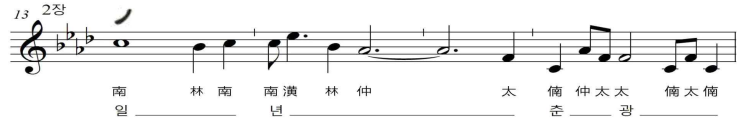
	2.남훈전 [팔원팔개]	
	3.남팔아 [불가이불의]	
	4.동창이 [노고지리]	
	7.동짓달 [한허리에]	
우락	9.임으란 [나는 삼사월]	
	13.이선이 [나귀목에]	
언락	8.푸른산중 [고요독좌]	
	20.아흔아홉 [탁주를]	

<예보 130>에서 潢으로 시작하는 '드는표'의 선율형은 초수대엽의 경우 潢南-仲-潢-仲-林-仲, 또는 潢南-林-潢-仲-林-仲으로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우락과 언락은 潢-南-林-仲-林-仲, 또는 潢-南-林-仲으로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네 곡에 기보 된 '드는표'의 선율 골격음은 조금씩 다르지만, 潢으로 시작해 仲으로 하행하여 마무리되어 유사한 선율 형태를 보인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보아 제2장 초두에 기보된 '드는표'는 초수대엽에서 우락과 언락의 선율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

다.

두 번째는 南으로 시작하는 ‘드는표’의 선율형으로 삼수대엽(1.추강에)·(4.가마귀)·(6.도화이화) 세 곡의 제2장 사설 [일엽주를]·[희는듯]·[일년춘광]에서 나타난다. 이는 다음의 <예보 13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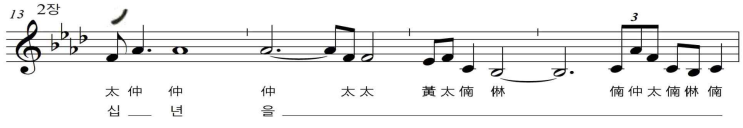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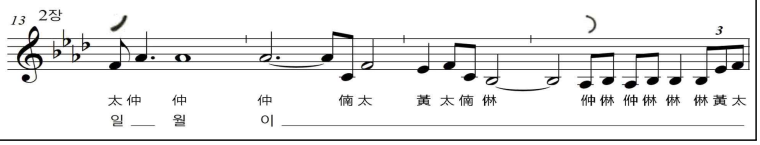
<예보 131> 남창 우조 가곡의 제2장 초두에서 나타난 ‘드는표’ 선율형 (2)

곡목	사설	예보
삼수대엽	1.추강에 [일엽주를]	
	4.가마귀 [희는듯]	
	6.도화이화 [일년춘광]	

<예보 131>에서 南으로 시작하는 ‘드는표’의 선율형은 南으로 시작해 林으로 진행한 후 潢으로 상행했다 仲과 太까지 하행하는 南-林-潢-仲-太 형태이다. 제2장 초두에 ‘드는표’가 기보되었을 경우 南으로 시작하는 선율형은 삼수대엽에서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세 번째는 太로 시작하는 ‘드는표’의 선율형으로 이수대엽(3.강호에)과 평거(3.경성출) 두 곡의 제2장 사설 [십년을]과 [일월이]에서 나타난다. 이는 다음의 <예보 13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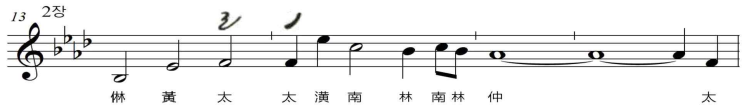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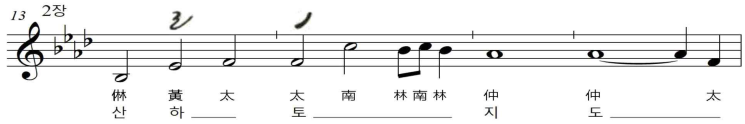
<예보 132> 남창 우조 가곡의 제2장 초두에서 나타난 ‘드는표’ 선율형 (3)

곡목	사설	예보
이수대엽	3.강호에 [십년을]	
평거	3.경성출 [일월이]	

<예보 132>에서 ‘드는표’의 선율형은 太에서 바로 仲으로 들어준 후 다시 太로 하행해 黃太倆의 음형을 거쳐 倆으로 하행하는 太仲-太-黃-倆 골격음이다. 제2장 초두에 ‘드는표’가 기보될 경우 이러한 특징의 선율형은 이수대엽 계열에서의 곡에서만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제2장 초두 제4박에 기보된 ‘드는표’는 太로 시작하는 선율형 한 가지로 언락(3.백구는)·(25.일월성신)의 제2장 [장송은 낙낙]·[산하토지도] 사설에서 나타난다. 이는 다음의 <예보 133>과 같다.

<예보 133> 남창 우조 가곡의 제2장 초두에서 나타난 ‘드는표’ 선율형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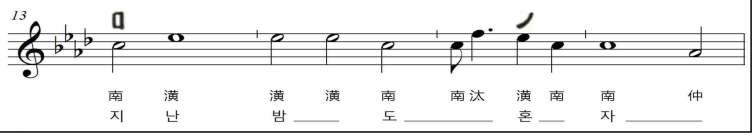
곡목	사설	예보
언락	3.백구는 [장송은 낙낙]	
	25.일월성신 [산하토지도]	

<예보 133>에서 언락(3.백구는)의 [장송은 낙낙] 사설에 기보된 ‘드는표’는 太에서 潢으로 들어준 후 南, 林, 仲으로 하행하는 太潢-南-林-仲

선율형이다. 언락(25.일월성신)의 [산하토지도] 사설에 기보된 ‘드는표’는 太에서 南으로 올라간 후 林, 仲까지 하행하는 太-南-林-仲 선율형이다. 제2장 초두 제4박에 기보된 ‘드는표’의 선율형은 『하규일보』의 언락에서만 드러나 다른 곡과의 선율형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나, 제2장 초두 제4박에 ‘드는표’가 기보될 경우 언락에서 나타나는 고유한 선율형으로 볼 수 있다.

제2장 초두 제8박에 ‘드는표’가 기보된 곡은 소용이(1.어젯밤에)의 [지난밤도 혼자] 사설 한 곡에서 나타난다. 선율형은 潢으로 시작하며, 이는 다음의 <예보 134>와 같다.

<예보 134> 남창 우조 가곡의 제2장 초두에서 나타난 ‘드는표’ 선율형 (5)

곡목	사설	예보
소용이	1.어젯밤에 [지난밤도 혼자]	

<예보 134>에서 제2장 초두 제8박에 기보된 ‘드는표’는 潢으로 시작해 南, 仲까지 하행하는 선율형이다. 초두 제8박에 기보된 ‘드는표’는 『하규일보』에서 소용이 한 곡에서만 드러나므로 다른 곡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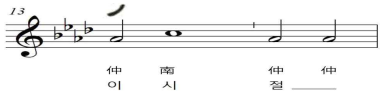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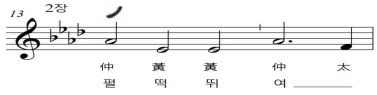
② 이두

제2장 이두에 ‘드는표’가 기보된 사설은 두거, 소용이, 언락 세 곡에서 나타난다. ‘드는표’는 이두의 첫 박과 제4박에 기보된 두 가지 경우로 나뉜다.

이두 첫 박에 기보된 ‘드는표’의 시작음은 仲, 太, 倘 세 가지로 나뉜

다. 첫 번째로 仲으로 시작하는 ‘드는표’는 소용이(3.아마도)와 언락(6.벽사창이)의 제2장 이두 사설 [이시절]과 [펄떡뛰여]에서 나타난다. 이는 다음의 <예보 13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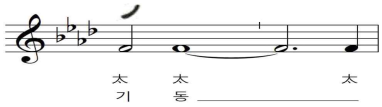
<예보 135> 남창 우조 가곡의 제2장 이두에서 나타난 ‘드는표’ 선율형 (1)

곡목	사설	예보
소용이	3.아마도 [이시절]	
언락	6.벽사창이 [펄떡뛰여]	

<예보 135>에서 소용이(3.아마도)의 [이시절]은 仲으로 시작해 南으로 들어주는 선율형이다. 언락(6.벽사창이)의 [펄떡뛰여]는 仲으로 시작해 黃으로 하행하는 형태로 두 곡에 나타나는 제2장 이두 ‘드는표’는 시작음은 같지만, 선율형은 다르게 진행된다.

두 번째로 太로 시작하는 ‘드는표’는 중거(1.인심은)의 제2장 이두 사설 [기동]에 기보되어 있다. 이는 다음의 <예보 136>과 같다.

<예보 136> 남창 우조 가곡의 제2장 이두에서 나타난 ‘드는표’ 선율형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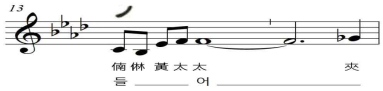
곡목	사설	예보
중거	1.인심은 [기동]	

<예보 136>에서 중거(1.인심은)의 [기동]은 太로 지속되는 선율형으로 이수대엽 계열에서 太로 시작하는 ‘드는표’가 仲으로 들어 올리는 제2장 초두 <예보 132>의 선율과 다른 유형을 보였다. 이러한 선율형은 두거(14.녹수청산) 사설 [들어]를 제외한 이수대엽 계열의 제2장 이두에서 동

일하게 나타났으나 <연음표>는 생략되어 있으므로 판단을 보류하였다.

세 번째로 倘으로 시작하는 ‘드는표’는 두거(14.녹수청산)의 제2장 이두 사설 [들어]에 기보되어 있다. 이는 다음의 <예보 137>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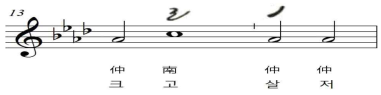
<예보 137> 남창 우조 가곡의 제2장 이두에서 나타난 ‘드는표’ 선율형 (3)

곡목	사설	예보
두거	14.녹수청산 [들어]	

<예보 137>에서 두거(14.녹수청산) [들어]에 기보된 ‘드는표’의 선율 골격음은 倘으로 시작해 太로 진행하는 선율형이다. 두거(14.녹수청산) 제2장 이두에 기보된 ‘드는표’는 낮은음으로 다른 곳에 기보된 ‘드는표’와 다른 선율형을 보인다.

이두 제4박에 기보된 ‘드는표’는 소용이(5.불아니)의 제2장 이두 [크고 살저] 사설 중 [살저]에 기보되어 있다. 이는 다음의 <예보 138>과 같다.

<예보 138> 남창 우조 가곡의 제2장 이두 제4박에서 나타난 ‘드는표’ 선율형

곡목	사설	예보
소용이	5.불아니 [크고 살저]	

<예보 138>에서 ‘드는표’는 仲으로 시작해 仲으로 지속되는 선율형이다. 이두 제4박에 기보된 ‘드는표’는 『하규일보』에서 소용이 한 곡에서만 드러나므로 다른 곡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

제2장 이두에 기보된 ‘드는표’는 공통된 선율형이 나오지 않으므로 곡들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가 어렵고, 초두에 기보된 ‘드는표’에 비해 더 낮은음의 시작음 太 또는 倘이 나옴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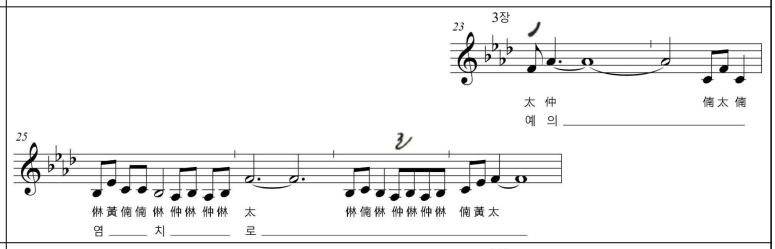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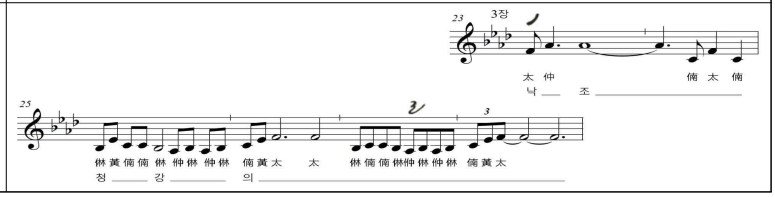
ㄷ) 제3장

① 일각

제3장 일각의 경우 우락과 언락은 사설로 인해 일각의 선율이 확대되게 된다. 따라서 일각이 확대되지 않은 기본형의 곡을 먼저 살펴본 후, 확대된 일각의 선율도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락과 언락을 제외하고 제3장 일각의 ‘드는표’는 첫 박에 기보된 경우, 제6박에 기보된 경우와 제9박에 기보된 세 가지 경우로 나뉜다. 첫 번째로 제3장 일각 첫 박에 기보된 ‘드는표’의 선율 골격음은 太로 시작하는 경우가 나타나며, 중거(1.인심은)의 [예의]와 중거(4.창랑에)의 [낙조] 사설이 이에 해당한다. 이는 다음의 <예보 139>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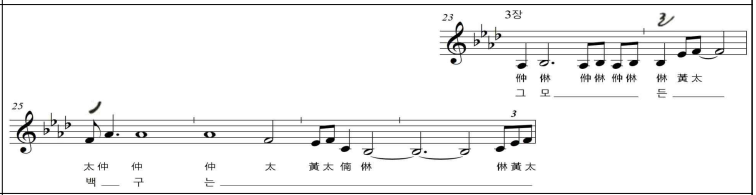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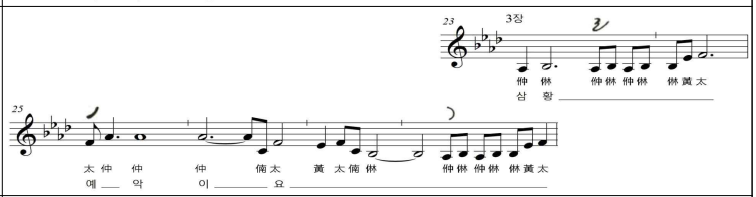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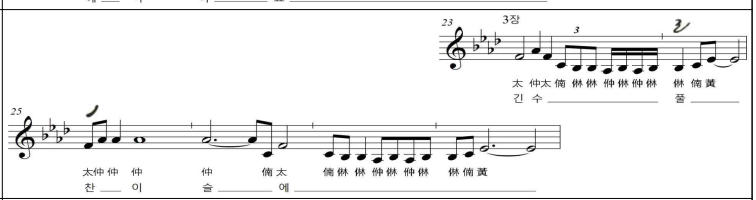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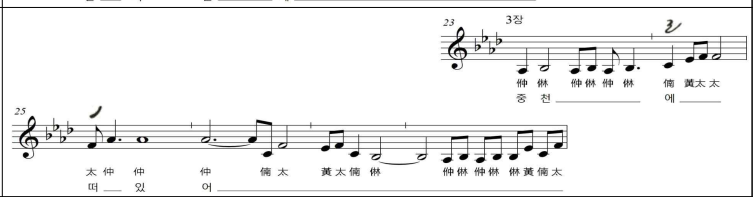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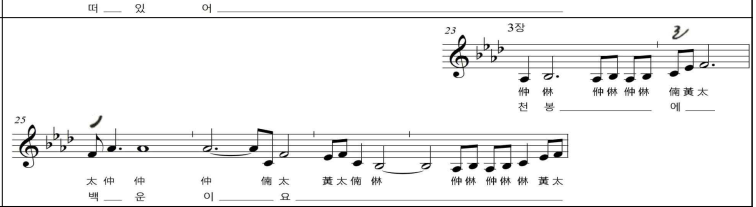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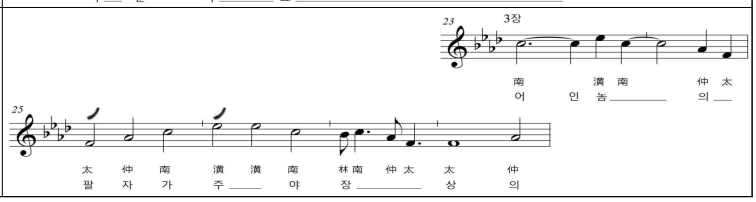
<예보 139> 남창 우조 가곡의 제3장 일각 첫 박에서 나타난 ‘드는표’ 선율형

곡목	사설	예보
중거	1.인심은 [예의]	
	4.창랑에 [낙조]	

<예보 139>에서 제3장 일각 첫 박에 ‘드는표’가 기보된 두 곡의 선율 골격음은 太에서 仲으로 올라간 후, 倘 또는 太로 하행한다. 두 곡의 사설 말붙임 박자는 다르지만, 선율형이 유사하게 나옴을 알 수 있다.

제3장 일각 제6박의 ‘드는표’는 太, 仲 또는 潢으로 시작하는 세 가지 경우로 나뉜다. 첫 번째로 太로 시작하는 ‘드는표’는 이수대엽 한 곡, 평거 두 곡, 두거 두 곡과 소용이 한 곡으로 총 여섯 곡에서 나타난다. 이는 다음의 <예보 140>과 같다.

<예보 140> 남창 우조 가곡의 제3장 일각 제6박에서 나타난 ‘드는표’ 선율형 (1)

곡목	사설	예보
이수대엽	3.강호에 [그모든]	
평거	3.경성출 [삼황]	
	10.샛별지자 [긴수풀]	
두거	1.구름이 [중천에]	
	14.녹수청산 [천봉에]	
소용이	1.어젯밤도 [어인놈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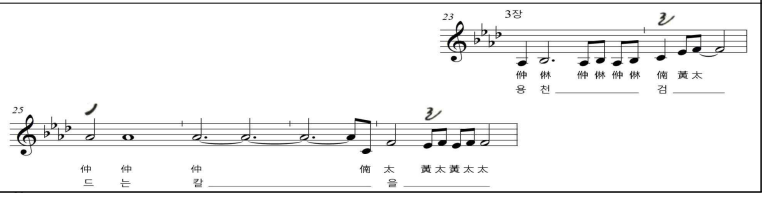
<예보 140>에서 평거(10.샛별지자) [긴수풀] 사설을 제외한 네 곡은 太에서 仲으로 올라간 후, 다시 太로 내려와 黃太倞의 음형을 거쳐 俴까지 하행하는 太仲-太-黃-俴 선율형이다. 평거(10.샛별지자) [긴수풀] 사설의 골격음은 太仲-太-俴 선율형으로 太에서 仲으로 올라간 후, 다시

太로 내려오는 것은 다른 네 곡과 같지만, 黃太倘의 음형을 거치지 않고 林으로 바로 하행하는 점이 다르다. 그러나 이수대엽 계열에 속하는 이수대엽, 평거, 두거의 곡이 모두 太에서 仲으로 올라가 林으로 내려오는 선율형이므로 다섯 곡의 '드는표'의 선율 골격음은 유사하다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일각 제6박에 '드는표'가 기보되었을 때 이수대엽 계열의 곡에서 나타나는 선율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소용이의 제3장 일각 제6박의 선율형은 太로 시작해 仲, 南으로 순차적으로 상행하는 선율형으로 이수대엽 계열의 곡들과는 다른 유형으로 나타난다.

두 번째로 仲으로 시작하는 '드는표'는 삼수대엽(19.적토마)의 [용천검] 사설에서 나타난다. 이는 다음의 <예보 14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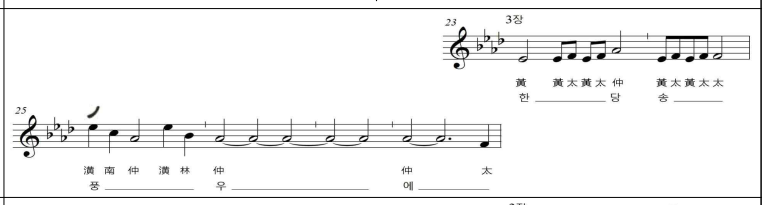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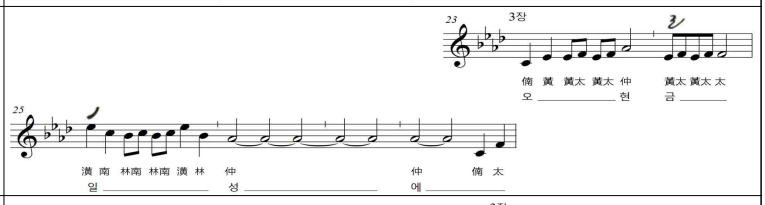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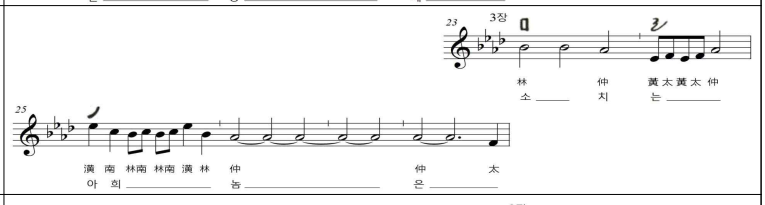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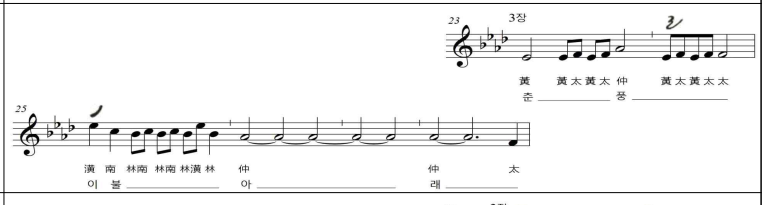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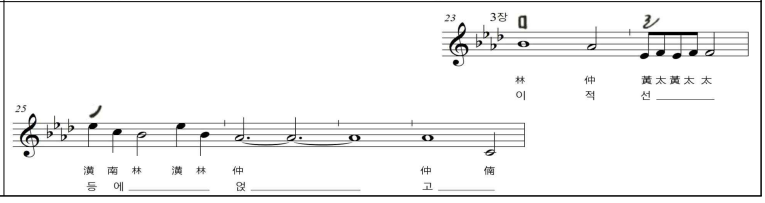
<예보 141> 남창 우조 가곡의 제3장 일각 제6박에서 나타난 '드는표' 선율형 (2)

곡목	사설	예보
삼수대엽	19.적토마 [용천검]	

<예보 141>에서 '드는표'의 선율 골격음은 仲으로 시작해서 太로 하행하는 선율형이다. 이는 이수대엽 계열의 곡들이 같은 박에 '드는표'가 기보되었을 때 시작음이 太로 시작해 仲으로 올라가는 점, 종지음이 林까지 가는 점과는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세 번째로 潢으로 시작하는 '드는표'는 초수대엽 네 곡과 삼수대엽 한 곡으로 총 다섯 곡에 나타난다. 이는 다음의 <예보 142>와 같다.

<예보 142> 남창 우조 가곡의 제3장 일각 제6박에서 나타난 ‘드는표’ 선율형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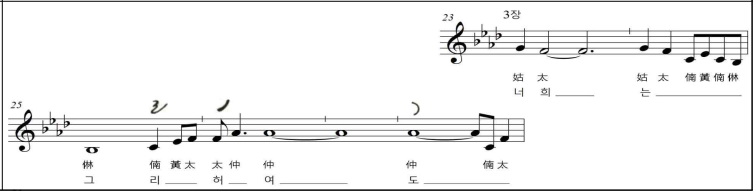
곡목	사설	예보
초수대엽	1.천황씨 [한당송]	
	2.남훈전 [오현금]	
	4.동창이 [소치는]	
	7.동짓달 [춘풍]	
삼수대엽	7.굴원충혼 [이적선]	

<예보 142>에서 ‘드는표’는 潢으로 시작해 南을 거쳐 林 또는 仲으로 하행한 후, 다시 潢으로 상행하여 仲으로 마무리되는 潢南-林-潢-仲, 또는 潢南-仲-潢-仲 선율의 골격음 형태이다. 이는 제3장 일각 제6박에 ‘드는표’가 초수대엽 또는 삼수대엽에 기보될 경우 나타나는 특징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예보 141>의 삼수대엽(19.적토마) [용천검] 사설 제3장 일각 제6박에 기보된 ‘드는표’는 삼수대엽(7.굴원충혼) [이적선]의 ‘드는표’와 다른 선율형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삼수대엽 제3장 일각 제6박에

‘드는표’가 기보될 경우 두 가지의 선율형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다.

제3장 일각 제9박에 기보된 ‘드는표’의 시작음은 太, 南, 또는 潢 세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로 太로 시작하는 ‘드는표’는 삼수대엽(6.도화이화) 제3장 일각 [너희는] 사설에 기보 되어있으며, 이는 다음의 <예보 143>와 같다.

<예보 143> 남창 우조 가곡의 제3장 일각 제9박에서 나타난 ‘드는표’ 선율형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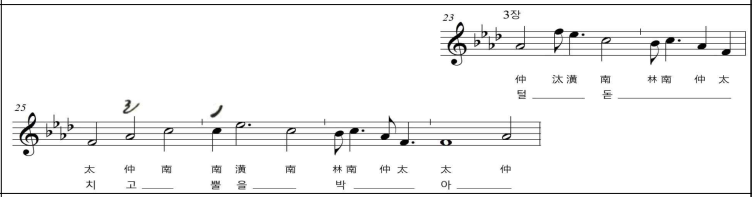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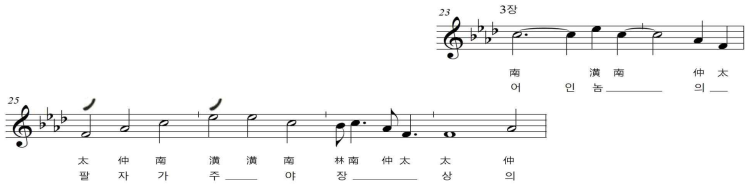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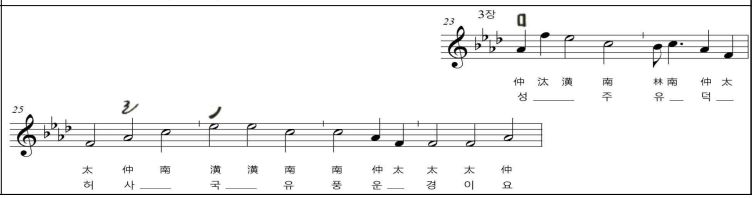
곡목	사설	예보
삼수대엽	6.도화이화 [너희는]	

<예보 143>에서 ‘드는표’는 太에서 仲으로 바로 올라가 ‘연음표’가 기보되기 전까지 仲으로 지속되는 음이다. 일각 제9박에서 太로 시작하는 ‘드는표’의 선율은 『하규일보』의 삼수대엽에서만 드러나 다른 곡과의 선율형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이수대엽 계열에서 제3장 일각 첫 박, 또는 제6박에 기보된 ‘드는표’의 선율과 시작음이 같고,[96] 삼수대엽(19.적토마) 제3장 일각 [용천검] 사설[97]의 제6박에 기보된 ‘드는표’와 선율이 유사하다. 따라서 이러한 선율의 영향을 받았음을 추측할 수 있다.

두 번째로 南 또는 潢으로 시작하는 ‘드는표’는 소용이(7.저건너)의 [털돋치고], (1.어젯밤도)의 [어인놈의], (3.아마도)의 [성주유덕허사] 세 곡의 사설에서 나타난다. 이는 다음의 <예보 144>와 같다.

96) <예보 139>, <예보 140> 참조.
97) <예보 141> 참조.

<예보 144> 남창 우조 가곡의 제3장 일각 제9박에서 나타난 ‘드는표’ 선율형 (2)

곡목	사설	예보
소용이	7.저건너 [털돋치고]	
	1.어젯밤도 [어인놈의]	
	3.아마도 [성주 유덕허사]	

<예보 144>에서 세 곡에 기보된 ‘드는표’의 선율형은 南 또는 潢으로 시작해 潢으로 진행하여 南, 仲, 太를 거쳐 하행한 후 仲으로 마무리되는 선율형이다. 세 곡은 시작음이 다르지만, 선율의 진행이 유사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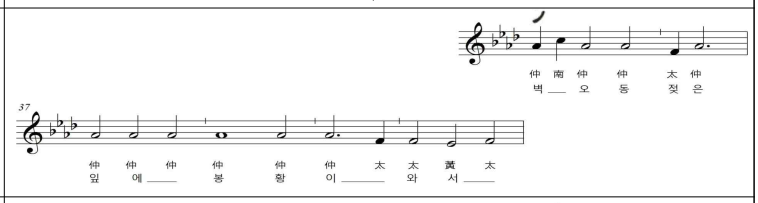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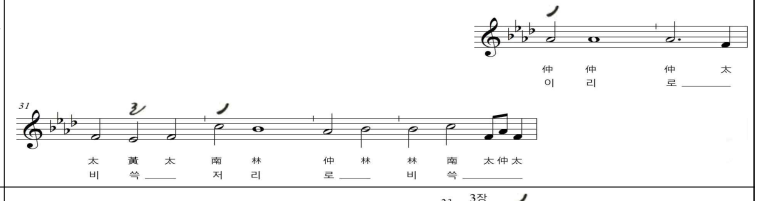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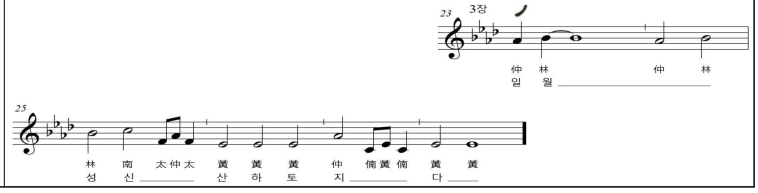
이렇듯 일각이 확대되지 않은 제3장에 기보된 ‘드는표’ 선율형이 비교적 뚜렷하게 곡별로 나누어지며, 삼수대엽과 소용이에서는 제9박에 <연음표>가 기보된 경우도 보임이 확인된다.

다음 『하규일보』에 실린 우락과 언락의 제3장은 모두 사설에 따라 일각이 확대되어 일정한 선율형을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확대된 일각의 기보된 박에 따라 나누어보도록 하겠다.

첫 번째로, 확대된 제3장 일각의 사설에서 첫 박에 ‘드는표’가 기보된 곡은 언락(6.벽사창이) 제3장 일각③ [벽오동], 언락(20.아흔아홉) 제3장

일각② [이리로 비쓱], 언락(25.일월성신) 제3장 일각① [일월성신] 세 곡이다. 이는 다음의 <예보 14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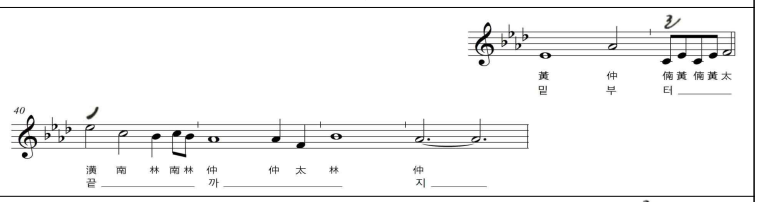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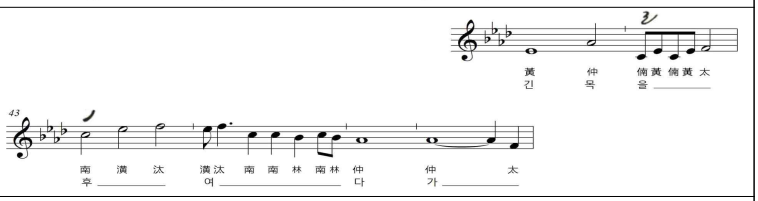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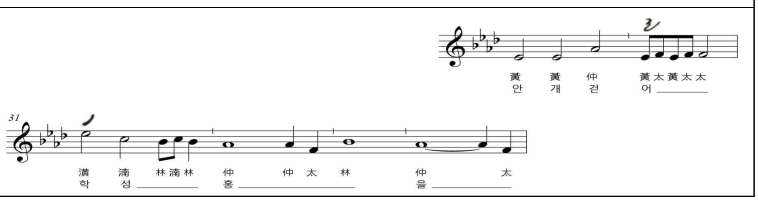
<예보 145> 남창 우조 가곡의 제3장 확대된 일각 첫 박에서 나타난 ‘드는표’ 선율형

곡목	사설	예보
언락	6.벽사창이 일각③ [벽오동]	
	20.아흔아홉 일각② [이리로 비쓱]	
	25.일월성신 일각① [일월성신]	

<예보 145>에서 세 곡의 ‘드는표’는 仲으로 시작하고, 선율의 흐름은 세 곡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첫 번째로 언락(6.벽사창이) 제3장 일각③ 첫 박 [벽오동]에 기보된 ‘드는표’는 큰 골격음이 仲으로 시작해 세 박을 지속한 후 太로 내려왔다 仲으로 다시 마무리되는 형태이다. 두 번째로 언락(20.아흔아홉) 제3장 일각② 첫 박[이리로 비쓱]에 기보된 ‘드는표’는 仲으로 시작해 제5박에서 太로 마무리된 형태이다. 세 번째로 언락(25.일월성신) 제3장 일각① 첫 박 [일월성신]에 기보된 ‘드는표’ 仲으로 시작해 林으로 올라간 후, 다시 仲으로 내려왔다 林으로 올라가는 선율형이다. 이렇듯 확대된 일각의 각 첫 박에 기보된 ‘드는표’는 仲으로 시작하는 점이 같지만, 선율형은 다르며 이에 따라 제6박부터 제16박까지의 선율도 달라짐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확대된 제3장 일각의 사설에서 제6박에 ‘드는표’가 기보된 곡은 우락(9.임으란) 제3장 일각④의 [끝까지], 언락(6.벽사창이) 제3장 일각④의 [후여다가], 언락(8.푸른산중) 제3장 일각②의 [학성홍을]로 세 곡이다. 이는 다음의 <예보 146>과 같다.

<예보 146> 남창 우조 가곡의 제3장 확대된 일각 제6박에서 나타난 ‘드는표’ 선율형

곡목	사설	예보
우락	9.임으란 일각④ [끝까지]	
언락	6.벽사창이 일각④ [후여다가]	
	8.푸른산중 일각② [학성홍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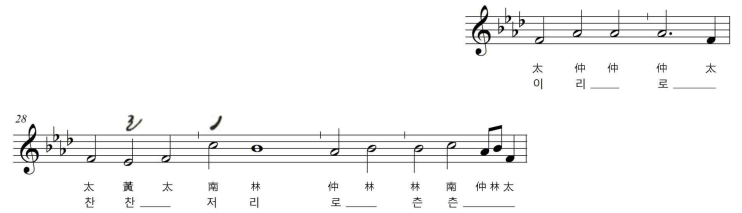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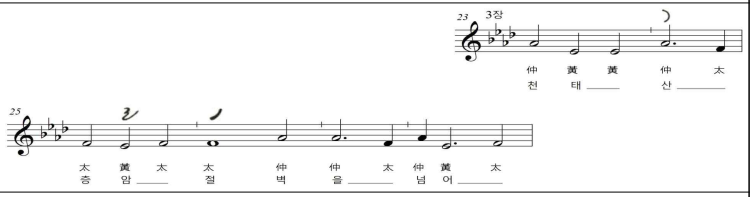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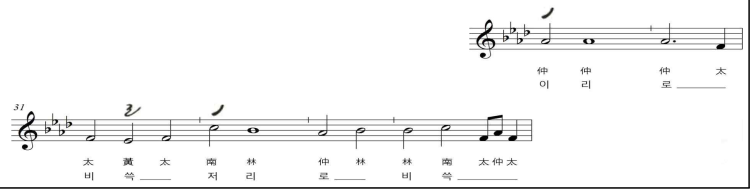
<예보 146>에서 우락(9.임으란) 일각④와 언락(8.푸른산중) 일각②의 제6박은 모두 潢으로 시작해 南, 林, 仲으로 순차적으로 하행한 후, 다시 林으로 올라갔다 仲으로 내려오는 潢-南-林-仲-林-仲으로 같은 선율형이다. 또한, 이는 제3장 기본형의 사설에서 초수대엽과 삼수대엽 제3장 제6박에 ‘드는표’가 기보되었을 때 선율형과도 같다. 따라서 두 곡에 기보된 ‘드는표’는 초수대엽 또는 삼수대엽에서 영향을 받는 선율형으로 볼 수 있다.

언락(6.벽사창이) 일각④의 제6박은 南으로 시작해 潢, 汰까지 상행한

후, 南, 林, 仲까지 하행하여 마무리하는 南-潢-汰-南-林-仲 선율형으로 위 <예보 146>의 다른 두 곡과 시작음이 다르다.

세 번째로 확대된 제3장 일각의 사설에서 제9박에 '드는표'가 기보된 곡은 우락(9.임으란) 제3장 일각② [저리로 츤츤], 우락(13.이선이) 제3장 일각① [절벽을 넘어], 언락(20.아흔아홉) 제3장 일각② [저리로 비쓱]으로 총 세 곡이다. 이는 다음의 <예보 147>과 같다.

<예보 147> 남창 우조 가곡의 제3장 확대된 일각 제9박에서 나타난 '드는표' 선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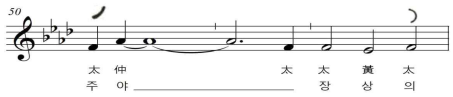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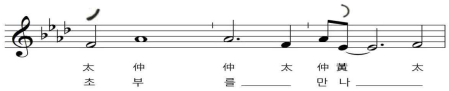
곡	사설	예보
우락	9.임으란 일각② [저리로 츤츤]	
	13.이선이 일각① [절벽을 넘어]	
언락	20.아흔아홉 일각② [이리로 비쓱]	

<예보 147>에서 우락(9.임으란) 일각②와 언락(20.아흔아홉) 일각②의 '드는표'는 南으로 시작해 林, 仲까지 내려온 후, 林과 南을 거쳐 상행하여 太로 마무리되는 南-林-仲-林-南-太 선율 골격음이다. 우락(9.임으란)과 언락(20.아흔아홉) 일각②의 기보된 '드는표'는 두 곡의 선율형이 동일하다. 따라서 일각이 확대된 사설에서 '드는표'가 기보될 때 쓰이는 선율형 중 하나로 추측할 수 있다.

우락(13.이선이) 일각①의 ‘드는표’는 太로 시작해 仲으로 올라간 후 太, 黃으로 내려와 太로 마무리되는 선율 골격음이다. 이는 사설이 확대되지 않은 기본형의 곡 중 삼수대엽(6.도화이화) 제3장 [너희는] 사설의 제9박에 기보된 ‘드는표’가 太에서 仲으로 올라가는 선율형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락 제3장 일각의 사설이 확대되는 경우, 삼수대엽 제3장 일각 제9박에 기보된 ‘드는표’의 선율형도 나타날 수 있다.

네 번째로 확대된 제3장 일각의 사설에서 반각의 첫 박에 ‘드는표’가 기보된 곡은 우락(9.임으란) 제3장 일각⑥ [주야 장상에], 우락(13.이선이) 제3장 일각④ [초부를 만나] 사설로 두 곡이다. 이는 다음의 <예보 148>과 같다.

<예보 148> 남창 우조 가곡의 락 계열 제3장 일각 중 반각에서 나타난 ‘드는표’ 선율형

곡목	사설	예보
우락	9.임으란 일각⑥ [주야 장상에]	
	13.이선이 일각④ [초부를 만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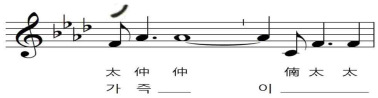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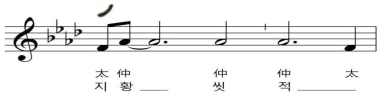
<예보 148>에서 우락 두 곡은 太에서 仲으로 상행한 후, 다시 太로 내려오는 선율형이다. 다만 사설 자수에 따른 ‘연음표’가 기보된 위치에 따라 종지음이 달라지는 형태를 보인다. 그러나 우락에서 반각에 ‘드는표’가 기보될 경우 위와 같은 太-仲-太의 선율 형태를 보임을 알 수 있다.

② 이두

제3장 이두에 ‘드는표’가 기보된 곡은 중거, 삼수대엽, 소용이, 언락 네

곡에서 나타난다. ‘드는표’는 이두 첫 박에 기보된 경우와 제11박에 기보된 두 가지 경우로 나뉜다. 첫 번째로 이두 첫 박에 기보된 ‘드는표’의 시작음은 太, 仲, 林, 南 또는 潢으로 다섯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로 太로 시작하는 ‘드는표’의 선율은 중거(1.인심은)의 제3장 이두 사설 [가즉이]와 언락(25.일월성신)의 제3장 이두 [지황씻적] 두 곡에서 나타난다. 이는 다음의 <예보 149>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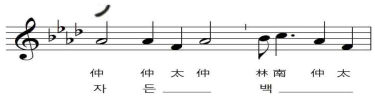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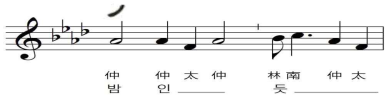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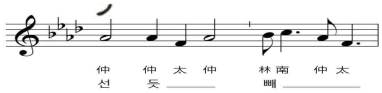
<예보 149> 남창 우조 가곡의 제3장 이두 첫 박에서 나타난 ‘드는표’ 선율형 (1)

곡목	사설	예보
중거	1.인심은 [가즉이]	
언락	25.일월성신 [지황씻적]	

<예보 149>에서 중거와 언락 두 곡은 太로 시작해 仲으로 상행한 후 太로 하행하며 마무리되는 선율형이다. 따라서 언락 제3장 이두에 기보된 ‘드는표’의 선율이 위와 같을 경우, 중거의 제3장 이두에 기보된 ‘드는표’의 선율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仲으로 시작하는 ‘드는표’는 삼수대엽(1.추강에)·(4.가마귀)·(19.적토마) 세 곡의 제3장 이두 사설 [자든]·[밤인듯]·[선듯]에서 나타난다. 이는 다음의 <예보 150>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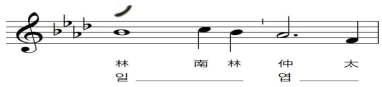
<예보 150> 남창 우조 가곡의 제3장 이두 첫 박에서 나타난 ‘드는표’ 선율형 (2)

곡목	사설	예보
삼수대엽	1.추강에 [자든]	
	4.가마귀 [밤인듯]	
	19.적토마 [선듯]	

<예보 150>에서 삼수대엽 세 곡 제3장 이두에 기보된 ‘드는표’는 仲으로 시작하여 南으로 올라간 후 仲을 거쳐 太로 내려오는 仲-南-仲(太) 선율형을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선율형은 ‘드는표’가 삼수대엽의 제3장 이두에 기보될 경우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세 번째로 林으로 시작하는 ‘드는표’는 언락(3.백구는)의 제3장 이두 사설 [일엽]에서 나타난다. 이는 다음의 <예보 151>과 같다.

<예보 151> 남창 우조 가곡의 제3장 이두 첫 박에서 나타난 ‘드는표’ 선율형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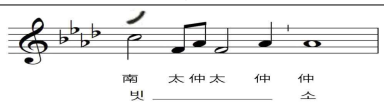
곡목	사설	예보
언락	3.백구는 [일엽]	

<예보 151>에서 ‘드는표’는 林으로 시작해 南으로 상행한 후, 仲으로 내려와 太로 마무리되는 林-南-仲(太) 선율형이다. 이러한 선율형은 ‘드는표’가 기보된 제3장 이두의 사설 중 언락에서만 나타나므로 다른 곡과의 상관관계를 알 수 없다.

네 번째로 南으로 시작하는 ‘드는표’는 중거(4.창랑에) 제3장 이두 사설

[빗소]에 기보되어 있다. 이는 다음의 <예보 15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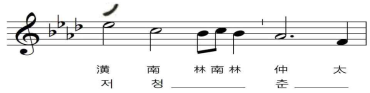
<예보 152> 남창 우조 가곡의 제3장 이두 첫 박에서 나타난 ‘드는표’ 선율형 (4)

곡목	사설	예보
중거	4.창랑에 [빗소]	

<예보 152>에서 ‘드는표’가 기보된 중거(4.창랑에) 제3장 이두의 사설 [빗소]의 선율형은 南으로 시작해 太로 하행한 후 仲으로 마무리되는 南-太-仲 이다. 이러한 선율형은 ‘드는표’가 기보된 제3장 이두의 사설 중 중거에서만 나타나므로 다른 곡과의 상관관계를 알 수 없다. 다만 <예보 149>의 중거(1.인심은) [가즉이] 사설에서 보이듯, 중거 제3장 이두에 기보되는 ‘드는표’는 두 가지의 선율형이 나올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다섯 번째로 潢으로 시작하는 ‘드는표’는 언락(20.아흔아홉) 제3장 이두의 사설 [저청춘]에 기보되어 있다. 이는 다음의 <예보 153>과 같다.

<예보 153> 남창 우조 가곡의 제3장 이두 첫 박에서 나타난 ‘드는표’ 선율형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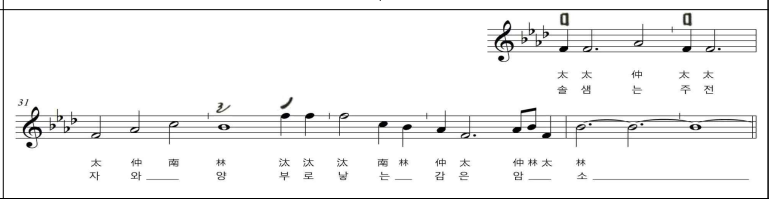
곡목	사설	예보
언락	20.아흔아홉 [저청춘]	

<예보 153>에서 ‘드는표’는 潢으로 시작해 南, 林, 仲으로 순차적으로 하행해 太로 마무리되는 潢-南-林-仲(太) 선율형이다. 이러한 선율형은 ‘드는표’가 기보된 제3장 이두의 사설 중 언락에서만 나타나므로 다른 곡과의 상관관계는 알 수 없다. 다만, <예보 149> 및 <예보 151>의 언락(3.백구는)·(25.일월성신)의 [일엽]·[지황씻적] 사설에서 보이듯, 언락 제3장 이두에 기보되는 ‘드는표’는 세 가지의 선율형이 나올 수 있음을 유추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3장 이두의 제11박에 기보된 ‘드는표’는 소용이(5.불아니) 제3장 이두의 사설 [솔샘는 주전자와] 에서만 나타나며, 시작음은 汰이다. 이는 다음의 <예보 154>와 같다.

<예보 154> 남창 우조 가곡의 제3장 이두 제11박에서 나타난 ‘드는표’ 선율형

곡목	사설	예보
소용이	5.불아니 [솔샘는 주전자와]	

<예보 154>에서 ‘드는표’의 선율형은 마지막 각이 종지형으로 네 곡 모두 같다. 따라서 ‘드는표’는 이두 제11박의 선율만을 의미하며, 해당하는 선율은 汰로 높게 들어주는 음형이다. 다른 곡과 다르게 소용이 제3장의 마지막 각에 <연음표>가 기보되는 것은 중여음에서도 노래를 부르는 소용이의 특성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두 제11박에 기보된 ‘드는표’의 선율형은 소용이에서만 나타나므로 다른 곡과의 상관관계를 알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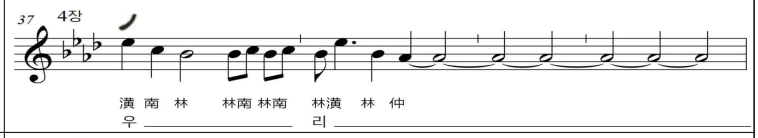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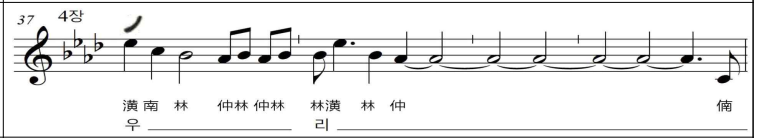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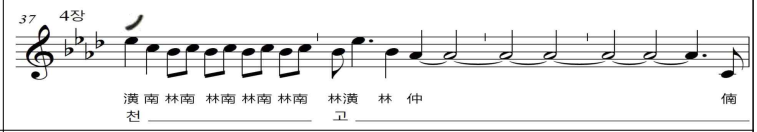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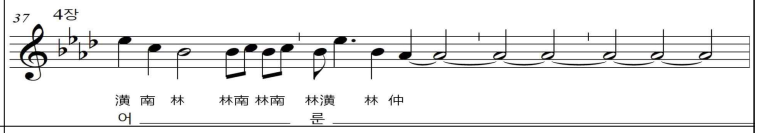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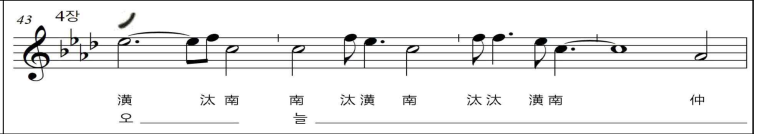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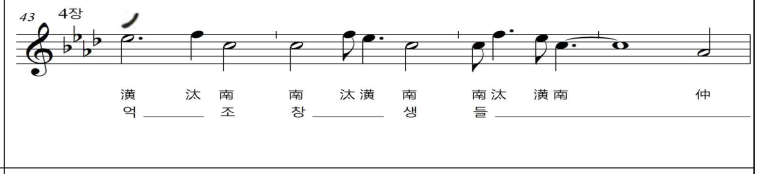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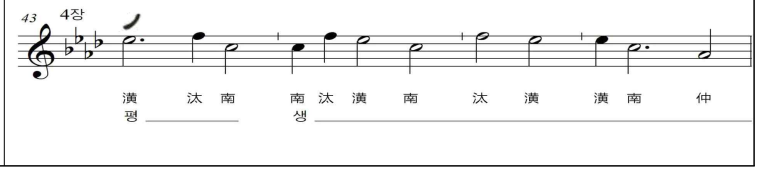
ㄹ) 제4장

제4장에 기보된 ‘드는표’는 潢, 南, 또는 林으로 시작하는 세 가지 선율형으로 나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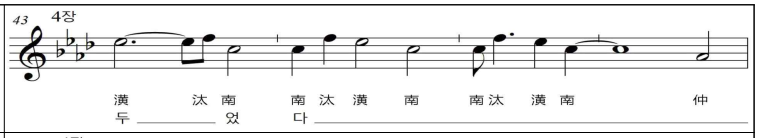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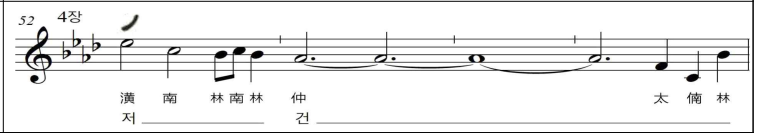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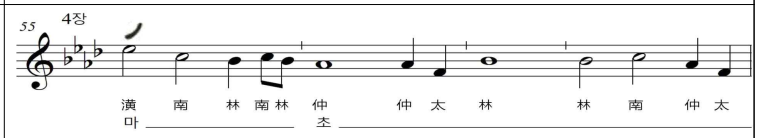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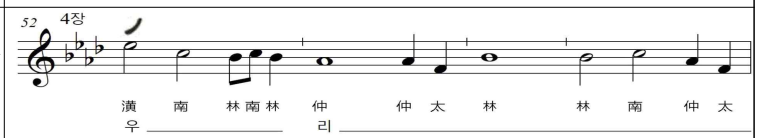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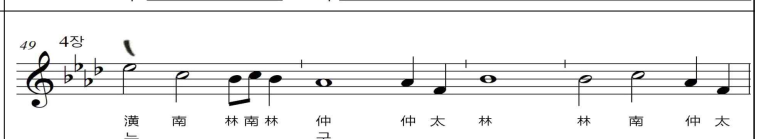
첫 번째로 潢으로 시작하는 ‘드는표’의 선율은 초수대엽 세 곡, 소용이 세 곡, 우락 두 곡과 언락 세 곡에서 나타난다. 이 중, 초수대엽(7.동짓달)의 제4장 사설 [어룬님]과 소용이(7.저건너)의 제4장 사설 [두었다가]는 <연음표>가 기보되어 있지 않으나 선율형이 같으므로 ‘드는표’가 생략된 것으로 보았다. 언락(8.푸른산중)의 제4장 사설 [누구서]는 ‘누르는

표'가 기보되어 있으나, 선율형이 '드는표'의 선율형과 같은 점, 『협률대성』에는 같은 사설에 '드는표'로 기보되어 있는 점[98]을 미루어 보아, 『가곡원류』에 기보된 '누르는표'가 오기된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다음의 <예보 155>와 같다.

<예보 155> 남창 우조 가곡의 제4장에서 나타난 '드는표' 선율형 (1)

곡목	사설	예보
초수대엽	1.천황씨 [우리도]	
	2.남훈전 [우리도]	
	3.남팔아 [천고에]	
	7.동짓달 [어룬님]	
소용이	1.어젯밤에 [오늘은]	
	3.아마도 [억조 창생들이]	
	5.불아니 [평생에]	

98) 본고 175쪽 각주93번 참고.

	7.저건너 [두었다가]	
우락	9.임으란 [동선달]	
	13.이선이 [저건너]	
언락	6.벽사창이 [마초아]	
	20.아흔아홉 [우리도]	
	8.푸른산중 [누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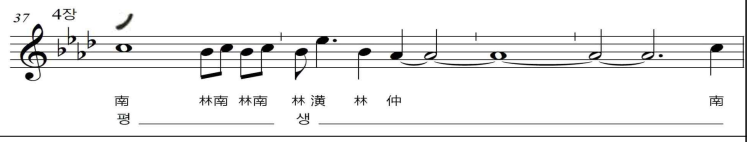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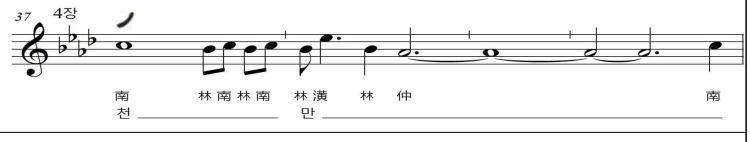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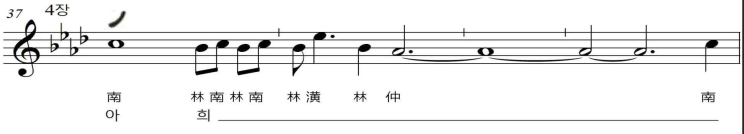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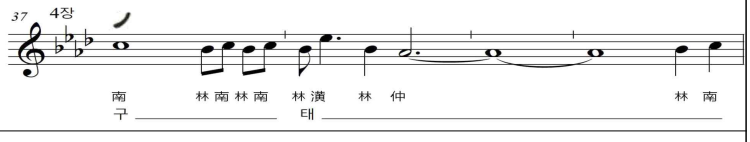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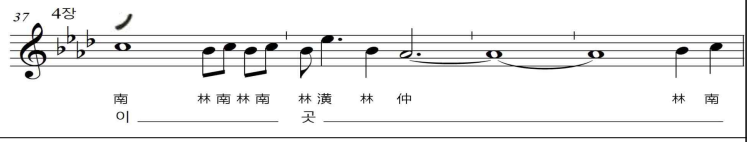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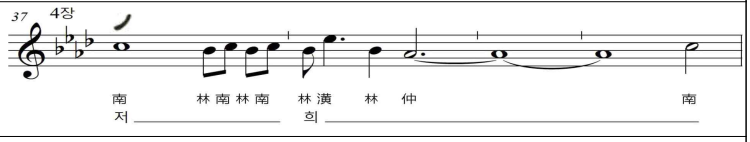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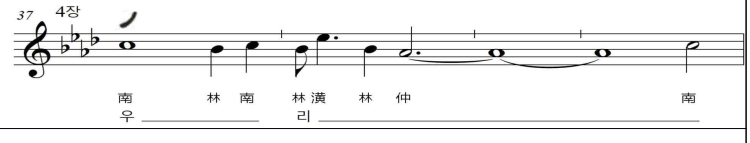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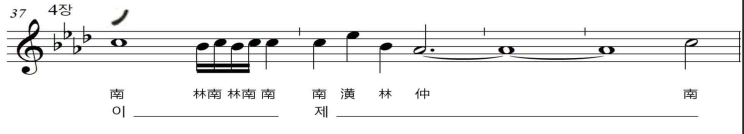
<예보 155>에서 초수대엽, 우락과 언락에 기보된 ‘드는표’의 선율형은 潢으로 시작해 南에서 林까지 하행하는 형태이다.[99] 다만 초수대엽(2.남훈전) 제4장 [우리도] 사설의 경우, 仲까지 하행하는 선율형으로 나타난다.

소용이에 기보된 ‘드는표’는 潢으로 시작해 汰를 거쳐 南으로 하행하는 선율형으로 초수대엽, 우락, 언락에 기보된 ‘드는표’와는 조금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우락과 언락 제4장에 기보된 ‘드는표’는 초수대엽 제4장의 선율과 연관이 있으며, 소용이 제4장의 ‘드는표’는 변형된 선율임을 알 수 있다.

99) 제4장에서 <연음표>가 기보된 선율형은 제1박부터 제3박까지의 선율형으로 보았다. 본고 10쪽 참조.

두 번째로 南으로 시작하는 ‘드는표’의 선율은 이수대엽 한 곡, 중거 한 곡, 평거 한 곡, 두거 두 곡과 삼수대엽 세 곡에서 나타난다. 이는 다음의 <예보 15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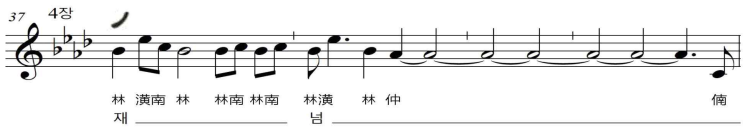
<예보 156> 남창 우조 가곡의 제4장에서 나타난 ‘드는표’ 선율형 (2)

곡목	사설	예보
이수대엽	5.주공도 [평생에]	
중거	1.인심은 [천만년]	
평거	10.샛별지자 [아희야]	
두거	1.구름이 [구태여]	
	14.녹수청산 [이곳에]	
삼수대엽	1.추강에 [저희도]	
	6.도화이화 [우리는]	
	7.굴원충혼 [이제는]	

<예보 156>에서 ‘드는표’는 南으로 시작해 林으로 진행하는 선율형이다. 이수대엽 계열의 곡인 이수대엽, 중거, 평거, 두거의 제4장과 삼수대엽의 제4장의 선율형이 모두 같으므로, 삼수대엽의 제4장은 이수대엽과 연관 있는 선율임을 알 수 있다.

세 번째로 林으로 시작하는 ‘드는표’는 초수대엽(4.동창이) 제4장 [재넘어] 사설에서 나타난다. 이는 다음의 <예보 157>과 같다.

<예보 157> 남창 우조 가곡의 제4장 초두에서 나타난 ‘드는표’ 선율형 (3)

곡목	사설	예보
초수대엽	4.동창이 [재넘어]	

<예보 157>에서 제4장 사설 [재넘어]에 기보된 ‘드는표’는 첫 박에 林潢南으로 시작해 林으로 진행하는 林潢南-林 선율형이다. 이는 앞서 초수대엽 제4장에 기보된 ‘드는표’의 선율형이 潢-南-林인 것과 다른 유형으로 나타난다. 제4박부터의 선율이 초수대엽 다른 곡과 같은 것을 보아 제1-3박의 선율이 변형된 것으로 보인다.

ㅁ) 제5장

① 일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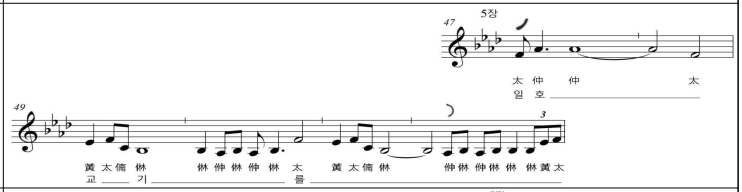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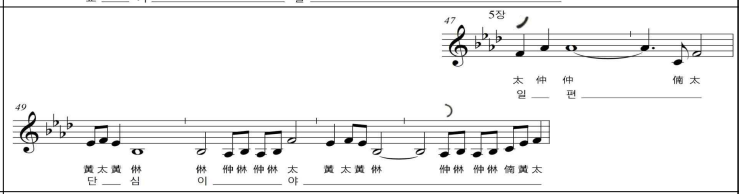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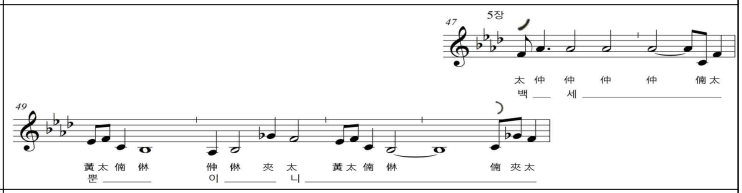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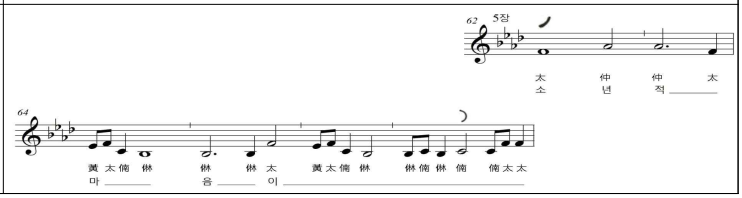
제5장 일각의 경우 우락 두 곡과 언락(3.백구는)·(6.벽사창이) 두 곡은 사설로 인해 일각의 선율이 확대되게 된다. 따라서 일각이 확대되지 않은 기본형의 곡을 먼저 살펴본 후, 확대된 일각의 선율도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락과 언락(3.백구는)·(6.벽사창이)를 제외한 기본형의 곡에서 ‘드는표’

는 첫 박에 기보된 경우, 제4박에 기보된 경우, 제6박에 기보된 경우 또는 제9박에 기보된 네 가지 경우로 나타난다.

제5장 일각 중 첫 박에 기보된 ‘드는표’는 太 또는 仲으로 시작하는 두 가지 경우로 나뉜다. 첫 번째로 太로 시작하는 ‘드는표’는 이수대엽 한 곡, 삼수대엽 두 곡과 언락 한 곡에서 나타난다. 이는 다음의 <예보 158>과 같다.

<예보 158> 남창 우조 가곡의 제5장 일각 첫 박에서 나타난 ‘드는표’ 선율형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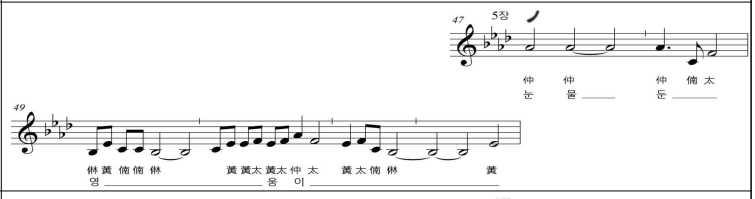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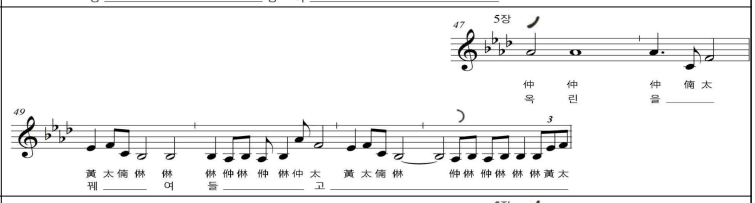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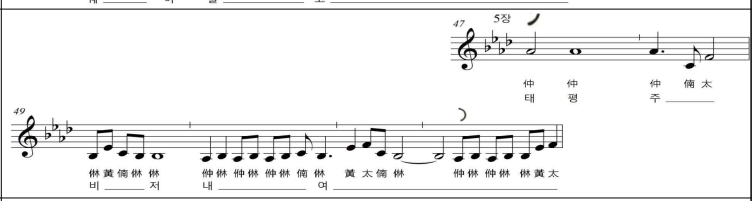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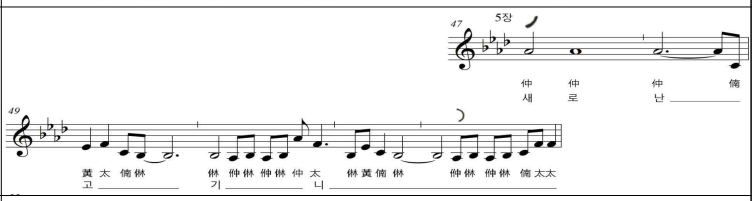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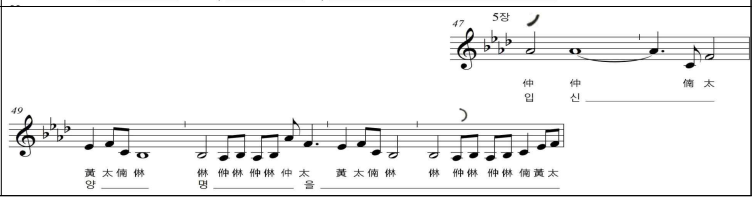
곡목	사설	예보
이수대엽	5.주공도 [일호교기를]	
삼수대엽	4.가마귀 [일편단심]	
삼수대엽	6.도화이화 [백세뿐이니]	
언락	20.아흔아홉 [소년적]	

<예보 158>에서 제5장 일각 첫 박에 기보된 ‘드는표’는 太로 시작해 仲으로 올라간 후 太로 내려오는 선율형을 보인다. 이는 이수대엽과 삼수대엽 세 곡, 그리고 언락 모두 유사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이수대엽, 삼수대엽과 언락 세 곡 제5장 일각에 ‘드는표’가 기보된 선율은 서로 연

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언락(20.아흔아홉) 제5장 일각의 사설 [소년적]의 경우, 이수대엽과 삼수대엽에 비교해 太를 두 박 지속한 후 仲으로 올려주는 차이를 보인다.

두 번째로 仲으로 시작하는 '드는표'는 초수대엽 한 곡, 중거 한 곡, 평거 한 곡과 삼수대엽 두 곡에서 나타난다. 이는 다음의 <예보 159>와 같다.

<예보 159> 남창 우조 가곡의 제5장 일각 첫 박에서 나타난 '드는표' 선율형 (2)

곡목	사설	예보
초수대엽	3.남팔아 [눈물둔]	
중거	4.창랑에 [옥린을]	
평거	3.경성출 [태평주]	
삼수대엽	7.굴원충혼 [새로난]	
삼수대엽	19.적토마 [입신양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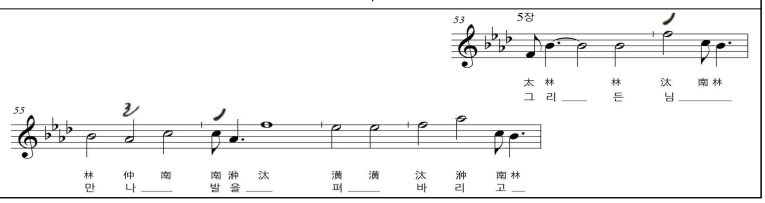
<예보 159>에서 제5장 일각 첫 박에 기보된 ‘드는표’는 仲으로 시작해 倘을 거쳐 太로 하행하는 선율형이다. 따라서 위의 곡 제5장 일각 첫 박에 ‘드는표’가 기보된 선율은 서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삼수대엽은 <예보 158>과 <예보 159>와 같이 제5장 일각 첫 박에 기보된 ‘드는표’의 시작음이 달라진다. 이는 삼수대엽 제5장 일각 첫 박에 기보된 ‘드는표’의 선율이 각각 초수대엽과 이수대엽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중거(4.창랑에)와 평거(3.경성출)의 제5장 사설 [옥린을]과 [태평주]도 仲으로 시작하며 이수대엽(5.주공도)의 제5장 [일호교기를]과 다른 시작음으로 나타난다. 이는 중거와 평거는 이수대엽에서 파생된 곡이지만 제5장 일각의 선율은 초수대엽에서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삼수대엽(7.굴원충혼) 제5장 사설 [새로난]의 경우, 太로 하행하지 않고 仲을 지속하다 倘으로 하행하여 다른 곡과 종지음이 다르다. 그러나 시작음이 같고 선율의 흐름이 <예보 159>의 다른 곡과 유사하여 서로 연관이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제5장 일각의 제4박에 기보된 ‘드는표’는 소용이(1.어젯밤도) 제5장 사설 [그리든] 한 곡에서 나타난다. 이는 다음의 <예보 160>과 같다.

<예보 160> 남창 우조 가곡의 제5장 일각 제4박에서 나타난 ‘드는표’ 선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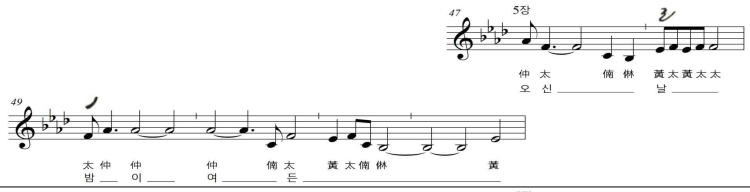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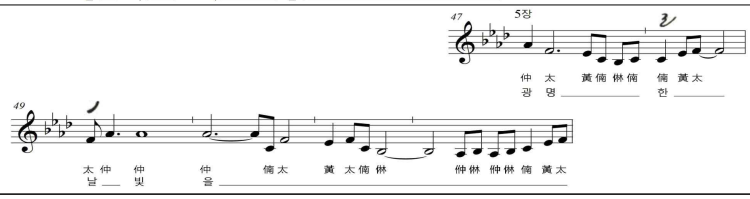
곡목	사설	예보
소용이	1.어젯밤도 [그리든]	

<예보 160>에서 ‘드는표’는 汰로 시작해 林으로 하행하는 汰-林 선율 골격음이다. 제5장 일각의 제4박에 기보된 ‘드는표’는 위의 『하규일보』에

실린 곡 중 소용이에서만 나타나므로 다른 곡과의 상관관계를 알 수 없다.

제5장 일각의 제6박에 기보된 ‘드는표’는 太로 시작하는 경우와 仲으로 시작하는 두 가지 경우로 나뉜다. 첫 번째로 太로 시작하는 ‘드는표’는 초수대엽(7.동짓달) 제5장의 [오신님], 두거(1.구름이) 제5장 [광명한] 두 곡에서 나타난다. 이는 다음의 <예보 16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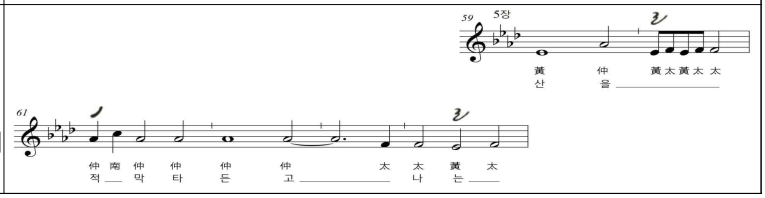
<예보 161> 남창 우조 가곡의 제5장 일각 제6박에서 나타난 ‘드는표’ 선율형 (1)

곡목	사설	예보
초수대엽	7.동짓달 [오신날]	
두거	1.구름이 [광명한]	

<예보 161>에서 두 곡에 기보된 ‘드는표’는 太로 시작해 仲으로 상행한 후, 太로 내려와 黃太倘의 음형을 거쳐 俴까지 하행하는 선율형이다. 따라서 두거(1.구름이) 제5장 제6박에 기보된 ‘드는표’는 초수대엽에 기보된 ‘드는표’의 선율형에서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仲으로 시작하는 ‘드는표’는 언락(8.푸른산중) 제5장 [산을 적막타든고] 한 곡에서 나타난다. 이는 다음의 <예보 16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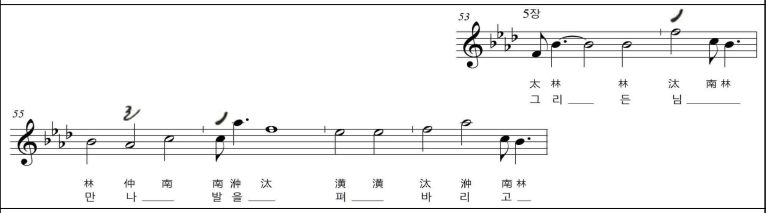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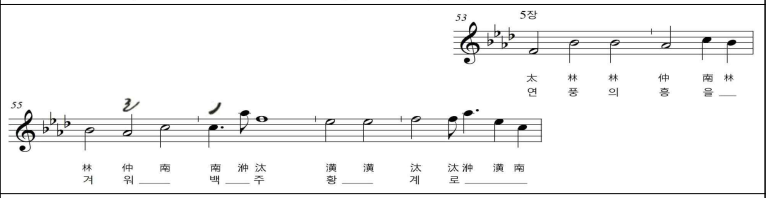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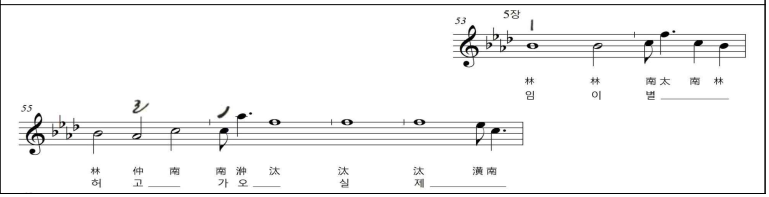
<예보 162> 남창 우조 가곡의 제5장 일각 제6박에서 나타난 ‘드는표’ 선율형 (2)

곡목	사설	예보
언락	8.푸른산중 [산을 적막타든고]	

<예보 162>에서 ‘드는표’는 仲南으로 시작해 仲을 지속한 후 太로 내려오는 선율형이다. 제5장 일각 제6박에 기보된 ‘드는표’ 중 仲으로 시작하는 선율형은 『하규일보』에 실린 곡 중 언락 한 곡에서만 나타나므로 다른 곡과의 상관관계를 알 수 없다. 다만, <예보 141>의 삼수대엽(19. 적토마)의 제3장 일각 [용천검] 사설 제6박에 기보된 ‘드는표’의 골격음이 仲-太로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 따라서 삼수대엽과 언락의 연관성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제5장 일각의 제9박에 기보된 ‘드는표’는 소용이에서만 보이며, 시작음은 南 또는 林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로 南으로 시작하는 ‘드는표’는 소용이(1.어젯밤도)·(3.아마도)·(7.저건너)의 제5장 사설 [그리든]·[연풍의]·[임이별] 세 곡에서 나타난다. 이는 다음의 <예보 163>과 같다.

<예보 163> 남창 우조 가곡의 제5장 일각 제9박에서 나타난 ‘드는표’ 선율형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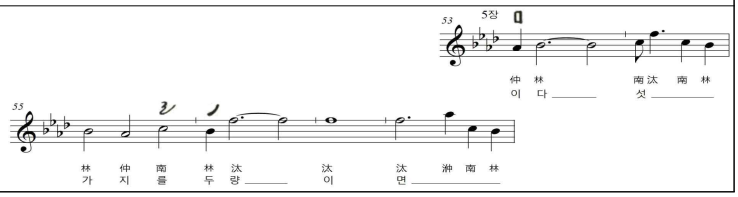
곡목	사설	예보
소용이	1.어젯밤도 [그리든]	
	3.아마도 [연풍의]	
	7.저건너 [임이별]	

<예보 163>에서 소용이(1.어젯밤도) 제5장 사설 [그리든] 일각 제9박에 기보된 ‘드는표’는 南에서 浽으로 상행한 후 汰, 潢으로 하행하다 다시 汰, 浽으로 상행하여 南林으로 마무리되는 선율형이다. 소용이(3.아마도) 제5장 사설 [연풍의] 일각 제9박에 기보된 ‘드는표’는 南으로 시작해 浽을 거쳐 汰를 지속한 후 潢으로 하행하다 다시 汰, 浽으로 상행하여 潢南으로 마무리되는 선율형이다. 소용이(7.저건너) 제5장 사설 [임이별] 일각 제9박에 기보된 ‘드는표’는 南에서 浽으로 상행한 후 汰를 지속하다 潢南으로 마무리되는 선율형이다.

세 곡에 기보된 ‘드는표’는 선율 골격음이 조금씩 달라지지만 대체로 유사하므로 소용이의 제5장 일각 제9박에 ‘드는표’가 기보될 경우 이러한 선율형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제5장 일각 제9박에 ‘드는표’가 기보된 곡이 『하규일보』에 실린 다른 곡에서는 나타나지 않으므로 다른 곡과의 상관관계는 알 수 없다.

두 번째로 林으로 시작하는 ‘드는표’는 소용이(5.불아니) 제5장 일각 [이다섯가지를] 사설 제9박에서 나타난다. 이는 다음의 <예보 164>와 같다.

<예보 164> 남창 우조 가곡의 제5장 일각 제9박에서 나타난 ‘드는표’ 선율형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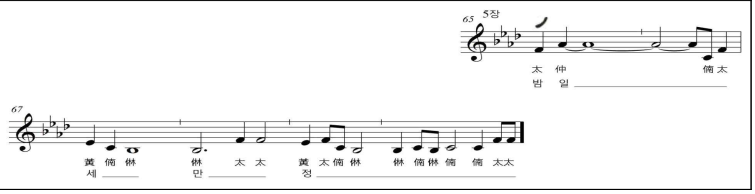
곡목	사설	예보
소용이	5.불아니 [이다섯가지를]	

<예보 164>에서 ‘드는표’는 林에서 汰로 상행해 지속한 후 沖까지 올라갔다 南林으로 하행하는 선율형이다. 이는 시작음은 다르지만 소용이(1.어젯밤도) 제5장 [그리든] 사설 일각 제9박에 기보된 ‘드는표’와 유사하다. 따라서 소용이 제5장 일각 제9박에 기보된 ‘드는표’의 선율형은 다른 곡과의 상관관계는 알 수 없으나, 『하규일보』에 실린 네 곡의 선율형이 모두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제5장의 일각이 확대된 곡은 우락(9.임으란)·(13.이선이) 두 곡과 언락(3.백구는)·(6.벽사창이) 두 곡으로 총 네 곡이다. 이중 제5장 일각에 ‘드는표’가 기보된 곡은 우락(13.이선이), 언락(3.백구는)·(6.벽사창이)으로 세 곡이다. 『하규일보』에 실린 세 곡의 제5장은 모두 사설에 따라 일각이 확대되어 일정한 선율형을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확대된 일각의 기보된 박에 따라 나누어보도록 하겠다.

첫 번째로 일각의 첫 박에 기보된 ‘드는표’는 언락(6.벽사창이) 제5장 일각①의 사설 [밤일세만정]에서 나타난다. 이는 다음의 <예보 16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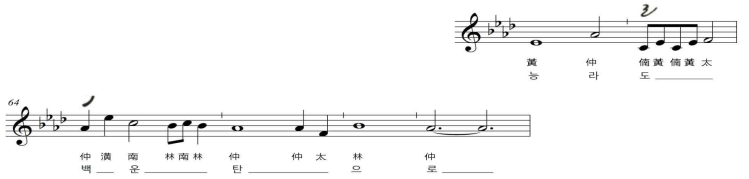
<예보 165> 남창 우조 가곡의 락 계열 제5장 일각① 첫 박에서 나타난 ‘드는표’ 선율형

곡목	사설	예보
언락	6.벽사창이 일각① [밤일세만정]	

<예보 165>에서 ‘드는표’는 太에서 仲으로 올라간 후 倘을 거쳐 太로 하행하는 선율형이다. 이는 <예보 158>에 나온 네 곡에 기보된 ‘드는표’의 선율형과 같다. 따라서 언락(6.벽사창이) 제5장 일각① [밤일세만정] 사설 첫 박에 기보된 ‘드는표’는 이수대엽과 삼수대엽에서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일각 제6박에 기보된 ‘드는표’는 언락(3.백구는) 제5장 일각②의 사설 [능라도]에서 나타난다. 이는 다음의 <예보 166>과 같다.

<예보 166> 남창 우조 가곡의 락 계열 제5장 일각② 제6박에서 나타난 ‘드는표’ 선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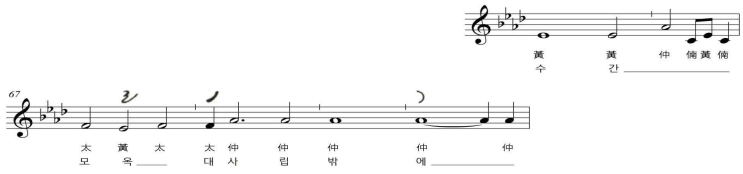
곡목	사설	예보
언락	3.백구는 일각② [능라도]	

<예보 166>에서 ‘드는표’는 仲潢으로 시작해 南, 林, 仲으로 순차적으로 하행한 후, 太를 거쳐 林으로 상행하고 仲으로 마무리되는 仲潢-南-林-仲-林-仲 선율형이다. 『하규일보』에 실린 곡 중 사설이 확대되지 않은 곡에서 위와 같은 선율형은 나타나지 않으므로 다른 곡과의 상관관계는 알 수 없다. 다만 제2장 초두와 사설이 늘어나지 않은 제3장 일각 제6박에 기보된 ‘드는표’ 중 潢으로 시작하는 선율형과 시작음이 다를 뿐,

유사하다.[100] 따라서 위 <예보 166>에 기보된 ‘드는표’는 우락 또는 언락의 제2장 초두 또는 제3장 일각 제6박 선율에서 왔음을 유추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일각 제9박에 기보된 ‘드는표’는 우락(13.이선이) 일각②의 사설 [수간모옥]에서 나타난다. 이는 다음의 <예보 167>과 같다.

<예보 167> 남창 우조 가곡의 락 계열 제5장 일각② 제9박에서 나타난 ‘드는표’ 선율형

곡목	사설	예보
우락	13.이선이 일각② [수간모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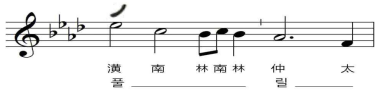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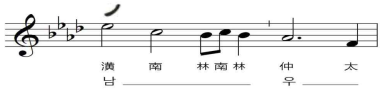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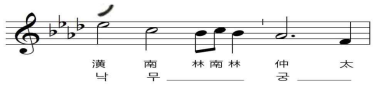
<예보 167>에서 ‘드는표’는 太에서 仲으로 상행해 지속하는 선율형이다. 『하규일보』에 실린 곡 중 제5장 일각 제9박에 기보된 ‘드는표’는 소용이에서 나타나지만,[101] 이는 <예보 167>의 우락 선율과는 다르다. 따라서 우락(13.이선이) 제5장 일각② 제9박에 기보된 ‘드는표’는 제5장에서의 유기성을 찾을 수 없으나, <예보 143> 삼수대엽 제3장 일각에 기보된 ‘드는표’와 유사한 선율형을 가진 것을 알 수 있다.

② 이두

제5장 이두에 기보된 ‘드는표’는 첫 박에 기보된 경우와 제4박에 기보된 두 가지 경우로 나뉜다. 첫 번째로 이두 첫 박에 기보된 ‘드는표’는 우락(9.임으란) 제5장 이두 [풀릴]과 언락(6.벽사창이)·(8.푸른산중) 제5장 [남우]·[낙무궁] 세 곡에서 나타난다. 이는 다음의 <예보 168>과 같다.

100) <예보 130>, <예보 142> 참조.
101) <예보 163>, <예보 16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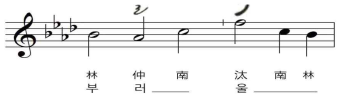
<예보 168> 남창 우조 가곡의 제5장 이두 첫 박에서 나타난 ‘드는표’ 선율형

곡목	사설	예보
우락	9.임으란 [풀릴]	
언락	6.벽사창이 [남우]	
	8.푸른산중 [낙무궁]	

<예보 168>에서 세 곡에 기보된 ‘드는표’는 潢으로 시작해 南, 林, 仲으로 순차적으로 하행하여 太로 마무리되는 선율형이다. 세 곡의 제5장 이두 첫 박에 기보된 ‘드는표’의 선율형은 모두 같으므로 이는 우조인 락음악에서 ‘드는표’가 기보될 때 위와 같은 선율형이 나옴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이두 제4박에 기보된 ‘드는표’는 소용이(5.불아니) 제5장 이두 사설 [부러울]에서 나타난다. 이는 다음의 <예보 169>와 같다.

<예보 169> 남창 우조 가곡의 제5장 이두 제4박에서 나타난 ‘드는표’ 선율형

곡목	사설	예보
소용이	5.불아니 [부러울]	

<예보 169>에서 ‘드는표’는 汰로 시작해 南林으로 하행하는 선율형이다. 제5장 이두 제4박에 기보된 ‘드는표’는 『하규일보』에 실린 곡 중 소용이에서만 나타나므로 다른 곡과의 상관관계는 알 수 없다.

ㅂ) 소결

남창 우조 가곡에서 가장 많이 드러나는 <연음표>는 ‘드는표’로 그에 따른 선율형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가곡원류』의 사설 중, 남창 우조 가곡에서 나타난 ‘드는표’의 선율형을 『하규일보』에 실린 곡들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초장 초두는 각 곡의 특징을 보여주는 선율형으로 곡에 따라 기보된 <연음표>도 뚜렷하게 나뉘었다. ‘드는표’가 기보된 곡은 두거, 삼수대엽, 소용이, 언락 다섯 곡으로 두거는 林南으로 시작해 倧까지 하행하는 선율형이며 두거에서만 나타났다. 삼수대엽은 南潢으로 시작해 太로 마무리되고, 언락은 仲 또는 南에서 潢 바로 들어주며 仲 또는 林으로 마무리되어 두 곡의 ‘드는표’ 선율형은 유사하나 종지음이 다르게 나타났다. 소용이는 삼수대엽·언락에서 변형된 ‘드는표’의 선율형을 보여 세 곡이 유기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초장 이두는 중거, 삼수대엽, 소용이, 언락 네 곡에서 ‘드는표’의 선율을 확인할 수 있다. 중거의 ‘드는표’ 선율형은 중거에서만 개별적으로 나타나고. 삼수대엽, 소용이, 언락 세 곡은 시작음 南 또는 汰, 종지음 潢으로 유사한 골격음 형태였다. 다만 소용이는 삼수대엽·언락과 유사한 선율형과 소용이에만 나타나는 개별적인 선율형이 모두 나타났다.

제2장 초두는 <연음표>가 첫 박, 제4박과 제8박에 기보된 세 가지 경우로 나뉘었다. 제2장 초두의 첫 박은 ‘드는표’와 ‘막내는표’의 선율형을 확인할 수 있다. ‘드는표’는 초수대엽, 이수대엽, 평거, 삼수대엽, 우락, 언락 여섯 곡에 기보되어 있으며, 이중 초수대엽, 우락과 언락은 潢으로 시작해 仲으로 마무리되고, 이수대엽과 평거는 太仲으로 시작해 倧으로 마무리되는 선율형으로 각 곡의 유기성이 드러났다. 삼수대엽은 南으로 시작해 太로 마무리하는 선율형으로 삼수대엽에서만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제2장 초두 제4박은 ‘드는표’를 언락, ‘누르는표’를 두거에서, 초두 제8박은 ‘드는표’를 소용이에서 각 곡에 기보된 <연음표>의 선율형을 확

인할 수 있다. 언락 초두 제4박과 소용이 초두 제8박에 기보된 '드는표'와 두거 초두 제4박의 '누르는표'는 각 곡에서만 개별적으로 드러나 다른 곡과의 연관성은 파악할 수 없었다.

제2장 이두에 '드는표'가 기보된 곡은 중거, 두거, 소용이, 언락이며, 시작음은 仲, 太, 倘의 총 세 가지로 나타났다. 제2장 이두는 첫 박에 기보된 경우와 제4박에 기보된 경우의 총 두 가지 유형이다. 첫 박에 기보된 경우 仲-南으로 들거나, 仲-黃으로 하행하는 상행과 하행의 선율형이 모두 나타났다. 또한 太로 시작해 음을 지속하거나 倘-太로 선율형으로 초두와 달리 낮은음의 시작음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제4박에 기보된 경우는 소용이에서만 나타났으며, 仲으로 지속되어 제2장 이두의 '드는표'가 기보된 선율형은 공통된 선율형이 나오지 않아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

제3장 일각에 '드는표'는 일각의 사설이 확대되지 않은 경우와 확대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일각의 사설이 확대되지 않은 경우와 확대 된 경우 모두 첫 박, 제6박, 제9박에 기보되었으며, 사설이 확대된 경우 반각에 기보되었다.

첫 번째로 일각이 확대되지 않은 곡들에서 <연음표>는 제3장 일각의 첫 박, 제6박 및 제9박에 기보된 세 가지 경우로 나뉘었다. 제3장 일각 첫 박은 중거에 '드는표'가 기보되어 있으며 선율 골격음은 太仲-倘 형태로 중거에서만 개별적으로 나타났다.

제3장 일각 제6박의 '드는표'는 중거를 제외한 일곱 곡에 기보되어 있다. 이 중, 이수대엽, 평거, 두거 세 곡의 시작음 太, 종지음 林인 선율과 초수대엽, 삼수대엽 두 곡의 시작음 潢, 종지음 仲인 선율이 각각 동일 또는 유사하게 나타나 이수대엽 계열과 초수대엽·삼수대엽에 기보되는 '드는표'의 선율형이 명확히 구분되었다. 다만 삼수대엽은 같은 '드는표'에서 초수대엽과 같은 선율형과 개별적으로 나타나는 두 가지 선율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용이는 이수대엽 계열과 시작음이 太로 같지만 종지음 南으로 상행하는 선율형으로 다른 곡과 구분되었다. 제3장 일각 제

9박은 ‘드는표’가 삼수대엽과 소용이에 기보되어 있으며, 각 곡의 선율형이 개별적으로 나타나 다른 곡과의 연관성은 확인할 수 없었다.

제3장 일각이 확대되지 않은 곡들에서 나타난 선율형을 바탕으로 우락과 언락 제3장의 확대된 일각의 선율을 살펴보면, <연음표>는 확대된 일각의 첫 박, 제6박, 제9박, 그리고 반각의 첫 박에 기보된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뉘었다. 일각 첫 박의 ‘드는표’는 언락에 기보되어 있으며, 다른 곡과 연관 있는 선율형이 드러나지 않았다. 제6박의 ‘드는표’는 潢 또는 南으로 시작해 仲으로 마무리되는 선율형으로 초수대엽·삼수대엽에 ‘드는표’가 기보된 제3장 일각 제6박과 유사한 골격음으로 나타났다. 제9박의 ‘드는표’는 南으로 시작해 太로 마무리되는 선율형이 우락·언락에서 동일하게 나타났고, 太로 시작하는 선율형은 삼수대엽 제3장 일각 제9박에 ‘드는표’가 기보되었을 때 太에서 仲으로 올라가는 선율형이 유사하여 연관성을 유추할 수 있었다. 또한, 우락의 반각에 기보된 ‘드는표’도 太로 시작해 삼수대엽과 유사한 골격음으로 진행하였다.

제3장 이두의 ‘드는표’는 중거, 삼수대엽, 언락 세 곡에 기보되어 있으며, 이중 중거와 언락은 太仲-太의 동일한 골격음으로 선율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거·언락의 ‘드는표’에서 나타나는 다른 선율형과 삼수대엽은 모두 개별적으로 다르게 나타났다. 이외에 소용이 제3장 이두 제4·11박에 각각 ‘막내는표’와 ‘드는표’가 기보되어 있는데 해당 박에 기보된 <연음표>는 소용이 외에 다른 곡은 나오지 않아 선율형과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없었다.

제4장의 ‘드는표’는 크게 두 가지 선율형으로 이수대엽·중거·평거·두거·삼수대엽에서 南-林, 초수대엽, 우락, 언락에서 潢-南-林으로 골격음이 동일하였고, 소용이는 潢-汰-南 선율형으로 다른 곡과 구분되었다.

초수대엽(7.동짓달)과 소용이(7.저건너)는 ‘드는표’가 기보되어 있지 않으나 각 곡과 동일한 선율형으로 ‘드는표’가 생략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언락(8.푸른산중)은 ‘누르는표’가 기보되어 있으나 ‘드는표’와 동일한 선율형이며, 『협률대성』에서는 ‘드는표’로 기보되어 있어 『가곡

원류』에서 오기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제5장은 『하규일보』에 실린 우락 두 곡과 언락 다섯 곡 중 우락(9.임으란)·(13.이선이) 두 곡, 언락(3.백구는)·(6.벽사창이) 두 곡에서 사설이 늘어나면서 일각이 확대되었다. 따라서 일각이 확대되지 않은 기본형의 일각 선율형을 기준으로 확대된 일각의 선율과의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첫 번째로 제5장 일각의 첫 박에서 '드는표'는 초수대엽, 이수대엽, 중거, 평거, 삼수대엽과 언락 여섯 곡에서 선율형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선율형은 太仲 또는 仲으로 시작해 太로 하행해 다섯 곡 모두 동일·유사한 형태였다. 다만 삼수대엽과 언락의 太-仲-太로 진행하는 '드는표'의 선율은 '막내는표'가 기보되어 있는 다른 사설의 언락에서 동일한 선율형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제5장 일각 제6박의 '드는표'는 초수대엽, 두거, 언락 세 곡에 기보되어 있다. 이 중 초수대엽과 두거의 골격음은 太仲-太-黃-林으로 같고, 언락은 仲-太로 같은 박에서 동일한 선율형은 없었으나 삼수대엽 제3장 일각 제6박에 기보된 '드는표'와 같아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외에 일각 제4·9박에 '드는표'가 기보된 소용이의 경우, 다른 곡과는 개별적인 선율로 나타나 연관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제5장 일각이 확대되지 않은 곡들에서 나타난 선율형을 바탕으로 우락과 언락 제5장의 확대된 일각의 선율을 살펴보았다. 확대된 일각 첫 박은 '드는표'가 언락에 기보되어 있으며, 太仲으로 시작해 太로 하행하는 선율형으로 기본형의 제5장 일각 첫 박에 기보된 '드는표'의 골격음과 동일하였다. 확대된 일각 제6박은 언락에 '드는표'가 기보되어 있으며, 仲潢으로 시작해 仲으로 끝나는 선율형으로 같은 박에 기보된 <연음표>에서 동일한 선율형은 찾을 수 없었다. 다만, 초수대엽의 제2장 초두와 초수대엽·삼수대엽의 제3장 일각 제6박에 기보된 '드는표'와 유사한 선율형으로 연관성을 유추할 수 있었다. 확대된 일각 제9박은 '드는표'가 우락에 기보되어 있으며, 太仲-太 선율형으로 같은 박에 기보된 <연음표>에서 동일한 선율은 찾을 수 없었으나 삼수대엽의 제3장 일각 제9박에 기보된 '드는표'와 골격음이 같아 영향을 받았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제5장 이두의 ‘드는표’는 우락과 언락에 기보되어 있으며, 두 곡의 선율형은 潢-南-林-仲으로 동일하였다. 이 외에 소용이의 제5장 이두의 제4박에 ‘드는표’가 기보되어 있으나 다른 곡과는 개별적인 선율로 나타나 연관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드는표’의 선율형을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의 <표 32>와 같다.

<표 32> ‘드는표’의 선율형

구분		선율형	사설	곡목	
초장	초두	【潢】-南-潢-南-仲-太	어젯밤도	1.어젯밤도	소용이
		【潢】沖潢-南-林-仲	저건너	7.저건너	
		【南】潢-南-汰-仲-太	가마귀	4.가마귀	삼수대엽
			굴원충혼	7.굴원충혼	
			적토마	19.적토마	
		【南】潢-南-仲-太	불아니	5.불아니	소용이
		【南】潢-南-林-仲	벽사창이	6.벽사창이	언락
			푸른산중	8.푸른산중	
			아흔아홉	20.아흔아홉	
		【南】潢-南-林-仲	일월성신	25.일월성신	
		【林】南-林-仲-太-黃-淋	구름이	1.구름이	두거
			녹수청산	14.녹수청산	
		【仲】潢-南-潢-南-林-仲	백구는	3.백구는	언락
	이두	【汰】-沖-潢	월백	1.추강에	삼수대엽
		【汰】-南-汰-沖-潢	백발	8.푸른산중	언락
		【南】-林-仲	터히	1.인심은	중거
			낚시	4.창랑에	
		【南】潢	곱송그려	1.어젯밤도	소용이
		【南】-汰-沖-潢	태평	3.아마도	
		【南】汰-南-汰-沖-潢	곱먹은	20.아흔아홉	언락
		【仲】-南-汰-沖-潢	절로익	5.불아니	소용이
제2장	초두 첫 박	【潢】-南-仲-潢-仲-林-仲	요순에와	1.천황씨	초수대엽
		【潢】-南-林-潢-仲-林-仲	팔원팔개	2.남훈전	
			불가이불의	3.남팔아	
			노고지리	4.동창이	
			한허리에	7.동짓달	
		【潢】-南-林-仲	나는삼사월	9.임으란	우락
		【潢】-南-林-仲-林-仲	나귀목에	13.이선이	
			고요독좌	8.푸른산중	언락
			탁주를	20.아흔아홉	
		【南】-林-潢-仲-太	일엽주를	1.추강에	삼수대엽
			희는듯	4.가마귀	

			일년춘광	6.도화이화	
		【太】仲-太-黃-㑹	십년을	3.강호에	이수대엽
			일월이	3.경성출	평거
	초두 제4박	【太】潢-南-林-仲	장송은낙낙	3.백구는	언락
		【太】-南-林-仲	산하토지도	25.일월성신	
	초두 제8박	【潢】南-南-仲	지난밤도	1.어젯밤에	소용이
	이두 첫 박	【仲】-南	이시절	3.아마도	소용이
		【仲】-黃	펄떡뛰여	6.벽사창이	언락
		【太】	기동	1.인심은	중거
		【倘】-太	들어	14.녹수청산	두거
	이두 제4박	【仲】	살져	5.불아니	소용이
제3장	일각 첫 박	【太】仲-倘	예의	1.인심은	중거
			낙조	4.창랑에	
	일각 제6박	【太】仲-太-黃-㑹	백구는	3.강호에	이수대엽
			예악이요	3.경성출	평거
			떠있어	1.구름이	두거
			백운이요	14.녹수청산	
		【太】仲-太-㑹	찬이슬에	10.샛별지자	평거
		【太】仲-南	팔자가	1.어젯밤도	소용이
		【仲】-太	드는칼을	19.적토마	삼수대엽
		【潢】-南-仲-潢-仲	풍우에	1.천황씨	초수대엽
		【潢】-南-林-潢-仲	일성에	2.남훈전	
			아희놈은	4.동창이	
			이불아래	7.동짓달	
			등에얹고	7.굴원충혼	삼수대엽
	일각 제9박	【太】仲	허여도	6.도화이화	삼수대엽
		【南】潢-南-仲太-仲	뿔을박아	7.저건너	소용이
		【潢】-南-仲太-仲	주야장상에	1.어젯밤도	
		【潢】-南-仲-太-仲	국유풍운경	3.아마도	
	확대 일각 첫 박	【仲】-太-仲	벽오동	6.벽사창이	언락
		【仲】-太	이리로	20.아흔아홉	
		【仲】-林-仲-林	일월	25.일월성신	
	확대 일각 제6박	【潢】-南-林-仲-林-仲	끝까지	9.임으란	우락
			학성홍을	8.푸른산중	언락
		【南】-潢-汰-南-林-仲	후여다가	6.벽사창이	언락
	확대 일각 제9박	【南】-林-仲-林-南-太	저리로츤츤	9.임으란	우락
			저리로비쓱	20.아흔아홉	언락
		【太】-仲-太-黃-太	절벽을넘어	13.이선이	우락
	확대 일각의 반각	【太】-仲-太	주야장상에	9.임으란	우락
			초부를만나	13.이선이	
	이두 첫 박	【太】仲-太	가즉이	1.인심은	중거
			지황씻적	25.일월성신	언락
		【仲】-南-仲(太)	자든	1.추강에	삼수대엽
			밤인듯	4.가마귀	

			선듯	19.적토마	
		【林】-南-仲(太)	일엽	3.백구는	언락
		【南】-太-仲	빗소	4.창랑에	중거
		【潢】-南-林-仲	저청춘	20.아흔아홉	언락
	이두 제11박	【汰】	부로	5.불아니	소용이
제4장		【潢】南-林	우리도	1.천황씨	초수대엽
			천고에	3.남팔아	
			어룬님	7.동짓달	
		【潢】-南-林	동섣달	9.임으란	우락
			저건너	13.이선이	
			마초아	6.벽사창이	언락
			우리도	20.아흔아홉	
			누구서	8.푸른산중	
		【潢】南-林-仲	우리도	2.남훈전	초수대엽
		【潢】-(汰)-南	오늘은	1.어젯밤에	소용이
			억조창생들이	3.아마도	
			평생에	5.불아니	
			두었다가	7.저건너	
		【南】-林	평생에	5.주공도	이수대엽
			천만년	1.인심은	중거
			아희야	10.샛별지자	평거
			구태여	1.구름이	두거
			이곳에	14.녹수청산	
			저희도	1.추강도	삼수대엽
			우리는	6.도화이화	
			이제는	7.굴원충혼	
		【林】潢南-林	재넘어	4.동창이	초수대엽
제5장	일각 첫 박	【太】仲-太	일호	5.주공도	이수대엽
			백세	6.도화이화	삼수대엽
		【太】-仲-太	일편	4.가마귀	삼수대엽
			소년적	20.아흔아홉	언락
		【仲】-太	눈물둔	3.남팔아	초수대엽
			옥린을	4.창랑에	중거
			태평주	3.경성출	평거
			입신	19.적토마	삼수대엽
		【仲】倘	새로난	7.굴원충혼	삼수대엽
	일각 제4박	【汰】-林	그리든님	1.어젯밤도	소용이
	일각 제6박	【太】仲-太-黃-倧	밤이여든	7.동짓달	초수대엽
			날빛을	1.구름이	두거
		【仲】-太	적막타든고	8.푸른산중	언락
	일각 제9박	【南】沖-汰-潢-汰-沖-林	발을펴버리고	1.어젯밤도	소용이
		【南】沖-汰-潢-汰-沖-潢南	백주황계로	3.아마도	
		【南】沖-汰-潢-汰-南	가오실제	7.저건너	

		【林】汰-沖-南林	두량이면	5.불아니	
	확대 일각 첫 박	【太】仲-太	밤일	6.벽사창이	언락
	확대 일각 제6박	【仲】潢-南-林-仲-林-仲	백운탄으로	3.백구는	언락
	확대 일각 제9박	【太】仲	대사립밖에	13.이선이	우락
	이두 첫 박	【潢】-南-林-仲	풀릴	9.임으란	우락
			남우	6.벽사창이	언락
			낙무궁	8.푸른산중	
	이두 제4박	【汰】-南林	부러울	5.불아니	소용이

<범례> 【】: 선율의 시작음, -:박의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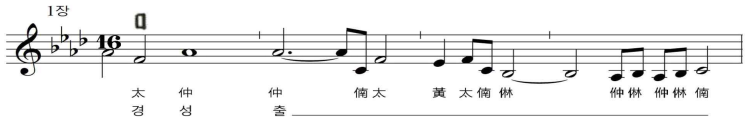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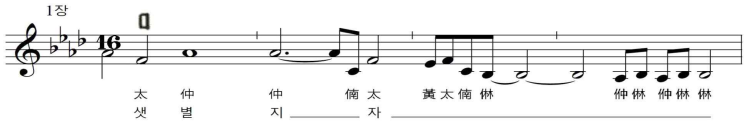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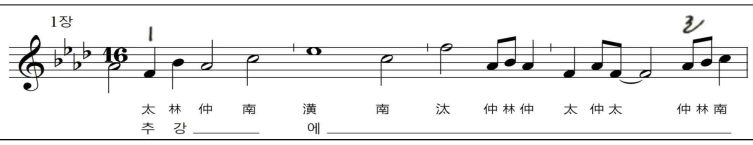
2) 막내는표

ㄱ) 초장

① 초두

초장 초두에 기보된 '막내는표'는 太 또는 黃으로 시작하는 두 가지 경우로 나타난다. 첫 번째로 太로 시작하는 '막내는표'는 평거(3.경성출)·(10.샛별지자) 두 곡, 삼수대엽(1.추강에) 한 곡에서 나타난다. 이는 다음의 <예보 170>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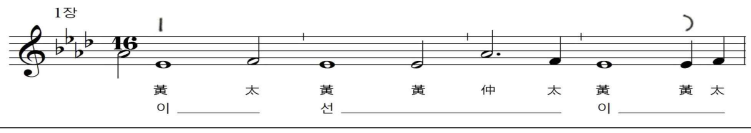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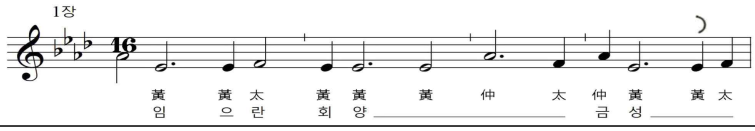
<예보 170> 남창 우조 가곡의 초장 초두에서 나타난 '막내는표' 선율형 (1)

곡목	사설	예보
평거	3. 경성출	
	10. 샛별지자	
삼수대엽	1. 추강에	

<예보 170>에서 평거 두 곡에 기보된 ‘막내는표’는 太로 시작해 仲으로 상행한 후, 倘을 내고 太로 내려와 黃太倘 음형을 거쳐 倧까지 내려오는 太-仲-太-黃太倘-倧 선율형이다. 삼수대엽에 기보된 ‘막내는표’는 太林으로 시작해 仲, 南, 潢으로 상행한 후, 다시 南을 내주고 汰로 올라갔다 仲, 太로 하행하는 太林-仲-南-潢-南-汰-仲-太 선율형이다. 평거와 삼수대엽에 기보된 ‘막내는표’는 시작음이 太로 같지만, 선율형과 종지음이 모두 다르게 나타난다.

두 번째로 黃으로 시작하는 ‘막내는표’는 우락(13.이선이) 한 곡에서 나타난다. 우락(9.임으란) 초장 초두 첫 박은 <연음표>가 기보되어 있지 않지만, 우락(13.이선이)의 초장과 선율형이 같으므로 ‘막내는표’가 생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다음의 <예보 171>과 같다.

<예보 171> 남창 우조 가곡의 초장 초두에서 나타난 ‘막내는표’ 선율형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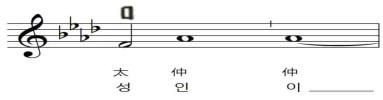
곡목	사설	예보
우락	13. 이선이	
	9. 임으란	

<예보 171>에서 ‘막내는표’는 黃으로 시작해 太로 진행하고 다시 黃으로 내려와 仲으로 상행한 후, 太를 거쳐 黃으로 마무리되는 선율형이다. 이러한 선율형은 『하규일보』에 실린 곡의 초장 초두 중 우락에서만 나타난다. 따라서 이는 ‘막내는표’가 우락의 초장 초두에 기보된 경우에만 나오는 선율형으로 보인다.

② 이두

초장 이두에 기보된 ‘막내는표’는 太 또는 南으로 시작하는 두 가지 선율형으로 나뉜다. 첫 번째로 太로 시작하는 ‘막내는표’는 이수대엽(5.주공도) 초장 이두 사설 [성인이]에서 나타난다. 이는 다음의 <예보 17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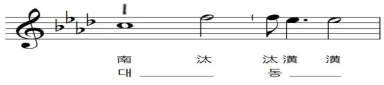
<예보 172> 남창 우조 가곡의 초장 이두에서 나타난 ‘막내는표’ 선율형 (1)

곡목	사설	예보
이수대엽	5.주공도 [성인이]	

<예보 172>에서 ‘막내는표’는 太로 시작해 仲으로 지속하는 선율형이다. 『하규일보』에 실린 곡 중 초장 이두에 기보된 太로 시작하는 ‘막내는표’의 선율형은 이수대엽(5.주공도) 초장 이두 [성인이] 외에는 나타나지 않으므로 다른 곡과의 상관관계는 알 수 없다.

두 번째로 南으로 시작하는 ‘막내는표’는 언락(3.백구는) 초장 이두 사설 [대동]에서 나타난다. 이는 다음의 <예보 173>과 같다.

<예보 173> 남창 우조 가곡의 초장 이두에서 나타난 ‘막내는표’ 선율형 (2)

곡목	사설	예보
언락	3.백구는 [대동]	

<예보 173>에서 ‘막내는표’는 南으로 시작해 汰로 상행하여 潢으로 마무리되는 선율형이다. 『하규일보』에 실린 곡 중 초장 이두에 기보된 南으로 시작하는 ‘막내는표’의 선율형은 언락(3.백구는) 초장 이두 [대동]

외에는 나타나지 않으므로 다른 곡과의 상관관계는 알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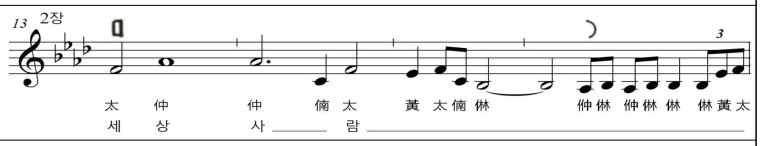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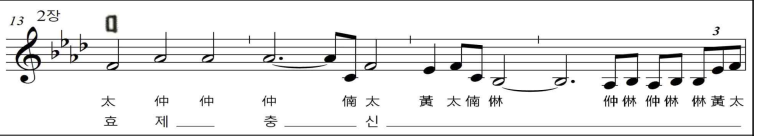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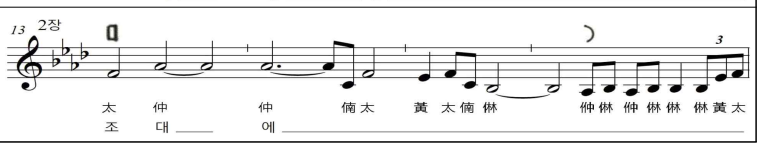
초장 초두에 기보된 ‘막내는표’는 곡별로 선율형이 뚜렷하게 나뉘는 반면, 초장 이두는 곡과의 상관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ㄴ) 제2장

① 초두

제2장 초두에 기보된 ‘막내는표’는 太로 시작하는 유형, 林으로 시작하는 유형, 또는 소용이에서 南 또는 仲으로 시작하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 번째로 太로 시작하는 ‘막내는표’는 이수대엽(5.주공도) 제2장 초두 [세상사람], 중거(1.인심은)·(4.창랑에) 제2장 초두 [효제충신]·[조대에] 세 사설에서 나타난다. 이는 다음의 <예보 174>와 같다.

<예보 174> 남창 우조 가곡의 제2장 초두에서 나타난 ‘막내는표’ 선율형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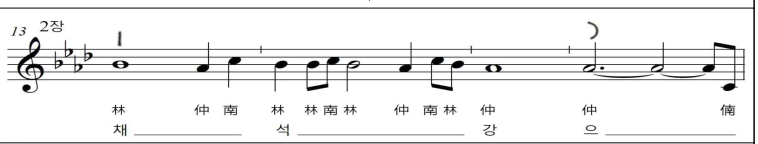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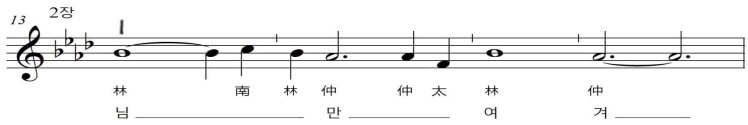
곡목	사설	예보
이수대엽	5.주공도 [세상사람]	
중거	1.인심은 [효제충신]	
	4.창랑에 [조대에]	

<예보 174>에서 세 곡에 기보된 ‘막내는표’는 太로 시작해 仲으로 상행한 후, 짧은 박의 倘을 내고 太로 내려와 黃太倘의 음형을 거쳐 林까지 하행하는 太-仲-太-黃太倘-林 선율형이다. 이는 평거 초장 초두에

나왔던 ‘막내는표’의 선율형과도 같다. 따라서 ‘막내는표’가 평거의 초장 초두 뿐 아니라 이수대엽과 중거의 제2장 초두에 기보되었을 때에도 이와 같은 선율형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林으로 시작하는 ‘막내는표’는 삼수대엽(7.굴원충혼) 제2장 초두 [채석강의]와 언락(6.벽사창이) 제2장 초두 [님만여겨] 두 사설에서 나타난다. 이는 다음의 <예보 175>와 같다.

<예보 175> 남창 우조 가곡의 제2장 초두에서 나타난 ‘막내는표’ 선율형 (2)

곡목	사설	예보
삼수대엽	7.굴원충혼 [채석강의]	
언락	6.벽사창이 [님만여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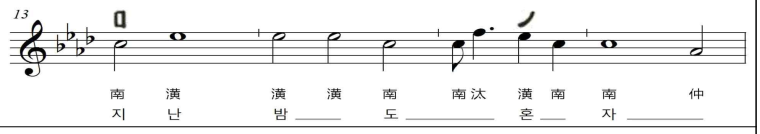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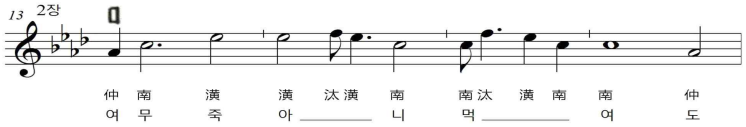
<예보 175>에서 삼수대엽(7.굴원충혼) 제2장 초두 [채석강의]에 기보된 ‘막내는표’는 林으로 시작해 仲南으로 진행한 후, 다시 林으로 돌아와 仲南林 음형을 거쳐 仲으로 마무리되는 선율형이다. 언락(6.벽사창이) 제2장 초두 [님만여겨]에 기보된 ‘막내는표’는 林으로 시작해 南林 음형을 거쳐 仲으로 진행한 후 짧은 박의 太를 내고 다시 林으로 돌아와 仲으로 마무리되는 선율형이다.

두 곡의 선율형은 조금씩 다르지만, 선율의 골격음은 모두 林-仲-林-仲으로 같게 나타난다. 따라서 언락 제2장 초두에 기보된 ‘막내는표’의 선율형은 삼수대엽 제2장 초두에 기보된 ‘막내는표’에서 영향을 받았음을 추측할 수 있다.

세 번째로 南 또는 仲으로 시작하는 ‘막내는표’는 소용이(1.어젯밤도)·

(5.불아니) 제2장 초두의 [지난밤도]·[여무죽] 두 사설에서 나타난다. 이는 다음의 <예보 176>과 같다.

<예보 176> 남창 우조 가곡의 제2장 초두에서 나타난 '막내는표' 선율형 (3)

곡목	사설	예보
소용이	1.어젯밤도 [지난밤도]	
	5.불아니 [여무죽]	

<예보 176>에서 소용이(1.어젯밤도) 제2장 초두 [지난밤도]에 기보된 '막내는표'는 南으로 시작해 潢으로 상행한 후, 다시 南으로 하행하다 汰로 상행해 마무리하는 선율형이다. 소용이(5.불아니) 제2장 초두 [여무죽]에 기보된 '막내는표'는 仲에서 南으로 올라가 潢까지 상행한 후, 다시 南으로 하행하다 汰로 상행해 마무리하는 선율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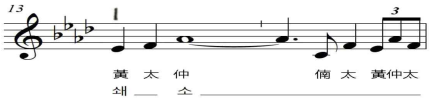
두 곡에 기보된 '막내는표'는 시작음이 다르지만, 그 외에 선율 골격음은 같다. 『하규일보』에 실린 곡 중 제2장 초두에 기보된 '막내는표'가 仲 또는 南으로 시작해 潢으로 상행한 후, 南으로 돌아왔다 汰까지 올라가 마무리하는 선율형은 소용이에서만 나타난다. 따라서 다른 곡과의 상관관계는 알 수 없지만, 이는 소용이 제2장 초두에 '막내는표'가 기보될 경우 나오는 선율형으로 볼 수 있다.

제2장 초두에 기보된 '막내는표'는 이수대엽과 중거, 삼수대엽과 언락이 각각 동일하고 소용이의 선율이 소용이에서만 개별적으로 나타난다.

② 이두

제2장 이두에 기보된 ‘막내는표’는 黃 또는 太로 시작하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 번째로 黃으로 시작하는 ‘막내는표’는 초수대엽(7.동짓달) 제2장 이두 사설 [쇄소]에서 나타난다. 이는 다음의 <예보 177>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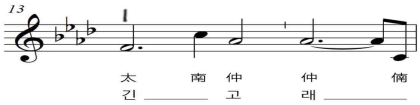
<예보 177> 남창 우조 가곡의 제2장 이두에서 나타난 ‘막내는표’ 선율형 (1)

곡목	사설	예보
초수대엽	7.동짓달 [쇄소]	

<예보 177>에서 ‘막내는표’는 黃太로 시작해 仲으로 상행한 후, 倘을 거쳐 太로 하행하여 마무리하는 선율형이다. 『하규일보』에 실린 곡 중 제2장 이두에 기보된 黃으로 시작하는 ‘막내는표’의 선율형은 초수대엽(7.동짓달) 제2장 이두 [쇄소] 외에는 나타나지 않으므로 다른 곡과의 상관관계는 알 수 없다.

두 번째로 太로 시작하는 ‘막내는표’는 삼수대엽(7.굴원충혼) 제2장 이두 [긴고래] 사설에서 나타난다. 이는 다음의 <예보 178>과 같다.

<예보 178> 남창 우조 가곡의 제2장 이두에서 나타난 ‘막내는표’ 선율형 (2)

곡목	사설	예보
삼수대엽	7.굴원충혼 [긴고래]	

<예보 178>에서 ‘막내는표’는 太로 시작해 南을 거쳐 仲으로 이어지는 선율형이다. 『하규일보』에 실린 곡 중 제2장 이두에 기보된 太로 시작하는 ‘막내는표’의 선율형은 삼수대엽(7.굴원충혼) 제2장 이두 [긴고래] 외에는 나타나지 않으므로 다른 곡과의 상관관계는 알 수 없다. 다만 이수

대엽(5.주공도) 초장 이두 [성인이][102]에 기보된 '막내는표'의 선율 골격음이 위의 <예보 178>과 유사하다. 따라서 삼수대엽(7.굴원충혼) 제2장 이두 [긴고래]에 기보된 '막내는표'의 선율은 이수대엽(5.주공도) 초장 이두 [성인이]에 기보된 '막내는표' 선율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ㄷ) 제3장

① 일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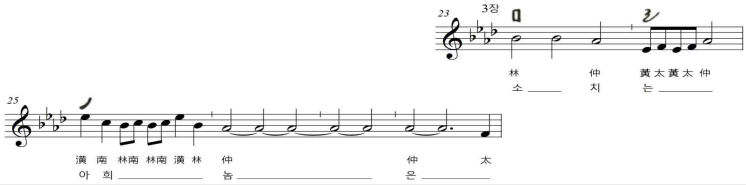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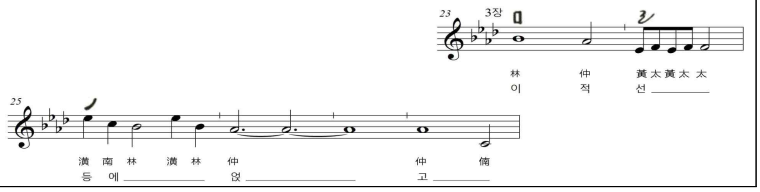
제3장 일각의 경우 우락과 언락은 사설로 인해 일각의 선율이 확대되게 된다. 따라서 일각이 확대되지 않은 기본형의 곡을 먼저 살펴본 후, 확대된 일각의 선율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일각이 확대되지 않은 제3장의 사설 중 '막내는표'는 첫 박에 기보된 경우와 제6박에 기보된 두 가지 경우로 나뉜다. 첫 박에 기보된 '막내는표'는 林 또는 仲의 두 가지 시작음의 유형으로 나타난다.

첫 번째로 林으로 시작하는 '막내는표'는 초수대엽(4.동창이) 제3장 일각 [소치는]과 삼수대엽(7.굴원충혼) 제3장 일각 [이적선] 두 사설에 기보되어 있다. 이는 다음의 <예보 179>와 같다.

102) <예보 17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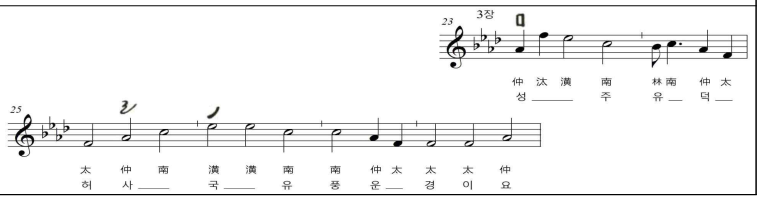
<예보 179> 남창 우조 가곡의 제3장 일각 첫 박에서 나타난 ‘막내는표’ 선율형 (1)

곡목	사설	예보
초수대엽	4.동창이 [소치는]	
삼수대엽	7.굴원충혼 [이적선]	

<예보 179>에서 두 곡에 기보된 ‘막내는표’는 林으로 시작해 仲으로 마무리되는 선율형이다. 따라서 초수대엽과 삼수대엽의 제3장 일각 첫 박에 ‘막내는표’가 기보될 경우, 林-仲으로 선율이 진행됨을 유추할 수 있다.

두 번째로 仲으로 시작하는 ‘막내는표’는 소용이(3.아마도) 제3장 일각 [성주유덕허사] 사설에서 나타난다. 이는 다음의 <예보 180>과 같다.

<예보 180> 남창 우조 가곡의 제3장 일각 첫 박에서 나타난 ‘막내는표’ 선율형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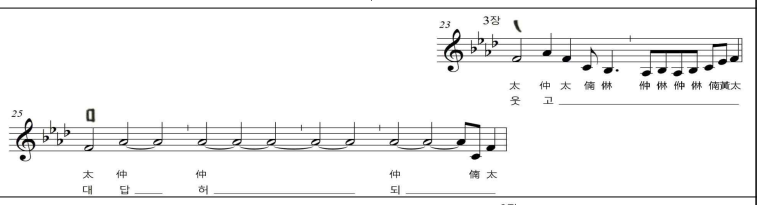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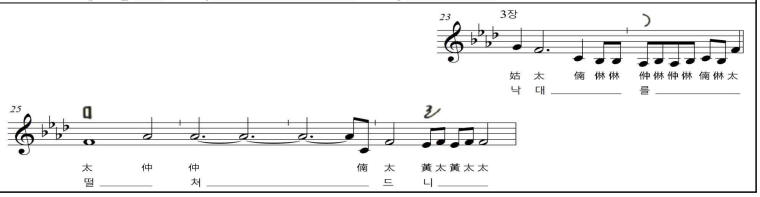
곡목	사설	예보
소용이	3.아마도 [성주 유덕허사]	

<예보 180>에서 ‘막내는표’는 仲으로 시작해 汰를 거쳐 潢으로 진행한 후, 南, 仲, 太로 하행하며 마무리되는 선율형이다. 『하규일보』에 실린 곡 중 제3장 일각 첫 박에 기보된 仲으로 시작하는 ‘막내는표’의 선율형은

소용이(3.아마도) 제3장 일각 [성주유덕허사] 사설 외에는 나타나지 않으므로 다른 곡과의 상관관계는 알 수 없다.

제3장 일각 제6박에 기보된 ‘막내는표’는 시작음이 太 한 가지로 나타난다. ‘막내는표’가 기보된 곡은 초수대엽(3.남팔아) 제3장 일각 [웃고]와 삼수대엽(1.추강에) 제3장 일각 [낙대를] 두 사설로 제6박에 나타난다. 이는 다음의 <예보 181>과 같다.

<예보 181> 남창 우조 가곡의 제3장 일각 제6박에서 나타난 ‘막내는표’ 선율형

곡목	사설	예보
초수대엽	3.남팔아 [웃고]	
삼수대엽	1.추강에 [낙대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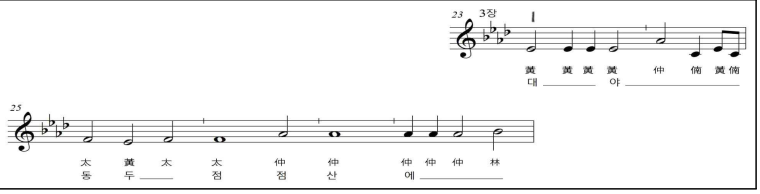
<예보 181>에서 두 곡의 ‘막내는표’는 太로 시작해 仲으로 상행하여 지속한 후 倘을 거쳐 太로 마무리되는 선율형이다. 두 곡에 기보된 ‘막내는표’ 선율의 박은 다르나 유형은 같다. 따라서 초수대엽 또는 삼수대엽 제3장 일각 제6박에 ‘막내는표’가 기보될 경우, 이러한 선율형이 나타남을 유추할 수 있다.

다음 『하규일보』에 실린 우락과 언락의 제3장은 모두 사설에 따라 일각이 확대되어 일정한 선율형을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확대된 일각의 기보된 박에 따라 나누어보도록 하겠다.

확대된 제3장 일각의 사설에서 ‘막내는표’는 언락(3.백구는) 일각① [대

야동두] 사설 첫 박에 기보된 한 가지 경우가 나타난다. 이는 다음의 <예보 182>와 같다.

<예보 182> 남창 우조 가곡의 제3장 확대된 일각 첫 박에서 나타난 ‘막내는표’ 선율형

곡목	사설	예보
언락	3.백구는 일각① [대야동두]	

<예보 182>에서 ‘막내는표’는 黃으로 시작해 仲으로 상행한 후, 倘으로 하행하고 太로 마무리되는 선율형이다. 사설이 확대되지 않은 제3장 일각의 ‘막내는표’가 기보된 선율 중 黃으로 시작하는 선율형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다른 곡과의 상관관계는 알 수 없다. 다만 우락 초장 초두에 기보된 ‘막내는표’의 선율형이 黃-太-黃-太-仲으로 선율의 골격음은 다르지만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103] 따라서 <예보 182>에 기보된 ‘막내는표’의 선율은 우락 초장 초두의 영향을 받아 변형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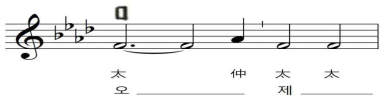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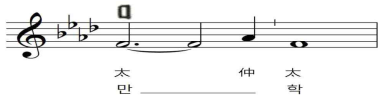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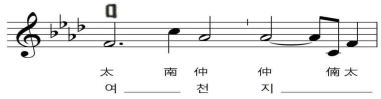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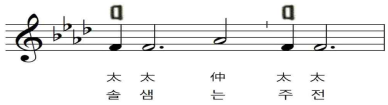
② 이두

제3장 이두의 ‘막내는표’는 첫 박에 기보된 경우와 제4박에 기보된 두 가지 경우로 나뉜다.

첫 박에 기보된 ‘막내는표’의 시작음은 太 또는 南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 번째로 太로 시작하는 ‘막내는표’는 평거(3.경성출) 제3장 이두 [오제], 두거(14.녹수청산) 제3장 이두 [만학], 삼수대엽(6.도화이화) 제3장 이두 [여천지], 소용이(5.불아니) 제3장 이두 [솔샘는] 네 사설에서 나타난다. 이는 다음의 <예보 183>과 같다.

103) <예보 17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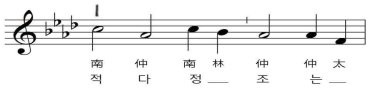
<예보 183> 남창 우조 가곡의 제3장 이두 첫 박에서 나타난 ‘막내는표’ 선율형 (1)

곡목	사설	예보
평거	3.경성출 [오제]	
두거	14.녹수청산 [만학]	
삼수대엽	6.도화이화 [여천지]	
소용이	5.불아니 [솔샘는]	

<예보 183>에서 네 곡에 기보된 ‘막내는표’는 太로 시작해 仲으로 올라가는 선율형이다. 각 곡의 선율의 박은 조금씩 다르지만, 유형은 동일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예보 183>의 평거·두거와 삼수대엽·소용이의 제3장 이두에 기보된 ‘막내는표’의 선율은 서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南으로 시작하는 ‘막내는표’는 언락(8.푸른산중) 제3장 이두 [적다정조] 사설에서 나타난다. 이는 다음의 <예보 184>와 같다.

<예보 184> 남창 우조 가곡의 제3장 이두 첫 박에서 나타난 ‘막내는표’ 선율형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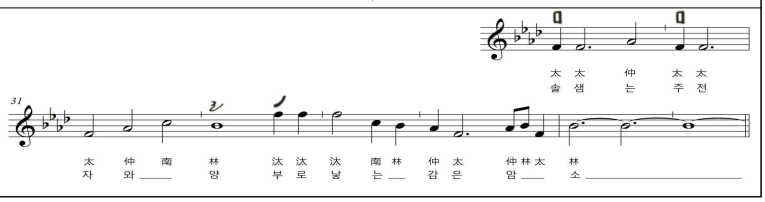
곡목	사설	예보
언락	8.푸른산중 [적다정조]	

<예보 184>에서 ‘막내는표’는 南으로 시작해 仲으로 내려온 후, 南林 음형으로 마무리되는 선율형이다. 『하규일보』에 실린 곡 중 제3장 이두

에 기보된 ‘막내는표’의 시작음이 南인 곳은 없어 다른 곡과의 상관관계는 알 수 없다. 다만 언락(3.백구는) 초장 이두 [대동]에 기보된 ‘막내는표’가 南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선율형은 다르게 나타난다.[104] 따라서 위 <예보 184>에 기보된 ‘막내는표’의 선율은 다른 곡과의 상관관계 파악이 어렵다.

제3장 이두 제4박에 기보된 ‘막내는표’는 소용이(5.불아니) 제3장 이두 [솔샘는] 사설에서 나타난다. 이는 다음의 <예보 185>와 같다.

<예보 185> 남창 우조 가곡의 제3장 이두 제4박에서 나타난 ‘막내는표’ 선율형

곡목	사설	예보
소용이	5.불아니 [솔샘는]	

<예보 185>에서 ‘막내는표’는 제4-6박까지의 선율형을 의미한다.[105] 따라서 ‘막내는표’는 太로 이어지는 선율형이다. 제3장 이두 제4박에 <연음표>가 기보된 사설은 『하규일보』에 실린 곡 중 소용이에서만 드러나므로, 다른 곡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

제4장은 ‘막내는표’가 기보되어 있는 사설이 없어 선율형을 파악할 수 없다.

ㄹ) 제5장

104) <예보 173> 참조.
105) 소용이(3.아마도) 제3장 [성주유덕] 사설에서 이두 제7박에 ‘연음표’가 기보되어 있으므로, ‘막내는표’의 선율은 이두 제4-6박까지로 보았다. <예보 6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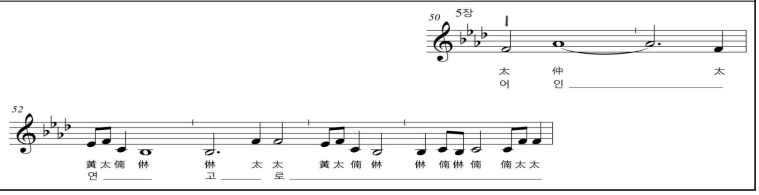
① 일각

제5장 일각의 경우 우락(9.임으란)·(13.이선이) 두 곡과 언락(3.백구는)·(6.벽사창이) 두 곡은 사설로 인해 일각의 선율이 확대되게 된다. 따라서 일각이 확대되지 않은 기본형의 곡을 먼저 살펴본 후, 확대된 일각의 선율도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락(9.임으란)·(13.이선이)과 언락(3.백구는)·(6.벽사창이)를 제외한 기본형의 곡에서 '막내는표'는 첫 박에 기보된 경우와 제6박에 기보된 두 가지 경우로 나타난다. 첫 박에 기보된 '막내는표'의 시작음은 太, 仲, 또는 林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 번째로 太로 시작하는 '막내는표'는 언락(25.일월성신) 제5장 일각 [어인연고로] 사설에서 나타난다. 이는 다음의 <예보 186>과 같다.

<예보 186> 남창 우조 가곡의 제5장 일각 첫 박에서 나타난 '막내는표' 선율형 (1)

곡목	사설	예보
언락	25.일월성신 [어인연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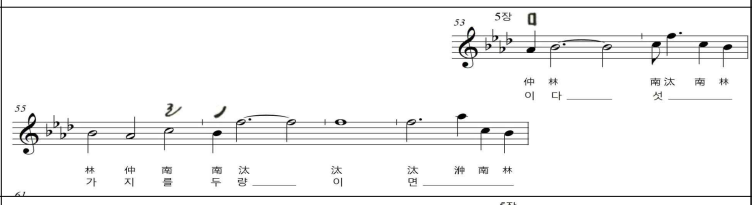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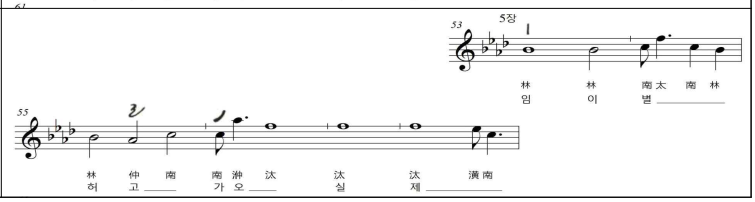
<예보 186>에서 '막내는표'는 太로 시작해 仲으로 상행한 후, 다시 太로 내려오며 마무리되는 선율형이다. 제5장 일각 첫 박에 '막내는표'가 기보된 곡 중 太로 시작하는 선율형은 『하규일보』에 실린 곡에서는 위의 <예보 186>외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다른 곡과의 상관관계는 알 수 없다. 다만, 언락(20.아흔아홉) 제5장 일각 첫 박 [소년적] 사설에 기보된 '드는표'의 선율과 동일한 유형이 나타난다.[106] 따라서 제5장 일각 첫 박의 기보된 <연음표>의 선율이 太-仲-太로 진행될 경우, '드는표' 또는

106) <예보 158> 참조.

‘막내는표’ 두 <연음표>의 선율형일 가능성이 있다. 이를 『가곡원류』에 기보된 <연음표>와 『하규일보』의 선율만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의 선율형과 그에 따른 상관관계는 보류해두도록 한다.

두 번째로 仲 또는 林으로 시작하는 ‘막내는표’는 소용이(5.불아니)·(7.저건너) 두 곡의 제5장 일각 [이다섯가지]·[임이별허고] 두 사설에서만 나타난다. 이는 다음의 <예보 187>과 같다.

<예보 187> 남창 우조 가곡의 제5장 일각 첫 박에서 나타난 ‘막내는표’ 선율형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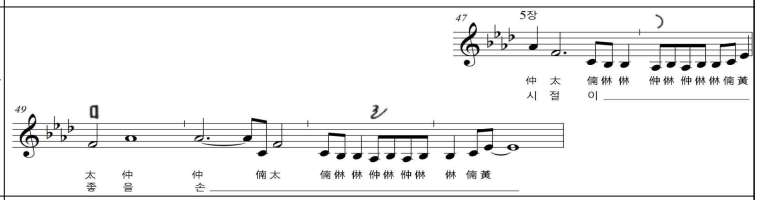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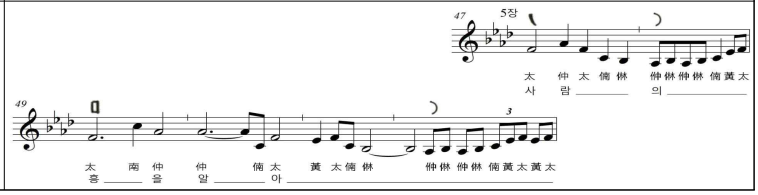
곡목	사설	예보
소용이	5.불아니 [이다섯가지]	
소용이	7.저건너 [임이별허고]	

<예보 187>에서 소용이(5.불아니)의 [이다섯가지] 사설에 기보된 ‘막내는표’는 仲으로 시작해 林으로 진행한 후, 南汰로 상행하고 南林 음형을 거쳐 仲까지 하행하는 선율형이다. 소용이(7.저건너)의 [임이별허고] 사설에 기보된 ‘막내는표’는 林으로 시작해 南汰로 상행하고 南林 음형을 거쳐 林으로 마무리되는 선율형이다.

두 사설에 기보된 ‘막내는표’는 시작음이 다르고 ‘든흘림표’의 기보에 따라 종지음이 달라진 것 외에 선율 진행이 동일하다. 따라서 이러한 선율형은 소용이의 제5장 일각 첫 박에 ‘막내는표’가 기보될 경우 나타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제5장 일각 제6박에 기보된 ‘막내는표’의 시작음은 太 한 가지이며, 평거(10.샛별지자)의 [시절이]와 삼수대엽(1.추강에)의 [사람의] 두 사설에서 나타난다. 이는 다음의 <예보 188>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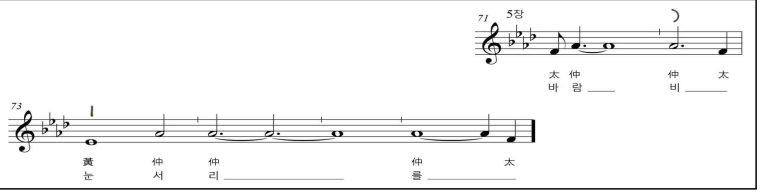
<예보 188> 남창 우조 가곡의 제5장 일각 제6박에서 나타난 ‘막내는표’ 선율형

곡목	사설	예보
평거	10.샛별지자 [시절이]	
삼수대엽	1.추강에 [사람의]	

<예보 188>에서 두 곡에 기보된 ‘막내는표’의 선율 골격음은 太에서 仲으로 상행한 후, 太로 내려와 侏으로 내려오는 형태이다. 삼수대엽(1.추강에) [사람의] 사설은 南을 거쳐 지나가는 점, 종지음으로 진행 전 黃太倘 음형을 거쳐 侏으로 하행하는 점이 평거(10.샛별지자) [시절이] 사설과 다르다. 그러나 그를 제외한 ‘막내는표’ 선율의 골격음은 동일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두 곡에 기보된 ‘막내는표’는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제5장 일각이 확대된 곡 중 ‘막내는표’는 우락(9.임으란) 제5장 일각① [바람비] 사설의 제6박에 기보되어 있으며, 시작음은 黃으로 나타난다. 이는 다음의 <예보 189>와 같다.

<예보 189> 남창 우조 가곡의 제5장 확대된 일각 제6박에서 나타난 ‘막내는표’ 선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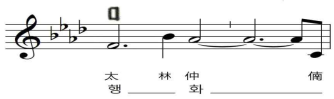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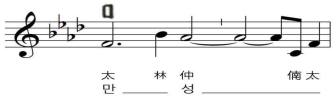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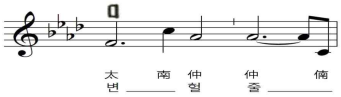
곡목	사설	예보
우락	9.임으란 일각① [바람비]	

<예보 189>에서 ‘막내는표’는 黃으로 시작해 仲으로 상행한 후, 太로 하행하며 마무리되는 선율형이다. 제5장 일각 제6박에 ‘막내는표’가 기보된 곡 중 黃으로 시작하는 선율형은 『하규일보』에 실린 곡에서는 위의 <예보 189>외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다른 곡과의 상관관계는 알 수 없다.

② 이두

제5장 이두에 기보된 ‘막내는표’의 시작음은 太 또는 仲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로 太로 시작하는 ‘막내는표’는 중거(4.창랑에) [행화], 평거(3.경성출) [만성], 삼수대엽(4.가마귀) [변헐줄] 세 곡의 제5장 이두 사설에서 나타난다. 이는 다음의 <예보 190>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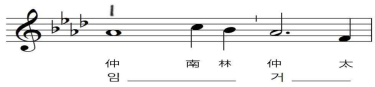
<예보 190> 남창 우조 가곡의 제5장 이두에서 나타난 ‘막내는표’ 선율형 (1)

곡목	사설	예보
중거	4.창랑에 [행화]	
평거	3.경성출 [만성]	
삼수대엽	4.가마귀 [변헐줄]	

<예보 190>에서 세 곡에 기보된 ‘막내는표’는 太로 시작해 仲으로 올라가는 선율형이다. 제2-3박에서 중거와 평거는 林, 삼수대엽은 南을 거쳐 仲으로 진행하는 차이를 보이나 골격음은 동일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중거·평거·삼수대엽 제5장 이두에 기보된 ‘막내는표’의 선율은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두 번째로 仲으로 시작하는 ‘막내는표’는 언락(3.백구는) 제5장 이두 [임거] 사설에서 나타난다. 이는 다음의 <예보 191>와 같다.

<예보 191> 남창 우조 가곡의 제5장 이두에서 나타난 ‘막내는표’ 선율형 (2)

곡목	사설	예보
언락	3.백구는 [임거]	

<예보 191>에서 ‘막내는표’는 仲으로 시작해 南林으로 진행하는 선율형이다. 제5장 이두에 ‘막내는표’가 기보된 곡 중 仲으로 시작하는 선율형은 『하규일보』에 실린 곡에서는 위의 <예보 191>외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다른 곡과의 상관관계는 알 수 없다. 다만, 언락(8.푸른산중) 제3장 이두 [적다정조] 에 기보된 ‘막내는표’의 선율형이 南-仲-南林으로 시작음은 다르지만 유사한 형태로 나타난다.[107] 따라서 언락 제5장과 제3장 이두에 ‘막내는표’가 기보될 경우 선율의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ㅁ) 소결

남창 우조 가곡에서 ‘막내는표’는 제4장을 제외하고 장별로 선율형을

107) <예보 184> 참조.

살펴볼 수 있다. 『가곡원류』의 사설 중, 남창 우조 가곡에서 나타난 '막내는표'의 선율형을 『하규일보』에 실린 곡들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초장 초두에 기보된 '막내는표'는 太 또는 黃으로 시작하는 두 가지 경우로 나뉘었다. 太로 시작하는 '막내는표'는 평거와 삼수대엽에서 기보되어있다. 평거는 太-仲-太-黃太倘-㑹 선율형, 삼수대엽은 太林-仲-南-潢-南-汰-仲-太 선율형으로 두 곡에 기보된 '막내는표'는 시작음이 太로 같지만, 선율형과 종지음이 모두 다르게 나타났다.

黃으로 시작하는 '막내는표'는 우락에 기보되어 있으며, 선율의 골격음은 黃-太-黃-仲-黃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러한 선율형은 『하규일보』에 실린 곡의 초장 초두 중 우락에서만 나타났다. 따라서 이는 '막내는표'가 우락의 초장 초두에 기보된 경우에만 나오는 선율형으로 볼 수 있다.

초장 이두에 기보된 '막내는표'는 太 또는 南으로 시작하는 두 가지 선율형으로 나뉘었다. 太로 시작하는 '막내는표'는 이수대엽에 기보되어 太-仲 선율형으로, 南으로 시작하는 '막내는표'는 언락에 기보되어 南-汰-潢 선율형으로 나타났다. 두 선율형은 『하규일보』에 실린 곡 중 초장 이두에 '막내는표'가 기보된 사설에서 일치하는 선율을 찾을 수 없으므로 다른 곡과의 상관관계는 파악하기 어려웠다.

제2장 초두에 기보된 '막내는표'는 太로 시작하는 유형, 林으로 시작하는 유형, 또는 소용이에서 南 또는 仲으로 시작하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었다. 첫 번째로 太로 시작하는 '막내는표'는 이수대엽과 중거에서 나타났다. 선율형은 太-仲-太-黃太倘-㑹으로 동일하였으며, 평거 초장 초두에 기보된 '막내는표'의 선율형과도 같았다. 따라서 '막내는표'가 평거의 초장 초두 뿐 아니라 이수대엽과 중거의 제2장 초두에 기보되었을 때에도 이와 같은 선율형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林으로 시작하는 '막내는표'는 삼수대엽과 언락에서 나타났다. 두 곡의 선율형은 조금씩 다르지만, 선율의 골격음은 모두 林-仲-林

-仲으로 같으므로 언락 제2장 초두에 기보된 '막내는표'의 선율형은 삼수대엽 제2장 초두에 기보된 '막내는표'에서 영향을 받았음을 추측할 수 있다.

세 번째로 南 또는 仲으로 시작하는 '막내는표'는 소용이에서만 나타났다. 南으로 시작하는 '막내는표'는 南-潢-南-汰이고, 仲으로 시작하는 선 '막내는표'는 仲南-潢-南-汰로 시작음을 제외한 두 선율형의 골격음이 동일하였다. 이러한 선율형은 소용이에서만 나타났으므로 다른 곡과의 상관관계는 알 수 없으며, 소용이 제2장 초두에 '막내는표'가 기보될 경우만 나오는 개별적인 선율형으로 볼 수 있다.

제2장 이두에 기보된 '막내는표'는 黃 또는 太로 시작하는 두 가지 선율형으로 나뉘었다. 黃으로 시작하는 '막내는표'는 초수대엽에서 있으며 선율 골격음은 黃-仲-太로, 太로 시작하는 '막내는표'는 삼수대엽에서 있으며 선율 골격음은 太-仲으로 나타났다. 제2장 이두에 '막내는표'가 기보된 사설 중 위의 두 선율 골격음과 동일한 유형은 『하규일보』에 없으므로 다른 곡과의 상관관계는 알 수 없었다. 다만, 이수대엽 초장 이두에 기보된 '막내는표'의 선율 골격음이 太로 시작하는 삼수대엽 제2장 이두 선율과 같았다. 따라서 삼수대엽 제2장 이두에 기보된 '막내는표'의 선율은 이수대엽 초장 이두의 '막내는표' 선율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제3장 일각이 확대되지 않은 기본형의 사설 중 '막내는표'는 첫 박 또는 제6박에 기보된 두 가지 경우로 나뉘었다. 첫 박에 기보된 '막내는표'는 林 또는 仲 두 가지 시작음의 유형으로 나타났으며, 林이 시작음인 '막내는표'는 초수대엽과 삼수대엽에, 仲이 시작음인 '막내는표'는 소용이에서 선율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초수대엽과 삼수대엽에 있는 '막내는표'의 선율 골격음은 모두 林-仲으로 동일하여 두 곡의 제3장 일각 첫 박에 '막내는표'가 기보될 경우, 이러한 선율형으로 진행됨을 유추할 수 있었다. 소용이에 있는 '막내는표'의 선율 골격음은 仲-潢-南-仲-太로 소용이 외에 『하규일보』에 실린 다른 곡에서는 유사한 선율형이 없어 다

른 곡과의 상관관계는 알 수 없었다.

제3장 일각 제6박에 기보된 '막내는표'는 시작음이 太 한 가지로 초수대엽과 삼수대엽에서 나타났으며, 골격음은 太-仲(倘)-太로 박은 다르지만 선율형이 같았다. 따라서 초수대엽 또는 삼수대엽 제3장 일각 제6박에 '막내는표'가 기보될 경우, 이러한 선율형이 나타남을 유추할 수 있다.

제3장의 일각이 확대된 사설에서 '막내는표'는 언락 제3장 일각 첫 박에 기보된 한 가지 경우의 선율을 파악할 수 있었다. 선율 골격음은 黃-仲-倘-太이며, 제3장 일각이 확대되지 않은 기본형 곡에서 '막내는표'가 기보된 선율 중 黃으로 시작하는 선율형은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다른 곡과의 상관관계는 알 수 없으나, 우락 초장 초두에 기보된 '막내는표'의 선율형이 黃-太-黃-太-仲으로 선율의 골격음은 다르지만 유사한 형태를 보였다. 따라서 사설이 확대된 언락 제3장 일각 첫 박에 기보된 '막내는표'의 선율은 우락 초장 초두의 영향을 받아 변형된 것으로 추측하였다.

제3장 이두의 '막내는표'는 첫 박에 기보된 경우와 제4박에 기보된 두 가지 경우로 나타났다. 이두 첫 박에 기보된 '막내는표'의 시작음은 太 또는 南 두 가지로 나뉘었다. 첫 번째로 太로 시작하는 '막내는표'의 선율형은 평거, 두거, 삼수대엽, 소용이에서 나타났으며, 네 곡의 골격음은 太-仲으로 각 곡의 선율의 박은 조금씩 다르지만, 유형은 동일하였다. 따라서 네 곡의 제3장 이두에 기보된 '막내는표'의 선율은 서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南으로 시작하는 '막내는표'는 우락에서 나타났으며, 골격음은 南-仲-南林으로 『하규일보』에 실린 곡 중 제3장 이두에 기보된 '막내는표'의 시작음이 南인 곡은 없어 다른 곡과의 상관관계는 파악할 수 없었다.

제3장 이두 제4박에 기보된 '막내는표'는 소용이에서만 나타났으며, 선율형은 太로 이어지는 형태이다. 제3장 이두 제4박에 <연음표>가 기보된 사설은 『하규일보』에 실린 곡 중 소용이에서만 드러나 다른 곡과의 상관관계는 파악할 수 없었다.

제4장은 '막내는표'가 기보되어 있는 사설이 없어 선율형을 파악할 수

없다.

제5장의 일각이 확대되지 않은 기본형의 사설 중 '막내는표'는 첫 박 또는 제6박에 기보된 두 가지 경우로 나타났다. 첫 박에 기보된 '막내는표'의 시작음은 太, 仲, 또는 林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었다. 첫 번째로 太로 시작하는 '막내는표'는 언락에서 나타났으며, 선율 골격음은 太-仲-太로 같은 박에 '막내는표'가 기보된 곡 중 유사한 선율형은 『하규일보』에 실린 곡들에서는 찾을 수 없었다. 다만, 언락의 제5장 일각 선율형이 동일하게 나타남에도 사설에 따라 '드는표'가 기보된 곡과 '막내는표'가 기보된 곡으로 나뉘는 현상을 보였다. 따라서 언락 제5장 일각 첫 박의 선율이 太-仲-太로 진행될 경우, <연음표>는 '드는표' 또는 '막내는표' 모두 기보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였다. 이는 『가곡원류』에 기보된 <연음표>와 『하규일보』의 선율만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워 그에 따른 상관관계는 본고에서는 보류하였다.

두 번째로 仲 또는 林으로 시작하는 '막내는표'는 소용이에서만 나타났으며, 각각의 선율 골격음은 仲林-汰-南-林-仲, 林-汰-南-林으로 드러났다. 이는 시작음과 '든흘림표'의 기보에 따라 종지음이 달라진 것 외에 동일한 선율 진행이므로 이러한 선율형은 소용이의 제5장 일각 첫 박에 '막내는표'가 기보될 경우 나타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제5장 일각 제6박에 기보된 '막내는표'는 太로 시작하는 선율형으로 평거와 삼수대엽에서 나타났다. 두 곡에 기보된 '막내는표'의 선율 골격음은 太-仲-太-㐀으로, 세부적인 음형은 두 곡이 다르게 나타나나 골격음은 동일하였다. 따라서 두 곡에 기보된 '막내는표'는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제5장 일각이 확대된 사설에서 '막내는표'는 우락 제5장 일각 제6박에 기보된 한 가지 경우로, 골격음은 黃-仲-太로 나타났다. 제5장 일각 제6박에 '막내는표'가 기보된 곡 중 黃으로 시작하는 선율형은 『하규일보』에 실린 곡에서는 우락 외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다른 곡과의 상관관계는 알 수 없었다.

제5장 이두에 기보된 ‘막내는표’의 시작음은 太 또는 仲 두 가지로 나타났다. 太로 시작하는 ‘막내는표’의 선율은 중거, 평거, 삼수대엽 세 곡에서 보였으며, 골격음은 太-仲으로 동일하였다. 따라서 중거·평거·삼수대엽 제5장 이두에 기보된 ‘막내는표’의 선율은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仲으로 시작하는 ‘막내는표’는 언락에서 보였으며, 골격음은 仲-南林으로 나타났다. 제5장 이두에 ‘막내는표’가 기보된 곡 중 仲으로 시작하는 선율형은 『하규일보』에 실린 곡에서는 언락 외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다른 곡과의 상관관계는 파악할 수 없으나, 언락 제3장 이두에 기보된 ‘막내는표’의 선율형과 유사하였다. 따라서 언락 제3·5장의 이두에 기보된 ‘막내는표’는 서로 선율의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막내는표’의 선율형을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의 <표 33>과 같다.

<표 33> '막내는표'의 선율형

구분		선율형	사설	곡목	
초장	초두	【太】-仲-太-黃-㑹	경성출	3.경성출	평거
			샛별지자	10.샛별지자	
		【太】林-仲-南-潢-南-汰-仲-太	추강에	1.추강에	삼수대엽
		【黃】-太-黃-仲-黃	이선이	13.이선이	우락
			임으란	9.임으란	
	이두	【太】-仲	성인이	5.주공도	이수대엽
		【南】-汰-潢	대동	3.백구는	언락
제2장	초두	【太】-仲-太-黃-㑹	세상사람	5.주공도	이수대엽
			효제충신	1.인심은	중거
			조대에	4.창랑에	
		【林】-仲-林-仲	채석강의	7.굴원충혼	삼수대엽
			님만여겨	6.벽사창이	언락
		【南】-潢-南-汰	지난밤도	1.어젯밤도	소용이
		【仲】南-潢-南-汰	여무죽	5.불아니	
	이두	【黃】-仲-太	쇄소	7.동짓달	초수대엽
		【太】-仲	긴고래	7.굴원충혼	삼수대엽
제3장	일각 첫 박	【林】-仲	소치는	4.동창이	초수대엽
			이적선	7.굴원충혼	삼수대엽
		【仲】汰-潢-南-仲-太	성주유덕	3.아마도	소용이
	일각 제6박	【太】-仲-太	대답허되	3.남팔아	초수대엽
			떨쳐드니	1.추강에	삼수대엽
	확대 일각 첫 박	【黃】-仲-倘-太	대야동두	3.백구는	언락
	이두 첫 박	【太】-仲	오제	3.경성출	평거
			만학	14.녹수청산	두거
			여천지	6.도화이화	삼수대엽
			솔샘는	5.불아니	소용이
		【南】-仲-南林	적다정조	8.푸른산중	언락
	이두 제4박	【太】	주전자	5.불아니	소용이
제5장	일각 첫 박	【太】-仲-太	어인	25.일월성신	언락
		【仲】林-汰-南-林-仲	이다섯가지	5.불아니	소용이
		【林】-汰-南-林	임이별허고	7.저건너	
	일각 제6박	【太】-仲-太-㑹	좋을손	10.샛별지자	평거
		【太】-仲-太-黃-㑹	흥을알아	1.추강에	삼수대엽
	확대 일각 제6박	【黃】-仲-(太)	눈서리를	9.임으란	우락
	이두	【太】-仲	행화	4.창랑에	중거
			만성	3.경성출	평거
			변헐줄	4.가마귀	삼수대엽
		【仲】-南林-仲	임거	3.백구는	언락

<범례> 【】: 선율의 시작음, -:박의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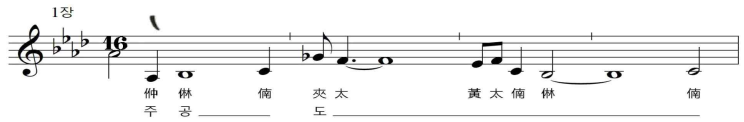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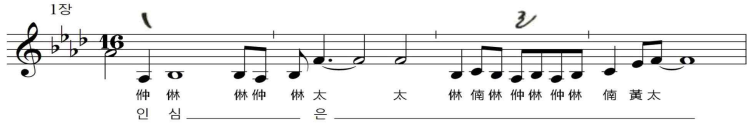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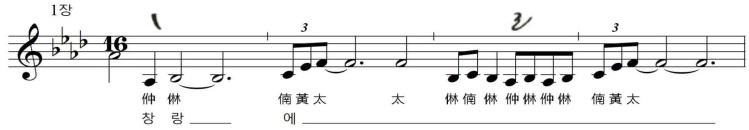
3) 누르는표

ㄱ) 초장

① 초두

초장 초두에 기보된 ‘누르는표’의 시작음은 仲, 㑹 또는 南 세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로 仲으로 시작하는 ‘누르는표’는 이수대엽(5.주공도)와 중거(1.인심도)·(4.창랑에) 세 곡에서 나타난다. 이는 다음의 <예보 19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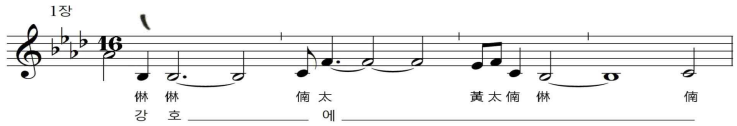
<예보 192> 남창 우조 가곡의 초장 초두에서 나타난 ‘누르는표’ 선율형 (1)

곡목	사설	예보
이수대엽	5. 주공도	
중거	1. 인심도	
	4. 창랑에	

<예보 192>에서 세 곡에 기보된 ‘누르는표’는 仲㑹으로 시작한 후 太로 진행하고 㑹으로 하행하여 마무리되는 선율형이다. 그러나 ‘든흘림표’가 기보되지 않은 이수대엽(5.주공도) 초장 초두는 黃太倘 음형을 거쳐 㑹으로 하행하고, 중거는 바로 㑹으로 하행해 종지 선율형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는 초장 이두에서 ‘드는표’가 기보되며 높은음으로 선율이 진행되는 중거의 곡 특성에 의한 것이다.[108]

두 번째로 倧으로 시작하는 ‘누르는표’는 이수대엽(3.강호에)에서 나타난다. 이는 다음의 <예보 19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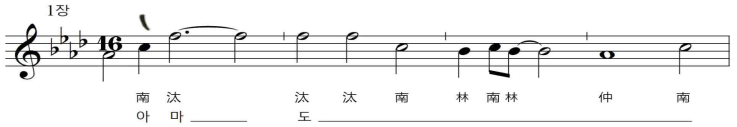
<예보 193> 남창 우조 가곡의 초장 초두에서 나타난 ‘누르는표’ 선율형 (2)

곡목	사설	예보
이수대엽	3. 강호에	

<예보 193>에서 ‘누르는표’는 倧으로 시작해 太로 진행한 후, 黃太倚 음형을 거쳐 倧으로 마무리되는 선율형이다. 이는 시작음만 차이날 뿐, 이수대엽(5.주공도) 초장 초두에 기보된 ‘누르는표’의 선율형과 같다.

세 번째로 南으로 시작하는 ‘누르는표’는 소용이(3.아마도)에서 나타난다. 이는 다음의 <예보 194>와 같다.

<예보 194> 남창 우조 가곡의 초장 초두에서 나타난 ‘누르는표’ 선율형 (3)

곡목	사설	예보
소용이	3. 아마도	

<예보 194>에서 ‘누르는표’는 南汰로 시작하여 汰를 지속한 후, 南, 林, 仲으로 순차적으로 하행하는 선율형이다. 이는 초장 초두에 ‘누르는표’가 기보된 『하규일보』의 곡 중 가장 높은 시작음에 해당한다. 또한 다른 곡에서 시작음이 같은 ‘누르는표’의 선율을 찾을 수 없으므로 다른 곡과의 상관 관계를 알 수 없다. 따라서 이는 소용이 초장 초두에서만 나

108) 본고 19-20쪽 참조.

타나는 ‘누르는표’의 선율형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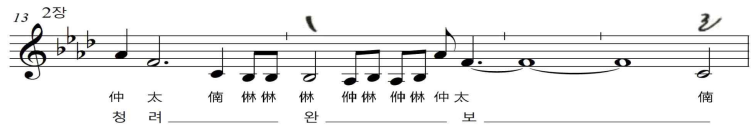
초장 이두에 ‘누르는표’가 기보된 사설은 『하규일보』에 실려있지 않아 선율형을 파악할 수 없다.

ㄴ) 제2장

① 초두

제2장 초두는 제4박에 ‘누르는표’가 기보된 경우가 보이며, 이는 두거(14.녹수청산) 제2장 초두 [청려완보] 사설에 나타난다. 이는 다음의 <예보 195>와 같다.

<예보 195> 남창 우조 가곡의 제2장 초두 제4박에서 나타난 ‘누르는표’ 선율형

곡목	사설	예보
두거	14.녹수청산 [청려완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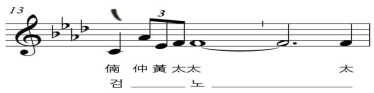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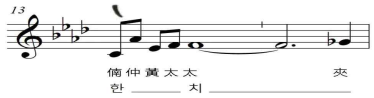
<예보 195>에서 ‘누르는표’는 林으로 시작해 仲에서 요성한 후 太로 상행하여 마무리되는 선율형이다. 『하규일보』에 실린 곡 중 제2장 초두 제4박에 ‘누르는표’가 기보된 사설은 위의 <예보 195>에 실린 곡에만 해당하여 다른 곡과의 상관관계는 알 수 없다. 다만 이수대엽과 중거 초장 초두에 기보된 ‘누르는표’ 선율의 골격음이 仲林 또는 林으로 시작해 太로 진행하므로, 이러한 선율형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109]

109) <예보 192>, <예보 193> 참조.

② 이두

제2장 이두에 기보된 ‘누르는표’의 시작음은 倘 한 가지로 나타난다. 倘으로 시작하는 ‘누르는표’는 삼수대엽(4.가마귀)·(6.도화이화) 두 곡의 제2장 이두 [검노]·[한치] 두 사설에서 나타난다. 이는 다음의 <예보 196>와 같다.

<예보 196> 남창 우조 가곡의 제2장 이두에서 나타난 ‘누르는표’ 선율형

곡목	사설	예보
삼수대엽	4.가마귀 [검노]	
	6.도화이화 [한치]	

<예보 196>에서 두 곡에 기보된 ‘누르는표’는 倘으로 시작해 太로 진행하는 선율형이다. 따라서 삼수대엽 제2장 이두에 ‘누르는표’가 기보될 경우 이러한 선율형으로 진행됨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두거(14.녹수청산) 제2장 이두의 사설 [들어]에 기보된 ‘드는표’의 선율 골격음도 倘에서 太로 진행해 위 <예보 196>의 삼수대엽 두 곡과 같은 선율형을 보인다.[110] 이는 두거(14.녹수청산) 제2장 이두 [들어]에 기보된 ‘드는표’가 오기되었을 가능성을 보이는 한편, 삼수대엽 제2장 이두의 ‘누르는표’ 선율이 두거에서 영향을 받았음을 유추할 수 있다.

ㄷ) 제3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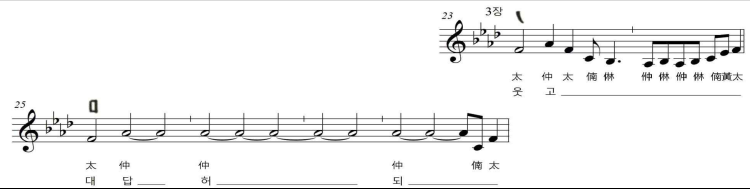
제3장의 ‘누르는표’는 일각 첫 박에 기보된 선율형만 볼 수 있으며, 일각 제6박 또는 이두에 기보된 선율형은 『하규일보』에 실린 곡에서는 파

110) <예보 137> 참조.

악할 수 없다. 제3장 일각 첫 박에 기보된 ‘누르는표’는 太 또는 倘으로 시작하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 번째로 太로 시작하는 ‘누르는표’는 초수대엽(3.남팔아) [웃고] 사설에서 나타난다. 이는 다음의 <예보 197>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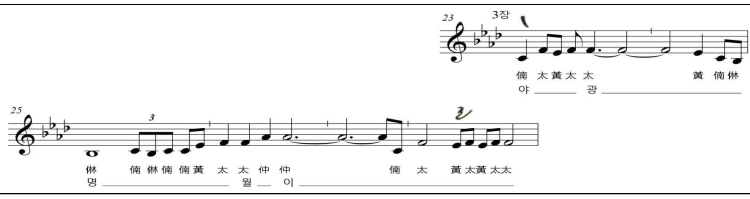
<예보 197> 남창 우조 가곡의 제3장 일각 첫 박에서 나타난 ‘누르는표’ 선율형 (1)

곡목	사설	예보
초수대엽	3.남팔아 [웃고]	

<예보 197>에서 ‘누르는표’는 太로 시작해 仲太의 음형을 거쳐 倘林까지 하행하는 선율형이다. 『하규일보』에 실린 곡 중 제3장 일각에 기보된 ‘누르는표’가 太로 시작하는 선율형은 위 <예보 197>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太로 시작하는 ‘누르는표’의 선율형은 다른 곡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없다.

두 번째로 倘으로 시작하는 ‘누르는표’는 삼수대엽(4.가마귀) 제3장 일각 [야광] 사설에서 나타난다. 이는 다음의 <예보 198>과 같다.

<예보 198> 남창 우조 가곡의 제3장 일각 첫 박에서 나타난 ‘누르는표’ 선율형 (2)

곡목	사설	예보
삼수대엽	4.가마귀 [야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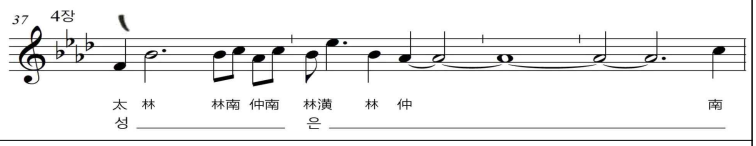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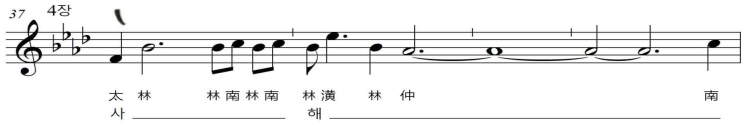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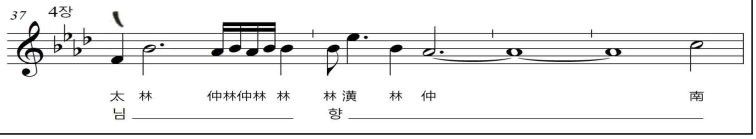
<예보 198>에서 ‘누르는표’는 倘에서 太로 진행하는 선율형이다. 『하

규일보』에 실린 곡 중 제3장 일각에 기보된 ‘누르는표’가 倘으로 시작하는 선율형은 위 <예보 198>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倘으로 시작하는 ‘누르는표’의 선율형은 다른 곡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없다.

ㄹ) 제4장

제4장에 기보된 ‘누르는표’는 太 또는 林으로 시작하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 번째로 太로 시작하는 ‘누르는표’는 이수대엽(3.강호에), 평거(3.경성출), 삼수대엽(4.가마귀) 세 곡의 제4장 [성은이], [사해로], [님향한] 세 사설에서 나타난다. 이는 다음의 <예보 199>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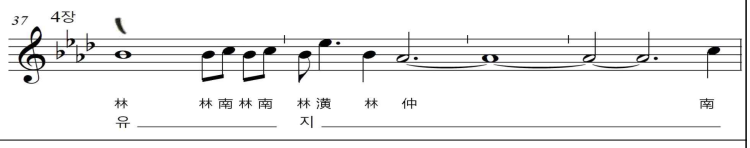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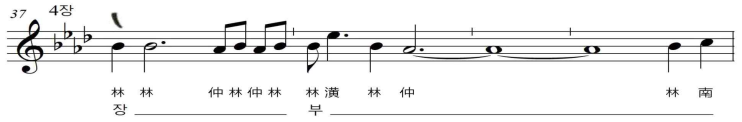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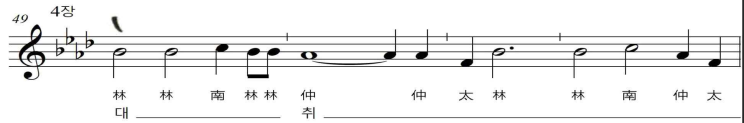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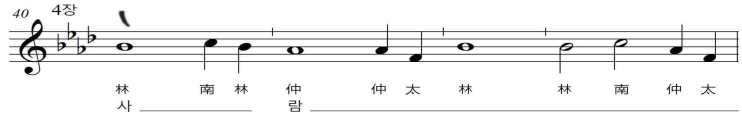
<예보 199> 남창 우조 가곡의 제4장에서 나타난 ‘누르는표’ 선율형 (1)

곡목	사설	예보
이수대엽	3.강호에 [성은이]	
평거	3.경성출 [사해에]	
삼수대엽	4.가마귀 [님향한]	

<예보 199>에서 세 곡에 기보된 ‘누르는표’는 太에서 林으로 진행하는 선율형이다. 삼수대엽(4.가마귀) <님향한> 사설의 경우, 仲에서 요성하는 음형을 보이며 林에서 요성하는 다른 두 곡과는 차이를 보이지만 세 곡의 골격음은 동일하다. 따라서 세 곡의 선율형은 연관성이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두 번째로 林으로 시작하는 ‘누르는표’는 중거(4.창랑에), 삼수대엽(19.적토마), 언락(3.백구는)·(25.일월성신) 네 곡의 제4장 [유지에], [장부의], [대취코]·[사람은] 네 사설에서 나타난다. 이는 다음의 <예보 200>과 같다.

<예보 200> 남창 우조 가곡의 제4장에서 나타난 ‘누르는표’ 선율형 (2)

곡목	사설	예보
중거	4.창랑에 [유지에]	
삼수대엽	19.적토마 [장부의]	
언락	3.백구는 [대취코]	
	25.일월성신 [사람은]	

<예보 200>에서 중거는 林으로 시작해 林에서 요성을 하고, 삼수대엽은 林으로 시작해 仲에서 요성을 하는 선율형이다. 언락 두 곡은 林으로 시작해 南林으로 진행하는 선율형이다. 따라서 네 곡의 시작음은 같으나 곡에 따라 종지음이 조금씩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이는 중거와 삼수대엽은 제4박에서 林潢으로 진행하고, 언락 두 곡은 仲으로 진행하는 차이로 인한 것이다. 그러나 다음 선율 진행으로 인해 종지음이 달라지는 것 외에 네 곡에서 나타나는 ‘누르는표’의 선율형은 유사하므로 서로 연관성이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예보 199>에 이수대엽·평거와 위 <예보 200>의 중거, 삼수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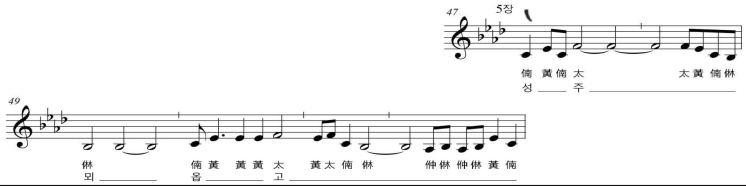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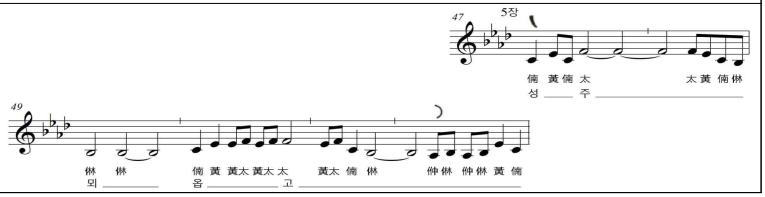
엽(4.가마귀)와 삼수대엽(19.적토마)의 제4장처럼 같은 계열의 곡 이어도 시작음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ㅁ) 제5장

제5장은 일각 첫 박에 기보된 ‘누르는표’의 선율형만 나타나며 일각 제6박, 또는 이두는 ‘누르는표’가 기보된 사설이 『하규일보』에 실려있지 않아 선율형을 파악할 수 없다.

제5장 첫 박에 기보된 ‘누르는표’는 倘 또는 太로 두 가지 시작음으로 나뉜다. 첫 번째로 倘으로 시작하는 ‘누르는표’는 초수대엽(1.천황씨)·(2.남훈전) 두 곡의 제5장 일각 [성주1]·[성주2][111] 두 사설에 나타난다. 이는 다음의 <예보 201>과 같다.

<예보 201> 남창 우조 가곡의 제5장 일각 첫 박에서 나타난 ‘누르는표’ 선율형 (1)

곡목	사설	예보
초수대엽	1.천황씨 [성주1]	
	2.남훈전 [성주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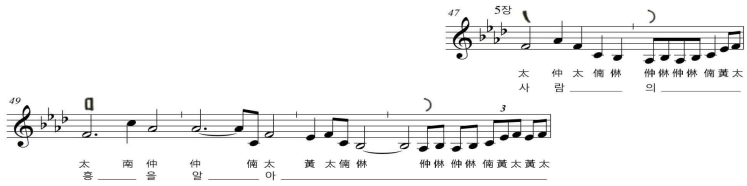
<예보 201>에서 초수대엽 두 곡 제5장 일각에 기보된 ‘누르는표’는 倘으로 시작해 太로 상행하는 선율형이다. 따라서 초수대엽 제5장 일각 첫 박에 ‘누르는표’가 기보될 경우, 倘-太 선율형이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111) 초수대엽(1.천황씨)·(2.남훈전) 두 곡의 제5장 일각 사설이 모두 [성주]로 시작되므로 편의상 (1.천황씨) 제5장 일각 사설은 [성주1], (2.남훈전) 제5장 일각 사설은 [성주2]로 구분하였다.

또한, <예보 198>의 삼수대엽(4.가마귀) 제3장 일각 [야광] 사설 첫 박에 기보된 ‘누르는표’의 선율형도 倘-太로 두 곡의 연관성을 유추해볼 수 있다.

두 번째로 太로 시작하는 ‘누르는표’는 삼수대엽(1.추강에) 제5장 일각 [사람의] 사설에서 나타난다. 이는 다음의 <예보 202>와 같다.

<예보 202> 남창 우조 가곡의 제5장 일각 첫 박에서 나타난 ‘누르는표’ 선율형 (2)

곡목	사설	예보
삼수대엽	1.추강에 [사람의]	

<예보 202>에서 ‘누르는표’는 太로 시작해 仲太의 음형을 거쳐 倘倧으로 하행하는 선율형이다. 『하규일보』에 실린 곡 중 제5장 일각에 기보된 ‘누르는표’가 太로 시작하는 선율형은 위 <예보 202>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太로 시작하는 ‘누르는표’의 선율형은 다른 곡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없다. 다만, <예보 197>의 초수대엽(3.남팔아) 제3장 일각 [웃고] 사설의 첫 박에 기보된 ‘누르는표’가 위 <예보 202>와 동일한 선율형을 보인다. 따라서 두 곡의 연관성을 유추해볼 수 있다.

ㅂ) 소결

『가곡원류』의 사설 중, 남창 우조 가곡에서 나타난 ‘누르는표’의 선율형을 『하규일보』에 실린 곡들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초장 초두에 기보된 ‘누르는표’의 시작음은 仲, 倧 또는 南 세 가지로 나뉘었다. 仲 또는 倧으로 시작하는 ‘누르는표’는 이수대엽과 중거에서

보였으며, 골격음은 이수대엽의 경우 仲㑹-太-黃-㑹, 또는 㑹-太-黃-㑹으로, 중거는 仲㑹-太-㑹으로 나타났다. 두 곡에 기보된 '누르는표' 선율의 골격음이 유사하지만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초장 이두에서 달라지는 두 곡의 차이점에 의한 것이다.

南으로 시작하는 '누르는표'는 소용이에서 보였으며 골격음은 南汰-南-林-仲 선율형이다. 이는 초장 초두에 '누르는표'가 기보된 『하규일보』의 곡 중 가장 높은 시작음에 해당하여 다른 곡에서 시작음이 같은 '누르는표'의 선율을 찾을 수 없었으므로 다른 곡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는 소용이 초장 초두에서만 나타나는 '누르는표'의 선율형으로 볼 수 있다.

초장 이두에 '누르는표'가 기보된 사설은 『하규일보』에 실려있지 않아 선율형을 파악할 수 없었다.

제2장 초두는 제4박에 '누르는표'가 기보된 한 가지 경우를 두거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골격음은 㑹-仲-太로, 같은 박에 기보된 '누르는표'의 선율형은 두거에서만 확인 가능하여 다른 곡과의 상관관계는 파악할 수 없다. 그러나 이수대엽과 중거 초장 초두에 기보된 '누르는표' 선율의 골격음이 仲㑹 또는 㑹으로 시작해 太로 진행하므로, 이러한 선율형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제2장 이두에 기보된 '누르는표'는 시작음이 倘 한 가지로 삼수대엽에서 나타났다. 골격음은 倘-太이며, 두거(14.녹수청산) 제2장 이두의 사설 [들어]에 기보된 '드는표'의 골격음과도 동일하다. 이는 두거(14.녹수청산) 제2장 이두 [들어]에 기보된 '드는표'가 오기되었을 가능성을 보이는 한편, '누르는표'가 기보된 삼수대엽 제2장 이두의 선율이 서로 연관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제3장의 '누르는표'는 일각 첫 박에 기보된 선율형만 볼 수 있으며, 일각 제6박 또는 이두에 기보된 선율형은 『하규일보』에 실린 곡에서는 파악할 수 없었다. 제3장 일각 첫 박에 기보된 '누르는표'는 太 또는 倘으

로 시작하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었다. 太로 시작하는 '누르는표'는 초수대엽에서 보이며, 골격음은 太-仲-㑹의 선율형으로 나타났다. 倘으로 시작하는 '누르는표'는 삼수대엽에서 보이며, 골격음은 倘-太 선율형으로 나타났다. 각 곡에 기보된 '누르는표'의 선율형은 다른 곡에서는 나타나지 않으므로 다른 곡과의 상관관계는 파악할 수 없었다.

제4장에 기보된 '누르는표'는 太 또는 林으로 시작하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었다. 太로 시작하는 '누르는표'는 이수대엽, 평거, 삼수대엽에서 보이며 골격음은 太-林으로 나타났다. 林으로 시작하는 '누르는표'는 중거, 삼수대엽, 언락에서 보이며 골격음은 중거 林, 삼수대엽 林-仲, 언락 林-南林으로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다. 그러나 다음 선율 진행으로 인해 종지음이 달라지는 것 외에 林으로 시작하는 '누르는표'의 선율형은 유사하므로 서로 연관성이 있음을 추측할 수 있으며, 같은 계열의 곡 이어도 시작음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제5장은 일각 첫 박에 기보된 '누르는표'의 선율형만 파악할 수 있었으며, 시작음은 倘 또는 太 두 가지로 나뉘었다. 倘으로 시작하는 '누르는표'는 초수대엽에서 보이며 골격음은 倘-太 선율형이다. 太로 시작하는 '누르는표'는 삼수대엽에서 보이며 골격음은 太-仲-㑹의 선율형이다. 초수대엽에서 보이는 倘-太 선율형은 삼수대엽 중 제3장 일각에 '누르는표'가 기보된 곡에서, 太-仲-㑹 선율형은 초수대엽 중 제3장 일각에 '누르는표'가 기보된 곡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초수대엽과 삼수대엽 두 곡의 '누르는표' 선율은 서로 연관성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누르는표'의 선율형을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의 <표 34>와 같다.

<표 34> '누르는표'의 선율형

구분		선율형	사설	곡목	
초장	초두	【㑹】-太-黃-㑹	강호에	3.강호에	이수대엽
		【仲】㑹-太-黃-㑹	주공도	5.주공도	
		【仲】㑹-太-㑹	인심도	1.인심도	중거
			창랑에	4.창랑에	
		【南】汰-南-林-仲	아마도	3.아마도	소용이
제2장	초두 제4박	【㑹】-仲-太	완보	14.녹수청산	두거
	이두	【倘】-太	검노	4.가마귀	삼수대엽
			한치	6.도화이화	
제3장	일각 첫 박	【太】-仲-㑹	웃고	3.남팔아	초수대엽
		【倘】-太	야광	4.가마귀	삼수대엽
제4장		【太】林	성은이	3.강호에	이수대엽
			사해에	3.경성출	평거
			님향한	4.가마귀	삼수대엽
		【林】	유지에	4.창랑에	중거
		【林】-仲	장부의	19.적토마	삼수대엽
		【林】-南林	대취코	3.백구는	언락
			사람은	25.일월성신	
제5장	일각 첫 박	【倘】-太	성주1	1.천황씨	초수대엽
			성주2	2.남훈전	
		【太】-仲-㑹	사람의	1.추강에	삼수대엽

<범례> 【】: 선율의 시작음, -:박의 구분

4) 소결

『가곡원류』에 실린 사설 중 남창 우조 가곡에 기보된 음높이와 관련된 <연음표>의 선율형을 장별로 살펴보고, 그에 따른 곡들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초장 초두는 각 곡의 특징을 보여주는 선율형으로 곡에 따라 기보된 <연음표>도 뚜렷하게 나뉘었다. '드는표'가 기보된 곡은 두거, 삼수대엽, 소용이, 언락 다섯 곡으로 두거는 林南으로 시작해 㑹까지 하행하는 선율형이며 두거에서만 나타났다. 삼수대엽은 南潢으로 시작해 太로 마무리되고, 언락은 仲 또는 南에서 潢 바로 들어주며 仲 또는 林으로 마무

리되어 두 곡의 ‘드는표’ 선율형은 유사하나 종지음이 다르게 나타났다. 소용이는 삼수대엽·언락에서 변형된 ‘드는표’의 선율형을 보여 세 곡이 유기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막내는표’가 기보된 곡은 평거, 삼수대엽, 우락 네 곡으로 평거는 太로 시작해 仲으로 상행한 후, 㑹까지 하행하고, 삼수대엽은 太林으로 시작해 潢까지 상행한 후, 太로 하행하는 선율형이다. 우락은 黃으로 시작해 太를 거쳐 仲으로 마무리되어 세 곡의 ‘막내는표’ 선율이 개별적으로 드러났다.

‘누르는표’가 기보된 곡은 이수대엽과 중거, 소용이에 기보되어 있으며, 이수대엽과 중거는 仲㑹 또는 㑹으로 시작해 㑹으로 마무리되는 선율형으로 두 곡의 골격음이 유사하였다. 소용이는 南汰로 시작해 仲으로 마무리하는 선율형으로 소용이에서만 개별적으로 드러났다.

초장 이두는 ‘드는표’와 ‘막내는표’ 두 <연음표>의 선율형을 확인할 수 있다. ‘드는표’가 기보된 곡은 중거, 삼수대엽, 소용이, 언락 네 곡으로 중거의 ‘드는표’ 선율형은 중거에서만 개별적으로 나타나고. 삼수대엽, 소용이, 언락 세 곡은 시작음 南 또는 汰, 종지음 潢으로 유사한 골격음 형태였다. 다만 소용이는 삼수대엽·언락과 유사한 선율형과 소용이에만 나타나는 개별적인 선율형이 모두 나타났다. ‘막내는표’가 기보된 곡은 이수대엽과 언락 두 곡으로 두 곡이 개별적인 선율 형태를 보이고 동일 또는 유사한 선율형도 찾을 수 없었다.

제2장 초두는 <연음표>가 첫 박, 제4박과 제8박에 기보된 세 가지 경우로 나뉘었다. 첫 번째로 제2장 초두의 첫 박은 ‘드는표’와 ‘막내는표’의 선율형을 확인할 수 있다. ‘드는표’는 초수대엽, 이수대엽, 평거, 삼수대엽, 우락, 언락 여섯 곡에 기보되어 있으며, 이중 초수대엽, 우락과 언락은 潢으로 시작해 仲으로 마무리되고, 이수대엽과 평거는 太仲으로 시작해 㑹으로 마무리되는 선율형으로 각 곡의 유기성이 드러났다. 삼수대엽은 南으로 시작해 太로 마무리하는 선율형으로 삼수대엽에서만 개별적으

로 확인할 수 있다.

‘막내는표’는 이수대엽, 중거, 삼수대엽, 소용이, 언락 다섯 곡에 기보되어 있으며, 이중 이수대엽과 중거는 太로 시작해 㑹으로 마무리되고, 삼수대엽과 언락은 林으로 시작해 仲으로 마무리되는 선율형으로 각각 동일하게 나타나 각 곡의 선율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용이는 南 또는 仲南으로 시작해 汰로 마무리되는 선율형으로 소용이에서만 개별적으로 나타났다.

제2장 초두 제4박은 ‘드는표’를 언락, ‘누르는표’를 두거에서, 초두 제8박은 ‘드는표’를 소용이에서 각 곡에 기보된 <연음표>의 선율형을 확인할 수 있다. 언락 초두 제4박과 소용이 초두 제8박에 기보된 ‘드는표’와 두거 초두 제4박의 ‘누르는표’는 각 곡에서만 개별적으로 드러나 다른 곡과의 연관성은 파악할 수 없었다.

제2장 이두는 <연음표>가 첫 박과 제4박에 기보된 두 가지 경우로 나뉘었다. 이두 첫 박의 <연음표> 중 ‘드는표’는 중거, 두거, 소용이와 언락, ‘막내는표’는 초수대엽과 삼수대엽, ‘누르는표’는 삼수대엽에 기보되어 각각의 선율형을 확인할 수 있다. 세 <연음표>는 각 곡의 선율형이 모두 다르게 개별적으로 드러났다. 다만 두거의 ‘드는표’와 삼수대엽의 ‘누르는표’ 선율형이 倘-太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는 세 <연음표> 중 높은음을 나타내는 ‘드는표’의 특성상, 두거에 기보된 <연음표>가 오기되었을 가능성을 보이는 한편, 삼수대엽과 두거 제2장 이두의 선율이 서로 연관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중거에 기보된 ‘드는표’는 위의 두거를 제외한이수대엽 계열의 제2장 이두에서 太로 동일하게 나타났으나 <연음표>는 생략되어 있으므로 판단을 보류하였다.

제2장 이두 제4박은 ‘드는표’의 선율형을 소용이 한 곡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율의 골격음은 仲으로 같은 박에 기보된 <연음표>는 소용이에서만 나타나 다른 곡과의 상관관계는 확인할 수 없었다.

제3장은 우락과 언락 모두 사설이 늘어나면서 일각이 확대되었다. 따

라서 일각이 확대되지 않은 기본형의 일각 선율형을 기준으로 확대된 일각의 선율과의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첫 번째로 일각이 확대되지 않은 곡들에서 <연음표>는 제3장 일각의 첫 박, 제6박 및 제9박에 기보된 세 가지 경우로 나뉘었다. 제3장 일각 첫 박은 '드는표'가 중거, '막내는표'가 초수대엽, 삼수대엽과 소용이, '누르는표'는 초수대엽과 삼수대엽에 각각 기보되어 세 <연음표>의 선율형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중 '드는표'가 기보된 중거, '막내는표'가 기보된 소용이, '누르는표'가 기보된 초수대엽과 삼수대엽은 모두 다른 선율형으로 개별적으로 나타나 다른 곡과의 유기성은 확인할 수 없었다. '막내는표'가 기보된 초수대엽과 삼수대엽은 林-仲 선율형으로 두 곡의 연관성이 나타났다.

제3장 일각 제6박은 '드는표'와 '막내는표'의 선율형을 확인할 수 있다. '드는표'는 중거를 제외한 일곱 곡에 기보되어 있다. 이 중, 이수대엽, 평거, 두거 세 곡의 선율과 초수대엽, 삼수대엽 두 곡의 선율이 각각 동일 또는 유사하게 나타나 이수대엽 계열과 초수대엽·삼수대엽에 기보되는 '드는표'의 선율형이 명확히 구분되었다. 다만 삼수대엽은 같은 '드는표'에서 초수대엽과 같은 선율형과 개별적으로 나타나는 두 가지 선율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용이는 이수대엽 계열과 시작음이 같지만 상행하는 선율형으로 다른 곡과 구분되었다. '막내는표'는 초수대엽과 삼수대엽에 기보되어 있으며, 선율형은 太-仲-太로 동일해 두 곡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다. 제3장 일각 제9박은 '드는표'가 삼수대엽과 소용이에 기보되어 있으며, 각 곡의 선율형이 개별적으로 나타나 다른 곡과의 연관성은 확인할 수 없었다.

제3장 일각이 확대되지 않은 곡들에서 나타난 선율형을 바탕으로 우락과 언락 제3장의 확대된 일각의 선율을 살펴보면, <연음표>는 확대된 일각의 첫 박, 제6박, 제9박, 그리고 반각의 첫 박에 기보된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뉘었다. 일각 첫 박은 '드는표'와 '막내는표'두 <연음표>의 선율형을 확인할 수 있으며 모두 언락에 기보되어 있다. 두 <연음표> 모

두 다른 곡과 연관 있는 선율형이 드러나지 않았다.

제6박, 제9박 및 반각은 ‘드는표’의 선율형만 확인할 수 있다. 제6박의 ‘드는표’는 潢 또는 南으로 시작해 仲으로 마무리되는 선율형으로 초수대엽·삼수대엽에 ‘드는표’가 기보된 제3장 일각 제6박과 유사한 골격음으로 나타났다. 제9박의 ‘드는표’는 南으로 시작해 太로 마무리되는 선율형이 우락·언락에서 동일하게 나타났고, 太로 시작하는 선율형은 삼수대엽 제3장 일각 제9박에 ‘드는표’가 기보되었을 때 太에서 仲으로 올라가는 선율형이 유사하여 연관성을 유추할 수 있었다. 또한, 우락의 반각에 기보된 ‘드는표’도 太로 시작해 삼수대엽과 유사한 골격음으로 진행하였다.

제3장 이두의 <연음표>는 ‘드는표’와 ‘막내는표’의 선율형을 확인할 수 있다. ‘드는표’는 중거, 삼수대엽, 언락 세 곡에 기보되어 있으며, 이중 중거와 언락은 太仲-太의 동일한 골격음으로 선율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거·언락의 ‘드는표’에서 나타나는 다른 선율형과 삼수대엽은 모두 개별적으로 다르게 나타났다. ‘막내는표’는 평거, 두거, 삼수대엽, 소용이, 언락 다섯 곡에 기보되어 있으며, 언락을 제외한 네 곡의 골격음은 太-仲으로 모두 동일해 곡 간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언락은 南-仲-南林 선율형으로 언락에서만 드러나, 다른 곡과의 상관관계는 파악할 수 없었다. 이외에 소용이 제3장 이두 제4·11박에 각각 ‘막내는표’와 ‘드는표’가 기보되어 있는데 해당 박에 기보된 <연음표>는 소용이 외에 다른 곡은 나오지 않아 선율형과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없었다.

제4장은 ‘드는표’와 ‘누르는표’이 기보되어 각 <연음표>의 선율형을 확인할 수 있다. ‘드는표’는 크게 두 가지 선율형으로 이수대엽·중거·평거·두거·삼수대엽에서 南-林, 초수대엽, 우락, 언락에서 潢-南-林으로 골격음이 동일하였고, 소용이는 潢-汰-南 선율형으로 다른 곡과 구분되었다.

제4장에 ‘누르는표’가 기보된 곡 중 이수대엽·중거·평거 세 곡은 太林 또는 林으로 시작해 林에서 요성하는 선율형, 삼수대엽은 太林 또는 林으로 시작해 仲으로 요성하는 선율형, 언락은 林으로 시작해 南林으로

진행하는 선율형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수대엽 계열의 세 곡과 삼수대엽, 언락 제4장에 기보된 ‘누르는표’는 林을 중심으로 종지음만 달라짐을 알 수 있다. 두거, 초수대엽, 소용이와 우락은 『하규일보』에 실린 곡 중 ‘누르는표’가 기보된 사설이 없으므로 선율형을 파악할 수 없었다.

제5장은 『하규일보』에 실린 우락 두 곡과 언락 다섯 곡 중 우락<9.임으란>·<13.이선이> 두 곡, 언락<3.백구는>·<6.벽사창이> 두 곡에서 사설이 늘어나면서 일각이 확대되었다. 따라서 일각이 확대되지 않은 기본형의 일각 선율형을 기준으로 확대된 일각의 선율과의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첫 번째로 제5장 일각의 첫 박에서 ‘드는표’는 초수대엽, 이수대엽, 중거, 평거, 삼수대엽과 언락 여섯 곡에서 선율형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선율형은 太仲 또는 仲으로 시작해 太로 하행해 다섯 곡 모두 동일·유사한 형태였다. 다만 삼수대엽과 언락의 太-仲-太로 진행하는 ‘드는표’의 선율은 ‘막내는표’가 기보되어 있는 다른 사설의 언락에서 동일한 선율형으로 나타났다. ‘누르는표’는 초수대엽과 삼수대엽 두 곡에서 선율형을 확인할 수 있다. 두 곡의 골격음은 다른 선율형으로 개별적으로 나타났으나, 초수대엽은 삼수대엽의, 삼수대엽은 초수대엽의 제3장 일각 첫 박에 기보된 ‘누르는표’와 동일한 골격음 형태를 보여 선율의 유기성을 볼 수 있었다.

두 번째로 제5장 일각의 제6박은 ‘드는표’와 ‘막내는표’가 기보되어 선율형을 확인할 수 있다. ‘드는표’는 초수대엽, 두거, 언락 세 곡에 기보되어 있다. 이 중 초수대엽과 두거의 골격음은 太仲-太-黃-林으로 같고, 언락은 仲-太로 같은 박에서 동일한 선율형은 없었으나 삼수대엽 제3장 일각 제6박에 기보된 ‘드는표’와 같아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막내는표’는 평거와 삼수대엽 세 곡에 기보되어 있으며, 두 곡의 골격음이 太에서 林으로 하행하는 선율형으로 유사하였다.

이 외에 일각 첫 박에 ‘막내는표’, 제4·9박에 ‘드는표’가 기보된 소용이의 경우, 다른 곡과는 개별적인 선율로 나타나 연관관계를 파악하기 어

려웠다.

제5장 일각이 확대되지 않은 곡들에서 나타난 선율형을 바탕으로 우락과 언락 제5장의 확대된 일각의 선율을 살펴보았다. 확대된 일각 첫 박은 ‘드는표’가 언락에 기보되어 있으며, 太仲으로 시작해 太로 하행하는 선율형으로 기본형의 제5장 일각 첫 박에 기보된 ‘드는표’의 골격음과 동일하였다. 확대된 일각 제6박은 ‘드는표’가 언락, ‘막내는표’가 우락에 기보되어 있으며, 두 곡 모두 같은 박에 기보된 <연음표>에서 동일한 선율형은 찾을 수 없었다. 다만, 우락의 경우, 초수대엽의 제2장 초두와 초수대엽·삼수대엽의 제3장 일각 제6박에 기보된 ‘드는표’와 유사한 선율형으로 연관성을 유추할 수 있었다. 확대된 일각 제9박은 ‘드는표’가 우락에 기보되어 있으며, 같은 박에 기보된 <연음표>에서 동일한 선율은 찾을 수 없었으나 삼수대엽의 제3장 일각 제9박에 기보된 ‘드는표’와 골격음이 같아 영향을 받았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제5장 이두는 ‘드는표’와 ‘막내는표’의 선율형을 확인할 수 있다. ‘드는표’는 우락과 언락에 기보되어 있으며, 두 곡의 선율형은 潢-南-林-仲으로 동일하였다. ‘막내는표’는 중거, 평거, 삼수대엽, 언락 네 곡에 기보되어 있으며, 언락을 제외한 세 곡의 선율형은 太-仲으로 동일하여 곡 사이의 연관성이 드러났고, 언락은 仲-南林-仲으로 개별적인 선율형태를 보였다. 이 외에 소용이의 제5장 이두의 제4박에 ‘드는표’가 기보되어 있으나 다른 곡과는 개별적인 선율로 나타나 연관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정리하면 『가곡원류』에 기보된 <연음표>는 단순한 한 음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 선율형을 나타내는 것으로 각 <연음표>가 의미하는 선율형을 유추해볼 수 있다. 같은 <연음표>에 해당하는 선율형이 많아질수록 <연음표>는 절대적인 의미보다 상대적인 의미로 기보되며, 사설이 많고 빨라질수록 이러한 현상이 더 나타났다.

그러나 상대적인 의미로 기보되더라도 음높이를 나타내는 세 <연음표>의 선율형이 동일 또는 유사하게 나타나 곡 간의 선율의 유기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은 선율의 유기성은 곡의 계열별로 대부분 각 장의 초두 또는 일각에서 드러났다. 즉, 같은 박에 기보된 <연음표>의 선율이 이수대엽 계열의 네 곡, 초수대엽과 삼수대엽 두 곡, 우락과 언락 두 곡의 계열별로 <연음표>에 따른 골격음이 같아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두는 같은 박에 기보된 <연음표>의 선율형이 다른 계열의 곡에서 나타나기도 했으며, 같은 박에 다르게 기보된 <연음표>의 선율형이 동일하게 드러나 검증의 필요성을 보였다.

소용이는 초장과 제3장 이두에 기보된 '드는표'의 선율형을 제외하고 동일한 유형이 드러나지 않으며, 다른 곡에서 기보되지 않은 박에 <연음표>가 기보 되기도 하는 등 특수한 양상을 보였다. 이는 소용이 이후 가곡에 나타나는 시조의 형식이 평시조에서 사설시조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선율 및 <연음표>의 활용 역시 변화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Ⅲ. 결론

본고는 남창 우조 가곡 중 이수대엽 계열, 초수대엽·삼수대엽, 소용이, 우락·언락의 사설에 따라 변하는 노래선율의 법칙을 『가곡원류』에 기보된 <연음표>와 『하규일보』를 바탕으로 선율형과 곡들의 상관관계에 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각 곡에 기보된 <연음표>의 특징을 음높이를 나타내는 <연음표>과 연결형 <연음표>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조 이수대엽 계열에 기보된 음높이와 관련된 <연음표>의 경우 '드는표'는 높은음, '막내는표'는 중간음, '누르는표'는 낮은음에 주로 기보되었다. 그러나 제2장 이두에서 '드는표'는 중간음 또는 낮은음에 기보되기도 하며 초두보다 다양한 특징이 나타났다. '든흘림표'와 '연음표'는 낮은음 仲에서 요성한 후 黃 또는 太로 상행하는 경우, 요성 없이 상행 음형만 나오는 경우, 한 가지 음만 내주는 음형으로 세 가지 경우가 나왔는데 이는 앞뒤 사설의 종지음과 시작음에 따라 달라졌다. 또한, '드는표'가 기보된 사설로 일정하게 연결하는 '든흘림표'에 비해 '연음표'는 '막내는표'가 기보된 사설, 또는 <연음표>이 생략되어 있어도 '드는표'가 기보된 사설보다 낮은음으로 연결하며 '든흘림표'보다 다양한 음형이 나타났다.

우조 초수대엽의 '드는표'는 각 장의 초두 또는 일각에 기보된 유형만 보이며, 제5장 일각의 선율을 제외한 시작음 및 종지음이 이수대엽 계열보다 높고 일정하게 나타났다. '막내는표'는 초두나 일각 또는 이두에 따라 시작음이 모두 다르고 이에 따른 선율형도 차이를 보였다. '누르는표'는 제3·5장 일각 첫 박에 각각 기보되어 있으며, 시작음은 다르나 종지음은 같은 음을 사용하는 특징을 보였다. '든흘림표'와 '연음표'는 제3장 또는 제5장에서 볼 수 있다. '든흘림표'는 黃에서 요성한 후 太또는 仲으

로 상행하는 음형으로 ‘드는표’로 연결되었다. 반면, ‘연음표’는 仲에서 요성한 후 黃倘으로 상행하다 하행하며 음형의 차이를 보인다. 이는 ‘든흘림표’가 연결하는 선율은 상행 선율이고, ‘연음표’는 ‘연음표’가 기보된 다음 사설의 시작음이 仲으로 오히려 낮아지므로 이를 연결하기 위해 음형이 달라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우조 삼수대엽은 음높이와 관련된 세 <연음표>의 시작음이 초수대엽과 대체로 동일하였으나 선율형은 초수대엽에 비해 다양하게 드러났다. 또한 초장 이두의 ‘드는표’는 초수대엽의 ‘드는표’보다 시작음이 높았다. ‘든흘림표’는 대부분 ‘드는표’ 앞에 기보되어 상행선율을 연결하므로 그에 따른 음형도 상행 음형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음표’는 대부분 ‘드는표’보다 시작음이 낮을 경우 기보되어 상행·하행 선율을 연결하며 다양한 음형이 드러났다. 또한, 두 <연음표>은 이수대엽 계열에서 나타났던 仲에서 요성한 후 다음 음으로 진행한 유형과 초수대엽에서 黃에서 요성한 후 다음 음으로 진행한 두 가지 유형이 모두 출현하였다.

우조 소용이의 ‘드는표’는 각 장의 초두 또는 일각과 이두에 고루 기보되어 다양한 유형을 볼 수 있지만, ‘누르는표’는 초장 이두 외에 기보되지 않아 한 가지 선율형만 보이며, 다른 계열의 곡에 비해 시작음이 높게 나타났다. ‘드는표’는 제5장 일각에서 삼수대엽보다 시작음이 높았고 이에 따른 ‘막내는표’의 시작음도 높아졌다. 또한 이수대엽 계열과 초수대엽·삼수대엽에 기보되지 않았던 박에 <연음표>이 기보되는 특수한 양상을 보였다. 이는 소용이 이후 가곡의 시조 형식이 평시조에서 사설시조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선율 및 <연음표>의 활용 역시 변화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든흘림표’의 경우 제4장을 제외하고 모두 기보되어 있어 음형을 파악할 수 있는 반면, ‘연음표’는 제3장에만 나타나 한 가지 음형만 확인할 수 있었다. 두 <연음표>은 仲에서 상행하는 음형, 또는 仲보다 높은음으로 연결하는 음형으로 초수·삼수대엽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특징은 우조 소용이가 높은 악곡이란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수대엽 계열과 초수대엽·삼수대엽에서 나타난 요성하는 음형은 소용이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우락은 제5장을 제외하고 이두의 <연음표>이 생략되어 초두 또는 일각의 선율형 위주로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사설이 늘어나면서 제3·5장의 일각이 확대되고 자수에 따라 반각이 나타났으며, 그에 따라 '드는표'가 가장 많이 기보되어 선율형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막내는표'는 초장 초두와 제5장 일각에만 기보되어 시작음은 같지만 선율형은 달랐고, '누르는표'는 기보되지 않아 선율형을 파악할 수 없었다. '든흘림표'는 요성 없이 黃에서 太로 진행하는 음형이 제3·5장에서 주로 나타났다. 또한, 倞에서 요성하여 太로 상행하는 음형이 보였는데 이는 이수대엽 계열 및 초수대엽·삼수대엽에 기보된 '든흘림표'의 음형과 다른 시작음으로 차이를 보였다. '연음표'는 요성 없이 黃에서 太로 상행하는 음형 외에 太 또는 仲 한 가지 음으로 진행되는 음형, 仲에서 太로 하행하는 음형이 나타나 '든흘림표'보다 다양한 음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언락의 제3장은 다섯 곡 모두 일각이 확대되었고, 제5장은 다섯 곡 중 두 곡의 일각이 확대된 선율이 나타났다. 각 장의 초두 또는 일각에 기보된 '드는표'와 '막내는표'는 선율의 시작에서 비교적 두 <연음표>의 특징을 구분할 수 있는 반면, 이두는 '막내는표'의 시작음이 초두에 비해 높게 나타나며 '드는표'와 구분이 모호한 경향을 보였다. '누르는표'는 우락과 마찬가지로 기보되지 않아 선율형을 파악할 수 없었다. '든흘림표'는 우락에서 나타났던 倞에서 요성한 후 太로 진행하는 음형, 요성없이 黃에서 太로 진행하는 음형 외에 초수대엽·삼수대엽의 黃에서 요성 후 太로 상행하는 음형, 소용이의 仲에서 南으로 상행하는 음형 등이 모두 나타났다. 또한 상행선율이 생략되고 太 또는 仲 한 가지 음으로 내주는 음형도 드러나 남창 우조 가곡에 기보된 '든흘림표' 중 가장 많은 음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음표'는 요성 없이 倞 또는 黃에서 太로 상행하는 음형, 仲 한 가지 음을 내주는 음형 외에 仲에서 太로 하행하는 음형도 나타났다.

둘째,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연음표>에 따라 동일·유사하게 나타나는 선율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각 곡의 초장 초두는 <연음표>에 따라 곡의 특징이 뚜렷하게 드러나

같은 계열 안에서 곡들을 구분하는 역할을 하였다. 다만, 삼수대엽과 언락의 '드는표'와 이수대엽과 중거의 '누르는표'의 선율 골격음은 유사하였다. 초장 이두는 삼수대엽·소용이·언락에서 '드는표'의 선율 골격음이 유사해 연관성을 찾을 수 있었다.

제2장 초두는 '드는표'가 초수대엽·우락·언락의 선율형과 이수대엽·평거의 선율형으로 나뉘고, '막내는표'는 이수대엽·중거의 선율형과 삼수대엽·언락의 선율형으로 나뉘었다. 제2장 이두는 각 곡의 <연음표>에 따른 선율형이 모두 다르게 나타났다. 그러나 두거의 '드는표'와 삼수대엽의 '누르는표' 선율형이 倘-太로 동일하여 <연음표>는 다르지만 두 곡의 연관성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중거의 '드는표'는 두거를 제외한 이수대엽 계열에서 太로 동일하게 나타났으나 <연음표>는 생략되어 있으므로 <연음표>의 오기 및 생략에 대한 판단은 어렵다.

제3장 일각 첫 박은 초수대엽과 삼수대엽의 '막내는표'가 동일한 선율형으로 나타났다. 일각 제6박은 '드는표'가 이수대엽·평거·두거 세 곡의 선율형과 초수대엽·삼수대엽 두 곡의 선율형으로 뚜렷하게 나뉘었고, '막내는표'는 초수대엽·삼수대엽에서 동일한 선율형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준으로 확대된 제3장 일각의 선율형을 살펴보면, 우락의 확대된 제3장 일각 제6박의 '드는표'는 초수대엽·삼수대엽의 제3장 일각 제6박의 '드는표' 선율형과 유사하였다. 확대된 제3장 일각 제9박의 '드는표'는 南으로 시작하는 선율형일 경우 우락·언락 두 곡이 동일하였고, 太로 시작하는 선율형은 삼수대엽 제3장 일각 제9박의 '드는표'와 선율형이 유사하였다. 우락의 반각에 기보된 '드는표'도 삼수대엽과 유사한 골격음을 보여 각 선율의 유기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제3장 이두의 '드는표'는 중거와 언락, '막내는표'는 평거·두거·삼수대엽·소용이의 골격음이 각각 동일하였다.

제4장은 '드는표'와 '누르는표'가 기보되며, '드는표'는 이수대엽·중거·평거·두거·삼수대엽의 선율형과 초수대엽·우락·언락의 두 가지 선율형으로 나뉘었고 소용이는 다른 곡과 구분되었다. '누르는표'는 이수대엽·중거·평거에 나타나는 선율형, 삼수대엽에서 나타나는 선율형, 언락에서 나

타나는 선율형으로 구분되었으며, 두거, 초수대엽, 소용이와 우락은 제4장에 '누르는표'가 기보된 사설이 없어 선율형을 파악할 수 없었다.

제5장 일각의 첫 박에서 '드는표'는 이수대엽, 중거, 평거, 초수대엽, 삼수대엽과 언락에서 동일·유사한 선율 형태를 보였다. 다만 삼수대엽과 언락의 太-仲-太로 진행하는 '드는표'의 선율은 같은 박에 '막내는표'가 기보된 언락과 동일한 선율형으로 나타났다. '누르는표'는 초수대엽과 삼수대엽에 기보되어 있으며, 초수대엽과 삼수대엽의 제3·5장 일각 첫 박에 기보된 '누르는표'는 서로 상호적으로 동일한 골격음 형태를 가져 선율의 연관성을 알 수 있었다. 제5장 일각의 제6박은 '드는표'가 기보된 곡 중 초수대엽과 두거의 선율형이 동일하였고, 언락은 삼수대엽 제3장 일각 제6박에 '드는표'와 선율이 같았다. '막내는표'는 평거와 삼수대엽에서 유사한 선율형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준으로 제5장에 확대된 일각의 선율형을 살펴보면, 언락 제5장 일각의 첫 박은 '드는표'가 기보되어 있으며, 기본형 제5장 일각 첫 박에 '드는표'와 골격음이 동일하였다. 확대된 제5장 일각의 제6박은 언락의 '드는표'가 초수대엽·삼수대엽 제3장 일각 제6박의 '드는표'와 선율형이 유사하였다. 확대된 제5장 일각의 제9박은 우락의 '드는표'가 삼수대엽 제3장 일각 제9박의 '드는표'와 골격음이 같았다. 제5장 이두는 '드는표'가 기보된 우락·언락과 '막내는표'가 기보된 언락을 제외한 중거·평거·삼수대엽 세 곡의 선율형이 각각 동일하였다.

종합하면『가곡원류』에 기보된 음높이를 나타내는 <연음표>은 단순한 한 음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 선율형을 의미하는 것으로 각 <연음표>이 의미하는 선율형을 곡에 따라 유추해볼 수 있다. 같은 <연음표>에서 나타나는 선율형이 한 곡에서 다양하게 드러날수록 <연음표>은 절대적인 의미보다 상대적인 의미로 기보되며, 시작음은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사설이 많고 곡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이러한 현상이 더 두드러졌다.

연결형의 <연음표>은 느린 곡에서 빠른 곡으로 진행할수록 음형은 단순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소용이를 기점으로 사설이 늘어나고

곡의 속도는 빨라지면서 선율형은 오히려 단순화됨으로 인해 두 <연음표>의 역할이 점점 축소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었다. 또한 음높이를 나타내는 <연음표>의 시작음이 높아지는 경향이 보일 때 연결형 <연음표>도 같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상대적인 의미로 기보되더라도 음높이를 나타내는 세 <연음표>의 골격음이 동일·유사하게 나타나 곡 간의 선율의 유기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유기성은 각 장의 초두 또는 일각의 경우 계열별로 나타나는 반면, 이두는 다른 계열의 곡에서도 <연음표>에 따라 동일한 골격음이 나타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두의 기보된 서로 다른 <연음표>가 동일한 선율형을 가지는 경우도 드러나 이에 대한 검증의 필요성을 보였다.

본 연구는 『가곡원류』에 실린 사설 중 『하규일보』에 실린 남창 우조 가곡만을 대상으로 하여 종합적인 연구가 진행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추후 이 연구를 바탕으로 남·여창 가곡 전반에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기를 희망한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김기수,『한국음악 제20집』, (서울: 국립국악원, 1984).
박효관, 안만영 공저「가곡원류」,『한국음악자료총서』 제5집, (서울: 국립국악원, 1989).
송방송,『한겨레음악대사전(상·하)』, (서울: 보고사, 2001).
장사훈, 한만영 공저『국악개론』, (서울: 한국 국악 협회, 1975).
장사훈,『최신국악총론』,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85).
_____,『국악대사전』,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84).

<학위논문>

강경호, "가곡원류계 가집의 편찬 특성과 전개 양상 연구." (서울: 성균관대학교 국내박사학위논문, 2011).
문주석, "'歌曲源流' 硏究." (경상북도: 영남대학교 국내박사학위논문, 2005.)
송방송, "연음표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 (서울: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67).
이명옥, "「반각」에 관한 연구: 고악보와 고가사집을 중심으로", (경북: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하경미, "가곡 연음표의 전승 현황과 음악 교육적 활용 방안 연구.", (경기도: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황인완. "『歌曲源流』의 異本 系列 硏究." 서울: 고려대학교 국내박사학위논문, 2008.)

<학술지>

강경호, "일반논문 : 20세기 초 재편된 『가곡원류』 (가람본)의 성격과 시가사

적 의미." 韓民族語文學 0.68 (2014).
_____, "가집 『협률대성』의 편찬 특성과 전승· 향유의 문화적 의미." 時調學論叢 40.- (2014).
_____, "歌集 『海東樂章』의 作品 收錄 양상과 編纂 특성." 어문연구(語文硏究) 35.4 (2007).
권순회. "박효관이 하순일에게 준 생애 마지막 가집, 한창기본 『가곡원류』." 열상고전연구 41.- (2014).
_____. "일본 동양문고 소장 국문시가 자료의 가치." 民族文化硏究 65.- (2014).
_____. "국립한글박물관 소장 『歌曲源流』(고태진 필사본)의 특성과 계보." 古典文學硏究 50.- (2016).
_____, "미국 클레어몬트대학도서관 맥코믹 컬렉션 소장 『靑邱樂章』의 특성." 韓國 詩歌硏究 44.- (2018).
김선기. "안민영 시조를 둘러싼 국악원본 가곡원류와 김옥총부의 비교 고찰." 한국언어문학 48 (2002).
김우진, "율명 기보법의 변천에 관한 연구",『사슴은 노래한다』, (서울: 이성천회갑기념발간위원회, 1997)
_____, "가곡의 고정성과 유동성",『한국음악의 지평』, (서울: 민속원, 2014).
문주석, "'연음표' 고",『한국전통음악학』 제6호, (2005).
_____, "가곡원류와 논곡지음의 수용양상에 관한 연구."『한국음악사학보 37』, (2006).
박희용, 이익주. "조선 초기 경복궁 서쪽 지역의 장소성과 세종 탄생지",『서울학연구』, (서울: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2012.
변미혜, "사설에 따른 가곡선율의 변형(Ⅰ)", 『교수논총』 제4집 제2호, (한국교원대학교, 1988).
_____, "사설에 따른 가곡선율의 변형(Ⅴ)",『한국음악연구』 제36집, 2004.
_____, "사설에 따른 가곡선율의 변형(Ⅱ)", 『교수논총』 제7집 제2호, 한국교원대학교, 1991.
_____, "사설에 따른 가곡선율의 변형(Ⅲ)", 『교수논총』 제8집 제2호, 한국교원대학교, 1992.
_____, "사설에 따른 가곡선율의 변형(Ⅳ)", 『교수논총』 제12집 제2호, 한국교원대학교, 1996.

_____, “가곡 4장과 시조시와의 관계”,『한국음악사학보』 제20집 제1호, 1998.
송권준, “여창 가곡 노랫말의 四聖·連音標·음높이″,『예술논문집』 제14집, 1999.
_____, “남창 가곡 노랫말의 四聖·連音標·음높이”,『예술논문집』 제15집, 2001.
_____, “『가곡원류』 연음표의 기능”,『한국민족문화』 제39집, 부산: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1.
신경숙, ″<<가곡원류>>의 소위 ‘관습구‘들, 어떻게 볼 것인가? - 평시조를 중심으로 -.″ 韓民族語文學 41.- (2002).
_____, ″19세기 서울 우대의 가곡집, 『가곡원류』.″ 古典文學硏究 35.- (2009).
_____, “『가곡원류』 편찬 연대 재고.”,『韓民族語文學』 0.54 (2009).
스기야마 유타카, “가곡창 선율에 반영된 사설의 성조(Ⅰ)”,『국어국문학』 제171호, 2015.
오종각, ″歌曲源流의 새로운 異本인 『知音』硏究 .″, 國文學論集 15.- (1997).
이찬욱, ″『歌曲源流』의 〈歌之風度形容〉에 관한 硏究.″ 우리文學硏究 0.37 (2012).
이혜구, “한금신보의 우조삭대엽”,『장사훈박사회갑기념 동양음악논총』, (한국국악학회, 1997).
정일영, ″『증보가곡원류(增補歌曲源流)』 농(弄)·낙(樂) 사설과 악곡(樂曲)의 연관성 고찰.″ 時調學論叢 46.-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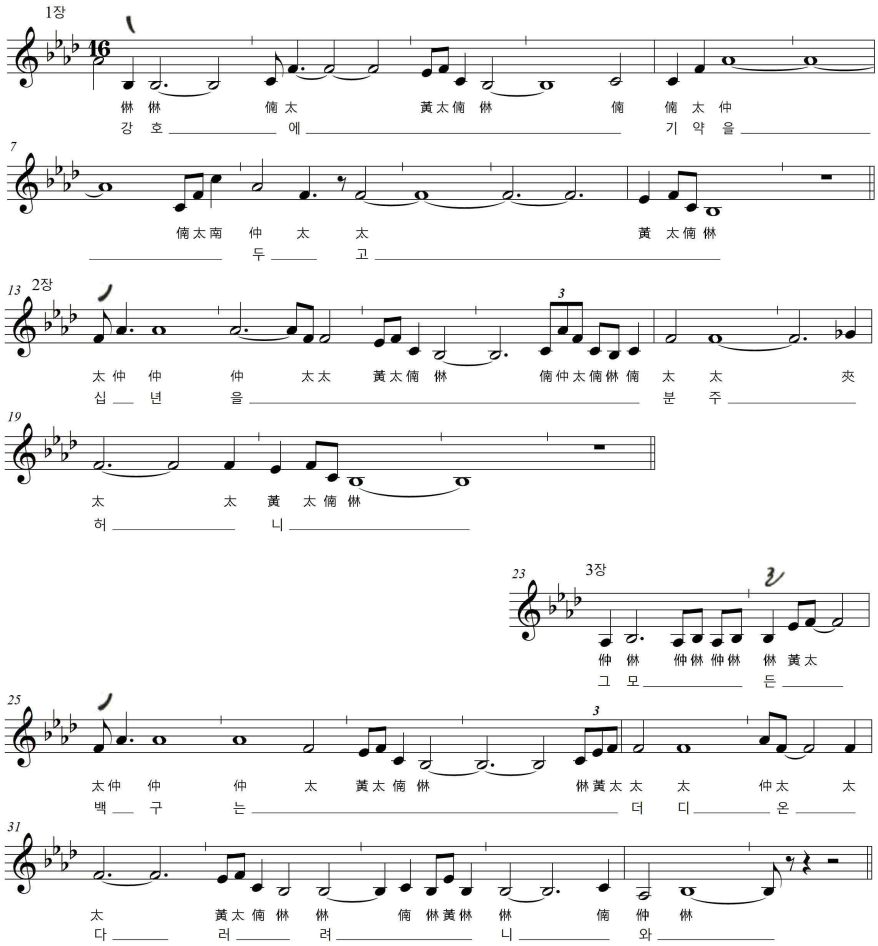
<악보>

김기수,『남창가곡백선』, (서울: 은하출판사, 1992).
_____,『여창가곡여든여덜닢』, (서울: 은하출판사, 1980).
김진향,『선가하규일선생약전』, (서울: 도서출판 예음, 1993).

부 록 악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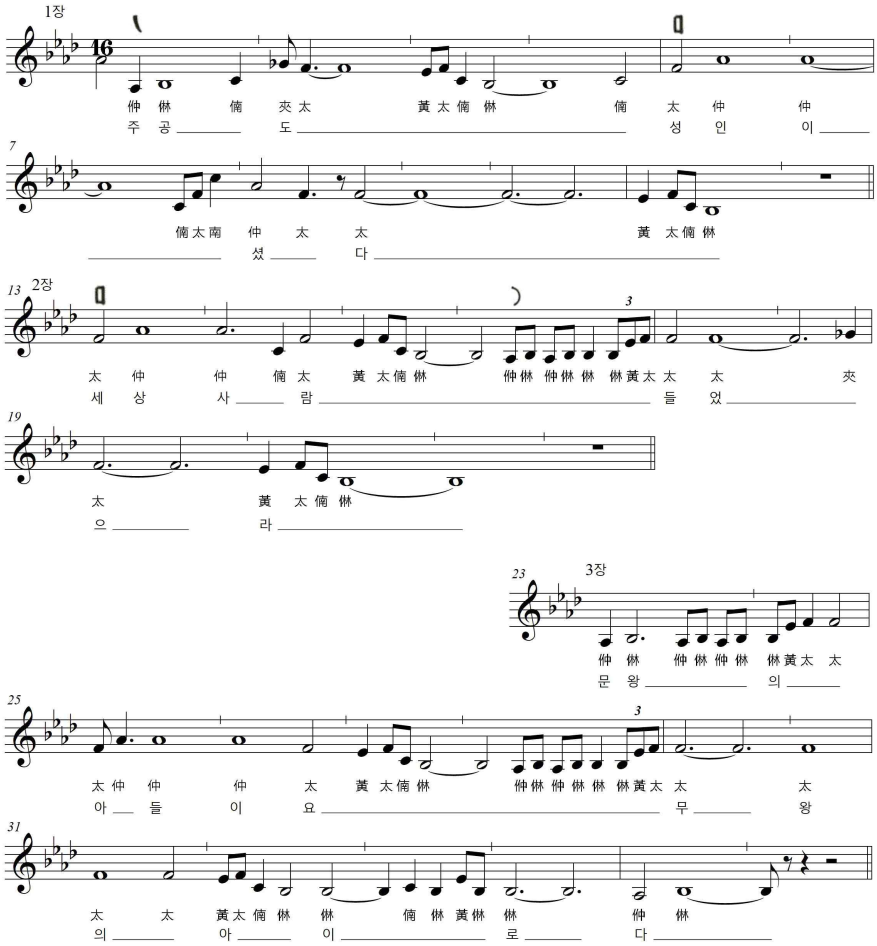
구분	곡	사설
이수대엽 계열	이수대엽	3. 강호에 (강호에 기약을 두고)
		5. 주공도 (주공도 성인이셨다)
	중거	2. 인심은 (인심은 터이되고)
		4. 창랑에 (창랑에 낚시넣고)
	평거	3.경성출 (경성출 경운흥하니)
		10.샛별지자 (샛별지자 종달이 떴다)
	두거	1.구름이 (구름이 무심탄 말이)
		14.녹수청산 (녹수청산 깊은 골에)
초수대엽	초수대엽	1.천황씨 (천황씨 지으신 집을)
		2.남훈전 (남훈전 달밝은 밤을)
		3.남팔아 (남팔아 남아사이언정)
		4.동창이 (동창이 밝았느냐)
		7.동짓달 (동짓달 기나긴 밤을)
삼수대엽	삼수대엽	1.추강에 (추강에 월백커늘)
		4.가마귀 (가마귀 눈비마자)
		6.도화이화 (도화이화 행화방초들아)
		7.굴원충혼 (굴원충혼 배에 넣은 고기)
		19. 적토마 (적토마 살지게 먹여)
소용이	소용이	1.어젯밤도 (어젯밤도 혼자 곱송그려 새우잠 자고)
		3.아마도 (아마도 태평헐손)
		5.불아니 (불아니 땔지라도 절로익는 솟과)
		7.저건너 (저건너 검어무투름한 바위)
락 계열	우락	9.임으란 (임으란 회양금성 오리남기 되고)
		13.이선이 (이선이 집을 반하여)
	언락	3.백구는 (백구는 편편 대동강상비허고)
		6.벽사창이 (벽사창이 어룬어룬커늘)
		8.푸른산중 (푸른산중 백발옹이)
		20.아흔아홉 (아흔아홉 곱먹은 노장이)
		25.일월성신 (일월성신도 천황씻적 일월성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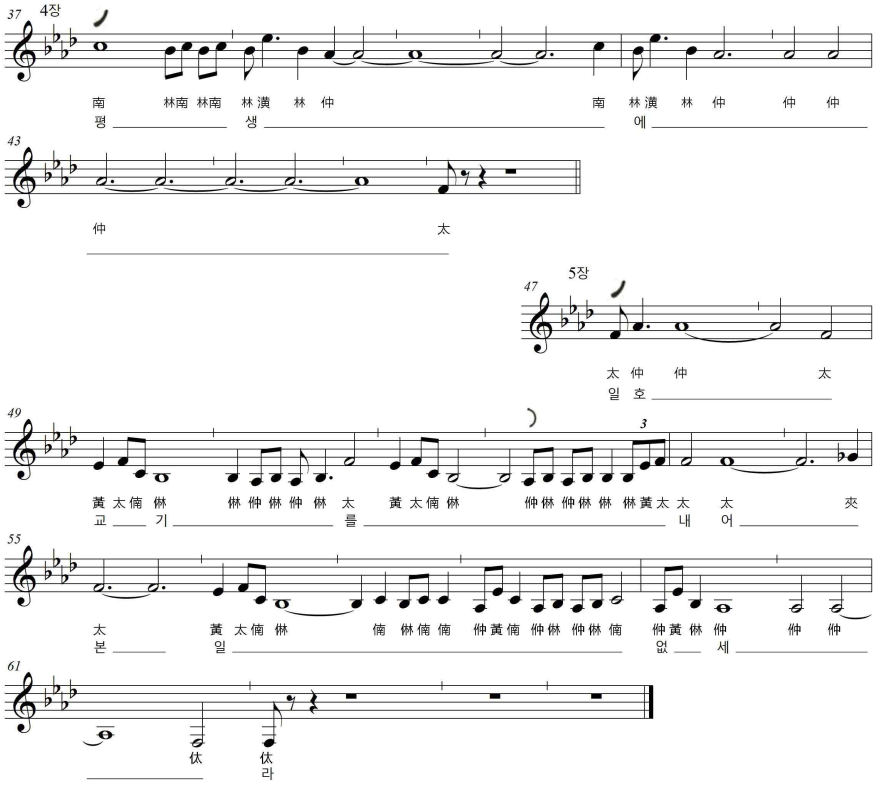
남창 우조 이수대엽3<강호에 기약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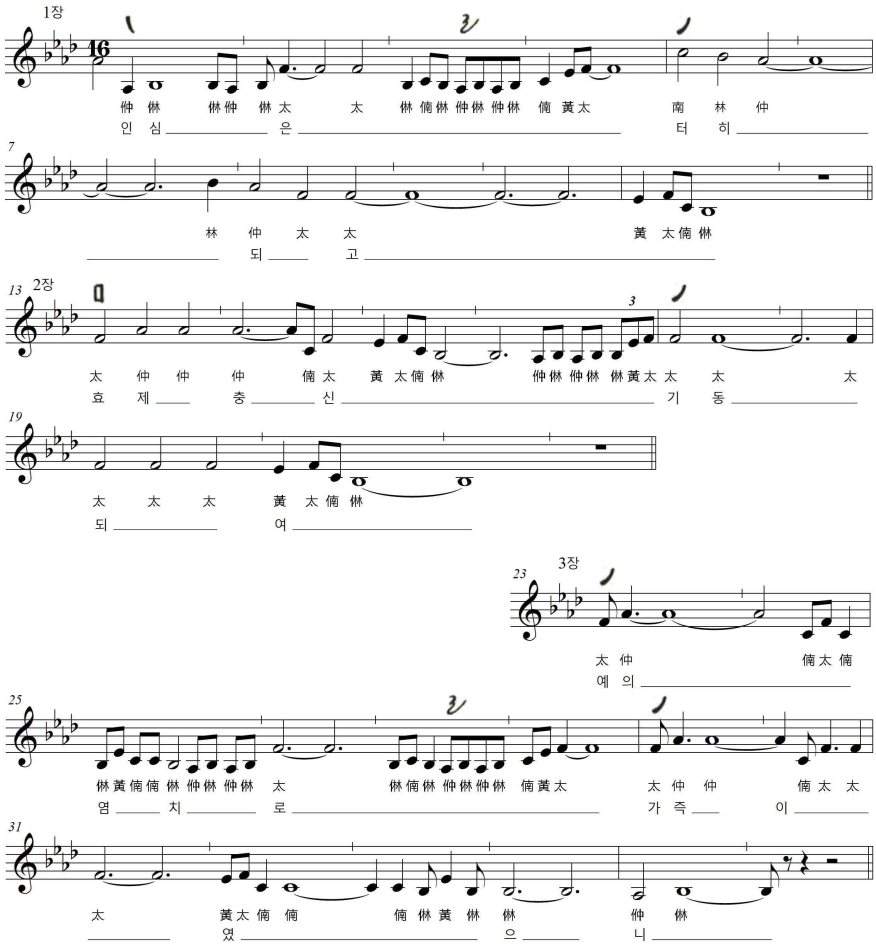
4장
太 林 林南 仲南 林潢 林 仲 南 林潢 林 仲
성 은 이
太
5장
夾 太 太黃倘㑹
지 중
㑹黃倘㑹 㑹 仲㑹 仲㑹 仲㑹 夾太 太 黃太倘 㑹 仲㑹 仲 㑹 㑹黃太 太 太 夾
허 시 니 갚 고
太 太 黃太倘 㑹 倘 㑹倘 仲黃 倘 仲㑹 仲㑹 倘 仲黃 㑹 仲 仲
갈 려 허 노
仗 仗
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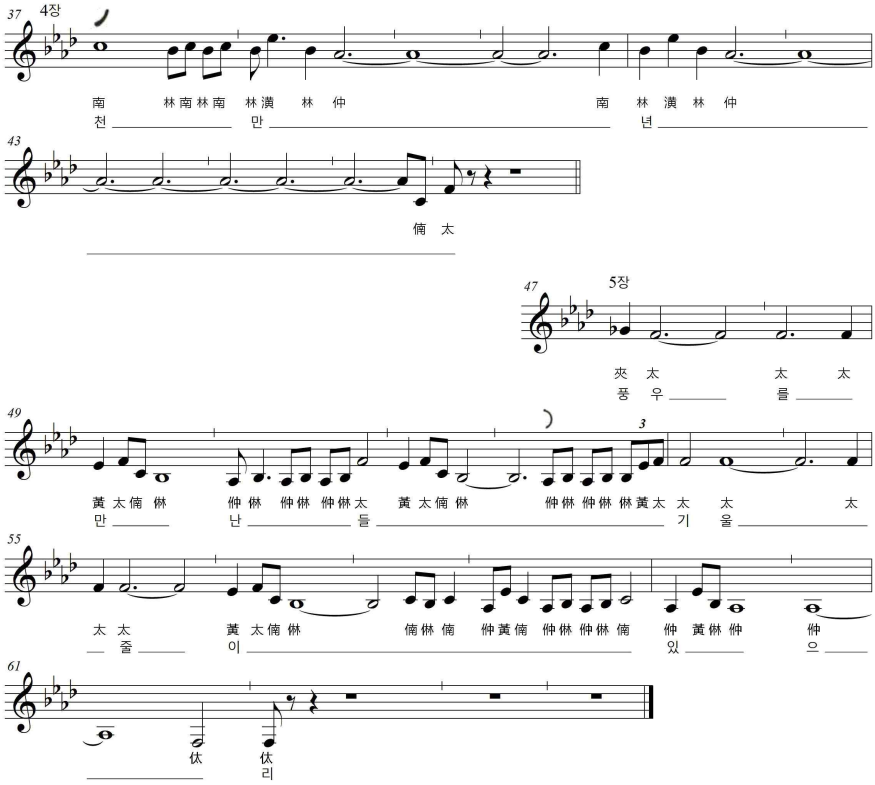
남창 우조 이수대엽5<주공도 성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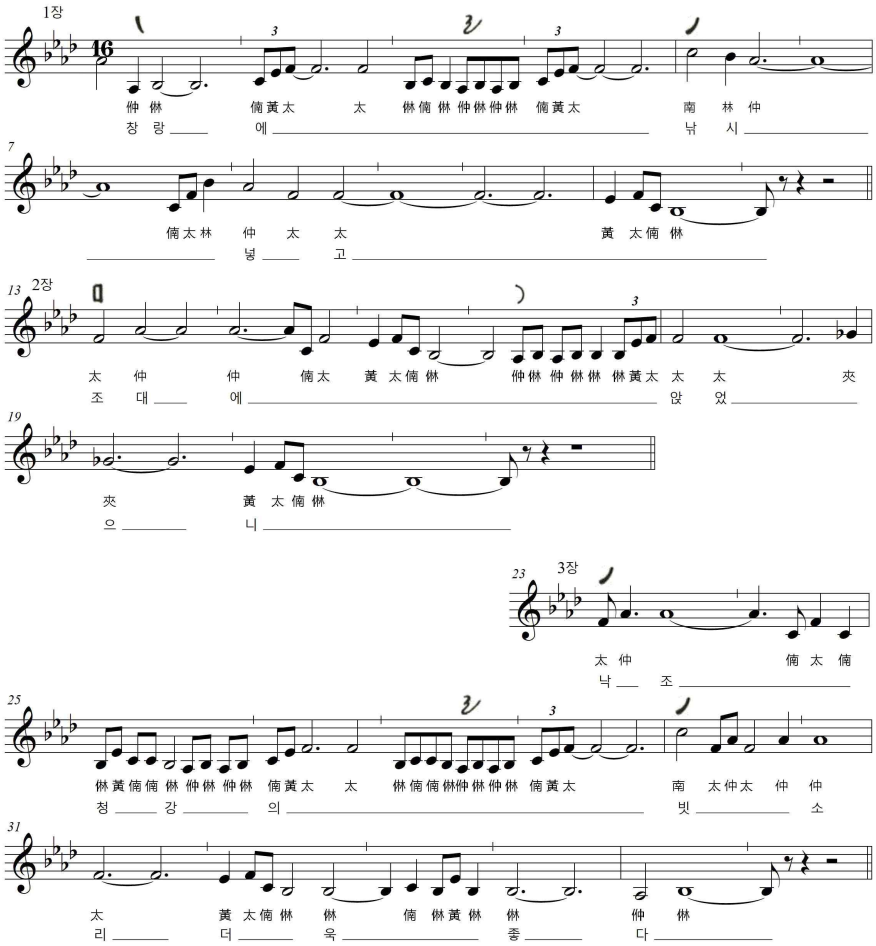

4장
5장
南 林南 林南 林潢 林 仲 南 林潢 林 仲 仲 仲
평 생 애
仲 太
太 仲 仲 太
일 호
黃 太倫 倧 倧 仲 倧 仲 倧 太 黃 太倫 倧 仲倧 仲倧 倧 倧黃 太 太 夾
교 기 를 내 어
太 黃 太倫 倧 倫 倧倫 倫 仲黃倫 仲倧 仲倧 倫 仲黃 倧 仲 仲 仲
본 일 없 세
仗 仗
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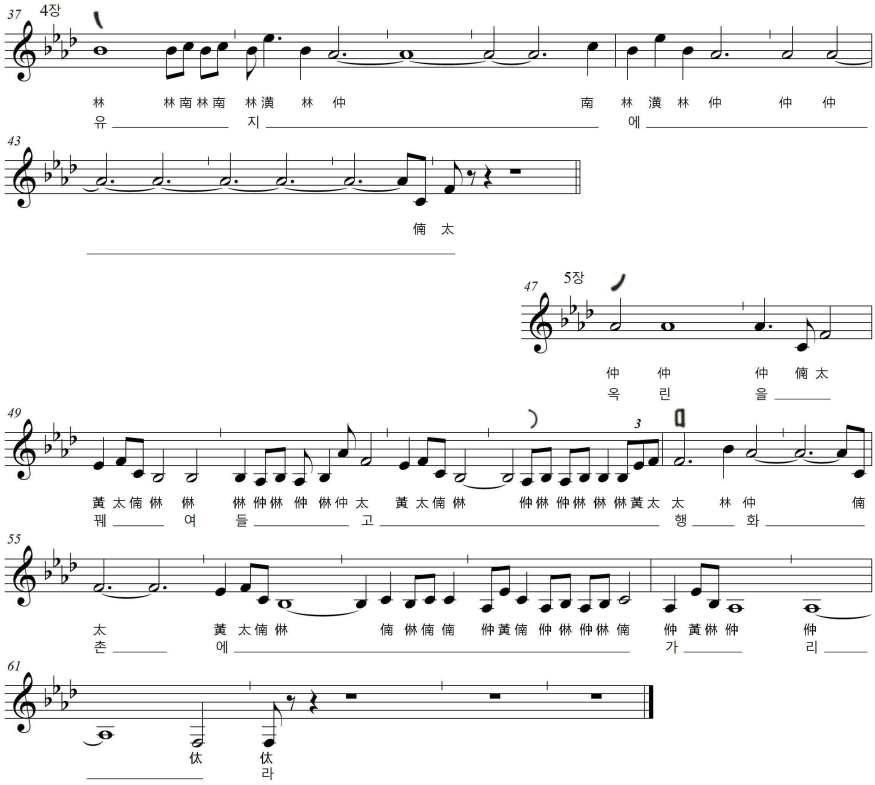
남창 우조 중거1<인심은 터이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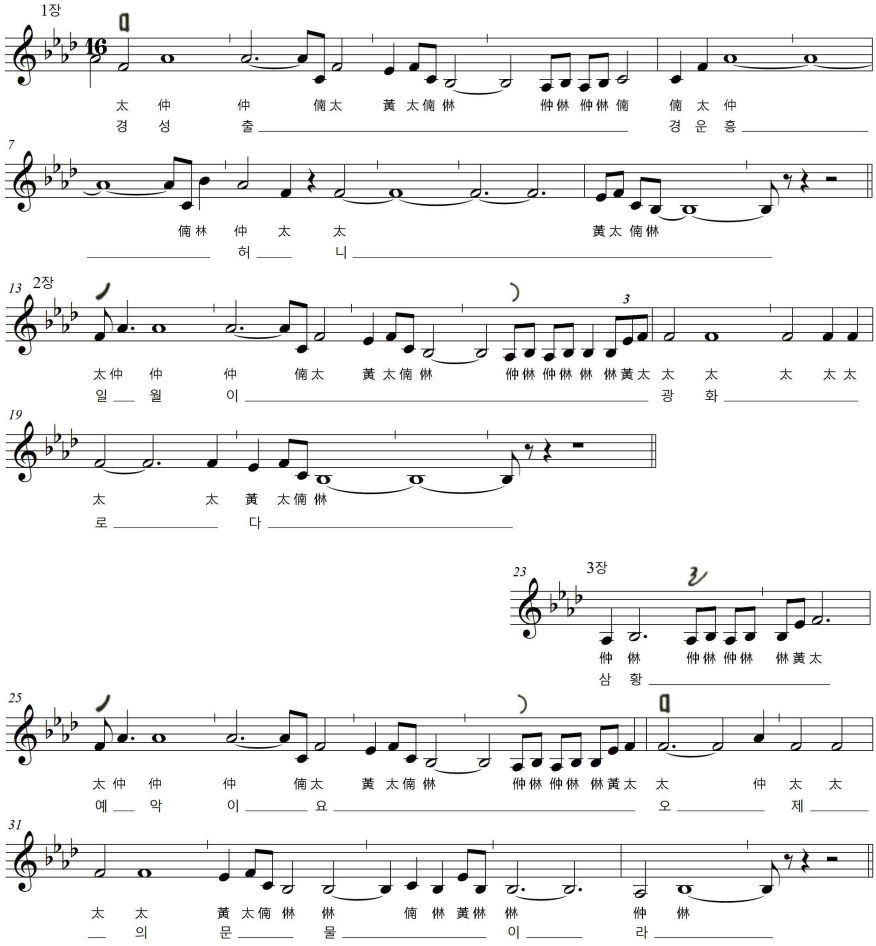

37
4장
南 林南林南 林潰 林 仲 南 林 潰 林 仲
천 만 년
43
倘 太
47
5장
夾 太 太 太
풍 우 를
49
黃太倘 楙 仲楙 仲楙 仲楙太 黃太倘楙 仲楙仲楙楙黃太 太 太 太
만 난 들 기 울
55
太 太 黃 太倘楙 倘楙倘 仲黃倘 仲楙仲楙倘 仲 黃楙仲 仲
줄 이 있 으
61
仗 仗
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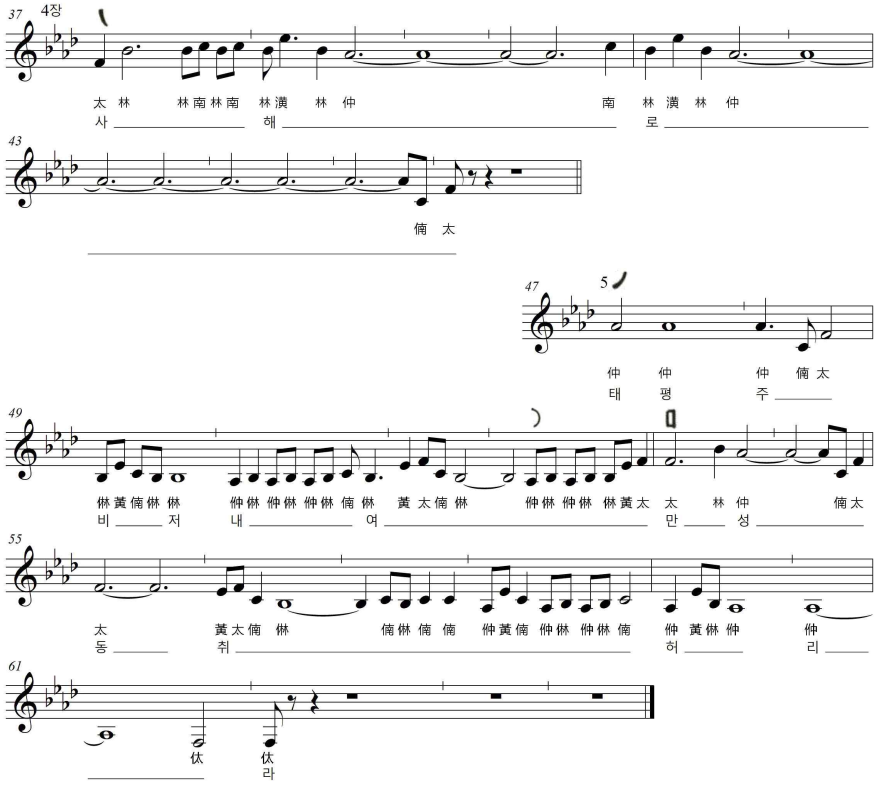
남창 우조 중거4<창랑에 낚시넣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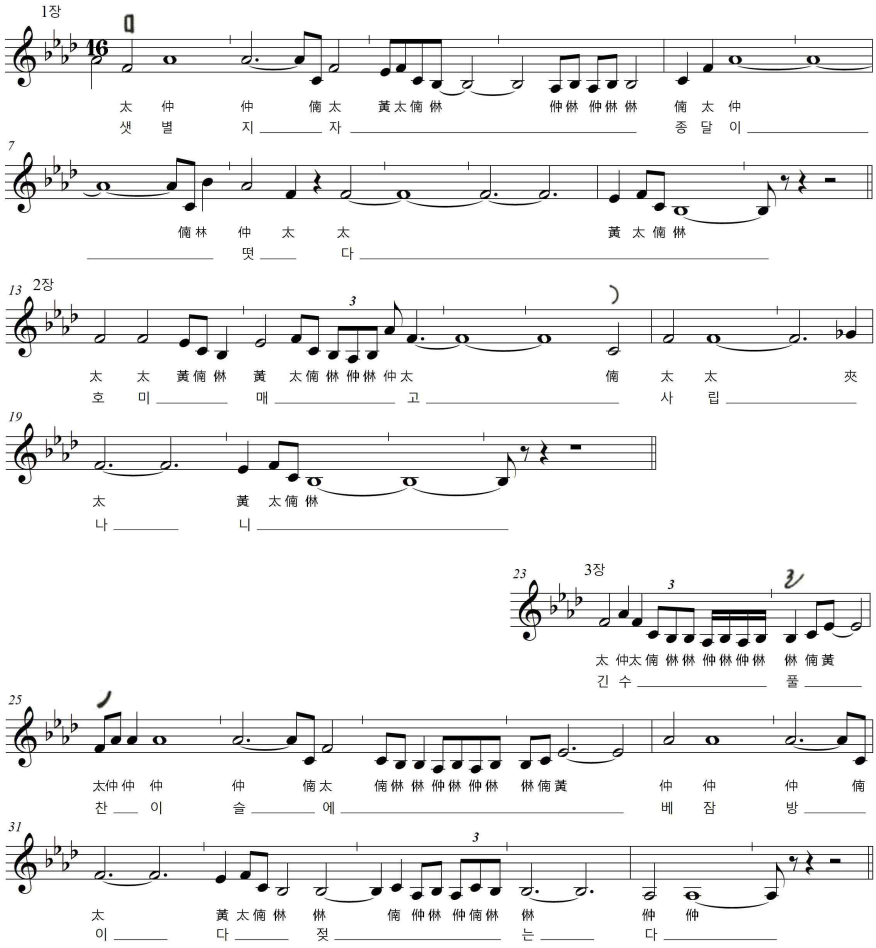

37
4장
林 林南林南 林潢 林 仲 南 林 潢 林 仲 仲 仲
유 지 에
43
倘 太
47
5장
仲 仲 仲 倘 太
옥 린 을
49
3
黃太倘 倧 倧 倧仲倧 仲 倧仲太 黃太倘 倧 仲倧 仲倧 倧 倧黃太 太 林仲 倘
꿰 여 들 고 행 화
55
太 黃太倘 倧 倘 倧倘 倘 仲黃倘 仲 倧 仲倧 倘 仲 黃倧 仲 仲
촌 에 가 리
61
仗 仗
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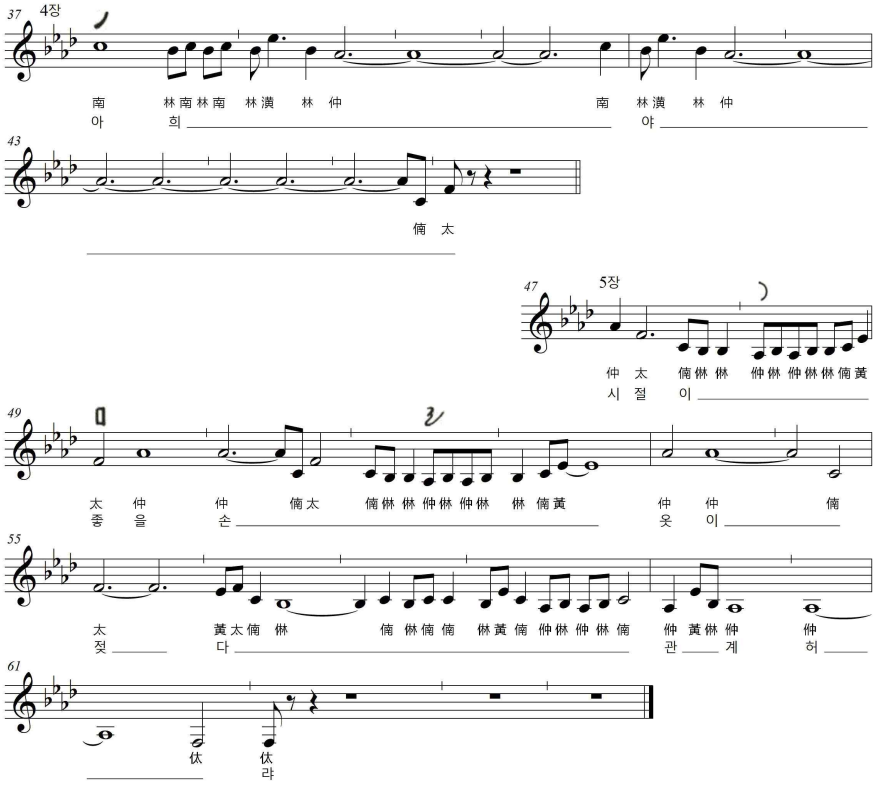
남창 우조 평거3<경성출 경운흥허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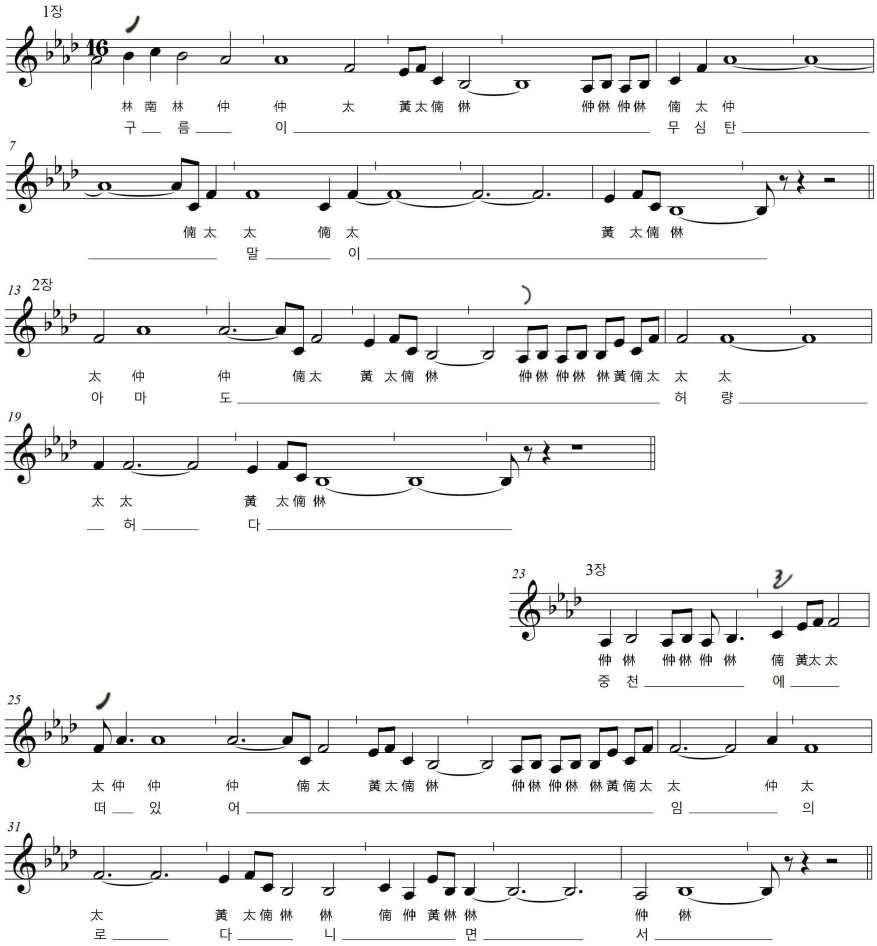

37
4장
太 林 林南林南 林潰 林 仲 南 林 潰 林 仲
사 해 로
43
倘 太
47
5
仲 仲 仲 倘太
태 평 주
49
㑹黃倘㑹㑹 仲㑹 仲㑹 仲㑹 倘㑹 黃 太倘㑹 仲㑹 仲㑹 㑹黃太 太 林 仲 倘太
비 저 내 여 만 성
55
太 黃太倘 㑹 倘㑹倘 倘 仲黃倘 仲㑹 仲㑹 倘 仲 黃㑹 仲 仲
동 취 허 리
61
仗 仗
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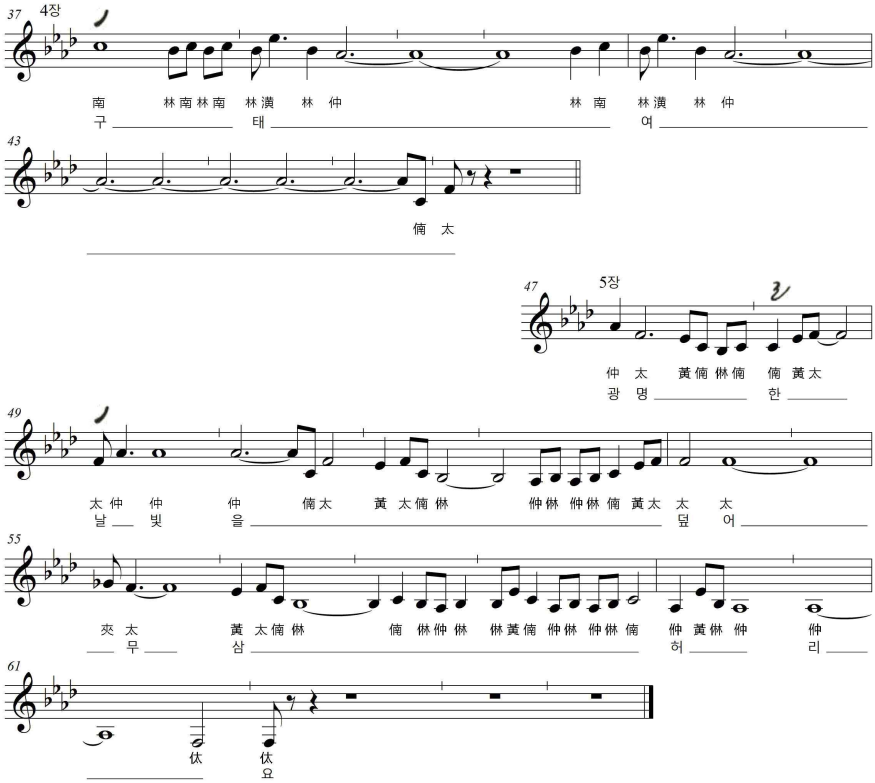
남창 우조 평거10<샛별지자 종달이떳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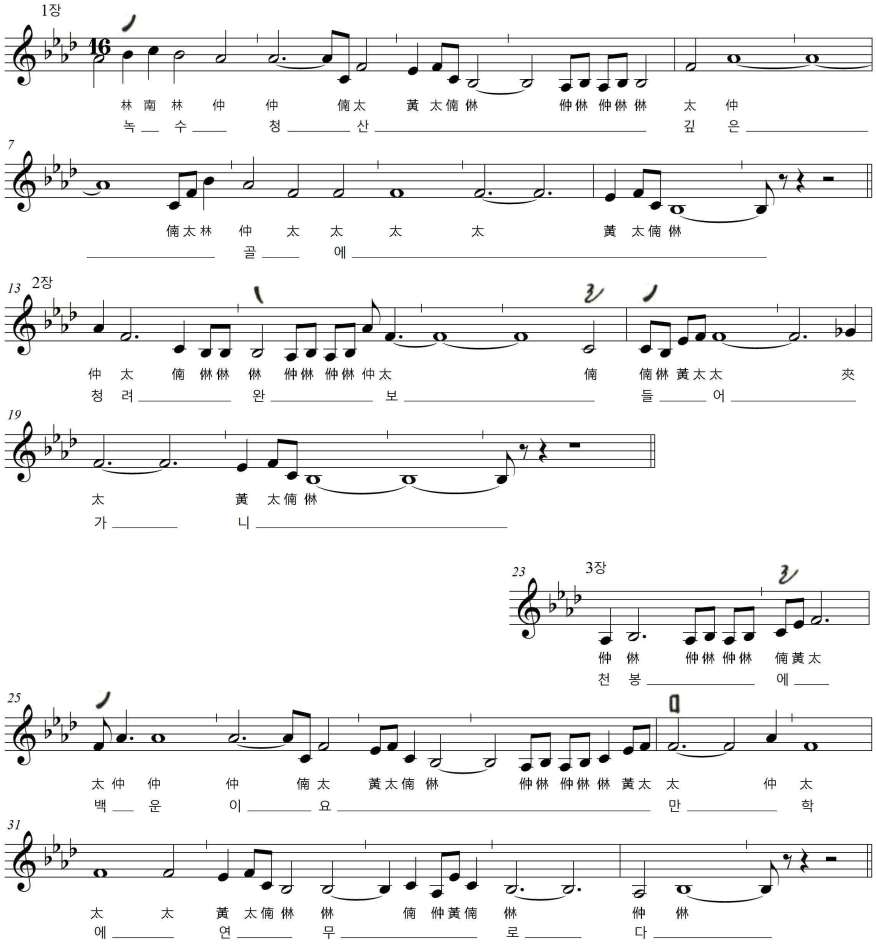

37
4장
南 林南林南 林潢 林 仲 南 林潢 林 仲
아 희 야
43
倩 太
47
5장
仲 太 倩㚸 㚸 仲㚸 仲㚸 倩黃
시 절 이
49
太 仲 仲 倩太 倩㚸 㚸 仲㚸 仲㚸 㚸 倩黃 仲 仲 倩
좋 을 손 옷 이
55
太 黃太倩 㚸 倩 㚸倩倩 倩 㚸黃倩 仲㚸 仲 㚸 倩 仲 黃㚸 仲 仲
젖 다 관 계 허
61
仗 仗
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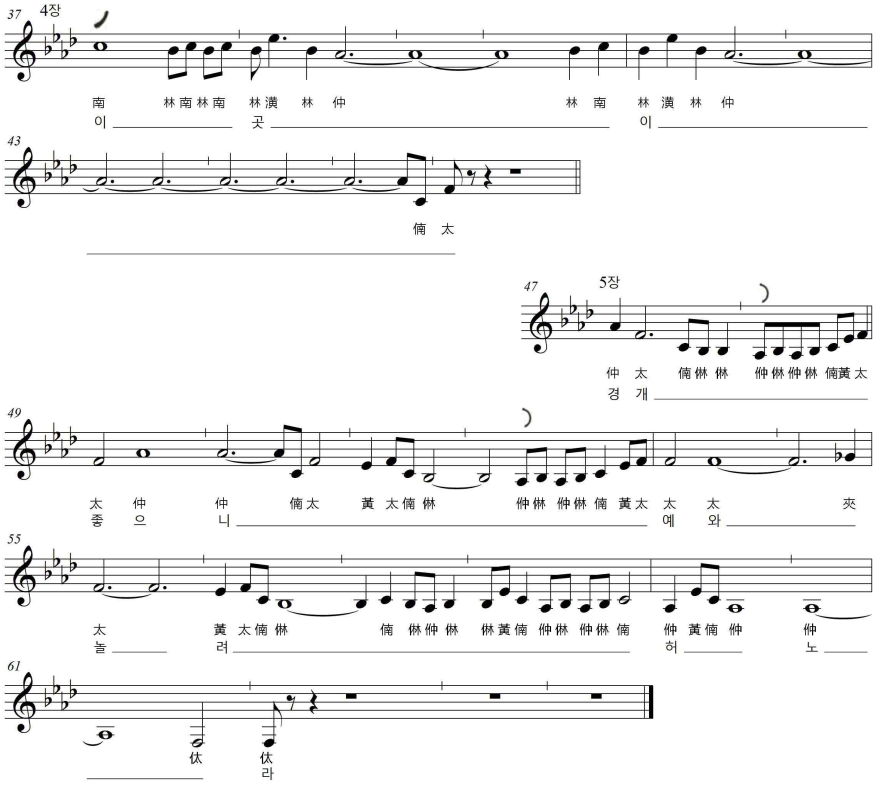
남창 우조 두거1<구름이 무심탄말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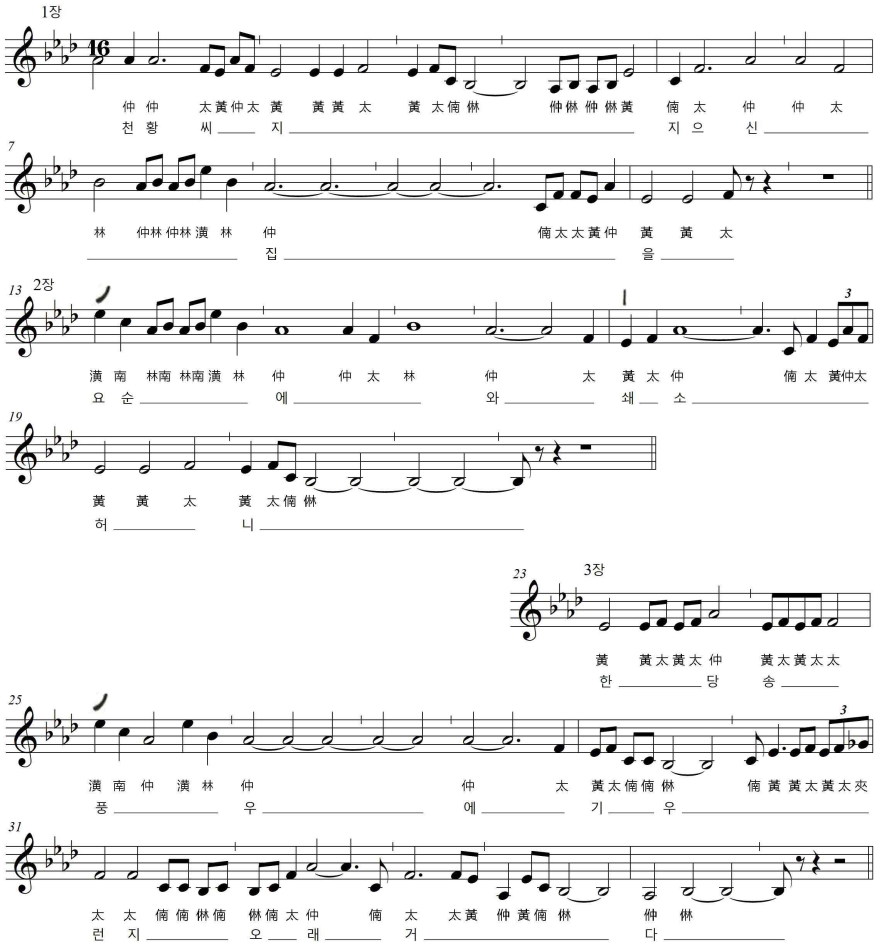

4장
南 林南林南 林潢 林 仲 林 南 林潢 林 仲
구 태 여
倚 太
5장
仲 太 黃倚 林倚 倚 黃太
광 명 한
太仲 仲 仲 倚太 黃 太倚 林 仲林 仲林倚 黃太 太 太
날 빛 을 뒬 어
夾 太 黃 太倚 林 倚 林仲 林 林黃倚 仲林 仲林倚 仲 黃林 仲 仲
무 삼 허 리
仗 仗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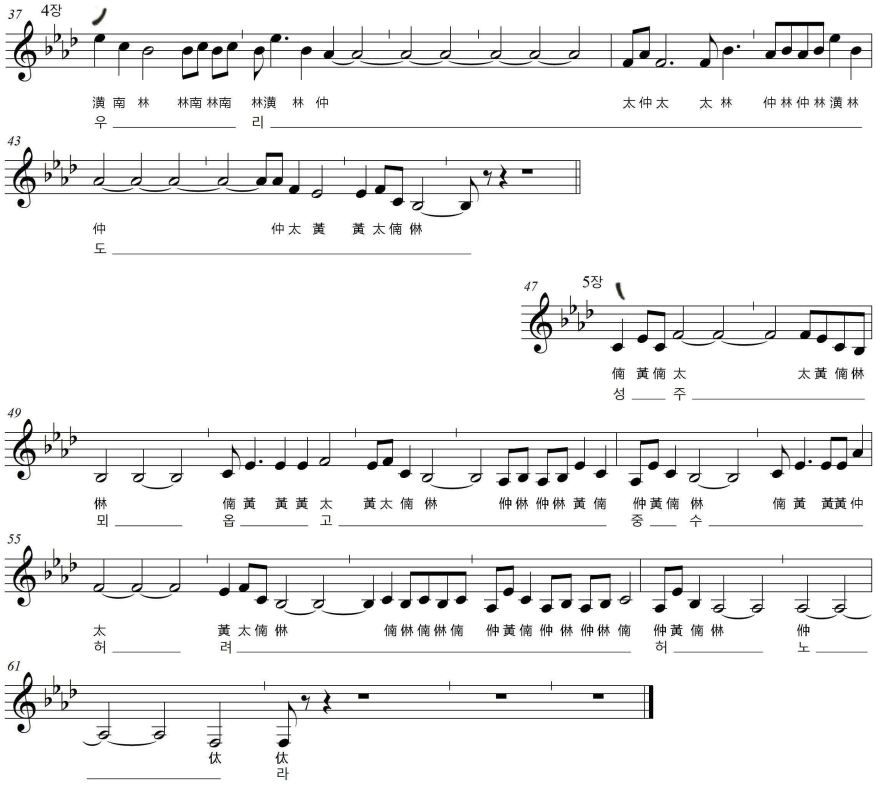
남창 우조 두거14<녹수청산 깊은골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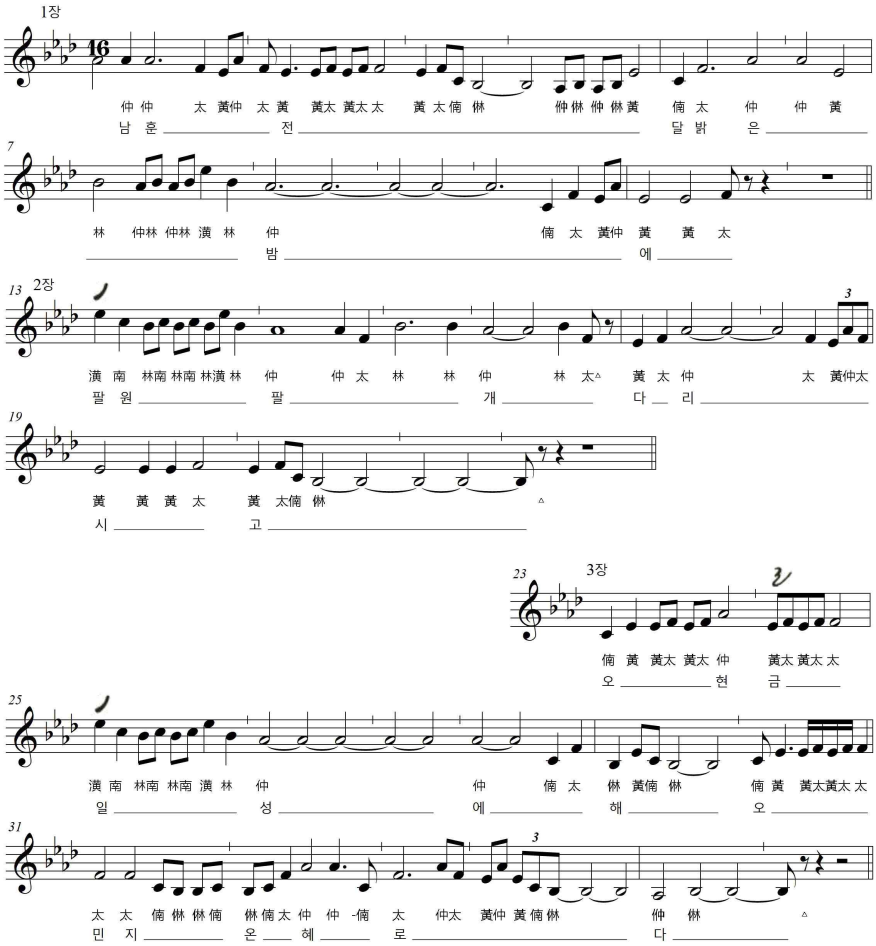

37
4장
南 林南林南 林潢 林 仲 林 南 林 潢 林 仲
이 곳 이
43
倘 太
47
5장
仲 太 倘㑹 㑹 仲㑹仲㑹 倘黃太
경 개
49
太 仲 仲 倘太 黃 太倘 㑹 仲㑹 仲㑹倘 黃太 太 太 夾
좋 으 니 예 와
55
太 黃 太倘 㑹 倘 㑹仲 㑹 㑹黃倘 仲㑹 仲㑹 倘 仲 黃倘 仲 仲
놀 려 허 노
61
仗 仗
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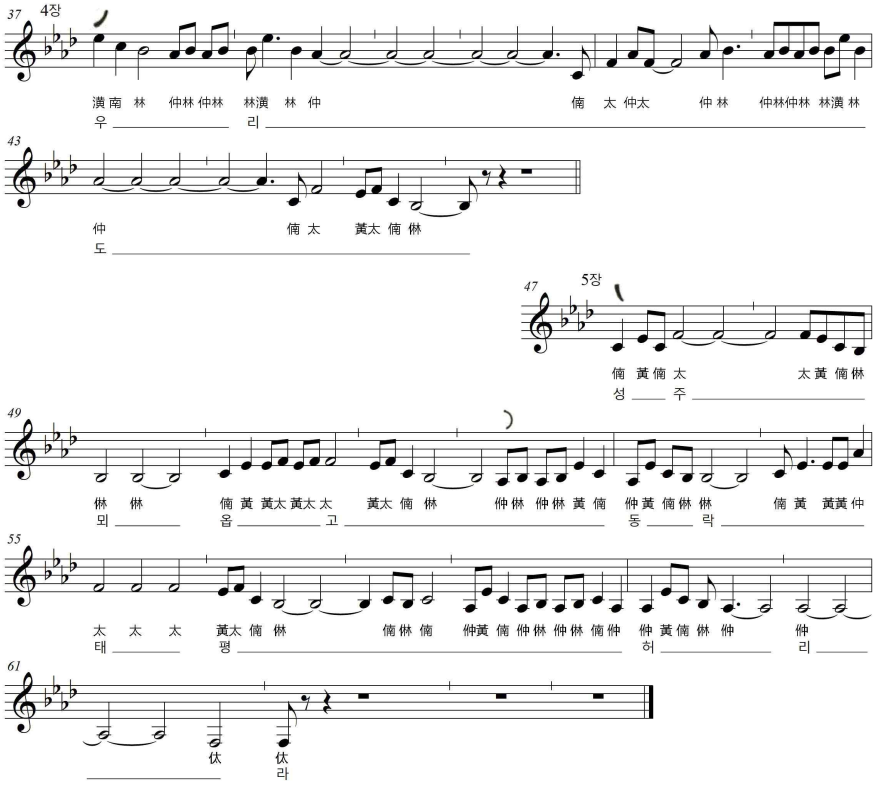
남창 우조 초수대엽1<천황씨 지으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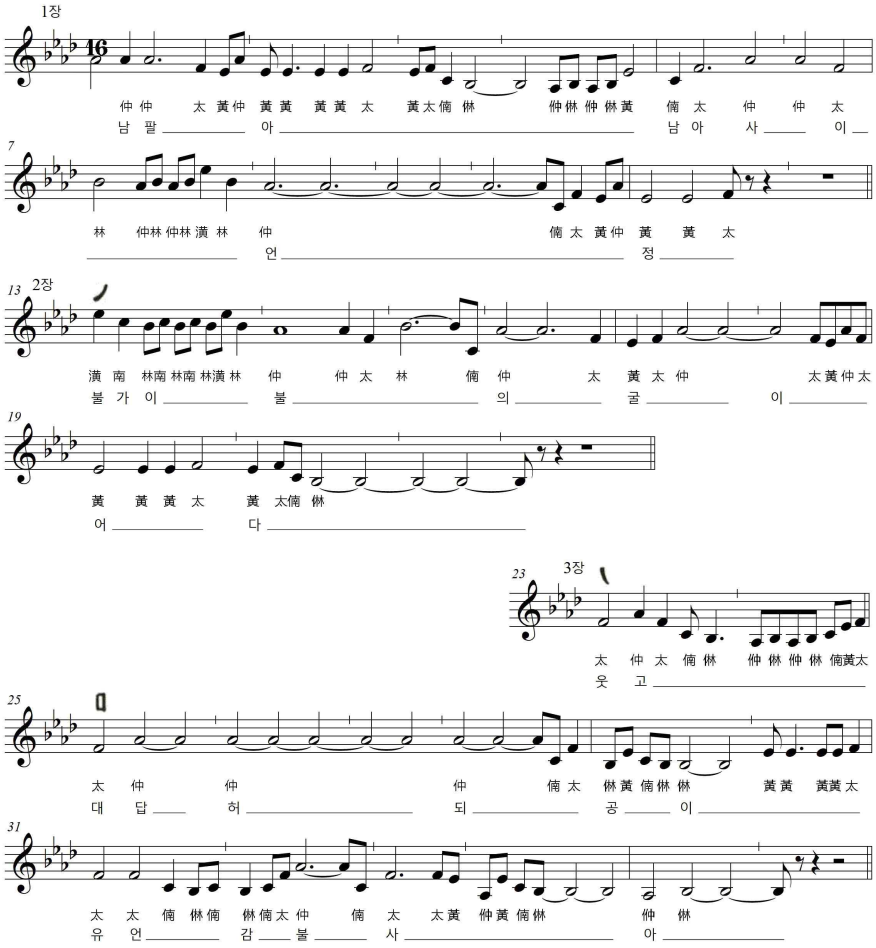

37
4장
潢 南 林 林南 林南 林潢 林 仲 太 仲 太 太 林 仲 林 仲 林 潢 林
우 리
43
仲 仲 太 黃 黃 太 倘 楙
도
47
5장
倘 黃 倘 太 太 黃 倘 楙
성 주
49
楙 倘 黃 黃 黃 太 黃 太 倘 楙 仲 楙 仲 楙 黃 倘 仲 黃 倘 楙 倘 黃 黃 黃 仲
뫼 읍 고 중 수
55
太 黃 太 倘 楙 倘 楙 倘 楙 倘 仲 黃 倘 仲 楙 仲 楙 倘 仲 黃 倘 楙 仲
허 려 허 노
61
仗 仗
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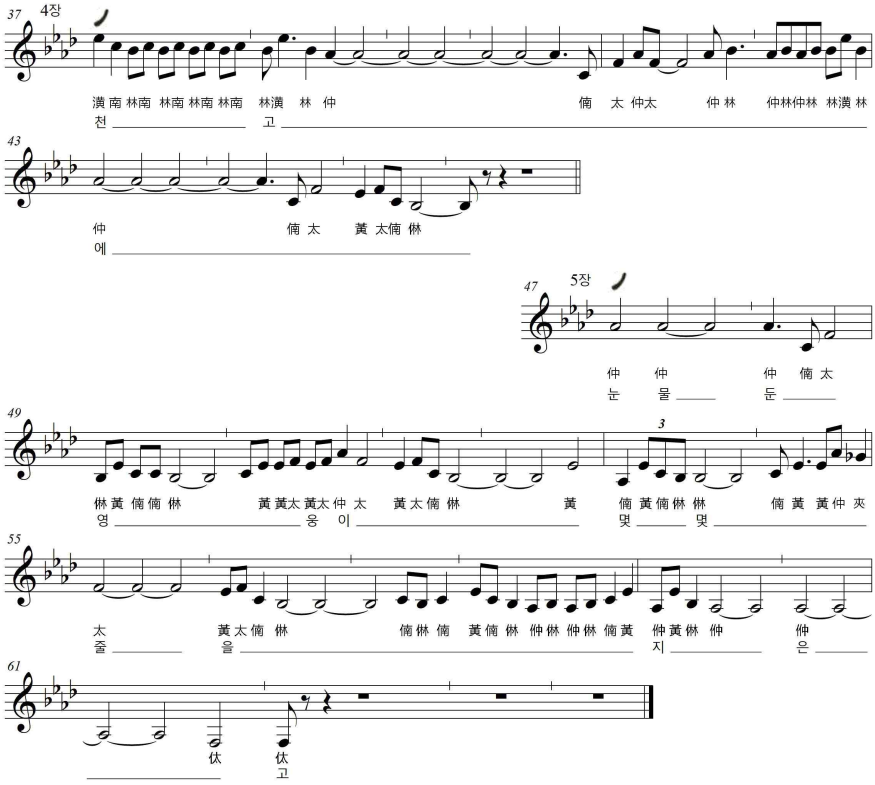
남창 우조 초수대엽2<남훈전 달밝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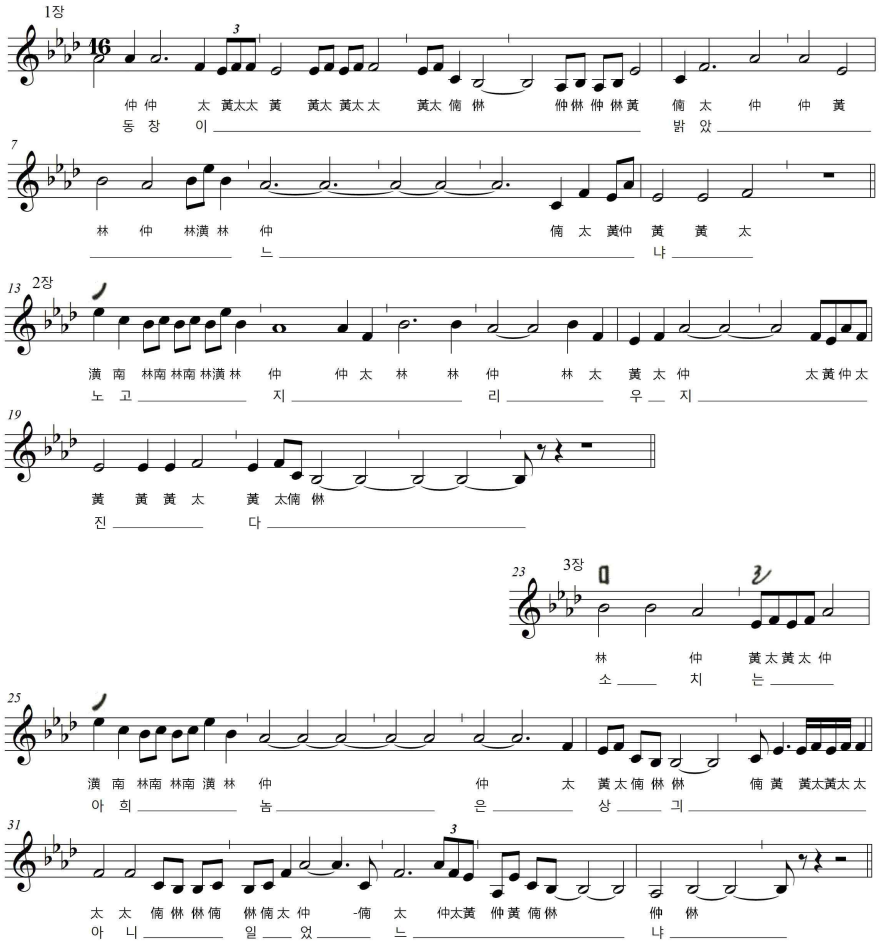

37
4장
潢南 林 仲林仲林 林潢 林 仲 倘 太仲太 仲林 仲林仲林 林潢 林
우 리
43
仲 倘 太 黃太 倘 楙
도
47
5장
倘 黃倘 太 太黃 倘楙
성 주
49
楙 楙 倘 黃 黃太黃太太 黃太 倘 楙 仲楙 仲楙 黃 倘 仲黃 倘楙 楙 倘 黃 黃黃仲
뫼 옵 고 동 락
55
太 太 太 黃太 倘 楙 倘楙 倘 仲黃 倘 仲楙 仲楙 倘仲 仲 黃倘 楙 仲 仲
태 평 허 리
61
仗 仗
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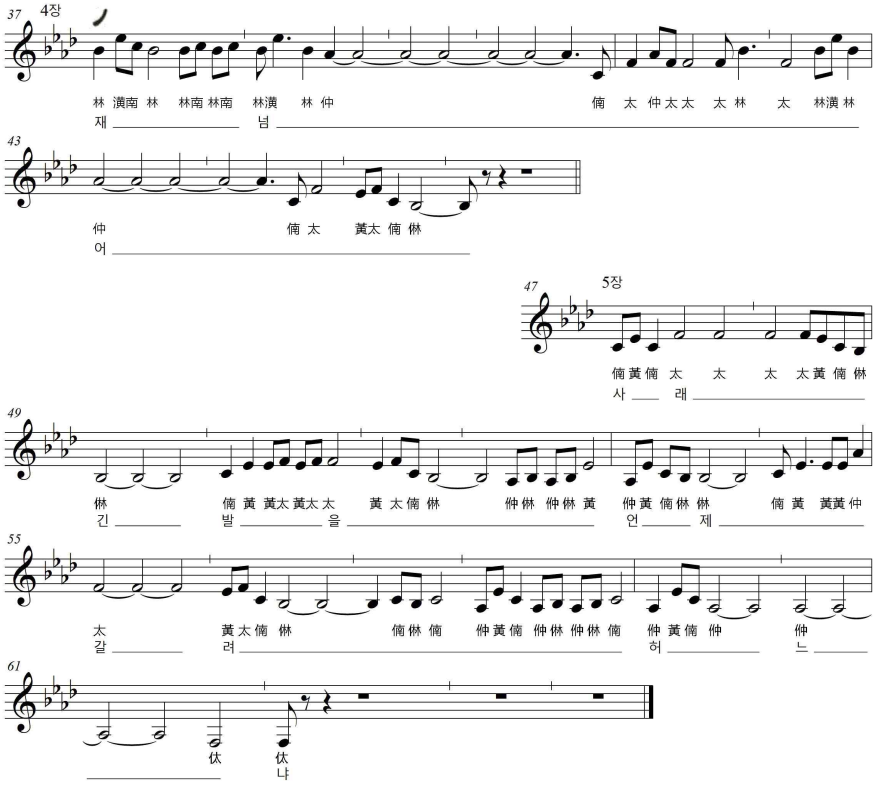
남창 우조 초수대엽3<남팔아 남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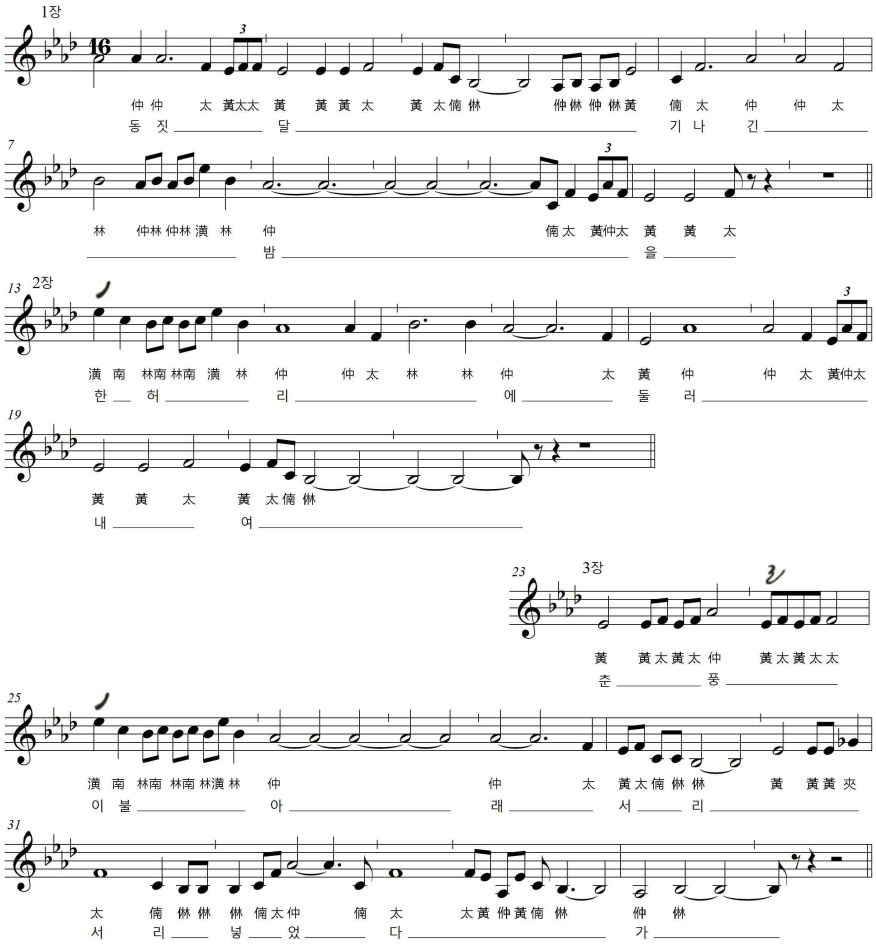

37
4장
潢 南 林南 林南 林南 林南 林潢 林 仲 倘 太 仲太 仲 林 仲林仲林 林潢 林
천 고
43
仲 倘 太 黃 太倘 楙
에
47
5장
仲 仲 仲 倘 太
눈 물 둔
49
楙 黃 倘 倘 楙 黃 黃太 黃太 仲 太 黃 太 倘 楙 黃 倘 黃 倘 楙 楙 倘 黃 黃 仲 夾
영 웅 이 몇 몇
55
太 黃 太 倘 楙 倘 楙 倘 黃 倘 楙 仲 楙 仲 楙 倘 黃 仲 黃 楙 仲 仲
줄 을 지 은
61
伏 伏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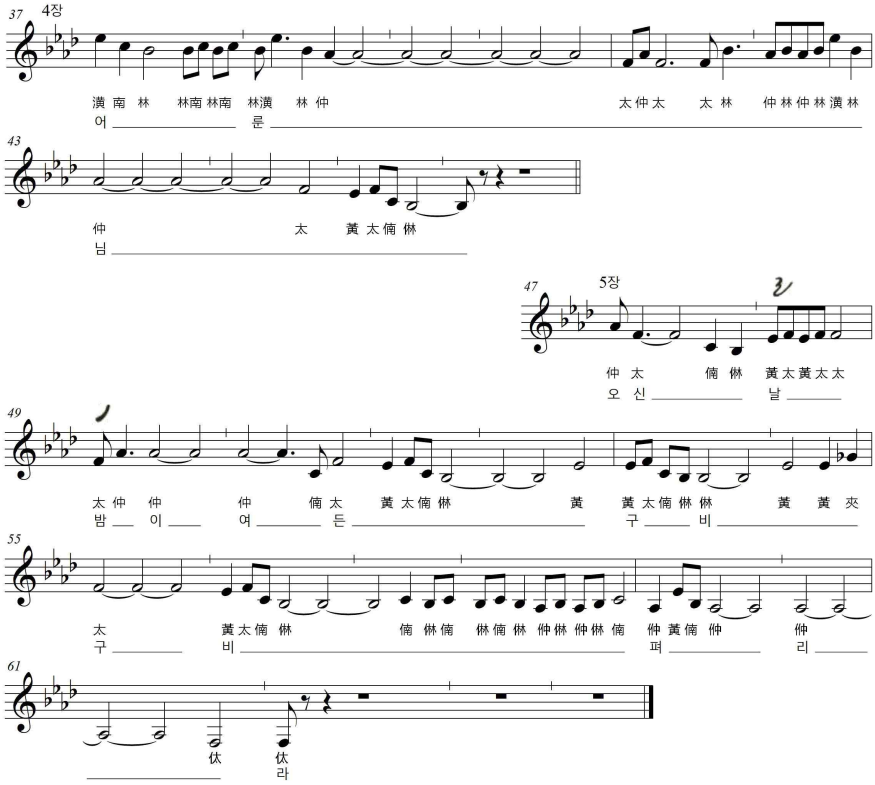
남창 우조 초수대엽4 <동창이 밝았느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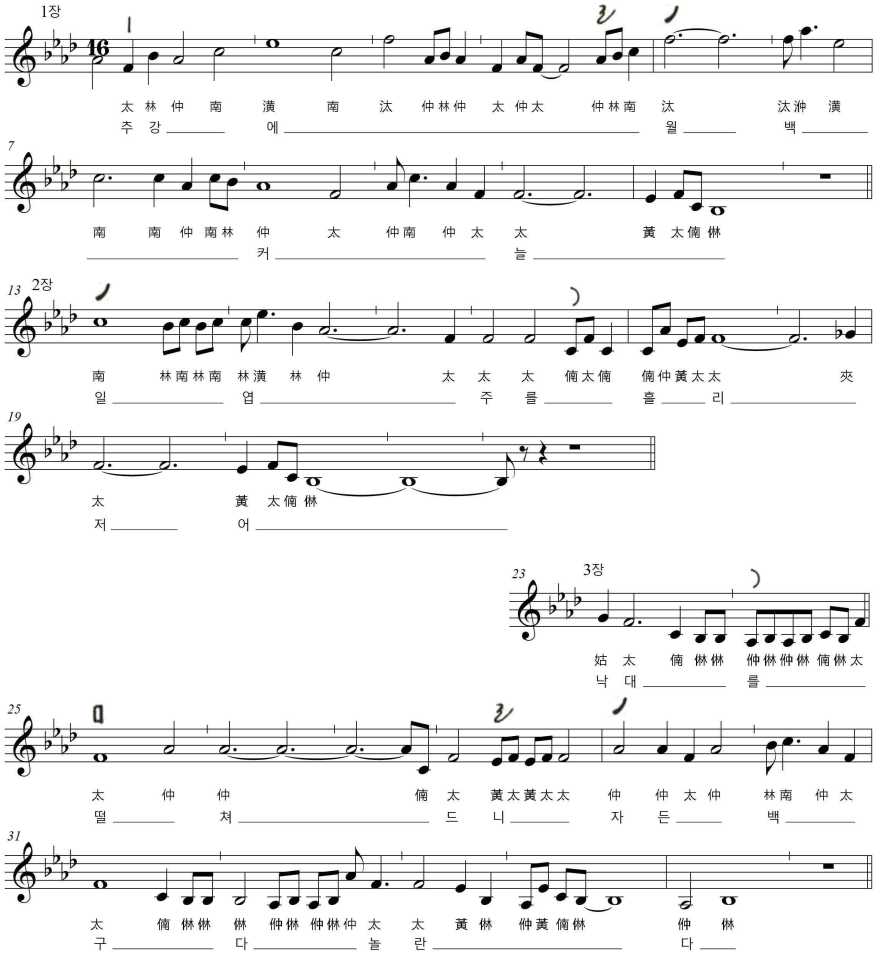

37
4장
林 潢南 林 林南 林南 林潢 林 仲 倘 太 仲太太 太林 太 林潢林
재 넘
43
仲 倘 太 黃太 倘 楙
어
47
5장
倘黃倘 太 太 太 太黃倘 楙
사 래
49
楙 倘 黃 黃太黃太太 黃 太倘 楙 仲楙 仲楙 黃 仲黃 倘楙 楙 倘 黃 黃黃仲
긴 발 을 언 제
55
太 黃太倘 楙 倘楙 倘 仲黃倘 仲楙 仲楙 倘 仲 黃倘 仲 仲
갈 려 허 느
61
仗 仗
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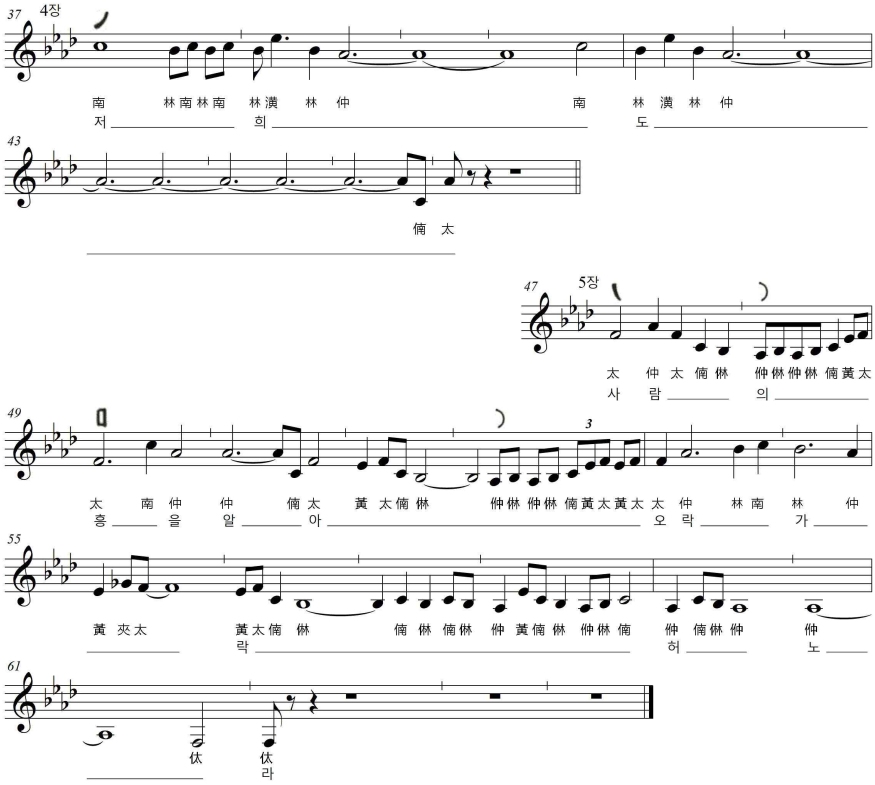
남창 우조 초수대엽7<동짓달 기나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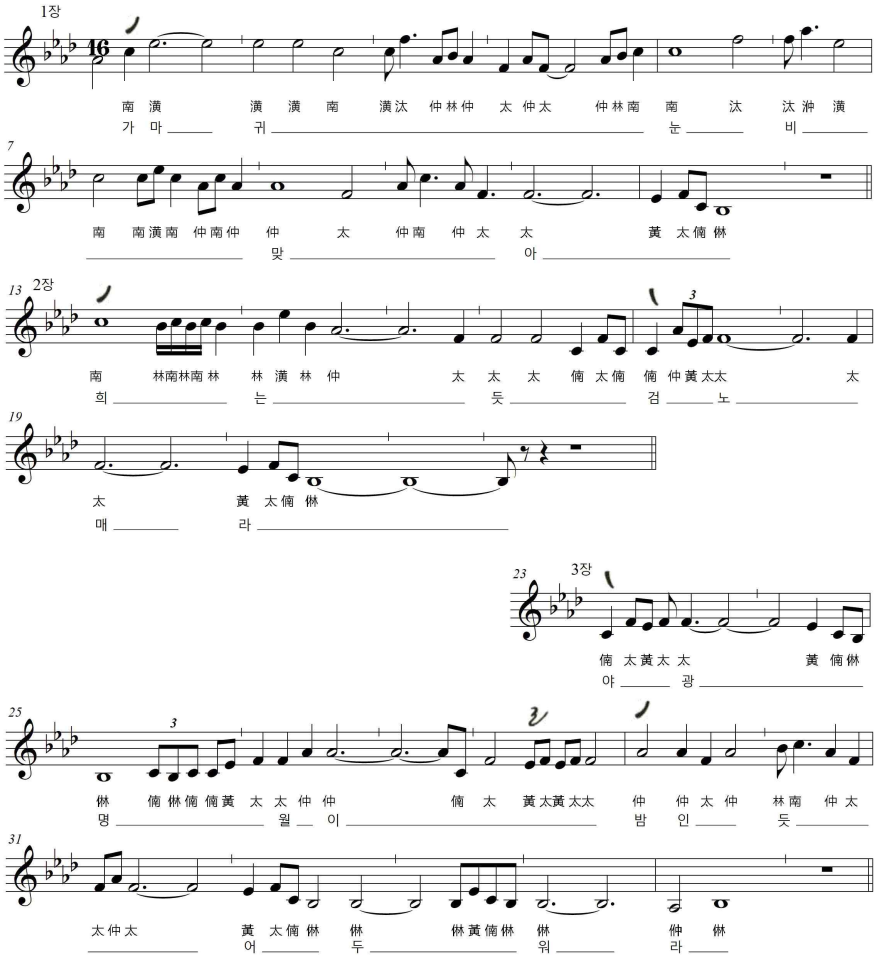

37
4장
潢 南 林 林南 林南 林潢 林 仲 太 仲 太 太 林 仲 林 仲 林 潢 林
어 룬
43
仲 太 黃 太 倆 楙
님
47
5장
仲 太 倆 楙 黃 太 黃 太 太
오 신 날
49
太 仲 仲 仲 倆 太 黃 太 倆 楙 黃 黃 太 倆 楙 楙 黃 黃 夾
밤 이 여 든 구 비
55
太 黃 太 倆 楙 倆 楙 倆 楙 倆 楙 仲 楙 仲 楙 倆 仲 黃 倆 仲 仲
구 비 펴 리
61
仗 仗
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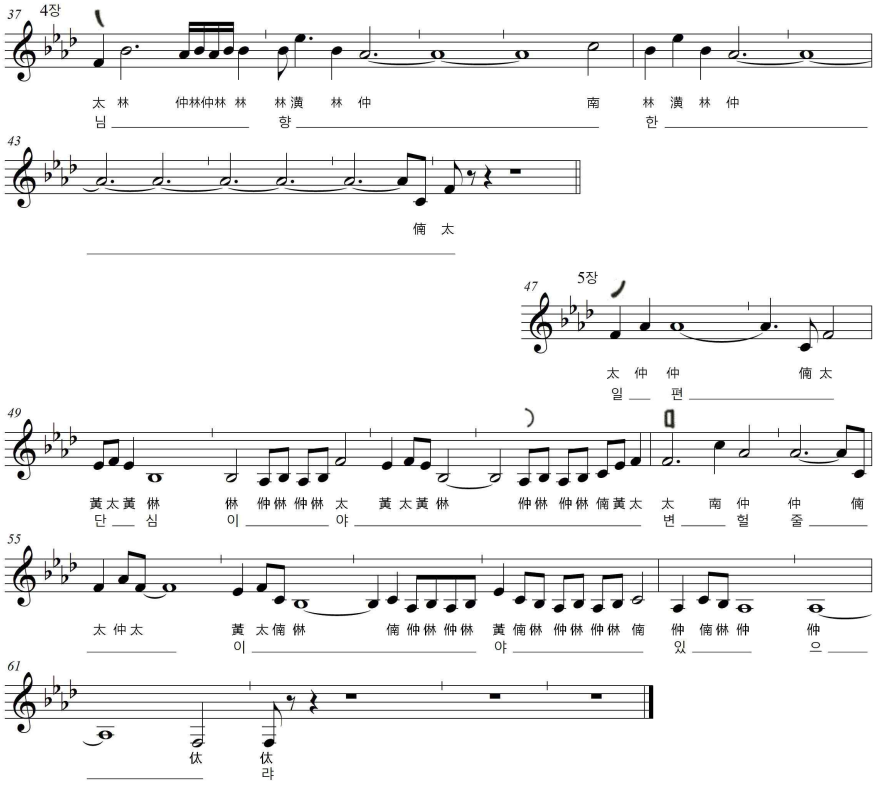
남창 우조 삼수대엽1<추강에 월백커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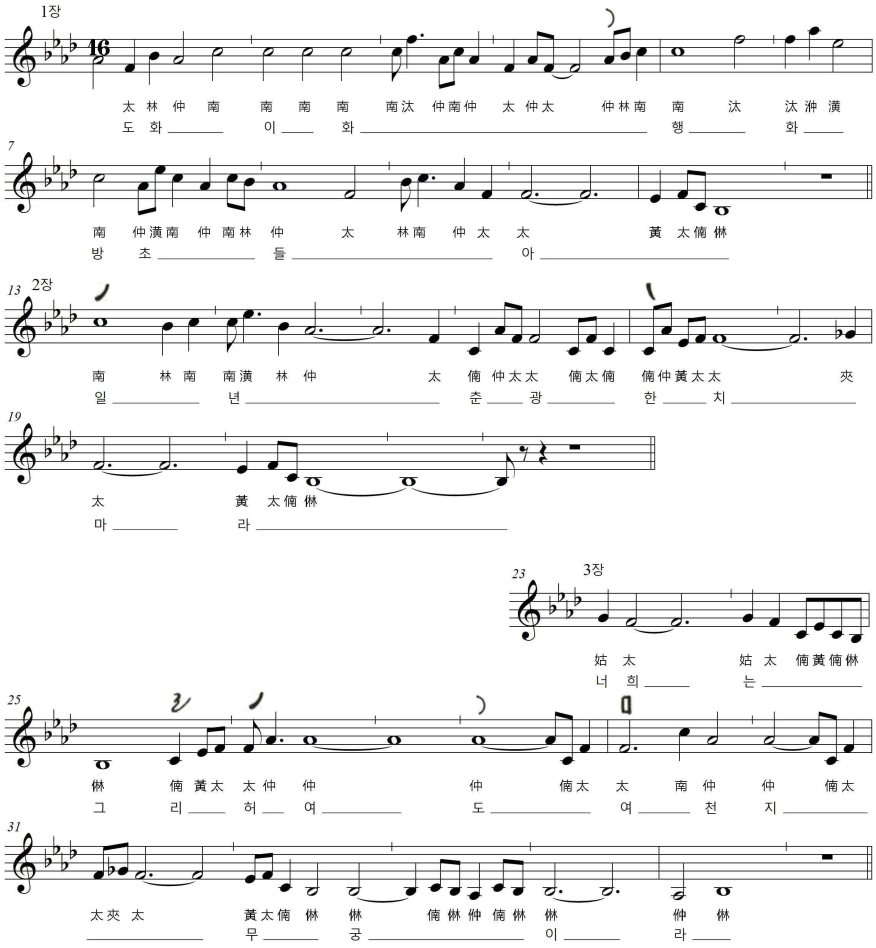

37
4장
南 林南林南 林潢 林 仲 南 林 潢 林 仲
저 희 도
43
倘 太
47
5장
太 仲 太 倘 倧 仲倧仲倧 倘黃太
사 람 의
49
太 南 仲 仲 倘太 黃 太倘倧 仲倧 仲倧 倘黃太黃太 太 仲 林南 林 仲
흥 을 알 아 오 락 가
55
黃 夾太 黃太倘 倧 倘 倧 倘倧 仲 黃倘倧 仲倧 倘 仲 倘倧 仲 仲
락 허 노
61
仗 仗
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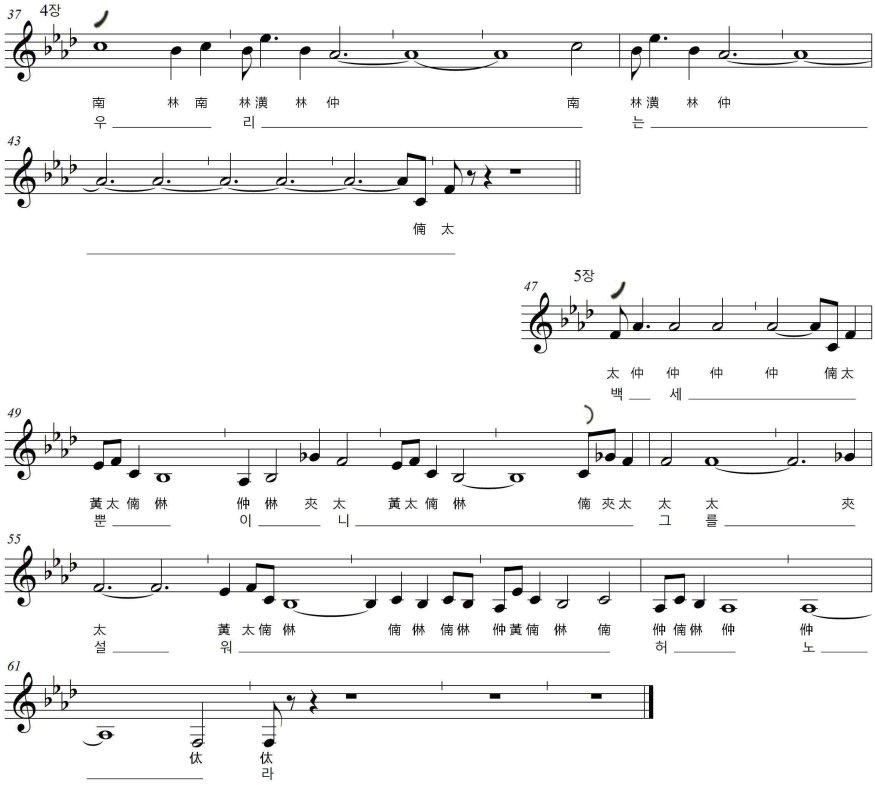
남창 우조 삼수대엽4<가마귀 눈비맞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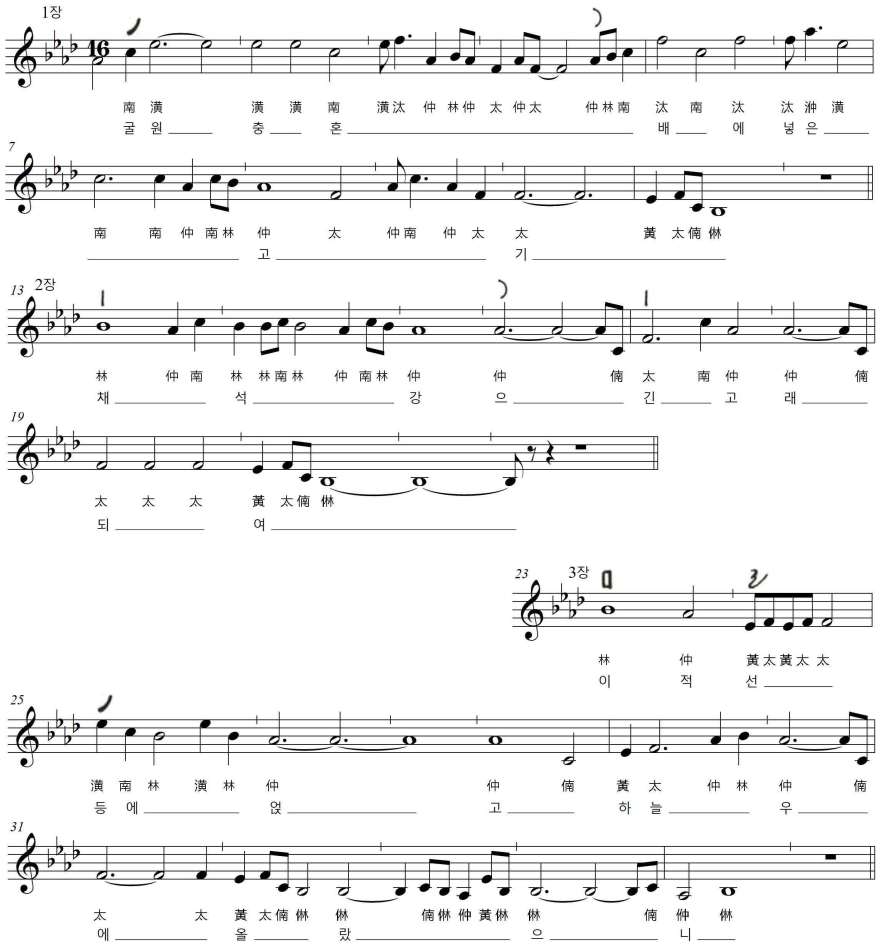

37
4장
太 林 仲林仲林 林 林潢 林 仲 南 林 潢 林 仲
님 향 한
43
倘 太
47
5장
太 仲 仲 倘 太
일 편
49
黃太黃 楙 楙 仲楙 仲楙 太 黃 太黃 楙 仲楙 仲楙 倘黃太 太 南 仲 仲 倘
단 심 이 야 변 헐 줄
55
太 仲太 黃 太倘 楙 倘 仲楙 仲楙 黃 倘楙 仲楙 仲楙 倘 仲 倘楙 仲 仲
이 야 있 으
61
仗 仗
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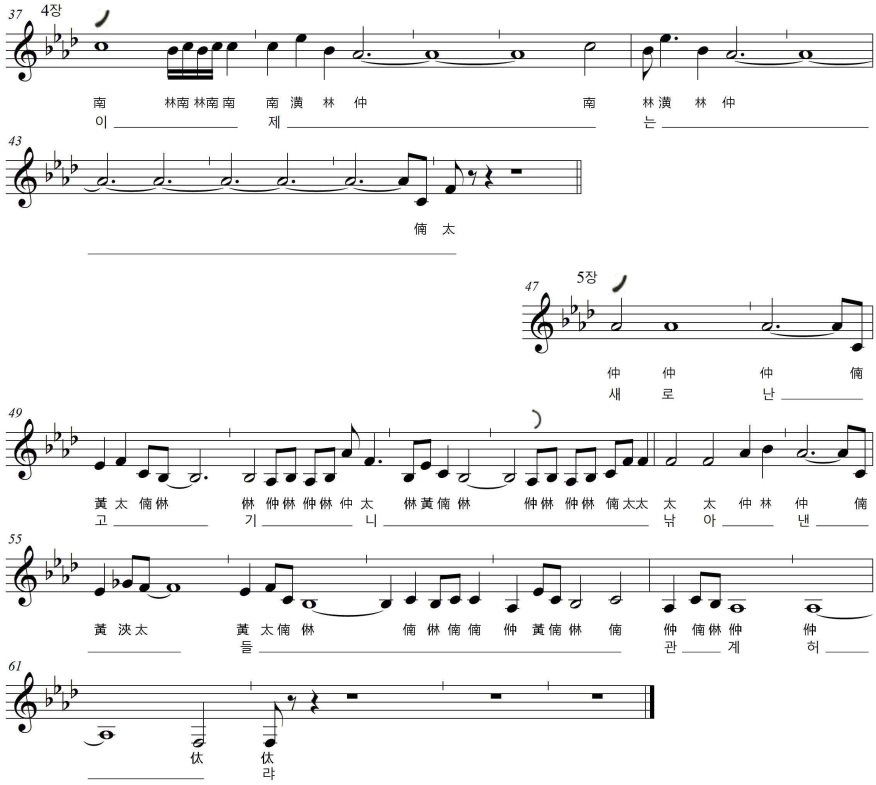
남창 우조 삼수대엽6<도화이화 행화방초들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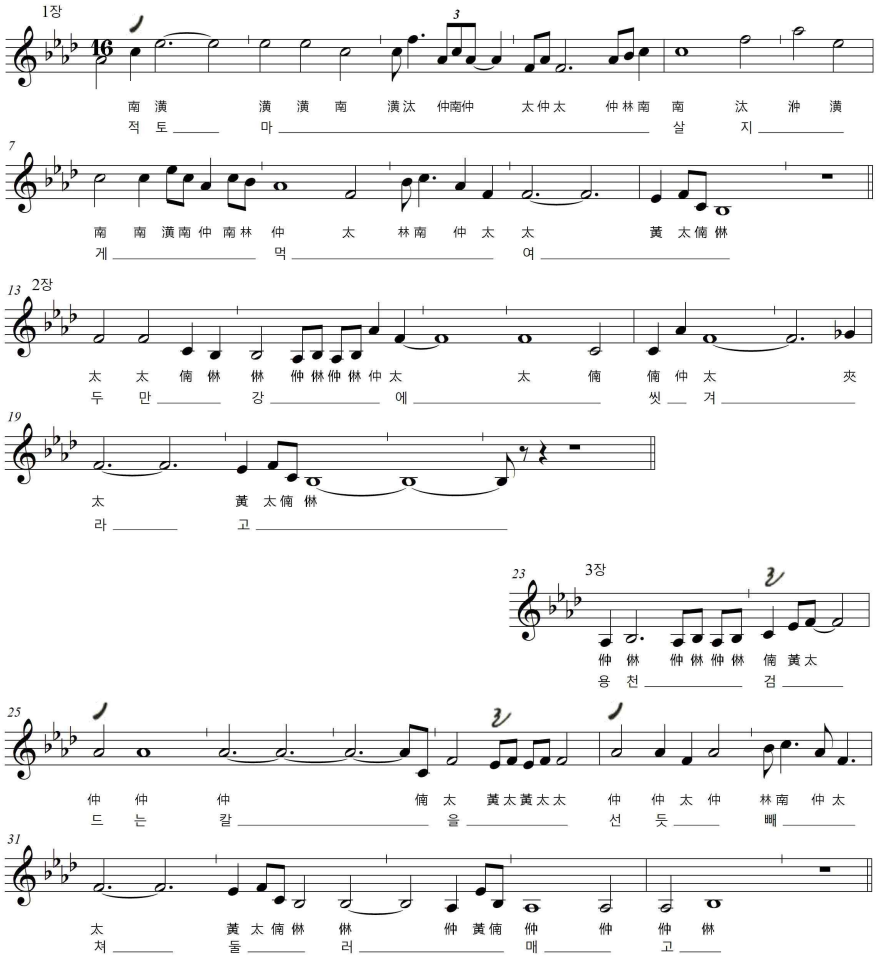

4장
5장
南 林 南 林潰 林 仲 南 林潰 林 仲
우 리 는
倚 太
太 仲 仲 仲 仲 倚太
백 세
黃太倚 林 仲 林 夾 太 黃太倚 林 倚夾太 太 太 夾
뿐 이 니 그 를
太 黃 太倚 林 倚 林 倚林 仲黃倚 林 倚 仲 倚林 仲 仲
설 위 허 노
仗 仗
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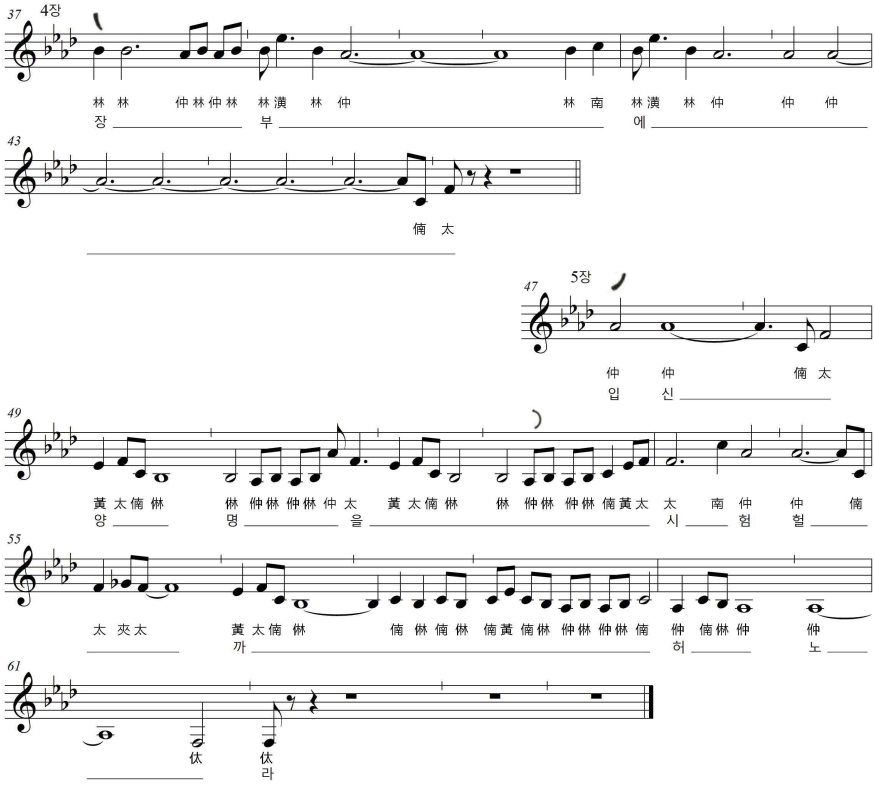
남창 우조 삼수대엽7<굴원충혼 배에넣은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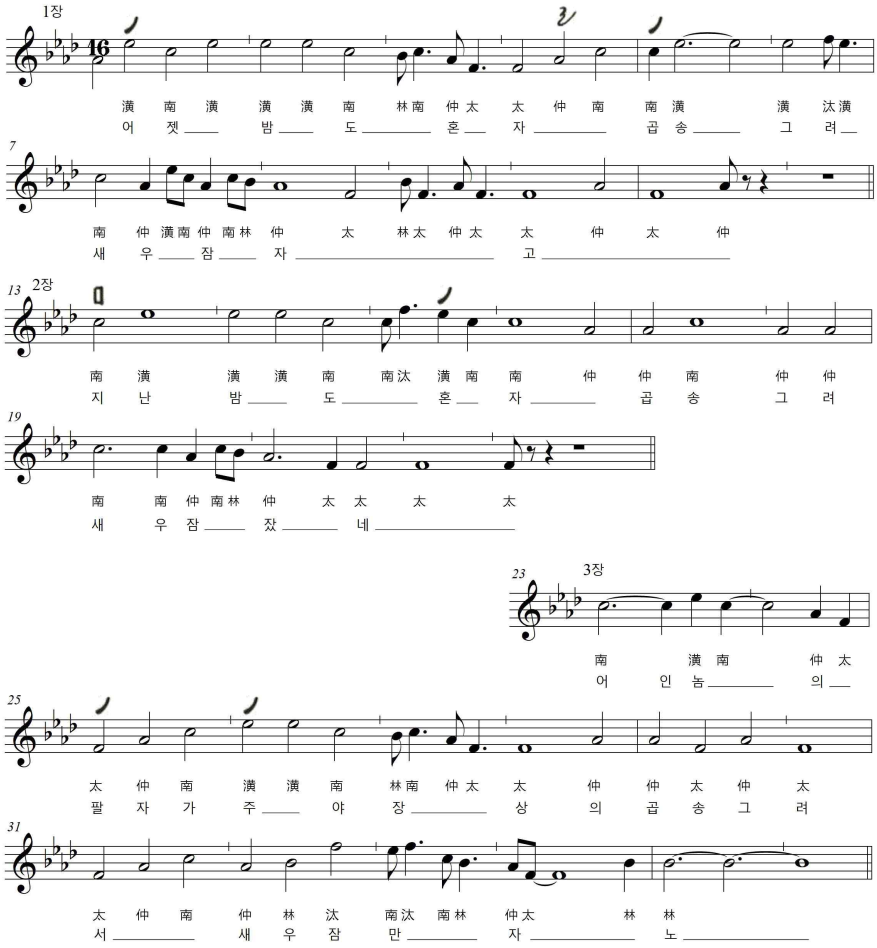

4장
南 林南 林南 南 南 潢 林 仲 南 林 潢 林 仲
이 제 는
倚 太
5장
仲 仲 仲 倚
새 로 난
黃 太 倚 倧 倧 仲 倧 仲 倧 仲 太 倧 黃 倚 倧 仲 倧 仲 倧 倚 太 太 太 太 仲 林 仲 倚
고 기 니 낚 아 낸
黃 浹 太 黃 太 倚 倧 倚 倧 倚 倚 仲 黃 倚 倧 倚 仲 倚 倧 仲 仲
들 관 계 허
仗 仗
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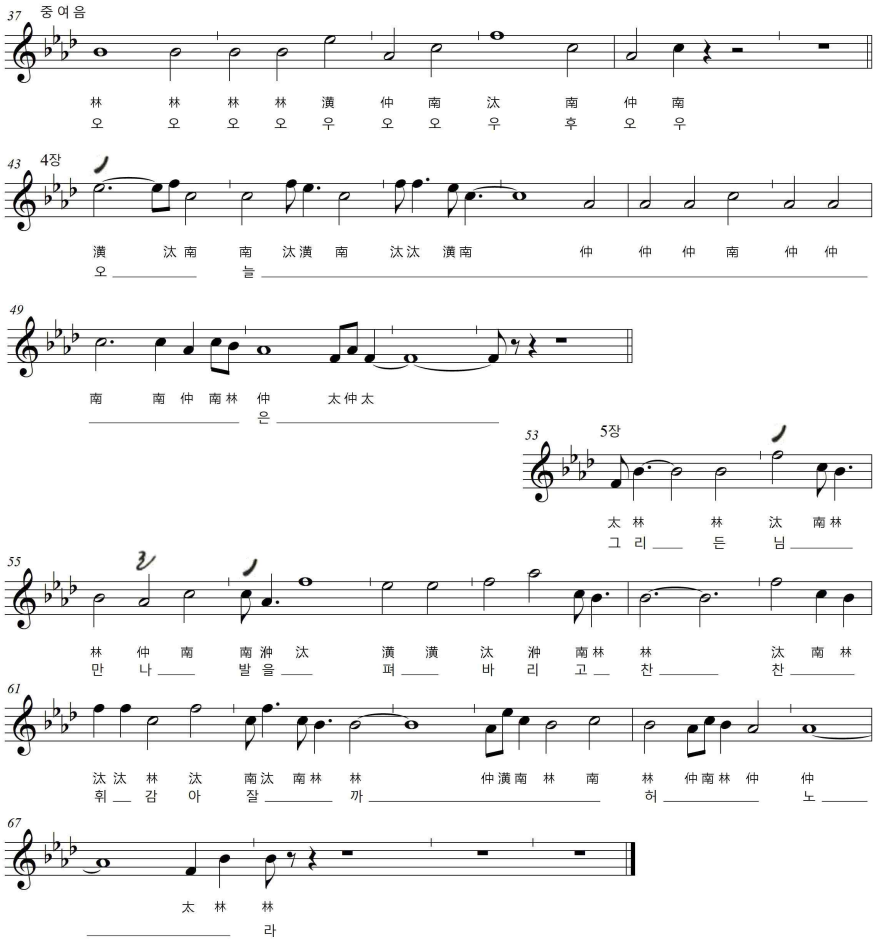
남창 우조 삼수대엽19<적토마 살지게먹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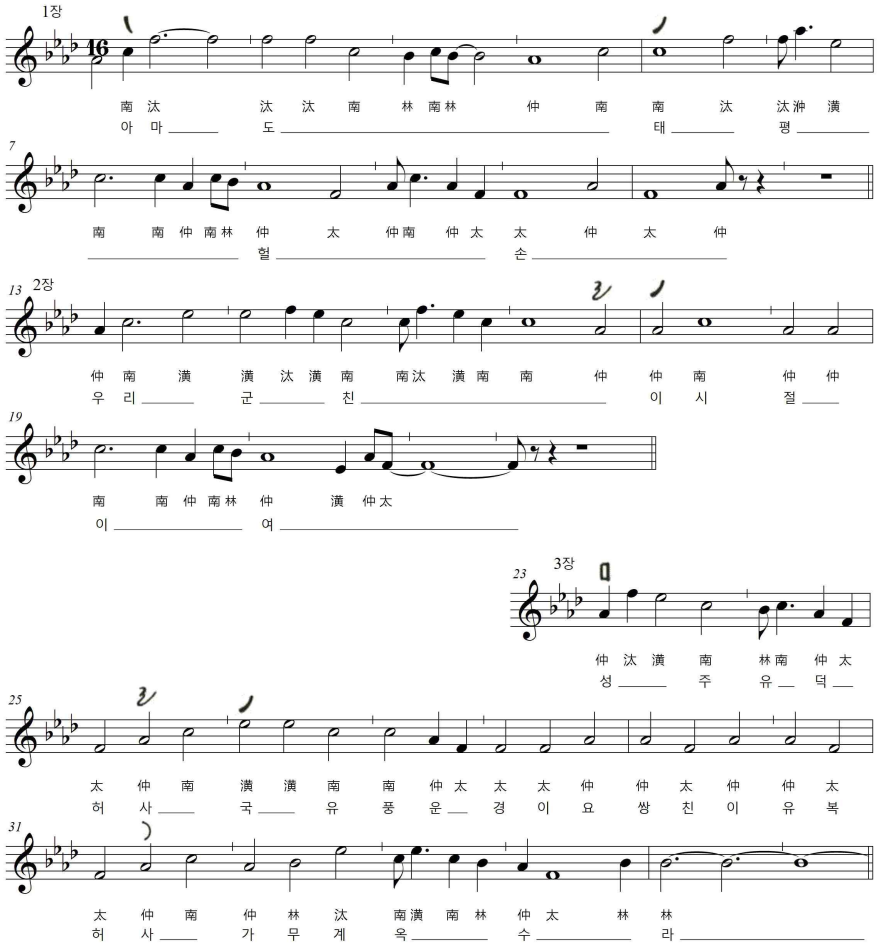

37
4장
林 林 仲林仲林 林潢 林 仲 林 南 林潢 林 仲 仲 仲
장 부 애
43
倘 太
47
5장
仲 仲 倘 太
입 신
49
黃 太倘 楙 楙 仲楙 仲楙 仲 太 黃 太倘 楙 楙 仲楙 仲楙 倘黃太 太 南 仲 仲 倘
양 명 을 시 험 헐
55
太 夾太 黃 太倘 楙 倘 楙倘 楙 倘黃倘楙 仲楙 仲楙 倘 仲 倘楙 仲 仲
까 허 노
61
仗 仗
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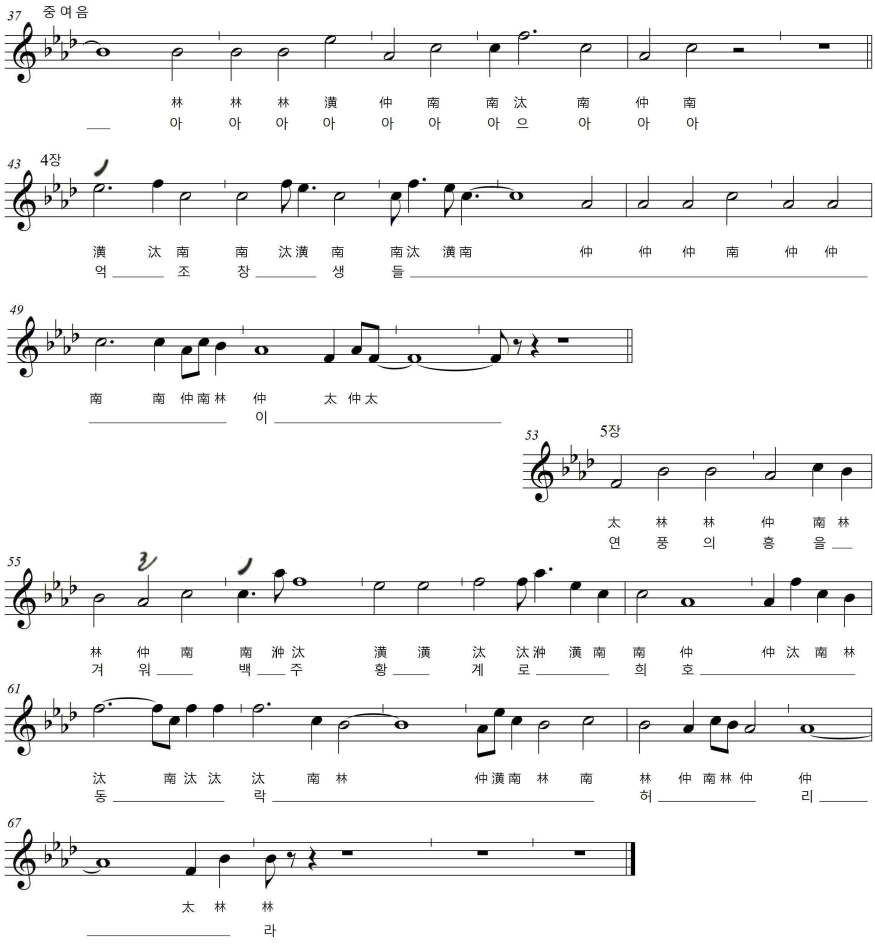
남창 우조 소용이1<어젯밤도 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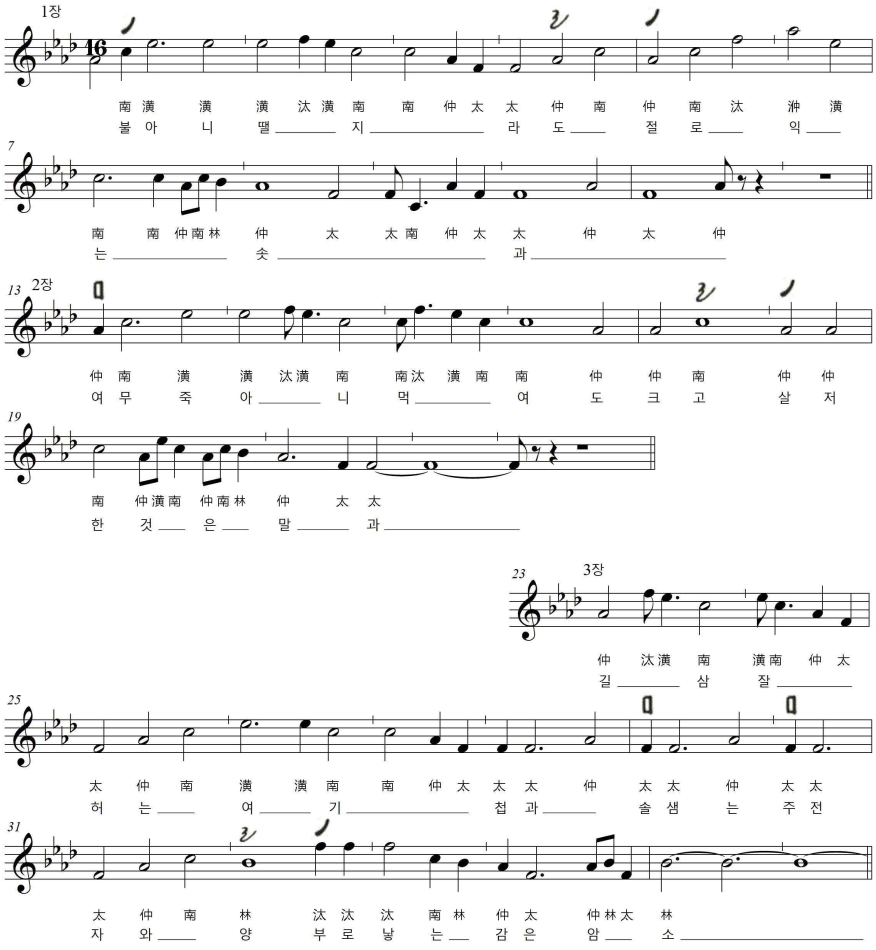

37
중여음
林 林 林 林 潢 仲 南 汰 南 仲 南
오 오 오 오 우 오 오 우 후 오 우
43
4장
潢 汰南 南 汰潢 南 汰汰 潢南 仲 仲 仲 南 仲 仲
오 늘
49
南 南 仲 南林 仲 太仲太
은
53
5장
太林 林 汰 南林
그 리 든 님
55
林 仲 南 南沖 汰 潢 潢 汰 沖 南林 林 汰 南 林
만 나 발 을 펴 바 리 고 찬 찬
61
汰汰 林 汰 南汰 南林 林 仲潢南 林 南 林 仲南林 仲 仲
휘 감 아 잘 까 허 노
67
太 林 林
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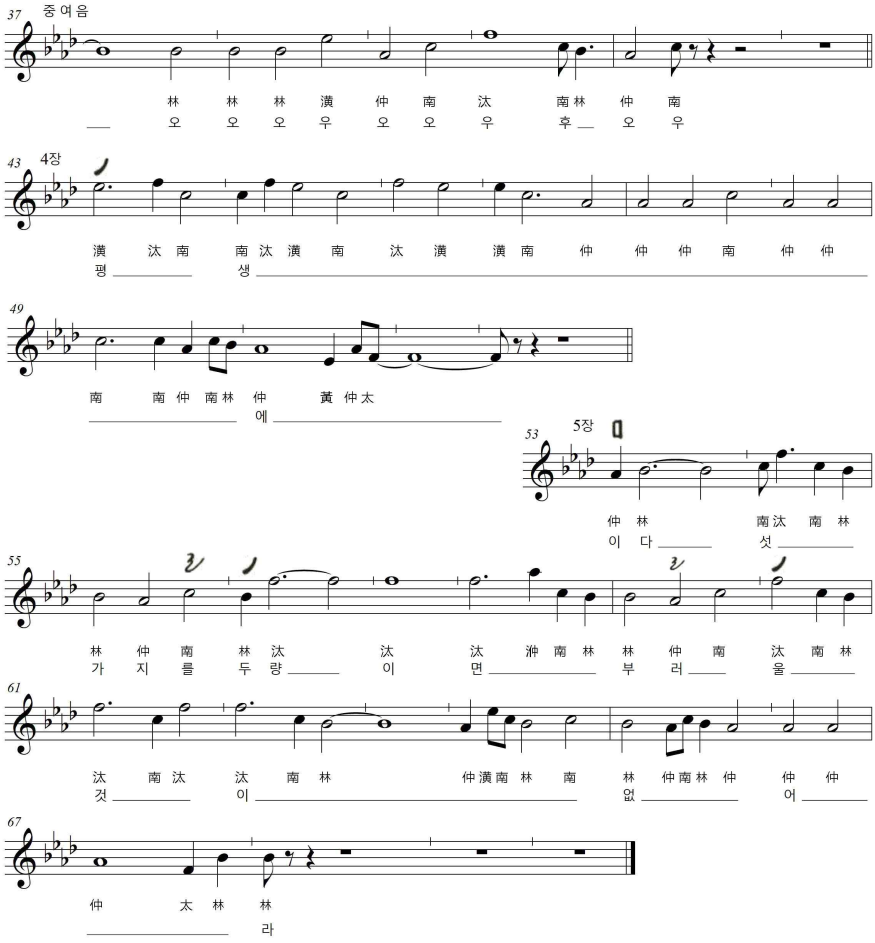
남창 우조 소용이2<아마도 태평헐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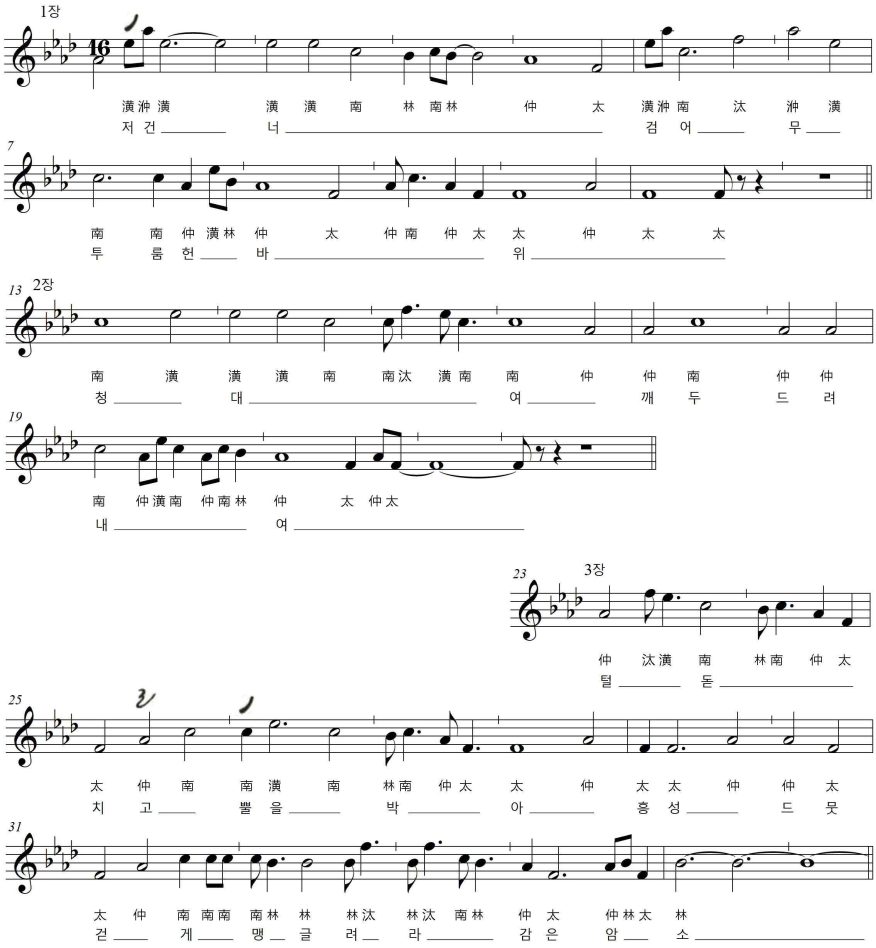

37
중여음
林 林 林 潢 仲 南 南 汰 南 仲 南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아 아 아
43
4장
潢 汰 南 南 汰潢 南 南汰 潢南 仲 仲 仲 南 仲 仲
억 조 창 생 들
49
南 南 仲南林 仲 太 仲太
이
53
5장
太 林 林 仲 南 林
연 풍 의 흥 을
55
林 仲 南 南 泮汰 潢 潢 汰 汰泮 潢 南 南 仲 仲 汰 南 林
겨 워 백 주 황 계 로 희 호
61
汰 南汰 汰 汰 南 林 仲潢南 林 南 林 仲 南林仲 仲
동 락 허 리
67
太 林 林
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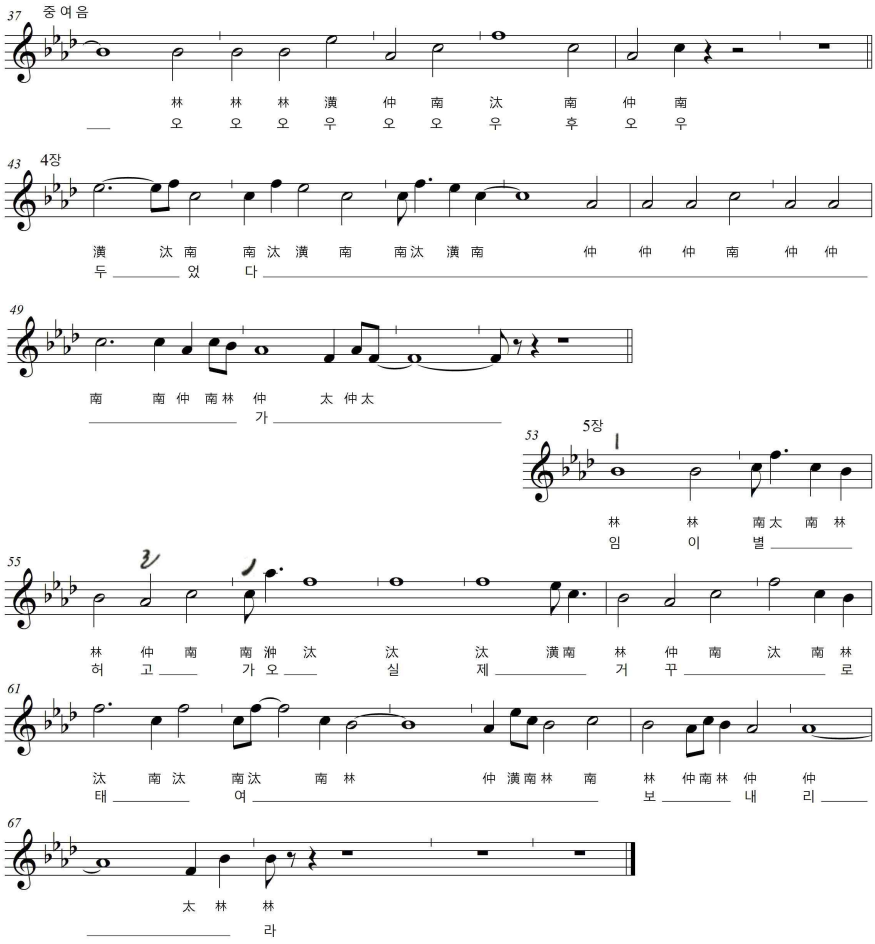
남창 우조 소용이3<불아니 땔지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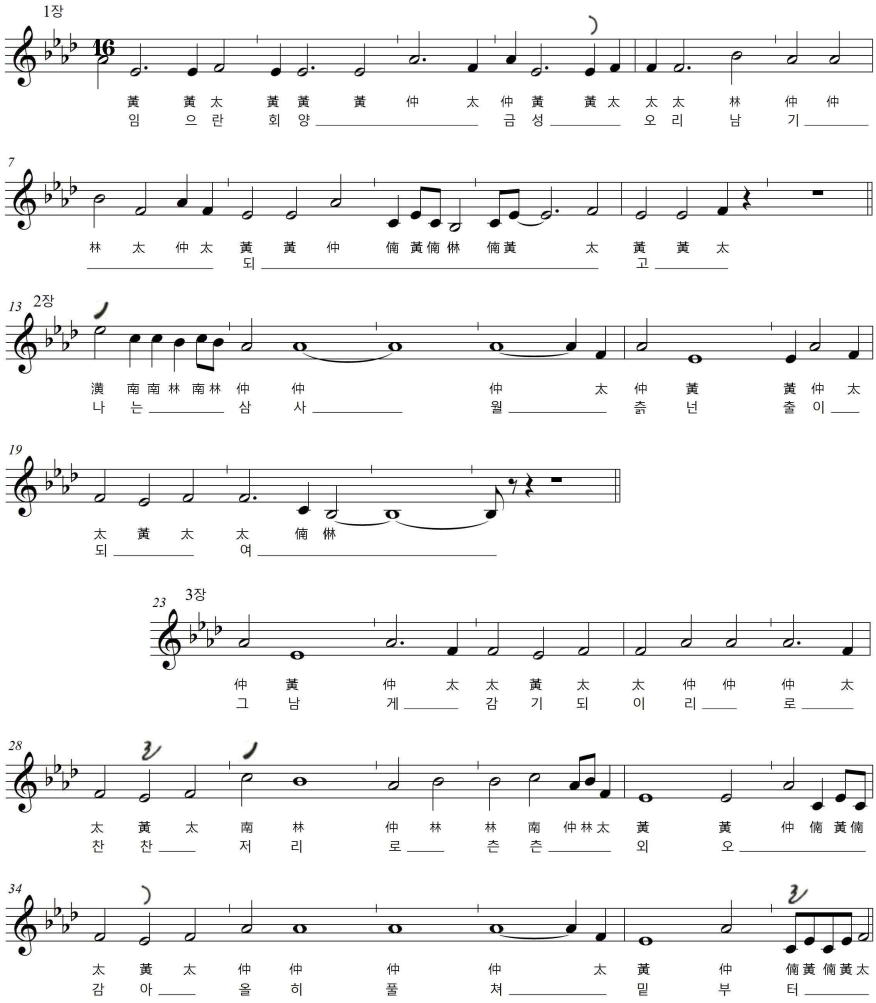

37
중여음
林 林 林 潢 仲 南 汰 南林 仲 南
오 오 오 우 오 오 우 후 오 우
43
4장
潢 汰 南 南汰 潢 南 汰 潢 潢南 仲 仲 仲 南 仲 仲
평 생
49
南 南 仲 南林 仲 黃 仲太
에
53
5장
仲 林 南汰 南 林
이 다 섯
55
林 仲 南 林 汰 汰 汰 泮 南 林 林 仲 南 汰 南 林
가 지 를 두 량 이 면 부 러 울
61
汰 南 汰 汰 南 林 仲潢南 林 南 林 仲南林 仲 仲 仲
것 이 없 어
67
仲 太 林 林
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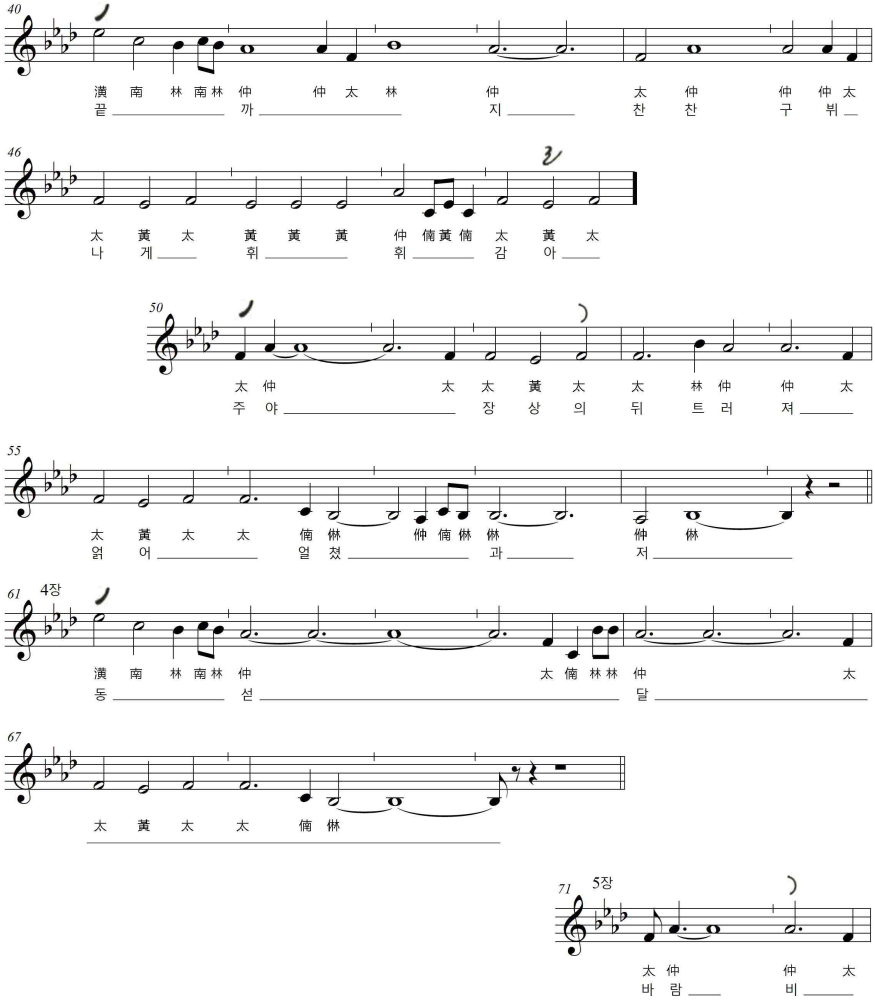
남창 우조 소용이4<저건너 검어무투룸헌 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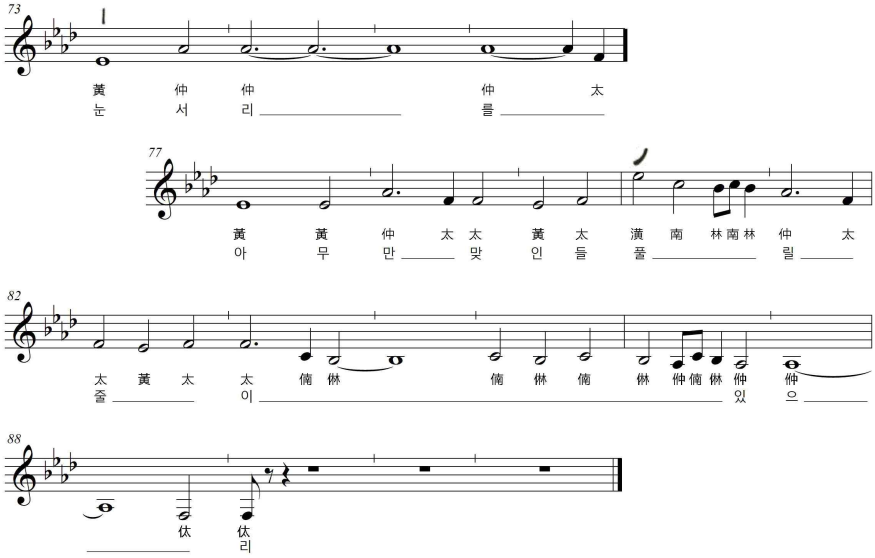



37
중여음
林 林 林 潢 仲 南 汰 南 仲 南
오 오 오 우 오 오 우 후 오 우
43
4장
潢 汰 南 南 汰 潢 南 南 汰 潢 南 仲 仲 仲 南 仲 仲
두 었 다
49
南 南 仲 南 林 仲 太 仲 太
가
53
5장
林 林 南 太 南 林
임 이 별
55
林 仲 南 南 泮 汰 汰 汰 潢 南 林 仲 南 汰 南 林
허 고 가 오 실 제 거 꾸 로
61
汰 南 汰 南 汰 南 林 仲 潢 南 林 南 林 仲 南 林 仲 仲
태 여 보 내 리
67
太 林 林
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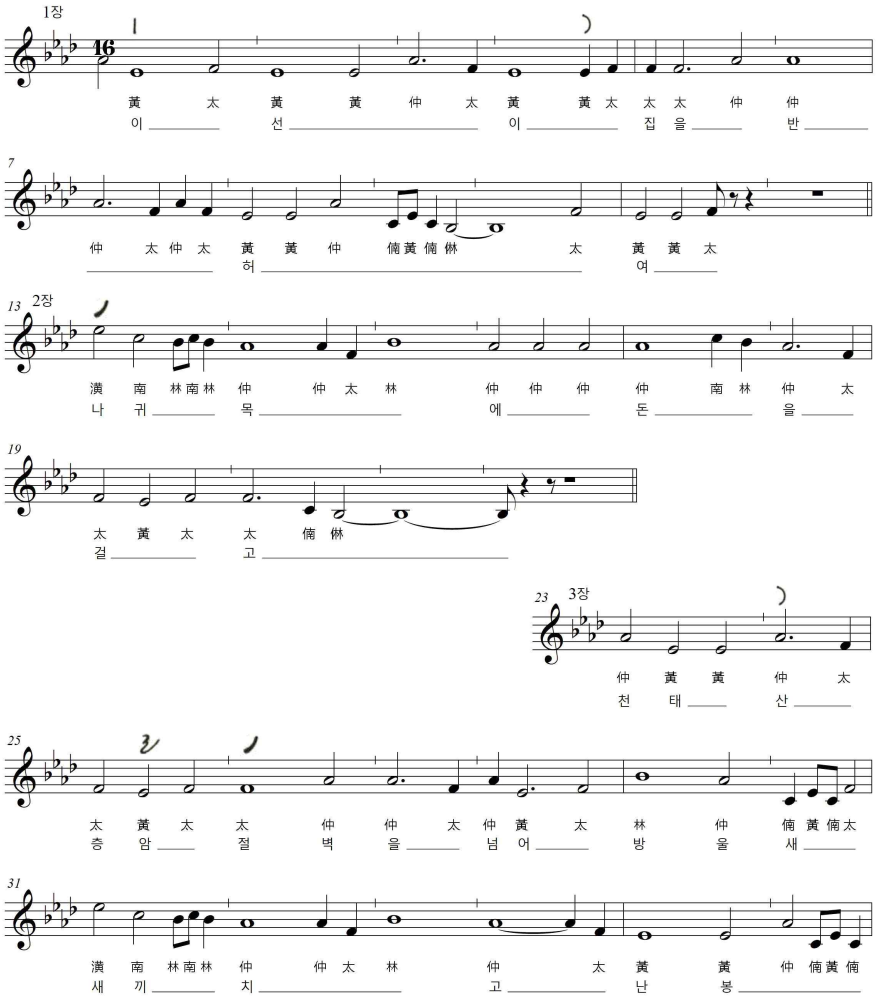
남창 우조 우락9 <임으란 회양금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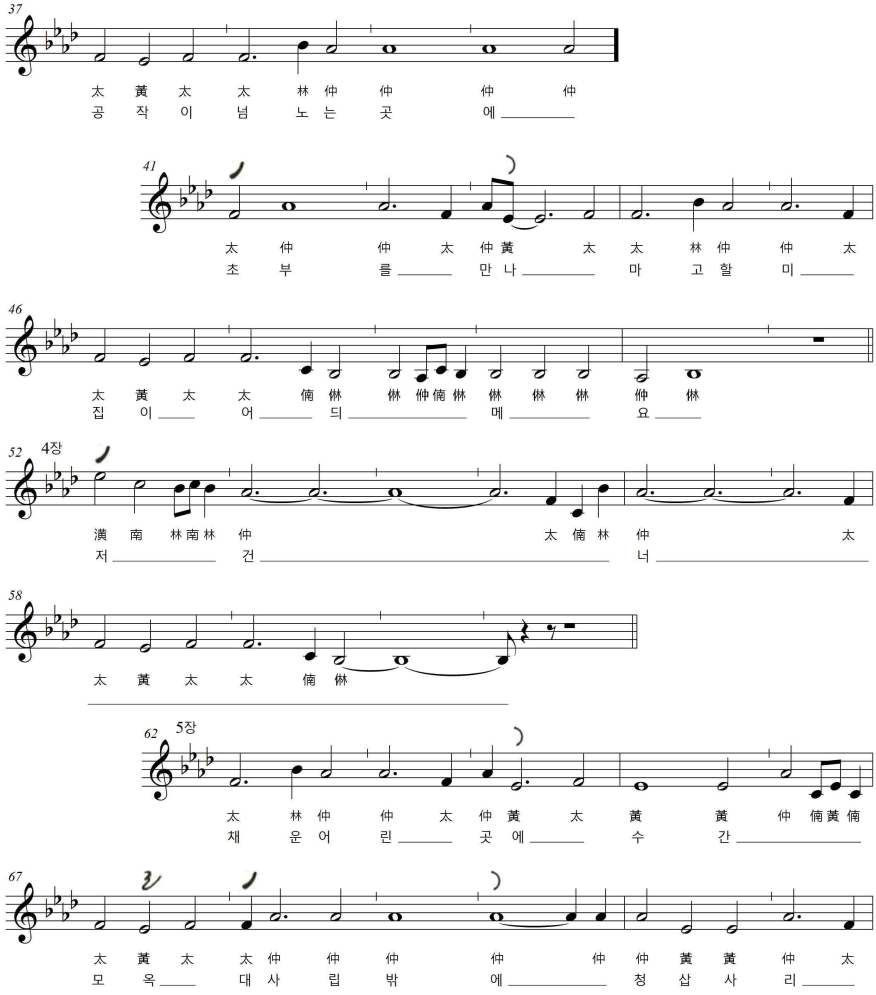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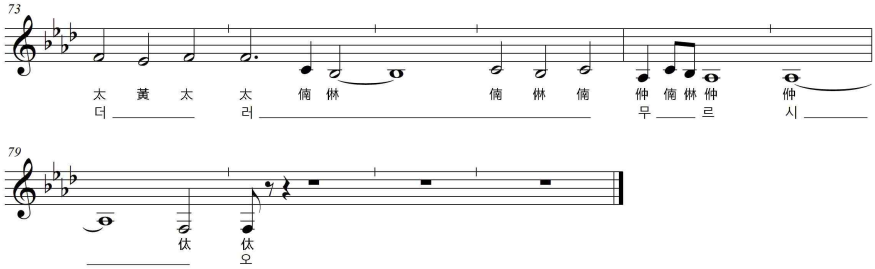

40
潢 南 林 南林 仲 仲 太 林 仲 太 仲 仲 仲 太
끝 까 지 찬 찬 구 뷔
46
太 黃 太 黃 黃 黃 仲 倘黃倘 太 黃 太
나 게 휘 휘 감 아
50
太 仲 太 太 黃 太 太 林 仲 仲 太
주 야 장 상 의 뒤 트 러 져
55
太 黃 太 太 倘 倧 仲 倘 倧 倧 仲 倧
얽 어 얼 쳤 과 저
61
4장
潢 南 林 南林 仲 太 倘 林林 仲 太
동 섣 달
67
太 黃 太 太 倘 倧
71
5장
太 仲 仲 太
바 람 비


73
黃 仲 仲 仲 太
눈 서 리 를
77
黃 黃 仲 太 太 黃 太 潢 南 林 南 林 仲 太
아 무 만 맞 인 들 풀 릴
82
太 黃 太 太 倘 淋 倘 淋 倘 淋 仲 倘 淋 仲 仲
줄 이 있 으
88
仗 仗
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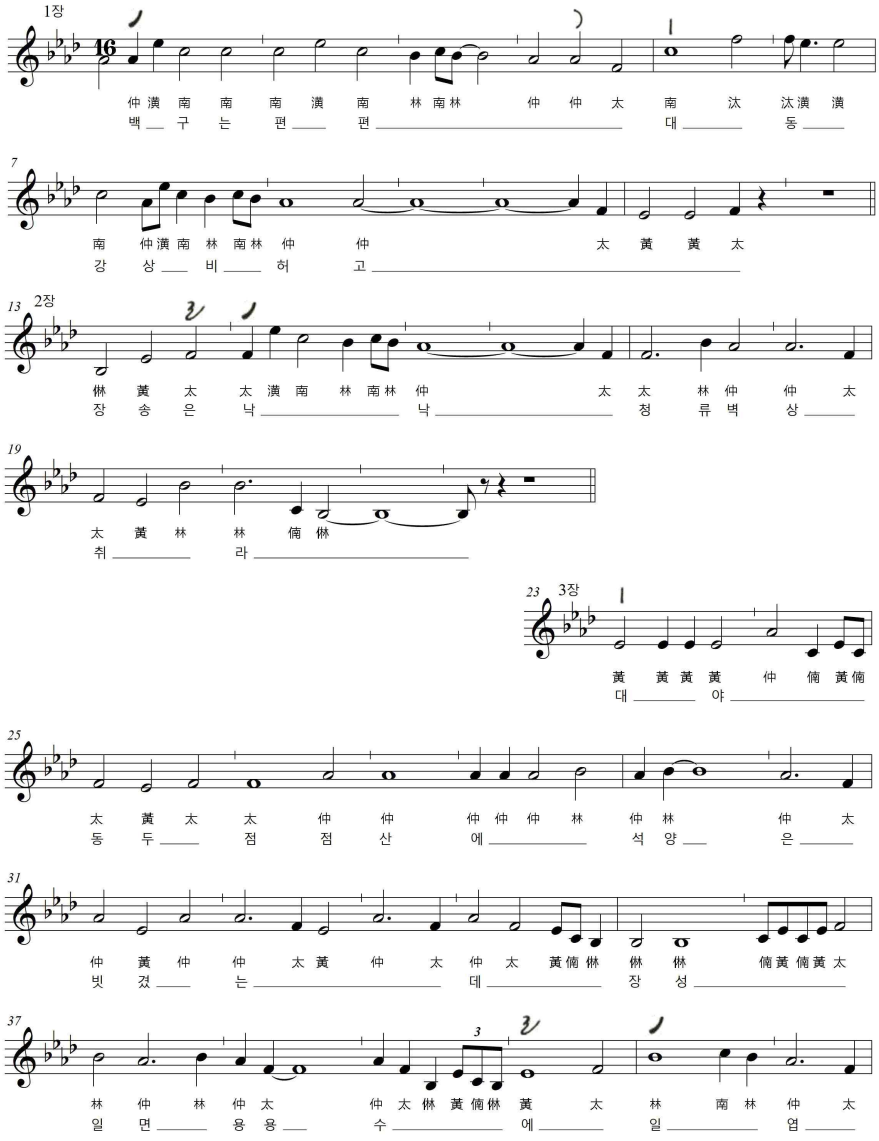
남창 우조 우락13 <이선이 집을 반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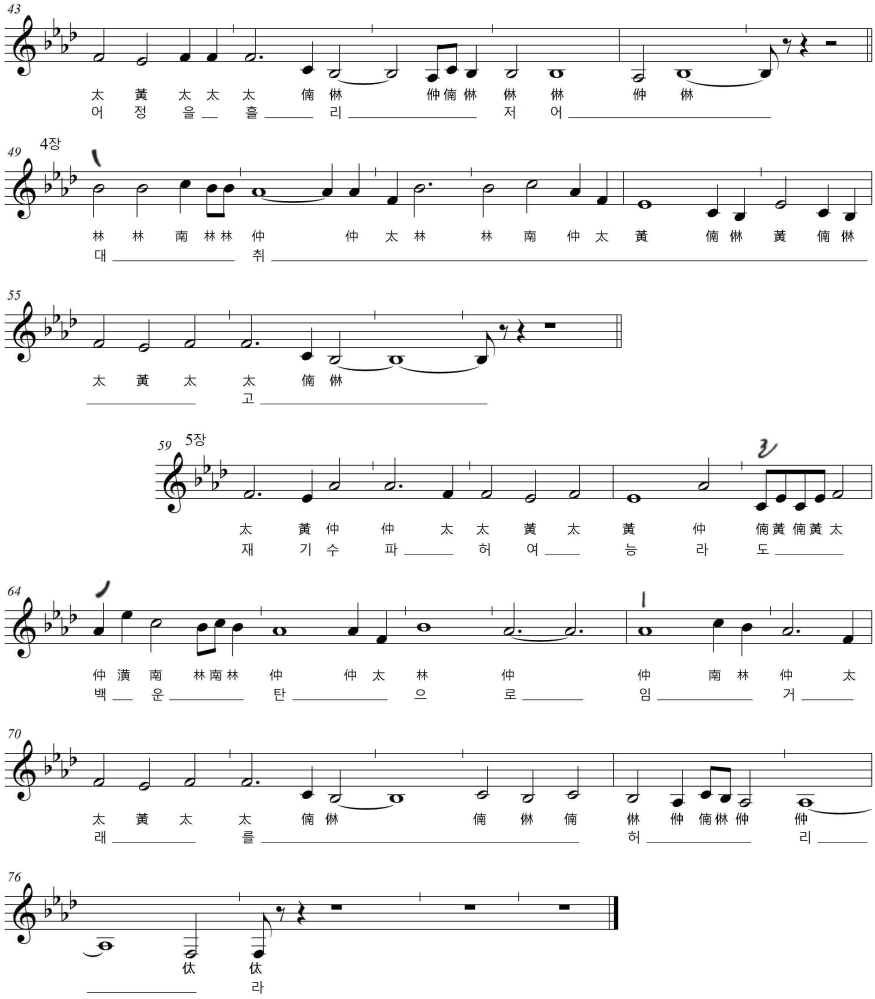



37
太 黃 太 太 林 仲 仲 仲 仲
공 작 이 넘 노 는 곳 에
41
太 仲 仲 太 仲 黃 太 太 林 仲 仲 太
초 부 를 만 나 마 고 할 미
46
太 黃 太 太 倚 倅 倅 仲 倚 倅 倅 倅 倅 仲 倅
집 이 어 듸 메 요
52
4장
潢 南 林 南 林 仲 太 倚 林 仲 太
저 건 너
58
太 黃 太 太 倚 倅
62
5장
太 林 仲 仲 太 仲 黃 太 黃 黃 仲 倚 黃 倚
채 운 어 린 곳 에 수 간
67
太 黃 太 太 仲 仲 仲 仲 仲 仲 黃 黃 仲 太
모 옥 대 사 립 밖 에 청 삽 사 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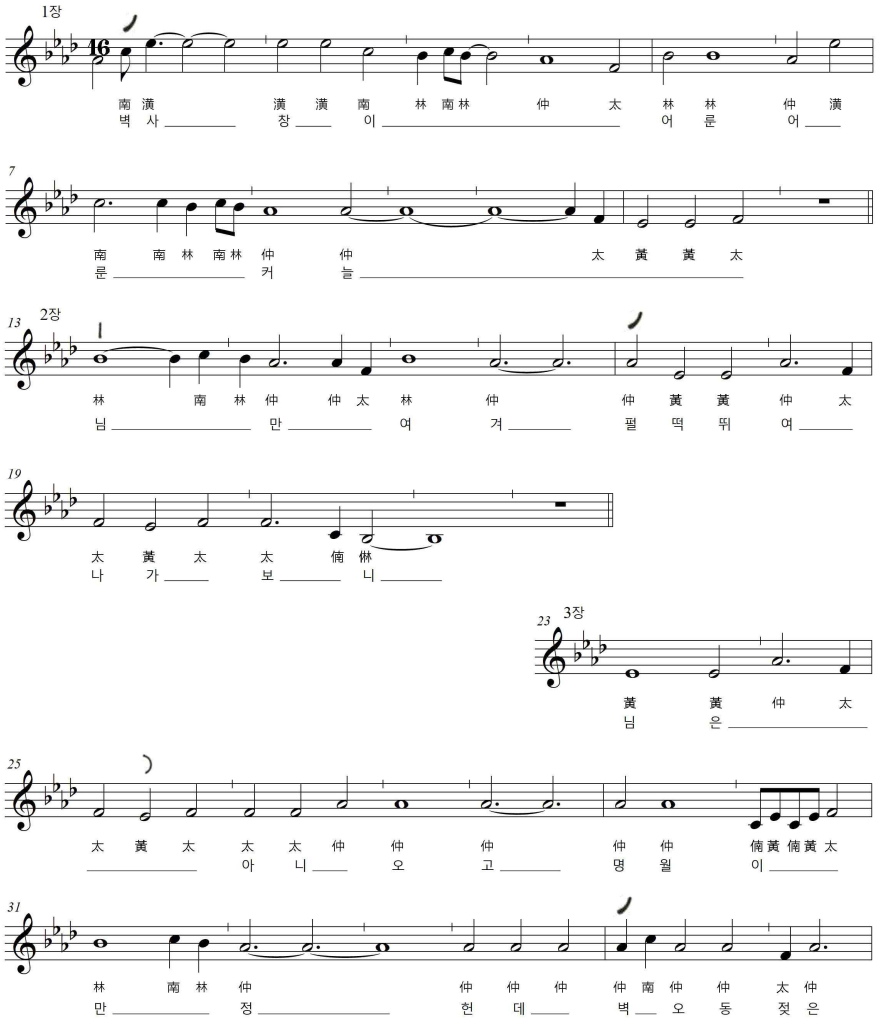

73
太 黃 太 太 倘 琳 倘 琳 倘 仲 倘 琳 仲 仲
더 러 무 르 시
79
仗 仗
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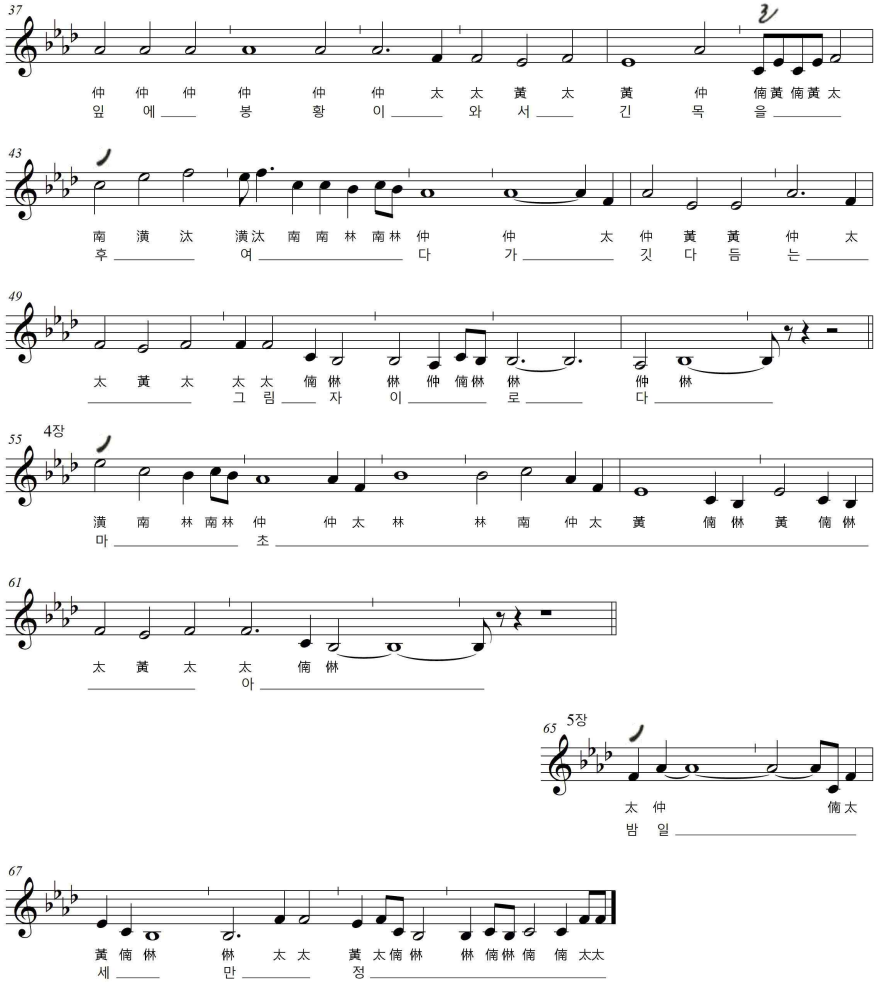
남창 우조 언락3 <백구는 편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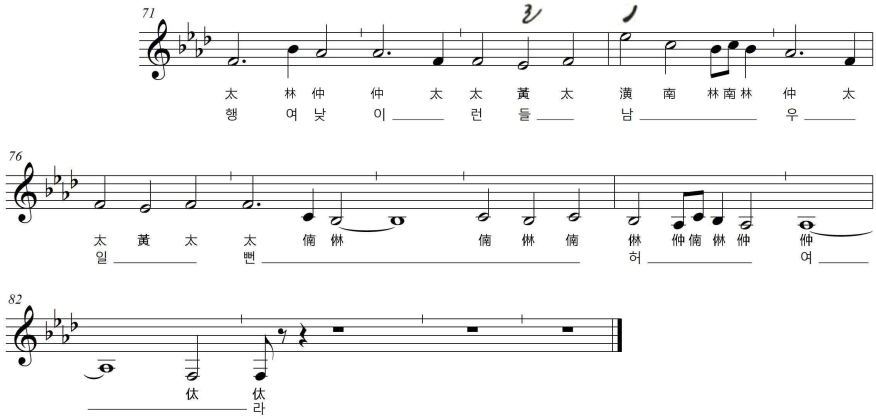



43
太 黃 太 太 太 倘 㑹 仲倘 㑹 㑹 㑹 仲 㑹
어 정 을 흘 리 저 어
49
4장
林 林 南 林林 仲 仲 太 林 林 南 仲 太 黃 倘 㑹 黃 倘 㑹
대 취
55
太 黃 太 太 倘 㑹
고
59
5장
太 黃 仲 仲 太 太 黃 太 黃 仲 倘黃 倘黃 太
재 기 수 파 허 여 능 라 도
64
仲 潢 南 林南林 仲 仲 太 林 仲 仲 南 林 仲 太
백 운 탄 으 로 임 거
70
太 黃 太 太 倘 㑹 倘 㑹 倘 㑹 仲 倘㑹 仲 仲
래 를 허 리
76
仗 仗
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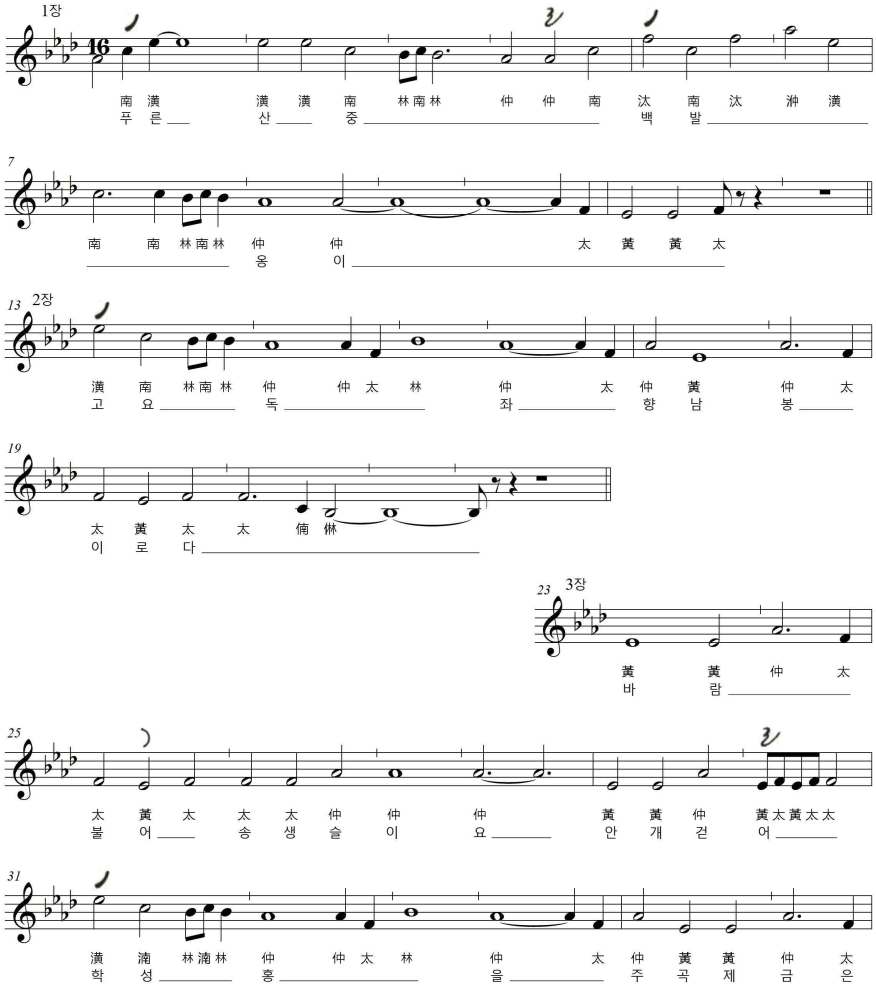
남창 우조 언락6 <벽사창이 어룬어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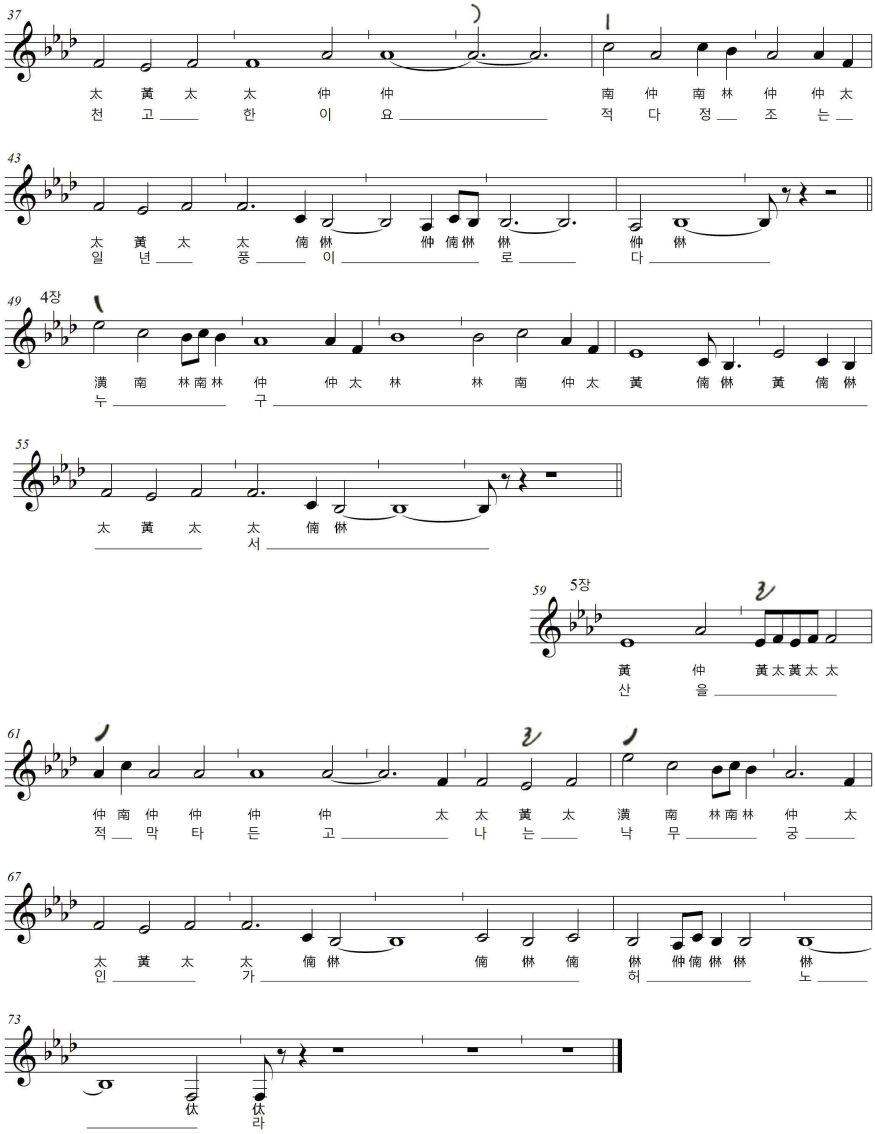



37
仲 仲 仲 仲 仲 仲 太 太 黃 太 黃 仲 倘黃倘黃太
잎 에 봉 황 이 와 서 긴 목 을
43
南 潢 汰 潢汰 南 南 林 南林 仲 仲 太 仲 黃 黃 仲 太
후 여 다 가 깃 다 듬 는
49
太 黃 太 太 太 倘 琳 琳 仲 倘琳 琳 仲 琳
그 림 자 이 로 다
55
4장
潢 南 林 南林 仲 仲 太 林 林 南 仲 太 黃 倘 琳 黃 倘 琳
마 초
61
太 黃 太 太 倘 琳
아
65
5장
太 仲 倘太
밤 일
67
黃 倘 琳 琳 太 太 黃 太倘 琳 琳 倘琳 倘 倘 太太
세 만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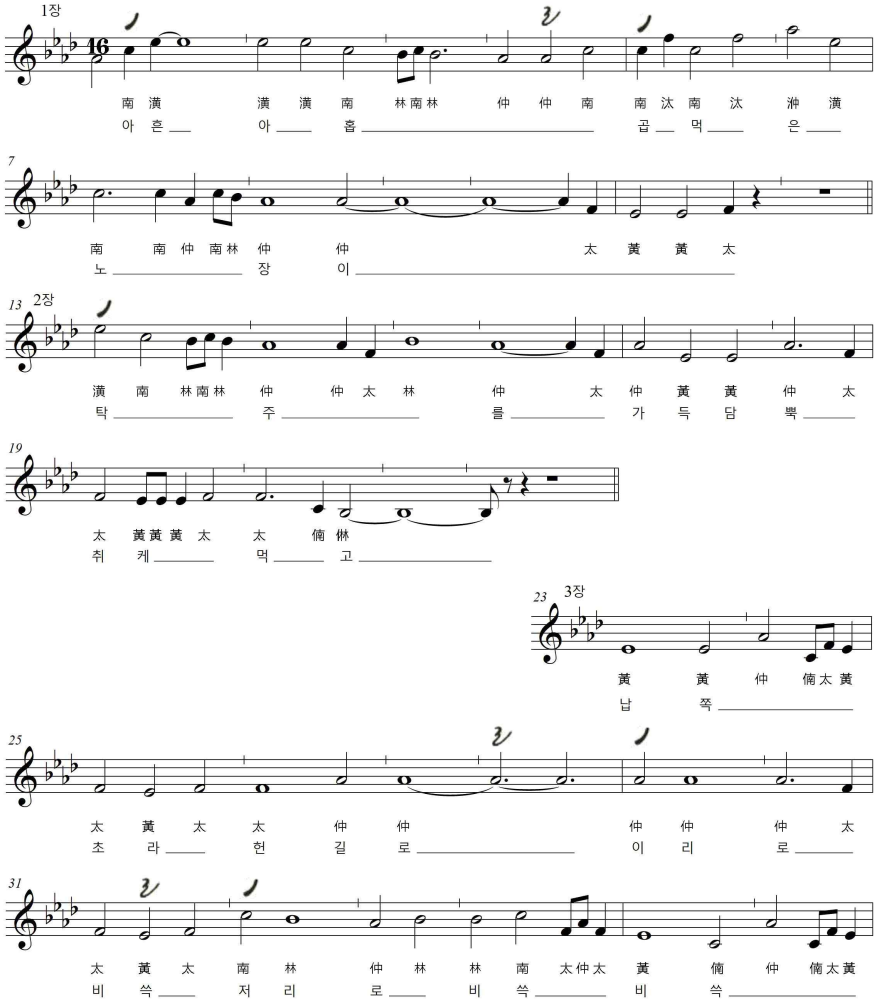

71
太 林 仲 仲 太 太 黃 太 潢 南 林南林 仲 太
행 여 낮 이 런 들 남 우
76
太 黃 太 太 倘 倧 倘 倧 倘 倧 仲倘 倧 仲 仲
일 뻔 허 여
82
仗 仗
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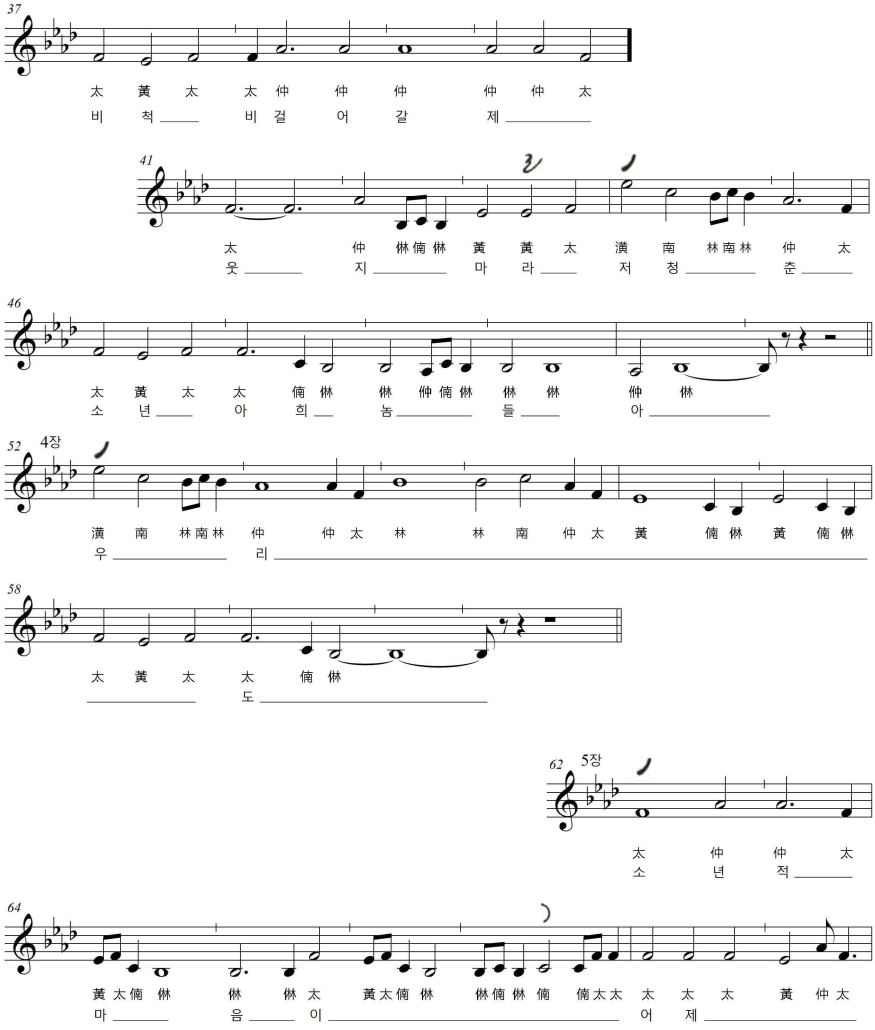
남창 우조 언락8 <푸른산중 백발옹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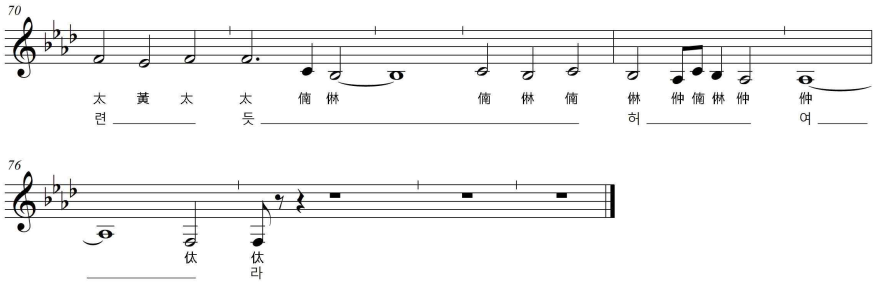



37
太 黃 太 太 仲 仲 南 仲 南 林 仲 仲 太
천 고 한 이 요 적 다 정 조 는
43
太 黃 太 太 倘 林 仲 倘 林 林 仲 林
일 년 풍 이 로 다
49
4장
潢 南 林 南 林 仲 仲 太 林 林 南 仲 太 黃 倘 林 黃 倘 林
누 구
55
太 黃 太 太 倘 林
서
59
5장
黃 仲 黃 太 黃 太 太
산 을
61
仲 南 仲 仲 仲 仲 太 太 黃 太 潢 南 林 南 林 仲 太
적 막 타 든 고 나 는 낙 무 궁
67
太 黃 太 太 倘 林 倘 林 倘 林 仲 倘 林 林 林
인 가 허 노
73
伏 伏
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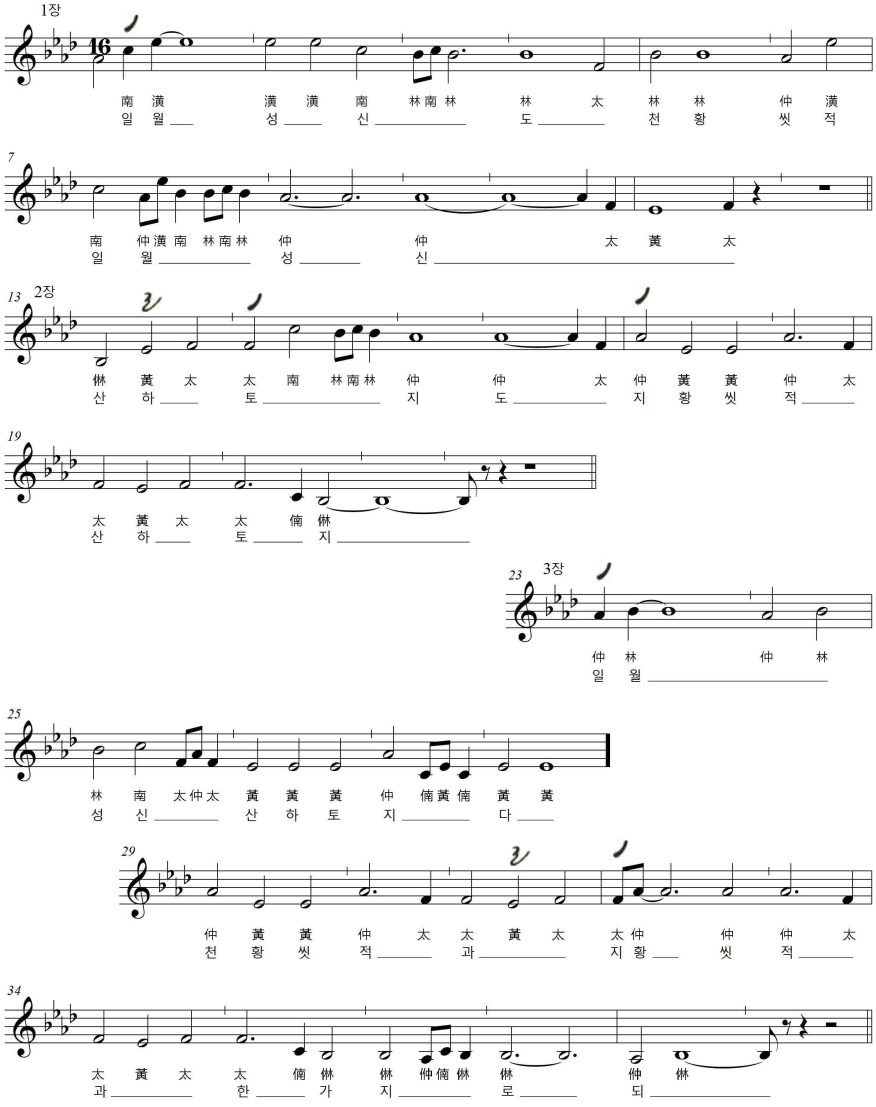
남창 우조 언락20 <아흔아홉 곱먹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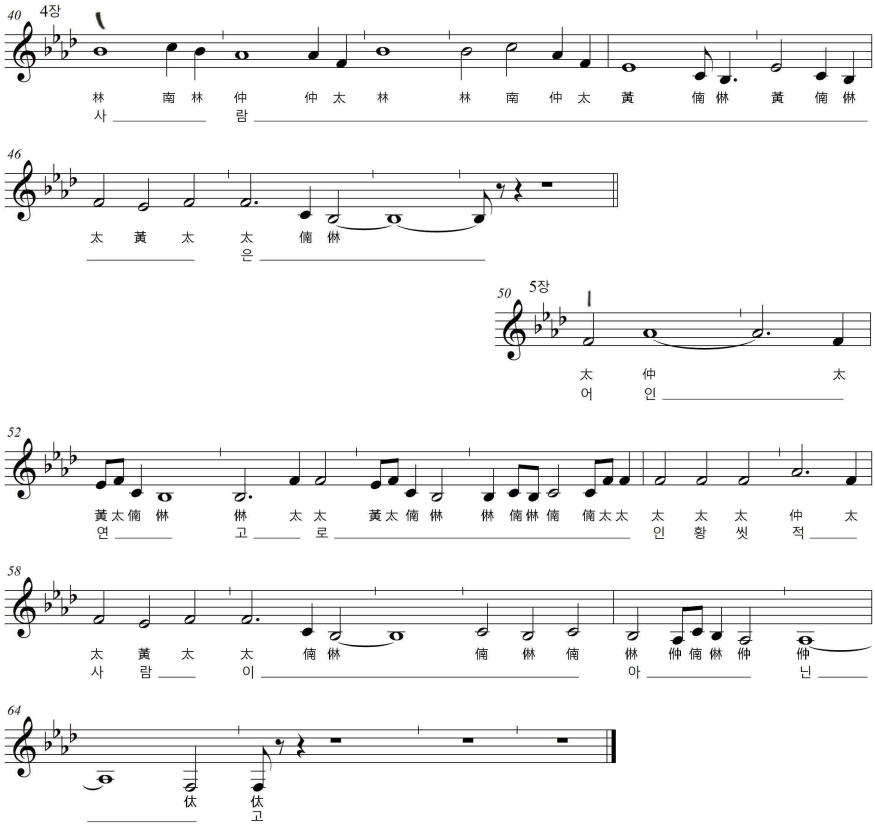



37
太 黃 太 太 仲 仲 仲 仲 仲 太
비 척 비 걸 어 갈 제
41
太 仲 倞 倘 倞 黃 黃 太 潢 南 林 南 林 仲 太
옷 지 마 라 저 청 춘
46
太 黃 太 太 倘 倞 倞 仲 倘 倞 倞 倞 仲 倞
소 년 아 희 놈 들 아
52
4장
潢 南 林 南 林 仲 仲 太 林 林 南 仲 太 黃 倘 倞 黃 倘 倞
우 리
58
太 黃 太 太 倘 倞
도
62
5장
太 仲 仲 太
소 년 적
64
黃 太 倘 倞 倞 倞 太 黃 太 倘 倞 倞 倘 倞 倘 倘 太 太 太 太 太 黃 仲 太
마 음 이 어 제


70
太 黃 太 太 倘 林 倘 林 倘 林 仲 倘 林 仲 仲
련 듯 허 여
76
仗 仗
라

남창 우조 언락25 <일월성신도 천황씻적>




40
4장
林 南 林 仲 仲 太 林 林 南 仲 太 黃 倘 倧 黃 倘 倧
사 람
46
太 黃 太 太 倘 倧
은
50
5장
太 仲 太
어 인
52
黃太倘 倧 倧 太 太 黃太倘 倧 倧 倘倧倘 倘太太 太 太 太 仲 太
연 고 로 인 황 씻 적
58
太 黃 太 太 倘 倧 倘 倧 倘 倧 仲倘倧 仲 仲
사 람 이 아 닌
64
仗 仗
고

ABSTRACT

An analysis of melody forms of Yeoneumpyo in Namchang Ujo Gagok

Heo Yoonjae
Major in Korean Music(Haegeum)
Department of Music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dissertation explores the rules of melody forms－which vary based on the saseol (lyrics) of Isudaeyeop and its variations, Chosudaeyeop/Samsudaeyeop, Soyong-i, Urak/Eollak from Namchang Ujo Gagok－in regards to the yeoneumpyo notation system in Gagokwollyu and Hagyuilbo. My conclusion is as follows.

First, the following describ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yeoneumpyo for pitch indication and the yeoneumpyo for verse connection (yeongyeolhyeong) in each composition: In the case of the yeoneumpyo for pitch indication, “deuneunpyo” (to raise) was commonly used for high notes, “magnaeneupyo“ (to roughly play) for middle notes, and “nureuneunpyo” (to press) for low notes. In terms of the melodies in which deuneunpyo and magnaeneunpyo were notated, the beginning note of Chosudaeyeop was higher than that of

Ujo Isudaeyeop and its variations; the highest beginning note was that of Soyong-i. Also, Soyong-i showed a unique style in a sense that the yeoneumpyo was notated in a bak that did not appear in Isudaeyeop and its variations, Chosudaeyeop, and Samsudaeyeop. It is assumed that the use of yeoneumpyo had changed, following sijo's transition from pyeongsijo to saseolsijo. A deuneunpyo in Urak was featured in the beginning note of both Chosudaeyeop and Isudaeyeop and its variations. The beginning note with a magnaeneunpyo in Urak was lower than that of Chosudaeyeop and Isudaeyeop and its variations. The beginning notes and melody forms notated with the two yeoneumpyo types featured more diverse forms in Chosudaeyeop than Samsudaeyeop; in Urak than Eollak; and in chodu or ilgak than idu. In the third and fifth jang's ilgak in Urak and Eollak, the saseol expanded, and the melody forms of deuneunpyo were notated the most. Nureuneunpyo also showed similarity with deuneunpyo and magnaeneunpyo. However, from Samsudaeyeop, it was impossible to identify the melody forms because no nureuneunpyo was notated, except in chojang's chodu in Soyong-i and in the fourth jang in Eollak.

In the case of the yeoneumpyo for verse connection, deunheulimpyo were mostly featured in ascending tonal forms when the melodies were connected via deuneunpyo. The note that featured yeoneumpyo was either lower than a note that featured deuneunpyo or equivalent to a note that featured magnaeneunpyo, with both ascending and descending melody forms. Moreover, as the composition became faster, the tonal form became simpler. The beginning notes of Isudaeyeop and its variations were higher than that of Chosudaeyeop and Samsudaeyeop, and the highest note was found in Soyong-i, demonstrating the same characteristics as the yeoneumpyo for pitch indication. The tonal form of the yeoneumpyo for verse connection

was featured in that of yoseong (a shaking sound) in Isudaeyeop and its variations, Chosudaeyeop, and Samsudaeyeop, but not in Soyong-i. Urak started from a note with yoseong, which was higher than that of Isudaeyeop and its variations but lower than that of Chosudaeyeop and Samsudaeyeop.

Second, based on my research above, I have investigated the melody forms that were either the same or similar with each other depending on their yeoneumpyo. The following is the outcome of my research: Chojang's chodu functioned as an indicator that differentiated each variation, because the characteristics of each variation were distinctive from one another based on their yeoneumpyo. The only exception was the similar melody forms of deuneunpyo in Samsudaeyeop and Eollak and nureuneunpyo in Isudaeyeop and Junggeo. Chojang's idu with deuneunpyo in Samsudaeyeop, Soyong-i, and Eollak featured similar melody forms with one another.

The melody forms of deuneunpyo in the second jang's chodu were categorized into those of Chosudaeyeop, Urak, and Eollak and those of Isudaeyeop and Pyeonggeo; the melody forms of magnaeneunpo were divided into those of Isudaeyeop and Junggeo and those of Samsudaeyeop and Eollak. The second jang's idu featured all different types of melody forms based on the yeoneumpyo in each composition. However, I found the correlation between Dugeo and Samsudaeyeop, as implied in their identical melody forms of deuneunpyo in Dugeo and nureuneupyo in Samsudaeyeop, respectively. Deuneunpyo in Junggeo were also featured in all compositions of Isudaeyeop and its variations, except Dugeo. However, because a yeoneumpyo was absent, it was difficult to make a conclusion regarding the possibilities of miswriting or omission.

In the first bak of the third jang's ilgak, magnaeneunpyo were featured in an identical melody form in Chosudaeyeop and

Samsudaeyeop. In the sixth bak in ilgak, deuneupyo were featured in two distinctive melody forms—those of Isudaeyeop, Pyeonggeo, and Dugeo and those of Chosudaeyeop and Samsudaeyeop; magnaeneunpyo were featured in an identical melody form in Chosudaeyeop and Samsudaeyeop. This is extended to the melody form of the third jang's ilgak—the melody form of the deuneupyo in the sixth bak of the third jang's extended ilgak in Urak was similar to that of the deuneupyo in the sixth bak of the third jang's extended ilgak in Chosudaeyeop and Samsudaeyeop. The deneunpyo in the extended ninth bak of the third jang's ilgak was featured in an identical melody form in Urak and Eollak when it began with the note 南 (nam); the melody form started with the note 太 (tae) was similar to that of the deuneumpyo in the ninth bak of the third jang's ilgak in Samsudaeyeop. The melody form of the deuneunpyo notated in the ban-gak in Urak also showed similarities with that of Samsudaeyeop. The melody form of the deuneunpyo in the third jang's idu in Junggeo was identical with that of Eollak. Pyeonggeo, Dugeo, Samsudaeyeop, and Soyong-i featured the identical melody form of magnaeneunpyo.

The fourth jang featured deuneunpyo and nureuneunpyo. Deuneunpyo were featured in two melody forms, one in Isudaeyeop, Junggeo, Pyeonggeo, Dugeo, Samsudaeyeop and the other in Chosudaeyeop, Urak, and Eollak—that of Soyong-i was differentiated from other compositions. Nureuneunpyo were featured in three melody forms—one in Isudaeyeop, Junggeo, and Pyeonggeo, the other in Samsudaeyeop, and the last in Eollak. Because Dugeo, Chosudaeyeop, Soyong-i, and Urak had no saseol with nureuneunpyo, it was impossible to analyze the melody forms.

The deuneunpyo in the first bak of the fifth jang's ilgak in Isudaeyeop, Junggeo, Pyeonggeo, Chosudaeyeop, Samsudaeyeop, and

Eollak were featured either in an identical or similar melody form with one another; its melody form was also identical with that of magnaeneunpyo in Eollak. Nureuneunpyo were notated in the first bak of the third and fifth jang's ilgak in Chosudaeyeop and Samsudaeyeop; the similarity among their melody forms implied correlations. The melody forms of the deuneunpyo in the sixth bak of the fifth jang's ilgak of Chosudaeyeop and Dugeo were identical; The melody forms of the deuneunpyo in Eollak were identical with that of the sixth bak in the third jang's ilgak in Samsudaeyeop. The melody forms of the magnaeneunpyo in Pyeonggeo and Samsudaeyeop showed similarities with each other. Based on this analysis, I investigated the melody form of the fifth jang's extended ilgak—the first bak of the fifth jang's ilgak in Eollak featured a deuneunpyo, and its melody form was identical with that of the deuneunpyo in the first bak of the fifth jang's unextended ilgak. The melody form of the deuneunpyo in the sixth bak in the fifth jang's extended ilgak in Eollak was similar to that of the sixth bak in the third jang's ilgak in Chosudaeyeop and Samsudaeyeop. The melody form of the deuneunpyo in the ninth bak of the fifth jang's extended ilgak in Urak was identical with that of the deuneunpyo in the ninth bak of the third jang's ilgak in Samsudaeyeop. The melody form of the deuneumpyo in the fifth jang's idu in Urak and Eollak was equivalent to that of Junggeo, Pyeonggeo, and Samsudaeyeop, except Eollak that featured magnageneunpyo.

In sum, yeoneumpyo, which indicates the pitch notated in Gagokwollyu, is not simply about notes but melody forms. Thus, each yeoneumpyo allows us to analyze melody forms based on each composition. Melody forms with the same yeoneumpyo can be performed in various ways, because the yeoneumpyo notation is rather understood in a subjective sense. Moreover, the beginning note

tended to go higher in general. This tendency was more prevalent when the composition was faster and/or had more saseol.

Melody forms with the yeoneumpyo for verse connection became simpler in faster compositions. I argue that the functions of the the two yeoneumpyo types are reduced, as the number of saseol increased from Soyong-i while the speed of the composition also increased. Moreover, when the beginning note of the yeoneumpyo for pitch indication tended to go higher, the yeoneumpyo for verse connection also went higher.

Even though yeoneumpyo were notated in a subjective sense, the melody forms of the three yeoneumpyo for pitch indication were either identical or similar, implying the correlations among the compositions. The melody forms in each jang's chodu or ilgak showed correlations within the same variations; in the meantime, those in idu of different variations were identical with one another, implying correlations among the compositions. Further investigation is needed, since there are cases in which different yeoneumpyo notated in idu demonstrate the same melody forms.

This project has investigated Namchang Ujo Gagok notated in Hagyuilbo from saseol recorded in Gagokwollyu. Although this study requires further research, my dissertation will contribute to the studies in Namchang and Yeochang Gagok.

Keywords: Namchanggagok, Ujo, Gagokwollyu, Hagyuwilbo, Yeoneumpyo
Student Number: 2013-30529